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소성진중일지 번역·해제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4년 11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소성진중일지

번역·해제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4년 11월

소성진중일지

번역·해제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4년 11월

제 출 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귀중

본 보고서를
『소성진중일지』 번역·해제 학술연구 용역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11.

기 관 명: ㈜ 만 월
참여 연구진:
책임연구원 김대길
연 구 원 민장원
연 구 원 박소희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邵城軍中日記』이다.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을 따르고,
   한글 어휘는 '표준어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하나의 기사를 번역문을 앞에 두고, 다음에 원문 순으로 편집하였다.
4. 각주는 번역문에 표기하여 처리하였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간행본 책명 및 전적류를 묶는다.
   「 」: 책의 편명 및 운문과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원문 誤字 교감
   ○ : 일기에서 날짜 앞, 글의 제목 앞에 표기
   ■ : 원문 誤字



목 차

일러두기 ····· 4

『소성진중일지(邵城軍中日記)』 해제 ····· 11

인천진중일기 ····· 23

1871년(고종 8) 4월 ····· 24

초6일 ····· 27

초7일 ····· 34

초8일 ····· 38

초9일 ····· 40

초10일 ····· 41

11일 ····· 42

12일 ····· 44

13일 ····· 47

14일 ····· 51

15일 ····· 52

16일 ····· 53

17일 ····· 54

18일 ····· 57

19일 ····· 58

20일 ····· 59

21일 ····· 63

22일 ····· 65

23일 ····· 74

24일 ····· 82
25일 ····· 86
26일 ····· 89
27일 ····· 94
28일 ····· 95
29일 ····· 96
30일 ····· 97
1871년(고종 8) 5월 ····· 98
초1일 ····· 98
초2일 ····· 99
초3일 ····· 100
초4일 ····· 106
초5일 ····· 111
초6일 ····· 114
초7일 ····· 116
초8일 ····· 117
초9일 ····· 118
초10일 ····· 119
11일 ····· 120
12일 ····· 121
13일 ····· 122
14일 ····· 124
15일 ····· 127
16일 ····· 131
17일 ····· 133

18일 ····· 136
19일 ····· 139
20일 ····· 144
21일 ····· 148
22일 ····· 151
23일 ····· 154
인천 별무사청(別武士廳) 주련(珠聯) ····· 171
소성부포계(邵城府砲稧) 서(序) ····· 175
적이 물러난 후 운현궁에 올린 글 ····· 185
소성 태수의 행적을 읊음, 76구(句). 선비 이도열(李度烈) ····· 187
소성 태수의 행적을 읊음, 55운(韻). 인천 선비 조제면(趙濟冕) ····· 192
소성 태수의 행적을 기림. 사인(士人) 정숙동(鄭肅東) ····· 197
소성 태수의 행적을 기림, 배율(排律). 사인 송일선(宋一善) ····· 200
인천가. 사인 이우항(李遇恒) ····· 203
인천 태수의 비명과 서문. 사인 조제면(趙濟冕) ····· 214
소성(邵城) 사민(士民) 등이 조정에서 오랑캐를 멀리 물리친 것을 축하하는 전문(箋文). 사인(士人) 신(申) ····· 221
또, 자회(字會)로 태수(太守)를 칭송함 ····· 224
소성태수행(邵城太守行) 배율(排律) ····· 225
사질(舍侄)에게 보낸 서신(書信) ····· 229
군장기(群場記) ····· 231
족제(族弟) 만식(晩植) 연명(然明)에게 줌 ····· 233
선부군(先府君) 효행서(孝行書)를 사질(舍姪)에게 보여 줌 ····· 235
의금부의 도첩에 기록하다 ····· 239
구용부터 집안 대부인 원석에 전달하는 편지를 받들어 쓴 발문 ····· 242

개천공(价川公) 행장 ····· 244
영종첨사에게 답하는 글 ····· 249
내삼청기 ····· 251
대원군께 축성(築城)의 방략을 아뢰는 글 ····· 253
대원군께 설진(設鎭)의 방략을 아뢰는 글 ····· 255
대원군께 양세(兩稅)의 정퇴(停退)를 아뢰는 글 ····· 257
남양 홍여천의 옥사(獄事)에 대한 전교를 받들어 조사 보고한 장계 ····· 258
대원군께 사인(士人)의 천거를 아뢰는 글. 사인(士人) 정숙동을 대원군께 추천하는 글 ···· 262
1872년〔壬申〕 4월 초8일 대규모 군사훈련 시 군중에 내린 전령 ····· 264
문학산(文鶴山)과 해악사(海嶽祠)의 제문(祭文) ····· 266
인천부 동헌(東軒)의 상량문(上樑文) ····· 268
치제(致祭)시 통문(通文) ····· 274
상사(上使) 김판서(金判書)를 연경(燕京)에 전별하는 고시(古詩) 62韻(운) ····· 278
임금의 탄신(誕辰)에 내각(內閣)에 올리는 하전(賀箋) ····· 284
동짓날에 임금에게 올리는 하전(賀箋) ····· 285
순영(巡營)의 경계에 도착하여 올린 예장(禮狀) ····· 286
진무영의 경계에 도착하여 올린 예장(禮狀) ····· 287
설날 아침에 순영(巡營)에 올린 예장(禮狀) ····· 288
설날 아침에 진무영에 올린 예장(禮狀) ····· 289
동지(冬至)에 순영(巡營)에 올린 예장(禮狀) ····· 290
동지(冬至)에 진무영에 올린 예장(禮狀) ····· 291
영(營)에 보고함 ····· 292
군무(軍務)에 관해 영(營)에 보고하는 문서 ····· 294
인천부의 방어(防禦)에 관해 삼가 올립니다 ····· 296

경기감영의 포계(褒啓) ····· 298
향교 절목의 서(序), 인천향교 절목의 서(序) ····· 299
절목 ····· 303
향교에서 선비들에게 제공한 반찬거리 ····· 306
천금으로 폐단을 보완하라는 전령 ····· 307
2,000냥으로 군수용 토지를 매입하라는 전령 ····· 308
인천부 동헌(東軒) 중수기(重修記) ····· 309
향사례(鄕射禮) 통문 ····· 313
또〔又〕 ····· 316
인천부사의 증질(增秩)을 축하하는 시(詩) 한 수(首) ····· 318
인천부 치소의 신수기(新修記) ····· 319
인천부 정당(政堂)의 수리를 마친〔落成〕 뒤의 기록 ····· 322
인천부 관사(館舍)의 신건기(新建記) ····· 327
인천부사포계절목(仁川府射砲稧節目) ····· 330
병자년에 거의(擧義)한 동은공(東隱公)의 통문(通文) ····· 341
1873년〔癸酉〕9월 27일 정사(政事) ····· 346
각 포구에 수군의 전선(戰船)을 두자는 논의(論議) ····· 347
친한 사람이 강계(江界)로부터 와서 읍폐(邑弊)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하므로 기록함 ····· 351
의전(義田) 설치의 대략 ····· 358
암행어사 강문형(姜文馨)이 포상을 아뢰는 글 ····· 360
당시 사람들이 초식(草食)하는 고질적인 폐단을 해석하는 전문(箋文) ····· 361
동전을 사용하는 고질적인 폐단 ····· 363
향교의 여러 어른께 올리는 단자 ····· 367
서간(書簡), 정석초(鄭石樵)에게 보낸 서신 ····· 372
정석초(鄭石樵)에게 답장 ····· 373

『소성진중일지(邵城軍中日記)』
번역·해제 학술연구 용역

『소성진중일지(邵城軍中日記)』 해제

『소성진중일지(邵城軍中日記)』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원본 자료를 정서(正書)한 필사본이다. 표제와 달리 내표제는 '인천진중일기(仁川陣中日記)'로 되어 있다. '소성(邵城)'은 현재 인천의 옛 지명이다. 『소성진중일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252쪽 분량이며, 크기는 세로 34.7cm×가로 22.0cm이다. 『소성진중일지』는 1871년 4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의 일기부분과 다양한 종류의 글이 부록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일기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 글의 원본이나 초고본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성진중일지』의 편자는 일기 이외의 글들을 문집과 같은 형식으로 글의 종류별로 정리하지 않고 글의 종류나 시기별 순서 등에 관계없이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일기를 비롯하여 부록에 해당되는 내용의 여러 곳에서 글씨체가 다른 것이 확인되는데, 필사에 3~4인이 참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구연상(具然相)이 1871년 4월 6일부터 48일간 소성군중에 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소성진중일지』를 편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일기가 시작되는 4월 6일의 기록 난외(欄外)에 세필(細筆)로 구연상의 간단한 이력과 "48일간의 병인양요 때의 소성진중일기이다(四十八日 丙寅洋擾時 邵城陣中日記也)"로 적고 있는데, 신미양요(辛未洋擾)를 병인양요로 잘못 적고 있다.

**

『소성진중일지』를 작성한 구연상(1832년, 순조 32~?)의 생애와 가계, 그리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무벌가문이었던 능성구씨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연상의 본관은 능성(綾城)이고, 시조 존유(存裕)의 23세손으로 부친은 정식(廷植), 조부는 병희(秉禧), 증조부는 관석(觀錫)이다. 외조부는 한조형(韓祖馨), 처부는 안석현(安奭鉉)이다. 구연상의 선조(先祖)가 과거에 급제하거나 벼슬을 지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고조부 명원(明遠)을 비롯하여 그 선대로 올라가면 무과급제자 및 벼슬한 사람들이 다수 확인된다. 구연상의 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存裕(시조) <19세손>- 明遠 - 觀錫 - 秉禧 - 廷植 - 然相
- 完植<出>
亨錫 - 秉一 - 完植<入>- 然哲

구연상은 무벌 가문의 후예로 1855년(을묘, 철종 6) 무과에 급제한 후, 수문장(守門將)·부사과(副司果)(1867년), 부장(部將)(1869년),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1870년), 훈련원 주부(主簿)(1872년), 오위도총부 도사(都事)(1873년),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어영청 파총(把摠)(1874년), 구성부사(龜城府使)(1875년), 진주영장(晉州營將)(1879년), 초산부사(楚山府使)(1880년), 창성부사(昌城府使)(1884년), 황해수사(黃海水使)·친군별영 별장(別將)·부호군(副護軍)(1885년), 선전관(宣傳官)(1887년) 등 무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 1887년(고종 24) 전라병사에 제수되었으나, 지병으로 인하여 사임하였다. 1893년(고종 30) 아들 종서(鍾書)가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에 제수되면서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구연상이 소성진중에 있을 때 인천도호부사는 구완식(具完植)으로, 구연상에게는 숙부이다. 구완식은 본관이 능성이고, 자는 인여(藺汝), 호는 미산(渼山), 시호는 무숙(武肅)이다. 아버지는 병일(秉一)이고, 어머니는 청주 한씨이다. 1851년(철종 2) 알성무과(謁聖武科)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고종대에 금위대장(禁衛大將)을 지내고, 『장신록(將臣錄)』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1870년에 후창군수(厚昌郡守)로 제수되었다가 어머니의 나이가 74세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인천도호부사(仁川都護府使)로 부임하여 1874년(고종 11) 1월 11일까지 재임하였다.

조선시대 많은 무관을 배출하였던 능성구씨의 시조는 구존유(具存裕)이다. 구존유는 고려조에서 벼슬이 벽상삼한삼중대광검교상장군(壁上三韓三重大匡檢校上將軍)에 이르렀으며, 전라남도 능성현에 은거하던 신안주씨의 시조인 주잠(朱潛)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능성에 뿌리내리고, 이때부터 능성을 본관으로 하는 능성구씨가 시작되었다. 능성구씨의 본향인 능성은 전라남도 능주(綾州)의 옛 지명이다. 백제의 이릉부리군인데, 신라 때 능성이라고 고치고, 고려 초 나주에 소속시켰다가 인종 21년(1143)에 현령을 두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인조 10년(1623)에 인헌왕후(仁獻王后)의 관향이므로 승격시켜 능주로 부르고, 목사(牧使)를 두었다. 인헌왕후는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 구사맹(具思孟)의 딸로 조선 16대 국왕 인조의 모후이고, 14대 국왕 선조의 5남인 정원군의 부인이다.

능성구씨는 고려조에는 문벌귀족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으나 조선에 들어와서 문과급제를 통해 중앙의 요직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능성구씨의 문과급제자수는 조선전기 14명, 조선후기 40명으로 나타난다. 능성구씨의 문과급제자수가 많지는 않으나 공신책봉과 국혼을 비롯한 종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조선전기 훈구가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능성구씨는 조선후기에 들어와 무과급제자를 집중적으로 배출하고 주요 무관직의 세습과 공신을 배출함으로써 훈무세가(勳武世家)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국혼을

비롯한 종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척족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

조선은 1863년 철종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난 후 뒤를 이어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 12세의 나이로 왕위를 이어받았다. 수년간 조대비(趙大妃)가 수렴첨정하고, 뒤이어 이하응이 대원군의 자격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쇄국정책을 강화하였다. 1866년 초부터 천주교 금압령을 내리고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처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살아남은 리델 신부가 청나라 텐진에 있는 프랑스 극동함대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로즈 제독은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와 병인양요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행궁과 외규장각을 비롯한 여러 건물을 불태우고 금은보화와 의궤(儀軌) 등 문화유산을 약탈하거나 방화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돌아갔다. 조선은 병인양요를 겪으면서 서구 열강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게 되었으며,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1866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조선의 개항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미국은 두 차례 탐문항행(探問航行)을 실시하였다. 1871년 미국은 전통적인 포함(砲艦) 외교 방법으로 조선을 개항하기 위해 주청미국공사 로우(Low, F. F.)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Rodgers, J.)에게 해군함대를 동원하여 조선을 원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로저스는 음력 3월 초순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함대를 집결하여 약 보름 동안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3월 27일 조선원정 길에 올랐다.

『소성진중일지』는 1871년 4월 6일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출발한 미국함대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수원에서 알려온 소식에 의하면 서양선박이 풍도(楓島)로부터 인천쪽으로 향하였다고 하였으며, 이후 일기 내용에는 미국 함대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일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미국 전함의 움직임과 관련한 기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월 6일: 양선(洋船) 1척이 수원의 풍도(楓島)와 검도(黔島) 앞에 정박함. 이후 이양선 4척이 먼저 도착한 1척과 함께 수원 도리해(桃里海)에 정박함.
- 4월 7일: 신시(申時 : 오후 3시~5시)에 배가 한진(漢津) 앞 바다에 정박함.
- 4월 8일: 사시(巳時 : 오전 9시~11시)에 영종도(永宗島) 앞을 지나 부평(富平)

경내 호도(虎島) 앞바다에 정박함. 이때 전함이 지나가면서 수심을 측정함.

- 4월 9일: 오시(午時 : 오전 11시~오후 1시)에 종선(從船) 4척을 이끌고 팔미도(八尾島)로 향함. 섬 주위를 돌아보고 다시 올라와 호도 앞에 정박함.
- 4월 10일: 진시(辰時 : 오전 7시~9시)에 배를 출발시켜 팔미도 앞에 정박함. 종선 4척은 인천과 남양, 안산의 경계를 넘나들며 옥기도(玉基島) 앞의 수심을 측정하고 돌아와 큰 배와 함께 모두 먼 바다로 사라짐.
- 4월 11일: 오시에 이범선(二帆船) 2척과 삼범선(三帆船) 3척이 팔미도 먼 바다로부터 올라옴. 한진에 정박함.
- 4월 12일: 미시(未時 : 오후 1시~오후 3시)에 배 5척이 종선 60여 척을 이끌고 영종도 앞바다를 지나 호도 앞에 정박함.
- 4월 14일: 오시에 이범선 1척이 통진(通津) 경계로 향하였고, 잠시 후 포성이 크게 울림.
- 4월 16일: 해시(亥時 : 오후 9시~11시)에 이범선 1척이 팔미도 먼 바다로 향함.
- 4월 21일: 이범선 1척이 팔미도 먼 바다로부터 올라와 호도 앞 바다에 정박함.
- 4월 22일: 배 6척이 호도에 정박함.
- 4월 23일: 이범선 2척이 종선 10여 척을 이끌고 심영(沁營)으로 향해 가다가 얼마 후 포성이 크게 울림. 초지진(草芝鎭)이 함락됨.
- 4월 25일: 아침 8시 무렵 배 2척이 돌아와 호도 앞에 정박함.
- 4월 26일: 광성보(廣城堡)로 향하며 배 위에서 포를 발사함. 종선이 몰래 뒷 바다에서 상륙하여 먼저 산 위를 점거하고 대포를 마구 발사함. 광성보가 함락됨.
- 4월 30일: 이범선 1척이 팔미도 먼 바다에서 자신들의 배 5척이 정박한 곳으로 곧바로 올라옴.
- 5월 7일: 종선 1척이 율도(栗島)로부터 통과할 때 우리 배가 막자 무치도(無淄島 : 작약도를 말함) 앞에 정박함. 이범선 1척이 팔미도 먼 바다로 향하더니 종적도 없이 사라짐.
- 5월 8일: 배 1척이 먼저 출발함.
- 5월 10일: 삼범선 2척에서 대포 30여 발을 발사함.
- 5월 12일: 종선 1척이 팔미도 먼 바다에서 자신들의 배가 정박한 곳으로 곧장 올라옴.
- 5월 16일: 배 6척이 일시에 팔미도 먼 바다로 향함.

미국 해군함대의 작전을 비롯하여 강화도에서 전개되는 전투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 초지진이 함락된 것과 관련하여 4월 23일 일기에는

"적도들이 상륙하여 관청과 민가를 불태우고 훼손하여 위해를 끼쳤다는 것"을 들었고, 4월 24일에는 강화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상황에서 포성이 끊이지 않고 들려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짐작하며 승패를 알 수 없는 심경을 기록하고 있으며, 4월 26일에는 비로소 초지진의 소식을 자세히 전해 듣고, 광성보가 함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초지진과 광성보의 전투상황과 결과에 대한 내용은 화성유수 신석희(申錫禧)에게 보낸 글에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4월 12일 일기에는 의주사람 세 사람과 인천부의 아전 김진성(金振成)이 호도에 정박한 미군함에 올라 문정(問情)하는 과정과 내용을 비롯하여 선박의 규모, 무기, 시설장비, 병력 등 견문(見聞)한 것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후 일기에는 적정(敵情)을 살피고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포구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적 요충지에 병력배치와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5월 4일 일기에는 부평부사와 미군이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이 보인다. 인천에서는 미국 군대와 직접적인 충돌과 전투가 없었고, 강화도에서 전개된 전투상황을 전해 듣고 기록한 한계는 있지만 신미양요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소성진중일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신미양요의 전후 상황과 당시 조선의 전반적인 군사제도, 무기, 전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 함대가 근해에 나타난 것이 관측된 이후의 이동과 작전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척후(斥候)·당보(塘報)·요망(瞭望)의 규칙을 숙지시키고 강조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보인다. 포구를 중심으로 전투와 방어를 위해 요충지의 병력배치와 규모 등이 기록되어 있고,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 전시(戰時)에 준하여 엄격하게 군율을 적용하고, 즉결 참형 등에 처분한다는 내용 등을 병사들에게 주지시키고 강조하고 있다. 군사들을 단속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사를 지어 진중에서 부르게 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 "만 리의 큰 바다 만 리의 바람에 우뚝 솟아도 학산진과 한남은 휘둘려도 떨어지지 않고 꺽으려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천년의 석벽과 백 척의 푸른 솔을 된서리와 거센 바람인들 바뀌게 할손가. 산심과 인심이 같은 한 마음임을(萬里長海, 萬里風屹, 然鶴山鎭, 漢南은 揮不去 撓不動헌은져. 千年石壁, 百尺靑松, 嚴霜과 疾風인들 變헐손가. 山心 人心 同一心을)"

육전과 해상전을 대비하며 등롱(燈籠)의 제작, 의병(疑兵) 활용, 뗏목 제작, 잠수군(潛水軍) 확보, 요충지의 매복 등을 준비하였다.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운현궁(雲峴宮)을 비롯하여 삼군부(三軍府)·순영(巡營)·진무영(鎭撫營) 등과 긴밀하게 보고체계를 갖

추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중앙과 인근 지역으로부터 병력과 군량 등을 지원받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이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4월 13일 운현궁의 분부에 따라 경기감영으로부터 1천냥을 지원받아 군졸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4월 15일에는 어영청에서 화약 150개와 탄환 4천개, 총융청에서 화약 250개와 탄환 3천개를 지원받았고, 4월 17일 순영에서 3백냥을 내려주고, 수어영의 초관(哨官)이 별파진 5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4월 18일에는 양성현의 세미(稅米) 190섬을 군량으로 삼도록 허락받아 사기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에게 보고한 내용과 답신 내용, 군병과 군량의 지원요청에 대한 처리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장수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략 등에 대해 여러 병서(兵書)와 전거(典據)를 들어 인용하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곳에 보인다. 군사를 장악하고 지휘하며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략과 무용을 겸비한 인물의 발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장수는 국가의 방패와 성이며, 백성의 사명(司命)이다."
> "무릇 장수는 의에 맞게 움직이고 행동할 때에 이치에 부합하게 하여 절도를 지켜서 칼로 자르듯 하여 성공에 이르러야 한다."
> "장수된 자는 위로는 하늘이 없고 아래로는 땅이 없으며 앞으로는 적이 없고 뒤로는 두려움이 없으니 나아감에는 명성을 구하지 않고 물러남에는 죄를 피하지 않은 채로 오직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 "비록 백만의 대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을 이기는 것은 장수에게 달려 있다."
> "무릇 장수는 문장(文章)으로 무리를 모을 수 있어야 하고 무예로 적을 위협할 수 있어야 하며, 명령을 받은 날 죽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을 기운을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인천도호부사 구완식이 전투에 대비하는 병사들을 독려하고 신상필벌을 강조하며, 몸이 불편한 병사들을 위해 직접 약을 달이고 간호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보인다. 구완식은 군사훈련을 철저히 하면서도 백성들을 구휼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연유로 체직(遞職)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연장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구완식과 구연상, 구완식과 손님 간에 있었던 대화 내용도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개 병법과 전술, 장수가 갖추어야 할 지략과 덕목 등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쟁과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많은 요소들을 거론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에서 활약한 인물들과 패전과 승전의 사례들을 열거하며 유비무환을 강조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병사 10만을 양성할 계책을 건의하고 논의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10년이 되지 않아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 부산이 처음 함락당하여 정발(鄭撥)이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킨 것, 동래가 함락당하여 송상현(宋象賢)이 순국한 것, 병사 이각(李珏)이 군대를 버리고 도망친 것, 상주의 전투에서 이일(李鎰)이 패하여 조령(鳥嶺)을 지키지 못한 것, 탄금대의 전투에서 신립(申砬)이 전사한 것 등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이 성을 지킨 것, 이양원(李陽元)이 임진(臨津)을 지킨 것, 남병사 신할(申硈)이 군대를 편성하여 달려나가 왕을 위해 전사한 것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 활약한 안주부윤 이완(李莞), 남병사 남이흥(南以興), 안주목사 김준(金浚), 관찰사 윤훤(尹暄)을 비롯하여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 안주병사 유림(柳琳), 순찰사 홍명구(洪命耉) 등의 공과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병법과 진법, 전술, 전투에 대한 내용과 군사를 지휘하고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역』·『예기』·『손자병법』·『시경』·『서경』·『후한서』·『맹자』·『사기』 등 다양한 자료들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의 종류와 특징,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조선의 군사력과 무기류 등을 살펴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5월 3일 일기에 실린 척양사문(斥洋邪文)과 척화비(斥和碑)의 내용이나 5월 6일 천주교 신자 이연귀(李蓮龜)·이균학(李筠鶴)을 효수(梟首)하는 내용 등은 쇄국정책과 함께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신도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연귀와 이균학의 처형에 대한 보고 내용은 『고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인천 도호부사 구완식의 첩정에 '이연귀와 이균학은 원래 예수교의 두목이었던 李承薰의 손자인데, 그들의 배가 정박해 있는 바닷가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하면서 살피는 것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엄격히 신문하니, 그들의 배에 들어가서 기꺼이 길 안내를 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남김없이 실토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둘러 효수(梟首)하여 백성들을 경계하도록 하였으며, 부평 등 고을에 엄격히 명하여 그 놈들의 배와 다시는 복잡하게 편지질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5월 17일)

한편 일기 부분에는 매일 날씨의 변화에 대해 거의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

1871년 4월 6일부터 5월 23일 사이 인천의 기상변화 등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음력 날짜로 기록하였으므로 계절로는 초여름에서 한여름에 해당하는 기간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맑은 날이 26일로 가장 많았고, 흐린 날이 7일, 비가 내린 날이 10일 등이었다.

**

『소성진중일지』는 표제(表題)로 보면 전쟁기에 작성한 일기자료이나 내용상으로는 부분적으로 문집형태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일기 자료를 제외하고, 수록된 글을 제목을 내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글의 종류	제 목	편수
시문류(詩文類)	仁川別武士廳珠聯 邵城太守行七十六句(士人李度烈) 邵城太守行五十五韻(仁川士人趙濟冕) 邵城太守行(士人鄭肅東) 邵城太守行排律(士人宋一善) 仁川歌 又以字會頌太守曰 邵城太守行排律 餞上使金判書於燕京(古詩六十二韻) 又 邵城太守因舊增秩朝賀一首	11
서문·절목류 (序文節目類)	邵城府砲稧序 送周八甫族兄之關北序 校中節目序(仁川鄕校節目序) 節目 仁川府射砲稧節目	5
기문류(記文類)	群塲記 內三廳記 仁川縣治新修記 新修仁川政堂落成後 仁川館舍新建記 仁川東軒重修記	6
전문(箋文)	邵城士民等賀朝廷斥夷遠遁箋 士人 申 大殿誕辰(內閣賀箋) 冬至大殿賀箋 鮮時人食草痼弊箋	4
명문(銘文)	仁川太守碑銘幷引	1

상량문(上樑文)	仁川東軒上樑文	1
행장(行狀)	仁川公行狀	1
통문(通文)	致祭時通文 鄕射禮通文 又 丙子擧義東隱公通文	4
제문(祭文)	文鶴山與海嶽祠祭文	1
전령(傳令)	壬申四月初八日大操時傳令軍中 千金補弊傳令 三千金軍需買土傳令	3
서신(書信)	寄舍侄書 與魏宣傳宗律書 上李査丈書 答永宗僉使書 書簡 答鄭石樵	6
장계류(狀啓類)	退賊後上雲宮書 上雲宮築城方略書 上雲宮設鎭方略書 上雲宮兩稅停退書 上書薦士人于雲宮(薦士人鄭庸東雲宮書) 報營 因軍務報營狀 謹呈邵城防禦 畿營褒啓 各浦置水軍戰船議 暗行御史姜文馨褒啓 南陽洪汝天獄事奉承傳敎査報狀	12
기타(其他)	贈族弟晩植然明 先府君孝行書示舍侄 題金吾圖帖 書奉九容于族大父元錫繼以爲跋 校中供士饌需 癸酉九月二十七日 政 親信人自江界來者詳言邑瘼記之留覽 設置義田略 用錢痼弊 校中僉尊座下單子	10

시문류는 주로 구완식의 행적과 공적을 칭송하고 기리는 내용이고, 특히 절목류 자료 가운데 <소성부포계(邵城府砲稧)>와 <인천부사포계(仁川府射砲稧)>의 내용은 19세기 지방군제를 이해하고 비교 분석하는데 대단히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포계와 사포계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계류(狀啓類)에서는 군제와 군비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흥선대원군 이하응에게 올린 축성방략(築城方略), 설진방략(設鎭方略) 등은 인천부와 강화도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군사시설을 보완하고 강화할 것을 건의하며 당시 미흡한 방어시설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각 포구에 전선을 배치할 것을 건의하면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귀선(龜船)을 거론하며 제작 방식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기문류에는 인천도호부의 각종 관아 건물의 신축과 중수(重修) 등에 대한 이력과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성진중일지』는 신미양요의 전후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 당시 인천광역시 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군제와 군기(軍器) 등을 파악하고, 19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변동상황을 이해하고 가늠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중요한 자료이다.



『소성진중일지(邵城軍中日記)』
번역·해제 학술연구 용역

『소성진중일지』

인천진중일기

국도(國都)의 서쪽으로 7후(堠)에[1] 소성(邵城)이[2] 있는데, 바닷가의 작은 고을로서 서쪽으로는 연(燕)과 제(齊)와 통하고, 남쪽으로는 오(吳)와 초(楚)가 연결되니 경계의 한계가 없어 영남과 호남의 조운곡과 관서의 선운(船運)은 반드시 이곳을 경유하니, 동도(東都)의[3] 이수(伊水)[4] 및 낙수(洛水)[5], 관중(關中)의[6] 경수(涇水)[7] 및 위수(渭水)와[8] 비교해 볼 때, 더욱 차이가 있다.[9] 숙부께서[10] 1870년〔庚午〕가을에 후창군수(厚昌郡守)에 특별히 제수되었다. 조정에서 폐사군(廢四郡)을[11] 신설하여 문무에 재능이 있는 자를 선발하였는데, 숙부께서는 부모님이 늙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직하였다.[12] 이에 인천부와 후창군을[13] 서로 교체하라는 전교가 있어 이 고을에 와서 나라를 지키게 하였으니 실로 격외의 특별한 은혜이다. 감격함을 골수에 새기고, 은혜가 폐부에 깊어지니 보답할 것을 기약하며 산과 바다에 맹세하였다. 이에 민정을 살피고 폐단을

1) 후(堠) : 도로의 이수(里數)를 표기하기 위해 세운 장승으로 외방의 도로에 10리마다 소후(小堠)를 설치하고, 30리에는 대후(大堠)를 설치하였다. 1724년에 간행된 『해동지도(海東地圖)』(奎 古大4709-41)에는 서울과 인천 간의 거리가 80리, 1872년에 간행된 『인천부지도(仁川府地圖)』(奎10375)에는 60리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7후(堠)는 70리(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소성(邵城) : 인천의 과거 이름이다. 고구려 때 매소홀현(買召忽縣)·미추홀(彌趨忽)·경원매소(慶原買召)라고 불리다가 신라 때 소성으로 고쳐 불려졌다. 조선 태조대에 인주(仁州)로 변경되었다가 태종대 인천군으로 고쳐 불렸다. 소헌왕후의 내향(內鄕)이라는 이유로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로 승격되었다.
3) 동도(東都) : 중국 한나라의 도읍이었던 낙양을 지칭한다.
4) 이수(伊水) : 이수(伊水)는 중국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5) 낙수(洛水) : 낙수(洛水)는 중국의 섬서성(陝西省)과 하남성(河南省)을 지나 동쪽으로 흐르는 황하(黃河)의 지류 중 하나이다.
6) 관중(關中) : 중국 당나라의 도읍이었던 장안을 지칭한다.
7) 경수(涇水) : 중국 섬서성(陝西省) 중부를 흐르는 황하(黃河)의 지류 중 하나이다.
8) 위수(渭水) : 중국 섬서성(陝西省) 중부를 흐르는 황하(黃河)의 지류 중 하나로 장안(長安)을 지난다.
9) 동도(東都)의 …… 차이가 있다. : 낙양(洛陽)과 장안(長安) 같이 이를 둘러싸고 강이 흐르지만 조운곡이 반드시 인천을 경유하는 것과 같이 그 중요도가 남다르다는 의미를 서술하는 듯하다.
10) 숙부(叔父) : 구완식(具完植)을 지칭한다. 구완식은 1870년 윤10월 13일 후창군수(厚昌郡守)로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윤10월 18일 어머니가 74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당시 인천부사였던 조위현(趙瑋顯)과 바꾸어 임명되었다. 그 뒤 1876년 윤5월 3일 황해수사(黃海水使)에 임명되었다.
11) 폐사군(廢四郡) : 세종대 압록강 상류에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여연(閭延), 자성(慈城), 무창(茂昌), 우예(虞芮) 네 군을 말한다. 그러나 여연, 무창, 우예 세 군은 1455년 4월 없앴고 자성군은 세조 5년(1459) 1월 폐지되었다. 그 후, 1869년 5월 폐사군 복설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어 이의 복설이 이루어졌다.
12) 숙부께서는 …… 사직하였다. :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었던 관리는 300리 이상 떨어진 곳의 수령으로 임명하지 못하였고, 임명되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직할 수 있었다(『경국대전(經國大典』 吏典, 「外官職」). 구완식은 이를 근거로 후창군수직을 사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13) 후창군(厚昌郡) : 평안도 후창군으로 조선시대 서북변경지역의 요충지이다. 이곳은 1436년 만호가 배정되어 이곳을 지키게 하였다가 1440년 무창현으로 변경되었다. 그 뒤에 사군(四郡)이 폐지되면서 함께 폐지되었다가 1869년 후창군이라는 이름으로 복설됐다.

제거하며, 이서(吏胥)와 군교(軍校)를 선발함에 그 능력으로 등용하니 무릇 다스림의 요체에 정성을 다하여 숨김이 없게 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내 갯벌의 형편을 두루 살피고, 밀물과 썰물의 증가와 감소를 관찰하며, 관방의 이로움과 해로움, 적 침입로의 요충지, 인구와 호수의 많고 적음과 군사의 강약을 살핌에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고을에 방비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여서 백성들은 모두 어리석어 오로지 고기잡이와 소금 굽는데 만 전념하고, 아전들은 가난하여 일을 꺼리며 쇠잔해 있으니, 부세 수취와 보장(保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1866년〔丙寅〕의 난리를[14] 거친 이래로 역을 부담하여야 하는 부류가 무너지고, 국가 안위의 뜻이 모두 없어졌다. 하물며 이 해문(海門)은 이 땅의 목구멍에 해당하고, 도성의 문호(門戶)인데, 험준함에 의지하여 방비를 설치하는 것이 없으니 만약 크게 이를 고치지 못한다면 어찌 능히 왕성을 둘러 지킬 것이며, 해구(海寇)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에 무사들을 조사하고 점검하여, 날래고 건장한 자들 300인을 선발해 전·중·후 3초(哨)로[15] 나누었다. 잘하는 이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이 있으면 벌로 다스리며 무예를 가르쳐 단련시켰다. 이서와 군교에게 활과 총을 쏘는 방법을 익힐 것을 격려하고, 방임(房任)은 총과 포 등 무기의 종류에 따라 이를 맡겼다. 굶주린 가호를 두루 살펴 천여 가구를 진휼하고, 농사를 권장하였다. 백성을 사랑하며, 하사(下士)에게는 충의로써 격동시키고 효제를 더욱 힘쓰게 하여 술과 도축을 영원히 그만두게 하고, 잡기(雜技)를 엄금하였다. 또한 9개 면의[16] 민인들로 하여금 각각 100명씩 계를 만들게 하였다. 관에서 900금을 출연하여 지급하고, 각 계마다 만 환(鍰)씩을[17] 나누어 비치하여, 그 이자로써 계회(稧會)를 열어 총 쏘는 기술을 익히는 재원으로 삼았다. 하민(下民)들이 흔쾌히 달려왔으며 이서들은 모두 기뻐하며 복종하고, 교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연습에 힘썼다. 사계(射稧)를 다시 만들어 100여 명으로 다시 조직해 포계(砲稧)에 의거해 법을 세우니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정예 1,000여 인이 규합되니 군대의 근본이 갖추어졌다. 지금 번의 군역은 병사들이 기꺼이 오니, 방비가 더욱 튼튼해졌다. 4월 6일부터 진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48일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양산(楊山) 구연상(具然相)이[18] 기록하다.

---

14) 1866년〔丙寅〕의 난리 :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략하며 발생한 병인양요(丙寅洋擾)를 의미한다.
15) 초(哨) : 조선시대 속오군 조직의 단위의 하나이다. 1초는 약 1백 명으로 구성되는데, 속오군의 편제는 각 마을단위로 1대(隊)가 구성되며, 3대가 모여 1기(旗), 3기가 모여 1초(哨), 5초가 1사(司)가 되고, 5사가 1영(營)을 이룬다.
16) 구면(九面) : 1872년 편찬된 『인천부지도(仁川府地圖)』(奎10375)에 소개된 인천부 내의 면은 각각 다소면(多所面)·서면(西面)·부내면(府內面)·남촌면(南村面)·조동면(鳥洞面)·신고개면(新古介面)·이포면(梨浦面)·전반면(田反面)·주안면(朱鴈面)·황등천면(黃等川面)으로 총 10개의 면으로서 구연상의 기록과 1개의 면이 차이가 있다.
17) 환(鍰) : 1환(鍰)은 6냥을 의미한다.
18) 구연상(具然相) : 구연상은 『소성진중일지(邵城軍中日記)』의 저자로 능성구씨의 일원이다. 그는 무과에 급제한 이후 1967년 수문장부사과(守門將副司果), 1870년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1880년

『邵城軍中日記』

仁川陣中日記

國都之西七堠, 而有邵城, 邑小濱海, 西通燕齊, 南連吳楚, 無以界限. 而嶺湖之漕穀, 關西之船運, 必由之, 較以東都伊洛, 關中涇渭, 尤有別焉. 叔父庚午秋, 特除厚昌守, 朝庭新設癈四郡, 擇有文武材, 親老辭職, 以傳敎相換, 此邑來守, 是邦實格外也, 特恩也. 感銘骨髓, 恩深肺腑, 誓山盟海, 期欲圖報. 於是察民情去其瘼, 擇吏校, 擧其能, 凡爲治要, 殫誠無隱, 始乃周視, 浦溢之形便, 驗看潮汐之增減, 關防利害, 賊路要衝, 人戶之多小, 士卒之强弱, 莫不詳察. 然邑之無備, 伊來久矣, 民皆愚蚩, 專事魚鹽, 吏自貧寒, 忌事凋殘, 繭絲保障, 萬不成樣. 且自丙寅經擾, 荷擔之類, 頓無安堵之志, 況是海門咽喉, 京師門戶, 無依險設備之所, 若非大更張, 其何能屛藩王城, 折衝海寇也. 乃査點武士, 選精壯三百人, 分作前中後三哨, 勸賞懲罰, 敎鍊武藝, 激勸吏校, 習射放銃, 房任從武技差定, 周察飢戶, 千餘家賑貸, 勸農愛民, 下士激勵忠義, 益勉孝悌, 永戢酒屠, 嚴禁雜技. 又使九面民人, 各以一百名設稧, 自官出給九百金, 每以萬鍰分置, 將以殖利, 課月稧會, 以銃技財, 下民旣懽趁, 吏皆悅服, 不待敎令, 勤於鍊習, 復設射稧, 百餘員依砲稧立法, 不幾月, 糾合精銳千餘人, 以備苞桑之戎. 今番之役, 士卒樂赴, 備禦益固矣. 自四月六日在陣, 凡四旬有八日記于左. 楊山 具然相記.

초산부사(楚山府使) 등 무관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887년 전라병사(全羅兵使)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인해 사임하였고 그 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893년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맑음. 어제 저녁 수원의 장계에 '이양선이 풍도(楓島)로부터[19] 안쪽 바다로 돌아들어 왔다.'고 하였는데, 즉 인천의 바다이다. 밤새 잠에 들지 못하다가 새벽에 초고(初鼓)가[20] 칠 때 인천으로 가니 날이 이미 밝았다. 성현(星峴)에[21] 올라가 문학봉(文鶴峯)을[22] 바라보니 깃발이 나뉘어 세워져 있고 사졸들은 진을 치고 있었다. 비로소 인천부 안의 사방으로 통하는 길에 들어가니 이미 군문을 설치하고 군문을 지키는 군교가 가로막으며 말하기를 "군중에 사또의 명이 있어서 군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길가에서 잠시 서성이고 있으니 집사가 영기(令旗)를[23] 가지고 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달려가 숙부를 뵈니, 숙부께서 신하의 의(義)로써 나를 문책하시길"신하는 죽음을 맹세하여 임금을 섬기는 데 각각 그 직임이 있다. 너는 호위하는 신하로서 충성을 바쳐야 함에도 경계를 벗어났으니 진실로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엄하게 너를 물리치겠으니 내일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뜻을 아뢰도록 하라"고 하셨다. 숙부께서 여러 군교와 아전들을 모아 엄숙하게 호령하시고 충의를 장려하셨으며, 적을 방어하는 계책을 깨우쳐 주시길, "저들에게는 세 가지 단점이 있고,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저들은 즉 다른 국가의 경계에 깊게 들어와서 산천과의 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단점이다. 배만 믿고 육지에 내려 보병전을 할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단점이다. 군량과 고용된 병졸 수가 배에 실린 것이라는 점이 세 번째 단점이다. 우리는 장졸들이 갯펄을 숙지하여 먼저 지리에 대해 알고 있으니 첫 번째 장점이다. 바른 것으로서 사특한 것을 배척하고, 양으로서 음을 제거하여 상하가 충성으로 떨쳐 일어나 격분하지 않은 자가 없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다. 여러 읍에서 기각(猗角)의[24] 형세로 전투를 지원하는 병사들이 계속 이어 지는 것이 세 번째 장점이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어찌 적의 세 가지 단점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 말씀하시길, "만 리의 큰 바다 만 리의 바람에 우뚝 솟아도 학산진과 한남은 휘둘려도 떨어지지 않고 꺽으려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천년의 석벽과 백 척의 푸른 솔을 된서리와 거센 바람인들 바뀌게 할손가. 산심과 인심이 같

19) 풍도(楓島) : 경기도 안산 대부도 남쪽에 위치한 섬이다.
20) 초고(初鼓) : 초경(初更). 밤을 5등분한 것 중의 첫 시간으로, 술시(戌時)에 해당한다.
21) 성현(星峴) : 인천부의 북동쪽에 위치한 언덕으로 한성에서 인천으로 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며 성현부터 한성까지의 거리는 60리에 이른다. 지금의 남동구 만수동과 부평구 일신동의 경계에 해당한다.
22) 문학봉(文鶴峯) : 문학산(文鶴山)을 의미하는 듯하다. 문학산은 인천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성(古城)의 유적이 남아있다.
23) 영기(令旗) : 군대에서 군령을 전달할 때에 쓰는 깃발이다.
24) 기각(猗角) : 한 손으로 그 불을 잡고 한 손으로는 그 발을 비튼다는 것으로 군사들을 양편으로 나누어 적을 협공하거나 앞뒤에서 견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은 한 마음임을"라며 군중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 덕적진(德積鎭)의[25] 보고에 따르면, 이양선 1척이 먼저 수원 풍도와 검도(黔島)의 앞에 정박하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잠시 뒤에 또 이양선 4척이 연기를 뿜으며 올라와서 앞서 도착한 1척과 함께 출발해 전진하여, 수원 도리해(桃里海)에 정박해 머무르고 있다고 하였다. 피리를 불고 장막을 올려 이서와 군교들을 불러 모은 뒤에 적을 방어할 방책에 대해 널리 물었다. 포와 총을 거두어 갖추고 마침내 장졸들을 불러 모아 연해의 각 포구를 굳세게 방어하도록 하였다. 좌수 정학림(鄭學霖)에게는 방수장(防守將) 강대월(姜大月)·최석윤(崔錫允)과 본포의 군사들을 이끌고, 제물포(濟物浦)를[26] 엄히 방비할 것을 명령하였다. 방수장 박근성(朴近成)은 화촌포(花村浦)를[27] 지키도록 분부하였다. 방수장 최홍순(崔弘淳)·한유필(韓裕弼)은 본포군을 이끌고 십정포(十井浦)를[28] 지키도록 분부하였다. 방수장 이명길(李命吉)은 본포의 병사들을 이끌고 옹암포(瓮巖浦)를[29] 지키도록 명령하였다. 방수장 황모진(黃毛辰)은 본포의 병사들을 이끌고 한진(漢津)을[30] 지키고, 방수장 최경손(崔更孫)으로 하여금 도장포(道場浦)를 지키며, 방수장 김용운(金龍運)으로 하여금 남촌전포(南村前浦)를[31] 지키게 하였다. 방수장 서흥수(徐興秀)는 고잔포(古棧浦)를[32] 지키고, 방수장 한보여(韓輔汝)는 신현포(新峴浦)를[33] 지키게 하였다. 의병 사인(士人) 이항진(李恒鎭)은 성현을 견고하게 지키게 하였다. 전초(前哨)의[34] 초관(哨官) 하제우(河濟雨)는 전초의 병사들을 이끌고 관문에 진을 치게 하였다. 중초(中哨)의 초관 공재선(貢在善)은 중초의 병사들을 이끌고 문학산 서쪽 고개부터 제월봉(霽月峰)까지[35] 굳세게 지키도록 하였다. 별장 최흥구(崔興九)는 봉군(烽軍)을[36] 이끌고, 산성터에 매복하게 하고, 이방(吏房) 김재건(金在健)과 형리 김진성(金振聲)은 화포군(火砲軍)을 이끌고 학산(鶴山)의[37] 동쪽과 서쪽에 매복

---

25) 덕적진(德積鎭) : 인천 덕적도(德積島)에 설치되었던 수군영(水軍營)으로 수군첨사(水軍僉使)가 배치되어 있었다. 1652년 수군 만호(萬戶)가 지휘하는 군진이 설치된 이래로 치폐를 거듭하다가 1894년 혁파되었다.

26) 제물포(濟物浦) : 조선전기 수군 만호진이 설치되었다가 1656년 강화도로 이전되었다. 월미도나 영종도로 향하는 배가 출발하던 나루터로 현재 인천 중구 북성동 파라다이스 호텔 주변 지역에 해당한다.

27) 화촌포(花村浦) : 주안면의 동쪽과 다소면의 북동쪽에 위치한 포구이다.

28) 십정포(十井浦) : 조선시대 주안면에 속해있던 포구의 하나이다.

29) 옹암포(瓮巖浦) : 현재 인천 옥련동 옹암교차로 앞으로 흘러들어오던 갯골을 의미한다.

30) 한진(漢津) : 조선시대 먼우금면에 속해있던 나루터이며, 지금의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해당한다.

31) 남촌전포(南村前浦) : 도장포 인근의 포구를 의미한다.

32) 고잔포(古棧浦) : 현재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일대에 해당하며, 조선시대 남촌면에 속해있던 포구였다.

33) 신현포(新峴浦) : 신현포는 인천의 동남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신현후음포(新峴後陰浦)와 인천부와 수원부의 경계 사이에 있고, 한성과의 거리가 60리에 이른다.

34) 전초(前哨) : 서문에 날래고 건장한 자들 300인을 선발해 전·중·후 3초로 나누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초군은 이를 의미하는 듯하다.

35) 제월봉(霽月峰) : 제월봉은 인천부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고, 남면의 서쪽에 있는 봉우리를 의미한다.

36) 봉군(烽軍) : 당시 인천부에 속해있던 봉수는 문학산의 봉수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봉군 25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37) 학산(鶴山) : 여기서 학산(鶴山)은 당대의 인천부의 지도 내에 보이지 않는 지명으로 문학산을 줄여

(埋伏)하게 하였다. 퇴인(退印) 박순복(朴順福)·김이연(金二淵)은 화포군을 이끌고 학산의 앞과 뒤에 매복하게 하였다. 후초(後哨)의 초관 김순엽(金舜燁)은 후초의 병사를 이끌고 도찬현(刀鑽峴)을 굳세게 지키게 하였다. 중군(中軍) 이규현(李圭鉉)은 부내의 포병을 이끌고 뒷산을 지키게 분부하였다. 공택선(貢宅善)·김진효(金鎭孝)·이한규(李漢奎)·이광표(李光杓)·김윤현(金允賢) 등은 화포군과 수노병(手弩兵)을 이끌고 보병현(寶屛峴)·무주현(茂主峴)·망현(望峴)·마근현(麻根峴)·읍동(邑洞)의 입구 등 5개의 곳에 매복하게 하여, 적이 침입하면 낮에는 깃발을 들게 하고 밤에는 불을 들어 신호하도록 분부하였다. 이연긍(李淵兢)·공은선(貢應善)·공양묵(貢亮默)·이승규(李承圭)·김칠연(金七淵)·송계만(宋啓萬) 등 6인은 민병을 이끌고 각 매복처의 입구에서 참호를 만들게 하여 여러 군사들이 밤낮으로 매복해 이로써 적을 격파할 수 있는 방책으로 삼도록 분부하였다. 우병방 채연하(蔡延夏)는 7포의 척후에서 유격하게 하고, 좌병방 김홍구(金洪九)·김진교(金鎭敎)는 군량을 주관하도록 분부하였다. 도영장(都領將) 이우현(李佑鉉)은 군기를 전담하고, 김로진(金魯鎭)은 이를 돕도록 하였다. 마침내 여러 군교와 군졸들을 대 아래에 불러 모아 분부하며 약속하기를 "장수는 국가의 방패와 성이며, 백성의 사명(司命)이다. 지금 대적이 국가의 경계를 압박하니 적들을 격파하라는 명을 받았다. 국가의 안위가 여기에 달려있고, 살고 죽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으니 이는 충신이 나라의 은혜를 갚는 날이고 지혜로운 자가 성공하는 때이다."라고 하셨다. 이내 명령을 내리며 말씀하시길, "북소리를 듣고도 나아가지 않고 징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으며, 깃발을 들어도 일어나지 않고 깃발을 내려도 자세를 낮추지 않는 것을 일컬어 패군(悖軍)이라고 하며 참한다. 호명해도 응하지 않고 불러도 이르지 않으며, 왕복할 때 때를 맞추지 못하고, 움직일 때 군율을 어기는 것을 일컬어 만군(慢軍)이라고 하며 참한다. 밤에 조두(刁斗)를[38] 전할 때 태만하여 일어나지 않고, 경주(更籌)가[39] 군법에 어긋나고 부르는 소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일컬어 태군(怠軍)이라 하고 참한다. 적을 보고도 살피지 않고, 적을 살필 때 자세하게 하지 않으며 적이 왔어도 왔다고 말하지 않고, 적이 오지 않았는데도 왔다고 하고, 적이 많아도 적다고 말하고, 적이 적어도 많다고 말하는 것을 일컬어 오군(誤軍)이라고 하고 참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삼고, 다른 사람의 수급(首級)을 빼앗아 자신의 공으로 삼는 것을 일컬어 도군(盜軍)이라 하며 참한다. 그 지역에 이르러 그곳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깔보며, 부녀자들에게 잘못을 범하면 이를 일컬어 간군(姦軍)이라 이르며 참한다. 적의 화포를 두려워하여 매복처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일컬어 마군(靡軍)이라고 하여 참한다. 적과 전투를 벌일 때, 1보라도 움츠리고 물러나면 이를 일컬어 겁군(怯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38) 조두(刁斗) : 군중에서 낮에는 밥을 짓는 데 쓰고, 밤에는 경보를 알리는 데 사용하는 솥과 같은 기구.

39) 경주(更籌) : 밤중 시간을 계측하는 기구로 순시하는 군사가 관청이나 병영에 시각을 보고하는 것.

軍)이라고 하며 참한다. 대오를 이탈하여 앞에서 싸우는데 뒤에서 난리를 치고, 말로 소란을 피우면서 금령(禁令)을 따르지 않으면 이를 이르러 난군(亂軍)이라고 하며 참한다.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고 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며 주장(主將)이 부리고자 할 때, 고집을 꺾지 않고 다스리기 어려우면 이를 이르러 횡군(橫軍)이라고 하여 참한다. 큰 소리를 치며 농담을 하기를 마치 윗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하여 금하게 하여도 그치지 않으면 이를 이르러 경군(輕軍)이라고 하여 참한다. 병기를 담당하면서 활과 화살을 부러뜨리고 칼과 창을 상하게 하며 둑기[旂纛]를[40] 점점 쇠하게 하면 이를 이르러 기군(欺軍)이라고 하여 참한다. 요사스럽고 속이는 말로 귀신을 만들어 내고 몽매함에 기대어 이사(吏士)를 두려움에 현혹되게 하면 이를 이르러 요군(妖軍)이라고 하여 참한다. 간사한 혀와 날카로운 입으로 옳은 것을 다투고 그릇된 것을 모으며, 사졸의 원망을 산다면 이를 이르러 방군(謗軍)이라고 하여 참한다. 장군이 전술을 세울 때, 장막에 다가가고 담장을 엿보아서 사정을 몰래 듣는다면 이를 이르러 탐군(探軍)이라고 하여 참한다. 혹시 전술을 듣고 군중에 명령을 내릴 때, 밖으로 큰 소리가 나가서 적들이 이를 알게 된다면 이를 이르러 배군(背軍)이라고 하며 참한다. 병사가 부림을 당할 때, 입을 닫고 응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난색을 표한다면 이를 이르러 한군(恨軍)이라고 하여 참한다. 부상을 칭하고 병을 핑계 삼아 어려움과 고생을 피하려고 한다면 이를 이르러 사군(詐軍)이라고 하여 참한다. 재물을 주관하여 상을 내릴 때, 친분에 따라 사사롭게 행동하여 이사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를 이르러 순군(狥軍)이라고 하여 참한다. 부대 내에 음식을 보내 군사를 위로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술을 마시면 이를 이르러 광군(狂軍)이라고 하여 참한다."고 하셨다. 장졸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무릇 군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대강(大綱)이며, 장수의 대병(大柄)이니, 어찌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과거에 전양저(田穰苴)가[41] 본보기를 세우기 위해 장가(莊賈)를[42] 죽였으며[43], 제갈공명은 눈물을 흘리며 마속(馬謖)을[44] 베었다. 너희들은 이를 경계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또 명령을 내리시기를 "전쟁터는 반드시 죽는 곳이기에 숙살지기(肅殺之氣)가[45] 있으니

---

40) 기독(旂纛) : 국왕의 행차나 군대 출정시 앞에 세우던 깃발로 국왕 및 지휘관의 군령권을 상징하던 의장의 일종이다.

41) 양저(穰苴) : 춘추시대 제경공(齊景公)의 장수인 사마양저(司馬穰苴)를 지칭한다. 본명은 전양저인데 대사마(大司馬)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사마양저라고 부른다. 그는 용병술이 뛰어난 장수로 이름을 날렸다.

42) 장가(莊賈) : 춘추시대 제경공(齊景公)이 총애하던 신하이다.

43) 과거에 전양저가 …… 장가를 죽였으며 : 해당 일화는 군령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제경공이 전양저를 장군으로 삼아 연나라와 진나라의 침입을 방어하게 하였는데, 감군 장가가 제경공의 총애를 믿고 술을 마시고 늦게 도착하였다. 그에 따라 전양저는 장가를 참수하여 군령을 엄격하게 지켰다.

44) 마속(馬謖) :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무장이다. 제갈량(諸葛亮)의 명으로 북벌 때 통수(統帥)가 되었으나, 촉한(蜀漢) 가정(街亭)에서의 싸움에서 위(魏)나라 장군 장합(張郃)에게 크게 패하여 중원(中原) 공략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제갈량은 이를 애석하게 여겼으나,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었다고 하여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고사가 생겼다.

죽으면 다시 살 수 없고, 목이 베이면 다시 붙일 수 없다. 물은 막힘없이 흘러 마침내 돌을 굴려 벼랑을 무너뜨렸고, 뜨거운 화염은 끝내 쌓인 것을 태워 산을 불살랐으니 이는 모두 한결같았기 때문이다. 지금 서양 오랑캐들이 분쟁을 일으켜 요기(妖氣)가 바다에 가득하니 만 리에 우리 군대가 돌입하기에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데, 이는 병법에서 꺼리는 바이다. 지금 우리 군대가 기력을 하나로 모으고 같은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며, 군부(君父)의 근심을 풀어주고 아래로는 부인과 자식의 위기를 구하여 대적을 격파하여 이름을 천하에 떨쳐 공을 백세토록 전할 것이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여러 군사들이 모두 감복하여 엎드려 이를 들었다. 그날 유시(酉時, 오후 5~7시)에 본 읍의 한진방수장(漢津防守將) 황모진(黃毛辰)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돛 두 개 달린 이양선 1척이 팔미도(八尾島)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하니 이는 곧 남양과 인천의 경계이다. 해 질 녘이 되어 단지 군중에 경계를 엄중하게 하였고, 연해 포구에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게 하였다. 군사와 화포를 매복시켜 불을 들어 서로 응하게 하며, 척후병들은 순찰을 돌아 각기 단속하게 하였다. 건교(健校) 김윤현(金允鉉)에게 각 처의 매복한 군사들의 부정을 단속하게 하고, 깃발을 눕히고 북을 중지하며 군사들이 힘써 안정을 취하게 분부하였다. 삼군부(三軍府)[46]·순영(巡營)[47]·진무영(鎭撫營)에[48] 적군의 동태를 달려가 보고하게 하고, 대원군께[49] 글을 올렸다. 이미 숙부의 엄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녁을 먹은 뒤에 인사를 드리고 바로 서울로 향하여 숭례문 밖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아직 숭례문이 열리지 않아 주막에 돌아와 앉아 문이 열려 성에 들어가기를 기다림에 아침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 今四月初六日

晴. 昨夕水原狀啓, 洋船自楓島, 捲入內洋云, 卽仁川海也. 終夜不能寐, 曉初鼓發往仁川, 日旣向曙. 登星峴, 望見文鶴峰, 旗旆播立, 士卒列陣, 始入府內通衢 已作軍門, 把門軍校遮拒曰, 軍中有使道令飭許入云, 躊【躕】躇路傍少間, 執事特令旗開門, 趁謁叔父, 擧義責余曰, 人臣誓死, 王事各有其職, 汝以侍衛之臣 效忠境外, 誠非道理之意, 嚴

45) 숙살지기(肅殺之氣) : 가을의 쌀쌀한 기운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전쟁터의 살기가 있는 분위기를 비유하는 듯하다.
46) 삼군부(三軍府) : 군무를 통솔하던 군령권의 최고 기관으로 1865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군령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삼군부가 실질적으로 작동된 것은 1868년으로, 군무를 통솔하고 숙위를 총괄하는 등 변방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였다.
47) 순영(巡營) : 조선시대 각 도의 관찰사가 겸임한 순찰사(巡察使)의 군영으로서 1555년 을묘왜란 이후 대두되었다. 한편 순영은 국방과 치안 모두를 담당하다 1895년 폐지되었다.
48) 진무영(鎭撫營) : 1700년 한성과 서해의 수로 등지를 방어하기 위해 강화도에 설치된 군영이다. 설치 이래로 진무영은 지속되다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1779년 통어영(統禦營)과 병합되었다가 10년 뒤 다시 분리되었다. 그리고 병인양요 직후 한강 하구에 대한 방비 중요성을 이유로 진무영은 점차 강조되기 시작했다.
49) 운궁(雲宮) : 운현궁(雲峴宮). 고종의 친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의 저택으로, 이 글에서는 흥선대원군을 지칭한다.

辭斥之，明日上洛之意伏達．叔父會合，諸校諸吏，號令肅嚴，激勸忠義，曉諭禦賊之策曰，彼有三短，我有三長，彼則深入他境，不知山川道里，一短也．但恃舟楫，不能下陸步戰，二短也．糧餉雇卒，不過船中所載，三短也．我則將卒熟暗沮洳，先得地理，一長也．以正斥邪，以陽制陰，上下忠奮，莫不激奮，二長也．列邑猗角，援師繼至，三長也．有此三長，畏賊之三短者乎．遂作歌曰，　萬里長海，萬里風屹，然鶴山鎭，漢南은 揮不去 撓不動헌은져．千年石壁，百尺靑松，嚴霜과 疾風인들 變헐손가，山心人心同一心을．使軍中和歌．

○ 卽見德積鎭所報，始知洋船先到一隻，留碇於水原楓島黔島之前，少頃又報，異樣船四隻，起煙上來，與先到一隻，同爲發船前進，留碇於水原桃里海云．吹笛升帳，招集吏校，廣詢禦賊之策，收聚砲銃之俱，遂調發將卒，固守沿海各浦，分付座首鄭學霖，領率防守將姜大月 崔錫允 及本浦軍，嚴守濟物浦，分付防守將朴近成，守花村浦，分付防守將崔弘淳 韓裕弼，領率本浦兵，守十井浦，分付防守將李命吉，領率本浦兵，守瓮巖浦，分付防守將黃毛辰，領率本浦兵，守漢津，使防守將崔更孫，守道場浦，使防守將金龍運，守南村前浦，使防守將徐興秀，守古棧浦，使防守將韓輔汝，守新峴浦，使起義士人李恒鎭，堅守星峴，使前哨哨官河濟雨，領率本哨兵，結陣官門，使中哨哨官貢在善，領本哨兵，緊守文鶴山西峴及霽月峰，使別將崔興九，領烽軍，埋伏山城墟，使吏房金在健，刑吏金振聲，率火砲軍，埋砲於鶴山之東西，使退印朴順福 金二淵，率火砲軍，埋砲於鶴山之前後，使後哨官金舜燁，領本哨兵，緊守刀鑽峴，使中軍李圭鉉，領府內砲兵，緊守後山，分付貢宅善 金鎭孝 李漢奎 李光杓 金允賢等，領率火砲軍及水【手】弩兵，伏兵於寶屛峴 茂主峴 望峴 麻根峴 邑洞口等五處．賊入則晝以擧旗，夜則擧火爲號，分付李淵兢 貢應善 貢亮默 李承圭 金七淵 宋啓萬等六人，領率民兵，掘土爲甲於各處阨口，諸軍晝夜埋伏，以爲破賊之策，分付右兵房蔡延夏，遊擊爲斥堠七浦，以左兵房金洪九 金鎭敎，主管粮餉，分付都領將李佑鉉，專掌軍器，金魯鎭使之助管焉．遂招致諸校軍卒於臺下，分付約束曰，將者國之干城，民之司命，今大賊壓境，受命破賊，安危在此，死生在此，正是忠臣報國之日，智士成功之秋，　乃下令曰，夫聞鼓不進，聞金不止，旂擧不起，旗低不伏，此謂悖軍斬之．呼名不應，召之不到，往復愆期，動乖師律，此謂慢軍斬之．夜傳刁斗，怠而不振，更籌乖度，聲號不明，此謂怠軍斬之．觀寇不審，探寇不詳，到而不言到，不到而言到，多而言小，小而言多，此謂誤軍斬之．竊人財貨，以爲己利，奪人首級，以爲己功，此謂盜軍斬之．所到之地，凌侮其民，逼其婦女，此謂姦軍斬之．畏賊火砲，跳出土甲，此謂靡軍斬之．與賊接刀，退縮一步，此謂恟軍斬之．出越行伍，爭前亂後，言語諠譁，不馴禁令，此謂亂軍斬之．多出怨言，怒其不賞，主將所用，崛强難治，此謂橫軍斬之．揚聲笑語，若無其上，禁戢不止，此謂輕軍斬之．所掌器械，弓絶箭傷，劒戟破折，旂纛凋弊，此謂欺軍斬之．妖言譎辭，撰造鬼神，托憑夢寐，恐惑吏士，此謂妖軍斬之．奸舌利嘴，鬪是攢非，

搆怨士卒，此謂謗軍斬之．將軍聚謀，逼帳矚垣，竊聽事情，此謂探軍斬之．或聞所謀，軍中號令，揚聲於外，使賊聞知，此謂背軍斬之．使用之時，結舌不應，低眉俛首，極有難色，此謂恨軍斬之．托傷詭病，以避艱難，此謂詐軍斬之，主掌財帛，賜賞之際，阿私所親，吏士結怨，此謂狗軍斬之．營壁之間，旣非犒設，無難飮酒，此謂狂軍斬之．　將卒曰，汝等勿爲犯罪，夫軍法者，國之大綱　之大柄也，可不重歟．昔穰苴立表而誅莊賈，孔明揮淚而斬馬謖　爾等愼之．又下令曰，兵者必死之地，肅殺之氣也．死不可復生，斬不可復續涓涓之水，終能轉石崩崖，炎炎之火，竟能燒積焚山，皆專一之故也．今洋醜啓釁，妖氣漲海，萬里涉危，孤軍深入，此兵家所忌，今我軍專一氣力，同心王事，仰弛君父之憂，下救妻子之危，擊破大賊，名振天下，功傳百世，豈不美歟.”諸軍皆感，伏聽用矣．當日酉時，本邑漢津防守將，黃毛辰馳報，異樣二帆船一隻，留碇於八尾島前洋，卽南陽仁川兩界也．適値薄暮，但戒嚴軍中，申飭沿海浦口，伏兵埋砲，擧火相應，斥堠巡更，另加團束．分付健校金允鉉，摘奸各處伏兵，偃旗息鼓，務使安靜，馳報賊情，於三軍府巡營鎭撫營，上書雲宮．旣承叔父嚴敎，夕飯後辭退，直向京城，到崇禮門外，尙未開門，退坐酒家，待開入城，不能成寐朝．

초 7 일

이른 아침에 운현궁에 가서 명함(名啣)을 올렸으며, 곧 대원군의 안부를 묻고 숙부께서 엄하게 문책한 이유를 상세하게 고하였다.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시위의 직을 사직하고 인천에서 종군하며 숙부와 조카가 힘을 합해 적을 격파하고자 엎드려 청하니, 특별히 관직을 바꾸어 출정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대원군의 하교를 받고 물러나 곧장 진으로 갔다. 숙부께서 "너는 어찌해서 다시 왔느냐"고 말씀하셔서 나는 다시 돌아온 이유를 상세하게 고하였는데, 숙부께서 크게 꾸짖으시길 "시위는 적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어찌 경솔하게 주반룡(周盤龍)[50] 부자가 이름을 떨치고, 환석건(桓石虔)[51] 숙질이 분기한 것을 본받고자 하느냐."고[52] 하셨다. 이미 운현궁의 분부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막 아래에 머물렀다.

○ 숙부께서 서종숙(庶從叔) 구윤식(具允植)에게 '대적이 경계를 압박하고 우리 군대는 변경을 경계하고 있지만 충의를 떨치고 일어날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임금께서는 정사에 부지런히 힘쓰시는데, 변경에서는 어지럽게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지사(智士)들은 분발하여 일어나기를 정하여 마음을 모아 성을 이루었다. 군기가 서로 이어져 진을 이루는 것이 마치 별과 같고, 위아래는 서로 연결되어 밖에는 돌무지를 두르고, 안에는 화포를 갖추었다. 또한 땅을 파서 무장하며 정예병은 이미 매복하였고, 화공(火攻)을 갖추어 계획이 심히 치밀하니 일이 성사되는 것을 기대할 만 하다. 강에서의 승리가 어그러지면 수양(睢陽)의 충절을[53] 면하기가 어려우니, 위로는 80세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10세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임금께서 어찌 보호하실 것인가?'라고 편지를 쓰셨다.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저들의 배가 한진(漢津)의[54] 앞 바다에 이르러 머물렀다. 저들의 조각배가 돌입하니 이는 필시 적들의 정예병이 밤중에 오려는 것으로 포를 싣고 저쪽의 배에 몰래 접근하여 먼저 그 기세를 꺾고 의병(疑兵)을[55] 많이 배치하여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면 뒤에 있는 적들은 간담이 서늘하고 넋을 잃을 것이나, 본 읍에는 오직 황자소포(黃字小砲)[56] 2좌만 있을 뿐이니 일을 시작할 수가 없다.

---

50) 주반룡(周盤龍) : 남북조 시대에 변방에 대장(大將)으로 있다가 전공을 세워 중상시(中常侍)에 임명된 인물이다.
51) 환석건(桓石虔) : 동진(東晉)의 환활(桓豁)의 서장자(庶長子)로서 용맹하기로 유명하였다.
52) 주반룡 부자가 …… 하느냐 : 주반룡과 환석건 모두 전공을 세우거나 용맹하기로 이름을 떨친 자 였기 때문에 구완식은 구연상이 시위직을 사임하고, 인천으로 온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임을 경계하기 위해 해당 고사들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53) 수양(睢陽)의 충절 : 안록산의 난 당시 수양(睢陽)에서 고립되었으나 반란군에 굴복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 싸우다 전사한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의 고사를 의미한다.
54) 한진(漢津) : 조선시대 먼우금면에 속해있던 나루터이며, 지금의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해당한다.
55) 의병(疑兵) : 적군에게 아군의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놓은 가짜 병사이다.
56) 황자소포(黃字小砲) : 황자총통(黃字銃筒)이라고도 불린다. 화약무기의 일종으로 포신의 중간에 정철

○ 숙부께서 운현궁에 서신을 보내고, 양영(兩營)에 급히 보고를 올려 대포 10좌·불랑기(佛狼機)[57]·수노(手弩)[58]·화약(火藥)·환도(環刀)[59] 등 제반 군기와 잠수군(潛水軍) 수십 명을 줄 것을 청하였다. 숙부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난기(蘭錡)를[60] 배종하여 군정을 깊이 알았고, 일찍이 융무(戎務)를 총괄하여 자못 병무를 알았다. 생각지도 못한 틈에 공격하고, 대비하지 않았을 때 공격하는 것이 지금의 좋은 방책이거늘 먼저 하나의 기회를 잃었으니 탄식할 만하다."라고 하셨다. 내가 묻기를 "대포(大砲)는 능히 적선을 부술 수 있고 동발공(銅發孔)의[61] 무게가 천근이 되며 탄약 300근을 장전하면 비거리가 30리에 이릅니다.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고 산은 무너지며, 성벽이 부서질 것입니다. 또한 구우옹포(九牛甕砲)의 힘은 마치 벼락과 같아 소리가 하늘을 흔들고, 부딪혀서 가루를 만드니 급히 양포(兩砲)[62] 수십 건을 만들면 적을 격파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좋기는 좋으나 새로 만들기는 더욱 어렵다. 대연환(大鉛丸)을[63] 넣은 천자총통(天字銃桶)[64] 수십 좌를 줄을 지어 묻어둔 뒤에 적을 향해 연이어 쏜다면 적선을 부수고 적을 격파할 수 있으니 마땅히 조정에 요청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 중군 이규현이 밀고하기를, "스스로 광주 수교(首校)의[65] 아들이라 칭하는 자가 있는데, 적을 꾀어 상륙하게 할 수 있는 계책이 있어 매복한 병사들이 적을 도륙하여 공격을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숙부께서 답하시길, "병법에 이르기를 '무릇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正)으로써 맞서고 기(奇)로써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변칙적인 작전을 낸다는 것은 무궁함이 천지와 같고, 마르지 않는 것이 강과 바다와 같으니 끝나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일월이 그렇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계절이 그렇다. 전세(戰勢)라는 것은 정(正)·기(奇)에 불과하니, 두 가지의 변화는 끝이 없다. 장수의 좋은 계책이라는 것은 계책을 내는 와중에 몰래 들어가 강한 적을 깨트리는 것이며, 심오한 계책은 담소를 나누는 와중에 홀로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을 달아 포가에 얹을 수 있도록 만들고, 총통 후미에는 자루를 낄 수 있는 모병이 달려있다.

57) 불랑기(佛狼機) : 명대에 포르투갈에서 전래된 대포이며,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불랑기포를 도입하였다. 불랑기는 하나의 모포(母砲)에 여러 개의 자포(子砲)를 갈아 끼워 빠른 속도로 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조선후기에 보편화되었다.

58) 수노(手弩) : 활틀 위에 얹은 목제 탄창에 짧은 화살을 여러 개 넣고 손잡이를 당기면 자동으로 화살이 발사되는 무기이다. 조선후기에 보편화 되어 각 지방의 군영에 대량으로 비축되었다.

59) 환도(環刀) : 단병기로써 1277년 4월 고려에 전래된 이래로 주요 무기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 들어서는 점차 환도의 규격이 작아져 임진왜란 당시 문제가 되었다.

60) 난기(蘭錡) : 무기를 걸어두는 목재 거치대를 지칭한다.

61) 동발공(銅發孔) : 대포환을 의미하는 듯하다.

62) 양포(兩砲) : 대포(大砲)와 구우옹포(九牛甕砲)를 의미한다.

63) 대연환(大鉛丸) : 연환(鉛丸)은 납으로 만든 탄환을 지칭하는 말로 대연환은 그 가운데 크기가 큰 탄환을 말하는 듯하다.

64) 천자총통(天字銃桶) : 조선시대 대형 총통(銃筒)으로 천자총통·지자총통(地字銃筒)·현자총통(玄字銃筒)·황자총통(黃字銃筒) 중에서 가장 큰 총통이다.

65) 수교(首校) : 각 고을 장교의 수장을 의미한다.

는 것이니 지금 나에게 정정당당한 기세로 이를 행하라고 한다면 이는 구차한 계획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니 요행을 바랄 수 밖에 없지 않는가."라 하여 마침내 크게 웃으시고는 그를 잘 대우하며 머무르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으니 답하시길, "호랑이와 표범은 발톱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물면서도 이빨을 보이지 않는다. 용병(用兵)의 방법은 유약하게 보이면서도 강하게 맞서는 것이며 약해 보이면서도 강하게 올라타는 것이고, 작게 하면서도 크게 쓰는 것이며 넓게 펼치면서도 좁게 쓰는 것이고 서쪽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동쪽에 두며, 먼저 하고자 하였는데 나중에 하는 것이니 방법이 하나는 아니다."고 하셨다.

○ 각 진의 사졸들에게 쇠고기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장차 군령으로 진을 펴는 것을 팔둔(八屯)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진입니까?"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진법은 하나가 아니다. 황제(皇帝)가 오진(五陣)을 만드셨는데, 직진(直陣)·예진(銳陣)·원진(圓陣)·방진(方陣)·곡진(曲陣)이다. 풍후(風后)의[66] 팔진(八陣)은 천진(天陣)·지진(地陣)·풍진(風陣)·운진(雲陣)·호익진(虎翼陣)·사반진(蛇蟠陣)·비룡진(飛龍陣)·조상진(鳥翔陣)이다. 손자(孫子)의 팔진은 방진(方陣)·원진(圓陣)·빈진(牝陣)·모진(牡陣)·형직진(衡直陣)·방의진(方宜陣)·거륜진(車輪陣)·안행진(鴈行陣)이다.[67] 오기(吳起)의 팔진은 곡진(曲陣)·직진(直陣)·예진(銳陣)·괘진(卦陣)·거상진(車箱陣)·거헌진(車軒陣)·아관진(鵝鸛陣)·직형진(直衡陣)이다. 제갈공명의 팔진은 동당진(洞堂陣)·중황진(中黃陣)·용등진(龍騰陣)·상조진(翔鳥陣)·연형진(連衡陣)·악기진(握奇陣)·호익진(虎翼陣)·절충진(折衝陣)이다.[68] 이는 모두 고법으로 삼재(三才)로써[69] 이를 이야기 한다면 별자리의 별이 드문드문 있는 것은 천진(天陣)이며, 산천이 등을 맞대고 있는 것은 지진(地陣)이며, 대오의 편성을 미봉(彌縫)으로 하는 것은 인진(人陣)이라고 한다. 내가 곧 의로써 군사들과 맺어졌고, 충의(忠義)와 분발이 마음속에 젖어 들며, 하늘의 바른 기운을 얻는 것이 천진에 부합하는 것이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또한 밭을 갈고 싸우는 것은 땅의 두터운 덕을 얻는 것이니 지진에 부합하는 것이다. 모집한 군중의 군사들이 임금의 은혜에 감동하고, 자제(子弟)가 부형(父兄)을 지키는 것과 같이하며 인화(人和)를 얻는 것은 인진에 부합하는 것이다. 삼재의 기운이 아울러 모이면 어찌 양이(洋夷)를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셨다.

---

66) 풍후(風后) :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써 황제와 치우가 전쟁을 벌일 때 지남차(指南車)를 만들었다. 병법·역법·산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67) 손자(孫子)의 팔진은 …… 직형진(直衡陣)이다. : 춘추시대의 병법가인 손무(孫武)가 만든 팔진을 말한다. 본래 손무의 팔진은 방진(方陣)·원진(圓陣)·빈진(牝陣)·모진(牡陣)·충방진(衝方陣)·부저진(浮沮陣)·거륜진(車輪陣)·안행진(鴈行陣)이나 충방진과 부저진을 대신하여 구연상은 형직진(衡直陣)과 방의진(方宜陣)이라고 표기하였다.

68) 제갈공명〔孔明〕의 팔진은 …… 절충진(折衝陣)이다. : 제갈량(諸葛亮)이 풍후(風后)의 팔진에 의거하여 동당진(洞堂陣)·중황진(中黃陣)·용등진(龍騰陣)·악기진(握奇陣)·호익진(虎翼陣)·절충진(折衝陣)·조비진(鳥飛陣)·형진(衡陣)을 제작하였다. 조비진의 경우 상조진(翔鳥陣) 혹은 조상진(鳥翔陳)이라고도 불렸다.

69) 삼재(三才) : 천지인(天地人)을 지칭한다.

○ 初七日

早朝往雲宮入呈名啣, 卽爲承候詳告, 叔父嚴責之由, 時帶侍衛之職, 伏請辭職 從軍於仁川 叔侄同力破賊, 特蒙帶職從征之, 下敎辭退, 卽往陣上. 叔父曰, 汝何更來, 余詳告所由, 大責曰, 侍衛甚重禦賊, 猶輕欲效周盤龍父子播名, 桓石虔叔侄奮氣耶. 旣承雲宮分付, 不得已留在帳下.

○ 叔父下書於庶從叔允植曰, 大賊壓境, 孤軍制邊, 忠義奮發丹心已定, 而上有宵旰之優, 邊有犬羊之撓, 此正智士激勵之秋也. 衆心成城, 機應相續, 列陣如星, 首尾幷接而外布石屯, 內藏火砲, 且掘土之甲, 精銳已伏, 火攻之俱, 劃計甚密, 事成可期鼎, 江之捷舛, 違難免睢陽之節, 上有八耋之親, 下有十歲之子, 君其保護焉. 申時, 彼船直到漢津前洋留碇矣. 彼之輕舸闖入者, 此必賊之精銳乘夜, 載砲暗近彼舶, 先摧其鋒, 多設疑兵, 以眩其心, 則賊之在後者, 心喪膽落魄然, 本邑只有黃字小砲二坐, 不能下手.

○ 叔父上書雲宮, 馳報兩營, 請給大砲十坐, 佛狼器·手弩·火藥·環刀等, 諸般軍器與潛水軍數十名. 謂余曰, 早陪蘭錡 深知軍政夙總戎務, 頗識兵樞出, 其不意攻, 其無備爲 今良策, 先失一機可歎, 余問曰, 大砲能碎賊船, 而銅發孔重千斤, 藏藥三百斤, 飛奔三十里, 聲動天地崩山頹城, 又有九牛甕砲勢若霹靂, 響聲震天, 所拍齏粉, 急造兩砲十數件破賊, 未知若何. 叔父曰, 好則好矣. 新造愈難, 天字銃桶藏大鉛丸, 列埋數十坐, 向賊連放, 可碎船破賊, 當仰請朝庭耳.

○ 中軍李圭鉉密告曰, 有人自云廣州首校之子, 有誘賊下陸之策, 可伏兵屠戮以成奇功云. 叔父曰, 兵法云, 凡戰, 以正合, 以奇勝, 故出奇者, 無窮如天地, 不渴如江海, 終而復始, 日月是也, 死而更生, 四時是也. 戰勢不過奇正, 奇正之變, 不可勝窮也. 爲將者善計, 潛行破勁賊於籌畫之下, 深謀 獨運解重圍於談笑之間, 今我正正之氣, 堂堂之勢行, 此苟且之計, 做事僥倖之間乎. 遂大笑使之善待留之, 或問其故, 答曰, 虎豹不外其爪而噬不見齒, 用兵之道示之以柔而迎之以剛, 示之以弱而乘之以强, 爲之以小而用之以大, 布之以廣而用之以陝, 欲西示東, 欲先示後, 不可一道也.

○ 推牛饗各陣士卒, 或問曰, 將軍令列陣八屯與何陣也. 叔父曰, 古者陣法不一, 黃帝爲五陣, 直·銳·圓·方·曲也. 風后八陣, 天·地·風·雲·虎翼·蛇蟠·龍飛·鳥翔也. 孫子八陣, 方·圓·牝·牡·衡直·方宜·車輪·鴈行也. 吳起八陣, 曲·直·銳·卦·車箱·車軒·鵝鸛·直衡也. 孔明八陣, 洞堂·中黃·龍騰·翔鳥·連衡·握奇·虎翼·折衝也. 此皆古法, 以三才言之, 星宿孤虛天陣也, 山川向背地陣也, 編伍彌縫人陣也. 我則師以義結, 浹洽忠奮, 得天正氣, 付之天陣, 足食約費, 且耕且戰, 得地厚德, 付之地陣, 募之軍之士, 動感君恩, 如子弟之衛父兄, 得人得和, 付之人陣可矣. 三才幷氣, 何患洋夷也.

초 8 일

사시(巳時, 오전 9~11시)에 저들의 배가 전진해 영종(永宗) 앞을 지나 부평(富平)에 도착하여 호도(虎島)[70]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배가 지나가는 사이에 종선(從船) 4척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물의 깊이를 측량하였다. 큰 배 위에는 백장(白帳) 네 장 짜리의 붉은 깃발 1면이 꽂혀 있는데, 길이가 50파(把)는[71] 되고 넓이가 15~6파 정도가 되었다. 검은색의 돛대는 높이가 수십 장이 되고, 가운데에는 연통(煙桶)이 있었다. 배의 높이는 수면에서 2장(丈)의 높이였으며, 빠르기가 나는 것과 같았다. 숙부께서 건교와 퇴인 등 수십 명을 거느리고, 제물진에서 적을 엿보았다. 진무영에서 운현궁의 분부에 의거하여 전령을 보내오기를, '저들의 배가 처음 도착하여도 절대 먼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만약 적들이 대관(大官)을 찾는다면 거절하고 조정에 빠르게 보고하여 답을 하라. 그 좋고 나쁨을 살펴 때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통지하라'고 하였다. 본 읍의 지형은 평이하여서 산세가 낮아 나아감에 요해처의 이익이 없고, 방어함에 있어서는 성곽을 믿을 수 없으니 저들의 포환은 우리군을 두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토갑(土甲)을[72] 이미 요충지에 만들어 두었고, 화포를 해문의 돌무지에 감추어 두었으며, 강한 활도 함께 갖추어 두었으니 군중과 사졸의 용기가 백배 충전하여 굳건함이 믿을 만하다.

○ 저들의 배가 먼저 도착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형세를 살피고 또한 바닷길도 엿볼 것이다. 그에 따라 나는 영종방어사(永宗防禦使)에게 글을 보내 양 읍에서 야간에 화포와 화전을 월미도(月尾島)에[73] 매립하기를 제안하였다. 저들이 우리가 방비하고 있음을 안다면 능히 이처럼 거리낌이 없을 수가 없다. 이에 군중에 명을 내려 밤에 해변을 순찰하게 하고, 엄격하게 경계하게 하였다.

○ 初八日

巳時, 彼船前進過永宗前, 直到富平, 虎島前洋留碇, 行船之際, 從船四隻, 或前或後, 測水淺深, 大船上竪, 紅旗一面以白帳四張, 長可五十把, 廣可十五六把, 色黑檣高數十丈, 中有煙桶, 船高水上可二丈, 其疾如飛. 叔父領健校退引等數十, 覘賊於濟物津, 鎭撫營因雲宮分付, 傳令來到, 彼船初到切勿, 先施生釁若覓大官方, 馳告朝庭爲答, 觀其善惡,

70) 호도(虎島) : 현재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속해있는 섬으로 생긴 모습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하여 호도(虎島) 즉, 범섬으로 불렸다. 바닷물의 수심이 깊고 조류가 완만하여 큰 배가 다니거나 정박하기 쉬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71) 파(把) : 두 팔을 벌린 정도의 길이로서 약 1.8m에 해당한다.
72) 토갑(土甲) : 땅을 파서 병사들이 매복할 수 있게 만든 참호이다.
73) 월미도(月尾島) : 제물진의 앞에 있는 섬으로서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해 있다.

隨機應變之意，有知委矣．本邑地形平易，山勢微低，進無要隘之利，守無城廓之恃，彼之砲丸一軍爲懼也．土甲已成於要衝，火砲俱埋於海門石屯，强弩幷藏，軍中士卒勇氣百倍，恃以爲固．

○ 彼船先到，必探我勢，且探海路者也．遂我書永宗防禦使，兩邑夜埋火砲火箭於月尾島，彼知有備，則使不能無所顧忌之若是也．乃下令軍中，夜巡海邊，另加戒嚴．

초 9 일

바람이 크게 불었다.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저들의 배가 종선 4척을 이끌고 팔미도로 향하여 갔으며, 섬 주위를 돌아 호도 앞으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배를 출발시켜 팔미도에 이르렀다. 섬 주위를 돌아 전에 머물던 곳의 근처로 올라갔다. 종선 1척이 따라서 올라오지 않고 같은 날 술시(戌時, 오후 7~9시) 즈음에 적선에 돌아와 배를 대었다. 그 배가 갔다가 돌아온 곳이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는데, 뒤에 있는 배를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의주 사람 이창수(李昌秀)가 역원(譯院)의 공문을 가지고 사정을 탐문하고자 밤을 잊은 채로 내려왔으나 여러 날 동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 문정(問情)하지[74] 못하고, 진에서 기다리며 머물렀다.

○ 初九日

大風. 午時彼船率從四隻, 向八尾島進去, 旋卽上來於虎島前, 又復發船至八尾島, 還爲上來依前留碇, 從船一隻仍不上來. 同日戌時量, 還泊於彼船, 其往返何處, 未可的知, 似接引後船也. 灣人李昌秀, 持譯院公文問情次, 罔夜下來, 連日風浪, 不得問情, 因留待陣上.

74) 문정(問情) : 사정을 묻는다는 뜻으로, 외국의 배가 처음으로 항구에 들어왔을 때나 외국인이 표류하여 왔을 때 문정관(問情官)을 파견하여 그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다.

초 10 일

짙은 안개가 끼고 바람이 크게 불었다. 진시(辰時, 오전 7~9시) 즈음에 저들이 또 배를 출발시켜 팔미도 앞을 향하여 닻을 내리고 머물렀다. 직접 교리와 사졸들을 이끌고 진을 나와 문학산의 남쪽에서 적들의 정세를 몰래 살폈다. 저들의 종선 4척이 인천·남양·안산의 경계를 넘나들다가 옥기도(玉基島)[75] 앞에 이르러서는 물의 깊이를 재고 돌아왔으며, 큰 배와 더불어 일제히 떠나 먼 바다로 나갔다. 삼일 간 팔미도와 호도 사이를 네 번이나 왔다 갔다 하였다. 여러 날 동안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고, 바다에 큰 파도가 매우 세차게 솟아오르는 데도 그들의 배는 바람을 거스르고 파도를 갈랐는데, 그 빠르기가 나는 것과 같아서 헤아리기 극히 어려웠다.

○ 初十日

陰霧大風, 辰時彼又發船, 向八尾島前留碇, 親率校吏士卒, 出陣文鶴山南, 覘察賊情, 彼從船四隻, 遍行仁川南陽安山之界, 至玉基島前測水還, 與大船一齊離發, 外洋出去. 三日之內, 四進四退, 於八尾虎島之間, 連日風浪海濤洶湧, 彼船逆風破浪, 其疾如飛, 極爲叵測也.

75) 옥기도(玉基島) : 인천 영종진(永宗鎭)에서 100리 떨어져 있는 안산 앞의 섬이다.

11 일

바람이 조금 불고 비가 내렸다.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 즈음에 저들의 이범선(二帆船) 2척과 삼범선(三帆船) 3척이 팔미도의 먼 바다로부터 연기를 뿜으며 올라왔다. 해무(海霧)가 사방에 자욱하여 아주 가까운 거리도 분간할 수 없었기에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을 담당하는 수군에게 배를 타고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도록 분부하였다. 적이 또한 한강 나루에 닻을 내리고 머물렀으니, 군중에 명을 내려 바다에 잠복하는 것을 잘하는 무리로 하여금 적들의 정세를 살폈으며, 적들이 배에서 내리길 기다려 먼저 올라가 저지하고 공격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후한 상을 주도록 하였다. 장교 공택선과 아전 공정선, 별무사 김흥서·이만보·정흥주·김태산·최평손·황덕성·배복만·김노적·김원집·박영숙·신용길·최흥성·김학성·김판길·천의길·곽성철·한순교·박귀동·김무응술·최기산·하홍범 등은 모두 스스로 충의(忠義)에 힘쓰길 원하였는데 술과 고기를 하사하고 백미 2석과 전 20민을 먼저 나누어 주어 각기 힘쓰게 하니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 어떤 사람이 "아직 적의 군사를 격파하지 못하였는데 상과 재물을 먼저 베푸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라고 묻자 숙부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길, "이들은 전투에 익숙하여 절도와 규범이 있는 군사들과는 차이가 있다.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어 백성들은 군사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 적들의 배가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먼저 앞장서 모집에 응하였으니 스스로 충의에 힘쓰고자 하는 기상이 가상하고 또한 민심을 격려하여 고동(鼓動)하는 효과가 있었으니 어찌 상으로 권면하는 행동이 없을 수 있겠는가? 병법에 이르기를 '맛있는 미끼를 드리우면 밑에는 반드시 죽으러 오는 물고기가 있고, 후한 상을 내리면 밑에는 반드시 용맹한 장수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르는 것이니라." 하셨다.[76]

○ 역관 현계승 등 세 사람이 문정(問情)하는 일로 내려왔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며 안개가 자욱하여 본부에서 기다리며 머물렀다. 사졸들을 단속하여 연해의 포구를 굳게 지키게 하였으며, 대포를 쏘고 횃불을 들어 서로 접하여 응원하도록 했으며 척후(斥候)[77]·당보(塘報)부터[78] 요망(瞭望) 등의[79] 규칙을 따로 더욱 명심하게 하였다.

---

76) 병법에 이르기를 …… 하셨다 : 『삼략(三略)』「상략(上略)」에 "맛있는 미끼를 드리우면 반드시 물려고 오는 물고기가 있고, 후한 상을 내리면 반드시 용맹한 장부가 있다.[香餌之下 必有死魚 重賞之下 必有勇夫]"라고 한 말의 인용이다.

77) 척후(斥候) : 적군의 상황이나 적지의 지형 따위를 정탐하는 일을 말한다.

78) 당보(塘報) : 척후(斥候)하는 군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의 동정과 형편을 살피는 것으로. 당보기(塘報旗)를 가지고 알리는 일을 말한다.

79) 요망(瞭望) : 높은 곳에 올라 적의 형세를 살피는 일을 말한다.

○ 총융청(德戎廳)에서 불랑기(佛狼機) 10좌(坐)와 자포(子砲)[80] 50문(門), 대연환(大鉛丸)[81] 1,000개를,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82] 수노(手弩)[83] 5좌와 노전(弩箭)[84] 270지(枝)를, 금위영(禁衛營)에서[85] 화약 300근과 수노 5좌, 노전 300지를, 어영청(御營廳)에서[86] 수노 5좌와 노전 300지를 각각 집사들이 가지고 왔다.

○ 十一日

微風雨. 午時量, 彼二帆船二隻三帆船三隻, 自八尾島外洋, 起煙上來. 海霧四塞, 不辨咫尺, 分付巡哨水軍, 乘船往探還報. 賊亦留碇於漢津, 下令軍中, 有能潛伏海偶, 窺賊察情. 待賊下陸, 先登摧擊者, 當重賞矣. 將校貢宅善, 吏貢貞善, 別武士金興西·李萬甫·丁興周·金泰山·崔平孫·黃德成·裵福萬·金老迪·金元集·朴永叔·申龍吉·崔興成·金學成·金判吉·千儀吉·郭聖喆·韓順敎·朴貴同·金無應述·崔己山·河洪凡等, 皆願自効勉之忠義, 賜之酒肉, 白米二石錢二十緡先爲分給, 使各效力, 衆心大悅.

○ 或問曰, 未破賊兵, 先施賞資, 何故也. 叔父笑曰, 比與慣戰節制之士有異矣. 昇平日久, 民不知兵. 賊船初至, 人心疑懼, 令此輩先唱應募, 自願効忠義氣嘉尙, 且有激起皷動之效, 安得無勸賞之擧. 兵法曰, 香餌之下, 必有死魚, 重賞之下, 必有勇夫, 比之謂也.

○ 譯官玄繼昇等三人, 問情次下來, 以風浪霧塞, 留待本府. 團束士卒, 緊守沿海浦口, 應砲擧火相接, 以爲聲援, 斥候·塘報·及瞭望等節, 另加申筋.

○ 摠戎廳佛狼機十坐, 子砲五十門, 大鉛丸一千介, 訓鍊都監手弩五坐, 弩箭二百七十枝, 禁營火藥三百斤, 手弩五坐, 弩箭三百枝, 御營廳手弩五坐, 弩箭三百枝, 各其執事領來.

---

80) 자포(子砲) : 불랑기를 구성하는 화포로, 탄환을 뒤쪽으로 장전하는 후장식(後裝式)이다.
81) 대연환(大鉛丸) : 연환(鉛丸)은 납으로 만든 탄환을 지칭하는 말로 대연환은 그 가운데 크기가 큰 탄환을 말하는 듯하다.
82) 훈련도감(訓練都監) : 1593년 설립된 조선후기 국왕의 시위와 수도 방위를 담당하였던 중앙 군영 중 하나이다. 고종대 별기군이 설치되며 점차 위상이 낮아지다 1882년 친군영(親軍營) 제도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폐지되었다.
83) 수노(手弩) : 여러 발의 화살을 잇달아 쏘도록 만든 쇠뇌를 말한다.
84) 노전(弩箭) : 수노(手弩)에 사용되는 화살을 말한다.
85) 금위영(禁衛營) : 1682년 정초군과 훈련별대를 통합하여 설치된 국왕호위와 수도 방어를 담당하던 군영이다. 1704년에는 군제변통으로 인하여 1영(營) 5부 25사 125초의 향군(鄕軍) 번상숙위제도로 정비되었으며, 1881년 장어영(壯禦營)으로 흡수되었다가 1895년 혁파되었다.
86) 어영청(御營廳) : 1627년 설치된 번상군을 중심으로 도성 숙위를 담당하였던 중앙군영으로 1894년 갑오개혁 때 혁파되었다.

흐리고 바람이 붊. 미시(未時, 오후 1~3시) 즈음에 저들의 배 5척이 종선 60여 척을 이끌고 영종 앞바다를 지나 호도(虎島)[87] 앞에서 닻을 내리고 머물렀다. 의주 사람인 이창수, 조흥서, 우창모와 본 고을의 아전 김진성이 역관의 서함(書函)을 가지고 제물포에서 출발하여 저들의 배로 향하였는데, 장차 문정하고자 함이었다. 문득 1후(一堠)[88] 정도로 가까워지자 저들의 배로부터 대포 소리가 한번 들려왔는데, 그때 파도가 매우 세게 일어서 곧바로 배를 댈 수 없었다. 점차 1후(一堠) 쯤이 되었을 때, 문정하기 위해 왔다는 뜻을 여러 차례 크게 외치니 저들 10여 명이 작은 배를 타고 우리 배로 와서 정박하였다. 피차간에 서로 마주하였으나 양인(洋人)들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칭 해남(海南)에 산다는 이가(李哥)와 강남(江南)에 산다는 표가(表哥)라는 청국(淸國) 사람들이 있어서 오랑캐의 말로 서로 소통하고 마침내 온 연유를 물어본 즉, 청국 사람들의 말로 이르기를 '이곳에 잠깐 머무르려면 마땅히 저들 나라의 흠차대인(欽差大人)에게 가서 아뢰어야 하니 들은 말을 통기(通奇)하라[89]'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잠시 후에는 저들이 뱃머리로 나와 서서 손을 흔들며 부르는 까닭에 즉시 저들의 배로 갔더니 돛 세 개 달린 큰 배에 사다리 모양의 계단이 있어 저들이 내려와 영접하였다. 그러므로 물어보기를, "너희 상관은 배에 있는가?" 하니 저들은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함께 그 배에 올라 2층 누방(樓房)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각자 자리로 나아가서 서로 둘러앉았다. 미국(美國)에 사는 가가(賈哥)와 두가(杜哥) 성을 가진 자들이 오랑캐의 말에 능통하였으므로 우선 시험 삼아 "너희 나라의 상관은 누구이며, 먼 길을 오게 된 연유는 무슨 일 때문인가?"하고 물었다. 양인(洋人)이 대답하기를 "미국(美國) 정1품 제도독(提都督) 흠차대인 누비적(錢斐迪)이며,[90] 먼 길을 온 일은 조선국(朝鮮國)의 대관(大官)이 온 후에 말하겠다."라고 하였다. 만나보기를 청하였더니 "우리나라의 대인(大人)이 이곳에 왔으니, 너희 나라의 대관(大官) 외에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부드러운 말로 공손히 설명하여 만나보길 청하였지만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서(傳書)를 내어 주고 "너희 나라 대인(大人)에게 가서 보이고 답을 받아 오라." 하니 곧 청국 사람 이가(李哥)가 받

87) 호도(虎島) : 현재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속해있는 섬으로 생긴 모습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하여 호도(虎島) 즉, 범섬으로 불렸다. 바닷물의 수심이 깊고 조류가 완만하여 큰 배가 다니거나 정박하기 쉬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88) 일후(一堠): 10리를 의미한다.
89) 통기(通奇) : 기별(奇別)을 보내어 알게 함을 뜻한다.
90) 누비적(錢斐迪) : 프레드릭 로우(Frederick Low, 1863-1867)의 중국식 음차이다. 1869년부터 1874년까지 청나라 주재 공사로 복무하였다.

아 갔는데, 반나절이 지나서야 답서를 받아 왔다. 그러므로 막 나오려 할 때 두씨 성의 양인(洋人)이 그 나라 대인(大人)의 말로써 거듭 부탁한 것이 세 가지 조항이 있었으니, 하나는 너희 나라에 가서 아뢰어 대인(大人)을 차출해 보내면 상의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비록 이곳에 왔지만 백성들을 해칠 이유는 전혀 없으니 지방관에게 신칙(申飭)하여 백성들을 농사에 힘쓰게 하고 생업을 잃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며, 셋째는 너희 나라 사람들이 매번 먼저 포를 설치하여 해하려는 뜻이 있으므로 각별히 만류하여 서로 틈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답하기를 "문정을 위해 세 명의 상관이 인천부에 와서 머무르고 있으니 우리들이 돌아가면 상관 세 명이 또 올 것이다."라 하였더니 저들은 "들여보내라."라고 답하였다. 그 배의 형태를 살펴보니 바깥 면에는 칸마다 창문틀이 있는데 일일이 창을 매달아 올려놓았고 창 하나마다 대환포(大丸砲) 1좌(坐)씩을 걸어 놓았으며 한쪽의 칸수는 15칸이 되었다. 2층의 창틀은 30칸이 되니 대환포가 모두 30좌(坐)였다. 그 배의 물밑 층은 구리와 쇠로 조각을 만들고 이어 붙인 것이 물 위 반 척(尺)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그 위부터는 나무를 붙여 만들었다. 배 안은 곧 1칸의 길이가 5~6장(丈), 넓이가 2장(丈) 남짓이었으며 한 층에 15칸씩 4층으로 지어 누헌(樓軒)이 모두 60칸이 되었다. 칸마다 사람들이 대략 20명 정도 되어서 합하면 1,000여 명에 가까웠고 배 안에 실린 사람 중에는 혹 서양 오랑캐들이 있기도 하였고 혹 청국 사람들이 있기도 하였다. 세 돛의 중간에는 구리와 쇠로 된 연통(烟筒)이 세워져 있었으며 돛 위에는 크고 작은 검은색 목면 동아줄이 전후좌우로 무수히 매어져 있었다. 돛 위로는 또 삼층의 판목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동아줄을 타고 오르내리며 판 위에 서서 사방을 살폈고 매우 높은 돛 위를 평지 다니듯 하였다. 물가로는 왕래하는 작은 배들을 큰 배 위에 거두어 묶어 놓았다. 우리들이 출입할 때는 번번이 군악을 연주하였고 배의 근처에서 오르내릴 때는 서양사람 두세 명이 착검한 총을 끌어안고 좌우로 열을 지어 서 있었다. 나올 때 그들이 물건을 내어 준 바가 있었으니 의주인 세 명에게는 각각 도금한 손거울 1개와 양초 1자루씩을, 뱃사람에게는 천보통보(天保通寶)와[91] 당백전(當百錢)[92] 1문(文)을 주었기에 거듭 사양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 나왔다. 제물포에 돌아오니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다.

○ 숙부께서 여러 군교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문정을 보고 적의 형세를 다시 살펴보니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저들은 유하게 보이려 하기도 하였고, 강하게 보이려 하기도 하였는데 우리 군사는 스스로 겁을 먹었지만 적은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

91) 천보통보(天保通寶) : 일본 천보 6년(1835)에 처음 발행되었던 동전으로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명치시대까지 통용되었다.

92) 당백전(當百錢) : 1866년 경복궁 중건 당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원군이 새로 만든 화폐이다. 법정 가치는 상평통보(常平通寶)의 100배였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여 화폐가치의 폭락을 유발하였고, 1년 만인 1867년 폐지되었다.

다. 위로는 국가의 큰 복에 힘입어 그대들을 보호하고 적을 격파할 뿐이다. 천보통보는 왜의 동전으로써 왜와 왕래하고 있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라고 하셨다.

○ 十二日

陰風. 未時量, 彼船五隻, 領從船六十餘隻, 過永宗前洋, 留碇虎島前. 灣人李昌秀趙興瑞禹昌謨, 本邑吏金振成, 持譯官書函, 自濟物浦發船, 向彼船, 將欲問情. 將近一堠許, 則自彼船大砲一聲, 其時波濤洶湧, 不得直泊. 漸至半堠許, 以問情次來到之意, 大呼數次, 彼人十餘, 乘小艇, 來泊我船. 彼此相對, 洋人之語, 一無可解. 有淸人自稱海南居李哥, 江南居表哥, 以胡語相通, 遂示傳書, 探問來由. 則淸人言曰, 少留此處, 則當往達彼國欽差大人, 聽言通奇云云, 乘船入去. 少頃, 彼人出立船頭, 搖手招之, 故卽往彼船, 則三帆大船, 有層梯, 彼人下來迎接. 故問曰, 汝上官所在船乎, 彼曰, 然. 共登其船, 携入第二層樓房, 各進坐機, 相與圍坐. 美國居賈哥, 杜哥爲姓者, 能通胡語, 故先試問曰, 爾國上官爲誰也, 而以何事遠來之由. 洋人答曰, 美國正一品提都督欽差大人鏤斐迪, 遠來之事, 朝鮮大官來到後言之云. 請見則曰, 我國大人來此, 爾國大官之外 , 不能見云. 連以柔言順說請見, 終不許. 不得已出給傳書, 謂曰, 往示爾國大人, 受答以來云, 則淸人李哥受以往, 至半晌, 受答書以來. 故方欲出來之際, 洋人杜姓者, 以渠國大人之言, 申托有三條, 一曰, 往達爾國, 差遣大人, 則有相議之事, 二曰, 我們雖來此, 萬無害民之理, 申飭地方官, 使民務農, 不至失業, 三曰, 爾國人, 每有先施砲害之意, 各別捄止, 不至彼此生釁之境云云. 故答以問情次, 上官三人, 來留仁川府, 我們還去, 上官三位且入來云, 則彼人答以入送云云. 察其船形, 外面每間有揭窓, 一一吊上, 每窓掛大丸砲一坐, 一邊間數爲十五間. 二層揭窓爲三十間, 大丸砲合三十坐. 彼船之水下層, 以銅鐵作片, 連幅至水上半尺許, 自其上以木粘造. 船內則每間長五六丈, 廣二丈餘, 一層十五間, 作爲四層, 樓軒合爲六十間. 每間人名, 假量爲二十人, 合計則近千餘名, 船中所載人物, 或有洋醜, 或有淸人. 三帆中間, 立銅鐵烟筒, 帆上以大小黑漆木綿索, 前後左右, 無數係之. 帆上亦設三層板木, 彼人等乘索上下, 立于板上, 四處瞭望, 而絶高帆上, 行如平地. 水邊往來小船, 收住掛於大船上. 我人出入之時, 輒大吹打, 船邊上下之際, 洋人二三名, 接銃釰, 列立于左右. 出來時, 彼人以物件有所出給, 湾人三名, 則各以塗金小掛鏡一介, 蠟燭一柄, 船人給天保通寶當百錢一文, 屢辭不得受而出來, 還到濟物浦, 日已黃昏矣.

○ 叔父謂諸校曰, 今見問情, 更察賊勢, 無足爲者也. 彼欲示柔示强, 我軍自惙, 然賊入掌中矣, 上賴國家洪福, 保諸君破之耳. 天寶通寶, 倭錢也, 以示與倭通.

맑음. 순영(巡營)에서 운현궁의 분부로 1천 냥의 돈을 지급하며 군량에 사용하라는 관문을 보내왔다. 그러므로 이 궁핍한 절기를 맞아 군졸들에게 돈으로 대신 나누어 준다면 입에 풀칠할 대책이 없으니, 군대의 양식은 본 고을의 창고에 남겨 둔 환곡 중에서 먼저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운현궁에 글을 올리며 군량을 얻길 청하였다. 순영에서 운현궁의 분부에 따라 시행을 허락하였다.

○ 화포를 이용하여 적을 공략하는 방안을 운현궁에 올리며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 세 가지는 병사를 쓰는 마땅한 도리이고 싸워 이기는 방법 중 널리 통하는 올바른 의리이니, 순순히 이를 따라 얻는 자는 흥하고 거역하여 이를 잃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서양 오랑캐의 배 안의 군사는 수천 명에 불과한데 바다를 건너 깊숙이 들어와 화친하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고 전쟁을 하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습니다. 관습이 다르고 기후와 풍토가 차이가 있는 곳이니 오래 있으면 반드시 병이 나고, 병이 나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천시가 점점 익고 있으며 서쪽의 땅에서 난 것은 또한 참지 못할 것이니 저들은 이미 그 천시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좋은 물건은 배이고, 좋은 기술은 화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판이 적으며, 산봉우리들이 잇따라 겹쳐 있어 바둑판 위에 수를 놓은 것 같아 5리와 10리 사이가 아득한 것이 마치 천 리와 같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허실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배는 육지로 다닐 수 없고 화포는 산을 넘을 수 없으니 좋은 물건이라도 믿을 곳이 없고 좋은 기술이라도 쓸 데가 없으니, 저들은 또한 지형의 이점을 잃은 것입니다. 저들은 개와 양의 성품으로 감히 벌과 전갈의 독을 쏘아대며 간사하고 교활한 말로 가르침을 늘어놓고 기괴하고 허깨비 같은 물건을 팔려고 하니 겉으로는 유약해 보이나 안으로는 흉포함을 품고 있습니다. 윤리와 기강을 업신여기는 학문으로 감히 500년 예의의 나라를 넘보아 무릇 혈기가 있고 하늘에 머리를 두고 땅을 딛고 선 자라면 통분하지 않는 이가 없지만 전멸시키고자 한다면 인화(人和)의 여부가 저 추악한 무리와 같아지는 것이니 진실로 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데도 우리가 따르는 바를 저들은 모두 거역하고 있으니, 저들이 잃는 바를 우리는 모두 얻을 것이니, 저들이 비록 창궐하더라고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손자(孫子)께서 이르기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세월만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며 연해의 여러 읍이 방어하는 괴로움과 전륜(轉輪)하는 비용으로 적이 도리어 편안해지고 우리가 도리어 수고스럽게 되는 것일까 두렵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출기불의(出其不意)와[93] 장계취계(將計取計)의[94] 계책을 쓸 때이니 저들이 유리한 것은 배이므로 우리는 물에서 그것을 제압하고, 그들의 특별한 것은 화포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불로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저 배가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는 곳은 조수가 물러가면 너비가 5리에 불과하므로 천자총통에 장군전(將軍箭)을[95] 버리고 대환(大丸)을 채워 몇 척의 배에 안배하고 해무가 짙게 끼는 밤에 잠수군으로 하여금 몰래 배를 끌고 곧장 저 배의 3~40보(步) 가까운 곳에 이르게 하여 천자총통을 동시에 발사하게 한다면 저들의 배가 비록 견고하더라도 어찌 부서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다 위의 여러 봉우리에 세 개씩의 횃불을 많이 설치하여 불을 놓아 의병으로 삼는다면 저들은 반드시 놀라 두려워하면서 화포를 마구 쏘아댈 것이고, 컴컴한 가운데 단지 불이 밝은 곳만 바라보며 오로지 멀리서 힘쓸 것이니 포는 위로 지나가고 우리 병사들에게는 진실로 아무런 탈이 없을 것입니다. 미리 연해를 지키는 장수들을 단속하여 포성을 신호로 삼는데, 부평(富平)의 율도(栗島)와[96] 호도(虎島), 영종(永宗)의 무치도(無淄島)와 월미도(月尾島), 인천의 고잔포과 제물포에 화기를 많이 묻고 또 토졸(土卒)로서[97] 갯벌을 잘 아는 자로 하여금 신기화전(神器火箭)[98]·구우옹포·화룡출수포(火龍出水砲)·불랑기·죽장군(竹將軍) 등 여러 가지 화구들을 많이 갖추어 사방에 흩뜨려 묻어두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 신호포가 들리면 모든 포를 일제히 쏘라는 것이니 천지에 소리가 진동할 것입니다. 먼저 크고 작은 배 100여 척에 염초(焰焇)와 유황(流黃) 등의 물건을 갖추어 싣고 마른 갈대와 나무로 덮어 익힌 삼으로 만든 노끈을 여러 번 두른 뒤에 큰 것은 뱃머리에 묶어 4~5칸 정도마다 열을 지어 세워두고, 1척 사이에는 작은 뗏목 5~7척을 연결하여 1대(隊)로 만들어 하류를 가로지르게 하되 4~5겹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상류에서 조수가 빠지고 바람이 일기를 기다려 뗏목 수백 개에 횃불을 세우고 불을 붙여 물살에 내려 보내니 모든 군사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뒤따라 바다를 뒤덮으며 내려가면 세찬 불꽃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저들이 장차 물러나면 하류에서는 배와 뗏목을 대마다 묶어 걸어 놓고 있으니, 비유하자면 공격하는 뱀의 꼬리와 머리처럼 적선을 포위할 것입니다. 저들은 동아줄을 베고자 하여 물에 둥둥 떠다닐 것이나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

93) 출기불의(出其不意) : 『손자병법(孫子兵法)』의 「시계(始計)」의 "적이 대비하지 않았을 때 엄습하고, 생각하지 못한 틈에 공격한다"라는 데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촉나라의 제갈량이 위나라의 학소가 방어하던 진창(陳倉)을 공격할 때 했던 말이다.

94) 장계취계(長計取計) : 싸움에서 상대편의 계략을 미리 알아내고 그것을 역이용한다는 뜻으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방통이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군사를 맞아 싸울 때 사용했던 전략이다.

95) 장군전(將軍箭) : 총통류에 장전하여 발사하는 화살이다.

96) 율도(栗島) : 부평의 서쪽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부평과 인천, 영종도의 경계에 위치하여 있다(『부평부지도(富平府地圖)』(奎10373)).

97) 토졸(土卒) :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으로 조직된 군사를 의미한다.

98) 신기화전(神器火箭) : 고려시대 최무선이 개발한 화살에 분사체를 달아 스스로 날아가도록 만든 신기전의 일종인 신기전을 의미하는 듯하다.

작은 배에 화전을 많이 싣고 일시에 쏘면 저들의 배는 모두 옻칠하고 햇볕에 쬐어 말린 기름을 싣고 있으니, 또한 모두 불을 끌어당기는 물건이라서 불이 붙은 곳은 불이 일어나 필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병가(兵家)의 이른바 생각하지 못한 틈에 공격하고 상대의 계략을 미리 알아서 이를 역이용하는 것이 이것이며, 적벽(赤壁)의 전투와[99] 한산(閑山)의 승리와[100] 거의 가깝게 될 것입니다. 연해의 좁은 길목에 군사를 증원하여 견고히 지켜 미리 대비하고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十三日

晴. 自巡營, 因雲峴分付, 劃下一千兩錢, 以爲軍粮需用之意關到. 故當此窮節, 軍卒以代錢分給, 則糊口無策, 軍餉以本邑留庫還米中, 先爲推用之意, 上書雲宮, 請得軍糧. 自巡營, 因雲宮分付許施.

○ 上火攻方略於雲宮曰, 竊伏聞天時, 地利, 人和三者, 用兵之常經, 制勝之通義, 順而得之者興, 逆而失之者亡. 今此洋賊船中之兵, 不過數千, 駕海深入, 求和不得, 求戰不得. 風氣之所殊, 水土之所異, 久則必病, 病則必死. 況今天時漸熟, 西土之産, 又不能耐, 彼既逆其天時矣. 渠之長物者, 舟楫也, 長技者, 火砲也. 而我國多山小野, 攢峰疊嶂, 繡錯碁置, 五里十里之間, 邈如千里, 異國之人, 莫得窺其虛實. 且舟不可以行陸, 砲不可以越山, 則長物無所恃, 長技無所用, 彼又失其地利矣. 渠以犬羊之性, 敢肆蜂蠆之毒, 以淫邪詖詭之說爲設教, 以奇巧怪幻之物爲行販, 外示柔弱, 內懷凶暴, 以蔑絕倫紀之學, 敢欲覬覦於五百年禮義之邦, 凡有血氣頂天立地者, 莫不憤惋, 而思欲剪滅, 則人和與否, 如彼醜類, 固不足論也. 然則我之所順, 彼皆逆之, 彼之所失, 我皆得之, 彼雖猖獗, 我何憂慮. 是以孫子曰, 知彼知己, 百戰不殆. 然而亦不可視若尋常, 玩愒時日, 則沿海列邑防守之苦, 轉輸之費, 竊恐賊反爲逸, 我反爲勞. 今當出其不意, 將計取計, 而彼之所利者舟也, 而我於水制之, 彼之所特者砲也, 而我以火攻之. 大抵彼船留碇處, 潮退則廣不過五里, 以天字銃筒, 去將軍箭, 實以大丸, 安排幾隻船, 海霧漲黑之夜, 使潛水軍, 暗暗曳船, 直到彼船三四十步之近, 同時發放, 則彼船雖堅, 安得不破碎. 且於海上諸岸, 多設三頭炬, 蒸火以爲疑兵, 則彼必驚駭震慴, 亂放火砲, 而昏黑之中, 但望火明處, 惟遠是務, 則砲從上過, 我兵固無事矣. 預爲團束於沿海守將, 以砲響爲號, 富平之栗島, 虎島, 永宗之無淄, 月尾, 仁川之高棧濟物, 多埋火器, 又使土卒熟諳沮洳者, 多藏神器火箭·九牛瓮砲·火龍出水砲·佛狼機·竹將軍諸般火具, 四散埋伏. 一聞號砲, 衆砲齊發, 聲振天地. 先以大小船百餘艘, 藏載火藥, 焰焔, 流黃等物, 覆以枯葦, 乾柴, 以熟麻繩數圍, 大者縛定船頭, 每四五間許列立, 一艘間以小筏, 連五七艘爲一隊, 橫截下流, 排置四五匝. 自上流待潮

99) 적벽(赤壁)의 전투 : 호북성(湖北省) 양자강(揚子江) 연안에 있는 적벽(赤壁)에서, 유비(劉備)가 조조(曹操)를 크게 무찌른 전투이다.
100) 한산(閑山)의 승리 : 1592년 8월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군이 일본군을 크게 이긴 전투를 의미한다.

落風生，以木筏數百部，植炬燃火，順流放下，諸軍鼓譟，從後蔽海而下，烈焰衝天．彼將退下，則下流船筏，隊隊牽掛，譬如擊蛇首尾，圍包賊船，彼欲斫斷繩索，浮水演漾，亦不容易也．我又以小船，多載火箭，一時放射，則彼船皆塗柒曝油所載，亦皆引火之物，着處火起，必將燼灰，無遺矣．兵家所謂，出其不意將計就計者此也．而與赤壁之戰，閑山之捷，庶幾近之．沿海隘口，增兵堅守，以爲豫備，以爲萬全云云．

14 일

맑음. 오시쯤 저들의 이범선(二帆船) 1척이 닻을 올리고 통진(通津)의[101] 경계를 향해 출발하였다. 잠시 후에 포성(砲聲)이 크게 울리니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렸다. 숙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적의 정예가 모두 손돌목〔孫乭項〕에[102] 다다르면 그들의 큰 배 3척이 반드시 텅 비게 될 것이니 밤을 틈타 화공(火攻)을 펼치면 형세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을 것이니 저 손돌목에 있는 두 배는 싸우지 않고도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셨다. 몰래 모의할 즈음에, 당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다시 내려와서 먼저 닻을 내리고 배를 정박하고 있으니 즉시 강화도의 진무영으로 달려가 이를 염탐하였다. 이양선 1척이 손돌목에 난입하자 진무중군(鎭撫中軍) 이봉억과 통진부사(通津府使) 홍재신(洪在愼)이 병사를 거느리고 전투를 독려하여 화포를 발사하도록 재촉하고 적선 하나를 때려 부쉈다고 한다. 저들 중에 탄환을 맞고 죽은 자는 두 사람이었는데 접전할 때 모든 군병들이 눈으로 본 바이고 저들은 이내 간담이 서늘하여 물러났다고 하니 이 한 번의 싸움에서 그 날카로운 기세를 꺾은 것이다. 순영에 달려가 알리고 운현궁에 글을 올려 원병 및 잠수군(潛水軍)을 얻기를 청하였으며 통쾌한 승리를 기약하였다.

○ 十四日

晴. 午時量, 彼二帆船一隻擧碇, 向通津境進發. 少頃, 砲聲大作, 轟天震地. 叔父謂余曰, 賊之精銳盡赴孫項, 彼大船三隻必空, 乘夜衝火, 勢如反掌, 彼孫項兩船不戰自潰矣. 密謀之際, 當日申時, 還爲退下. 依前留碇, 卽爲走探于沁營, 則洋船一隻闖入孫項, 鎭撫中軍李鳳億, 通津府使洪在愼, 領兵督戰, 催發火砲, 打碎賊船. 一邊彼醜中丸而斃者爲二人. 接戰時, 諸軍所目覩, 彼乃喪膽而退. 此一戰, 謂挫其鋒銳也. 馳報巡營, 上書雲宮, 請得援兵及潛水軍, 期欲決勝.

101) 통진(通津) : 강화진무영의 좌영(左營)으로서 강화(江華)와 김포(金浦)와 경계를 맞닿고 있다.
102) 손돌항(孫乭項) : 강화도 광성보(廣城堡)의 맞은편에 있는 목(項)으로 현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하고 있다.

맑음. 어영청의 화약 150개와 탄환 4천 개, 총융청(摠戎廳)의[103] 화약 250개와 탄환 3천 개가 내려왔다. 또한 대원군께 글을 올리기를 적을 무찌를 계책으로 군사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방략을 명확히 논의하여 이서와 군교들이 기꺼이 따르게 하였다. 전해 들으니 진무중군이 바뀌어 병사 어재연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대신하였다고 한다. 숙부가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에 임했을 때 장수를 바꾸면 장수는 병사에게 익숙하지 않고, 병사는 장수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十五日

晴. 御營火藥一百五十斤, 鉛丸四千介, 摠戎火藥二百五十介, 鉛丸三千箇下來. 又上書雲宮, 爲破賊之策, 安撫軍心, 曉論方略, 吏校樂赴矣. 傳聞鎭撫中軍改差, 魚兵使在淵領軍來代. 叔父歎曰, 臨陣易將, 將不習兵, 兵不習將矣.

103) 총융청(摠戎廳) : 조선후기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군영으로 초기에는 정군(正軍)·속오군(束伍軍)·별대마군(別隊馬軍) 등으로 구성되었다가 1674년 아병(牙兵)과 둔아병(屯牙兵)이 추가되어 2부(部) 3영(營) 체제가 갖추어졌다. 그 후 1884년 혁파되었다.

16 일

맑음. 훈련도감의 군사 1초를 초관 이병오(李秉五), 교련관 김덕용(金德容), 별무사 황수목(黃洙穆)이 거느리고 내려왔다. 숙부께서 군문으로 나가 맞이하시고 성대하게 술과 음식을 먹이며 그들을 위로하셨다. 한 군졸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약을 달이고 친히 가서 이를 마시게 하니 훈련도감의 군사 전체가 모두 감격하고 기뻐하였으니 은혜가 매우 깊었다. 해시(亥時, 오후 9~11시)쯤 저들의 이범선(二帆船) 1척이 등불을 밝히고 출발하여 팔미도 외양을 향해 내려갔는데,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배가 부서져 상했으니 필시 배를 바꾸고 병사를 충원하러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온 부대가 이를 믿지 않자 숙부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오래지 않아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지켜보더니, 다음 날 과연 통진의 경계에 도착하였고 모든 군사들이 마침내 크게 웃으며 믿고 따랐다.

○ 十六日

晴. 訓局軍一哨, 哨官李秉五, 教鍊官金德容, 別武士黃洙穆領率下來. 叔父出迎軍門, 盛饋酒饌勞之. 有一卒臥病, 煎藥親進服之. 訓局一軍, 莫不感悅, 恩恩深矣. 亥時量, 彼二帆一隻, 懸燈發船, 向八尾外洋下去, 不知所向. 不知所向. 叔父曰, 彼船破傷, 必將易船添兵而去也, 一軍不信. 叔父又曰, 不久必更來. 爾等見之, 其明日果到通津界, 一軍遂大笑信服.

17 일

낮에 맑았다가 밤에 비가 내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선전관 유석희(柳錫喜)가 육천(六天)의 표신을[104] 받들고 내려와서 사졸들을 위문하였다. 선전관이 교서를 전하기를 "일전에 서양의 배가 함부로 덕포(德浦)로 들어왔을 때 포군 오삼록(吳三彔)이 그들의 포탄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듣고서 놀라고 참혹함이 극에 달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각 처의 사졸들이 진을 치고 경계를 엄하게 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바람과 이슬을 무릅쓰고 밖에 머무르면서 과연 병은 없는지 근심스러운 생각이 음식을 들거나 잠을 잘 때도 잊혀지지 않는다. 오삼록을 장사지내고 그의 처자들을 돌보아주며 각처의 사졸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등의 문제에 대해 모두 경기감영(京畿監營)에서 넉넉하게 지급하게 하고 물자는 공전(公錢)에서 회감(會減)하도록 하라. 선전관을 보내어 이 교서의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위로하고 오게 하라." 라고 하였다. 성은이 간절하여 감읍함이 비할 데가 없었으니, 사졸들을 불러 모아서 전교를 널리 알리고 충의를 격려하며 말하기를 "어떠한 괴로움이나 위험도 피하지 않고도 이러한 은혜를 어찌 감히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돈 300냥을 순영에서 내려주어 일일이 경군 및 본 읍의 토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여러 사람의 마음이 흡족하여 환성이 우레와 같았다.

○ 수어영(守禦營)의[105] 초관 이복호(李福浩)와 연우석(延祐錫)이 별파진(別破陣)[106] 50명을 거느리고 왔다. 숙부께서 군문으로 나가 맞이하고 각각의 진에 자리를 내어주며 여정으로 인한 피로를 위로한 후 성대하게 술과 음식을 먹였다. 숙부께서 물으시기를 "너희들이 일찍이 1866년(丙寅)에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진을 쳤던 자들인가?"라고 하자 교련관 이세영(李世榮)이 붉은색 영전(令箭)을[107] 좌우로 나누어 세우고 대답하기를 "이미 두 싸움 전부를 승리한 병사들입니다."라고 하였다. 숙부께서는 적의 장기 및 강약에 대해 상세하게 물은 뒤에 각자 따듯한 곳에서 편안히 쉬게 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나에게 1866년(丙寅)에 나가 싸우게 하였다면, 반드시 중로(中路)에서 매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평온한 날이 오래되어서 우리 군이 두려워하니 옛날의 신사(神師)가[108] 오늘날 행해질 수 있겠는가?"

---

104) 육천(六天)의 표신(標信) : '육천표신(六天標信)'은 총 31부(部)의 선전표신(宣傳標信) 중 일련번호 '6天'이 부여된 표신이다. 일련번호는 '숫자 + 천(天)·지(地)·현(玄)·황(黃)·우(宇)·주(宙)·홍(洪)·황(荒) 등'의 조합으로 부여되었다.

105) 수어영(守禦營) : 수도 외곽의 방어와 남한산성의 관리를 담당한 군영인 수어청(守禦廳)을 의미하는 듯하다.

106) 별파진(別破陣) : 조선후기 주요 군영 등에 소속되어 화포를 다루던 병종이다. 별파진은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수어청 등의 군영과 강화부·평안도 등 군사적 요충지에 편성되었다.

107) 영전(令箭) : 군영에서 군중에 명령을 전달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화살이다.

라고 하셨다.

○ 교리에게 명령하여 등롱(燈籠)을 많이 만들고 두 개의 횃불을 서로 묶어서 각 진에 분배하고 돌아다니며 경계하는 것에 힘쓰도록 하여 조두 소리가 끊기지 않게 했다. 숙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군사라는 것은 정병이든 의병이든 명성과 위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 바다를 사이에 두고 10리 밖에서 적선과 비록 서로 바라보며 뱃길을 접하고 있지만 이를 엄히 방어한다면 저들은 필시 우리 군의 허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군대가 이런 중요한 곳을 맡았으니 경솔하게 먼저 드러내어 적으로 하여금 우리 군사의 적고 약함을 엿보게 해서는 안 된다.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허즉실지(虛則實之)라[109] 하였으니, 실(實)의 도(道)는 역시 의병 외에는 없다. 따라서 기치(旗幟)의 색을 바꾸며 숲의 나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대포의 울림을 끊었다 이었다 하면서 산골짜기에서 서로 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밤에는 등롱과 교거(交炬)에 불을 많이 붙인 것이 혹 긴 뱀과 같고 혹은 유성과 같아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밝게 통하게 하고 위와 아래를 서로 비춘다면 우리 군대는 배나 되는 기세가 있고 적은 십분 의심하고 겁을 낼 것이니, 이것이 만전의 방책이다."라고 하셨다. 숙부께서 이복호(李福浩) 등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남한산성의 노련한 병사들로서 군기를 잘 알고 있고 또 화포를 묻는 방법으로는 한 나라의 으뜸이라 모든 화기를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그 핵심을 각각 진달하여 적을 깨뜨릴 계책으로 삼도록 하라."라고 하셨다. 이에 대답하기를, "본영은 싸워 지키는 데 중요한 곳입니다. 대장군포(大將軍砲)와[110] 호준포(虎蹲砲)는[111] 원거리 무기이고 화전(火箭)과 강노(强弩)는 근거리 무기인데, 화포를 묻는 것에 있어서는 용맹한 사람이 미처 물러가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가 미처 도모하지 못하니 신묘하고 신묘하여 그 묘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이 큰 바다에 있어서 왕래가 일정하지 않고 또 바닷길 10리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대장군포와 호준포를 비록 발포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미치더라도 또한 적중시키지 못할 것이니 시행하기가 어렵다. 지금 묘책은 오직 화포를 묻어두는 것으로 시험할 수 있을 터인데 본 고을의 고잔포와 제물포는 곧 적 아래에서 반드시 통하는 요충지이니 지뢰를 몰래 묻고 적을 유인하여 육지에 내리게 하여 화약심지에 한 번 불을 놓으면 천지가 무너지고 땅이

108) 옛날의 신사(神師) : 『사기(史記)』「전단열전(田單列傳)」에 나오는 고사이다. 제나라의 70여 개의 성이 연나라에 함락되고 포위된 지 오랜 시일이 흐르자 성 내의 사람들이 동요할 것을 염려한 전단(田單)이 이를 막고자 제사를 지냈는데, 한 병졸이 자신도 사(師)가 될 수 있냐고 묻자 그를 사(師)로 삼고는 약속(約束)을 낼 때마다 반드시 '신사(神師)'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109) 허즉실지(虛則實之) : 자신이 불리한 형세에 놓여 있을 때 고의로 실력이 센 것처럼 위장하여 상대에게 위험을 가하고 함부로 진군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책을 뜻한다.

110) 대장군포(大將軍砲) : 불씨를 손으로 점화·발사하는 유통식 화기이다. 철 주물로 제조하였으며 포신에 손잡이처럼 튀어나온 포이(砲耳) 부분이 특징이다.

111) 호준포(虎蹲砲) : 명나라에서 왜구와의 전투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유동식 화기이다. 작고 가벼워서 사정거리가 길며 설치했을 때 모양이 호랑이가 웅크린 모습과 같다고 하여 호준포라 하였다.

꺼지며 적병은 가루가 될 것인데, 이것이 한번 손을 대는 사이에 달려 있는 것이 어찌 묘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시니 이복호 등이 모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적이 마침내 의심하고 감히 육지에 내리지 못하여 끝내 한 번도 시험해 보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 十七日

午晴夜雨. 午時, 宣傳官柳錫喜, 奉六天標信下來, 勞問士卒. 傳曰, 日前洋舶之闖入德浦也. 砲軍吳三汞, 爲彼砲所殞聞, 不勝驚慘之極. 且各處士卒之結陣, 戒嚴旣多日矣. 風餐露宿, 果無疾恙否, 憧憧之念, 食息不弛. 吳三汞之掩埋, 其妻挈之顧助, 各處士卒之犒饋. 令畿營從優題給以公錢會減, 仍遣宣傳官將 此意一一勞問以來. 聖恩簡切, 感泣無比. 招合士卒, 布諭傳敎, 激勵忠義曰, 赴湯蹈火, 安敢報萬一也. 三百兩錢自巡營劃下, 一一派給於京軍及本邑土卒, 衆心浹洽, 歡聲如雷.

○ 守禦營哨官李福浩, 延祐錫, 領率別破陣五十名來到. 叔父出迎軍門, 各賜坐陣上勞問行役後, 盛饋酒食. 令曰, 爾等曾在丙寅, 文秀鼎足赴陣者乎. 敎鍊官李世榮, 以紅色令箭, 分立左右以對曰, 已於兩戰全勝之卒矣. 叔父詳問賊之長技及强弱後, 使各安歇溫突, 謂余曰, 若使我出戰於丙寅, 則必不無中路設伏. 然昇平日久, 我軍恐怯, 古之神師, 可行於今日也.

○ 下令校吏, 多造燈籠, 交縛雙炬, 分排各陣, 勤於巡警, 刁斗之聲不絕. 叔父謂余曰, 夫兵者, 以聲勢爲重, 或以正兵, 或以疑兵. 今於隔海十里之外, 賊船雖在相望, 船路通涉, 嚴加關防, 則彼必不知我軍之虛實. 今以孤軍, 當此重地, 不可輕先宣露, 使賊人覘我寡弱矣. 兵法曰, 虛則實之, 實之道, 亦不外於疑兵, 故旗幟換色, 來往於林木之間, 砲響斷續, 相應於山谷之中, 而夜以燈籠交炬, 多點火把, 或如長蛇, 或如流星, 遠近通明, 上下相照, 我軍有一倍氣勢, 賊人有十分疑惴, 此萬全之策也. 叔父謂李福浩等曰, 汝以南漢慣兵之人, 熟知軍機, 且埋火之法, 爲一國之最, 諸般火器, 無所不備, 各陳其要, 以爲破賊之策. 對曰, 本營, 戰守重地, 大將軍砲, 虎蹲砲遠器也, 火箭, 强弩近器也. 至於埋火, 勇者不及退, 智者不及謀, 神乎神乎, 莫測其妙矣. 叔父曰, 賊在大洋, 往來無常, 且隔海路十里, 大砲虎砲, 雖發而不及, 及亦不中, 難於施爲. 今之妙算, 惟埋火可試, 本邑古殘濟物兩浦, 卽賊下必由之要路也. 暗埋地雷, 誘賊下陸, 藥線一發, 天崩地蹋, 齏粉賊兵, 在一擧手之間, 豈不妙哉. 李福浩等皆拜服, 賊乃疑不敢下陸, 竟未一試惜哉.

맑음. 양성현(陽城縣)의[112] 세미(稅米) 190섬을 실은 배가 본 고을의 포구에 와서 정박하였기에 대원군께 글을 올려 선혜청의 공문을 받아 하역한 후 군수로 삼았다. 이때부터 군량이 풍족하여 사기가 갑절로 높아졌다. 경군(京軍) 서너 사람이 병으로 눕자 친히 약을 달여 복용하길 권한 뒤에 그 몸을 안마하자 모두 며칠 지나지 않아 회복하여 매우 다행이었다.

○ 十八日

晴. 陽城稅米一百九十石所載船, 來泊于本邑浦口. 卽爲書于雲宮, 請得惠廳公文卸下, 執爲軍需. 自此粮餉豊足, 士氣倍壯. 京軍數三人, 有病臥者, 親煎藥餌勸服後, 按摩其身, 皆不日差復, 甚幸.

112) 양성현(陽城縣) : 현재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陽城面) 일대에 해당한다.

19 일

맑음. 쌀을 교역하는 사선이 180섬을 싣고 본부의 포구에 와서 정박하였다. 즉시 운현궁에 글을 올리고 이를 압류하여 대원군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짐을 내리기로 하였다. 이날 소를 잡고 군사들을 먹였다. 관아의 뜰에 펼쳐 앉아 쇠고기 한 꼬치· 국 한 바가지·밥 한 사발을 차례로 사졸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 번 실컷 먹으며 춤을 추었다. 지원군은 계속해서 모이는데 적병이 물러가지 않아 여러 군사를 단속하여 밤새도록 격려하니 모두 한번 싸우기를 원하였으므로 마침내 군사를 선발하여 출진하였다.

○ 十九日

晴. 貿米私船, 載一百八十石, 來泊于本府浦口. 卽爲上書于雲宮, 執留待處分, 卸下計耳. 是日推牛餉士, 列坐官庭, 以牛肉一串、一瓢羹、一盂飯, 次第分給士卒, 一頓飽喫, 歡喜踏舞. 援軍繼至, 賊兵未退, 約束諸軍, 達夜激勵, 皆願一戰, 故遂調發出陣.

맑음. 숙부께서 재계(齋戒)하시고 문학산신(文鶴山神)께 치제(致祭)하셨다. 잠자리에 드신 뒤에 한 장교가 와서 "꿈에 노인이 나와 말하길, '마땅히 서양 오랑캐를 대대적으로 격파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라고 고하기에 마침내 군중에 효유하였다.

○ 수어영의 별파진 50명을 본영 초관 이복우(李福祐)로 하여금 영솔하여 제물포를 막아 지키도록 하고, 본 고을 신현(新峴)의 포계군(砲稧軍) 100명을 출신(出身)[113] 이용구(李容求)로 하여금 거느리고 합세하여 매복하게 하였다. 훈련도감군 1초(哨)는 또한 본영 초관 이병오(李秉五)가 거느리도록 하여 제물포의 우저현(右樗峴)에 매복하도록 하였으며, 본 고을의 남촌(南村) 포계군 100명은 포계장(砲稧將)인 전오위장(前五衛將) 송일구(宋一求)와 본부의 중군(中軍) 이규현(李珪鉉)이 이끌어 자원하는 교졸(校卒)들과 함께 고잔포에 매복하게 하였다. 본 고을의 별무사 100명은 좌병방 김홍구(金洪九)가 영솔하여 본부의 아래에 진을 치게 하였는데, 군량과 군기가 있는 곳과 관계되었으므로 특히 신중히 할 것을 명령하였다. 봉대별장(烽臺別將)은 봉수군(烽燧軍) 20명을 거느리고 문학산 위를 지키며 신중하게 봉화하고 멀리 적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별무사(別武士) 200명과 이교노령(吏校奴令)[114] 50여 명은 숙부께서 모두 거느리시고 세 갈래의 길이 통하는 입구인 장천현(長川峴)에 출진하시어 각 진이 계책에 따라 호응하게 하셨다. 다소면(多所面)의 포계군 100명은 출신 이병태(李秉泰)로 하여금 영솔하여 장천의 본진에 합쳐 붙게 하였다. 본 고을의 의병 사인 이우항(李遇恒)은 의병 사인 100명을 각처의 요충지와 험준한 산꼭대기에 나누어두어 감시하고 방비하게 하였으며 낮에는 횃불을 들고 밤에는 포를 쏘아 암호로 삼았다. 조동(鳥洞)의 포계군 100명은 포계장 이항진(李恒鎭)으로 하여금 거느리고서 굳게 지키도록 하였는데, 성현은 도성으로 가는 큰 길과 관계되어 가장 요충지이고 이 뒤로부터는 별도의 관방처가 없으므로 각별히 신중히 하도록 하였다. 주안(朱安)의 포계군 100명은 포계장인 출신 최홍순(崔弘淳)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매복하게 하였으며 주안포구와 옹암, 한진에는 또한 본 면의 포계군 100명을 더하여 요해처에 나누어 두고, 서면(西面)의 방수장(防守將) 황모진(黃毛辰)과 호장(戶長) 김진효(金鎭孝)로 하여금 통솔하여 단속하게 하니 각 진의 군병이 모두 1천 2백여 명이었다. 9개의 면에 매복한 것이 마치 바둑알을 늘어놓은 것과 같고 좌우로 둘러보아도 안으로 응하고 밖으로도 합하니 떨어져도 흩어지지 않고 끊어져도 잘리지 않게 되었다. 충의로 권면하고 은의를 베푸

113) 출신(出身) : 문·무과 합격자이나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114) 이교노령(吏校奴令) : 지방 관아에 딸린 이서(吏胥)·장교(將校)·관노(官奴)·사령(使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니 사졸들은 복습(服習)을[115] 두려워하면서도 따랐으며 쟁기를 내려놓은 민정들은 모두 절도와 규범을 갖춘 군사가 되었다.

○ 내가 숙부께 "문학에서 제사를 지내고 장교가 꿈 얘기를 전하였으니, 이는 전단(田單)이[116] 신인에게 바랐던 뜻과는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숙부께서 손을 젓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군대는 천 가지 모양이 만 가지로 변화하는 것이니 방법이 한 가지일 수는 없다. 무릇 장수는 반드시 홀로 보고 홀로 아는 법이니 혼자 보는 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홀로 아는 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바를 안다. 지금 적병이 매우 날래서 우리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으니,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셨다.

○ 숙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장수는 의에 맞게 움직이고 행동할 때에 이치에 부합하게 하여 절도를 지켜서 칼로 자르듯 하여 성공에 이르러야 한다. 지금 의리가 분명하고 바르게 되어 군율에는 절도가 있고 군량은 풍족하여 우리가 근심할 것은 없다."라고 하셨다.

○ 숙부께서 장졸을 나누시고 사람을 택하여 세(勢)를 맡기니 우수한 자와 용렬한 자가 제자리를 찾았고 전 부대에 분부하시며 기이한 방책이 있어 각 진을 바라보셨다. 다시 나에게 이르시기를, "장수된 자가 간언을 거부하면 인심이 흩어지고, 좋은 계책을 따르지 않으면 모사(謀士)가 떠나고, 선악이 같아지면 지혜로운 자가 나태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랫사람들이 허물을 돌리고, 스스로 으스대면 아랫사람들의 공로가 적어지게 된다.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무리가 복종하지 않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군대에 법도가 없어지며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랫사람들이 달아난다.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몸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고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적국에 복이 될 것이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 이날 성벽과 성루가 이미 정해지고 사졸들의 자리를 정하였기 때문에 내가 숙부께 고하여 의자에 기대어 조금 쉬시게 하였다. 숙부께서 엄중히 교시하시기를, "지금 오랑캐가 요란을 피우고 좀도둑이 변방을 어그러뜨려 군부(君父)께서는 날마다 식사도 잊으신 채 근심에 잠겨 누워 계시니 신하 된 자가 분개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적과 양립할 수 없는데 갑옷을 벗고 막사 안으로 들어간 때가 있었는가? 장수 된 자는 위로는 하늘이 없고 아래로는 땅이 없으며 앞으로는 적이 없고 뒤로는 두려움이 없으니 나아감에는 명성을 구하지 않고 물러남에는 죄를 피하지 않은 채로 오직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

115) 복습(服習) : 용군(用軍)하는 진법(陣法)의 한 가지로, 기휘(旗麾)와 금고(金鼓)의 절차를 분명하게 하고, 진퇴와 치고 찌르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다.

116) 전단(田單) :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의 명장. 연(燕)나라 장수 악의의 침공으로부터 제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해낸 일화가 유명하다.

○ 의병을 많이 설치하고 산머리에서 땔나무를 끌어 먼지가 하늘에 가득하였고 하나의 진을 제물포에 배치하고 선봉대를 고잔포에 세워 놓았으니, 위세가 매우 성대하였다. 순식간에 병사를 거두니 황홀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적선의 높은 곳에서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돛 두 개짜리 작은 배가 월미도 아래로 빠르게 오더니, 반나절 동안이나 정탐하였다. 우리 군대가 사방에 매복하여 깃발을 내리고 북 치는 것을 멈추고 진을 바로 하여 기다리니 적이 의심하고 겁을 먹어 달아났다. 연우석(延祐錫)이 고하기를, "성루를 높게 쌓고 참호를 깊이 파서 숨는다면 진영이 교란되어도 움직이지 않으니 사영(蛇營)과 조진(鳥陣)은[117] 사지(死地)에 임해서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오늘을 두고 이르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숙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구지(九地) 아래에 숨는 것과 구천(九天)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대가 알았구나."라고 하셨다.

○ 훈련도감 초관 이병오(李秉五)가 출신(出身) 이재정(李在靖), 사인(士人) 이시용(李時用)과 표정로(表鼎魯), 거의사인(擧義士人) 이우항(李遇恒), 전오위장(前五衛將) 송일구(宋一求), 출신 이병태(李秉泰)와 이용구(李容求), 사인 이항진(李恒鎭), 방수장(防守將)인 출신 최홍순(崔弘淳), 방수장 황모진(黃毛辰), 수어영 초관(哨官) 이복우(李福祐), 본 읍 중군(中軍) 이규현(李珪鉉), 좌병방(左兵房)인 군량차지(軍粮次知) 김홍구(金洪九), 우병방(右兵房) 채정하(蔡廷夏), 행수집사(行首執事) 김노진(金魯鎭), 도령장(都領將)인 군기차지(軍器次知) 이우현(李佑炫), 전초군 초관 하제우(河濟禹), 중초군 초관 공재선(貢在善), 후초군 초관 김순엽(金順燁), 서기(書記) 박정호(朴鼎鎬)와 김진섭(金鎭燮), 김진성(金振聲), 이연우(李演祐), 군량차지(軍糧次知)인 이방(吏房) 김재건(金在健), 색리(色吏) 김진교(金鎭敎)에게는 진에 나가도록 하였고, 호장(户長) 공정선(貢貞善)과 군기차지인 색리 이연희(李演希)는 자원군을 영솔하도록 하였으며, 장교(將校) 공택선(貢宅善)과 색리 공양묵(貢亮默)은 봉대에서 망을 보도록 하였다.

○ 二十日

晴. 叔父齋戒致祭於文鶴山神. 就寢後, 有一校來告曰, 夢有老人來謂曰, 當大破洋賊, 遂布諭軍中.

○ 守禦營別破陣五十名, 使本營哨官李福祐領率, 防守濟物浦, 本邑新峴砲稧軍百名, 使出身李容求領率, 合勢埋伏. 訓局軍一哨, 亦使本營哨官李秉五, 領率埋伏, 濟物浦之右樗峴. 本邑南村砲稧軍百名, 使砲稧將前五衛將宋一求, 本府中軍李珪鉉領率, 與自願校卒, 同爲埋伏於古棧浦, 本邑別武士一百名, 使左兵房金洪九領率, 結陣於本府府下, 係

117) 조진(鳥陣) : 운조진(雲鳥陣)의 준말로, 구름처럼 모였다가 새처럼 흩어지듯 신출귀몰하게 변화하는 왜적의 진법(陣法)이라는 뜻이다.

是軍餉軍器所在處，故各別愼重申飭. 烽臺別將，領率烽燧軍二十名，把守文鶴山上，謹烽火遠瞭望，別武士二百名，吏校奴令五十餘名，叔父合率，出陣於長川峴三路統口，策應各陣. 多所面砲稧軍百名，使出身李秉泰領率，合付於長川本陣，本邑擧義士人李遇恒，擧義士人百名，分屯於各處要隘高峻山頂，瞭望防守，晝以擧火，夜以應砲，以爲暗號，鳥洞砲稧軍百名,使砲稧將李恒鎭領率緊守， 星峴係是距京大路， 最爲要衝處， 而自此以往，別無關防處，各別愼重，朱安砲稧軍百名，使砲稧將出身崔弘淳領率埋伏，朱安浦口，瓮巖，漢津，亦添本面砲稧軍百名，分屯要害，使西面防守將黃毛辰，戶長金鎭孝統率團束，各陣軍兵合一千二百餘名. 九面埋伏，如星羅碁置，左顧右眄，裏應外合，離而不散，絕而不斷，勸以忠義，施以恩義，士卒服習，畏而懷之，釋耒民丁，庶皆爲節制之師矣.

○ 余告叔父曰，設祭文鶴，將校告夢，此非田單禱神之意也. 叔父揮手微笑爲教曰，兵者千態萬變， 不可一道也. 夫將者必獨見獨知， 獨見者見人所不見， 獨知者知人所不知也. 今賊兵甚銳，我軍疑惕，此少安衆心者也.

○ 叔父謂余曰，夫將扶義以動，推理以行，掩節以斷割，固資以成功，今義理明正，師律有節，糧餉成資，吾無憂矣.

○ 叔父部分將卒，擇人任勢，優劣得所，分付一軍，有奇謀異策，各陣所見. 更謂余曰，爲將者拒諫，人心散，良策不從謀者去，善惡同則智者倦，專己則下歸咎，自伐則下少功，有一則衆不服，有二則軍無式，有三則下奔北，有四則身不保，有五則福其國，可不勉乎.

○ 是日，壁壘已定，士卒定位，故余告叔父，依案少歇. 叔父嚴教曰，今戎狄擾攘，草竊邊垂，君父日旰忘食，憂在寢寐，臣子當忿不顧身. 賊不兩立，能解甲入幕之時乎. 將者，無天於上，無地於下，無敵於前，無疑於後，進不求名，退不避罪，惟民是保也.

○ 多設疑兵，曳柴山顚，塵埃漲天，一陣把列於濟物，先驅排立於古棧，儀威甚盛. 頃刻收兵，怳惚難側，賊棹高處，洋人瞭望矣. 忽二帆小舟，飛來月尾之下，偵探半晌，我軍四處埋伏，偃旗息鼓，正陣待之，賊疑惕退走. 延祐錫告曰，高壘深溝臥，驚營而不動，蛇營鳥陣，臨死地而無疑，今日之謂也. 叔父笑曰，藏於九地之下，動於九天之上，君其知乎.

○ 都監哨官李秉五赴陣. 出身李在靖，士人李時用 表鼎魯，擧義士人李遇恒，前五衛將宋一求，出身李秉泰，出身李容求，士人李恒鎭，防守將出身崔弘淳，防守將黃毛辰，守禦營哨官李福祐，本邑中軍李珪鉉，左兵房軍粮次知金洪九，右兵房蔡廷夏，行首執事金魯鎭，都領將軍器次知李佑炫，前哨哨官河濟禹，中哨哨官貢在善，後哨哨官金順燁，書記朴鼎鎬 金鎭變 金振聲 李演祐，軍糧次知吏房金在健，色吏金鎭教，自願軍領率. 户長貢貞善 軍器次知色吏李演希，烽臺瞭望，將校貢宅善，色吏貢亮默，

맑음. 저들의 이범선(二帆船) 1척이 팔미도의 먼 바다로부터 다시 올라와서 전과 같이 호도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였다. 숙부께서 장막 아래에 장교들을 모으고 적을 격파할 계책을 상의하였는데 밀계를 올린 자가 있어서 보니 바로 진지로 달려온 사인 배정로였다. 그의 밀계에는"지금 적이 큰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싸우려고 해도 싸우지 않고 물러나려 해도 또 물러나지 않고 물길의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삼남(三南)의 선운(船運)이 강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으니, 중앙의 군량을 장차 어떻게 가볍게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심도(沁都)는[118] 바로 적이 있는 곳이어서 반드시 다투는 땅인데 지금 많은 병력이 굳게 지키고 있고, 손돌목은 천연의 험준한 요새이니 적이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머뭇거리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은 실로 간사한 계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연해의 열읍은 방수하느라 지치고 산읍의 포병은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니 이것은 우리 군대가 쇠잔해진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논하자면 주객의 수고롭고 편안한 형세가 적과 상반되니 속히 싸우는 것만 못합니다. 현재 사졸들은 나라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율(紀律)을 익혔으니 모두 한번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는 바로 한 번의 북소리로도 기운이 건장한 때이니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물포와 고잔포는 적들이 반드시 지나는 길이니 지뢰를 몰래 묻고 좌우 산골짜기에는 정병을 매복시켜야 합니다. 그런 뒤에 대담하고 꾀가 있는 장교와 사졸들로 하여금 화기를 많이 감추어두고 갯벌 깊숙이 들어가 저들의 배를 향해 어지럽게 쏘아대고 나아갔다가 물러났다가 하면서 적을 유인해야 합니다. 적이 만약 배를 돌려 육지로 향한다면 또 물러나고 또 풀어주어 육지에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돌아다니며 유인해야 합니다. 화포를 매설한 곳으로 적을 끌어들여 그곳에서 장치를 발동시킵니다. 이로써 신화독연(神火毒煙)과 질려(蒺藜)·연환(鉛丸)이[119] 천둥처럼 터지게 하여 날아드는 공격으로 크게 부상을 입히고 연기와 화약의 충격으로 사람과 말이 모두 달아나게 합니다. 이어서 좌우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돌격하며 적의 퇴로를 차단합니다. 이것이 만전의 계책인데 어찌 일찍 신묘한 계책을 정하지 않고서 이 적들을 물리치겠습니까."라고 쓰여 있었다. 이를 본 숙부께서 웃으며 말씀하시기를, "이 계책도 정견(定見)이 있지만 적들은 배를 소굴을 삼고 대포를 장기로 삼으니, 비록 수많은 배를 유인하더라도 저들은 필시 육지로 내려오려 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배 위에서 포를 쏘며 우리 군사들을 수고스럽게 할 것이니 포를 묻고 복병하는 것은 어찌

118) 심도(沁都) : 강화도의 이칭이다.
119) 질려(蒺藜)·연환(鉛丸) : 질려(蒺藜)는 마름쇠로써 기병을 막기 위해 땅에 설치하는 뾰족한 무기를 뜻하고, 연환(鉛丸)은 탄환을 의미한다.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병법에 이르기를,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면 백번을 싸워서 모두 승리한다.'라고 하였다. 이 적을 섬멸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계책이 있지만, 군사를 신중하고 빈틈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러 가지가 완전히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니 제군들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 二十一日

晴. 彼二帆一隻船, 自八尾島外洋, 還爲上來, 依前留碇於虎島前洋. 叔父會諸將校於帳下, 商議破賊之策, 有獻密計者視之, 乃赴陣士人裵鼎魯也. 今賊在大洋之內, 欲戰不戰, 退又不退, 據在水路咽喉. 三南船運, 不得抵江, 京師之糧餉, 將何以經用. 沁都乃賊所必爭之地, 而今有重兵固守, 孫石項乃天塹之險, 賊之勢必不得前進, 逗留覬覦者, 實未知姦計之所在. 沿海列邑, 疲於防守, 山邑砲兵, 不服水土, 是我師老矣. 以今論之, 主客勞逸之勢, 與賊相反, 不如速戰. 今士卒感荷國恩, 服習紀律, 皆願一戰. 此正一鼓氣壯之時, 不可失也. 於濟物古棧, 賊所必由之路, 暗埋地雷, 左右山谷中埋伏精兵. 然後使膽略校卒, 多藏火器, 深入沮洳, 向彼船亂放, 乍進乍退, 以爲誘賊. 賊若回船向陸, 且退且放, 待其下陸, 盤旋誘引. 至埋砲處, 引發機關, 神火毒煙, 蒺藜鉛丸, 霹靂轟起, 不惟飛打重傷, 煙藥衝突, 人馬俱亡, 左右伏兵, 一齊衝出, 斷其歸路. 此萬全之策. 何不早定神算, 以破此賊也. 叔父笑曰, 此計亦有定見, 而此賊以舟棹爲窩窟, 大砲爲長技, 雖百船誘引, 彼必不肯下陸, 只於船上放砲, 從勞我軍, 埋砲設伏, 豈非謬乎. 兵法曰, 知彼知己, 百戰百勝, 殲除此賊, 已有定算, 而兵貴愼密, 且待諸般完備, 爲諸君道之耳.

맑음. 저들의 배 6척은 이전과 같이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다. 임금께서 삼두미(三斗米)를 출정하는 장졸의 부모, 처자식에게 분급하라는 은혜로운 명령을 내리셨다. 마침 사선(私船)의 곡식이 있었는데, 수로가 막혀 인천부의 포구에 머무르게 되었으니, 값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곧바로 배에서 곡식을 내려 큰 되로 나누어 주었다. 이에 군중에 명령을 내려, 별무사(別武士)와 포계병(砲稧兵)들을 한데 모아 조정의 은택를 깨닫게 하고 충의를 고취시켰다. "국가가 오랫동안 군사를 기르는 것은 (위급한) 날에 사용하기 위함이니, 지금 서양의 오랑캐들이 창궐하는 때야말로, 바로 신민들이 보답해야 할 때이다. 너희 부모는 나라에서 위로할 것이며, 너희 처자식은 나라에서 곡식을 배로 실어와 먹여 살릴 것이다. 나는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너희들을 통솔하고 있으며, 나에게도 노부모가 있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고, 나에게도 어린 자식이 있으나 다른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장차 적(賊)을 무찌르는 것을 나의 임무로 삼았으니,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힘을 다함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사졸(士卒)들이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여 엎드렸다.

○ 二十二日

晴. 彼船六隻依前留碇. 自上有三斗米分給, 出征將卒父母妻孥之恩命. 適有私船穀, 因水路梗塞, 止泊於本邑浦口者, 計價支給, 即爲卸下, 以大斗分給. 乃下令軍中, 齊會別武士砲稧兵, 曉諭朝家恩澤, 激勵忠義, 國家養兵百日, 用在一日, 今當洋夷猖獗, 正是臣民報答之秋也. 爾有父母, 國家慰諭勞問, 爾有妻子, 國家船粟來哺, 吾承朝令, 統領爾等, 吾有老親, 不遑將諗, 吾有穉子, 念不及他. 將破賊爲己任, 汝等同心戮力, 以報國恩, 當如何哉, 士卒皆感泣俯伏矣.

○ 내가 삼재(三才)의[120] 이치를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121] "천공(天功), 지리(地理), 인용(人用)이다."라고 하셨다. 내가 감히 천공(天功)의 뜻을 여쭙자, 숙부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천도(天道)가 변화하여 만물이 성쇠하는 것은, 땅의 힘과 결합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하늘은 귀하고 땅은 천하니, 하늘이 움직여야 땅이 변화한다. 귀한 것은 기(機)를 운용하고, 천한 것은 힘(力)을 바친다. 위에서 움직이면, 아래에서 그 변화를 행하는 것이다. 이로써 하늘이 땅에 작용함이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120) 삼재(三才) : 하늘, 땅, 사람을 뜻한다.
121) 일기에서 '여(余)'는 구연상, '숙부(叔父)'는 구완식을 가리킨다.

항상 땅이 하늘에 응함을 알 수 있다. 하늘이 생기(生機)를 움직이면 땅은 생(生)으로 응하고, 하늘이 살기(煞氣)를 움직이면 살(煞)로 응한다. 기(機)가 바르면 태평하고, 기(機)가 혼란하면 불안정한데, 만물이 형체를 이루고 불안정과 태평함이 교차하는 것은 땅에서 발현되니, 어찌 땅의 일에만 국한되겠는가? 대개 천도(天道)는 안, 지도(地道)는 바깥의 것이다. 임금이 하늘이면 장수는 땅이다. 장수가 하늘이면 사졸은 땅이다. 우리가 하늘이면, 적(敵)은 땅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 움직이는 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승부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은 장수에 대해, 현명한 자를 택하여 군사권을 주고 거병하여도 의심하지 않으면, 장수는 반드시 안으로는 바름에 응할 것이며, 밖으로는 순리에 힘쓸 것이다. 응하기를 바름으로써 하면 군율이 엄해지며, 힘쓰기를 순리로써 하면 부하들이 곧아지니, 거병하여 적을 막을 때 어찌 여시(輿尸)의[122] 우환이 있겠는가? 임금이 스스로의 지혜에 의지하여, 예를 소홀히 하고 아랫사람을 업신여기며, 악인〔匪人〕에게 군사권을 주고, 사람을 등용함에도 믿음이 없다면, 장수가 안으로는 망설임의 의혹을 품고, 밖으로는 군사 통솔의 위엄을 잃게 되니, 거병하여 적을 막을 때 어찌 군율을 잃는 재앙을 면할 수 있겠는가? 군사의 성패는 장수에게 달려있으나, 어찌 장수만의 일이겠는가? 장수가 임무를 행하는데, 장수의 지혜가 만인에 필적하여도, 만약 많은 사람의 지혜를 활용함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와 같다. 장수의 용맹이 모든 군영에서 으뜸일지라도, 만약 군사들의 용맹함을 활용함이 없다면 무기력한 자와 같다. 휼륭하다고 하는 장수는 바르면서도 융통할 줄 알고, 강직하면서도 긍휼할 줄 알며, 어질면서도 결단할 줄 알고, 과감하면서도 신중할 줄 안다. 이로써 사졸들을 통솔하면, 훈공을 떨침으로써 화란(禍亂)을 평정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와 반대면, 사졸들이 밖에서는 돕지 않을 것이고, 안으로는 적이 많아질 것이다. 기세의 용겁(勇怯)은 사졸에게 달려 있으나, 어찌 사졸만의 일이겠는가? 내가 적에 대해, 공을 세워 전쟁에서 승리하여, 적으로 하여금 감히 맞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찌 적이 겁약해서겠는가? 나의 위엄과 명령이 정돈되고, 나아감과 물러남이 엄숙하며, 상과 벌이 합당함에 말미암은 것이다. 병력이 무너지고 장수가 죽임을 당하며, 나라가 약해지고 토지를 빼앗기는 것이, 어찌 적이 강해서겠는가? 내가 군율을 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릇 이와 같이,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미치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미치니, 그것이 마치 하늘과 땅의 작용과 닮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반드시 땅을 빌린 연후에 사기(四氣)를 운용하여, 생(生)과 살(殺)을 바르게 하며, 귀한 것은 반드시 천한 것의 힘을 빌린 연후에 원공(元功)을 이루고 왕업(王業)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122) 여시(輿尸) : 여시의 뜻은 '여러 사람이 주관한다' 혹은 '수레에 실린 시체'이다. 단, 양자 모두 군사 지휘권의 난립,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한다.

○ 余問三才之理，叔父曰，天功地理人用也．余敢問天功之意，下教曰，天道變化，消長萬彙，契地之力，乃有成耳．天貴而地賤，天動以地化，貴者運機，賤者效力，上有其動而下行，其化矣．是以知天之施，地匪專也，地之應天有常也．生機動則應之，以生煞氣動則應之，以煞機正則泰，機亂則否，萬物列形，而否泰交者，見之於地焉，豈止地之爲哉．盖天道內而地道外者也，王者天也，將者地也，將者天也，士卒者地也，我天也，敵地也．由此觀其所動，故勝負可知矣．王之於將也，擇賢受柄，舉無所疑，將必內應其正，外務其順，應以正則師律嚴，務以順則臣節貞，舉而禦敵，詐【詎】有輿尸之患乎．君恃智以自用，倨禮而傲下，受柄匪人，使人不信，將以內抱，猶豫之惑，外喪馭衆之威矣．擧而禦敵，寧免失律之凶乎．師之成敗，見之於將焉，豈將之爲乎．將之爲任也，智敵萬人，荷無萬人之用，與愚者同矣．勇冠三軍，苟無三軍之用，與懦者同矣．善爲將者，正而能變，剛而能恤，仁而能斷，勇而能詳，以策馭吏士，未有不振拔勳業，以定禍亂者也．反於是，則吏士外無援內多敵．勢之勇怯見之，吏士焉豈吏士之爲乎．我之於敵也，功拔戰勝，使敵不敢抗衡者，豈敵怯乎．由我威令整，進退肅，賞罰當也．覆兵殺將弱國削土地者，豈敵强乎，由我不嚴師律故也．夫如是，亦自上而及下，自內而迨外，其猶天地之用乎．故天必藉地也，然後運四氣，正生殺也．貴必藉賤力，然後能成元功，而建王業也．

○ 지리(地理)란, 땅의 형세가 험하거나 평탄한 것이 다르고, 땅의 기운이 차거나 더운 것이 다르니, 지형(地形)과 지기(地氣)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역리와 순리의 방도가 중요하다. 이 방도에 어두운 자는 그 이로움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땅의 이로움을 잘 아는 자는 그렇지 않으니, 험한 지형을 평탄하게 만들고, 평탄한 지형을 험하게 만든다. 무릇 험한 곳에 거주하면서 험함을 이용하면 반드시 안에서 무너지고, 평탄한 곳에 거주하면서 평탄함을 이용하면 반드시 밖에서 무너뜨릴 것이니, 지형을 이용할 때에 있어서는, 그것을 반대로 하는 것이 좋다. 험함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이르는지를 말하자면, 간단하게 하여 복잡함을 억제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움직임을 절제하며, 들어줌으로써 제약을 완화 시켜주지만, 소홀하고 나태하여 일을 그르치지는 않는 것이다. 평탄함을 험하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이르는지를 말하자면, 전진과 후퇴에 있어 경계를 엄히 하고, 안팎이 게으름이 없게 하며,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지만, 거세고 급하게 군무를 행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험함과 평탄함의 이용과는 반대로, 방위로써 그것을 본다면 차고 더운 기운이 다르니 마땅히 지기(地氣)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순응하는 것이 좋다. 남쪽의 더움과 북쪽의 추움은 그 기운이 다르므로, 물과 땅의 성질도 반드시 서로 어긋나게 된다.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맥을 마시게 하고 그 흙 뿌리를 먹게 하며 그 바람과 공기를 쐬게 하면, 열병과 염병에 걸리니 어찌 우리에게 맞지

않는 곳에서 그 방위를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병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늘은 기(氣)를 사람에게 맞출 수 없지만, 임금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氣)에 순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로움은 오로지 한결같을 수 없어, 호인(胡人)은[123] 말이, 월인(越人)은[124] 배가 각각 익숙하지만, 땅과 물에서 어느 한쪽의 기예는 힘을 못 쓸 것이다. 군사를 부리는 데 선택하지 않고, 양자를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호인(胡人)·월인(越人)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려는 것이니, 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땅의 이로움을 안다면, 어찌 겸하여 취할 수 있겠는가? 군사를 잘 부리는 것은 이로움을 잘 택하여 그것을 따르는 게 최선이다.

○ 地理者, 地之形險易殊也, 地之氣寒熱異也, 用形與氣, 在道逆順焉, 昧此道者, 不能趨厥利必矣. 善地利者, 則不然, 險而易之, 易而險之也. 夫居險用險, 必內潰, 居易用易, 必外蹶, 當有形之用, 逆之者善矣. 何謂險而易之曰, 簡以制其煩, 要以節其動, 用以緩其約, 不以疎慢爲失也. 何謂易而險之曰, 進止戒嚴, 內外無怠, 用其謹懼, 不以暴急爲務也. 如是者, 反險易之用, 以方位觀之, 則寒熱之氣異也, 當有氣之用, 順之者善矣. 南方之熱, 北方之寒, 其氣異也, 則水土之性, 必相戾逆. 諸人以使之, 飮其地脈, 食其土毛, 蒙其風氣, 瘴之疫癘, 凍澁之戾病, 焉以我之不便, 犯順方之人, 不有患乎. 天不能以氣順人, 君能以人順氣可也. 是故, 利不可以專一, 胡人之馬, 越人之航也, 各有便焉, 其技不可措手足矣. 行師者, 不能擇而用之, 斯亦更胡越之便也, 冀其成功遠矣. 是知地之所利, 焉可兼而有乎. 善用兵者, 擇利而從之, 善矣.

○ 사람을 쓰는 것은 시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되, 많이 배우는 것을 좇게 하는 반면, 편중된 기예와 좋지 않은 기술은 지양하도록 한다. 병가(兵家)에서 이롭다고 하는 바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맞게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울리기를 잘하는 자는 격투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여 용기가 없음을 우려한 것이다. 보전하여 지키는 것을 잘하는 자는, 진격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그들이 느긋하여 매섭지 않음을 우려한 것이다. 방법이 다양한 자는 결정하는 일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그들이 오히려 망설일까 우려한 것이다. 용기가 넘치는 자는 적을 도모하는 계책 수립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그들이 지나치게 가볍게 여길까 우려한 것이다. 정예한 자는 싸우게 하고, 과감한 자는 공격하게 한다. 침착하고 성격이 집요한 자는 험난한 곳을 막아 지키게 하며, 작은 것을 보고도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는 저축을 맡길 수 없다.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는 자는 그 말을 신뢰할 수

123) 호인(胡人) : 중국 북쪽 변방에 살던 흉노족을 말한다.
124) 월인(越人) : 중국 남부 강남에 있던 월(越)나라 사람을 말한다.

있으며, 날렵한 자는 적을 유인하게 한다. 성미가 깐깐하고 고집이 센 자는 선봉에 세운다. 말이 많고 떠들기 좋아하는 자는 첩자 역할을 맡기며, 좀도둑 같은 자는 적의 신호를 훔치거나 적정을 탐문하게 한다. 험담과 욕을 많이 하는 자는 적을 널리 비방하여 욕하게 하며, 기이한 재주와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는 담소를 맡긴다. 깊은 식견과 큰 도량을 가진 자는 군중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고집이 세고 힘이 강한 자는 수풀을 베어내고 개간하는 일을 맡기며, 지형에 맞추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잘하는 자는 목재를 헤아려 군영의 목책을 만들게 한다. 겁이 많고 나약한 자는 수레를 끌거나 기계를 작동하게 하며, 노약자는 식사를 준비하거나 물을 길러오게 한다. 산천의 높낮이와 샘의 이로움을 잘 아는 자는 지형을 상세히 파악하게 하며, 요사스러운 말로 거짓을 꾸며 장황불사(張皇佛事)와[125] 귀신으로 천명을 뒤흔드는 것을 잘하는 자는 소문을 퍼뜨려 무리들을 현혹시킴으로써 적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지세의 평탄함과 험준함을 잘 가려, 오고 가는 작고 큰 길을 아는 자는 군량을 유통하도록 한다. 기이한 말을 잘하며 뛰어난 변론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자는 위엄과 덕망을 드높이게 한다. 귀와 눈이 밝아 적정을 잘 파악하는 자는 적의 기만을 살피게 한다. 재주가 날래고 시문에 능한 자는 격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칠요(七曜)와[126] 길흉에 밝은 자는 역수(歷數)의 관리로 삼고, 바람과 구름의 기후를 잘 점치는 자는 기상 관측의 관리로 삼는다. 육임과 둔갑을 잘 아는 자는 길일을 선택하는 관리로 삼고, 점술에 능한 자는 점복의 관리로 삼는다. 이 네 사람은 비록 음양을 예측하지만, 각각 서로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되며, 그 한 가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우해야 한다. 의사는 모름지기 스무 명 이상이 필요하며, 병사의 수에 따라 더 증원해야 한다. 수의사도 역시 의사의 수와 같게 한다. 대장군은 재주에 통달한 자를 선발하여, 그와 함께 옳고 그름을 의논한다. 그렇기에 우리들 중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지만, 버릴 사람은 없다. 누구도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하면 공을 이룰 수 있다.

○ 人用者, 令之世取人也, 率於其多學, 而捨其偏技非良術也. 兵家所利, 隨其短長用之也. 是以善與者, 勿與格鬪, 慮其愛人, 而無勇也. 善保守者, 勿與進攻, 慮其緩而不猛也. 多方者, 勿與決事, 慮其猶預也. 多勇者, 勿與謀敵, 慮其過輕也. 精者使鬪, 果敢者使功也. 沈毅而性執者, 使據阻險, 見小而貪財者, 不可使守儲蓄. 智而善斷者, 可擇其言, 輕健者使誘敵, 剛愎者, 使當鋒利. 口喋喋者, 使其間善, 鼠竊狗偷者使盜號探敵, 惡言多罵者 使之揚毁詈罵, 奇才異識者, 使預談笑, 深識大度者, 使安衆. 倔强多力者, 使斬闢榛

125) 장황불사(張皇佛事) : 성대한 불교의 법회를 일컫는다.
126) 칠요(七曜) : 육안으로 보이는 행성을 오행과 대응시킨 화성·수성·목성·금성·토성과 달·태양(음·양)을 합한 7개의 천체이다.

莽, 善隨地形結構者, 使度樹營柵. 怯懦者, 使輦運器用, 老弱者, 使備炊汲. 諳山澤高下水泉之利者, 使詳地形, 妖言詐辭善張皇鬼神推引大命者, 使揚聲惑衆以動敵心. 善擇地勢平易險巇知往來細大之蹊路者, 使通儲粮, 奇辭偉辨能駕虛矜大者, 使奮振威德. 耳目聰明善探敵情者, 使伺候奸偽, 敏才健筆者, 使主牋檄. 明七曜休咎者, 爲曆數之士, 善占風雲氣候者, 爲候風氣之士. 曉六壬遁甲者, 爲選日之士, 善蓍龜者, 爲卜筮之土. 是四人, 雖推測陰陽, 各不可使相亂, 貴其專一也. 醫人須二十以上, 以兵數增之, 獸醫亦如人醫之數. 大將軍推通材者, 與之參議可否, 故我大衆之內, 有善有惡無棄人焉, 人無所棄斯動, 則有功矣.

○ 내가 삼재(三才)의 변화와 반응의 이치를 여쭙자, 숙부께서 대답하시기를, "기회를 보고 행동하되,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병의 기술은 변화를 알면 대군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기세가 왕성하고 때가 승리한 것 같아도, 행렬이 흩어지고 무너지면 그 어지러운 조짐이 나타나 진퇴가 절제되지 않게 된다. 땅을 바르게 하고 병사들을 엄숙히 하여 그들을 공격하면 된다."라고 하셨다. 내가 "저들이 천시(天時)를 얻었다면, 어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돕는 것은 올바름에 있다. 천시(天時)를 점치면서 군정(軍政)을 어지럽히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어긋났는데, 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어찌 기대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병법은 순리로써 순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순리를 역으로 응한다면, 반드시 흉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셨다. 내가 "적군이 천시(天時)를 타고 땅의 이로움을 얻었으나, 적장(敵將)의 마음이 교만하고 나태하여 모략이 신중하지 못하고 군진(軍陣)이 어지러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내가 "저들이 하늘과 땅의 이로움을 얻었는데,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늘의 마음인 것이다. 진실로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비록 징표가 있다 하더라도, 장차 어찌 쓸모가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내가 "적군이 천시(天時)에 어긋나고, 땅의 이로움을 거스르더라도, 적의 대장이 깊이 꾀하고 침착하며, 부대의 대오가 정돈되어 진퇴가 절제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 내가 또다시"하늘과 땅의 이로움을 얻지 못했는데도, 어찌하여 공격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正)은 곧 가(可)이니, 하늘과 땅의 작용을 따른다면, 민인들도 왕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셨다. 내가 "저들이 이와 같다면, 우리의 행동은 장차 어떠해야 합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땅을 다음으로 하며, 하늘을

그 다음으로 한 연후에 북을 울리면 반드시 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다. 내가 “앞과 뒤는 어떠해야 합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리(利)가 주(主)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내가 “주(主)는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라고 하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동(動)이 객(客)이 되고 정(靜)이 주(主)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내가 “본 뒤에 움직이는 것은 어떠합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로소 먼저 승리하고 나서, 신명(神明)을 드러내는 방도이다.”라고 하셨다.

○ 余問三才變應之理, 叔父答曰, 見機而作, 不俟終日, 故用兵之術, 知變爲大軍. 雖氣王時勝, 而行列散潰, 旋表紊亂, 金鼓不節, 正地肅兵, 擊之可也. 余曰, 彼得天時, 詎可破乎. 叔父曰, 天之所祐正也, 占天時而戾軍政, 與天違也. 天人相違, 不凶何俟, 故兵利以順應順也. 順而逆應之, 必凶之兆也. 余曰, 軍乘天時, 跨有地利, 將心驕怠, 謀劃不神, 軍陣散亂, 如之何. 叔父曰, 可擊也. 余曰, 彼獲天地之利, 如何擊之. 叔父曰, 人者天之心也, 苟心不正, 雖有其表, 將焉用乎. 余曰, 軍違天時, 逆地利, 大將深謀沈毅, 部伍清肅, 進退有節, 如之何. 叔父答曰, 未可擊也. 余又問曰, 不獲天地之利, 奚謂未可乎. 叔父曰, 正則可, 以率天地之用, 草莽爲王矣. 余曰, 彼如是也, 我之動, 將如之何. 叔父曰, 先以人, 次以地, 次以天, 然後鼓之, 必克敵也. 余曰, 先後如之何. 叔父曰, 利爲主. 余曰, 何謂主. 叔父曰, 動爲客, 靜爲主. 余曰, 觀後之動, 何如. 叔父曰, 乃應之先勝, 而後擧神明之道也.

○ 내가 삼재(三才)에 따라 사용하는 이치를 여쭈니, 숙부께서 답하시기를 “하늘은 음양(陰陽)을 분별하여 길흉(吉凶)을 나타내고, 땅은 산천(山川)을 나타내어 험이(險易)를 펼쳐내며, 사람은 전장에서 현시하여 용겁(勇怯)을 드러낸다. 진실로 음양의 순리와 험이의 이로움, 용겁의 이용을 원한다면, 한가할 때 그것을 얻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과 우리가 서로 만나 뜻하지 않게 출정하여 갑자기 충돌한다면, 어찌 이로운 바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내가 “양쪽 군대가 우연히 험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어두워지며, 비구름이 쌓여 산천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장(大將)은 군중을 멈추고 진영을 굳건히 하며 호령을 엄숙히 하여, 비록 적이 공격해 오더라도 싸우지 말고 하늘의 변화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강약의 형세를 관찰한 후에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셨다. 내가 “우리가 이미 안정되었고, 저들이 스스로 놀라 어지러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예병으로 그들을 공격해야 한다.”고 하셨다.

내가 “급박한 때, 대장이 어떤 방법으로 행진(行陣)을 굳건히 하고 호령을 엄격히 하여 군대가 스스로 놀라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법을 잘 사용하는 자는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미리 대비한다. 날래고 용감한 자 24명을 뽑아, 팔방으로 각 3기(騎)씩을 1리(里) 거리로 배치하고, 주간에는 깃발로 야간에는 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첫 번째 기수가 적을 발견하면 낮에는 깃발을 들고, 두 번째 기수 역시 동일하게 하면, 3번째 기수가 신속히 보고한다. 밤에는 북으로 낮과 같은 방법으로 신호한다. 연기와 안개가 가득 차고, 바람과 천둥이 크게 요동쳐 깃발을 알아챌 수 없을 때는 급히 보고한다. 이것이 이른바 ‘팔괘탐기(八卦探奇)’라는 것이다. 이로써 적을 마주치더라도 능히 대비할 수 있다. 만약 하늘과 땅의 기운이 도와준다면, 경기병(輕騎兵)으로 돌입하되, 대진(大陣)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적의 동정을 살핀 이후에 나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질서를 유지하며 행동한다. 이 모두가 하늘과 땅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셨다. 내가 “적과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면, 그곳이 혹 평원이나 너른 늪이거나, 혹은 깊은 산골짜기거나, 혹은 험준한 고개거나, 혹은 움푹 파인 습지거나, 혹은 풀과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곳이거나, 이 모두 위험한 지세일 텐데, 이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불구불한 물길이나 험한 협곡은, 충차(衝車)와 돌격해 오는 기병을 막을 수 있고, 깊은 협곡과 좁은 입구에서는 소규모 병력으로 대규모의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울창한 숲과 풀이 많은 곳은 매복하기에 좋고, 넓은 평야에서는 기병(騎兵)끼리 맞붙어야 하고, 풀과 나무가 장애물을 형성한 곳에서는 보병(步兵)끼리 접전해야 한다. 드넓은 들판에서는 오가며 진격하거나 후퇴할 때 장창을 사용할 수 있다. 적이 물을 건너고 멀리서 접근하여 높고 낮은 곳에 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때 쇠뇌를 사용할 수 있다. 적이 암벽에 서로 숨어 있다가 좁은 길을 갑작스레 돌아 나올 때 검과 방패를 사용할 수 있다. 적이 억새와 갈대가 우거진 곳에 있어 주변이 희미할 때 단창을 사용할 수 있다. 적을 마주할 때 이 모든 것은 땅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내가 “나무 울타리 사이에서, 군사들이 쉬고 있는데, 외적이 틈을 타서 기습 공격해 온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용감한 자를 앞에 두고, 겁이 많은 자를 뒤에 숨기며, 급박한 상황에 겁이 많은 자가 억지로 앞으로 나가게 되어 반드시 예봉이 꺾이게 될 것이니 차라리 그들을 숨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셨다. 내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용감한 자와 겁이 많은 자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쭙자,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군사를 잘 부리는 자는 혼란이 생기기 전에 이를 방지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대비한다. 군영을 꾸릴 때 이미 영(令)이 준비되어, 용감한 자는 외곽을 지키게 하고, 겁이 많고 유약한 자는 그 옆에 붙여서 어두운

밤의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게 한다. 이는 모두 사람의 성향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에 순응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방도이다. 그러므로 『주역』의 예괘(豫卦)에서[127] '예(豫)'가 상징하는 것은 '예(預)'즉 미리 준비하라는 뜻을 취하여, 급한 상황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문(重門)에서 공격을 막아 난폭한 적을 기다린다'라고 한 것은 바로 예괘에서 따온 것이다. 군사를 부리는 자가 이에 대해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셨다.

○ 余問三才隨用之理. 叔父答曰, 天著吉凶以陰陽辨也, 地布險易以山川章也, 人包勇怯以戰陣見也. 苟欲陰陽之順, 險易之利, 勇怯之用, 在乎閑暇, 可得而擇也. 當彼我相逢, 各出不意, 忽然交合, 曷能擇所利而用哉. 余曰, 兩師不期逼於險地, 天地震晦, 雨雲交積, 山川不辨, 當此之際, 何以禦之. 叔父曰, 大將止衆堅陣, 嚴肅號令, 雖敵來功, 勿與戰, 俟天變少罷, 觀强弱之勢, 而後進退之. 余曰, 我既安矣, 彼自驚擾, 則如之何. 叔父曰, 以精兵乘之. 余曰, 倉卒之際, 大將以何術, 卽能堅行陣, 嚴號令, 使師不自驚亂. 叔父曰, 善用兵者, 有動心備預. 擇輕勇者, 二十四人, 八方各三騎, 相去一里, 晝以旗, 夜以鼓. 第一騎見賊, 晝擧旗, 第二騎亦如之, 第三馳告, 夜用鼓如晝法. 煙霧翳塞, 風雷震驚, 旗之不聞, 亟馳告斯. 所謂八卦探奇者也. 是以値賊, 而能備焉. 苟天地有愛, 則引輕兵以突之, 大陣不可妄動, 觀彼動靜, 而後擧焉, 故我常用其整也. 此皆隨天之變也. 余曰, 與敵卒然相遇, 或平原廣澤, 或山谷深峭, 或岥嶝穹窿, 或坳坑沮洳, 或草木蒙密, 俱是危地, 當其用之如之何. 叔父曰, 迴渠迂澗, 可以限衝車突騎也, 深峽隘口, 可以少擊衆也. 長林豊草, 所以爲伏也, 原野漫衍, 可以騎兵相屬也. 草木隱障, 可以步士接戰, 長郊往來可進可退, 可以長戟. 當敵踰水跨遠, 高下相乘, 不可得親近, 可以長弩. 當敵巖壁相隱, 狹徑斗迴, 可以劍楯. 當敵葦蕭蘆荻, 枝葉朦朧, 可以戈鋋. 當敵此皆地之性也. 余曰, 寨柵之間, 三軍已憩, 寇敵乘間衝突攻擊, 當此之時, 如之何. 叔父曰, 使勇者據其前, 怯者匿其後, 急遽之時, 怯者强驅而前焉, 必挫鋒折銳, 不若隱之也. 余曰, 當此之時, 何暇別勇怯之用乎. 叔父曰, 不然, 善用兵者, 防亂於未亂, 備急於未急, 結營旣定預令, 强勇者衛外, 怯弱者附之, 所以慮晦夜之急也, 此皆隨人之性也. 如是, 順天地人, 預備之道也, 故易之豫卦, 象以豫者, 預也, 取預備之意, 爲急難之用也. 故曰 重門擊柝, 以待暴客, 盖取諸豫, 用兵者, 得不審於此乎.

127) 예괘(豫卦) : 육십사괘(六十四卦)의 하나. 진괘(震卦)와 곤괘(坤卦)가 거듭된 것으로 우레가 땅에서 나와 떨침을 상징한다.

흐림. 저들의 이범선(二帆船) 2척이 종선(從船) 10여 척을 거느리고 진무영의 경계를 향해 진격해 왔다. 잠시 후, 포성이 크게 울리고 천지가 진동하였다. 그날 초지진(草芝鎭)을 지키는 데 실패한 첨사(僉使) 이렴(李濂)은 갑곶진(甲串鎭)으로 후퇴하였다. 적도들이 이내 육지로 내려와 관아와 민가를 불태워 죄다 잿더미로 만들었다고 들으니, 심히 분하고 원통하였다. 해로가 막히고 끊어져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어 매우 답답하다. 내가 장수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여쭈니, 숙부께서 답하시기를, "국가가 군사를 출진시키면, 군율과 생사(生死)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니, 대장(大將)은 나라의 심복이자 모든 군사의 사명(司命)을 맡는 자로서, 그 선발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로 장수를 임명하고자 한다면, 미리 정성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그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용모, 둘째는 언어, 셋째는 몸가짐, 넷째는 일처리이다. 첫째로 말한 용모는 무릇 눈썹 위의 두 뼈가 가로로 솟아 높고 가파른 자, 말할 때 서로 돌아보지 않는 자, 가슴을 내밀고 우러러 보는 자, 안에 앉아 있을 때 자주 놀라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이 이러한 특징을 하나라도 가졌다면, 이러한 사람은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니, 임명해서는 안 된다. 하관이 풍만하고 상관이 날카로우며, 정신이 안정되고 차분한 자는 덕이 중후하고 사람들을 잘 안정시킨다. 눈에 검은자가 많고 흰자가 적으며, 눈동자가 깊고 정신과 기운이 형상과 잘 맞는 자는 법도를 헤아리는 것이 두터워 속임수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다. 눈동자가 맑고 빛나며, 오악(五岳)이[128] 서로 비추는 형상이고, 제비 턱과 호랑이 턱을 가진 자는 마음의 결정이 빠르고 용감하여 결단력이 있다. 거북 등과 호랑이 허리를 가지고 있고 눈동자가 깊고 밝으며, 꿰뚫어 보면서 세밀히 보는 자이고, 몸과 마음이 뛰어나고 위엄이 있는 자는 웅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갖춘 자는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운이 매우 탁한 경우 골격이 바르게 되지 않으니, 머리가 뾰족해지고 얼굴이 작아지며, 목이 커지고 배가 가늘어지며, 눈동자가 어둡고 흐릿해지고 상향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 이는 모두 의지가 부족하고 지식이 얕은 우둔한 사람이다. 둘째로 말한 언어는 말이 방자하고 눈이 놀란 듯한 자는 마음에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이다. 말이 장황하고 논리가 맞지 않는 자는 마음에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다. 자기를 뽐내고 남을 칭찬하며 오직 내 쪽으로 기울지 않음을 걱정하는 것은 편을 가르는 자이다. 말이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자는

128) 오악(五岳) : 사람의 얼굴에서 이마, 코, 턱, 좌우의 광대뼈를 이르는 말. 오악상조(五岳相照)는 이마, 코, 턱, 좌·우 광대뼈의 위치가 균형 잡힌 상태를 뜻한다.

마음이 조급한 자이다. 말을 하면서 다른 곳을 보는 자는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 말이 비굴하고 태도를 낮추는 자는 마음에 꺼리는 바가 있다. 말을 하면서 자주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자는 그 말이 허황되다. 남의 단점을 말하면서 시선이 불안한 자는 남을 무고하는 자이다. 말이 많고 사사로운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자는 아내와 자식만을 생각하는 자이다. 크게 이야기하지만, 이치가 정밀하지 않은 자는 학식이 얕다. 기쁜 기색을 하고 천천히 남의 의도에 맞추는 자는 아첨하는 자이다. 자기를 좋게 자랑하고 남을 나쁘게 말하는 자는 고집이 센 자이다. 말을 하려다가 겁먹고 망설이는 자는 생각이 깊은 자이다. 말에 공과 사의 구분이 없이 반드시 이익에 집착하는 자는 탐욕스러운 자이다. 얼굴이 비굴하고 말로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는 의지가 낮고 열등한 자이다. 일이 꼬였는데도 잘 되었다고 말하며, 기운이 어그러졌는데도 순조롭다고 말하며, 모양이 약소한데도 크다고 말하며, 일을 자세히 헤아리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할 수 있다고 하며, 이치를 거스르며 바른 것만 강조하는 것이 모두 간사한 자이다. 사람에게 이 열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면 임명해서는 안 된다. 크게 말하고 뜻이 정밀한 자는 식견과 도량이 있는 자이다. 드물게 말하지만 나오는 말마다 정확한 자는 의지와 절제가 있는 자이다. 행동을 말하고 그것이 반드시 국가에 미치는 자는 충효가 있는 사람이다. 말이 많지만 장황하지 않는 자는 강직한 사람이다. 말이 적지만 뜻이 간절한 자는 매우 공정한 자이다. 말이 많지만 군리(軍吏)의 사적인 문제까지 언급하는 자는 어루만져 구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전투에 대해 말할 때, 기뻐하는 기색이 나타나는 자는 용맹한 사람이다. 세세하고 자질구레한 것을 언급하면서도 옳고 그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말이 우활하지만 결국 이치에 가까워지는 자는 식견이 깊고 멀리 보는 자이다. 말이 적지만 일이 상세한 자는 도량이 큰 자이다. 말과 기운이 조화롭고 정신과 안색이 서로 일치하는 자는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자이다. 말이 매우 느리지만 일을 준비하는 자는 성격이 느긋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 빠르지만 일이 적절한 자는 성품이 급하지만 폭력적이지 않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다. 이 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는 자는 임명할 수 있다. 셋째로 말한 몸가짐은 걷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는 자, 걷거나 앉을 때 갑자기 놀란 듯 한 자, 시도 때도 없이 말하고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자, 음식을 먹을 때 수저와 젓가락을 놓는 것을 모르는 자, 걸을 때 고개가 기울어지고 입과 눈이 번번이 비스듬히 움직이는 자, 걸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쫓아올까 두려워하는 자, 앉으려 할 때 자주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놀란 기색을 보이는 자, 제멋대로 걷다가 기운이 어그러져 정신과 안색이 상기되는 것을 자초하는 자, 아랫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비굴하고 겉으로만 공손한 자, 일을 볼 때 알아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자, 이 열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니 임명해서는 안 된다. 걸을 때 마치 큰길을 걷는 듯해야 하며, 발이 움직여도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앉을 때 마치 산에 매복한 병사과 같이, 몸과 정신이 모두 안정되어야 한다. 눕고자 할 때 위험한 상황이라도 기운이 안정되고 차분해야 한다. 이는 모두 지혜와 도량이 깊으며, 절개가 크고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가진 자는 임명할 수 있다. 넷째로 말한 일 처리는 일을 행하는데 자신을 먼저 하고 남을 나중에 하는 자는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일이 번잡하게 많아도 일관성이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일을 처리하는데 데 남을 이용함에 급급한 자는 무익한 사람이다. 일을 처리하는 데 시작만 있고 끝맺음은 없는 자는 거짓된 사람이다. 처음에는 서두르고 나중에는 게으른 자는 군중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일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섣불리 처리하는 자는 성급한 사람이다.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지만 급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는 겉만 화려하기만 한 사람이다. 어긋난 바를 버려야 하나 둔하여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익과 해악을 분명히 알지만 이를 분석하지 못하는 자는 식견이 없는 사람이다.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는 자는 나약한 사람이다.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는 자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를 기억하고 둘을 잊는 자는 정신이 어두운 사람이다. 일이 허황되나 겉모습만 거창하게 꾸며 선을 악으로 바꾸는 자는 간사한 사람이다. 남의 얼굴색을 잘 살펴 원하는 바에 따라 말하는 자는 아첨하는 사람이다. 이 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간단한 일이라도 처리 방식이 적절한 자, 기뻐하거나 노할 일이 있어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자, 큰 일에 임해도 정신과 기운이이 평시와 다름 없는 자, 이들을'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한다.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큰일도 번거로워 하지 않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는 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 혼자서 결단을 내리는 자, 여러 위험을 안전으로 바꾸는 자, 움직이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 이들을 '지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한다. 이 열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용모는 정신이 모인 것이고, 말은 정신의 형태이며, 몸가짐은 정신의 발현이고, 일 처리는 정신의 본체이다. 정신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임금이 장수를 임명함에 있어 이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 二十三日

陰. 彼二帆船二隻率從船十餘隻, 向沁營界進發. 少頃, 砲聲大震, 轟天動地. 當日草芝鎭失守, 僉使李濂退守甲串鎭. 賊徒乃下陸, 官廨民家燒毁殆盡, 聞甚憤惋. 海路隔截, 未知其詳, 甚爲悶菀. 余問辨將之道, 叔父答曰, 國家行師, 授律生殺之柄, 大將所主者, 國之心腹, 三軍之司命也, 可不愼於選乎. 苟欲命將, 預以精誠辨, 其可否者有四, 一曰貌, 二曰言語, 三曰擧動, 四曰行事. 其一曰貌, 凡眉上雙骨橫起而隆巉者, 言語而不相顧者, 突膺仰視者, 方坐內多虛驚者, 此類者人有其一, 斯人蘊不臣之心, 不可使之. 豊下銳上, 神氣安詳者, 重德而善安衆人也. 目黑多白少點睛深, 而神氣與形相副者, 機度沈厚, 不可以詐動人也. 目睛瑩朗, 五岳相照, 燕頷虎頤者, 心機疾速, 勇而有斷人也. 龜背虎腰, 點睛深而朗, 徹瞻視諦, 而神骨聳峭者, 雄壯有智慮人也. 是五者, 人有其一可使之也. 至若神氣重濁, 骨相不正, 頭尖面小, 頸大腹細, 目睛昏夢點睛, 近上視顧不正, 此皆志氣淺劣, 智識庸鄙人也. 其二曰言語, 人有言肆而目駭視者, 心懷異圖也. 言枝蔓而不經者, 心有隱也. 矜大人言善, 唯恐不仄黨人也. 言錯綜無所歸者, 心躁也. 方言而他視者, 心不誠也. 言卑而色下者, 心有所屈也. 方言頻四顧者, 其辭妄也. 言人之短而視不定者, 誣構人也. 言多以私事爲憂者, 顧妻子之人也. 言大而理不精者, 其學虛也. 色悅而徐徐順人意者, 佞媚人也. 矜己善而言人不善者, 崛强人也. 言欲發而怯縮者, 含蓄人也. 言無公私必及利者, 貪人也. 色卑而言多求者, 志下劣人也. 事曲而言直, 氣悖而言順, 色鄒而言大, 事不詳而强能, 理矯而强正, 此皆奸詐人也. 是十六者, 人有其一不可使也. 言大而意精至者, 有識度人也. 言希而出必中者, 有志節人也. 言動而必及國家者, 忠孝人也. 言多而不迂者, 壯直人也. 言寡而意懇者, 至公人也. 言多及軍吏之私者, 善拊恤人也. 言及陣敵喜動於色者, 好勇人也. 言及細微而能剖析是非者, 有智人也. 言迂闊而卒近於理者, 識深見遠人也. 言少而事詳者, 大度人也. 語氣和而神色相稱者, 善納衆人也. 言徐徐而事備者, 性緩而有德人也. 言速而事當, 性急而不暴, 有識人也. 是十三者, 人有其一皆可使也. 其三曰擧動, 行有狼顧者, 行與坐忽如驚恐者, 非時言語而手足紛拿者, 方食而不覺棄匕筯者, 方行而首偏口目輒斜動者, 行而唯恐有人逐者, 欲坐而頻四顧如有所駭者, 方行而悖氣, 上騰神色自得者, 待下多卑, 恭而不實者, 覩事覺佯如不知, 而目他視者, 十者人有其一, 此皆爲心不誠實, 多蓄異圖人也. 不可使之也. 行欲如大路, 足動而身不搖也. 坐欲如山兵, 形神俱定也. 臥欲覆舟, 神氣安詳也. 此皆智度深沈, 大節崇德人也. 是三者, 人有其一可使之也. 其四曰行事, 行事有先己後人者, 好私人也. 事繁多而不常者, 無智人也. 作事急於用者, 無益人也. 作事有首無尾者, 僞人也. 先急而後慢者, 庸衆人也. 事不求詳而輒爲之者, 粗踈人也. 巧妙而無補急用者, 浮艶人也. 所錯捨魯鈍而不適用者, 愚人也. 利害章章而不能析者, 無識人也. 臨事而懼者, 懦弱人也. 進退不決者, 無斷人也. 記一忘二者, 神昧人也. 事虛而構架廣大以善爲惡者, 奸人, 善候人之顔色, 隨所欲而言者, 佞人也. 是十四者, 人有其一不可使也. 有事簡而用當者, 有喜怒之事不露於色者,

臨大事而神氣自若者, 此謂神有餘之人也. 有微而不棄, 大而不煩, 危事不懼, 美事不喜者, 事有衆惑而獨斷之者, 有衆危而轉安之者, 事有難動而能動者, 有難安而能安者, 此謂智有餘之人也. 是十者, 人有其一皆可使也. 是知貌也者, 神之聚也, 言語也者, 神之形也, 擧動也者, 神之用也, 行事也者, 神之本也. 察其神, 則盡其爲人之道矣. 君之命將, 可不審於此乎.

○ 경전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외면을 통해, 그 내면을 알 수 있다. 칠규(七竅)는[129] 오장(五臟)의[130] 통로이며, 삼정(三亭)의[131] 아홉 가지 징후는 한 자〔尺〕 길이의 얼굴에서 결정된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용기와 두려움은 한 치〔寸〕 안 되는 눈에 나타나며, 천창(天倉)과[132] 금궤(金匱)로[133] 부귀와 빈천을 구분할 수 있다. 무릇 장수를 임명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의 용모를 보고, 그의 정신을 살펴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 용모가 당당하고 정신이 맑고 투명하며, 목소리가 옥과 비단 같으면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며, 성함과 쇠함, 기쁨과 노여움에도 그 지조가 바뀌지 않으니 이를 이르러 정신이 명확하고 여유가 있다고 한다. 머리와 목이 크고 균형 잡혀 있으며, 배와 등이 두툼하고 풍성하며, 코가 둥글고 곧으며, 입이 네모지고 각이 지며, 이마의 양쪽이 서로 마주하고, 광대뼈와 귀가 높이 솟아 있으며, 살이 많지만 남지 않고, 뼈가 굵지만 드러나지 않으며, 눈썹과 눈이 밝고 또렷하며, 손발이 붉고 신선하며, 앉을 때 자연스럽게 높아 보이며, 크기에 비해 작아 보이는 자는 형상에 여유가 있는 자라 할 수 있다.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며, 남을 미워하지 않고, 탐욕이 없으며, 남을 위태롭게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평안하게 하는 자, 음덕(陰德)과 은혜, 신의를 가지고, 관대하고 대범하며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자라 할 수 있다.

○ 經曰, 凡人觀其外, 足以知其內 七竅者, 五臟之門戶, 三亭九候, 定於一尺之面, 愚智勇怯形於一寸之眼, 天倉金匱, 以別富貴貧賤. 夫欲任將, 必視其貌, 鑒其神, 乃知其心. 容貌堂堂精神清徹, 聲色玉帛, 不變其志, 榮祜喜怒, 不易其操, 是謂神明有餘. 頭項豊停腹背穰厚, 鼻圓而直, 口方而稜, 兩額相臨, 顴耳高聳, 肉多而不餘, 骨粗而不露, 眉目明朗, 手足紅鮮, 坐下而就高, 比大而獨小, 是謂形有餘, 隱惡揚善, 無疾人無貪欲無危人以自安 陰德惠信, 豁達大度不拘小節, 是謂心有餘.

---

129) 칠규(七竅) : 사람 얼굴에 있는 일곱 개의 구멍. 귀·눈·코의 각 두 구멍과 입 한 구멍을 의미한다.
130) 오장(五臟) : 사람의 심장, 간, 비장, 폐, 신장을 의미한다.
131) 삼정(三亭) : 사람의 이마, 코, 턱을 의미한다.
132) 천창(天倉) : 관상에서 운명을 예측하는 부분이다.
133) 금궤(金匱) : 관상에서 부귀와 빈천을 예측하는 부분이다.

○ 호랑이 머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니, 부귀가 비할 데 없다. 코뿔소 머리는 우뚝 솟아있으니, 부귀가 풍성하다. 코끼리 머리는 높고 넓으니, 복록(福祿)이[134] 모두 길다. 사슴 머리는 측면이 기니, 지기(志氣)가 웅장하고 강하다. 거북 머리는 커졌다가 줄었다가 하여, 오직 술과 고기가 풍족하다. 수달 머리는 답답하고 좁아, 지기(志氣)가 활달하다. 낙타 머리는 혼돈스러워, 복록이 매우 다양하다. 뱀 머리는 평평하고 얇아, 재물을 얻어도 줄어든다. 오소리 머리는 가늘고 작아, 궁핍과 재앙이 셀 수 없이 많다. 토끼 머리는 높이 솟았다가 깎이니, 지기(志氣)가 비루하고 낮다. 개 머리는 뾰족하면서 둥근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 울상이다. 눈썹이 곧고 머리가 솟아 있으면 부귀와 길운이 창성하고, 눈썹이 얇고 드문드문하면 신뢰가 부족하고 거짓이 많다. 머리털은 가늘고 촘촘해지려 하고, 수염은 거칠고 성글어지려 하는데도, 눈의 광채가 밝고 맑은 자는 부귀를 누린다. 눈과 코가 잘 어우러진 자는 혼백이 강하다. 아름다운 눈썹과 눈, 손가락과 손톱을 지닌 자는 베풀기를 좋아한다. 눈과 코와 입이 작으면 허황된 면이 많고 실속이 없다. 코가 크면 실속이 있고 허황되지 않다. 눈에 붉은 핏줄이 동공을 가로지르면 전쟁에서 죽는다. 닭 눈을 한 자는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입술이 메말라 있으면 도둑질을 한다. 양 눈은 똑바로 내쏘아 보아 아내와 자식을 죽일 수 있다. 돼지 눈은 고요하고 맑아 형벌과 재앙이 서로 잇따른다. 벌 눈과 이리의 목소리는 항상 냉정하게 행동한다. 땅강아지 눈은 마음을 얻기 어렵다. 원숭이 눈은 궁하고 춥다. 매와 같이 눈을 부릅뜨고 보거나 이리와 같이 심히 경계하여 돌아보는 것은 항상 질투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소 머리와 호랑이의 시선은 부귀가 비할 데 없다. 코가 둥글고 실하면 부귀하고 끝까지 길하다. 입과 코가 작고 오그라들면 빈곤과 부족함에 시달린다. 쇠똥구리의 코는 의지가 약하다. 여우의 수염은 믿음을 기대하기 어렵고, 배반을 꾀한다. 콧수염과 구렛나루 수염이 많으면 여우처럼 의심이 많다. 입이 말의 주둥이처럼 생겼으면 심성이 제어하기 어렵고, 입이 말의 주둥이처럼 생겼으면 빈곤과 추위에 시달리며 객지에서 죽는다. 입이 강과 바다와 같으면 부귀가 스스로에게 있으며, 입이 구슬과 같으면 재능과 학문이 세상에 비할 데 없다. 혀가 붉고 또 두꺼우면 정신과 식견이 스스로 두터워진다. 혀를 코에 닿을 정도로 내밀 수 있으면, 장수하고 귀해진다. 톱니처럼 생긴 이는 육식을 하고, 평평한 이는 채식을 한다. 성긴 이는 맹렬하고, 촘촘한 이는 순박하고 온화하다. 가는 이는 장수하며, 가냘픈 이에 제비의 턱은 제후에 봉해진다. 귓바퀴가 두껍고 큰 자는 귀하고 장수하며, 작고 얇은 자는 요절하고 천하다. 호랑이의 목처럼 둥글고 굵으면 부귀가 남는다. 학의 머리와 오리의 목은 돈과 재물이 모자라다. 목덜미가 굵고 짧은 자는 부귀하고 장수하며,

134) 복록(福祿) : 타고난 복(福)과 벼슬아치의 녹봉(祿俸)이라는 뜻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이르는 말이다.

길고 가느다란 자는 빈천하다. 가슴과 등이 거북이 같으면 부귀가 가득하며, 가슴이 길고 네모나면 지혜가 무쌍하다. 손발이 곱고 두툼하며 손가락이 촘촘하면서 두꺼운 자는 부귀를 누린다. 손이 새의 발과 같으면, 의지가 편협하고 구차하다. 손이 돼지 발굽과 같으면, 지기(志氣)가 혼미하다. 손이 원숭이 손바닥과 같으면, 근면하면서 재주가 있다. 배가 늘어진 주머니와 같으면, 부귀와 길운이 창성하고, 소의 배는 탐욕스러우며, 개의 배는 궁하고 추위에 시달린다. 두꺼비의 배는 게으르다. 땅거미·도마뱀의 허리는 느리다. 소리는 깊을수록 실해야 하며, 얕더라도 허하지 않아야 한다. 멀리 퍼져나가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가까이서도 사라지지 않으며, 얕아도 장엄하고, 깊으면서도 감춰지지 않아야 한다. 소리가 크면서도 탁하지 않고, 작으면서도 두드러지지 않아야 한다. 가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고, 은은하면서도 밝게 들려야 한다. 여운이 미세하면서도 분명히 울려 퍼져야 하며, 마치 생황(笙簧) 소리와 같이 부드럽게 흘러 전달되며, 원만하고 길게 이어져야 한다. 호랑이 소리는 장군(將軍), 말 소리는 사납고 용맹한 자에 어울린다. 남성의 소리를 가지면서도 여성의 시선을 한 자는 허위적인 사람이다. 놀랐는데도 소리가 무거운 사람은 실속 있고 곧은 사람이다. 검은 점은 점점 커지고 뚜렷하게 생기니, 보이지 않은 곳이면 길하고, 드러나 있으면 흉하다. 사람의 얼굴은 마땅히 둥글어야 하고, 허리는 각져야 하며, 엉덩이는 두툼해야 하고, 등은 둥글어야 한다. 위는 길어야 하고, 아래는 짧아야 한다. 오악 즉 이마, 턱, 코, 양쪽 광대뼈가 이루어지고, 사독 즉 귀, 눈, 코, 입이 완성되고, 머리가 높고 발이 두터우며 목이 짧고 팔이 길면 마치 용과 호랑이와 닮아, 마시고 먹고 소리내는 것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두개골 이음선이 두드러진 모양은 베개의 모양과 관련이 있다. 장군(將軍)은 '呂'모양의 옥관(玉關) 베개, 만호후(萬戶侯)[135]·소장군(小將軍)은 '品'모양의 승계(升階) 베개, 이천석(二千石)은[136] '𠙵'모양의 오악(五岳) 베개, 대장군(大將軍)은 '𠙵'의 쌍(雙) 베개, '◎'의 수레바퀴〔車輪〕 베개, 공후(公侯)는[137] '亖'모양의 삼성(三星) 베개, 제후는 '⊟'모양의 반달〔偃月〕 베개, 삼공(三公)은 '□'모양의 베개이다. 제후로서 '⇧'모양은 십방(十方) 베개, 삼천석(三千石) 관장은 '凸'모양의 술통〔酒樽〕 베개, 이천석(二千石) 삼공(三公)은 '凸'모양의 베개, 제후는 '○'모양의 베개이다. 이마 위에 '||'모양의 문양이 덮여 있는 사람은 장군(將軍)이며, 팔자 눈썹 위에 주름이 있고, 머리카락까지 이어진 사람도 장군(將軍)이다. 미간에 글자 '토(土)'의 문양이 있는 경우는 제후로 봉해진다. 미간에 문자(文字)가 새겨진 자는 전쟁에서 죽는다. 모든 사람은 용모가 바르기를 원하며, 바르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흰색은 엉긴 기름과 같고, 검

135) 만호후(萬戶侯) : 1만 호(戶) 규모의 영지를 가진 제후(諸侯)를 뜻한다.
136) 이천석(二千石) : 이천석관장(二千石官長)으로서, 군수(郡守)·군위(郡尉)·현령(縣令)·현장(縣長)을 총칭하는 것이다.
137) 공후(公侯) : 봉작(封爵)의 하나.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등의 다섯 등급의 작위 가운데 그 첫째 등급인 공작(公爵)과 둘째 등급인 후작(侯爵)을 의미한다.

은색은 순수한 옻과 같고, 자색은 익은 오디와 같고 황색은 찐 좁쌀과 같고, 적색은 불꽃과 같고, 청색은 담가놓은 쪽과 같으니, 모두가 삼공(三公)에 이를 수 있다.

○ 虎頭高視富貴無比, 犀頭律岸富貴鬱鬱, 象頭高廣福祿俱長, 鹿頭側長志氣雄强, 龜頭都縮惟豐酒肉, 獺頭悶狹志氣豁達, 駝頭蒙鴻福祿千鍾, 蛇頭平薄財物獲落, 狢頭細小窮厄無計, 兎頭陡削志氣卑下, 狗頭尖圓泣涕漣漣. 眉直頭昂富貴吉昌, 眉薄而稀少信多欺, 髮欲細密, 鬚欲粗踈, 眼光彩明淨者, 富貴. 眼鼻成就者, 魄魂强. 美眉目指瓜者, 好施. 眼鼻口小者, 多虛無實. 鼻大者, 有實無虛. 眼中赤脉貫瞳子者, 兵死. 鷄眼捲頭不捶則偷, 羊目直視能殺妻子, 猪目定澄刑禍相承, 蜂目狼聲常行安忍, 螻蛄目心難得, 猴目窮寒, 鷹視狼顧常懷嫉妬, 牛頭虎視富貴無比, 鼻準圓實富貴終吉, 口鼻小縮慳貧不足, 蜣蜋鼻少意志, 野狐鬚難期信叛瓟【慄】髭髯多有狐疑, 口如馬喙心性難制, 口如馬嘴窮寒客死, 口如江海富貴自在唇, 口如珠才學世無, 舌紅且厚神識自厚, 吐舌及鼻壽而且貴. 鋸齒食肉, 平齒食菜, 踈齒猛殷, 密齒淳和, 細齒長壽, 名曰倪齒燕頷封侯, 耳輪厚大者貴且壽, 小薄者夭而賤, 虎項圓粗富貴有餘, 鶴頭項熊【熋項】錢財乏少, 頸粗短者富貴長壽, 長細者貧賤. 胸背如龜富貴巍巍. 胸長而方智慧無雙. 手足纖穰指欲密而厚者富貴, 手如鳥足意智褊促, 手如猪蹄志氣昏迷, 手如猿掌勤劬伎倆. 肚如垂囊富貴吉昌, 牛肚貪婪, 狗肚窮寒, 蝦蠣肚懶, 蝪蜥腰緩, 聲欲深且實, 不欲淺而虛, 遠而不散, 近而不亡, 淺而能壯, 深而不藏, 大而不濁, 小而不彰, 細而不亂, 幽而能明, 餘響微徹, 有若笙簧, 宛轉流運, 能員能長. 虎聲將軍, 馬聲驍勇, 雄聲而雌視者, 虛僞人也. 氣急而聲重者, 實直人也. 黑子欲得大而明生, 隱處吉, 露處凶, 人面欲圓, 腰欲方, 尻欲厚, 背欲圓. 上欲長, 下欲短, 五岳成, 四瀆就, 頭高足厚項短臂長, 似龍似虎, 所謂行住坐臥, 飮食聲音, 並可觀也. 腦骨縫起者, 將軍吕玉關枕, 萬戶侯小將軍品升階枕, 二千石⿰山五岳枕, 大將軍⿰冂冂雙枕, 大將軍◎車輪枕, 封公侯⿰冂三星枕, 封侯⿱凵匾月枕, 至三公□枕, 封侯⇧十方枕, 三千石凸酒樽枕, 二千石三公⿰凵冂枕, 封侯○枕. 額上覆||文將軍, 八眉上有紋通髮者將軍, 眉間有土字紋者封侯, 眉間有文字者兵死, 凡人色欲正不欲邪, 白如凝脂, 黑如純柒, 紫如爛椹, 黃如蒸栗, 赤如炎火, 青如浴藍, 皆三公也.

흐림. 강화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포성이 여전히 끊이지 않으니, 접전이 펼쳐짐을 알 수 있으나 승부는 즉시 알 수 없었다.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불안했으나, 군사의 단속을 더하고 방비를 강화하여 적의 동정을 기다렸다.

○ 二十四日

陰. 江華消息未可得聞, 砲聲尙爾不絕, 可知接戰而勝負未可卽聞, 心甚悶菀, 而團束士卒益加防守, 以俟賊之動靜.

○ 내가 군령이 어떻게 엄중히 집행되는지를 물었다. 숙부께서 답하시기를 "경전에 이르기를, 도당씨(陶唐氏)는[138] 사람을 국가 내에서 정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명령을 강하게 따르게 하였다. 유우씨(有虞氏)는[139] 농사, 교육, 전투, 어로, 수렵을 익히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체득하였다. 하후씨(夏后氏)는[140] 군문 밖에서 군중에게 맹세하며 먼저 뜻으로써 군(軍)을 기다리게 하였다. 주(周)나라 장수들은 시퍼런 칼을 엇갈려 맹세하니, 사람들이 마침내 하(夏)나라에서 주는 상을 조정에서 주는 상보다 좋아하기에 이르렀다. 은(殷)나라가 저잣거리에서 처벌하여 위협한 것은 좋지 않았다. 주나라는 조정에서 상을 주고 저잣거리에서 형벌을 내려 맹세와 무력을 겸하였다. 무릇 사람은 마음으로 말을 정하고, 말을 정함으로써 명령을 낸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크게 펼쳐지는 웅대한 계략은 굳센 말에서 나오고 날카로운 철과 돌의 마음은 차가운 바람과 서리의 기운에서 나온다." 명령을 발휘하고 군법을 밝히며, 군중에게 맹세하는 글을 낭독하기를 "모 장군 모는, 대장과 군리, 사졸 등에게 고하노라. 성인(聖人)은 나무를 당겨 활을 만들고, 나무를 잘라 화살을 만들어 천하를 위엄으로 다스린다. 이는 혼란을 수습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며, 혼란을 이용하여 패망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제 모씨가 황제의 명을 받들지 않고 거역하니, 황제께서 나에게 군사권을 주어 천명을 받들게 하셨다. 전진하여 죽으면 영광이 있을 것이나, 후퇴하여 살아남으면 치욕이 될 것이다. 명령을 따르면 조상에게 상이 있을 것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당에서 처형될 것이다.

138) 도당씨(陶唐氏) : 중국 오제(五帝)의 한 사람인 요(堯)를 가리킨다. 처음에 당후(唐侯)에 봉해졌다가 나중에 천자(天子)가 되어 도(陶)에 도읍을 세운 사실에서 유래한다.
139) 유우씨(有虞氏) : 중국 오제(五帝)의 한 사람인 순(舜)을 가리킨다. 선대의 요(堯)와 함께 이른바 '요순(堯舜)'이라 하여 성군(聖君)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140) 하후씨(夏后氏) : 하(夏) 왕조의 우(禹) 임금을 가리킨다. 순(舜)의 선양(禪讓)을 받아 왕이 되어 하 왕조(夏王朝)를 창시하였다.

군에는 두 가지 명령이 없으며, 장수에게도 두 가지 말이 없다. 너희는 왕명을 성심껏 따르고, 법도를 어기지 말라. 경전에 이르기를, 군중이 순종함을 무기로 삼고, 군사에 있어 일이 있을 때는 범하지 않는 것을 존경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양저(穰苴)는 장가(莊賈)를 참수하고,[141] 위강(魏絳)은 양간(楊干)을 처형하여[142] 그 명성이 제후들에게 알려졌으며, 이웃 나라에 위엄을 떨쳤다. 명령이 실행되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세 번 명령을 내렸음에도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군사들의 죄이며, 명령을 거듭 밝힌 뒤에도 따르지 않는 것은 장수의 잘못이다. 전투 3일 전에 군문에 명령을 걸어두고, 군정으로 하여금 목패(木牌)를 들고 모든 군중에게 전하게 하라. 명령을 어긴 자가 있으면, 군정이 이를 조사하여 병사들을 집합시킨 뒤 처형을 집행하고, 모든 군사가 이를 알게 하라."

1. 군중(軍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준 자는 모두 참수한다.
1. 군을 배신하고 도망한 자는 참수한다. (도로 및 군영에서 전투 중 도망한 자도 참수한다.)
1. 싸우지 않고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가산을 몰수한다. (배반하거나 항복한 자는 반역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1. 기한을 어기면 참수한다. (다만, 전투를 계획함에 있어, 비, 눈, 홍수,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1. 행렬이 정돈되지 않거나, 깃발이 정리되지 않거나, 징과 북이 울리지 않으면 책임자를 모두 참수한다. (군사훈련시 여러 군영이 모여 싸울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적과 사사로이 내통한 자는 참수하고, 그 가산을 몰수한다. (말이나 편지로 내통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주장(主將)을 잃은 자는 참수한다. (보좌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1. 깃발, 북, 도끼, 징 등을 잃은 자는 참수한다. (적에게 빼앗긴 경우도 포함된다.)
1. 위기 상황에서 서로 구하지 않은 자는 참수한다.
1.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거나, 음양·점술의 미신을 설파한 자는 참수한다. (귀신이나 재앙에 대한 허위 정보를 언급하여, 군중의 마음을 동요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141) 양저참장가(穰苴斬莊賈) : 양저(穰苴)는 춘추시대 제(齊) 경공(景公)의 장수로 성은 전씨(田氏)인데, 사마(司馬) 벼슬을 하였으므로 사마양저(司馬穰苴)라고도 한다. 양저는 진(晉)과 연(燕)이 침입하자 경공의 명을 받아 출정하였는데, 이때 감군(監軍) 장가(莊賈)가 약속한 기일을 어기자, 참수하여 군령을 엄하게 하였다.

142) 위강륙양간(魏絳戮楊干) : 위강(魏絳)은 진(晉)나라의 장군이고, 양간(楊干)은 진나라 임금의 동생이었다. 양간이 출전(出戰) 중 제멋대로 행동하자, 위강은 차마 양간을 처형하지 못하고 그 종을 주륙(誅戮)하였다. 양간이 귀척(貴戚)이었으므로, 그 종을 대신 죽여 양간을 징계하려 하였던 것이다.

1. 이유 없이 군을 놀라게 한 자는 참수한다. (소리 지르며 달아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연기나 적의 기습을 허위로 알리는 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도로에서 오병(五兵)을[143] 버리거나 장비를 버린 자는 참수한다. (버려진 물건을 수습하는 데 힘쓰지 않아 줍지 않거나, 주워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서로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참수한다. (바늘 한 개나 실 한 가닥을 훔친 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장수나 관리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적의 사정을 용인하는 자는 참수한다. (일을 처리할 때 감정에 치우친 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도박이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무례하게 욕설을 퍼붓는 자는 참수한다. (폭력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공적인 연회 중에 술에 취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1. 군중(軍中)에서 마차나 말을 급히 몰고 다닌 자는 참수한다. (진영에 들어갈 때 장군 이하의 모든 자가 도보로 들어가야 하며, 말을 타고 들어가는 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적을 무찌르기에 앞서 노략질을 자행한 자는 참수한다. (적의 영역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야간 경계 중에 자리를 떠나거나, 야간의 군호(軍號)를[144] 잊어버리거나, 주둔지에서 불을 함부로 다루는 자는 참수한다. (간첩이 계략을 꾀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1. 포위를 굳건하게 지키지 못한 자는 참수한다. (죄는 담당 관리에게까지 미친다.)
1. 차출하여 파견하는 것에 복종하지 않거나, 담당 관리가 시키는 일에 불평하는 자는 참수한다. (사적인 감정이 있거나, 강압적 행위가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주민을 속이거나, 주민의 부녀자들을 강간하거나 군영에 들이는 자는 참수한다.
1. 장군의 일시적인 명령이라도 어기는 자는 참수한다.

○ 余問軍令何以嚴束. 叔父答曰, 經曰, 陶唐氏以人成於國中, 欲令人强其命也. 有虞氏以農教戰漁獵簡習, 故人體之. 夏后氏誓衆於軍門之外, 欲令先以意待軍也. 周將交白刃而誓之, 以致人意夏賞於朝賞善也. 殷戮於市威不善也. 周賞於朝, 戮于市, 兼誓武也. 夫人以心定言, 定言以出令. 故須振雄略出勁詞, 銳鐵石之心, 凜風霜之氣. 發揮號令, 申明軍法, 誓衆文曰, 某將軍某乙, 告示大將軍吏士伍等. 聖人弦木爲弧, 制木爲矢, 以威天

143) 오병(五兵) : 과(戈)·수(殳)·극(戟)·추모(酋矛)·이모(夷矛)의 다섯 가지 병기(兵器). 즉 무기를 의미한다.
144) 군호(軍號) : 조선시대에 도성이나 대궐의 순라군(巡邏軍), 성곽의 수첩군(守堞軍) 등이 아군의 식별이나 비밀의 보장을 위하여 쓰던 암호나 신호를 뜻한다.

下. 蓋取諸睽, 兼弱攻昧, 取亂侮亡. 今某氏不恭式干皇命, 皇帝授我斧鉞, 肅將天威, 有進死而榮, 無退生而辱, 用命賞於祖, 不用命戮於社, 軍無二令, 將無二言. 勉爾乃誠敬從王命, 無干典刑. 經曰, 師衆以順爲武, 軍事有事無犯爲敬. 故穰苴斬莊賈, 魏絳戮楊干, 而名聞諸侯, 威振隣國. 令之不行, 不可以稱兵, 三令而不如法者, 吏士之罪也. 申明而不如者, 將之過也. 先甲三日, 懸令於軍門, 使軍正執木, 宣於六軍之衆. 有犯令者, 令軍正准, 令按集軍人而後行刑, 使六軍皆知之者.

一. 漏泄軍中陰事, 及告人以事者, 皆斬.

一. 背軍逃走者, 斬. (在道路及營中臨陣而逃者, 斬.)

一. 不戰而降敵人者, 籍沒其家. (背順歸降與逆同.)

一. 後期者斬 (計事會戰, 因雨雪水火者不坐.)

一. 行列不齊, 旌旗不整, 金革不鳴, 主守皆斬. (教旗列營會戰同之.)

一. 與敵私交通者, 斬, 籍沒家産. (言語家書同.)

一. 失主將者, 斬. (隨從卽坐.)

一. 失旗鼓節鉞金隊, 斬. (爲敵所取.)

一. 臨難不相救者, 斬.

一. 訛言詭惑, 亡說陰陽卜筮者, 斬. (妄言鬼神災祥, 以動衆心者同.)

一. 無故驚軍者, 斬. (叫呼奔走妄說言, 煙陣賊下者同.)

一. 道棄五兵軍裝者, 斬. (不謹收遺而不拾, 拾而不公者同.)

一. 自相竊盜者, 斬. (一針一縷皆同.)

一. 將吏守事不平, 賊情相容者, 斬. (理事曲情同之.)

一. 以强凌弱, 樗蒲忿爭, 酗酒喧呼, 惡罵無禮, 於理不順者, 斬. (去暴也, 因公宴會醉者不坐.)

一. 軍中奔車走馬者, 斬. (自入陣, 將軍以下并步入營, 乘騎入者同.)

一. 破敵先擄掠者, 斬. (入敵境中同.)

一. 更鋪失侯, 犯夜失號, 正宿地火者, 斬. (恐奸得計.)

一. 守圍不固者, 斬. (罪及主吏.)

一. 不伏差遣, 及主吏役使不平者, 斬. (有私及强逕同.)

一. 使欺居人, 奸居人女婦, 及入營者, 斬.

一. 違將軍一時之令者, 斬.

맑음. 화공(火攻)의 책략으로써 부평(富平)에 기별을 보내 거사(擧事)를 기약하였으나, 결국 채용되지 않았다. 비록 계책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지만, 적도(賊徒)가 창궐하는 것을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으니, 마음이 심히 분하고 한스럽다. 신시(申時, 오후 3~5시) 경, 저들의 선박 2척이 다시 아래로 와서, 이전과 같이 닻을 내리고 머물렀다. 강화도에서의 소식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심히 답답하다.

○ 二十五日

晴. 以火攻之策, 通奇富平, 期於擧事, 竟不得采用. 雖緣計策之相殊, 坐視賊徒之猖獗, 心甚憤恨. 申時量彼二隻船, 還爲下來, 依前留碇. 江都消息未得的聞, 甚菀.

○ 내가 "장수에게 우열이 있다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감히 여쭙습니다."라고 하니, 숙부께서 답하시기를 "『만기론(萬機論)』에[145] 따르면, 비록 백만의 대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을 이기는 것은 장수에게 달려 있다. 무릇 국가의 정예한 군사를 일으켜 그 지휘권이 장수에게 주어졌는데, 만약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면 장차 어찌 군사를 잘 다룰 수 있겠는가? 크고 작은 것이 각 4가지씩 있는데, 8가지 모두 없다면 어찌 장수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 큰 것은 첫째 천장(天將), 둘째 지장(地將), 셋째 인장(人將), 넷째 신장(神將)이다. 그 작은 것은, 첫째 위장(威將), 둘째 강장(强將), 셋째 맹장(猛將), 넷째 양장(良將)이다. 무릇 군사를 일으켜 군중을 움직이고, 군영을 별려 진(陣)을 결성하며, 깃발의 움직임을 보고, 징과 북소리를 살핀다. 날과 시간을 헤아려 길흉을 판단하고, 오행의 운행을 따른다. 신위(神位)의 출입에 응하여 변화에 따라 군사를 부리면, 적들은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없고, 신(神)으로써 군사를 부리면, 우리 군사는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동에 절도가 있고 멈춤에 규칙이 있다. 승부는 먼저 보아야 할 것들을 지켜 천지 신령의 뜻을 살펴 군사를 안정시키는 것에 있으니, 이를 이르러 천장(天將)이라 한다. 도착한 곳의 지리와 산택(山澤)의 멀고 가깝고 넓고 좁고 험하고 평이함, 수풀의 두텁고 얇음과 시냇물의 깊고 얕음을 상세히 살핀다. 만약 손바닥 보듯이 하면, 전투할 때 앞뒤를 가로막지 않고 좌우에 막힘이 없어 보병과 기병이 오고 감이 편리하고 무기가 용도에 부합하게 되니, 진퇴를 지휘할 때 모두 그 정세에 순응하게 된다. 군병과 군마가 급박함이 없음은 울타리 때문이니, 공격과 수비로 쌓아 저축해 놓은 이익을 얻고, 군사를 펼쳐 물과

145) 만기론(萬機論) :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관료였던 장제(蔣濟)가 문제(文帝) 즉위 시 올린 글이다.

풀의 여유를 얻으면 군병과 군마가 목마른 기색을 없게 할 수 있다. 사지(死地)에 빠져도 능히 살 수 있고, 망지(亡地)에 이르러도 능히 존재할 수 있으며, 역지(逆地)라도 그것을 순용(順用)하고, 순지(順地)라도 그것을 역용(逆用)하여, 평이함과 험준함을 가리지 않고 모두 편안할 수 있게 한 뒤에 움직이고, 움직여 승리를 결정하는 자라면, 이를 이르러 지장(地將)이라 한다. 또 만약 재물에 청렴하고, 여색을 절제하며, 술을 멀리하고, 몸가짐을 예로써 하며, 위를 섬김을 충으로써 하고, 근심과 즐거움을 사졸(士卒)들과 더불어 함께 하며, 적(敵)의 재물을 얻더라도 쌓아두지 않고, 적의 부녀를 얻더라도 억류하지 않으며, 계책을 받아들여 수용할 줄 알고, 조심스럽되 결단할 줄 알며, 용맹하되 사람을 깔보지 않고, 인자하되 법도를 잃지 않고, 작은 죄를 숨기고, 큰 죄를 단호히 처리하며, 명령을 어긴 자는 그가 친족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공적이 있는 자는 그가 원수라도 상관하지 않고 포상하며, 늙은 자를 부축하고, 어린 자는 보살피며, 두려워 하는 자를 편안히 해주고, 걱정하는 자는 즐겁게 해주며, 송사에 연루된 자는 판결해주고, 직권을 남용하는 자는 자세히 살피며, 도둑질하는 자는 다스리고, 강한 자는 억누르며, 유약한 자는 보호하고, 용감한 자는 활용하며, 횡행하는 자는 처단하고, 복종하는 자는 용서하며, 패배한 자는 복종하게 만들고, 도망한 자는 추격하며, 오는 자는 관작을 주고, 폭압적인 자는 억제하며, 지혜로운 자는 가까이하고, 참소하는 자는 멀리하며, 성을 얻어도 그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땅을 얻었으나 그 땅을 독점하지 않으며, 적이 얕보면 기다리고, 적이 속이면 천명에 순종하여, 역세(逆勢)이면 관망하고 순세(順勢)이면 적을 공격한다면, 이를 이르러 인장(人將)이라 한다. 또한 만약 하늘을 기준으로 삼고, 땅을 변화로 삼으며, 사람을 급히 사용하여 하늘과 땅에 합치하는 작용에 부합하게 한다. 이 세 장수를 모두 겸한다면, 이를 이르러 신장(神將)이라 한다. 군사를 부릴 때, 천시(天時)가 없고 지리적 이점도 없어도, 마땅한 사람을 임용하여 용겁(勇怯) 없이 적의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하게 하며 마음에 의혹을 품지 않게 한다. 명령을 어긴 자는 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하여 모두가 두려워하게 하며, 적을 만나면 즉시 격파한다면, 이를 이르러 강장(强將)이라 한다. 군사가 많고 적음이나 적의 강약에 관계 없이, 모든 군사가 명령에 순응하여, 만약 팔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듯하면,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적이 움직일 뜻이 없으면, 신과 같이 홀로 말한 필과 칼 하나로 적의 예봉을 꺾고 먼저 들어가, 적들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못하게 하여, 당황하여 도망치게 한다면, 이를 이르러 맹장(猛將)이라 한다. 무릇 능히 겉으로는 위엄을 보이고, 속으로는 맹렬함을 갖추며, 강함이 그 안에 있어 세 장수〔威將,[146] 猛將, 强將〕를 겸하는 자가 있다면, 이를 이르러 양장(良將)이라 한다. 나라에서 장군을 임명할 때, 천장(天將)을 얻으면 하늘을 거스른 적을 당해낼 수 있고, 지장(地

146) 맥락 상 '威將'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원문에는 '威將'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將)을 얻으면 지형을 거스른 적을 당해낼 수 있으며, 인장(人將)을 얻으면 사람을 거스른 적을 당해낼 수 있고, 신장(神將)을 얻으면, 천하의 모든 적을 당해낼 수 있는데, 거사에 어긋나는 셈이 없다. 위장(威將)은 천장(天將)을 도울 수 있고, 강장(强將)은 지장(地將)을 도울 수 있으며, 맹장(猛將)은 인장(人將)을 도울 수 있다. 양장(良將)은 사방을 지킬 수 있어 신장(神將)에 부합한다. 비록 혹자가 말하기를, '맹장(猛將)과 강장(强將)은 민첩함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양자 모두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대개 이 같은 것이 장수(將帥)의 본체이다."라고 하셨다.

○ 余曰, 將有優劣, 敢問其詳. 叔父答曰, 萬機論曰, 雖有百萬之師恃, 吞敵在將. 夫擧國之利器以授之, 苟非其人, 將何以爲謂, 大小者各有四焉, 八者皆無, 何以謂之將乎. 其大者, 一曰天將, 二曰地將, 三曰人將, 四曰神將. 其小者, 一曰威將, 二曰强將, 三日猛將, 四曰良將. 凡興師擧衆, 列營結陣, 觀旌旗之動, 審金鼓之聲, 揆日規時, 以決吉凶, 隨五行運轉, 應神位之出入, 以變用兵, 敵人不測其所來, 以神用兵, 我師不知其所爲, 動有度靜有方, 勝負在守先見, 持天地鬼神之心, 以安士衆, 此之謂天將也. 所至之境, 詳察地理, 山澤遠近, 廣狹險易, 林藪之厚薄, 溪澗之深淺. 若視之指掌, 戰陣之時, 前後無阻, 左右無滯, 步騎便其往來, 戈戟叶其所用, 指揮進退, 皆順其情. 人馬無逼, 寨之困, 攻守獲儲蓄之利, 振旅得水草之饒, 使人馬無饑渴之色, 陷死地而能生, 致亡地而能存, 逆地而順用之, 順地而逆用之, 不擇易險, 皆能安而後動, 動而決勝者也. 此之謂地將也. 又若廉於財, 節於色, 踈於酒, 持身以禮, 奉上以忠, 憂樂與士卒同, 獲敵之貨賂而不蓄, 得敵之婦女而不留, 納謀而能容, 疑而能斷, 勇不凌物, 仁不喪法, 匿其小罪, 決其大過, 犯令者不以其親, 有功者不思其讐. 老者扶之, 小者撫之, 懼者寧之, 憂者樂之, 訟者決之, 濫者詳之, 賊者平之, 强者抑之, 懦者隱之, 勇者使之, 横者殺之, 服者原之, 失者服之, 亡者逐之, 來者爵之, 暴者挫之, 智者昵之, 讒者遠之, 得城不功, 得地不專, 敵淺以待, 敵詭以順命, 逆勢則觀, 順勢攻之, 此之謂人將也. 又若以天爲表, 以地爲變, 以人急用, 擧三將而兼之, 此之謂神將也. 行師之時, 無有天時, 無有地利, 任其人, 無有勇怯, 聞敵而即行, 心無疑慮. 犯令者, 罪無大少, 必繩以刑, 聞之即畏, 當之卽破, 此之謂强將也. 師無多少, 敵無强弱, 三軍順令, 若臂使脂【指】往, 復萬變出, 敵不意擧動, 如神匹馬單劒, 摧鋒先入, 使敵人失措, 懼而遠遁, 此之謂猛將也. 夫能以威爲表, 以猛爲裡, 以强其中, 兼三將而有之, 此之謂良將也. 國之任將也. 得天將, 可以當違天之敵, 得地將, 可以當違地之敵, 得人將, 可以當悖人之敵, 得神將, 可以當天下之敵, 擧無違筭矣. 威將可以附天將, 强將可以附地將, 猛將可以附人將, 良將可以保四方. 雖曰猛强有敏捷之利用, 然皆不可以獨用焉. 凡如是者將之體也.

흐리고 이슬비. 비로소 강화도의 소식을 들었는데, 초지진(草芝鎭)이 함락된 후 저 무리들이 광성보(廣城堡)로 전향하여, 배 위에서 포를 쏘아 이목을 어지럽혔다. 종선(從船)으로 뒷바다가 어두워질 때, 육지에 내려 산 위를 먼저 점거하고 대포를 마구 쏘아대자, 관군이 놀라 허둥지둥하며 머리와 꼬리가 서로 구원하지 못하여 결국 패주하여 궤멸하고 말았다. 진무중군 어재연이 직접 포탄을 무릅쓰고 독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수하의 사졸들은 모두 도망쳐 목숨을 부지했다. 중군 어재연의 형제인 군관 1명은 결국 순절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비통함이 진실로 말로 다할 수 없으며, 그 충의를 생각건대 마치 살아있는 듯 늠름하니, 경외와 감탄이 그치지 않는다.

○ 二十六日

陰微雨. 始聞沁都消息, 草芝失守後, 彼醜轉向廣城, 船上放砲, 以眩耳目, 以從船, 暗於後洋. 下陸先據山上, 亂放大砲, 官軍驚惶, 首尾不救, 竟至走潰. 沁中軍魚在淵親冒砲丸督戰不已, 手下士卒盡皆逃生. 中軍兄弟軍官一人, 竟至殉節, 其所慘痛, 誠不忍言, 而想其忠義, 凜凜如生, 欽歎不已也.

○ 영종첨사(永宗僉使)의 서신에 답하였다. 삼가 서신을 받들어 읽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몸 건강히 계시기를 삼가 위로하고 또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소요를 당하여, 살아갈 방도를 강구하는 일로 고생이 많으실 것을 생각하니, 삼가 답답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제 재능과 국량은 미천하고 부족하여, 모든 일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진무중군의 순절과 중앙 및 지방군의 전사 소식을 듣고부터, 마음속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와 슬픔을 견딜 수 없었으며, 이때 방비를 더욱 엄격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경계를 엄히 하는 방도는 신중한 기찰(譏察)에 달려 있는데, 하물며 이 적의 진퇴가 정해진 때가 없으니, 어찌 한시라도 걱정을 늦출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의 뜻을 삼가 알았습니다. 어제 크고 작은 배 각 1척이 곧바로 정박하였는데, 저들의 배는 과연 즉시 관측된 대로, 최초 다른 지역에서 출항하여 반나절 만에 그곳에 도달해 머무르다가 신시(申時, 오후 3~5시)가 지난 뒤, 부평(富平) 경계로 이동하여 머물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진 무렵에도 떠나지 않고, 물길의 사정을 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즉시 들어 알지 못하였으니, 여전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 알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배가 와서 경계를 침범한 것은 혹여 적정에 대한 보고가 잘못된 것

이 아니라, 첩자들이 길을 터주어 저들의 선박이 국가의 엄중한 금령에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령으로서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 감시하였으며, 온 정성을 다해 정탐했습니다만, 만약 정녕 정황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다면, 소홀한 점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애초에 우리 지역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탐지할 수 없었고, 상부에 보고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자군에게[147] 횃불을 지급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온 제도이니, 여기에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당시 이른바'탄막(炭幕)'이란[148] 것은 모두 무사들인데, 여러 날 동안 전쟁터에 임하여, 단지 여인들만 있으니, 불시에 횃불을 구하면 이미 남정이 없는 상태에서 장차 어찌 대령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먼 길까지 나서게 하는 것은 극히 참측(慘惻)한데, 하물며 혹여 조금이라도 지체되는 경우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지한 마을 부녀자들이 매번 이러한 지경에 처하는 것은,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인과 손님의 정의가 있다면, 손님을 맞는 주인의 입장에서 폐를 끼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으려 하겠지만, 주인된 자가 어찌 손님을 무함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설령 죄를 주기 위해 잡아들이고자 해도, 위급한 사실을 알리는 지자군 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어찌 그들을 구류시켜 경보 전달을 더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전령(傳令)을 벽에 걸어 두는 것은, 오로지 단서 없이 난리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 어찌 화구(火具)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남정들이 없기 때문에, 쇠기름으로 만든 초 한 자루를 내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자군이 촉롱(燭籠)[149] 1개만 들고 와서, 그것이 가볍고 편리하다고 하는데,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지금은 막아 지키는 것이 급하니, 촛불을 드는 것이 횃불을 고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살피시어 특별히 헤아려 주시옵소서. 조금 여유가 생길 기미가 보일 때, 해엄(解嚴)한 후에 이전과 같이 횃불을 들게 하면 되니, 이는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국사를 돕는 것이 평소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삼가 우러러 말씀드립니다."

첨사 이유증[150]

---

147) 지자(持者): 지자군(持字軍). 지방 관아들 사이에서 공문(公文)이나 물건(物件)을 지고 다니던 사람을 뜻한다.

148) 탄막(炭幕) : 땔나무와 숯을 보관하는 곳. 탄막(炭幕) 외에 시탄고(柴炭庫), 탄소옥(炭小屋), 영전(營纏)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149) 촉롱(燭籠) : 종이나 무명을 발라서 긴 네모꼴로 만든, 촛불을 켜드는 채롱.

150) 이유증(李儒增) : 1869년(고종 6) 2월 18일, 병조의 구전정사에 따라, 영종첨사에 제수되어(『승정원일기』 고종 6년 2월 18일), 동년 3월 9일 하직하여 영종진에 부임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6년 3월 9일). 신미양요 이후 시점인 1871년(고종 8) 9월 21일 내금위장으로 임명되기(『승정원일기』 고종 8년 9월 21일) 전까지 영종첨사 임무를 수행하였다.

○ 答永宗僉使書, 伏承下書仍伏審. 此時擾惱中, 體侯萬安, 伏慰且慕, 而當此騷擾, 接濟之節, 想多勞損, 伏庸悶慮. 下生局弊才劣, 凡百一無成筭, 自聞沁中軍之殉節京鄕軍之戰亡, 心骨戰掉不勝憤惋, 而此時防守尤可戒嚴. 戒嚴之道, 審愼譏察, 而況此賊進退無常, 豈可一時釋慮乎. 教意伏悉, 而昨日大小船各一隻之直泊, 彼船果卽目覩者, 初自他境發船到彼半晌止住, 申後向富平界住泊. 薄昏不去, 切欲探知水路隔截. 此是他境未卽聞知, 尙切伏菀之際. 今承此教, 來泊鄙境者, 或非入聞之誤耶, 奸輩之通關, 彼船不啻國禁之截嚴. 爲倅者最先察飭, 伊來殫誠偵伺, 若非指教之丁寧安兌, 踈虞之責詰問, 一關初非鄙境, 故不得詳探, 無以仰達耳. 持者之給炬, 此非新倡乃是遺來, 則有何異說, 當此之時, 所謂炭幕者, 皆是武士, 多日赴陣. 但有女人, 不時覓炬, 旣無男丁, 將何以待令乎. 黑夜持炬遠陪道路極爲慘惻, 况或小遲, 至於毆打, 無知村婦之每遭此境, 不待渠訴, 可以諗知者也. 如有主客之誼, 而不至作讐之境, 爲主者安有誣客之理乎. 雖欲捉入懲罪, 莫重報警之持者, 豈可捉住淹滯乎. 所謂傳令之揭壁, 聊以遏其無端作梗, 豈可不給火具也. 只以男丁之不在, 故以肉燭一柄出給之意爲定矣. 持者來提着一箇燭籠, 其爲輕便將如何哉. 此時防守爲急, 持燭勝炬, 下諒特恕, 少寬幾時, 解嚴之後, 如前執炬, 此是細故也. 互相脣齒, 共濟國事, 以副平日之望, 是所伏達耳. 僉使李儒增.

○ 화성유수(華城留守) 신석희(申錫禧)의 서신에 답하였다.
저들의 이범선(二帆船) 2척이 23일에 강화를 향하여 나아가, 초지진(草芝鎭)에 곧장 도착하여 어지럽게 대포를 쏘아 댔습니다. 우리군이 발을 딛고 서 있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저들은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아채고 작은 배를 타고 상륙하여 관아와 마을의 집들을 한꺼번에 불태웠습니다. 그 다음날 신시(申時, 오후 3시~5시) 이후 저들은 광성진(廣城鎭)으로 전향하여 배 위에서 포를 쏘아 군심(軍心)을 어지럽히고, 몰래 뭍에 내려 뒤에서 기습하였습니다. 관군(官軍)은 앞뒤로 서로 구하지 못하여, 진무중군이 적과 세 차례에 걸쳐 뒤섞여 싸우다가 결국 순절하였고, 중앙 및 지방군 사망자가 10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저들이 주검을 모아 불태워, 시체를 분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들 역시 피살된 자가 반드시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모질고 독살스러움이 이 지경까지 이르러, 듣자니 심히 몹시 참혹합니다. 인근 고을의 병력을 모았으나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비단 해로가 가로막혀 있었을 뿐 아니라, 또 관칙(關飭)이 없어 함부로 경계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하며, 제 용렬함에 분통이 터집니다. 강화와 정족산성의 굳건한 방어가 실로 천만다행이며, 훈련도감 10초(哨)의 군사는 김선필(金善弼)이 이끌고 출진하여, 이로써 방비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25일에 저들의 선박 2척이 후퇴하여 3척의 배와 합류하여 이전처럼 닻을 내리고 머물렀으며, 종선들이 사방으로 나가

물을 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닻을 들어 올릴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며,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우리 군사 대여섯 명이 생포되어 적선에 억류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 부류들은 협박하거나 달래면 아군의 정보를 실토하여, 적이 아군의 허점을 필연적으로 모두 알게 될 것이니, 역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부평부사가 편지를 보내 적을 꾸짖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통쾌합니다만, 서양 오랑캐의 답서를 그 뒤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달할 수 없었습니다. 저 오랑캐들은 배를 성곽 삼아 버티기에, 관군이 손을 쓸 수 없었고, 수십 일을 서로 대치할 뿐 적을 무너뜨릴 계책은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부평부의 호도(虎島)·율도(栗島), 영종진의 물치도(勿淄島)·월미도(月尾島), 인천부의 제물포(濟物浦)·고잔포(古棧浦)에 화포를 매설하고, 조수가 빠지고 순풍이 불며 밤이 어둡고 안개가 짙어지는 때를 기다렸다가, 상류에서부터 연결된 화선(火船) 5~7척을 한 부대로 삼아 하류로 떠내려 보내고, 하류에는 미리 수백 척의 배와 뗏목에 마른 갈대와 화약, 불붙는 물건들을 가득 실어 놓고, 큰 삼〔麻〕 줄로 연결하여 영종도와 월미도 사이에 네다섯 겹으로 가로막아 두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물러난다면 반드시 화선(火船)에 걸려 멈추게 될 것이며, 불화살을 난사하여 일제히 불을 붙이면, 저들이 실은 것 또한 모두 불붙는 물건이니 저들은 장차 손쓸 틈도 없이 배 안팎에 불이 붙어, 불에 타고 물에 빠져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 섬에서 대포를 일시에 쏘면, 저들은 반드시 당황할 것이며, 어찌할 겨를 없이 매우 급하여 대포를 시험할 틈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만전의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상의 어리석고 얕은 제 의견은 함부로 실행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군령을 엄히 정돈하려는 뜻으로 대원군께 상서하온대, 명령을 어긴 자를 우선 참수하고 후에 보고하도록 해주시옵소서.

○ 答華城留守申錫禧書, 彼二帆船二隻, 於二十三日向江華進發, 直到草芝鎭, 亂放大砲, 我軍立脚不住, 四散奔潰, 彼漢覘知無人, 乘小船下陸, 官廨村舍一齊衝火. 其翌日申後, 彼醜轉向廣成【城】鎭, 船上放砲以亂軍心, 暗地下陸從後夾犯, 官軍首尾不能相救, 沁中軍與賊三場混戰, 竟至殉節, 京鄕軍死者, 多至百餘人, 彼漢聚屍燒毁, 尸體無以分別云. 彼夷之被殺, 亦想必多, 而其獰毒一至於此, 聞甚慘惻, 不勝憤惋. 擁兵隣郡, 未能赴援, 雖緣海路之隔截, 且無關飭不可擅離境上. 自歎失機伏庸憤踴, 江都與鼎足之堅守, 實爲萬幸, 而訓局軍十哨, 使金善弼領率出陣, 自此備禦益固耳. 二十五日彼船二隻退與三隻船, 依前留碇, 使從船四出汲水, 其擧碇與否, 未可的知, 而別無動靜. 生擒我軍五六人, 留置船上云. 畏死多恤之類, 脅之誘之, 我軍虛必爲盡知, 亦所深慮者也. 富平倅之投書罵賊, 聞甚痛夫, 而洋答姑未得見, 故不得陳達耳. 彼夷以舟爲郭, 官軍莫能下手, 相持數旬, 破賊之策別無成算, 小人之愚見, 多埋火砲於富平之虎島栗島, 永宗之無淄月尾,

仁川之濟物古棧，待潮退風順，夜黑霧暗，自上流連結火船五七爲隊，順流而下，下流則預以數百船筏，多載乾葦火藥，引火之物，以大麻索連結橫截，四五匝於永宗月尾之間，彼若退下必爲緋住於火船，以火箭亂射，一齊着火，彼所載亦皆引火之物，彼將措手不及，表裏受火焚溺無餘矣．我以大砲於各島上，一時發放，彼必疑惝，蒼黃未暇試砲，庶爲萬全．愚淺之見未可擅行耳．欲嚴整軍令之意，上書雲宮，請違令者先斬後啓．

27 일

맑음.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저들의 배가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는데, 어떠한 속임수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 역시 당황하고 겁을 먹어, 움츠리고 물러나 있는 것이 마치 다시 침공을 감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무중군의 순절이 살아 숨쉬듯 늠름하니, 사람들로 하여금 충의로 생긴 분한 마음을 곱절로 격화시켰습니다. 이 오랑캐들이 먼저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사람을 꾀어 우리의 허실을 파악한 뒤에, 횡포한 침학을 마구 저지르는 것은 더욱 몹시 분통합니다. 우리나라는 떳떳한 바른 기운이 있으니, 어찌 감히 그들의 간사함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단연코 명백한 사실이니, 저들은 수만 리 밖에 있는데도, 배를 집으로 삼고 대포를 재주 삼아, 광성보 전투에서 저들이 비록 분풀이할 생각으로, 상당한 사망자를 발생시켰지만, 저들은 5척의 배에 실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아,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깊이 들어와 폭압스럽게 노략하는 것을 급선무 삼으니 이는 병가(兵家)에서 꺼리는 일입니다. 하물며 주객(主客)이 현격히 다르며, 정사(正邪)가 분명하니,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하여, 깊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혹여 간사한 무리가 틈을 타 들어와, 우리의 강약과 허실을 남김없이 누설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이는 군무에서 가장 막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방수를 더욱 엄격히 단속해야 하는 바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칙한 것입니다. 또 180석의 쌀을 장졸의 처자식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은(聖恩)이 이미 그들을 충분히 구휼하였는데도, 또 그들의 가족까지 어루만지니, 온 군대가 아주 흡족해하며 엎드려 다행으로 여깁니다. 대원군의 분부를 따라, 진무영의 관문 내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선참후계(先斬後啓)하여 군율을 정돈하라'는 지시를 삼가 행하겠나이다.

○ 二十七日

晴. 上雲宮書, 彼船之留碇, 未知譎計之如何, 而渠亦疑恟, 而退縮似不敢更擧, 而沁中軍之殉節凜然如生, 令人倍激忠憤. 此夷之先以柔和誘人, 知其虛實然後, 肆其暴虐, 尤所切憤, 至於我國, 堂堂正氣, 安敢售其邪乎. 此是斷然明驗, 渠則在於幾萬里之外, 以舟爲家, 大砲爲技. 廣城之戰, 彼雖逞計死亡相當, 渠則五隻船所載不過幾何, 孤軍深入暴掠爲先, 是兵家之所忌. 况主客懸殊, 邪正赫然, 一戰未捷, 不足深懼. 或有奸徒乘時闖入, 我之强弱虛實, 走泄無遺, 此爲軍務最所截禁者也. 此是防守尤所嚴束, 故各別申飭, 而百八十石米租, 分給將卒之妻孥. 聖恩偏重旣恤其身, 且撫其家, 一軍洽然. 伏幸. 因雲宮分付, 鎭撫營關內不從令者, 先斬後啓而整軍律.

28 일

맑음. 호장(戶長) 김진효가 순찰선 2척으로, 병기를 몰래 숨겨 월미도 뒤쪽 바다에 매복하여, 바닷길을 서양인에게 안내하는 첩자를 감시하여, 우리나라 배가 그들의 배에 접근하는 것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 二十八日

晴. 戶長金鎭孝以巡哨船二隻, 暗藏兵器埋伏月尾後洋, 伺察海路奸細, 期於拏住我國船入抵彼舶者.

맑음. 진무중군의 관문(關文) 내에, 이범선(二帆船) 10척과 땔나무 4,000동, 뗏목 50칸 거리, 다섯 부짜리 생마(生麻) 300사리를 명령에 따라 이번 그믐 내로 대령하라고 하였습니다. 군율이 절엄하온대, 내일이 곧 그믐날입니다. 황폐한 고을의 형세 상 하룻밤 사이에 마련할 방도가 없습니다. 뗏목은 비록 사유지에서 있는 바에 따라 작벌하여 마련한다 하더라도, 배는 본 고을에 원래 1척의 관선(官船)도 없어, 상선(商船)일지라도 구해지는 대로 사용합니다. 땔감 4,000동은 이 고을이 본디 산이 적고 들이 넓은 지대라서, 이 여름철에는 실로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생마는 원래 이 고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서, 구할 곳이 없습니다. 제 잘못으로 국사(國事)가 지체되는 것은 고사하고, 군령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황공합니다. 배와 뗏목, 땔나무는 비록 수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하룻밤 사이에 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답답한 중에 생마는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뜻으로, 대원군께 상서합니다. 같은 날 묘시(卯時, 오전 5~7시) 경, 우리나라의 돛 2개 달린 배 1척이 월미도 뒤쪽 바다에서부터 돛을 올리고 곧장 올라가다가, 저들의 삼범선(三帆船)이 닻을 내리고 머무르고 있는 곳에 함께 정박했습니다. 신시(申時, 오후 3~5시) 이후, 저들의 종선(從船) 2척이 앞에서 우리나라 배를 끌어당겨 물치도(勿淄島) 방향으로 3~4리 가량 물러나, 이내 월미도와 물치도의 중간 해역에 체류하였습니다. 저들의 종선(從船)은 다시 저들의 배로 돌아갔고, 우리나라 배가 저들의 배에 왕래하였으니, 심히 괴이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고을의 길잡이 배로 하여금, 포구변을 순찰하게 하여 그들의 정황과 계책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二十九日

晴. 鎭撫中營關內, 二帆船十隻, 柴四千同 筏木五十間巨里 五部生麻三百沙里, 以今晦日內, 待令之意. 師律截嚴, 明日卽晦日也. 殘邑之事勢, 一夜之間, 辦備無路. 筏木雖私養山隨存斫【斫】伐, 船隻本邑本無一葉官船, 雖商船隨得隨用. 柴四千同, 邑本野地, 當此夏節, 實難收合. 況生麻, 本非邑産, 貿得無處. 小人之抵罪, 姑舍國事之滯, 師令之愆期, 萬萬悚惶. 其於船隻, 筏木柴同, 雖不滿數, 當盡力周辦, 一夜間措不及, 伏悶之中, 生麻伏俟處分之意, 上書雲宮. 同日卯時量, 我國二帆船一隻, 自月尾島後洋擧帆直上, 彼三帆船留碇處一同住泊. 至申後, 彼從船二隻, 在前牽着我國船, 退出三四里許向無淄島邊, 仍留於中流. 彼從船還拊彼船, 我國船之來往於彼船, 甚爲訝惑. 故使本邑指路船, 巡哨浦邊, 期於得情計耳.

30 일

맑음. 저들의 이범선(二帆船) 1척이, 팔미도 외양(外洋)으로부터 곧장 올라왔다. 5척의 배가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었고, 그 배가 추가로 왔기에 간교한 계책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막아 지키는 절차를 더욱 엄히 단속하였다. 생마 300근이 서울의 영문에서 내려왔다.

○ 三十日

晴. 彼二帆船一隻, 自八尾島外洋一直上來. 五隻船因爲留碇, 彼舶之添來, 奸謀難測. 防守之節益加嚴束. 生麻三百斤, 自京營門下來.

1987 년 (고종 8) 5 월 1 일

맑음.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돛 2개 달린 배가 적의 배에 견고히 정박해 있으나, 그 배를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 순찰선이 계속해서 매복하여 간계의 정황을 탐색하고 있는데, 부평(富平)과 배가 있는 곳이 다소 가까워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종(永宗)과 더불어 세 고을이 힘을 합하여 첩자를 체포하고 감시하고자 하니, 필히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생마 300사리는 수량에 의거하여 받았습니다. 뗏목과 땔나무, 배는 모두 제물포(濟物浦)에 대령하였으며, 진무중군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일이 급박하여 여전히 완수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수원유수영에서 재차 서신을 내려보내 적정을 탐문하며, 방수(防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재차 물었기에, 이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지방에 머물며, 격례(格例)를 알지 못하고 예식(禮式)을 어겨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환도(環刀) 등 무기 장비류의 가장 긴요한 것은, 본 고을에 단 한 자루도 없으니,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 五月 一日

晴. 上雲宮書. 我國二帆船彼漢牢泊, 彼船邊不得拏住. 巡哨船一向埋伏, 另探奸情, 而富平與船在處稍近, 似或的知其情矣. 與永宗三邑同力譏捕, 期於伺察, 則必無失捕耳. 生麻三百沙里依數伏受, 筏木柴同船隻, 並爲待令于濟物浦, 伏俟鎭撫中營指揮擧行, 而日字急迫, 尙多未完, 伏悶. 華營再次下書, 探問賊情, 更詢防守如何, 有此上答. 其於稱小人多年居鄕, 不識格例, 有違禮式, 伏不勝悚惶. 環刀器械之最緊者, 而本邑元無一柄, 伏俟處分耳.

초 2일

맑음.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4월 30일 술시(戌時, 오후 7~9시)에 답신을 내리셨다. 이튿날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받아 보았다.“저들의 배가 추가로 왔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승패는 우리 군이 정예한지, 정예하지 않은지에 달려 있다. 충의로 생기는 분한 마음을 격려하여, 모든 군사가 한마음이 되면, 싸우면 필히 승리하고, 방어하면 필히 견고할 것이다.”거듭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성(城)을 이루라는 말씀을 받들어, 가르침을 폐부에 새기고 뼈에 새겨 만의 하나라도 보답할 것을 기약하고자 하였으나, 본래 재주와 능력이 없어 이 때문에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들과 서로 내통하는 것을 엄히 방지한 후에야 적을 물리칠 수 있으니, 하류에 매복한 교졸(校卒)들을 더욱 엄히 신칙하였습니다. 육로의 경우라 할지라도, 행적이 수상한 사람은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전관 김태형이 받들고 온 전교를 삼가 살피건대, 출정한 군사들을 위문하시는 성은의 뜻과 정성이 지극하니, 온 군사들이 감격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금께서 하사하신 호궤(犒饋)[151] 비용 300냥은, 성은을 널리 알리고 일일이 균등히 나누어 주었는데, 군중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춤추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인(士人) 이시용이 대원군의 분부에 따라, 본 고을에 내려와 대소 민인들이 소와 술로 군사를 호궤하니, 국가를 위한 성심이 성화(聖化)의 덕택에서 비롯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각자의 성명을 기록하여 대원군께 전달합니다. 사인 이우항은 소 1마리와 술 5동이, 이헌교는 소 2마리와 술 6동이, 송일선은 침조기 100속과 소 1마리, 송석우는 소 1마리, 출신(出身) 오성룡은 소 2마리, 방석이는 소 1마리를 바쳤습니다.

○ 初二日

晴. 上雲宮書, 四月三十日戌時下書, 伏承於翌日午時. 彼船添來, 無足爲懼, 在我精與不精也. 忠奮激勵萬軍一心, 戰必勝守必固. 屢伏承衆心成城之, 下教銘肺刻骨, 期欲圖報萬一, 而素無才能, 以是伏悶. 我國人交通嚴防後, 可以退賊, 故埋伏下流之校卒益加嚴飭. 而雖在陸路, 蹤跡殊常之人, 并詰問. 伏計宣傳官金泰衡奉傳教, 勞問出征士卒, 聖意墾至, 一軍感激, 兼有御賜犒饋錢三百兩, 布諭聖恩, 一一均分, 衆心歡洽, 莫不蹈舞. 士人李時用因雲宮分付, 下來本邑, 大小民人牛酒犒軍, 爲國誠心, 莫非聖化之陶甄, 各錄姓名達于雲宮. 士人李遇恒牛一隻酒五盆, 李憲教牛二隻酒六盆, 宋一善沈石魚一百束牛一隻, 宋錫禹牛一隻, 出身吳成龍牛二隻, 方錫伊牛一隻, 出身吳成龍牛二隻, 方錫伊牛一隻.

151) 호궤(犒饋) : 음식을 베풀어 전투를 치를 예정이거나 전투를 치른 군사를 위로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 대신에 돈으로 지급할 때에는 ‘건호궤(乾犒饋)’라고 한다.

초 3일

이슬비. 대원군이 내린 서신이 부평(富平)으로부터 전해져 왔는데, 장군이 적을 죽인 공로를 기리는 글이 탁본으로 내려온 것이다. 삼가 받들어 살펴보니, 길조임을 알 수 있었으니, 적을 무찌를 굉장한 기운의 징조이다. 하물며 이는 초하룻날의 일이니, 적을 섬멸하고 공을 세우는 것은 머지않은 날에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니, 군중에 드러내 보여 깨닫게 하고, 그 좋은 조짐을 곧장 영종(永宗)에 전달하게 하였다.

○ 初三日

微雨. 雲宮下書自富平轉到, 而將軍殺賊紀功之墨, 榻本下來. 伏奉玩摩, 揣知吉祥, 破賊之一大奇兆也. 況是初吉之事, 則殲賊奏功, 指日而計, 徇示軍中曉諭, 奇睽卽通于永宗.

○ 양이(洋夷)와 사류(邪類)를 물리치는 글

무릇 하늘이 낳은 큰 성인, 큰 현인, 큰 유학은 반드시 큰 훈로(勳勞)와[152] 큰 출척(黜陟)과[153] 큰 징창(懲創)이[154] 있어, 이로써 덕업을 드높이고, 그 의리를 밝게 하며, 그 학술을 넓힙니다. 이에 순(舜)임금은 요(堯)임금을 보좌하여 사흉(四凶)을 주벌하였고, 우(禹)임금은 홍수를 막았으며, 탕왕(湯王)은 갈(葛)나라를 정벌하였습니다. 문왕(文王)은 밀(密)나라와 숭(崇)나라를 쳐서 멸망시켰으며, 주공(周公)은 동쪽을 정벌하는 거사를 치렀습니다. 공자는 『춘추』를 지어 난신적자(亂臣賊子)를 두렵게 하였고, 맹자는 양자(楊子)와 묵자(墨子)를 배척하여 초야의 사대부들의 무분별한 논의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이후로는 신불해(申不害), 한비자(韓非子), 소진(蘇秦), 장의(張儀)의 학설이 성행하였으나, 오직 동자(董子)는 이를 배척하였고, 진(晉)나라와 당(唐)나라 시기 사이에는 도교(道敎)와 불교(佛敎)가 점점 성행하였으나, 오직 한유(韓愈)만 나서서 이를 논박하였습니다. 송나라 염락관민(濂洛關閩)에[155] 이르러, 여러 현인들이 나와 6경(經)을 밝히고, 이단을 배척하였습니다. 성인의 도가 선명히 다시 밝아졌으니, 이는 모두 하늘이 낳은 일대(一代)의 사람이 반드시 일대의 일을 끝맺는다는 것입니다. 명나라 만력 9년(1581)에 이르러서는, 리마두(利瑪竇)라는[156] 자가 있었는데, 구라

152) 훈로(勳勞) : 나라나 군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功勞)를 뜻한다.
153) 출척(黜陟) : 등용(登用, 登庸)과 추출(抽出).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씀을 뜻한다.
154) 징창(懲創) : 잘못을 뉘우치도록 꾸짖어서 경계하는 일을 뜻한다.
155) 염락관민(濂洛關閩) : 염계(濂溪), 낙양(洛陽), 관중(關中), 민중(閩中)을 가리키며, 각각 주돈이(周敦頤), 정이(程頤)·정호(程顥) 형제, 장재(張載), 주희(朱熹)의 거주지이다. 송학(宋學), 즉 성리학의 적통(嫡統)을 의미한다.
156) 이마두(利瑪竇) :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중국 이름이다. 호(號)는 청태(淸泰), 서강(西江)이고, 존칭은 태서유사(泰西儒士)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로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륙

파(歐羅巴)[157]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야소지학(耶蘇之學)이라[158] 칭하며, 그 무리인 양마낙(陽瑪諾),[159] 애유략(艾儒略),[160] 필방제(畢方濟),[161] 웅삼발(熊三拔),[162] 방적아(龐迪我)[163] 등과 함께 9만 리(里)를 3년 동안 항해하여, 광주(廣州)의 향산오(香山澳)에[164]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점차 중국에 스며들어, 이류(異類)를 좋아하는 사대부가 모두 이를 숭상하게 되었는데, 서광계(徐光啓)[165]·이지조(李之藻)[166] 같은 부류들이 먼저 그 학설을 좋아하여, 그 문장을 다듬어 매끄럽게 하였습니다. 오로지 서여가(徐如珂),[167] 여무자(余懋孳)[168] 등 몇몇 인사들은 의롭게 나서서 이를 몰아내려는 주장을 펼쳤고, 소(疎)를 올려 내쫓기를 청하였습니다. 『명사(明史)』「외이전(外夷傳)」, 주죽타(朱竹垞)의[169] 『폭서정집(曝書亭集)』, 전목재(錢牧齋)의[170] 『경교고(景教考)』, 고염무(顧炎武)의[171] 『일지록(日知錄)』 등에서도 모두 이에 대해 상세히 논변하였습니다. 아아! 우리 청구(青邱)의 이 한 땅은[172] 기자가[173] 동쪽으로 오고부터, 본디 명성과 문물이 뛰어난 고장으로 칭해져 왔습니다. 우리 조정의 성신(聖神)이 왕업을

에 기독교 신앙을 정착시킨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이다. 『천주실의(天主實義)』을 저술하였다.

157) 구라파(歐羅巴) : 유럽을 뜻한다.

158) 야소지학(耶蘇之學) : 야소(耶蘇)는 예수(Jesus)를 뜻하며, 야소지학(耶蘇之學)은 예수의 가르침인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를 의미한다.

159) 양마낙(陽瑪諾) : 임마누엘 디아즈(Emmanuel Diaz, 1574~1659)의 중국 이름이다.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로 1611년에 광동(廣東)의 소주(韶州)에서 전교 활동을 하였으며, 천문학 관련 지식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160) 애유략(艾儒略) :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 1582~1649)의 중국 이름이다. 이탈리의 예수회 선교사로, 1609년에 중국으로 파견되어, 30년간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직방외기(職方外記)』, 『기하요법(幾何要法)』, 『서방문답(西方問答)』 등을 저술하였다.

161) 필방제(畢方濟) : 프렌체스코 삼비아시(Francesco Sambiasi, 1582~1649)의 중국 이름이다. 이탈리아의 예수회 선교사로, 1613년에 중국에 파견되어 1628년부터 산서와 산동을 거쳐 남경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162) 웅삼발(熊三拔) : 데 우르시스(Sabbathino de Ursis, 1575~1620)의 중국 이름이다. 이탈리아의 예수회 선교사로, 1603년 마카오에 도착한 뒤, 1606년 남창(南昌)에 갔다가 이듬해에 상경해 마테오 리치로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선교회 내의 종무(宗務)를 담당하였다.

163) 방적아(龐迪我) : 판토하(Diego de Pantoja, 1571~1618)의 중국 이름이다. 스페인 사람으로, 1589년 예수회에 들어간 그는 1589년 마카오에 도착한 후 남경으로 이동하였다가 마테오 리치와 함께 북경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164) 향산오(香山澳) : 마카오.

165) 서광계(徐光啓) : 명나라 후기의 정치가이자 학자이다. 강소성(江蘇省) 송강부(松江府) 상해현(上海縣) 출생이며, 자(字)는 자선(子先), 호(號)는 현호(玄扈), 세례명은 바오로(保祿)이다. 1595년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형부낭중(刑部郎中)을 역임하였다.

166) 이지조(李之藻) : 중국 명나라 후기의 학자이다. 1621년 서광계의 천거로 광록사소경이 되었다.

167) 서여가(徐如珂) : 중국 명나라의 관리이다. 소주부(蘇州府) 오현(吳縣) 사람으로써, 1595년 진사(進士)가 되어, 이후 형부주사, 낭중, 소경, 좌통정, 광록시경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168) 여무자(余懋孳) : 생졸연대 미상. 1604년 진사(進士)가 되었고, 급사중(給事中)을 역임하였다.

169) 주죽타(朱竹垞) : 주이존(朱彝尊, 1629~1709). 죽타(竹垞)는 주이준의 호(號)이다.

170) 전목재(錢牧齋) : 전겸익(錢謙益, 1582~1664). 목재(牧齋)는 전목재의 호(號)이다.

171) 고염무(顧炎武) : 중국 명말청초의 사상가이자 학자이다. 본명은 강(絳)이고 자(字)는 충청(忠淸)이다. 명나라 멸망 이후 이름을 염무(炎武), 자를 영인(寧人)으로 고쳤다.

172) 청구(青邱) : 조선(朝鮮)을 의미한다.

173) 은사(殷師) : 기자(箕子)의 존칭이다. 성은 자(子), 이름은 서여(胥餘)이다. 은(殷) 왕조 말에 자작(子爵)에 봉해지고, 기(箕)에 나라를 세웠으므로 보통 기자라 일컫는다. 주왕이 그를 태사(太師)에 임명하였기 때문에 은사라고 칭하기도 한다.

계승한 이래로, 많은 현인들이 나서 예절과 의리를 밝히고, 유학의 가르침을 두터이 숭상하여, 벼슬아치나 벼슬이 없는 선비는 공자, 맹자, 정호·정이 형제, 주희의 책이 아니면, 일찍이 그 내용을 전하거나 강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조차 모두 능히 오륜과 삼강이 일상적인 행동의 도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나라에 이단(異端)이 이르렀다는 것은 애초부터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7·80년 전부터, 일종의 흉악한 무리와 비적들이 북경에 가서 책을 구입하고, 서양의 학문을 제창하며, 하늘과 성인을 업신여기고, 군주와 아버지를 배반 멸시하여, 제사를 없애고 사당의 신주를 훼철하였습니다. 천당과 지옥의 이야기로써 우매한 백성들을 속여 홀리고, 세례와 계율을 받는 방법으로써 흉악한 무리들을 불러모아, 사서(邪書)를 몰래 감추기를 부참(符讖)의[174] 술법처럼 하고, 여신도를 널리 모집하여, 짐승과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혹은 신부(神父)라 하거나, 혹은 교우(敎友)라 칭하며, 성명(姓名)을 바꾸고 각기 호칭〔票號〕을 만들어 황건적·백련교도와[175] 같은 도적들처럼 몰래 서로를 찾고 서로 결탁하였습니다. 밖으로는 사학(邪學)에 의탁하고, 안으로는 다른 의도를 품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자그마한 천 조각에다 바다를 건너 도적을 부르는 말들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1791년(정조 15)의 신해사옥, 1801년(순조 1)의 신유사옥, 1839년(헌종 5)의 기해사옥은 하늘의 토벌이 비록 엄하였으나, 오히려 법망을 빠져나간 무리들이 잠복하여 씨앗을 심고 번식하여 그 세력이 만연해졌으며, 이루 다 벨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임금께서 1864(고종 1)〔甲子〕에 즉위하신 이래, 대원군 합하께서는 미치지 못함을 돕고 지나침을 억제함으로써,[176] 온갖 법도들을 바로잡고 모든 일들을 다스려, 작은 일이라 하여 밝히지 않은 것이 없고 큰 일이라고 하여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데 더욱이 밝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가히 사악한 무리들을 소탕하여 확연히 왕의 법도를 크게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 서양의 배들이 연해 고을을 왕래하는 것은, 반드시 불온한 무리들의 선동과 종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내 음은 양에 대적할 수 없고, 사학함은 바름을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양의 배들이 수차례 진격하였다가 수차례 퇴각하자, 대원군께서 크게 분노하시어 "서양 오랑캐들이 침략하였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오.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라는 열두 글자를 크게 쓰고, "우리 만세의 후손들에게 경계하도록 하라"는 여섯 글자를 비석 왼편에 덧새겨 종로 거리에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온 나라의 신하와 백

174) 부참(符讖) : 점술에서 뒷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해석하기 어렵게 적어 놓은 글이다.
175) 황건백련지적(黃巾白蓮之賊) : 황건적(黃巾賊), 백련교도(白蓮敎徒)를 뜻한다. 전자는 후한(後漢) 말인 184년에 장각(張角)을 필두로 한 태평도(太平道)의 종교 조직이 후한을 타도하고자 하였고, 후자는 청나라 가경(嘉慶) 1년(1796)에 백련교의 종교 결사체가 반청(反淸)을 기치로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이른다.
176) 보상재성(輔相財成) : 재성(財成)과 보상(輔相)이라는 말로, 좋은 상태가 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성들로 하여금, 사악함과 바름의 차이를 분명하고 명백히 알게 하셨으니, 상서(商書)에 이른바 "위대한 말씀이요. 전일한 마음입니다."라는 구절처럼, 이 일은 바로 그런 말씀에 있습니다. 아아! "정원(貞元)의 기틀은 한 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고, 광악(光嶽)의[177] 정기는 흩어지면 오래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천하의 만국 중에서 서양과 교류하고 통상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나, 오직 이 동쪽 땅의 삼천리만이 마치 한겨울의 소나무처럼 홀로 곧게 서 있습니다. 주역의 박괘(剝卦)처럼, 음기들로 가득하나, 오직 상구(上九)의[178] 효(爻)[179] 하나가 마치 먹히지 않은 큰 열매와 같으니,[180] 장차 복이 돌아올 이치인 것입니다. 천하에 우리 동방이 있는 것은, 마치 위에 상구의 큰 열매와 같습니다. 지금 이 서양의 종교가 윤리와 법도를 업신여기는 것은 양주(楊朱)·묵적(墨翟)·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소진(蘇秦)·장의(張儀)·노자(老子)·석가(釋迦)의[181] 해악과 다름없습니다. 대원군께서 이단(異端)을 물리치신 공로는, 사흉(四凶)을 주벌하고 홍수를 다스리며 갈(葛)을 정벌하거나 밀(密)과 숭(崇)을 정벌하고 동쪽을 평정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춘추를 지은 공자께서 세상을 정돈하신 것처럼, 그러한즉 천지가 대원군을 우리 동방에 나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큰 공로를 세우게 하시니, 대대적인 출척(黜陟)과[182] 징창(懲創)이[183]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변경을 막는 데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만 한 것이 없고, 사학(邪學)을 배척하는 데는 정학(正學)을 밝히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모든 군현에 명하여 교궁(校宮)이[184]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유학이 폐기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새로이 정사를 도모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사기를 북돋고, 녹동의 법규를[185] 좇아 문옹의 교화를[186] 흥기시켰습니다. 한 고을의 유생이 행의와 명절을 갈고 닦아 예의(禮義)

177) 광악(光嶽) : 삼광(三光), 즉 일(日), 월(月), 성(星)과 오악(五嶽)을 줄인 말로, 천지(天地)를 뜻한다.
178) 상구(上九) : 건괘(乾卦)의 맨 위의 양효(陽爻)를 뜻한다.
179) 효(爻) : 『주역』의 64괘를 구성하는 6개의 획을 가리키는 역학용어이다. 효에는 음효(陰爻)와 양효(陽爻)가 있다. 음효와 양효 3개가 모여서 구성된 괘를 소성괘(小成卦)라 하는데 복희팔괘(伏羲八卦)가 그것이고, 6개가 모여서 구성된 괘를 대성괘(大成卦)라 하는데 『주역』의 64괘가 그것이다.
180) 석과불식(碩果不食) : 『주역』의 산지박괘(山地剝卦) 상구(上九)에 '碩果不食' 즉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섯 개의 효(爻)가 모두 음(陰)인 상태에서 맨 위의 효(爻) 하나만 양(陽)인 것을 석과(碩果)로 비유한 것으로, 하나 남은 양의 기운이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181) 양묵신한소장노불(楊墨申韓蘇張老佛) : 양주(楊朱), 묵적(墨翟), 신불해(申不害), 한비자(韓非子), 소진(蘇秦), 장의(張儀), 노자(老子), 석가(釋迦)를 뜻한다.
182) 출척(黜陟) : 등용(登用·登庸)과 추출(抽出).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쓰다.
183) 징창(懲創) :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벌을 주거나 꾸짖어서 경계하다.
184) 교궁(校宮) : 각 고을에 있는 문묘(文廟)를 뜻한다.
185) 녹동지규(鹿洞之規) : 주희(朱熹)가 남강군(南康軍)의 지사(知事)로 있을 때, 강학했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규(學規)를 이른다. 백록동서원은 송나라 초기 4대 서원 중의 하나로, 강서성 여산(廬山) 오로봉(五老峰) 동남쪽에 있다.
186) 문옹지화(文翁之化) : 문옹(文翁)은 한(漢)나라 여강(廬江) 사람이다. 한 경제(漢景帝) 말엽에 촉군태수(蜀郡太守)가 되어서 성도(城都)의 시중에다 학교를 설립해서 입학하는 사람은 부역을 면제해 주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고을의 관리로 삼았는데, 이때부터 촉군에 문풍(文風)이 크게 진작되어 교화가 흥기하였다.

를 따라 그대로 이행하니, 수사낙민(洙泗洛閩)의[187] 유풍이 거의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사학한 무리들이 발각되는 일이 우리 고을에 파다하니, 유림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마치 푸른 하늘을 열고 빛나는 해를 보는 것 같아, 그 사이에 다시는 조금의 그림자도 없을 것입니다. 난세의 음악을[188] 물리치고 태평성대의 음악을[189] 연주하며,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난초를 심어, 오랜 세월의 오륜(五倫)과 삼강(三綱)이 온 세상의 본보기로 차츰 행해질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어찌 기쁘지 않으며,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양주(楊朱), 묵적(墨翟)의 사상을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의 무리라 할 수 있다. 온 세상이 성인의 무리에 모여 살게 된 것은 누구의 공인가?"라 하였으니, 바라건대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斥洋邪文

夫天生大聖大賢大儒之人, 必有大勳勞大黜陟大懲創. 以崇其德業, 以明其義理, 以廣其學術. 是以舜相堯誅四凶, 禹抑洪水, 湯征葛, 文王伐密伐崇, 周公有東征之擧. 孔子作春秋, 而亂臣賊子懼, 孟子闢楊墨, 而處士之橫議息. 戰國以後, 申韓蘇張之說盛行, 唯董子出而斥之, 晉唐之間, 老佛之教漸熾, 唯韓子出而詆之. 至宋濂洛關閩, 諸賢出表章六經, 排斥異端. 聖人之道, 粲然復明, 是皆天生一代之人, 必了一代之事也. 及夫皇明萬曆九年, 有利瑪竇者, 卽歐邏巴人. 自稱耶蘇之學, 與其徒陽瑪諾艾儒略畢方濟熊三拔龐迪我等, 航海九萬里三年, 而抵廣州之香山澳, 其教逐漸染中國, 好異之士咸尙之, 而徐光啓李之藻輩, 首好其說, 且爲潤色其文辭. 惟徐如珂余懋孳, 數人倡義驅斥, 疏請屛逐. 明史外夷傳, 及朱竹垞曝書亭集, 錢牧齋景教考, 顧炎武日知錄, 皆辨之詳矣. 猗我靑邱一域, 自殷師東來, 素稱聲名文物之鄕. 逮我朝聖神繼作, 群賢輩出 闡明禮義, 敦尙儒術, 搢紳韋布之士, 非孔孟程朱之書, 未嘗傳信而講習之. 雖閭巷婦孺, 皆能之五倫三綱, 爲日用常行之道, 至於左道異端, 初未之聞焉. 自七八十年來, 一種凶醜匪類, 赴燕購書, 倡爲西洋之學, 慢天侮聖, 背君蔑父, 廢其祭祀毁其廟主. 以天堂地獄之說, 誑惑愚氓, 以領洗受戒之法, 嘯聚凶黨, 潛藏邪書, 同符讖之術, 廣結女徒, 有禽犢之行, 或曰神父, 或稱敎友, 變換姓名, 各立標號, 如黃巾白蓮之賊, 暗相物色, 現相糾結, 外托邪學, 內懷異圖, 至有方寸帛書, 越海招寇之語, 正廟辛亥之獄, 純祖辛酉之獄, 憲宗己亥之獄, 天討雖嚴, 猶此

187) 수사낙민(洙泗洛閩) : 수사(洙泗)는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에 있는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로써 공자와 맹자를 뜻하는 것이고, 낙민(洛閩)은 송나라 때의 학자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가 살던 낙양(洛陽)과 주희(朱熹)가 살던 민중(閩中)을 뜻한다.

188) 정위(鄭衛) : 춘추전국시대 정(鄭)나라와 위(魏)나라를 뜻함. 정위지음(鄭衛之音)은 정나라와 위나라에서 유행하던 음악으로써, 난세(亂世)의 방탕한 음악을 뜻한다.

189) 소호(韶護) : 소(韶)는 순(舜) 임금의 음악, 호(護)는 탕(湯) 임금의 음악으로써, 태평성대의 음악을 뜻한다.

漏綱之徒，隱伏卯育種下種生，蔓蔓延延迨不可勝誅．自當宁甲子御極，大院位閤下，輔相財成之功，貞百度康庶事，靡細不燭，靡大不舉，而扶正斥邪，尤所彰明．八年之間，可謂掃蕩廓如王綱大振矣．近來洋舶之焚往焚來於沿海邑者，必有不逞之輩，嗾囑慫恿，而終是陰不能敵陽，邪不能犯正．屢進屢退，而大院位赫然奮怒大書，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十二字，又書戒我萬年子孫六字，於其左刻之于石，竪之于鍾街．使一國臣庶，瞭然於邪正向背之間，商書所稱大哉言一哉心，其在于是乎．嗚呼，貞元之機，一往不復，光嶽之精，迸裂久矣．舉天下萬國，靡國不洋作堂焉，通商焉．唯此環東土三千里，若大冬之松挺然獨立，大易剥之爲卦羣陰在下，而惟上九一爻，如碩果不食，將有來復之理，天下之有我東，其猶上九之碩果乎．今此洋教之蔑絕倫紀，不翅若楊墨申韓蘇張老佛之害，而大院位闢異之功，不在於誅四凶，抑洪水，征葛伐密伐崇東征．作春秋之下，然則天地生大院於我東，使之做出大勳勞，大黜陟，大懲創，豈偶然也哉．捍邊塞莫如安社稷，斥邪說莫如明正學．廼令三百六十州，校宮之頹圮者修葺之，儒術之荒廢者作興之，以圖一新之政．於是奉承朝令，激勵士氣，方遵鹿洞之規，作興文翁之化．一鄉章甫，砥行礪名，循蹈禮義，洙泗洛閩之風，庶幾復見．然而比者，邪徒之見捉者，吾州頗多，士林恥之．今焉如披青天覩白日，無復纖翳於其間矣．放鄭衛而奏韶護，鋤荊棘而種芝蘭，萬古之倫綱以敍四海之師表，斯在吾輩之生於今日海東者，豈不樂哉，豈不幸哉．孟子曰，能言拒楊墨者聖人之徒，囿一世於聖人之徒者而誰之功也．伏願僉君子，益加勉旃．

초 4일

맑음.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부평(富平)에서 저들에게 보낸 답서 한 통이 어제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도착하였기에 삼가 살펴보니, 저 오랑캐의 잘함과 잘못함을 분별해 결론을 내었으니, 과연 타당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서신을 보내오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이 예에 따라 답할 계획입니다. 출신(出身) 이재정(李在靖)은 군무(軍務)에 능통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숙하니, 마땅히 사람을 등용해야 할 이때에 반드시 거두어 써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내려보내도록 분부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포구 주민이 밀물 때, 양철(洋鐵)로 된 궤짝 한 좌(坐)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손돌목에서 저들의 선박을 격파할 때 떨어져 나온 것인 듯합니다. 대원군께 보내드립니다. 환도(環刀) 100자루, 화약(火藥) 2,000근, 연환(鉛丸) 10만 개가 중앙군영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평소에 차는 환도는 가볍고 약하며 무디기 때문에 일본도 중에 견고한 것을 보내주실 것을 대원군께 청합니다. 군량은 혹여 부족하여 나눠주지 못할 염려가 있을까 걱정되오니, 근처에 조운하여 정박해 있는 세미(稅米)를 우선 사용하되 적을 무찌른 후에 남은 세곡(稅穀)을 다시 실어 서울로 조운할 뜻으로 대원군께 아룁니다. 각 진(陣)을 순찰하니 사졸들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방어가 소홀하여 엄히 신칙을 더하였으며, 제물포 나루에 이르러 수상한 사람 한 명을 붙잡았는데, 그 종적(蹤迹)을 조사하니 다름 아닌 사학괴수(邪學魁首) 이승훈(李承薰)의 증손이자 이신규(李身逵)의 손자로 이름은 균학(筠鶴)인 자였습니다. 그는 역적 자손의 종자로서, 거리낌 없이 전장 사이를 드나들며, 적선(賊船)의 가까운 거리에서 정보원 역할을 하는[190] 등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인 연귀(蓮龜)를 잡아와 함께 신문하였는데, 그들의 형적(形跡)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와 같았습니다. 이 같은 죄는 한시도 용서할 수 없으므로, 처벌하여 법도를 바로잡고자 하는 뜻으로 대원군께 아룁니다.

○ 初四日

晴. 上雲宮書. 富平答彼書一統, 作日申時來到故伏悉, 而彼夷之善惡間出末, 果是的當之下教也. 彼若有投書之擧, 當依此例修答伏計耳. 出身李在靖熟諳軍務, 嫺習弓馬, 當此用人之際, 不可不收用, 分付下送伏望. 浦民得洋鐵櫃一坐於潮頭, 似是孫石擊破彼船時漏下者也, 送呈于雲宮. 環刀百柄, 火藥二千斤, 鉛丸十萬介, 自京營門下來, 平日所帶之環刀, 輕弱且鈍, 故倭刀中堅固者, 請得於雲宮. 軍粮恐或有不敷之慮, 故稅米之近處

190) 정사(偵伺) : 드러나지 않은 사정(事情)을 몰래 살펴 알아냄.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止泊者, 先爲執用, 待破賊後用餘穀, 還載上京之意, 請於雲宮. 巡察各陣, 士卒之疾苦, 防守之疎忽, 嚴加申飭, 到濟物津頭, 捉得殊常一漢, 查其蹤跡, 乃邪學魁首承薰之曾孫, 身逵之孫, 筠鶴爲名漢也. 渠以逆孽之種, 肆然出沒於戰陣之間, 偵伺於賊船至近之處, 不無可疑之端. 故捉致其兄蓮龜, 一同刑訊, 形跡殊極現露, 以若怨國之徒. 如此罪犯, 不可一時容貸, 故期於正法之意, 達于雲宮.

○ 부평부(富平府)에서 저들에게 답한 서신

겉봉 형식 (정밀하고 큰 글씨로 간략히 쓰고, 또 좋은 종이로 겉을 봉하여, 장대 끝에 매달아 서로 마주 보이는 곳에 세워 두었다.)

조선국 부평도호부사 이공(李公)의 글이 도착하였음.

미국문안총판(美國文案總辦) 앞. 반드시 열어볼 것.

내지 형식

조선국 부평도호부사 이 모(某)가[191] 회답〔照覆〕합니다.[192] 지난번 드린 답에 예상치 못하게도 다시 회신이 있어, 이번 답신〔覆文〕에는[193] 귀하의 공문을 감히 조정에 상달하지 않은 것으로써, 우리 조정의 질책과 비난을 받아, 이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귀국의 선박이 닻을 내리고 머물렀던 곳에서는 접촉하여 왕래하는 것에 충분한 여지가 있었으나, 이내 밀물 때 좁은 입구로[194] 거슬러 들어와 지키는 자들이 포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서신에서도 이미 그 불행함을 토로하였으니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끝내 또 다시 들어와 싸움을 벌여 사상자가 이미 많이 발생하였으니, 이로 인해 우리 조정이 크게 분노하여 더는 귀국이 우호의 의도로 왔음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귀하께서 비록 공문을 조정에 상달하고자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사신이 우리나라 임금께 직접 서신을 전달하는 것은, 등위(等威)와 체례(體禮) 면에서 대단히 해괴(駭乖)하니, 저 같은 미천한 관리가[195] 어찌 감히 이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정이 반드시 엄격한 말로 꾸짖어 내칠 것인데, 제가 어찌 처벌을 피할 도리가 있겠으며, 귀하 또한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끝없이 거듭 여러 차례 고심하였으나, 이는 법과 규범을 경외하고 지키는 바이기에, 감히 경솔하게 임금께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릇 귀하가 먼 길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통상 때문인데, 어찌 다른

191) 이모(李某) : 『고종실록』 권8, 고종 8년 5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당시 부평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는 이기조(李基祖)였다.
192) 조복(照覆) : 조회(照會)에 대하여 답하는 것. 또는 그 회답(回答)이다.
193) 복문(覆文) : 회답으로 보내는 글이나 문서이다.
194) 애구(隘口) : 좁은 목, 입구를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강화도와 통진부 사이의 강화수로·강화해협을 가리킨다.
195) 폐직(敝職) : 미천한 관직이라는 뜻으로, 인천도호부사 이기조가 본인을 낮추어 지칭한 겸사이다.

목적이 있겠습니까? 단지, 저번에 2척의 선박 중 1척은 구조되었고 1척은 손상을 입었는데, 아직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일에 해수면을 오가는 선박이 혹여 다시 뜻밖의 환란을 마주할 것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화의의 약속을 맺어 영원히 서로 해를 입히지 않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어찌 지나친 염려와 헛된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1척의 선박이 그 선원들의 잘못으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간혹 배가 해무 속에서 수로를 잃거나 풍랑에 표류하는 경우, 온갖 불행과 난관에 처한 사람들의 목숨을 본국이 극진히 구휼하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호송하는 것은 금석(金石)에 실려 있는 성헌(成憲)으로,[196] 친히 하늘이 기른 백성은 먼 나라와 가까운 나라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해 지방은 밤낮을 막론하고 그것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 책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천지 신령이 지켜보고 있으니 어찌 빈 말로 서로를 속이겠습니까? 다만, 귀하께서 다시는 지나친 염려로 이러한 사건들에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귀국에서는 비록 통상을 원하나, 통상 논의는 이 정도로 그칠 뿐이며, 화약(和約)을 갖추지 않고도 화호(和好)는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정에서 대두된 논의를 살짝 들은 바, 이에 내부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며, 제 직분을 돌이켜보건대 오직 지키고 싸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답신합니다.

이상입니다.[197]

이상은 답신임.

미국문안총판(美國文案總辦) 앞.

동치(同治) 10년〔1871〕 5월 초3일.

○ 富平府答彼書

被封式(以精大簡書之 又以精紙外封懸於竿頭立彼相望處)

朝鮮國 富平都護府使李公文至.

美國文案總辦 堂當開坼

內幅式

朝鮮國富平都護府使李某爲照覆事. 昨者奉覆非望更有回音, 又此覆文, 以貴憲公文之不敢上達, 我朝廷見怪而相詰, 玆不得說明其故耳. 最初貴船在碇留處, 接應往復, 綽有其地. 乃溯入隘口, 致有守者鳴砲之擧. 前書已歎其不幸, 則庶應諒悉, 而竟又再入打仗殺

196) 성헌(成憲) : 이미 이전에 제정하여 지켜오던 법, 법규. 금석에 실려 있는 성헌(載有金石成憲)이라는 것은 그 법, 법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내려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197) 수지조복자(須至照覆者) : '須至~者'는 외교문서의 끝에 사용하는 상용어구로써, 문서의 본문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須至와 者 사이(~)에는 문서의 종류를 표기한다.

傷已多, 以此我朝廷大加震怒, 不復信貴處之和睦而來. 如此之際, 貴憲雖欲上達公文, 以他國使臣, 而直行文移於我國王上 極爲駭乖於等威體禮之間, 敝職何敢以此轉達乎. 我朝廷必有嚴辭譴斥, 敝職何所逃罪, 而於貴憲亦安乎. 轉轉層疊迄無窮時, 此所以畏法守經, 不敢遽爾遞上者也. 大抵貴憲之遠勞商販, 豈有他事哉. 只以向來二隻船之一救一害, 未有其詳故, 而置慮於後日, 洋面來往之船, 或復有不虞之患, 必欲立一和約, 永無傷害而然耳. 此豈非過慮之甚, 而枉勞之舉乎. 一隻船之被人所誤, 自來取禍, 此誠意外之事. 或其海霧失路, 或風濤漂泊, 凡諸遭厄遇難種種人命, 本國之十分極救, 依願護送, 載有金石成憲, 體天字民, 無間於遠邇別國. 是以沿海地方, 莫不夙夜惴惴, 而敝職亦忝其一, 天地鬼神臨質上傍, 豈有虛言相欺. 但願貴憲勿復過慮, 枉勞於此等事件. 貴在雖商販, 而商辨卽此而已, 無待和約, 而和好自在其中矣. 敝職竊有聞於我朝盈廷之論, 玆以罄盡裏曲, 顧其職分, 則惟守惟戰而已. 爲此照覆, 須至照覆者.

右照覆

美國文案總辦

同治拾年伍月初參日

○ 저들의 서신

어제 차사(差使)가 와서, 4월 30일의 답신을 받아보았는데, 우리 공사가 귀 조정에 전해 보낸 공문 한 건에 오로지 감히 올려보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다시는 문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운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흠명 공사의 위임 명령을 받들어, 귀 부평부에 회신하였는데, 거절하며 공문을 올려보내 주지 않으려 하니, 참으로 괴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제 생각에 귀 부평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귀 조정이 만약 실정(實情)을 꿰뚫게 된다면, 틀림없이 그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 귀국의 조정은 우호국 사신이 귀국과 교통(交通)할 길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곳에 차단을 명하여, 각국 간의 관례를 무시하려 하십니까? 지금의 갈등이나 혹 차후의 흔단(衅端)에 대해 화해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이미 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원문(原文)을 돌려보낸 데에 대해서는, 우리 흠명 공사가 오랫동안 머물더라도 이 문서를 그대로 남겨두고 별도로 방법을 강구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바램으로서는 귀 부평부에서 깊고 길게 생각하여 문서를 올려보내기로 동의하거나, 혹은 귀 조정에 상세히 상주하여 이곳에 상달할 문서가 있음을 알리는 게, 가장 긴요하고 가장 마땅한 것입니다. 설령 우리들이 문건을 왕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귀 조정이 다방면으로 거절하여 억압하려 한다면, 우리 흠명 공사는 명을 받든 사안에 대하여, 마땅히 별도의 경로를 통해 귀 조정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정말로 귀 조정에서 문건이 오가지 않도록 금지한 것이라면,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양의 모든 대국들 또한 모두 조선국의 임금이 우호국의 봉명사신(奉命使臣)을 차단하고, 화호(和好)의 논의에 관련된 일도 끝내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국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지방관의 직무상 마땅히 처리해야 하는 것인데도, 귀 부평부에서 전과 같이 거절한다면 직접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장차 귀 조정에서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까봐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 彼書

昨由來差, 接到三十日覆文, 暨敝上憲遞送貴朝廷公文一件, 并稱不敢遞上, 以爲再有文字往復無濟於事云云. 玆奉我欽憲委飭, 照覆貴府, 推劫不肯遞上公文, 似乎可怪, 而不可解. 竊意貴府如此作爲, 貴朝廷若能洞悉實情, 難信其必無咎也. 豈貴朝廷肯相友國使臣交通貴國之路, 故令各處均爲杜絕, 而罔念各國之成規耶. 目今之隙, 或此後之衅端, 需和解之者, 而玆已閉塞其門也. 至送還之原文, 我欽憲擬久住多時, 仍存此文, 姑俟另行設法寄送. 現望貴府深長思之允爲呈遞, 或詳奏貴朝廷, 俾知敝處有此上達之文, 是爲最要最宜者. 設若我等求通文件之逕, 貴朝廷多方以絕之, 致於逼迫, 我欽憲相奉辦之件, 須另由別路達知貴朝廷, 斯我上憲釋然洞悉矣. 果由貴朝廷禁令不通文件, 不獨敝國舉凡西洋諸大國, 皆知朝鮮國君杜絕友邦奉命使臣, 且係商辦和益之事, 竟擯而不納. 至各國投遞文字, 乃地方官職所應分, 貴府如仍前推拒, 不得不以直言相告, 恐爲來貴朝廷不得辭其咎耳.

초 5일

아침에는 흐리고 저녁에는 맑음. 연귀(蓮龜)와 균학(筠鶴)의 자백을 받아 대원군에게 전달하였다. 각 진(陣)의 장졸들은 객지에서 고생하니,[198]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약환을 나누어 주고 몸소 위로하고 달래며, 오한과 발열의 증상을 세심히 살피고 증후를 상세히 물어 장졸들을 치료하는 데 온 힘을 다하였다. 초가 막사에서 한데 모여 사졸과 함께 동고동락하니, 군심(軍心)이 스스로 감복하였다. 대원군께서 하사한 환도(環刀) 한 자루는 오금(烏金)으로[199] 장식되어 있었으며, 칼날의 날카로움이 비할 데가 없었다. 은혜에 감격함이 지극하니, 이 칼과 함께 나랏일에 끝까지 헌신할 것을 맹세하였다. 외읍(外邑)의 산행포수(山行砲手)들이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내려와, 각 진(陣)에 나누어 배치하였고, 양근(楊根)의[200] 포수(砲手) 42명은 장천(長川)의 본진(本陣)에 매복시켰다.

○ 初五日

朝陰晩晴. 取蓮龜筠鶴招辭達于雲宮. 各陣將卒, 風餐露宿, 多有生病. 頒賜丸藥, 躬行慰撫, 審視寒熱, 詳問症候, 極力救療, 露處草幕, 與士卒同甘苦, 軍心亦自感服. 自雲宮下送, 環刀一柄, 粧以烏金, 鋒利無比. 恩感之極, 誓與此刀, 相終始於國事. 外邑山行砲手陸續下來, 分置各陣, 楊根砲手四十二名, 埋伏於長川本陣.

○ 선전관 김태형(金泰衡)의 계문(啟聞) 초본(草本).

4월 30일에 공경히 육천표신(六天標信)을[201] 받들어 인천부로 급히 가 사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적의 상황을 정탐해 보니 저들의 삼범선(三帆船) 3척과 이범선(二帆船) 2척이 부평부 경계의 호도(虎島) 앞 바다에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으며, 본 읍 제물포(濟物浦)와의 거리가 약 10리(里)쯤 되었습니다. 4월 30일 사시(巳時, 오전 9~11시)

198) 풍찬노숙(風餐露宿) :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잔다는 뜻으로,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겪는다는 뜻이다.
199) 오금(烏金) : 구리에 1~10%의 금을 섞은 검붉은빛의 합금. 장식품에 쓰이며, 적동(赤銅)이라고도 불린다.
200) 양근(楊根) :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양평읍 양근리 지역이다.
201) 육천표신(六天標信) : 표신(標信)은 궁중 혹은 군영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을 드나들 때 사용되던 출입증이다. 조선시대에는 왕명 전달, 긴급호출, 야간통행 등 여러 가지 목적의 표신이 사용되었다. 예컨대, 선전표신(宣傳標信)•휘지표신(徽旨標信)•내지표신(內旨標信)•소집표신(召集標信) 및 개문표신(開門標信)•통행표신(通行標信) 등이 있었다. 선전관 김태형이 지참한 표신은 선전표신으로써, 군국(軍國) 기밀에 관한 왕명을 전달하는 표신이다. 원형 모양으로, 한쪽에는 '선전(宣傳)'이라는 글자가, 다른 한쪽에는 어압(御押)이 있었다. 이는 승정원에서 관리하였고, 대신, 종친, 병조진무소(兵曹鎭撫所) 및 전명(傳命)을 담당한 선전관, 환관 등에게 교부하여 사용되었다. '육천표신(六天標信)'은 총 31부(部)의 선전표신(宣傳標信) 중 일련번호 '6天'이 부여된 표신이다. 일련번호는 '숫자 + 천(天)·지(地)·현(玄)·황(黃)·우(宇)·주(宙)·홍(洪)·황(荒) 등'의 조합으로 부여되었다.

에 저들의 이범선(二帆船) 1척이 다시 팔미도(八尾島) 외양에서 올라와 5척의 적선과 함께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어 그 간사한 계략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본읍의 방어를 더욱 엄히 단속하고, 제물포에는 남한(南漢)의 별파진(別破陣)[202] 47명, 안성(安城)의 포수 14명, 본읍 신현(新峴)의 포군 60여 명을 합하여 매복시켰습니다. 고잔포(古棧浦)에는 본읍의 별무사(別武士) 100명, 남촌(南村)의 포계(砲稧) 군병 50명, 자원군 20명, 지평(砥平)의 포수 14명을 매복시켰습니다. 훈련도감의 군사 1초(哨)는 본영(本營)의 초관(哨官) 이병오(李秉五)로 하여금 영솔하여 저현(楮峴)에 진을 치고 좌우로 대응하게 하였습니다. 본읍의 수령은 별무사 100명, 양근(楊根) 포수 42명, 가평(加平) 포수 15명, 포계(砲稧) 군병 20명, 사수(射手) 20명, 이교(吏校) 50명을 영솔하여 장천현(長川峴)에 주둔하고, 세 갈래의 길목을 통제하고 사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읍의 부내(府內)는 군량과 군기가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무사(武士) 100명과 아전 및 노비를 반씩 나누어 엄히 파수하게 하였습니다. 문학산(文鶴山)의 옛 성에는 별장(別將)을 임명하여 봉대군(烽臺軍) 25명을 영솔해 적의 동정을 살피며 막아 지키게 하였고, 성현(星峴)의 길목은 서울로 통하는 요충이므로, 포계(砲稧) 군병 100명을 배치하여 번갈아 가며 지키게 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을을 둘러싼 일곱 곳의 포구에서 방비를 각별히 하고, 본읍의 거주민들은 앞다투어 소와 술로써 군사를 먹여, 충의(忠義)를 고취시키니, 자원하여 전장에 나아간 자들이 자못 많았습니다. 군중에서는 하루에 세 끼를 지급하여, 군사가 굶주린 기색이 없었으며, 대원군께서 하사한 1,000냥, 임금께서 특별히 세 차례에 걸쳐 내리신 300냥의 돈을 무사(武士)들에게 균등히 나누어 주고, 세 말〔斗〕의 쌀로 그 처자식들을 구휼하여, 성은(聖恩)을 깨닫게 하니, 군심(軍心)이 흡족해하였습니다. 사졸(士卒)이 혹 질병에 걸린 경우, 대원군께서 내려보내 주신 약환을 나누어 주고 치료하여, 나아진 자가 많았습니다. 인천부는 세 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단 하나의 장애물도 없이 수도와 인접해 있으니, 해문(海門)의 인후(咽喉)이며, 실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본읍의 수령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분발하여 사졸들을 격려함으로써 오로지 적을 무찌르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 宣傳官金泰衡啓聞草本.

四月三十日, 敬奉六天標信, 馳到仁川府, 勞問士卒, 探知賊情, 彼三帆船三隻, 二帆船二隻, 住碇於富平界虎島前洋, 距本邑濟物浦爲十里許. 三十日巳時, 彼二帆船一隻, 又自八尾外洋上來, 與五隻賊船同爲留碇, 其奸謀難測. 本邑防守益加嚴束, 濟物浦則南漢別

202) 남한별파진(南漢別破陣) : 별파진은 대포(大砲)를 주무기로 하는 병종, 혹은 그 군병을 의미한다. 남한별파진은 광주부(廣州府) 남한산성 소속의 별파진을 가리킨다.

破陣四十七名，安城砲手十四名，本邑新峴砲軍六十餘名，合陣埋伏．古棧浦則本邑別武士百名，南村砲稧軍五十名，自願軍二十名，砥平砲手十四名埋伏，訓局軍一哨，使本營哨官李秉五，領率結陣於樗峴，左右接應．本倅領率別武士百名，楊根砲手四十二名，加平砲手十五名，砲稧兵二十名，射手二十名，及吏校五十名，留陣於長川峴，三路統口，四面策應．本邑府內，乃粮餉軍器之所在，極爲重地，故武士百名，吏奴分置一半，嚴爲把守．文鶴古城，差定別將，率烽臺軍二十五名，瞭望防守，星峴一路，乃距京要衝，故以砲稧兵百名，輪回守把，以備不虞．環邑七處浦口，各別提防，而本邑居民，競以牛酒饗士，忠義激勸，多有自願赴陣者，軍中日三傳餐，士無飢色，自雲宮下賜一千兩，自上特下三次三百兩錢，均分武士，三斗米恤其妻孥，曉諭聖恩，軍心歡洽，士卒或有疾病，則以雲峴下送丸藥，分給救療，多有差完者．而仁川三面濱海，一無阻險京師咫尺，海門咽喉，實是重地，本倅奮不顧身，激勵士卒，以破賊爲己任．

초 6일

맑음.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중앙·지방군과 본읍의 군병은 도합 1,000여 명이었으나, 적선이 변경을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군심(軍心)이 단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날 모인 여러 군사들이 각기 적을 격파할 방략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적선을 향해 대포를 발사하고 해안 위에 진(陣)을 침으로써 군사의 위세를 내보인다면, 적들은 반드시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올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여 적과 힘껏 싸운다면, 모두 공을 세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힘껏 싸울 마음이 없다면, 반드시 패배하여 무너질 것이고, 나라의 일이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으며, 너희들 역시 군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중 힘을 다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 적을 물리쳐 나라에 보답하고자 하여, 물러설 뜻이 없는 자는 왼쪽에 서고, 그렇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남기를 바라는 자는 오른쪽에 서라."이에 군사들이 일제히 왼쪽으로 몰려 나와 모두 적과 결전하고자 하니,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분발하려는 기세가 말없이 드러나 군심(軍心)이 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에 임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여, 결국 특별한 전공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원통하고 분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 初六日

晴. 上書雲宮. 京鄕軍及本邑兵, 合爲千餘名, 而賊船壓境, 軍心之齊一, 未可的知. 當日聚集諸軍, 各言破賊之方略. 乃下令曰, 今若向賊船發放大砲, 結陣岸上, 以示軍威, 則賊必下陸矣. 汝等若盡心國事, 與賊力戰, 庶可成功, 而報國恩. 若汝等無意力戰, 必至敗潰, 國事不知何境, 汝等亦不免師律矣. 汝等欲盡力死戰破賊報國, 無退怮之意者, 立於左, 若其不然, 生畏死者, 立於右. 於是衆軍, 一齊趨立於左, 皆願與賊決戰, 奮不顧身之狀, 見於言外, 可知軍心專一, 而臨機制勝, 不得自由, 竟不能成立奇功, 不勝憤歎.

○ 이연귀(李蓮龜), 이균학(李筠鶴) 형제를 장차 대중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군사와 백성을 제물포(濟物浦) 일대에 모두 불러 모아, 목을 베어 기(旗)에 매달았다. 군사들에게 호령하니 비록 첩자가 몰래 숨어 있더라도, 반드시 간담이 내려앉아, 서양 오랑캐를 무찔러 없앨 조짐이 나타날 것이니, 신명과 사람들의 원한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즉시 순영(巡營)에 급히 달려가 알렸다.

○ 蓮龜筠鶴兄弟, 將爲警衆, 故大會軍民於濟物浦頭, 梟首癸【揭】旗. 號令三軍, 雖有奸細之潛伏, 庶應膽落, 殄滅洋夷, 先兆可驗, 夫雪神人之憤, 仍卽馳報于巡營.

○ 삼으로 만든 신발[203] 1,300켤레를 서울 장시의 공인(貢人)이 군중(軍中)에 와서 바쳤다. 그리고 장수는 군사의 수가 많다는 것과 방어가 더욱 견고하다는 것을 내보임으로써, 서울과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삼신 1,050켤레를 추가 징수하였는데, 오히려 사람이 많고 신발이 적다고 슬며시 알리며 신발을 보냈다. 이는 바로 우후(虞詡)가 화덕을 늘린 방법이며,[204] 또한 일종의 군사 기밀이었다.

○ 繩鞋一千三百部, 京市貢人來納軍中, 而將以示士卒之衆多, 防守之益固, 欲鎭京鄕人心, 故更懲一千五十部, 猶以人多鞋少, 諷諭送之, 此是虞詡增竈之法, 而亦一軍機耳.

○ 이모부 이재정(李在靖)은 삼군부(三軍府)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다시 기복(起復)하여[205] 종군하게 되었다. 무릇 사람이 필요한 이 시기에, 사적인 이유로 공적인 일을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가까운 친척 사이라 하더라도, 의심을 무릅쓰고 상달하였다. 계문(啓聞)하니,[206] 제반 군무(軍務)들을 하달하여 차분하게 의논하게 하였다.

○ 姨叔李在靖, 因三軍府草記, 起復從征, 方此用人之時, 不可以私廢公, 故雖切戚間, 冒嫌上達矣. 至於啓聞, 下送凡諸軍務從容商議.

203) 승혜(繩鞋) : 삼이나 모시 따위로 짚신처럼 삼은 신을 뜻한다. 마혜(麻鞋), 망혜(芒鞋)라고도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무커리, 미커리, 미쿠리, 메토리, 메투리 등으로 불린다.
204) 우후증조지법(虞詡增竈之法) : 후한(後漢) 때의 장수 우후(虞詡)가 옛날 손빈(孫臏)의 전법과 반대로 취사하는 아궁이의 수를 늘려 병력이 증강되는 것처럼 위장한 고사를 말한다. 우후는 북방의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병력의 열세에 몰리게 되자 구원병이 온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는 아궁이의 수를 매일 늘려 구원병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205) 기복(起復) : 상(喪)을 당해 휴직 중인 관리를 복상 기간 중에 직무를 보게 하던 제도이다.
206) 계문(啓聞) : 조선시대에 신하가 글로 임금에게 아뢰는 것을 말한다.

초 7일

흐림.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저들의 종선(從船) 1척이 율도에서 다시 올라오므로 우리나라 사선이 저항하였다. 저들이 무치도(無淄島) 앞에 정박한 뒤, 연기와 화염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이것은 배를 불태워 흔적을 없애려는 계책인 듯하다. 비록 우리 배가 불탔지만 이제 이미 저들을 몰아냈으니, 저들이 스스로 그 배를 불태우고 스스로 진멸(殄滅)하려는 조짐인 것이다. 저들의 이범선(二帆船) 1척이 팔미도 멀리 떨어진 바다로 물러가더니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 初七日

陰. 上書雲宮, 彼從船一隻, 自栗島更引, 我國私船之抵, 彼者泊于無淄島前, 烟焰忽起, 似是燒毁滅跡之計, 而本雖我船, 今既拊彼, 則彼之自燒其船, 乃自取殄滅之先兆也. 彼二帆船一隻, 向八尾外洋退去, 杳無踪跡.

○ 미역 270동(同)과 민어 20마리가 사졸들의 반찬거리로 내려와 각 진중에 나누어 주고 일초(日草)[207] 한 궤짝을 특별히 내려 보내왔기 때문에 각 진중의 사졸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한 움큼씩 맛보게 하니, 이것은 곧 옛 사람이 강물에 술을 부어 군사와 함께 마셨다는 뜻과 같은 것이다.

○ 甘藿二百七十同, 民魚二十尾, 以士卒饌需下來, 分給各陣, 日草一櫃, 特爲下送, 故分給各陣與士卒, 共嘗一握, 此乃古人投醪飮河之意也.

207) 일초(日草) : 평양에서 나던 질 좋은 살담배를 말한다.

비.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저들의 배 1척이 먼저 나왔는데, 그것은 차례로 달아나려는 계책인듯하다. 말뚝에 걸린 오랑캐의 서한을 미루어 보건대, 저들은 후속 군병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형세가 고립되고 겁이 나서 달아나려는 것이 분명하였다. 저들이 비록 모두 물러갔지만 어찌 잠시라도 소홀할 수 있겠는가.

이연귀(李蓮龜), 균학(筠鶴)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전답문서를 모두 빼앗고, 그의 어미인 정녀(鄭女)와 두 사람의 아내, 그의 오촌숙(五寸叔) 경팔(景八)이라고 하는 자까지 모두 옥에 가두었다. 경팔의 공초에 "이신규(李身逵)가 살아 있을 때 이미 이재의(李在誼)와[208] 관계를 끊었고 서로 왕래하지 않은 지 지금까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동당지친(同黨至親)인 까닭에 똑같은 형률을 적용하는 것은 죄에 맞지 않은 듯하여 유경지전(惟輕之典)에[209] 의거하여 우선 칼을 씌워 옥에 가두고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정녀의 공초에 "저의 남편 이재겸이 살아 있을 때 사학(邪學) 몇 구절을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잊어버리고 다만 두세 구절을 기억하지만 그것도 매우 분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 初八日

雨. 上書雲宮. 彼船一隻之先出, 似是次第退去之計, 以柵胡書推之, 渠不得募兵, 後援靡恃, 故勢孤生惴而走明矣. 彼雖盡數退去, 豈可造次疎虞也. 蓮龜均【筠】鶴家藏田畓文卷, 盡數籍沒, 其母鄭女與兩漢之妻, 其五寸叔景八爲名漢, 并爲捉囚, 景八招內, 自身逵在時, 已爲絕誼, 不相往來, 于今爲數十年, 以其同黨至親之故, 一體用律, 似不合於罪疑, 惟輕之典, 姑爲枷囚以待處分, 鄭女招內, 渠夫在謙在時, 教以邪學若干句, 今已忘却, 但記二三句云, 而甚不明白, 問其同黨邪類, 則有李秀學爲名漢, 稍有疑端 而今則移寓於安城邑云. 故發送校卒移文該邑, 不日捉致, 而鄭女則待李漢捉來頭質後, 結果次嚴囚陣中.

208) 이재의(李在誼) : 이승훈의 손자이다. 1868년 작은 아버지인 이신규(李身逵)와 함께 처형당했다.
209) 유경지전(惟輕之典) : 죄가 의심스러운 경우 가벼운 쪽으로 다스리는 특전을 말한다.

초 9일

비.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저들의 배가 처음 정박하면서부터 매번 하루에 두 세 차례 징을 치고 북을 울렸다. 지난번에는 이범선(二帆船) 1척이 나간 후 움직임이 없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돌아온 다음부터 다시 전과 같아졌다. 이번에 1척이 나간 후 또다시 들리는 것이 없으니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호를 열고자 하는 것이고 필시 적괴(賊魁)가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 저들의 종선(從船) 10여 척이 큰 배 앞에 나열하여 검붉은 깃발을 나란히 꽂아 놓았는데 마치 진법을 훈련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흩어져서 아무런 움직임 없이 조용해졌는데, 저들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믿을 만하고 일을 아는 한 사람을 보내 물길과 육지의 형편을 두루 살펴보게 한 후에 적을 무찌를 계책을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얼레빗 두 동(同)과 참빗 다섯 동이 운현궁으로부터 내려와 경향(京鄕)의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오랫동안 먼지와 때가 쌓여 있었던 나머지 다투어 머리를 빗으니 머리를 치켜들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군대의 위용을 더욱 새롭게 하였다. 적들이 손바닥 안에 들어왔으니, 죽이거나 사로잡는 것은 매우 쉽게 되었다. 하늘의 현상을 올려다보고 군대의 마음을 살피며 운현궁의 지시를 오래도록 기다리며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 初九日

雨. 上書雲宮. 彼船自初留碇, 每於船上擊鑼鳴鼓, 日二三次, 向日二帆一隻, 出去之後, 寂然無聞, 及其還來, 更復如前, 今番一隻出去後, 又復無聞, 彼之此擧, 如我國之開閉門樣, 想必賊魁出去, 故不爲作用耳. 彼從船十餘隻, 擺列於大船前, 列植紅黑旗, 似鍊陣狀, 少頃掇罷仍無動靜, 想必渠之作戱耳. 親信知事一人, 命送周察水陸形便後, 設計破賊之意, 上書雲宮.

月梳二同, 直梳五同, 自雲宮下來, 分給京鄕軍士卒, 久蒙塵垢之餘, 爭先櫛髮, 其擡頭歡洽之狀, 軍容倍新, 賊入掌中, 殺擒甚易, 仰見天象, 俯察軍心, 深待雲宮指敎, 夙夜不寐.

초 10 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에 맑음. 저들의 삼범선(三帆船) 2척이 연이어 대포를 30여 차례 쏘았는데, 대포 소리는 땅을 울리고, 연기와 불길은 하늘에 가득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눌려있던 기운을 풀어내는 듯하며, 화약을 숨겨두었다가 화약을 숨겨두었다 터뜨린 듯하다. 군병들의 마음이 아직 다스려지지 않았으나 전장에서 장수된 자는 어려움을 같이 하는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군사를 거느리고 무기를 정비하여 제물포로 출진하여 각 진영에서 서로 호응하여 협력하도록 하였다. 잠시 대포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장천현(長川峴)으로[210] 군대를 돌아가게 하였다. 이날 모습은 갑자기 대포 소리를 듣자 군중(軍中)에서 모두 이르기를 적들이 이미 육지에 내렸다며 사졸들이 앞다투어 나갔는데, 겁이 나서 물러나려는 모습은 조금도 없었다. 이것으로 군병들의 마음이 하나로 정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대원군께로부터 적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얻지 못하여 매우 답답하였다.

○ 初十日

朝陰晩晴. 彼三帆二隻, 連放大砲三十餘次, 砲響震地, 烟焰漲天, 似是久陰之餘解去, 藏藥而然矣. 軍心未經, 戰場爲將者, 不可不示以同難之意, 故領率武士, 整其器械, 出陣濟物津, 策應各陣, 少頃待砲聲已息, 還軍長川峴. 此日景色, 猝然聞砲, 軍中皆謂賊已下陸, 而士卒爭先前進, 少無退惙之狀, 於此可見, 軍心之齊一, 而未承雲宮攻賊之敎, 悶菀悶苑.

210) 장천현(長川峴) : 지금의 인천광역시 숭의동에 있던 지명이다. 숭의동은 조선시대 인천부 다소면(多所面)에 속해 장천리(長川里)로 불렸다.

11 일

흐리고 가랑비. 대원군께서 하교하기를 반드시 급수로(汲水路)에 정병을 매복시켜 적들을 공격하라고 하였다. 본 고을의 군대 형편이 매우 허약하기 때문에 산읍(山邑) 포군(砲軍) 1백 명과 추가로 잠수군(潛水軍) 수십명을 요청하여 모두 확보한 뒤 장차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조치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었다.

○ 十一日

陰霏. 雲宮下書. 必於汲水路埋伏精兵, 射殪彼賊爲教. 因以本邑軍勢, 甚爲單弱, 故山邑砲軍限數百人, 更爲請得潛水軍數十名, 并爲請得, 將有施用處, 而寧其坐待, 莫如先施故也.

비. 순영에서 대원군의 분부에 따라 1천 냥을 내려주어 군수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각 섬에 있는 우물에 독을 넣고 막아버리고, 섬사람들에게 명하여 섬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는데, 본 고을에는 특별히 우물을 막을 것이 없었다. 저들의 배는 처음부터 가까운 곳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매복하여 기회를 기다려 진멸시키려고 계획하였다.

○ 十二日

雨. 自巡營因雲宮分付, 劃下一千兩, 以備軍需. 各島井泉, 夷塞置毒, 其人家幷令, 搬出之教, 而本邑別無井泉之可塞. 彼船自初, 一不近境, 故只爲埋伏, 以待其機, 射殪爲計.

○ 대령집사(待令執事) 한세현(韓世顯)이 운현궁의 분부로 인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군사기밀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교를 전달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저들의 배 1척이 팔미도 바깥 바다에서 곧바로 위로 올라와 저들의 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다시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한세현에게 명하여 제물포에 가서 몰래 살펴보게 하고, 수륙(水陸)의 형편과 적을 무찌를 계책을 상세히 알리도록 하였다.

○ 待令執事韓世顯, 因雲宮分付下來, 此人嫺熟軍機, 故命送爲教. 彼從船一隻, 自八尾外洋, 上來直到, 彼船留處, 而更無動靜. 領韓世顯, 覘賊於濟物, 詳諭水陸形便, 及破賊之策.

13 일

비. 홑옷과 홑바지 각 1천 벌이 대원군께로부터 내려와 그것을 경향의 군졸에게 나누어 주었다. 날씨가 덥고 축축한데 수자리 서는 군졸의 의복이 시기에 맞지 않아 보기에 매우 안타까웠는데, 은혜로운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 모든 군사들이 감동하였다. 집사 한세현이 서울로 올라가 대원군께 미친 적들을 섬멸하여 사람들의 울분을 모두 설욕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리고 다시 방략을 아뢰기를 "인천과 서울은 몇 사(舍)[211]의 거리에 있고, 수로는 목구멍과 같아 경기도를 보호하는 곳이므로 낙양(洛陽)의 이수(伊水)와 낙수(洛水), 관중(關中)의 경수(涇水)와 위수(渭水)에 해당됩니다. 저들의 배가 오랫동안 가까운 바다에 머물면서 싸우지도 물러나지도 않으니 그 간계함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정박해 있으면서 바닷길을 가로막으면 세곡을 실은 조운선들이 어떻게 서울로 모여들 수 있겠습니까? 군량을 육지로 운송하는 것 또한 장차 도로에서 분주함에 피로하여 앉아서 곤란함을 당하게 되는 것은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 더불어 싸우지 않아도 스스로 곤란해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떻게 적을 토벌하고 의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물에서 유리한 자는 불에서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도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화공(火攻)에 있습니다. 저들의 배가 머물러 있는 곳은 비록 가까운 바다라고 하지만 조수가 가장 낮을 때는 물길 넓이가 5~6리에 불과합니다. 미리 삼줄로 배 30~40척을 연결해 두고, 모든 배들 위에는 마른 장작과 화약을 많이 싣고 하류를 가로막습니다. 상류에는 네 다섯 겹으로 배치하고 진무영에서는 각 배와 뗏목을 5~7척씩 묶어 대(隊)로 삼고, 100여 부(部)를 굵은 줄로 연결하여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을 가득 싣습니다. 이후 안개로 보이지 않을 때를 틈타거나 혹은 밤이 되어 캄캄해졌을 때 조수가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흐르는 것을 따라 내려갑니다. 저들의 배가 조금 가까워지면 잠수군으로 하여금 일시에 불을 붙이고,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뒤따르게 한 후에 군대의 위세를 돕게 하면, 저들은 반드시 흩어 사라져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놀라 겁이 나서 물러간다면 형세는 장차 하류에 머물게 되어 연결된 배의 형국은 마치 상산(常山)의[212] 뱀처럼 머리와 꼬리가 함께 이르고, 저들은 마치 촉번의 양처럼[213]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각 배 위에 몰래 잠복하였다가 잠수군이 불을 놓고 곧바로 물에 들어가게 하고 사방

211) 사(舍) : 30리. 군대가 하루에 걷는 거리를 말한다.
212) 상산(常山) : 수미(首尾)가 상응한다는 전설상의 뱀인 솔연(率然)이 사는 곳을 가리킨다.
213) 촉번의 양처럼 : 숫양이 무엇이든지 뿔로 받기를 좋아하여 앞머리를 받다가 뿔이 걸려 꼼짝도 못한다는 뜻으로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의 가까운 모든 섬에서 미리 화포를 매복시켰다가 동시에 발사하고 불화살을 요란하게 쏘며, 각 진에서 전함을 징발하여 수군으로 위와 아래에서 서로 호응하면, 적이 비록 포를 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시행할 수 없고, 손을 댈 겨를이 없어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저들의 배에 실린 것은 모두 불에 타는 것이어서 안팎으로 불이 붙으면 불을 땐 화로가 털을 태우는 것과 같고, 천둥번개가 계란을 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연환계(連環計)와[214] 더불어 서로 몰래 합쳐지는 것으로 혹시라도 패배한 적의 남은 자들이 도망하여 육지에 내린다면 해안을 따라 매복한 정예병이 쏘아 죽이거나 포로로 사로잡아 남은 무리가 거의 없게 되면 적은 반드시 혼비백산하고 낙담하여 감히 다시 일을 도모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양의 범선은 감히 동해의 가까운 곳에 오지 못하고, 국가의 안전은 반석에 있는 것과 같게 되어 반드시 서쪽을 돌아보고 근심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무릇 만전의 계책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대략입니다. 기미(機微)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낱낱이 거론하여 말할 수 없고, 앞으로의 방략은 이미 자세하게 상달(上達)하였으니, 삼가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 十三日

雨. 單衫單袴各千件, 自雲宮下來, 分給京鄕軍卒. 日氣熏熱, 戍卒衣不及時, 見甚悶然, 恩意至此, 一軍風動. 執事韓世顯上京, 上書雲宮, 以殄滅狂寇, 共雪輿憤之意, 再上方略曰, 仁川距京師, 數舍之地, 水路咽喉, 畿甸保障, 卽是東都之伊洛, 關中之涇渭, 彼船之久留內洋, 不戰不退, 其奸計有難測度, 若一向留碇, 橫截海路, 則公穀漕運, 何由輻湊於都下, 軍餉轉輸, 亦將奔疲於道路, 坐受其困, 不待智者, 而知與不戰而自困, 曷若討賊而伸義, 竊伏聞利於水者, 不利於火, 制勝此寇, 惟在火攻, 彼船所住處, 雖云內洋, 潮減則其廣不過五六里, 預以大麻索, 結船三四十隻, 每船上多載乾柴火藥, 橫截下流, 四五匝上流, 則自鎭撫營, 每船筏以五七爲隊, 百餘部亦以大索連結, 滿載引火之物, 或乘霧暗, 或因夜黑, 待潮方退, 順流而下, 較近彼船, 使潛水軍, 一時發火, 鼓譟從後, 以助軍威, 彼必糜爛無遺矣. 彼若驚惝而退下, 則勢將絓住於下流, 連船勢如常山之蛇, 首尾俱至, 彼若觸藩之羊, 進退維谷, 每船上暗伏, 潛水軍衝火而即入水, 四近諸島, 預埋火砲, 同時發放, 亂射火箭, 徵發各鎭戰艦, 以舟師上下接應, 彼雖有砲技, 無有所施, 措手不及, 焚溺無餘矣. 況彼船所載, 無非引火之物, 表裡着火, 如烘爐之燎毛, 雷霆之擊卵, 此與連環計, 相反而暗合, 如或敗殘之夷, 逃生下陸, 則沿海岸伏精兵, 射殪俘虜, 殆無遺類, 則彼必魂驚膽落, 不敢更擧, 西洋船帆, 不敢近於東海, 而國家安如盤石, 必無西顧之憂矣. 庶可爲萬全之策, 此其大略也. 隨機應變, 不可以枚擧, 而向時方略已爲詳達, 伏俟處分.

214) 연환계(連環計): 적진에 간첩을 보내 계교를 꾸미게 하고, 그 사이에 자신은 승리를 거두는 책략.

흐리고 보슬비. 순천, 성천, 자산 세 고을의 포수 69명을 진중에 나가게 하였고, 자산군의 군사들은 최난헌(崔蘭軒)을[215] 잡아 죽일 때 공을 세운, 기예가 매우 날래고 용맹스러운 자들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곳에 매복시켜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해 대비하도록 하였다. 싸움터로 나온 이후 사졸들과 함께 고락을 함께하여 앉을 때나 누울 때 초막에서 지냈으며, 하룻밤도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군막에서 물이 새어 나와 의복을 적시는 것은 고되게 여기지도 않았고, 여러 군사들을 재우고 먹이며 호궤하는 것들은 반드시 직접 순시하며 살펴보았다. 이렇게 하는 중 여러 날 비가 내려 장습(瘴濕)의[216] 기운이 밤이 되면 더욱 심해져 장수와 교리.군졸이 모두 나와 엎드려 인근 마을에서 하룻밤을 편히 잘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윗사람을 향한 뜻이 매우 가상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위무하기를 "너희들이 노처에서 장염(瘴炎)의 습한 곳에 있는데 내가 어찌 여사(廬舍)에서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질병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으니 깊이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만약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 큰 공을 세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면 매우 다행이다."라고 하였다. 시종여일 이와 같이 하자 군대의 마음 또한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다. 이에 분부하여 말하기를 "오래지 않아 적들은 도주할 것이지만 기계가 준비되지 않아 적들을 무찌를 수 없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하였으나 군사들은 모두 믿지 않았는데, 마침 경험한 것이 있었다.

○ 十四日

陰而霏. 順川 成川 慈山 三邑砲手六十九名赴陣, 而慈山軍乃立功於崔蘭軒受戮之時, 技藝精銳者也. 埋伏重地, 以備不虞, 自出陣之後, 與士卒同甘苦, 晝宵坐臥於草幕之中, 未常一夜安息, 軍幕滲漏, 至於衣衿沾濕, 而不以爲苦, 諸軍之眠食, 犒饋等節, 必親自巡視, 至是多日, 雨注瘴濕之氣, 入夜尤甚, 將吏軍卒, 齊進俯伏, 以一夜安寢於隣近村舍, 千萬懇乞, 其向上之意, 甚爲嘉尙, 故以好言慰撫, 汝等露處, 瘴炎雨濕之中, 吾何忍安息於盧舍乎. 萬無生病之理, 不可深慮, 汝等若無事安居, 成立大功, 以報國恩則萬幸, 終是如一, 軍心亦恃爲固. 乃分付曰, 非久賊當逃走, 器械未備, 不能破賊, 以是恨之, 軍皆不

215) 최난헌(崔蘭軒) : 영국 선교사 토마스(Thomas, Robert Jermain, 1840~1866)의 중국식 이름. 흥선대원군의 박해로 중국에 망명해 있던 김자평 등 천주교도와 만나 조선 전교를 결심하고, 그해 백령도에 상륙하여 2개월을 지내다가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 다시 미국 상선 셔먼호에 편승하여 평양에 왔다가 미국 상인들과 함께 살해당하였다.

216) 장습(瘴濕) : 더운 지방에서 생기는 독하고 습한 기운을 말한다. 물이나 음식 등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발생시키며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信矣, 適有驗焉.

○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군이 명을 받을 때 군왕은 정전에 거하며 불러서 말하기를 '지금 어떤 지역의 도적이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니, 원하건대 번거롭더라도 장군이 이를 대응하라. 사직(社稷)의 안위 역시 장군에게 달려 있다.'라고 한다. 이에 태사씨(太史氏)로 하여금 길일을 택하도록 하고 부월(鈇鉞)을 수여한다. 군주는 태묘에 들어가 서쪽을 향하여 서고, 군왕은 도끼의 머리를 잡아 들고 자루를 주며 이르기를 '이제부터 위로 하늘에 이르기까지 장군이 이를 제압하라.'라고 말한다. 다시 도끼의 자루를 잡고 날을 주면서 이르기를 '이제부터 아래로 땅에 이르기까지 장군이 제압하라.'라고 한다. 장군은 명령을 받고 나서 절을 하며 대답하기를 '신이 듣기로 나라는 밖으로부터 다스려서는 안되고, 군무는 안으로부터 제어하면 안되고, 두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서는 안되고, 의심을 품은 마음으로 적에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신이 이미 명령을 받았고, 부월의 위력을 주재하게 되었으니, 신은 감히 살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작별을 고하고 나서 흉문(凶門)을 뚫고 나간다. 이로써 장군은 출정할 때 처자식에 대해 묻지 않는 것은 나라를 위해 반드시 죽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왕이 장군을 임명할 때 감히 그 예(禮)를 가벼이 하지 않는 것은 장수를 임용하면서 존숭하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군왕의 명령을 받지 않은 것이면 오직 국가를 편안하고 이롭게 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힘쓰는 것이고, 선비에게 결백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으므로 장군이 간언을 거부하면 영웅이 돌아서고, 좋은 계책을 따르지 않으면 모사(謀士)가 떠나가며, 잘하고 잘못한 자를 똑같이 대하면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섞이며, 상벌이 공평하지 않으면 기강이 흩어진다. 너무 기뻐하면 위엄이 없고, 자주 성내면 인심이 멀어지고, 말이 많으면 기밀이 새어나가고, 모두 좋다고 하면 지혜가 미혹된다. 너그러우면 무리가 나태해지고, 사나우면 무리가 원망한다. 장군이 구너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아랫사람들이 미워하고, 장군이 자기를 자랑하면 아랫사람은 공이 없어지며, 장군이 참소를 받아들이면 바른 사람이 떠나가고, 장군이 사사로이 뇌물을 받으면 사졸들이 도둑이 되며, 장군이 집안일만 돌보면 사졸들이 방탕해진다. 재화를 천하게 여기고 여색을 뿌리치는 것은 스스로 결백하기 위함이고, 혐의를 피하고 의심을 멀리하는 것은 스스로 억제하기 위함이며, 기회를 깊이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기 위함이며, 때에 맞춰 변화를 순응하는 것은 공을 세우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독실하게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며, 착한 것을 받아들이고 참소하는 것을 내침은 멀리 있는 자를 오게 하려는 것이고, 먼저 헤아려보고 나중에 행동하는 하는 것은 갑작스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먼저 믿고 나중에 견해를 말하는 것은 부

하가 믿고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형벌을 분명하게 하고 반드시 상을 주는 것은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고, 지금 일을 밝혀 옛 일을 거울로 삼는 것은 무리의 행동을 비춰보기 위함이고, 여색을 천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목숨을 끝까지 보장하기 위함이며,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적인 일을 따르는 것은 나라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 정신은 바르게 하고자 하고, 그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자 하며, 움직이면 바람과 같이 하려 하고, 멈추는 것은 구릉(丘陵)과 같이 하고자 하며, 싸울 때는 천둥과 번개처럼 하고자 하고, 기미를 살필 때는 귀신같이 하고자 하며, 생각할 때는 그림자를 비추는 것처럼 하고자 하고, 명령은 눈과 서리처럼 하고자 하니, 진실로 이러한 것을 가진 자라면 나라의 큰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217] 하였다.

○ 叔父曰, 大將受命之時, 君王居正殿召之曰, 今某地盜賊不臣, 願煩將軍應之, 社稷安危, 亦在將軍, 乃使太史氏擇吉日, 將授之斧鉞, 君主入太廟西面而立, 君王操鉞持其首授之柄曰, 從是以上至天者, 將軍制之, 復操其柄授之以刃曰, 從是以下至地者, 將軍制之, 將既授命, 拜而報曰, 臣聞國不可以從外, 理軍不可以從中御, 二心不可以事君, 疑心不可以應敵, 臣既受命, 專斧鉞之威, 臣不敢以生還乃辭, 而行鑿凶門而出, 是以將之行也, 不問妻子, 示其必殉於國, 君之命將不敢輕其禮, 示其崇於用將之於外, 君命有所不受, 唯逐便利國家, 是務其於己也, 潔其於士也. 至是故將拒諫, 則英雄返, 良策不從, 則謀者去, 善惡等則賢愚混, 賞罰亂則網紀散, 多喜則不威, 多怒則人心離, 多言則機洩, 多好則智惑, 寬則衆懈, 暴則衆怨, 將專權則下有咎, 將自善則下無功, 將納讒則正人離, 將納私則士卒盜, 將內顧則士卒淫, 賤貨揮色, 所以自潔, 避嫌遠疑, 所以自持, 沈機遠慮, 所以不失, 委時順變, 所以建功, 恕物篤行, 所以歸愛, 聽善斥讒, 所以來遠, 先度後作, 所以應卒, 先信後言, 所以伏下, 一刑必賞, 所以正人, 明今鑑古, 所以照衆, 卑色貴人, 所以保終, 去私徇公, 所以存國, 其神欲正, 其形欲端, 動欲如風, 止欲如丘陵, 鬪欲如雷霆, 機欲如鬼神, 思欲如照影, 令欲如霜雪, 苟有此者, 可以當國之大命矣.

217) 장군이 명을 받을 때……감당할 수 있다 : 중국 고대 병서의 하나인 『호검경(虎鈐經)』「출장편(出將篇)」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다. 『호검경』은 특히 장군의 역할을 중요시하였고,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사(人事)의 삼재(三才) 조화를 강조하였다.

흐리고 비.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적들이 닻을 들어 올리려는 기미가 있었다. 이수학(李秀學)을 체포해 왔으나 밤이 깊어 문초할 수 없어서 진중에 엄중하게 가두었다. 사학죄인 두 사내와 한 여자를 경포교(京捕校)가[218] 부평에서 잡아와서 본진에 압송해 보냈기 때문에 진중에 엄중하게 가두고 정형(正刑)의 처분을 기다렸다.

○ 十五日

陰而霏 上書于雲宮 賊有擧碇之機 捉致李秀學 以夜深不得問招 嚴囚陣中 邪學罪人二漢一女 京捕校捉得於富平 押赴本陣 故嚴囚陣中 待處分正刑.

○ 내가 묻기를 "어떻게 적들이 닻을 올리려는 뜻을 알았습니까?"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사는 음이다. 음의 덕은 허로서 허를 삼고, 형체에서 반응한다. 달이라는 것은 태음이 정기(精氣)인데 삭망이 일정하지 않음이 어찌된 것이냐? 대개 허로써 말미암아 변화하게 된다. 병사라는 것은 원래 음과 같은 종류이기에 그 기미는 마땅히 일정하며 허가 있으므로 변하는 것이 법칙을 이루어 달은 허로써 능히 변할 수 있으니, 적의 움직임에 대응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보아라. 하늘의 바람과 구름과 별을 보면 길흉이 응하고 있는 것은 하늘이 장차 사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 길한 상을 얻어 그것을 믿을 수 없어도 믿는 것은 흉하며, 그 흉한 상을 얻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날카로운 기운이 흩어져 없어져 오랑캐를 대적하는 그 마음이 그 정사를 삼가게 한다. 진실로 하늘에 나타난 길흉의 현상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기미를 비워서 하늘에 응하는 것이다. 땅의 산과 물, 험하고 평탄한 것을 보면 생사와 존망의 길이 있는 것은 땅이 사람에게 모두 이롭게 한다. 용병을 잘하는 것은 땅에 달려있다. 생사존망이 없으나 적과 우리의 형세를 보고 거취의 정황이 어떻게 이와 같은지 살펴본 후에 그 사정에 따라 그것을 사용한다. 진실로 지리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 기미를 비워서 땅에 응하는 것이다. 강약과 이해를 보면 승패의 사정이 있음은 일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진실로 변화가 일에 합당하면 일은 시기에 합당하고 시기는 이치에 합당하게 되어 강약도 없고 이해도 없으면 패하는 형세가 이기는 형세가 될 수 있고, 이기는 형세가 패하는 형세가 될 수 있다. 진실로 인사의 승패를 잡

218) 경포교(京捕校) : 조선시대 서울의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 소속된 군관(軍官)으로, 경포(京捕) 또는 경교(京校)라고도 하였다.

지 않는 것은 그 기미를 비워 사람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 싸우는 사람은 흉을 섞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길한 것을 섞어서 굳세게 할 수 있으며, 길흉을 서로 섞어서 사용하는 데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위험한 것을 섞으면 일이 평탄해지고, 평탄한 것에서 험해지면 일이 온전해지며, 이로움에 섞여 적이 그 해로움을 보게 하고, 해로움에 섞여 적이 이로움을 무너뜨리니, 이로움과 해로움이 교차된 상황에서도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다. 험지와 평지를 교차하여 배치하고, 항상 유리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지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병법을 운용하면 하늘, 땅, 사람의 변화를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부터 병법은 굽히는 것과 펴는 것, 이로움과 해로움을 나누어 밝히는 것으로 대개 곧게 가리키고, 그 겉모습은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이른바 한 때의 기미는 하늘에 있고, 길흉은 땅에 있으며, 위험과 평탄함은 사람에게 있음을 아는 것은 헤아리고 생각함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余問, 何以知賊擧碇之意. 叔父答曰, 兵者陰也, 陰之德以虛爲虛, 而應於體也. 月者太陰之精氣也, 朔望不常何也, 盖由以虛爲變也. 兵者旣陰類, 則其機宜常虛含變以法, 月能以虛含變, 應敵動必利矣. 觀乎天之風雲星辰, 有吉凶之應者, 天將覺於人也. 得其吉象, 不可恃之, 恃之者凶, 得其凶象, 不可懼之懼之, 則銳氣銷亡, 當夷其心, 謹其政事也. 苟不知天象之吉凶者, 是虛其機而應天者也. 觀乎地之山川險易, 有生死存亡之途者, 地盡利於人也, 善用兵者於地也. 無生死存亡, 觀彼我之勢, 察去就之情, 何如爾然後, 乃順其事, 而用之也. 苟不執地理之險易, 是虛其機, 以應地者也. 觀乎强弱利害, 有勝敗之情者, 事皆係於人也. 苟以變合於事, 事合于時, 時合於理者, 無强弱無利害, 則敗勢可以爲勝, 勝勢可以爲敗也. 苟不執人事之勝敗者, 是虛其機以應人者也. 是故善戰者, 雜於凶而難可釋, 雜於吉而勢可壯, 吉凶交雜, 而能不惑於用者, 此可以上不畏天矣. 雜於險而事易, 險於易而事全, 險易交雜, 而能常處其便者, 此可以下不畏地矣. 雜於利而敵見其害, 雜於害而我敗其利, 利害交雜, 而能不屈於敵者, 此可以中不畏人矣. 知此三者而用兵, 其盡三才之變乎. 自古兵法, 其間明屈伸利害者, 盖以直指, 其形貌者爾, 所謂能審一時之機者, 其在天也. 有吉凶, 其在地也, 有險易, 在人也, 有料度矣.

○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병의 도는 먼저 그 예를 바르게 하고, 다음에 그 계획을 깊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다. 그 후에 하늘과 땅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자세히 알고 인심의 거취를 살펴 진실로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기쁨과 노여움의 이치를 신중하게 하고 나아가고 물러설 곳을 택하고, 공격하여 토벌할 기세

를 확장하고 성패의 계획을 분명하게 하며 주객(主客)의 쓰임을 헤아리면 능히 사람의 생명을 아낄 수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목숨을 버리고 죽는 곳으로 달려가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몸을 사랑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희생하여 어려움을 무릅쓰게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낮추어 가까이 하게 한 연후에 친근히 할 수 있고, 먼저 적에게 승리하여 적에게 나아간 연후에 그들을 이긴다. 그러므로 용병은 반드시 비축된 군량을 근본으로 삼고, 모략을 무기로 삼고, 강하고 용감한 것을 등용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대비하고, 봉록과 벼슬로 권유하며, 목을 베어 죽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게 하고, 강하고 약한 것을 서로 돕고, 용맹과 두려움을 갈마들게 하고, 앞뒤로 서로 따르며, 좌우로 서로 나아가고, 멀고 가까움을 서로 도우며, 이로움과 불리함에 서로 맞서고, 보병과 기병으로 서로 이어가며, 장점과 단점을 서로 들어준다. 적이 진영을 튼튼히 하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때 돌격하고, 적이 곧바로 돌진하려 하면 우리는 공격해 오는 것에 따라 준비를 하고, 적은 무리로 치는 것을 반드시 먼저 공격하며, 그 변동하는 것을 반드시 먼저 치므로 얄팍한 것은 돌격할 수 있고, 기다란 것은 끊을 수 있고, 어지러운 것은 헷갈리게 할 수 있고, 의심하는 것은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대저 군대를 다스리는 것이다. 애쓰게 하는 것은 일을 시킴에 법도가 없음에 있고, 원망은 상이 고르지 못한 것에 있고, 약함은 가난함을 핍박함에 있고, 다하게 되는 것은 땅을 끊는 것에 있고, 나뉘게 되는 것은 장수가 도리를 잃어버리는 것에 있고, 두려워함은 장수가 용맹함이 없는 것에 있고, 굶주림은 멀리 옮겨가는 수레에 있고, 목마름은 우물이 말라버린 것에 있으니 군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즐거움은 편안함에 있고, 이로움은 상벌에 있고,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군사의 점검을 바르게 하는데 있으며, 공적을 이루는 것은 전진(戰陣)에 있으니,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하는 것이 전진의 방법이다. 군대가 전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있으니 사는 것은 따르되 죽음에 부딪치고, 진실된 것은 따르되 헛된 것은 쳐부수고, 정돈된 것은 따르되 어지러운 것은 물리치고, 이로운 것은 따르되 해로운 것은 꺼려하고, 편안한 것은 따르되 수고로운 것은 쳐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따르되 곤궁한 것은 물리쳐야 한다. 산과 언덕에서 전투할 때 높은 곳을 바라보는 곳은 안되고, 깊은 곳에 있어서도 안되며, 좁은 곳에 맞닥뜨려도 안되고, 멀리 떨어져서도 안된다. 물위에서 전투할 때는 바람부는 것과 어긋나서는 안되고, 역류해서도 안된다. 숲속에서 전투할 때는 측면을 연결해서는 안되고, 서로 어긋나서도 안된다. 풀 위에서 전투할 때는 깊은 곳을 건너서는 안된다. 평평한 곳에서 전투할 때는 멀리 떨어지면 안되니. 이것은 땅의 이로움이다. 군대에서 금지하는 것인데, 절제하지 않고 말하면 도모하는 것이 것이 반드시 누설되고, 명령을 준엄하게 하지 않으면 행동이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상급을 시행하지 않으면 병사가 반드시 태만

해지고, 항오(行伍)가 문란해짐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분명하게 살펴서 바르게 하고, 그믐밤에 놀라고 두려워하니 정숙하게 독려하여 엄중하게 해야한다. 이로써 진중이 엄정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군대를 드러내는 것이고, 군리(軍吏)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장수를 드러내는 것이다. 군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장수가 존재하는 바이니 지혜롭지 아니하면 누가 이와 같이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모든 군사가 엎드려 절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 叔父曰, 用兵之道, 先正其禮, 次淵其謀, 次擇其人. 然後詳天地之利害, 審人心之去就, 質賞罰之公, 愼喜怒之理, 擇進退之地, 張攻伐之勢, 明成敗之圖, 度主客之用, 能愛人之生者, 可使人舍生而赴死, 能親人之身者, 能使人捐身以犯難. 是故先親於人俾人 然後親之, 先勝於敵就敵, 然後勝之. 故用兵必糧儲爲本, 謀略爲器, 强勇爲用, 鋒刃爲備, 祿位爲誘, 斬殺爲畏, 强弱相授, 勇怯相間, 前後相趁, 左右相赴, 遠近相取, 利耗相敵, 步騎相承, 長短相用, 敵欲堅陣, 我以突其不意, 敵欲直衝, 我備其所從來攻, 必先攻其所寡擊, 必先擊其所動, 薄者可突, 長者可截, 亂者可惑, 疑者可協. 夫軍之爲政也, 勞在乎役無度, 怨在乎賞不均, 弱在乎逼迫窮, 在乎絕地離, 在乎將失道, 懼在乎將無勇, 饑在乎遠輸, 渴在乎窮井. 軍之爲逸也, 樂在乎安靖, 利在乎賞罰, 當其死在乎軍檢正, 成其功在乎戰陣, 詳如此者, 戰陣之術也. 軍之卽於戰陣也, 從生擊死, 從實擊虛, 從整擊亂, 從利擊害, 從逸擊勞, 從有窮擊困窮, 山陵之戰, 不仰高, 不臨深, 不衝隘, 不遠絕. 水上之戰, 不違風, 不逆流. 林中之戰, 不連翼, 不相馳. 草上之戰, 不涉深. 平陸之戰, 不遠離, 此地之利也. 軍之禁也, 不節語謀必泄, 不峻令行必亂, 不行賞士必怠, 行伍紊亂, 由於暗昧, 在明察以正之, 晦夜驚恐, 在肅厲以嚴之, 是以知陣之嚴整, 軍之表也. 軍吏畏愛將之表也. 軍之所親將之所存, 非智者, 孰與此乎. 諸軍皆拜伏受教矣.

16 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에 맑음. 저들의 배 6척이 한꺼번에 닻을 올리고 팔미도 바깥 바다를 향해 나갔다. 이 오랑캐들의 왕래가 섬광처럼 홀연하니 잠시도 물러나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진에 명을 내려 단속하기를 적이 있을 때와 같이 하였다. 적의 동정을 정찰하는 배를 팔미도 밖으로 보내 적의 사정을 자세히 살피게 하였다.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개천(价川)의[219] 포수 17명이 내려왔다. 이수학을 문초하여 죄를 자백하게 하고, 엄중하게 형벌을 내렸는데 그 말한 것이 명백하였다. 정씨 여인은 대면하여 심문해보니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 죄인들은 실정을 알고 있어 소홀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경포교(京捕校)로 하여금 고문을 가하도록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결단코 죄가 없다고 하였고, 경팔(景八)이 그의 초사(招辭)에서 한결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또한 한 고을의 공론이 모두 죄가 없다고 하였다. 연귀(蓮龜)와 균학(筠鶴) 두 사내의 아내와 정씨 여인의 요망하고 악함 때문에 시댁에서 받아주지 않아 본가에 돌아가 있다가 변고를 듣고 왔다고 하였으니 범한 죄가 없음은 묻지 않고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뜻을 대원군께 글로 올렸다.

○ 十六日

朝陰晩晴. 彼船六隻, 一時擧碇, 向八尾外洋出去. 此夷之往來閃忽, 不可以暫退釋慮, 故傳令各陣, 益加團束, 如賊在時. 送巡哨船, 于八尾外, 詳探賊情. 上書于雲宮. 价川砲手十七名下來. 李秀學取招, 嚴刑之下, 言辭明白, 與鄭女面質, 可知其無罪, 而此罪人得情, 不可疎忽, 故使京捕校窮刑, 而皆曰, 斷斷無罪, 景八渠之招辭, 一向明白, 且一邑公論, 皆曰無罪, 蓮龜筠鶴兩漢之妻, 以鄭女之妖惡, 不容於舅家, 歸在本家, 聞變而來云, 其無犯罪, 不問可知, 以此意上書雲宮.

○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적들이 비록 물러가 숨었지만 장수와 병사들은 게으르게 한가한 시간을 가지면 안된다." 하였다. 마침내 진을 펼쳐 전투를 가르치고 각 50명씩 대(隊)를 편성하여 진영을 정비하고, 깃발을 모아 훈련장으로 이동하였다. 좌우 측면은 각 대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깃발을 풀어 대별로 세우되 서로의 거리가 각 열 걸음이 되도록 펼쳤으며, 대열이 고르게 진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앞의 대와 거리는 20걸음씩 늘어서 펼치게 하였다. 모든 영에서 10명의 장수가 일제히 대장(大將)의 처소로 나아가 지시를 받았다. 각 대 사이에 간격을 두어 한 개의 전대(戰隊)로 정해 곧바로 앞으로 나가 30걸음씩 전진하게 하였다.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 첫 번째 소리

219) 개천(价川) : 조선시대 평안도에 있던 개천군(价川郡)을 가리킨다.

에 모든 대가 일시에 흩어져 서고, 두 번째 소리에 모든 진에서 일시에 창을 누르고, 활을 당기고, 깃발을 들고, 칼을 뽑아들며, 세 번째 소리에 모든 대에서 일시에 창을 들며, 네 번째 소리에는 모든 대가 일시에 무릎을 꿇고 창을 가지고 앉아 대장이 있는 곳의 대황기(大黃旗)를 바라본다. 북소리가 들리면 노란 깃발을 앞을 향하고, 두 번째 북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전진한다. 중간에 이르러 일시에 함께 소리지르며, 적을 공격한다. 적이 패하여 물러나면 쫓아가 30보까지 갈 수 있다. 적들이 죽고 패하는 것을 살펴 알아서 마군(馬軍)이 뒤를 쫓아 달아나는 것을 물리친다. 징소리를 들으면 이동할 것이니 모름지기 듣는 즉시 앞으로 간다. 어깨에 창을 걸치고 옆으로 얼굴을 돌리되 몸은 원래 있던 곳에 흩어져 선다. 첫 번째 소리가 끊어지면 일시에 창을 누르고 곧바로 깃발을 펼치며, 두 번째 소리가 끊어지면 일시에 창을 들고, 세 번째 소리가 끊어지면 일시에 일대가 서서 깃발을 보며, 대장이 있는 곳의 두 깃발은 교차한다. 다섯 개의 대가 합쳐져 1대를 이루니, 이것은 250명이 1대가 되는 것이다. 이 대법(隊法)과 깃발을 거두고 창을 들며 대를 모으는 전투법은 모두 앞서와 같이 대장이 있는 곳의 다섯 깃발을 한 번 보고 즉시 10대를 합쳐 한 대가 되는 것이니, 500명을 합쳐 일대(一隊)를 만드는 것이다. 이 대법과 깃발을 들고 창을 들며 대를 모으는 전투법은 앞서와 같이 첫 번째 뿔나팔 소리가 끊어지면 곧 흩어지고, 250명으로 일대를 이루는 것은 이와 같다. 무릇 3차례를 반복 후 가르치는 것을 마쳤다. 10명의 장수가 일시에 모이니 대장이 나아가고 정지하는 것에 대하여 상과 벌을 내렸다. 세 번째 뿔나팔 소리가 끊기니 교관이 인솔하여 부대를 회군시켰다.

○ 叔父曰, 今賊雖退遁, 將卒不可惰閑之時也. 遂布陣教戰, 每五十名爲隊, 從營繕纏, 搶幡到教場, 左右廂各依隊, 次解幡立隊別, 相去各十步分布, 使均其駐隊塞空, 去前隊二十步列布. 訖諸營十將一時, 即各向大將處受處分. 每隔一隊定一戰隊即出, 向前各進三十步. 聽角聲, 第一聲諸隊一時散立, 第二聲諸陣一時捺搶張弓捲幡拔刀, 第三聲諸隊一時擧搶, 第四聲諸隊一時跪膝籠槍坐看, 大將處大黃旗耳. 聽鼓聲, 黃旗向前, 亞鼓聲, 動齊喝鳴呼, 齊向前, 到中間, 一時齊喝聲, 殺齊人. 賊退敗, 訖可趁行 三十步. 審知賊徒喪敗, 馬軍從背逐北. 聞金鉦動, 即須聽去行. 膊上架槍, 側行回, 身本處散立. 第一聲絕, 一時捺槍, 便解旛旗, 第二聲絕, 一時擧槍, 第三聲絕, 一時簇一隊立看, 大將處兩旗交. 五隊合爲一隊, 是二百五十人爲一隊. 其隊法及卷旗擧搶, 簇隊鬪戰法, 并依前一看大將處五旗, 即十隊合爲一隊, 是即五百人合爲一隊. 其隊法及擧旛擧搶, 簇隊鬪戰法如前, 聽第一聲角絕即散, 二百五十人爲一隊如此. 凡三度即教畢. 諸十將一時聚, 大將賞罰進止. 第三聲角絕, 即教頭引從卷還.

맑음. 적의 동정을 정찰하는 배가 돌아와 보고한 내용에 덕진진 앞바다를 탐색하였는데, 저들의 배 6척이 서쪽 넓은 바다로 향해 가서 종적이 아득히 멀어졌다고 하였다. 바다가 활짝 열려 있어 모두 섬멸할 수 없었고 스스로 도망가게 하였으니 매우 분통하고 원망스러웠다. 모든 죄인들을 여론에 따라 처결하려는데, 18일 정오에 제물진에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한다. 대원군이 내린 글에 따라 소를 잡아 군사들을 호궤하였는데, 몸소 순찰하고 검사하며 고기를 매우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니 모든 군사들이 기뻐하였다. 배정로(裵鼎魯)가 대원군의 서간을 소매속에 숨겨서 진중으로 나아갔다.

○ 十七日

晴. 巡哨船回報內, 往探于德積鎭前洋, 則彼船六隻向西大海出去, 杳無踪跡. 雖甚豁然, 不得殲滅, 使之自遁, 甚爲憤惋. 諸罪人聽輿論決處, 而以十八日午刻, 正法於濟物之意. 有雲宮下書. 殺牛犒軍, 躬自巡檢分肉甚均, 諸軍歡喜. 裵雅鼎魯袖雲宮書簡赴陣.

○ 숙부께서 모든 교리(校吏)들에게 병법에 대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용병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근본되는 것을 헤아리고 이로써 군대를 움직이려 해야 하며, 먼저 식량을 보급되도록 하고 진영을 배열하도록 해야 하고, 먼저 지리의 이점을 헤아려 적을 이기려고 해야 하며, 먼저 사람들을 호응하도록 하고 근거지를 지켜야 하며, 먼저 저축할 것을 헤아려 병사들을 강하게 만들 것을 도모해야 하며, 먼저 그 상과 벌을 올바르게 하고, 멀리 있는 것을 취하여 해야 하며, 먼저 가까이 있는 것을 잃지 않도록 헤아려야 멀리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용병이라는 것은 하지도 않고 이로움을 잃거나 해로움을 쫓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성왕(聖王)의 군대는 먼저 그 근본을 헤아리고, 근본이 굳세지면 끝은 또한 따르고 왕성해진다. 진실로 이해의 근본을 알고 군사를 일으켜 적을 방어할 수 있으니 모름지기 백만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힘쓰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라고 하였다.

○ 叔父教兵法於諸校曰, 用兵之要, 先謀爲本是以欲行師, 先謀安民欲攻敵, 先謀通糧欲謀列陣, 先謀地利欲謀勝敵, 先謀人和欲謀守據, 先謀儲蓄欲謀强兵, 先謀正其賞罰欲謀取遠, 先謀不失邇苟有反是, 而用兵者, 未有不爲損利而趨害者也. 是故聖王之兵, 先謀其本, 本壯則末亦從而茂矣. 苟能知利害之本擧焉以禦敵, 雖有百萬之衆, 可不勞而克矣.

○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자(孫子)가 말하기를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 놓는다.'라고 말한 것은 먼저 책략을 정한 후에 일어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어

떤 것을 필승(必勝)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자, 숙부가 대답하시기를 "먼저 세 가지 화합에 힘쓰고, 다음에 세 가지 유여(有餘)에 힘쓰고, 다음에 세 가지 반드시 해야 할 것에 힘쓴다. 세 가지 화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를 화합한 후에 군대를 내보낼 수 있고, 군대를 화합한 후에 진중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진중을 화합한 후에 싸우러 나갈 수 있다. 나라가 화합하지 못하면 인심이 떠나고, 군대가 화합하지 못하면 교령(教令)이 어지러워지고, 진중이 화합하지 못하면 행렬이 정돈되지 못하니, 먼저 이 세 가지 화합의 도에 힘쓰지 않고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는가. 무엇을 세 가지 넉넉함이라고 하는가 하면, 힘의 넉넉함, 식량의 넉넉함, 의로움의 넉넉함이다. 힘에 넉넉함이 없으면 싸울 때 곤궁해지고, 식량에 넉넉함이 없으면 유사시 급박해지고, 의로움에 넉넉함이 없으면 아전과 병사들이 원망하게 되니, 세 가지 넉넉함의 전술을 힘쓰지 않고 군대를 어찌 움직일 수 있겠는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할 세 가지라고 하느냐 하면, 계책을 반드시 행하면 간사한 죄짐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급을 반드시 행하면 공로를 좋아하는 자가 죽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책벌하는 것을 반드시 행하면 허물이 있는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먼저 세 가지 반드시 해야 하는 도리를 힘쓰지 않고 사람이 어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화합에 힘쓰기를 잘하는 자는 공적인 것에 사사로움을 없애고, 작은 은혜는 버리고 큰 은혜는 베풀며, 넉넉함에 힘쓰기를 잘하는 자는 모든 일에 힘쓰고 스스로 게으르지 않으며,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에 힘쓰기를 잘하는 자는 용기있게 결단하고 망설이는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 아홉 가지를 실행하여 미리 그것을 정하기 전에 명령 내리기를 힘쓰면 천 가지 변화와 만 가지 조짐이 그 가운데서 움직인다. 이것들을 지켜서 적을 방어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 놓는다.' 라고 한 것은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한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먼저 하늘이 어기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의가 대개 이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 叔父曰, 孫子曰, 勝兵先勝, 謂先定之術而後擧也. 余曰, 何謂必勝. 叔父答曰, 先務三和, 次務三有餘, 次務三必行. 何謂三和曰, 和於國然後, 可以出軍, 和於軍然後, 可以出陣, 和於陣然後, 可以出戰. 國不和則人心離, 軍不和則教令亂, 陣不和則行列不整, 不先務此三和之道, 我其可以戰耶. 何謂三有餘曰, 力有餘, 食有餘, 義有餘也. 力無餘則困於鬪, 食無餘則逼於時, 義無餘則吏士怨, 不務三有餘之術, 師其可以動耶. 何謂三必行曰, 必行其謀則奸機者不成, 必行其賞則好功者不愛死, 必行其罰則有過者不咎, 不先務三必行之道, 人其可以用耶. 是以知善務和者, 公無私捨小惠敷大惠, 善務有餘者, 力諸事而不自怠, 善務必行者, 勇斷而去猶豫之謂也. 擧是九者, 務令預定之於前, 則千變萬機動乎其中矣. 率此以禦敵, 未有不勝者也. 故曰, 勝兵先勝者, 勝在我也. 易曰, 先天不違, 義蓋如此, 諸人莫不感伏矣.

○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승부를 가릴 수 있습니까"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법을 쓰는데 있어 전쟁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승리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다. 승리에는 반드시 패배로 돌아설 수 있는 이치와 형세가 있고, 패배 또한 반드시 패배로만 끝나지 않으며, 되돌아 승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싸움에 이기다가 패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급하면 계책을 정하는데 어려워 의심에 사로잡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첫째로 패하는 것이고, 기교가 매우 많은데 게을러 늦어져 실수하는 것이 둘째로 패하는 것이고, 비밀스러운 일에 세밀하지 못한 것이 셋째로 패하는 것이고, 용감한 것 같지만 용감하지 않고 겁먹은 것 같지만 겁먹은 것이 아닌 것이 넷째로 패하는 것이고, 주장(主將)이 하나가 아닌 것이 다섯째로 패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싸워 이기다가 도리어 패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싸워서 이기고 반드시 이기려면 계책을 정하는 것에 결정을 귀하게 여기고, 기교는 빠르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비밀스러운 일은 치밀함을 귀하게 여기고, 나가고 물러섬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병권(兵權)은 하나로 일치해야 한다. 패배할 형세에서 오히려 승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이다. 교리와 병사들이 굶주리고 상처를 입으면, 무리들을 아끼고 먹이면, 병사들이 배부르게 되어 활용할 수 있고, 교리와 병사가 두려워 화를 내면, 몸소 앞장서서 이끌면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 약속한 지원이 도착하지 않을 때, 가까운 자를 처단하여 경각심을 주면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혼란스러워 할 때, 은밀하게 귀신과 같은 기만술을 사용하면 하늘의 뜻을 얻은 듯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승패의 전술은 용맹과 결단력만으로는 행할 수 없으니, 신중한 지혜가 있어야만 이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 余曰, 何以別勝負. 叔父答曰, 用兵之術, 戰勝不可以專勝, 勝有必敗之理勢, 敗不可以專敗, 敗有反勝之道. 戰勝而敗者有五, 急難定謀, 抓疑不決一敗也, 機巧萬端, 失於遲後二敗也, 機事不密三敗也, 似勇非勇, 似恸非恸, 四敗也, 主將不一五敗也. 此五者, 皆戰勝而反敗也. 戰勝而必欲勝者, 定謀貴決, 機巧貴速, 機事貴密, 進退貴必, 兵權貴一也. 勢敗而反勝者有四, 吏士饑割, 所愛啗之衆, 有飽之用矣, 吏士恐奮, 身先之衆, 有勇之用矣. 期應不到, 殺其所昵衆, 有懼之用矣, 人有疑惑, 陰爲鬼詐衆, 有天之用矣. 如是者, 以敗爲勝也. 勝敗之術, 非勇決, 神智安能行之耶.

18 일

맑음. 본 고을 여러 면의 백성들에게 술 70여 동이와 생선을 삶고 닭을 구워 군졸들을 크게 먹였다. 고잔진의 오위장(五衛將) 박회영(朴晦榮)이 호궤(犒饋)를 모두 감당하였는데, 사졸들이 배부르게 먹고 취하였다. 적이 이미 달아나자,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기뻐하며 갑옷을 벗어 던지고 소리치며 춤을 추니, 태평한 기상이 볼만하였다. 군졸과 백성이 많이 모여 제물진(濟物津) 입구에 결진(結陣)하였다. 사학죄인(邪學罪人)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효수(梟首)하여 장대에 걸어 놓고, 정씨 여인은 교수형에 처한 후, 이경팔(李景八), 이수학(李秀學)과 이가(李家)의 며느리 두 여자를 함께 석방하니 온 고을 군졸과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모두 죄가 있는 자는 죽고, 죄가 없는 자는 살았기에 한 목소리로 함께 칭송하니 나라의 은혜가 하늘과 같았다. 이날 하늘의 기운이 맑고 깨끗하였고, 상서롭지 못한 기운은 사라져 상쾌하게 되어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따뜻한 봄이 오듯 비로소 왕령(王靈)이 이른 것을 알게 되었다.

○ 十八日

晴. 本邑多所面大小民, 以酒七十餘盆, 烹魚炙雞, 大犒軍卒. 古棧陣朴五衛將晦榮, 全當犒饋, 士卒醉飽. 賊已遁去, 其所歡天喜地, 投甲呼舞, 可見太平氣像. 大會軍民, 結陣於濟物津頭. 邪學罪人二漢一女, 梟首揭竿, 鄭女絞殺後, 李景八李秀學李家婦兩女幷白放, 一邑軍民莫不稱快. 皆知有罪者死, 無罪者生, 萬口齊頌, 國恩如天. 是日天氣清朗, 妖氛快霽, 陰崖陽春, 始知王靈所暨.

○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간사함을 압니까?"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의 사신이 와서 눈으로 어림셈하고 움직이는 기색이 자주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자객이다. 적이 곤궁하지 않은데 화의를 요청하는 것은 술책이다. 적이 말을 겸손하게 하고 예물을 많이 주는 것은 우리를 자만하게 하는 것이다. 사신이 자주 오지만 침략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후한 물품으로 우리측의 이편과 저편을 먹이는 것은 우리들을 비밀스런 계략에 얽으려는 것이다. 사신이 와서 말을 편하게 하고 두 나라가 전쟁을 그만두고 화해하자는 것은 장차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다. 사신이 와서 말을 굳세고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적의 사신에게 이 일곱 가지가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 장차 우리를 찌르려 하는 것, 술책에 걸려들게 하려는 것, 반대로 교만하게 하려는 것, 반대로 자만하여 업신여기게 하려는 것, 깔보

도록 얽으려는 것, 그것을 보여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 거듭 속이는 자는 죽이고, 머무는 사신은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오래도록 있으면 우리의 기미를 알게 되므로, 차라리 그를 죽이는 것이 낫다. 이로써 간계를 아는 것이 병법의 근본임을 알 수 있으니 이를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 余曰, 何以知姦. 叔父曰, 敵使來目數動色數異而言斜者, 刺客也. 敵未困而請和者, 謀也. 敵卑辭厚幣者, 驕我也. 使雖頻來爲寇不止者, 侮我也. 厚貨啗我左右者, 欲搆我密謀也. 使來言語便利, 欲兩國休解者, 將掩我不備也. 使言屈强者, 欺我也. 敵使有此七者, 宜詳細之. 將我刺者, 挾之謀者, 反其謀驕者, 反其驕侮者, 凌之搆者, 示之將掩不備者, 復之欺者誅之, 留使者不可久, 久則知我之微, 不若殺之. 是以知姦之道, 兵之本也, 不可不審.

○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적이 의지하는 바를 빼앗습니까?" 라고 하니, 숙부께서 대답하시기를 "적은 의지하는 바가 없으며 침략을 강행할 수 없다. 승리하고자 한다면 미리 살펴 그들이 의지하는 바를 빼앗아야 한다. 적이 의지하는 바는 강함. 험준함, 용맹함, 그리고 느긋함이라 할 수 있다. 강함은 기세로 빼앗고, 험준함은 움직임으로 빼앗으며, 용맹함은 우세로 빼앗고, 느긋함은 유인으로 빼앗는다. 먼저 힘이 남아돌 때는 이를 적에게 가하고 우리는 느긋하게 기다려 그 힘이 약해질 때를 노려 공격하면, 이것이 기세를 빼앗는 방법이다. 적이 험한 벽으로 수비하거나 혹은 완전히 비좁은 곳에 진을 친다면 내가 비록 군사와 백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취할 수는 없다. 수비하는 자의 마음을 이익으로 흔들거나 그렇지 않으며 움직임으로 공격해야 한다. 진을 친 자는 형세로 압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력을 움직여 충돌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험준함을 빼앗는 방법이다. 관문과 성채, 보급로를 미리 힘써 차단하여 그 기대를 끊어 놓는다. 그것이 단절된다면 반드시 약해지고 초조하게 움직이게 되니, 이때 기회를 틈타 공격하는 것이 느긋함을 빼앗는 방법이다. 사람이 뛰어나고 말이 튼튼하면 강한 것을 믿고 적을 가볍게 여긴다. 이럴 때는 좁은 곳을 점거하여 복병(伏兵)을 설치하며, 약한 척 유인하여 공격하면, 이것이 용맹함을 빼앗는 방법이다. 네 가지를 빼앗는 것을 알지 못하면 기묘한 병법을 논할 수 없다. 병법에는 만 가지 방도가 있어서 하나에만 얽매어서는 안된다. 먼저 적이 의지하는 바를 빼앗을 수 있다면 그들의 힘은 반으로 약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 余曰, 何以奪恃. 叔父曰, 敵無恃不可以爲寇, 欲勝者預審而奪之. 敵之爲梗, 或以强, 或以隘, 或以勇, 或以緩之謂也. 奪强以氣, 奪隘以動, 奪勇以威, 奪緩以誘. 夫力有餘而

加於人，我則以緩伺，其力衰而乘之，此奪氣者也．敵以險壁守，或盈隘而陣，我雖以士民豐逸，不可以强取．守者以利搖其心，否則以動則攻之．陣者以勢逼其角，否則竢動師隨衝之，此奪險者也．關塞壁壘糗糧所捻，預力攻之絕其望．苟絶之必力弱而躁動，於是乘之，此奪緩者也．人逸馬良恃强輕敵，可據隘設伏，示弱以誘，此奪勇者也．不知四奪，不足以語奇也．兵術萬途，不可專一．先能奪其所恃，則彼力衰半矣．

○ 내가 "어떻게 빈 곳을 습격합니까?" 하니, 숙부께서 대답하시기를 "빈 곳을 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속이는 것이다. 유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적이 많은 군병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짓으로 대응하면서 특별히 정예 병사를 잠복시켰다가 빈 곳으로 내보내거나, 혹은 그 보루를 공격하거나, 혹은 그 뒤쪽을 공격하거나, 혹은 쌓아서 모아 놓은 곳을 불살라 버리는 것이다. 속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적의 요충지를 얻고자 하면 공격하지 않고 이웃한 곳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것을 크게 하고, 군사를 많게 하여 적병을 속이고, 적병이 도달하면 싸우지 않고 견고하게 지키다가 비밀리에 정예 군사로 군병이 있는 성을 공격하여 내부를 갑자기 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빈 곳을 습격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였다.

○ 余曰，何以襲虛也．叔父答曰，襲虛之術，有二焉．一曰因，二曰誘．何謂因曰，敵盛兵所向，我亦佯應之，別以精兵潛出虛地，或攻其壘，或斷其後，或焚其積聚也．何謂誘曰，欲敵之要地，則不攻而攻隣，大其攻具盛其師旅，以誘敵兵，敵兵到，則勿與戰復于壁守，潛以精銳襲所兵之城，而掩其內．此二者，皆襲虛之道也．

맑음. 각 진영의 계엄(戒嚴)을 이전과 같이 단속하였는데, 대원군께서 글을 내려 계엄을 해제한 후에 산읍의 포군을 출신(出身) 이재정(李在靖)이 인솔하여 올라오게 하였다. 본 읍에서 거의한 사람들이 진중에서 힘쓴 공로를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 十九日

晴. 各陣戒嚴依前團束. 雲宮下書. 解嚴後, 山邑砲軍以出身李在靖領率上京. 本邑擧義人等效勞陣中, 上書達于雲宮.

○ 내가 묻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형세에 맡기는 것입니까"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병이 이기는 것은 사람의 용감함이 아니다. 용감함이 반드시 이길 수만은 없고, 겁먹는다고 반드시 패하는 것은 아니고, 형세에 말미암아 다르게 된다. 형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승세(乘勢)이고, 둘째는 기세(氣勢)이고, 세 번째는 가세(假勢)이고, 네 번째는 수세(隨勢)이고, 다섯 번째는 지세(地勢)이다. 형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좌세(挫勢)이고, 둘째는 지세(支勢)이고, 셋째는 경세(輕勢)이다. 무릇 많은 적을 새롭게 격파하여 장수와 병사들은 싸움을 즐거워하며 위엄스런 명성을 크게 떨치며, 듣는 자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형세를 돌려 사람을 치는 것을 승세(乘勢)라고 한다. 장수에 위엄과 덕이 있고 군대의 대오(隊伍)가 엄하게 정돈되어 병사들은 용맹이 넘쳐 명예로 더욱 두렵게 함을 천둥과 벼락같이 함을 기세(氣勢)라고 한다. 군사가 적어도 북을 크게 울리고 깃발을 펼쳐서 의병(疑兵)을[220] 만들어 적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을 가세(假勢)라고 한다. 적을 피곤하고 괴롭게 하여 습격하는 것을 태만하게 하는 것을 수세(隨勢)라고 한다. 서로 맞붙어 싸우는 지형이 방패와 창을 쓰기 편하고 보병과 기병에게 이로우며 좌우전후 모두 빠지거나 숨을 곳이 없는 곳을 지세(地勢)라고 한다. 병법을 쓰는 것은 이 다섯 가지 형세를 타는 데 있으니,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패하여 달아나는 것을 추격하여 큰 공을 세우지 못할 것이 없다.

○ 余問曰, 何以任勢也. 叔父答曰, 兵之勝, 非人之勇也. 勇者不可必勝, 怯者不可必敗, 率由勢焉耳. 勢之成者有五, 一曰乘勢, 二曰氣勢, 三曰假勢, 四曰隨勢, 五日地勢. 勢之敗者有三焉, 一曰挫勢, 二曰支勢, 三曰輕勢. 凡新破大敵, 將士樂戰, 威名隆震, 聞者駭

220) 의병(疑兵) : 적군에게 아군의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놓은 가짜 병사이다.

懼, 迴其勢而擊人者, 此之謂乘勢也. 將有威德, 部伍嚴整, 士有餘勇, 名譽所加慴如雷霆, 此之謂氣勢也. 士卒寡少, 盛其鼓旗張, 爲疑兵, 使敵人震懼, 此之謂假勢也. 因敵疲倦, 懈怠襲擊, 此之謂隨勢也. 合戰之地, 便其干戈, 利其步騎, 左右前後無有陷隳, 此之謂地勢也. 用兵者, 乘此五勢, 未有不能追亡逐北, 而建大功者也.

○ 또한 만약 여러 번 싸워 여러 번 패하여 교리와 군사들이 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좌세(挫勢)라고 한다. 장수에게 위엄과 덕과 계책이 없고 상벌에 균형이 없으며 교리와 병사의 마음이 갑자기 모두 흩어지는 것을 지세(支勢)라고 한다. 교리와 병사가 욕하고 싸우며 금령을 따르지 않고 부대의 대오가 엄숙하지 않은 것을 경세(輕勢)라고 한다. 무릇 병사를 쓰는 것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패하지 않을 수 없고, 병사가 장수를 죽이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형세에 맡기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전진하여 공격하는 것을 지휘할 수 있다. 형세에 맡기는 것이 적에게 있으면 나는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도리어 그들을 칠 수 있다. 만약 적이 형세를 타고 도달하면 더불어 싸우면 안되고 견벽청야(堅壁淸野)하면서[221] 기다려야 한다. 오랫동안 견뎌내면 적의 마음은 반드시 처음 도달하였을 때보다 느슨하게 될 것이다. 공격하는 것을 살펴서 노략질할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으면 적들의 마음은 더욱 교만해지게 된다. 한 밤중이 되어서 몰래 전달하여 신호하는 것을 듣고 조금이라도 실수한 것이 있으면 비밀리에 정예병을 출동시켜 양쪽에서 공격한다. 성안에서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이와같이 호응하면 이기는 기세 탄 것을 격파할 수 있다. 적이 형세를 믿고 이르게 되면 뒤쪽에 정예 병사들을 숨기고 거짓으로 늙고 약하게 보였다가 적이 진격해오면 복병을 일으켜 그들을 친다." 하였다.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니, "기세로 적을 압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용맹함과 신속함이 중요하다. 또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들이 늙고 약한 자들을 보면 반드시 가볍게 진격하여 깔보고 무너뜨리려 할 것이니, 우리는 진을 견고히 하여 그들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기다린다. 첫 번째 공격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적의 기세는 꺾이고 그때 우리는 반격하여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적이 가세를 가지고 도달하여 깃발과 북소리가 왕성하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서 적의 군사가 나라에 있는 10만 명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였지만 침략한 지역에서는 5만 명의 군사에 이르지 못하였고, 항복한 자는 3만 명을 넘지 않았다. 나라에는 백 만명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침략한 지역에는 50만 명의 군사에 미치지 못하였고, 항복한 자는 30만을 넘지 않았다. 이것으로 생

221) 견벽청야(堅壁淸野) : 성벽을 굳게 하고 들에 있은 것을 모두 제거하여 적이 현지에서 물자를 얻지 못하게 하는 전법이다.

각해보면 백 만명의 나라에서는 그 무리가 온 것은 50만, 60만, 70만, 80만, 90만이었고, 깃발과 북과 호령하는 자는 반드시 40만을 넘지 않았으니, 나머지는 모두 의병(疑兵)이었다. 이것으로 깃발과 북이 많은 것으로 군병이 적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만 정예병으로 생각지 않은 때에 출격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혹시 적이 우리의 동정을 탐지하려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우리는 피곤하고 게으른 모습을 일부러 보인다. 그러면 적은 반드시 형세를 따라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길과 주요 도로에 미리 정예병을 잠복시켜 두고 그들이 절반 가량 지나갔을 때 기습한다. 만약 적이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여 우리를 압박하려 한다면 아직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는 강한 성벽을 구축하여 오래 버티며, 그들이 지친 후에 싸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지치게 된다. 대저 적이 좌세(挫勢)에 있게 되면 밖으로부터 공격할 수 있고, 적이 지세(支勢)에 있게 되면 안으로부터 공격할 수 있고, 경세(輕勢)에 있게 되면 돌격할 수 있으니, 이것은 세 가지 패세(敗勢)에 따라 공격하는 것이다. 이로써 말하면 이러한 이유로 많이 이기는 것은 적이 약해서가 아니라 형세로 말미암는 것일 뿐이다. 대저 물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모난 것이나 둥근 것에 성질을 맡겨 제방을 무너뜨리고 돌을 떠내려가게 할 수 있는 것은 형세가 두루 미친 것이다. 불꽃이 강하게 타올라 하늘을 비추며 날아오르는 것은 불의 형세이다. 땔나무가 이미 재가 되어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은 형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병의 방법은 물과 불의 왕성함과 시드는 것을 잘 알면 형세를 사용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 又若累戰累北, 吏士畏於戰敵, 此之謂挫勢也. 將無威德謀慮, 賞罰不當, 吏士之心率多離散, 此之謂支勢也. 吏士諠譁, 不循禁令, 部伍不肅, 此之謂輕勢也. 凡用兵有此三者, 未有不敗, 軍殺將者焉. 是故任勢在我, 可以指揮進攻矣. 任勢在敵, 我當有道反能擊之. 若夫敵有乘勢而到者, 未可與戰, 堅壁清野待之. 曠日持久, 敵心必緩於始到矣. 候其攻, 無所拔掠, 無所得, 敵之衆益以慢矣. 當於中夜, 潛聽傳更轉號之聲, 小有失則陰出精兵, 兩道擊之. 壁中鼓譟, 應之如此, 則可以破其乘勝者矣. 敵有恃勢而到者, 可以後潛精兵, 僞示以老弱, 敵進攻則發伏擊之. 必勝矣, 曰何謂也. 曰以氣勢加人者止用, 勇敢疾速爲務, 解能精慮. 彼見老弱, 必輕進凌爍之, 堅陣以候, 一鼓不勝, 鋒必挫反爲我乘矣. 敵有假勢而到者, 旗鼓之盛, 埃壒之多, 預料敵兵如國有十萬之衆, 侵伐之地, 不及五萬之師矣, 降之不溢三萬矣. 國有百萬之衆, 侵伐之地, 不及五十萬之師矣, 降之不溢三十萬矣. 以此料之, 百萬之國, 其衆來者五十萬, 六十七八十九十萬之, 旗鼓與號令者, 必不溢四十萬矣. 餘皆疑兵也. 十萬之國, 其衆來者有四萬五萬之, 旗鼓與號令者, 此必不溢三

萬矣, 餘皆疑兵也. 是以旗鼓多者, 其兵小不可怖. 但以精兵出其不意, 必敗矣. 或敵探我動靜者, 爲我所知, 卽詐示以疲倦懈怠, 便知敵之必隨勢而來, 預於諸間道及通衢, 陰伏銳兵, 以俟之過半則邀之, 敵先得地勢, 以薄我, 未可與戰, 堅壁與之持久, 則衆心怠. 夫得敵有挫勢者, 可以自外擊之, 敵有支勢者, 可以自內擊之, 有輕勢者, 可以突之, 此隨三敗勢攻之也. 以此言之, 是故多勝者, 非敵弱也, 率由勢爾. 夫水之柔弱, 方圓任性而能蹶隄漂石者, 勢之至也. 火之剛炎, 亘天而起者, 火之勢也. 薪木旣灰而滅影者, 勢之去也. 故用兵之道, 能知水火之旺敗, 則盡於勢之用矣.

○ 내가 묻기를 "무엇으로 간첩을 부립니까" 하니, 숙부께서 대답하시기를 "『주례』의 순국(巡國)편에 반간(反間)을 도모하는 것이 전한다. 간첩을 쓰는 방법은 성인들 이래로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였다. 무릇 병사를 부려 승리를 결정함은 간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간첩 쓰기를 결정하는 중에는 은밀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큰 지혜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간첩을 사용하는 것이다. 상황을 보고 군사를 일으키니, 그 방법은 여덟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두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병사들이 국경에서 맞설 때 거짓으로 피곤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고 몰래 그 말이 새어 나가게 하며, 후한 재물을 주어서 간사하게 유인해서 안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다음은 사자로 하여금 패옥, 비단, 자녀, 수레, 말을 보내 화해를 구함으로써 그들의 교만함을 확인하고, 몰래 정예병을 선발하여 길을 나누어 이른 밤시간 양쪽에서 나아가 무방비 상황을 타게 하니, 이것이 사자로 간첩을 삼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적을 생포하여 계책이 누설된 것을 얻어듣도록 하고, 몰래 느슨하게 하여 도망치게 하며, 적으로 하여금 확보한 기밀을 신뢰하도록 하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것은 적을 간첩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세 번째는 적이 간첩으로 왔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거꾸로 된 일을 보여주면 적들은 거짓으로 꾸민 일을 얻을 것이니 우리는 불시에 나가 그들을 공격하니, 이것이 오는 말을 되돌려서 간첩으로 삼는 것이다. 그 네 번째는 적이 간첩으로써 오면 뇌물을 후히 주어 그 말을 되돌려서 적의 간첩이 되게 하는데, 이것이 오는 사람을 되돌려서 간첩으로 삼는 것이다. 그 다섯 번째는 적과 함께 싸울 때 거짓으로 작은 패배를 만들어서 군사를 이끌고 깊은 곳에 이르러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이에 사신이 말이 어리석고 우둔하게 하며 현명한 분별이 없는 자 같이 하여 적으로 하여금 왕성하고 장황하도록 하게 하고, 우리 군대를 더욱 강성하게 하여 적이 간첩을 삼는 것을 알도록 하면 반드시 마음에 우리를 두려워하여 이를 구실로 간첩을 오게 한다. 그러는 동안에 곧바로 기병(奇兵)을 일으켜 수시로 그들을 공격하는데, 이것이 간첩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첩을 삼는 것이다. 그 여섯 번째는 적에게 특별한 군주의 은혜를 받

는 폐신(嬖臣)이 있으면 심복으로 하여금 금은보화로 그 집에 보내게 하여 몰래 적의 형편을 알아내게 하는데, 이것은 폐신으로 간첩을 삼는 것이다. 그 일곱 번째는 적에게 모신(謀臣)이 있다면 몰래 가서 보화로 뇌물을 주고 적과 친해져서 안팎으로 믿게 하고 참언(讒言)으로 일을 일으켜 임금과 신하를 서로 의심하게 하면 저절로 서로 잔인하게 해치는데, 이것은 반대로 참언을 하는 자를 간첩으로 삼는 것이다. 그 여덟 번째는 적이 믿고 맡기는 자를 구하여 그가 몰래 하려는 바를 도우면 그 동정(動靜)과 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향인(鄕人)으로 간첩을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 쓰는 것을 아는 것은 병가(兵家)의 요령있는 묘책이다. 진실로 현명한 지혜가 아니면 능히 이것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간첩을 사용하는 방도는 은밀하게 숨기는 것에 있으니, 이것은 좋은 장수가 주의할 바이다." 라고 하였다.

○ 余問曰, 何以使間. 叔父答曰, 周禮巡國傳謀反間也. 用間之道, 聖人以來尙之矣. 夫用兵決勝不可不間, 用間决中不可不密, 苟非大智, 孰能臻於是乎, 故間之行也. 觀事而擧, 其術有八焉. 其一曰, 兩國相拒, 兵抗其境, 詐爲疲困畏懼, 潛漏其言, 厚貨所愛倖因, 以所求中, 之次使使者, 致玉帛子女輿馬, 以求和解, 覺其驕慢, 陰選精兵分道, 早夜兼進, 以乘不備, 此以使者爲間也. 其二曰, 獲敵生口, 以所謀漏, 俾得聞焉, 陰緩遁去, 令敵得所謀而信之, 我行則不然也. 此以敵人爲間也. 其三曰, 敵來間我詐爲不知也. 反事示之, 敵得僑事, 我則出不意而擊之, 此反求來言以爲間也. 其四曰, 敵以間來, 厚賂之令, 反其言以間敵, 此反以來人爲間也. 其五曰, 與敵人戰, 佯爲小敗, 亟引兵深壁, 示以懼色, 乃使言辭鄙鈍無智慮者, 使之敵令盛張皇, 我師之盛强, 俾敵知爲間者, 必以我懼, 以强辭來間者也. 既行卽擧奇兵隨以襲擊之, 此以明間爲間者也. 其六曰, 敵有內寵, 令腹心者, 以金寶餽其家, 使潛構敵情, 此以內嬖爲間也. 其七曰, 敵有謀臣, 則潛行金貨賂, 敵親信搆於內外, 以事應讒者, 言使君臣相疑, 自相殘害, 此反以讒人爲間也. 其八曰, 求敵所委信者, 副其所欲陰, 求其動靜言語者, 此以鄕人爲間者也, 是以智間者, 兵家之要妙也. 苟非賢智, 莫能用之, 故用間之道, 在乎密潛藏, 此良將之所注意也.

20 일

맑음.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저고리와 바지를 나누어 준 후 성책(成冊)을 만들어 순영(巡營)과 진무영(鎭撫營)에[222] 보고하였다. 싱싱한 오이와 된장, 흰 소금을 강교(江郊)에서 육지를 통해 가져왔는데, 모든 군병의 반찬거리가 매우 풍성하였다.

○ 二十日

晴. 上書雲宮. 衫袴分給後, 修成冊報于巡營及鎭撫營. 生苽土醬白鹽, 自江郊陸續下來, 諸軍饌物極爲豊盛.

○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사들이 사지(死地)에 있는데, 수비를 함에 삼가 부지런히 방어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고리모양을 하여 적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무릇 사람이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혈맥이 사지에 원활하게 왕래하게 통하면 편안할 것이다. 혹시 하나의 혈맥이 왕래하지 않고 하나의 기가 통하지 않으면 질병이 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병사를 잘 쓰는 자는 비록 군병이 사방에 진치고 위급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치 머리와 꼬리가 서로 호응하는 것과 같이하여 궁색함이 없으니 이것이 신묘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 叔父曰, 兵者死地也. 守備不可以不謹善守者, 如環使敵不得其間而入焉. 夫人之治身者, 血脈往來通暢於四肢, 則安寧矣. 或一脉不來一氣不通, 未有不篤於病者. 是以善用兵者, 雖兵四屯急難, 則如首尾相應, 而不窮斯爲妙矣.

○ 내가 말하기를 "적이 어떠해야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니, 숙부께서 대답하시기를 "적은 귀신을 믿어 기도하는 자가 많아 반드시 의구심을 품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까닭이 첫 번째 공격이 가능한 것이다. 적은 오직 천시(天時)에만 힘써 그 방위(方位)를 선택하고, 그 구름의 기운을 관찰하지만 지형의 험하고 평탄함은 살펴보지 않고, 인심의 순역(順逆)은 자세히 알지 못하면, 두 번째 공격할 수 있는 경우다. 적이 지형의 유리함을 선택하는데 그치고 호령이 엄정하게 정비되지 않고 항오(行伍)만 엄중하게 경계하면, 세 번째 공격이 가능한 것이다. 진영을 결속하고 나눌 때 이동하는 자가 많으면, 이것은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것이니, 네 번째

222) 진무영(鎭撫營) : 1700년(숙종 26) 강화도에 설치된 종2품의 군영으로써, 경기 연안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장군의 발언이 성실함이 없고 일에 있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이교(吏校)와 군병들이 원망하고 두려워하니, 다섯 번째 공격이 가능한 것이다. 장수와 이교들이 음란하고 태만하면 여섯 번째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진영을 만드는 지역의 사방 요충에 방비가 없으면, 일곱 번째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장수가 사람을 부리는데 예의가 없으면, 여덟 번째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상과 처벌이 뒤바뀌면, 아홉 번째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장수와 군병이 경솔함이 많으면, 열 번째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로 공격하고 싶다면 먼저 간첩으로 하여금 몰래 실상을 파악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한 다음에 공격하면 반드시 적중할 것이다. 우리 군대 역시 마땅히 이에 대해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余曰, 賊何如則可擊. 叔父答曰, 敵人信鬼多祈禱者, 必懷疑懼, 不能任人故也, 一可擊也. 敵惟務天時, 擇其方位, 觀其雲氣, 不顧地形之險易, 不詳人心之順逆, 二可擊也. 敵止以地利爲擇, 不能肅整號令, 嚴戒行伍, 三可擊也. 結營分陣時, 多動移者, 此多疑恐, 四可擊也. 將軍發言無有誠實, 事多利己, 吏士怨恐, 五可擊也. 將吏淫怠, 六可擊也. 結營之地, 四要無防, 七可擊也. 將御人無禮, 八可擊也. 賞罰顚倒, 九可擊也. 將士多輕, 十可擊也. 苟欲擊之, 先令細人密搆其實而我乘之, 然後行擊必中矣. 我師亦宜以此自爲戒焉.

○ 내가 말하기를 "또 어떠할 때 공격이 불가한 것입니까?"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쪽의 군대가 서로 수 리 떨어져 있는데, 적의 군사를 보니 피곤하고 약해보이고 게을러 태만한 상태이며, 호령이 엄숙하지 않으면 적이 공격할만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적의 형세를 알고 대비하지 않거나 혹은 더럽고 우묵하게 막히며 곧고 굽은 것이 서로 겹치고 높고 낮은 것이 서로 이어받으며 무성한 풀이 우거진 숲을 이루어, 적에게 약하게 보이게 하면서 그 강성함은 숨기고, 엄숙하지 않은 것을 보이되 그 정연함은 감추고, 모략이 없음을 보이되 그 지략은 숨기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되 가까이 있는 것은 은폐한다. 이와 같이 하였는데 적이 오랫동안 물러가지 않는 것은 반드시 기이한 모략이 있는 것이니, 첫 번째 공격하면 안되는 것이다. 서로 싸우기를 오래하지 않아 적이 피해가 심하지 아니함에도 즉시 그 깃발과 북을 버리고 급히 도망하면 그것을 쫓으면 안되니, 반드시 복병이 있는 것이므로, 두 번째 공격하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적에게 생포되었는데, 일단 도망하도록 돌려보내 적의 사정을 우리에게 말하거나, 혹은 적을 생포하였는데 역시 적의 사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 적의 모략이므로 그것을 믿으면 안되니, 세 번째 공격하면 안되는 것이다. 적의 군대가 형세를 타고 북을 치면서 진행하여 우리를 공격하면 병사를 독려하고 진영을 굳게하여 그들을 기다리는데, 이것은 형

세를 탄 군대의 사기가 위엄이 있고 칼끝이 날카로우니 더불어 싸우면 반드시 불리하므로, 네 번째 공격하면 안되는 것이다. 적이 진영을 짜고 끝내 죽을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깃발과 북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진다면, 다섯 번째 공격하면 안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 余曰, 又何如不可擊也. 叔父曰, 兩師相去數里, 見敵兵疲弱懈怠, 號令不肅, 謂敵人可擊也. 而我未備知敵人之形勢, 或注汚坳沮, 或曲直相伏, 高下相承, 叢林茂草當應敵示弱而匿其强, 示不肅而藏其整, 示無謀而匿其智, 示遠而弊在近. 如是而敵久不退者, 必有奇謀, 一不可擊也. 合戰未久, 敵師未甚殘傷, 即棄其旗鼓疾奔者, 勿逐之必有伏兵, 二不可擊也. 我之生口爲敵所獲, 一旦遁歸以敵事語我, 或獲敵生口亦以敵事語我, 皆敵謀也, 勿信之, 三不可擊也. 敵師乘勢鼓行進攻於我, 則勒兵堅陣待之, 此乘勢之兵, 氣威鋒銳, 與戰必不利, 四不可擊也. 敵結陣不顧死絕之地, 而旗鼓振肅者, 五不可擊也.

○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태공(太公)이 이르기를 '지혜가 일반 사람과 같으면 스승이 아니고, 기량이 보통 사람과 같으면 나라의 선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움직이는 것은 불의에 하는 것보다 신기한 것이 없고, 승리하는 것은 알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손자(孫子)가 말하기를 '잘 싸우는 자는 그 기세가 사납고, 그 절도가 짧으니 대저 일상적인 것의 특이함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용병을 잘하는 자는, 특이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사나운 것이고, 둘째는 가벼운 것이고, 셋째는 무서운 것이고, 네 번째는 고지식한 것이고, 다섯 번째는 두려운 것이다. 막다른 길과 깊은 골짜기는 죽음에 이르는 곳으로 보루와 참호를 부수고 급격히 돌격해오므로 무리가 위험해진다. 우리는 당연히 안으로는 군진을 견고히 하면서 밖으로는 정비되지 않은 것처럼 하여 적을 유인하며, 안으로는 부대의 대오를 엄중히 하면서 밖으로는 두려워하는 하는 것처럼 하여 적을 교만하게 하면, 저들은 이미 숨긴 것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군병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나움을 이용한 방법이다.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으며, 힘이 다하고 식량이 떨어졌으니, 승세는 저들에게 있고 패세는 우리에게 있어 당연히 피를 마시고 군사들이 맹세하며 명령을 엄중히 하고 상을 후하게 하고, 나가고 물러섬을 반드시 죽을 각오로 해야 한다. 적은 병력을 이끌고 강력하게 방어하는 무리를 돌격하여 우리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이다. 마땅히 가벼움을 사용함에 있어서 궁지에 이르러서야 살아날 문이 열리니, 가벼움을 돌이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벼움을 쓰는 방법이다. 적이 강하게 급습하면 군대가 커도 사람들이 놀라고 무리들이 위태로워져도 우리는 분노하여 갑자기 스스로 황망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음에 마

땅히 위기를 쓰는데 호령을 엄히 하고 방비에 힘쓰며 천명(天命)으로 아전과 군사들을 위무하고 외부로는 그 모습을 여유롭게 하고, 안으로는 그 낌새를 감추고, 기묘하게 군사를 내보내니, 이것이 위험을 쓰는 방법이다. 적이 간첩으로 와서 우리를 속이면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받아주고, 적이 염탐하러 와서 우리를 살펴보면 거짓으로 준비가 안 된 것처럼 하되 복병을 두고, 적이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기를 기다린다. 어리석게 여김을 당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반대로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바라보는 적의 군대가 와서 물러나 웅크리고 견고히 수비하며 보이는 적의 사신이 와서 말을 낮추고 기세를 내리는 것은 화해하려는 것으로, 우리의 많음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다. 마땅히 위엄을 이용함에 있어서 물러서 웅크리되 복병을 설치하고, 공격해 나가면 기이하게 충돌하면 화해하려고 할 것이니 유리한 것으로 움직이고 낮춤으로 교만하게 하니, 이것이 두려움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다섯 가지는 많은 것을 되돌릴 수 있다.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위험하게 하면 우리는 그 이로움을 이용한다. 많은 것으로 우리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그 결정을 이용한다.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그 안전함을 이용한다. 많은 것으로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면, 우리는 그 지혜를 이용한다. 많은 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여기면, 우리는 그 용감함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태공이 말하기를 '추이(推移)에 능하지 못하면 기이함을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 叔父曰, 昔者太公云, 智與衆同非人師也, 伎與衆同非國士也. 動莫神於不意, 勝莫大於不識. 孫子曰, 善戰者, 其勢險, 其節短, 率謂異諸常也. 是以善用兵者, 其異有五, 一曰險, 二曰輕, 三曰危, 四曰愚, 五曰畏, 窮途邃谷死絕之地, 敗壘夷塹, 馳突之所, 衆以險也焉. 我當內固軍陣, 外若不整以誘敵, 內嚴部伍, 外若有畏以驕敵, 彼旣不識隱之, 以變衝之以卒, 此用險之道也. 彼衆我寡, 力殫糧絕, 勝勢在彼, 敗勢在我, 當飮血誓士, 嚴令厚賞, 進退以必死, 提寡少之兵, 突强禦之衆, 以我爲輕也. 當有輕之用, 由窮地而闢生門, 反輕而决焉. 此用輕之道也. 敵强攻急, 師大人駭, 衆以爲危, 我不以忿遽自荒亂, 當有危用, 嚴號謹備, 以天命撫慰吏士, 外閑其貌, 內潛其機, 以奇出兵, 此用危之道也. 敵人以間來間我, 佯不知而受之, 敵人以探來探我, 佯無備而設伏, 待之敵以我愚也. 當愚之用, 反而智焉. 此用愚之道也. 望敵之兵來, 退縮守壁, 見敵之使來, 卑辭下氣, 如欲和解, 衆以我爲畏也. 當有威之用, 退縮則設伏, 而攻出奇衝之, 欲和解, 則以利動之, 以卑驕之, 此用畏之道也. 是五者, 反衆爲也. 衆以我爲險者, 我用其利也. 衆以我爲輕者, 我用其決也. 衆以我爲危者, 我用其安也. 衆以我爲愚者, 我用其智也. 衆以我爲畏者, 我用其勇也. 故太公曰, 不能推移, 不可語奇, 此之謂也.

21 일

맑음. 대원군께 글을 올렸다. 의를 위해 거사(擧事)한 여러 사람들인 장리(將吏), 노령(奴令), 경향(京鄕)의 군병들이 군진으로 달려간 날짜가 4월이면 2등에 두었고, 5월 이후는 3등에 두었는데, 성책을 작성하여 진무영에 보고하였다.

○ 二十一日

晴. 上書雲宮. 擧義諸人, 將吏奴令京鄕軍卒, 赴陣日字, 四月則置之二等, 五月以後, 置之三等, 修成冊報于鎭撫營.

○ 내가 말하기를 "무엇을 5기(五機)라고 합니까?"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5기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지기(地機), 둘째는 사기(事機), 셋째는 세기(勢機), 넷째는 역기(力機), 다섯째는 신기(神機)이다. 진영을 벌려 포진함에 먼저 요충지에 근거하면 적은 거스르는 것을 취하고, 우리는 순리를 취하는데, 순리대로 움직이면 편안하고 안정되니, 이것이 지기(地機)이다. 적국을 살펴 탐문하여 적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적으로 하여금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모르도록 적을 속이는데, 이것을 사기(事機)라고 한다. 10명의 기운을 고무시키면 1백 명을 쓸 수 있고, 1백 명의 기운을 고무시키면 1천 명을 쓸 수 있다. 크게 떨치는 명성으로 불꽃같은 기운으로 움직여 천둥같이 쳐부수는데, 이것이 세기(勢機)이다. 식량과 꼴을 쌓아두고 군병과 말을 익숙하게 훈련하여 무릇 적의 국경에 이르러 양식의 확보가 유리하게 통하니, 이것을 역기(力機)라고 한다. 적이 앞에서는 우리를 헤아리지만 뒤에서는 실수하며, 멀리서 우리를 헤아리지만 가까이서는 실수하여 동정과 출입하는 것을 적이 살피지 못한다면, 이를 신기(神機)라고 한다. 용병에 있어서 5기로 적에 대응하면서 성곽과 영토를 빼앗지 못하는 자는 없다." 라고 하였다.

○ 余曰, 何謂五機也. 叔父曰, 五機者, 其一曰地機, 二曰事機, 三曰勢機, 四曰力機, 五曰神機, 列營布陣, 先據要害, 敵取逆, 我取順, 順動息靜, 是謂地機. 審探敵國, 而爲之以中敵情, 使敵不知爲我所覺得以欺敵, 是謂事機. 鼓十人之氣爲百人之用, 鼓百人之氣爲千人之用, 威名氣熖動, 如雷電所當者破, 是謂勢機. 糧芻儲積, 士馬習閑, 凡至敵境, 糧道通利, 是謂力機. 敵人料我於前失之於後, 料我於遠失之於近, 動靜出人, 敵不能察, 是謂神機. 用兵以五機應敵, 未有不能拔城掠地者也.

○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포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사가 적에게 포위를 당하면 힘써 수비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외부에 지원할 군병이 있으면, 첫 번째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군사들이 강하고 용맹하며, 꼴과 군량이 풍족하면, 두 번째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성과 해자가 견고하며 백성이 많고 부유하면, 세 번째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결전을 벌일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외부에 구원병이 없으면, 싸워야 하는 첫 번째이다. 사람은 강하고 말이 튼튼하며 갑옷과 무기가 견고하고 날카로우나 저축된 군량이 부족하면, 싸워야 하는 두 번째이다. 성곽과 해자(垓子)가 완전하지 못하고, 군병과 백성이 궁핍한 상황이면, 싸워야 하는 세 번째이다. 지키는 것이 가능하면 반드시 지키고, 싸우는 것이 가능하면 곧바로 싸워야 한다.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이니, 구원병이 도착하지 않으면 곧 적을 살펴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묘한 방도로 싸우는 것이다. 곧바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포위되어 있으면서 싸우려는 술책이 준비되지 못한 것이다. 포위된 것이 오래되면 더욱 굳어져, 포위된 군사가 탈출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인데, 적이 아무 이유없이 한쪽의 포위를 열어두는 것은 복병이 있는 것이고, 포위를 몇 리 뒤쪽으로 물리는 것은 계략이며, 노약자를 보이는 것은 유인하는 것이다. 긴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적이 서쪽을 공격하면 동쪽을 경계하며 준비해야 하고, 적이 한가한 것처럼 보이면, 이것은 우리를 느슨하게 하고 해이한 상태로 만들어 장차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릇 포위된다면 먼저 그 내부를 안정시키고, 이후에 그 외의 것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였다.

○ 余曰, 何如則破圍也. 叔父曰, 我師爲敵所圍, 可以力守者三, 外有援兵, 一可守也. 人士勁勇, 芻粟豊儲, 二可守也. 城池完固, 民人富庶, 三可守也. 可以決戰者三, 外無援兵一可戰也. 人勁馬壯, 兵甲堅利, 儲蓄不備二可戰也. 城池不完, 士民窮匱, 三可戰也. 守可以必守, 戰可以卽戰也. 何謂必守曰, 盡我力焉, 援之不到, 卽候敵, 困出奇以戰也. 何謂卽戰曰, 既圍卽戰謀未備也. 圍久則固焉, 被圍之師不可出者三, 敵無故開圍一角者, 有伏也, 退圍數里者謀也, 示以老弱者誘也. 可以急備者二, 敵攻其西謹備其東, 敵示以閑暇者, 此心緩我而欲求懈, 因將衝突也. 夫被圍者, 當先安其內, 而後及其外可也.

○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적들을 포위할 수 있습니까?"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곽과 해자, 보루에서 적을 쫓아내고 협박하여 포위한 것이 수십 일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적을 이길 수 있는 술책이 아니고 포위된 것과 같다. 병사와 말이 정예하고 씩씩하며, 무기가 견고하고 날카로우며, 꼴과 식량이 풍족하며,

외부에 구원병이 있어 기다릴만 하면, 마땅히 토산(土山)을 세우고 도랑을 파고 물길을 내어 해자를 만들어야 한다. 포위된 거리가 백 리 정도면 그 사이의 도로를 넓히고 벽을 쌓되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땅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고, 일이 없는 병사를 부대별로 나누기를 왕성하게 하여 오가면서 관리하고 거들다가 위급함을 만나면 대응하여 구한다. 포위된 외적은 궁핍하고 고갈되어 죽음으로 지키려고 생각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다른 계책은 적이 오는 길에 정예병을 매복시켜 기다리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삼면을 포위하여 병사들이 엄중하게 방어할 준비를 하고 포위한 곳의 한 귀퉁이를 열어 살 길을 얻게 하는데, 적이 달아나지 않으며 싸우는 것이고, 달아나면 복병이 일어나 싸우면 중심이 흐트러질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적을 포위하는 방법에 있어서 견고하게 지키는 것에 전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주역』에 이르기를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라는 하였으니,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 余曰, 何以圍寇也. 叔父曰, 逐寇於城隍壘堡, 逼而圍之者, 踰數旬不變, 非克敵之術, 如圍中. 士馬精壯, 兵器堅利, 芻糧豐溢, 外有援可俟者, 宜樹土山, 濬溝池. 去圍百里, 廣爲間道築壁, 備之人數不可多, 隨地大小用之, 盛其遊兵分部, 往來提擧, 遇急則救應之. 圍中寇敵, 窮匱慮以死守. 復生他計, 則伏精兵於敵路以待. 本圍三面, 兵士嚴爲備禦, 開圍一角, 令得生路, 敵不奔則戰, 奔則伏兵發戰, 則中心散, 此可以必克矣. 是故圍寇之道, 不可以堅守爲事. 易曰, 窮則變, 變則通, 此之謂也.

맑음. 대원군께서 글을 내렸는데, 영종진으로 나아간 산포군(山砲軍)은 계엄이 해제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건너오라고 하고, 또한 이재정(李在靖)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였다. 숙부는 진중에 있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인천의 지형과 군대를 양성하고 방어하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여 정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소성은 나라의 서쪽에 있는 고을이다.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길 하나가 육지에 연결되고, 또한 경기와 호서 사이에 있어서 삼남(三南)의 배가 운송함에 반드시 이곳을 거쳐 도달하게 된다. 비유한다면 마치 사람에게 목구멍과 콧구멍이 있는 것이나 집에 출입문이 있는 것과 같다. 목구멍과 콧구멍이 부지런히 통하지 않으면 장차 몸속에는 질병이 생기고, 문호를 경계하지 않으면 도둑이 발생할 걱정이 있으니 이러한 이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문호를 엄중히 하는 것은 미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고, 성인이 미리 취하려는 뜻이 크다는 까닭이다. 지금 대저 하루아침에 변고가 있어 군읍(郡邑)이 연이어 소란스럽고 백성들은 흩어지는 지경에 이르러 한양을 놀라 두렵게 하니, 이것은 병인년 양요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하여 그런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빈번하게 연해의 여러 고을을 경계하려고 분명한 의지도 없이 백성들을 징병하니 의외로 거액의 경비가 있어야 하고 군사는 적을 섬멸할 계책이 없이 벌벌떨며 조심하여 지키기만 하며 적이 스스로 물러가기만 바라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진실로 시일(時日)이 무사하여 이미 안전하고 평안하다 하니, 이것이 집에 사는 제비, 참새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런 까닭에 국가는 강화도의 군사를 늘리고 각 진보의 수비를 점검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식량을 확보하여 불시에 대비해야 한다. 무릇 강화도는 천연 요새의 험준함이 있어 나라에서는 이것을 믿고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곳을 많은 군사로 지키면 적이 어찌 감히 바로 보거나 엿볼 수 있겠는가? 그러하나 용병의 방법은 반드시 그 형세로 하는데, 형세가 고립되지 않은 연후에 비로소 허술함이 없이 완전함을 도모할 수 있다. 형세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지세(地勢)가 있고, 병세(兵勢)가 있고, 돕고 구원하는 형세가 있다. 지형에서 뛰어난 요해처를 얻어도 병사가 지키지 않으면 형세가 고립된다. 군사의 정예함을 얻어도 후원군이 없으면 형세가 고립된다. 지금 논의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강화도에 많은 병사가 있으면 서울은 이에 힘입어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강화도의 지형이 비록 천연 요새의 험준함이 있지만 큰 바다에 둘러싸여 다시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이른바 절지(絶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지세의 고립

된 것이다. 비록 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나 다만 험준함을 믿을 뿐 감히 힘써 싸우지 못하는데, 이른바 스스로 지키기만 하는 병사이니, 이것이 병세의 고립된 것이다. 하류의 여러 고을은 군사적 대비가 전혀 없이 수백 명의 훈련되지 않은 군졸들만이 있어,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감히 적의 배후를 끌어당길 수 없으니, 이것이 응원군의 형세가 고립된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심도의 형세는 고립되었다. 강화도의 형세가 고립되면 서울의 형세도 고립된다. 지금 초지진과 광성보의 전투에서 증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해의 형편으로 말하면 통진(通津)은 상류에 위치해 있지만 반대로 강화도를 의지처로 삼았고, 부평(富平)은 습지의 험하고 먼 것을 의지하였고, 마침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영종진은 탄환같이 작은 섬이고 또한 단절된 지역이니, 변방의 수비에서 경중을 논할 필요가 없다. 이번의 역사(役事)는 한 달이 넘도록 계엄하였으나 군사는 천 명이 되지 않았고, 비록 미친 적들을 섬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번에 지형을 두루 살피고 민정을 상세하게 살피면 한 가지라도 얻을만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 고을은 강화도의 하류에 위치하여 이에 적의 선박이 출입하는 문과 길이 되며, 또한 이것은 서울의 서쪽 육로로 이어져 가까이 있는 목구멍처럼 비좁다. 그 백성들은 여러 번 소요를 경험하여 모집하여 군병으로 삼으면 절제된 군사로 만들기에 충분하고, 아울러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산천의 험준함과 평탄함, 포구의 긴요함, 습지의 멀고 가까움, 도로의 지름길 등 모르는 것이 없으며, 비바람과 장습(瘴濕)의 성질과 더불어 익히며 자랐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 징병한 병사는 수토(水土)에서 복무하지 않고 지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는 효과가 만 배나 될 것입니다. 또한 문학산의 고성(古城)은 천연의 위험하고 어려운 지형으로 이미 왜란 때의 전투에서 방어했던 곳으로 지금은 비록 치첩(雉堞)이[223] 무너지고 풀이 우거져 거칠어지고 더러워졌지만 만약 수리하고 보수한다면 일은 절반으로 하면서 공적은 배로 늘어날 것이니 서울의 관방으로 이곳보다 요해처로 삼을 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계책은 군사를 양성하는 것만한 것이 없고, 군사 양성의 중요한 것으로 둔전(屯田)[224] 만한 것이 없다. 가령 3천 명의 병사로 봄과 여름에 농사에 힘쓰고 가을과 겨울에는 강무(講武)하되, 평년에는 곡식 3만 곡(斛)을 얻을 수 있어, 1만 5천 곡은 3천 명의 1년 양식으로 삼기에 충분하고, 나머지 곡식으로 또한 1년은 지탱할 수 있다. 3년이 지나지 않아 3천 명의 정예병을 얻을 수 있고, 아울러 3년의 양식이 있어 산성을 보수하여 쌓고 둔병을 두며, 곡식을 쌓아두고 험지를 근거로 하여 요충지를 지키면, 다시 곡식을 옮겨 수송하는 비용이나 징발의 수고로움으로 번잡하지 않고, 수요의 완급을 조절하고 전함(戰艦)을 조성하고, 수상전을 훈련시키기에 충분하

223) 치첩(雉堞) : 성곽 위에 낮게 쌓은 담이다.
224) 둔전(屯田) : 조선 시대 군졸이나 서리, 평민 등에게 개간하지 않은 땅을 경작하게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일부를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대의 양식으로 쓰도록 한 토지이다.

다. 본 고을의 병사와 백성들은 해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물의 성질에 대해 대강 알고 형세의 유리함 때문에 지도하기를 몇 년 되지 않아 또한 모두 물에 익숙한 병사로 만들어, 그들로써 지원하게 하면 심도는 형세가 고립되지 않게 될 것이다. 강화도의 형세가 고립되지 않으면 서울의 형세가 고립되지 않게 될 것이다. 해문에 미리 수륙의 방비가 갖추어진다면 국가에 다시 서쪽의 걱정이 없을 것이니, 혹여 만전이 될 것입니다."

○ 二十二日

晴. 雲宮下書. 永宗鎭赴陣, 山砲軍待解嚴還渡, 亦使李在靖領率上去, 叔父與在陣諸人, 議定仁川地形養兵備禦之策, 書左. 邵城國之西邑也. 三面濱海, 一路連陸, 且介於畿湖, 三南之船運, 必由是而達焉. 譬如人有咽喉, 室之有門戶. 不謹咽喉, 將爲心腹之疾, 不戒門戶, 乃有竊發之患, 此理之常也. 故重門之析苞桑之戒, 聖人之所以取豫之義大矣. 今夫一朝有變, 郡邑繹騷, 人民離析竟至, 震警京師, 此於丙寅之擾, 驗其已然者, 而自是之後, 頻年有警沿海列邑, 民無固志徵兵, 外道經費巨萬, 卒無殲賊之策, 惴惴自守, 幸賊自退, 則曰是爲勝筭. 苟以時日之無事, 謂旣安且平, 是何異於處堂之燕雀乎. 玆故國家增兵沁都, 飭守各鎭繕甲屯糧, 以備不虞. 夫沁都有天塹之險, 國之恃以爲固者也. 守之以重兵, 賊何敢正眼而覷之哉. 然而用兵之道, 必以其勢, 其勢不孤, 然後始可萬全. 勢者, 何謂也. 有地勢, 有兵勢, 有拊援之勢. 得地之形勝, 而無兵守, 則勢孤矣. 得兵之精銳, 而無後援, 則勢孤矣. 今之議者, 皆曰, 沁都有重兵, 則京師賴而無虞矣. 愚竊以爲不然, 沁都之地形, 雖有天設之險, 環以大海更無連陸, 所謂絕地, 是地勢孤也. 雖有重兵之戍, 但恃險固, 不敢力戰, 所謂自守之兵, 是兵勢孤也. 下流列邑一無武備, 以數百未鍊之卒, 雖有智者, 不敢攝賊之後, 是附援之勢孤也. 以此觀之, 沁都之勢孤矣. 沁都之勢孤, 則京師之勢孤矣. 今於草芝廣城之戰, 可以驗焉. 且以沿海形便言之, 通津旣處上流反以沁都爲恃, 富平恃沮洳之險遠, 秖可自守永宗彈丸小島, 又是絕地, 不足以輕重於邊備矣. 今番之役, 跨朔戒嚴, 兵不滿千, 雖不得殄滅狂寇, 於是周視地形, 詳察民情, 有所一得之慮焉. 本邑處於沁都之下流, 乃賊船出入之門路, 又是京城之西垂陸路, 祇近之喉隘. 其民屢經騷擾, 募以爲兵, 則足可爲節制之師, 兼以生長此土, 山川險夷, 浦口緊要, 沮洳遠近, 道路徑捷, 無有不知, 風雨瘴濕, 習與性成. 與外道徵兵, 不服水土, 未諳地利者, 功相萬也. 又有文鶴古城, 乃天險之地, 已徑倭亂戰守之處, 而今雖雉堞頹圮, 蓁莽荒穢, 若加修葺, 事半功倍, 京都關防, 莫此爲要矣. 故爲今之計, 莫如養兵, 養兵之要, 莫如屯田, 屯田之法. 假令以三千兵, 春夏務農, 秋冬講武, 平歲可得穀三萬斛, 一萬五千斛, 足爲三千人一年之食, 餘穀亦可支一年矣. 不過三年, 可得三千精銳, 而兼有三年之食, 修築山城, 屯兵積穀, 據險守要, 更不煩轉輸之費, 徵發之勞, 而足可以緩急之需, 造設戰艦, 教鍊水戰. 本邑兵民, 生長海濱, 粗知水性, 因勢利導不幾年, 亦皆爲慣水之師, 以之赴緩【援】, 沁都之勢不孤. 沁都之勢不孤, 京師之勢不孤. 海門旣有水陸之備, 國家更無西顧之憂, 庶或萬全云耳.

맑음. 진무영으로부터 계엄을 해제하라는 관문(關文)이[225] 와서 곧바로 계엄을 풀었다. 이재정(李在靖)으로 하여금 본진에서 전투를 도운 산행포군(山行砲軍)과 영종에서 돌아온 산행포수를 합하여 300여 명을 거느리고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고, 훈련도감 초관(哨官) 이병오(李秉五)는 본부의 병사들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고, 수어영 별파진(別破陣)은[226] 본영의 초관 이복우(李福祐)로 하여금 인솔해서 본영으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군사들에게 먹을 것과 술을 내리니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고, 감사하며 말하기를 "의로우면 함께 죽을 수 있으니 은혜가 부모와 같아 모든 군사들이 장군을 위하여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적이 지금 멀리 달아난 것은 사또의 술책과 방략을 세우지 않은 것이 없고 위력을 흉측한 무리들에게 가해 나라가 태평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모두에게 일정을 헤아려 비용을 지급하고 다시 옷 한 벌을 지급하여 조정의 은혜를 보인 것이다. 마침내 석암(石巖)에서[227] 전별(餞別)하고 출발하였는데 도중에 배웅하며 먼길까지 따라온 사졸들이 감격하여 울면서 물러나니 모두 비를 세워 덕을 칭송하고 떠나갔다. 본 고을 별무사와 포계(砲稧)의 병사는 각각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고 또한 농한기를 기다려 정예병이 되도록 훈련하라는 뜻을 부지런히 분부하였다. 풀어서 돌려보낸 의거인(義擧人) 등을 충의로써 칭찬하고, 병서를 읽고 무예를 연마하도록 권장하였다. 모두 기뻐하며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고 다시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 길가에 비를 세워 의리를 잊지 않도록 하였다. 숙부의 은혜와 위엄이 아울러 펼쳐지니 사졸들이 기뻐하며 감복하였다. 적도들이 두려워 겁을 먹으니 바다의 기운이 오래도록 맑고 사방이 무사하였다. 이날 인천부로 돌아와 개좌(開坐)하여[228] 서리와 장교들 집안의 노고를 위문하고 집안에 두었던 환약(丸藥) 상자를 내어 육방(六房)의 관속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도 남긴 것이 없었으니, 막걸리를 강물에 부어 함께 마시는 뜻을 보이려는 것이었다. 군량으로 사용된 5백여 석에 대해 일일이 성책을 만들어 삼영문(三營門)에 신속하게 보고하였다. 여러 서리와 장교에게 차등있게 나누어 줄 때 남은 것을 수합하니 모두 40여 석이 되어 모두 가져와 납부하였으니, 감히 속이지 않고 올바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진심으로 공무를 받드는 것으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

225) 관문(關文) : 조선시대 동등한 관서 상호간이나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로 보내는 문서이다.
226) 별파진(別破陣) : 1687년(숙종 13)에 설치된 특수 병종의 하나로 대포를 주무기로 하였다. 무관잡직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아문에 소속되었다.
227) 석암(石巖) : 지금의 인천광역시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부근이다. 이곳은 석암리(石巖里), 또는 석촌(石村)으로 불렸다.
228) 개좌(開坐) : 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리를 정하고 기구를 갖추어 벌여 앉는 것을 말한다.

○ 二十三日

晴. 自鎭撫營有解嚴關文, 即日解嚴, 使李在靖領率本陣赴戰山行砲軍, 及永宗來付山砲手, 合三百餘名上京, 都監哨官李秉五, 領本部兵上京, 守御營別破陣, 使本營哨官李福祐領率還營, 皆犒饋賜酒, 莫不下淚. 感謝曰, 義則同死, 恩若父母, 諸軍願爲將軍一死矣. 賊今遠遁, 莫非使道設謀方略, 威加兇醜, 致有昇平之樂也. 皆計程給資, 更給衣一襲, 以示朝家之恩. 遂出餞於石巖, 路中以送之, 遠道從征士卒, 感泣以退, 皆竪碑誦德以去矣. 本邑別武士及砲稧兵, 各使歸農, 且待農隙習銳之意, 孜孜分付. 解送擧義人等, 奬以忠義, 勸使讀兵鍊武, 一軍皆感悅, 如辭父母, 還有怊悵之心, 立碑路傍, 以不能忘之義也. 叔父恩威并行, 士卒悅服. 賊徒畏惕, 海氛永淸, 四境無事矣. 是日還府開坐, 勞問吏校之家, 出所用丸藥橫置堂中, 分賜六番官屬, 無一介留貯, 以示單醪投河之意也. 軍粮所用五百餘石, 一一修成冊, 馳報於三營門. 諸吏校軍粮分差時剩收合, 合爲四十餘石, 皆來納, 可見不敢欺之義也. 眞心奉公, 前古所未聞者也.

○ 진중에 있는 손님이 물어 말하기를 "지금 장군이 명을 받아 변방 적도의 선박을 제압하였다. 비록 지키는 병사들이 달아났지만 한 지역의 막중한 직임을 거두면 안되니 한 지역의 책무를 담당함은 크고 또한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저 장수는 나라의 간성(干城)이고 백성의 사명(司命)이며, 신의와 많은 지략을 가지고 있어 기회와 변화에 통달하고 알아서 기정(奇正)을 나누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며 나아가면 갑옷과 창으로 무장하고 군사를 보고 승리하여 천리에서 그치면 군대의 위엄을 정비하기에 힘쓰니 사방이 안도하고 임금이 간소(旰宵)의 근심이 없어지고 백성들은 수레를 끄는 수고로움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병사들이 장수를 얻는 것은 진실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때문에 한신(韓信)이[229] 갑자기 도망가자 승상 소하(蕭何)는[230] 차가운 시냇물로 쫓아갔고, 공명(孔明)이[231] 서생(書生)이었을 때 소열(昭烈)은 초려(草廬)를 돌아보았는데,[232] 모두 공을 세워 사직을 보존하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다. 지금 서양의 오랑캐가 여러 차례 쳐들어오니 장군은 어떤 대책으로 그들을 방어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장수는 하늘이 낳고 그 재주와 충의와 지략은 그 가운데 축적되어 말이 엎드린 것과 같고 파

229) 한신(韓信) : 중국 한(漢)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소하(蕭何), 장량(張良)과 함께 한초삼걸이라 불린다. 유방(劉邦)의 진영에서 대장군으로 활동했고, 후에 제나라의 가왕(假王)이 되었다.
230) 소하(蕭何) : 중국 한(漢)나라의 개국공신이며, 행정참모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231) 공명(孔明) : 삼국 시대 촉(蜀)나라의 정치가 제갈량(諸葛亮)을 말하며, 공명은 그의 호이고, 흔히 제갈공명으로 불린다. 유비의 책사로 탁월한 지략을 이용해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크게 물리치고 형주를 차지했다.
232) 소열(昭烈)은 초려(草廬)를 돌아보았는데 : 중국 한(漢) 나라 말기 유비(劉備)가 제갈량(諸葛亮)을 만나기 위해 세 번이나 찾아가는 정성을 들인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도와 같은 위엄은 남쪽을 진압할 정도로 크게 펼칩니다. 사도(司徒)가 보니 군대가 강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방어하면 반드시 단단하게 하니 강과 바다가 비록 마르더라도 지혜는 고갈되지 않으며, 오악(五嶽)은 움직일 수 있어도 그 마음은 움직일 수 없고, 조(趙) 나라 사람은 동쪽에서 낚시질할 수 없고, 호인(胡人)은 감히 말을 기를 수 없으니, 이것은 가히 6척(尺)의 고아에게 의지하여 군사들에게 명령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법은 쉽게 말할 수 없는데, 『예기』에서는 '대장은 사직의 존망(存亡)이다.' 라고 하였고, 『회남자(淮南子)』에는 이르기를 '오직 백성이 이것을 보존한다.' 라고 하였으며, 『시경』에는 '공후(公侯)는 간성이다.' 라고 하였으며, 『연집(燕集)』에는 '나라의 명령이 전해지는 것은 조괄(趙括)의[233] 좋은 읽기, 마속(馬謖)의 좋은 계책과 같다.' 라고 하였으니, 모두 몸이 죽고 나라가 위험해졌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배움이 푸른 바다에 있는 하나의 배와 같고 반딧불이의 불빛과 같으니 어찌 감히 그대의 질문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장수는 계책을 생각하는 것을 배고픔처럼 하고 군사를 생각하기를 목마름처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량을 갖고 있고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의 좋은 소리를 내면 그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고, 상과 벌이 밝고 바르며, 은혜와 위엄이 함께 시행되면 장수를 보좌하여 죽기를 즐거워하여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면 보존되고 패함이 없을 것입니다. 무릇 금슬(琴瑟)이 조화롭지 못하면 반드시 다시 줄을 고쳐 다시 매야 하고, 진영에서 군대가 화합하지 못하면 그 몸이 적과 같아지고, 군사들이 적과 같아집니다." 라고 하였다. 손님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장군이 삼화(三和)의 이치에 깊이 통달하고 삼여(三餘)의[234] 정사에 밝게 깨우쳤으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다시 묻기를 "편안함을 함께 하고, 위태로움을 함께 해도 병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였다.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자의 책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호령을 내리고 명령을 선포하니 사람이 듣기를 즐거워하고, 군사를 일으켜 무리를 동원하니 사람이 싸우기를 즐거워하며, 병사들이 칼을 부딪쳐 교전할 때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며, 싸워서 이겨도 위로는 교만하지 않고 싸워서 패해도 아래로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물과 불속으로 달리게 해도 발길을 되돌리지 않는 자는 장차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무릇 장수는 어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아래로는 믿음이 있어야 복종할 수 있고 무리가 지혜로워야 헤아릴 수 있고 적이 용맹하여도 나아갈 수 있고 전투가 급박해도 정비할 수 있고, 법이 냉험해도 굴복하지 않고 가죽옷이 더워도 풀지 않는 것은 대개 광주리에 담긴 막걸리라고 할지라도 병사들과 함께 마시고, 비록 주머니에 담긴 양식이라고 할지라도 병사들과 함께 먹으니 오자(吳子)의[235] 종기의 고름

233) 조괄(趙括): 중국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장군이다. 명장으로 알려진 조사(趙奢)의 아들이다.
234) 삼여(三餘) : 한 해의 끝인 겨울, 하루의 끝인 밤, 때의 끝인 음우(陰雨)의 시간 등 잉여의 시간을 말한다.

을 빨아내는 것과 전단(田單)이[236] 비탈에 가래질을 한 것과 같으니, 비록 3리의 내성(內城)과 7리의 성곽이라고 할지라도 안정되어 평안함이 진실로 이부자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반(子反)이[237] 저양(雎陽)을 포위하고 지백(智伯)이[238] 진양(晋陽)을 포위하여 자식을 바꿔서 먹고 뼈를 잘라 불을 때고 부엌에 물이 잠겨 개구리가 생겨도 성은 6척 정도 높이가 남아 보존하였으니, 만약 화원(華元)과[239] 윤탁(尹鐸)의[240] 매우 어질고 두터운 덕이 아니었더라면 능히 이와 같았겠습니까? 안시성은 60일 동안 함락되지 않았고, 운암성은 세 번을 공격했지만 빼앗지 못했으니, 당 태종의 뛰어난 무예와 만주 병사의 우수한 칼끝으로도 오히려 이와 같았습니다. 왕명학(王鳴鶴)이[241] 말하기를 '어진 아전이 뛰어난 장수를 이기니 아전으로 삼기에 앞서 백성이 화합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하였으니, 곧 백성은 그 명령을 즐거워하고 선비는 의로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바로 잡히면 그 끝도 또한 다스려져서 소리와 울림이 서로 호응하고 그림자와 형체가 서로 따르며, 편안하고 위태롭고 죽거나 살게 되어도 백성들은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 有客在陣上問曰, 今將軍受命, 制邊賊船. 雖遁戍兵, 未掇任一面之重, 當一面之責, 可不大且愼歟. 夫將者, 國之干城, 民之司命, 有信義多智略, 通識機變, 分合奇正, 進則革衽, 觀兵制勝, 千里止則整勵軍威, 四境安堵, 君無旰霄之憂, 民無車徒之勞, 故曉兵之將得之誠難矣. 是故韓信亡卒, 而蕭相有寒溪之追, 孔明書生, 而昭烈有草廬之顧, 皆功存社稷, 名傳後世. 今洋夷屢侵, 將軍以何策禦之. 叔父曰, 夫將天生, 其材忠義智略, 蘊積其中如馬伏, 波之威鎭南胡張. 司徒之視, 師江上戰必勝守必固, 江海雖渴其智不渴, 五嶽可動, 其心不動, 趙人不敢東漁, 胡人不敢牧馬, 此可謂托六尺之孤, 寄三軍之命者也. 兵豈不可易言哉. 禮曰, 大將社稷存亡, 淮南子云, 惟民是保, 詩曰, 公侯干城, 燕集云, 國命所寄如趙括之善讀, 馬謖之好謀, 皆身死國危, 可不懼哉. 余之學如一葦之滄海, 螢火之太陽, 豈敢當子之問. 然將者, 思計如飢, 思士如渴. 他人有技, 若己有之人之彦聲, 其心好之, 賞罰明正, 恩威雙行, 將佐樂死, 三軍用命, 可保無敗也. 夫琴瑟不調, 必

235) 오자(吳子) : 중국 전국시대의 명장 오기(吳起)를 말한다.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전략전술의 귀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간적으로는 냉혈한이었지만 병사들의 상처를 친히 입으로 빨아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236) 전단(田單) :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장군이다. 연(燕)나라의 명장 악의의 침략으로부터 제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낸 일로 유명하다.
237) 자반(子反) : 중국 초(楚) 나라 공왕(恭王) 때 사람으로 나이 어린 종 곡양(穀陽)이 바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돌아온 공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작은 충성이 큰 충성을 해치고, 작은 이익이 큰 이익을 손상시킨다는 사례로 많이 인용된다.
238) 지백(智伯) : 중국 춘추시대 사람으로 재주에 비해 덕이 부족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239) 화원(華元) : 중국 춘추시대 송(宋)나라의 대신으로, 송대공(宋戴公)의 5대손이다.
240) 윤탁(尹鐸) : 중국 진(晉) 나라 사람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데 힘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41) 왕명학(王鳴鶴) :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사람으로 이름은 인교(仁皎)이고, 자가 명학이다.

改絃更張之, 臨陣軍不和, 則以其身與賊, 以其三軍與賊也. 客喜曰, 將軍深通三和之理, 明曉三餘之政, 可不勉乎. 更問曰, 與之安, 與之危, 軍心不變, 何以致之. 叔父曰, 孫子書不云乎. 發號布令, 人樂聞, 興師動衆, 人樂戰, 交兵接刃, 人樂死, 戰勝而上不驕, 戰敗而下不懼, 驅之水火, 不旋踵者, 將得其人也. 夫將仁能愛, 下信能服, 衆智能料, 賊勇能赴, 鬪嚴能整, 法寒不服, 裘暑不張, 蓋雖簞醪與土飮之, 雖囊粮與士同之, 如吳子之吮疽, 田單之坂鍤, 則雖三里之城, 七里之郭, 奠安若眞衽席矣. 子反之圍睢陽, 智伯之圍晋陽, 易子以食, 折骨以炊, 沈竈産蛙, 城存三版, 民無反意, 若非華元尹鐸深仁厚德, 能如是乎. 安市城六旬不下, 雲巖城三攻未捷, 以唐太宗之英武, 滿州兵之雄銳, 尚如此矣. 王鳴鶴云, 良吏勝良將, 爲吏先致民和, 則民樂其令, 士樂其義也. 其本正則其末亦治, 聲響相應, 影形相隨, 安危死生, 民不離心也.

○ 손님이 또 물어 말하기를 "적들이 계책을 쓸 수 없던 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 숙부가 대답하시기를 "대궐의 동산에 있는 새는 시끄럽게 울지 않고, 산에 사는 사나운 짐승은 명아주 잎이나 콩잎을 찾지 않습니다. 손자(孫子)가 말하기를 '군대를 아는 장수는 국가 안위의 기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장수는 문장(文章)으로 무리를 모을 수 있어야 하고 무예로 적을 위협할 수 있어야 하며, 명령을 받은 날 죽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을 기운을 없애고, 물이 새는 배의 한가운데 앉은 것처럼 하고, 불타는 집의 아래에 엎드린 것처럼 하는 이것이 삼가는 것입니다. 행군할 때 절도 있게 세운 여섯 개의 큰 깃발을 높이 휘날리고 북과 나발을 울려서 하늘을 진동시킬 정도로 소란스럽게 하는 이것이 위엄입니다. 나아감에 비바람처럼 하고 물러남에 산을 옮기듯 하며, 떨쳐 일어나면 천리의 적을 죽이고, 멈추면 모든 군대가 명령에 따르니, 제준(祭遵)이[242] 제사를 잊지 않은 것처럼 하고, 정전(鄭戩)이[243] 종산(鍾山)과 흑산(黑山)을 에워싼 것처럼 하고, 곽분양(郭汾陽)이[244] 포로가 된 군사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처럼 하고, 장손성(長孫晟)이[245] 천둥과 번개처럼 행동했던 것과 같다. 곧 지혜로운 자의 술책도 그 계책이 미치지 못하고, 용감한 사람도 그 진격을 따르지 못하니, 바람을 따라 쓰러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원(伍員)은 죽지 않고, 월나라 사람은 와신(臥薪)하고, 악의(樂毅)는[246] 군대를 버

242) 제준(祭遵) : 중국 동한(東漢)의 명장으로 법을 엄하게 집행하기로 유명하였고, 전쟁터에서도 매우 용맹하였으며, 절도가 있고 검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3) 정전(鄭戩) : 중국 북송(北宋) 때의 관리로 이부시랑(吏部侍郎), 봉국군절도사(奉國軍節度使), 추밀부사(樞密副使), 섬서사로도총관(陝西四路都總管) 등을 역임했다.
244) 곽분양(郭汾陽) : 중국 당(唐)나라 현종 때 곽자의(郭子儀)를 가리킨다. 그는 안록산(安祿山)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져 곽분양(郭汾陽)이라고 불렸다. 평생 벼슬하는 동안 한 번의 액운도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복을 마음껏 누려 부귀공명(富貴功名)의 표본이 되었다.
245) 장손성(長孫晟) : 중국 수(隋)나라의 유명한 외교가이며, 돌궐(突厥)을 평정한 공신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활을 잘 쏘았으며, 문서를 처리하는 일에 뛰어났다.
246) 악의(樂毅) : 중국 전국시대 후기 연나라의 명장으로 한 때 진(秦)나라와 함께 중원에서 최고의 세

리고 제(齊)나라 군대가 비로소 싸움에 이긴 것은 결국 밖에서 장군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진이를 임명하고 능력있는 자를 부리면서 임금은 의심하지 말고 오로지 맡기기만 하면 장성의 견고함에 잘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6국(六國)의 군대가 함곡관(函谷關)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진(秦)나라에 기전(起翦)의 무리가 있어 공격과 수비를 잘하였기 때문이고, 한신이 진창(陳昌)을 건너 천하를 석권한 것은 초(楚)나라가 군사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니, 가히 삼가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사람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 客又問曰, 賊人不能謀者, 致之何也. 叔父答曰, 鳳苑鳥不喧鳴, 山有猛獸藜藿爲之不採者也. 孫子曰, 知兵之將, 國家安危之主也. 夫將文能附衆, 武能威賊, 受命之日, 有死之心, 無生之氣, 如坐漏船之中, 伏燒屋之下者, 此愼也. 行則建節樹六纛, 鳴珂鼓角, 喧天者, 此威也. 進如風雨, 退如山移, 怒則千里殺賊, 止則三軍用命, 如祭遵之不忘俎豆, 如鄭戩之繞鍾黑山, 如郭分【汾】陽虜士涕泣, 如長孫晟霹靂閃電, 則智者不及謀, 勇者不及進, 不隨風而披靡也. 伍員不死, 越人臥薪, 樂毅去軍, 齊師始捷, 閫外將軍制之, 任賢使能, 君不疑而專任, 長城之固, 無以過也. 六國之師不入函谷關者, 秦有起翦之徒, 善於攻守, 韓信之渡陳昌, 席捲天下者, 楚失軍心也. 可不愼哉. 國之弱强, 在得人否也.

○ 손님이 또 물어 말하기를 "병사를 일으켜 정벌할 때 백성이 사모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남자』에 이르기를 '장군의 마음은 봄처럼 도도하고 여름처럼 광대하다.' 라고 하였고, 손자가 말하기를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상을 당하면 더하지 않았고, 재앙이 있으면 정벌하지 않았으며, 매우 춥거나 매우 더울 때 군사를 일으키지 않은 것 또한 모두 그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천자가 봄과 가을에 사냥하고 제후가 봄에 군사를 떨치고 가을에 병사를 다스린 것은 전쟁을 잊지 않으려는 까닭입니다. 『춘추』에 말하기를 '군사는 약을 쓰는 것 같아서 좋은 약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약은 사람을 죽인다.' 고 하였고, 『예기』에 말하기를 '지혜로운 군주가 정벌하는 것은 그 임금을 토벌하여 정치를 고치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면서 재물은 빼앗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군사라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기(器)이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쓰면 무릇 백성을 해치게 되니 덕이 없는 자는 군사를 일으켜 그것을 정벌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요(堯)임금은 단수(丹水)의 포구에서 싸웠고, 순(舜)임금은 유묘(有苗)에서 싸웠고, 계(啓)는 유호(有扈)를 공격했

력을 다투던 제(齊)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것으로 유명하다.

다. 무릇 군사를 출동하는 것은 가혹한 정치를 버리고 어진 선비를 높이고 고아와 과부를 떨쳐 일어나게 하고 가난하여 살기 어려운 것을 구휼하고 감옥에서 내보내고 그 공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것이니, 백성들은 발을 구르고 손을 흔들며 춤을 추고, 오직 그것이 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무왕(武王)이 주(紂)를 토벌하자 천하가 그것을 기뻐하였고,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함곡관에 들어가니 진나라 사람이 그를 사모하였는데, 시행하기를 인(仁)으로써 하고, 출동하기를 의(義)로써 하며, 지나가면서 추호도 백성들을 범하지 않았으니, 어찌 감동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 客又問曰, 擧兵征伐, 民有思者, 致之何也. 叔父曰, 淮南子云, 將軍之心, 滔滔如春, 曠曠如夏, 孫子曰,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此皆愛民也. 古者, 不加喪, 不伐灾, 隆寒盛暑, 不興師者, 亦皆兼愛其民也. 天子春蒐秋獮, 諸侯春振旅秋治兵者, 所以不忘戰也. 春秋曰, 兵如用藥者, 良藥活人, 惡藥殺人. 禮曰, 明主之征也, 誅其君, 改其政, 弔其民, 不奪其財也. 老子曰, 兵者, 不祥之器, 不得已而用之, 夫有虐民, 不德者, 必興師伐之, 故堯戰于丹水之浦, 舜戰于有苗, 啓攻有扈. 凡出師, 棄其虐政, 尊其賢士, 振其孤寡, 恤其貧窮, 出其囹圄, 賞其有功, 百姓手舞足蹈, 惟恐其不來也. 昔武王伐紂, 天下喜之, 漢高入關, 秦人思之, 行之以仁, 動之以義, 所過秋毫不犯民, 豈不感悅也.

○ 손님이 또 물어 말하기를 "군대의 형세를 떨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태공이 말하기를 '적이 변화하는 것으로 인해 하늘의 위엄을 이루는 것을 돕는다.' 라고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오랑캐의 수레가 왕성하여 천둥과 번개와 같다.' 고 하였고, 『춘추』에서 말하기를 '토끼가 뛰니 오리가 날아간다.' 고 하였고, 손자가 말하기를 '승리하는 사람의 전쟁은 마치 천 길이나 되는 계곡에 가두었던 물을 터트리는 듯한데, 형세가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무릇 장수는 병사 아끼기를 봄과 같이 해야 하고, 위엄은 엄혹한 서리와 같이 하며, 상주고 벌주는 것은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하고, 높이고 낮추는 예의를 삼가야 하고, 위와 아래의 의식을 간략히 해야 하고, 뛰어난 재능과 좋은 풍속은 가려서 계승하고, 반드시 군사의 재주를 헤아려 가르치며, 담대한 용맹과 힘쓰는 자를 모아 한 부대를 편성하고, 활을 잘 쏘고 충성심을 두드러진 자를 모아 한 부대를 편성하고, 높은 것을 넘고 먼 곳을 뛰어넘는 자를 모아 한 부대를 편성하고, 공로가 없어 치욕을 씻고자 하는 자들을 모아 한 군대를 편성하고, 우직하면서 과감한 자들을 모아 한 군대를 편성하여 기예를 연습하고 훈련시키면, 이 5군(五軍)은 훈련이 잘된 정예병이 될 것입니다. 전투에 투입하면 천하에서 가장 막

강할 것이니, 비유하자면 매우 무거운 것으로 새알을 깨뜨리고 화로의 불이 가벼운 털을 덮어버리듯 하며, 바람 앞의 서리맞은 잎사귀와 같고 물이 아래로 빠르게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항우가 장한(章邯)을 격파한 것이나 이목(李牧)이 흉노 기병을 벤 것은 모두 그 정예함을 축적하고 그 용맹함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무릇 조용히 있으면서 그 게을러지는 것을 보고 움직일 때는 천둥 번개같이 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출동하는 것, 이것이 군세(軍勢)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 客又問曰, 何以振兵勢也. 叔父曰, 太公曰, 因賊變化, 扶成天威, 詩曰, 戎車嘽嘽, 如雷如霆, 春秋曰, 兎起鶻擧, 孫子曰, 勝者之兵, 若決積水於千仞之溪者, 形也. 夫將愛士如春, 威如嚴霜, 賞罰不踰時, 謹尊卑之禮, 飭上下之儀, 簡纂良才順俗, 而教必料士之才, 有膽勇脅力者, 聚爲一卒, 善射顯忠者, 聚爲一卒, 踰高超遠者, 聚爲一卒, 無功欲奪醜者, 聚爲一軍, 愚直果敢者, 聚爲一軍, 教鍊投藝, 則此五軍鍊銳之精者也. 投之所戰, 天下莫强, 譬如千鈞之加鳥卵, 爐火之覆輕毛, 如風前霜葉, 水奔趨下. 昔項王之破章邯, 李牧之斬胡騎, 皆蓄其精, 養其勇者也. 夫靜以觀其怠, 動如雷霆, 出其不意者, 此知其軍勢者也.

○ 손님이 또 물어 말하기를 "적병이 사방을 포위하여 나아감과 물러섬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정(李靖)의 책에서 말하기를 '끊겨도 떠나가지 않고 물러나도 흩어지지 않으니 형국이 바둑돌을 넓게 놓는 것 같이 하여 무리에 포위당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하였고, 손자는 말하기를 '반드시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패하지 않게 하는 것은 기(奇)와 정(正)의 운용이다.' 라고 하였고, 장자(莊子)가 이르기를 '무릇 군사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으로, 의복(倚伏)이[247] 옮기어 바뀌는 일이다.' 라고 하였고, 『신서(新書)』에 말하기를 '용병을 잘하는 자는 그 형세를 드러내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니, 무릇 포위당하는 것은 군대가 함락되는 곳이고, 반드시 죽게 되는 때입니다. 그 고요함은 그늘과 같고, 그 다스림은 산과 같아서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머리를 숙여야 맹수는 움켜쥡니다. 그 손톱을 감추고 군령을 펴니 군대가 정비되고 강한 장사들은 앞에 서고 늙고 약한 자들은 뒤로 가며, 적과 접촉하여 압박을 가하고, 게으름을 엿보아 추격하여 습격하고, 그 다스리는 것을 보되 시작은 처녀와 같이하고, 그 발사하는 것은 번쩍이는 번개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듯 하면, 모든 군사는 기(氣)를 빼앗을 수 있고 장군은 마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미세한 것을 일으키는 것 같고, 해와 달을 보는 것 같으며, 적이 있는 곳에 감히

247) 의복(倚伏) : 화(禍)와 복(福)이 번갈아 일어나고 가라앉음을 뜻한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적이 떠나도 감히 추격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리에 포위당해 있지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러므로 포위한 군대는 반드시 도망할 곳을 비워두고, 돌아가는 군대를 쫓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대저 화살에 놀란 새들은 같은 나무로 모이고 여울에 떨어진 물은 서로 어울려 다시 함께 흐르니, 하물며 군대의 마음은 계략이 없더라도 같고, 무리의 힘은 계략이 없더라도 함께하는 것이겠지요? 한 사람이 용기를 북돋우면 천명이 싸우다가 죽으니, 이것은 상급과 공훈이 높은 산과 같고 병사를 아끼는 것이 때맞춰 내리는 비와 같은 것입니다. 태공(太公)이 말하기를 '냄새가 좋은 먹이에 반드시 죽을 물고기가 있고, 후하게 주는 상에 반드시 용사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오른쪽 군대가 조금 물러나자 당태종이 급히 싸웠고, 벌주(伐州)가 포위당하자 장제현(張齊賢)은 대열을 지어 기세를 올렸으니 모든 병사는 정예하였고 허실(虛實)의 사정에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 客又問曰, 賊兵四圍, 進退不得, 爲之奈何. 叔父曰, 李靖書曰, 絕而不離, 却而不散, 如布碁於局, 隨生於衆圍之中, 孫子曰, 可使必受賊而不敗者, 奇正是也. 莊子云, 夫兵者, 變化之物, 而遷移倚伏之事, 新書曰, 善用兵者, 不見其形, 夫受圍, 此兵陷之處也, 必死之際也. 其靜如陰, 其治如山, 如飛鳥之摯也. 俛其首, 猛獸之攫也. 匿其爪, 申軍令, 整車隊, 强壯臨前, 老弱馳後, 觸而迫之, 窺其怠追而襲之, 察其治, 始如處女, 發如飛電之轉雲宵, 三軍可奪氣, 將軍可奪心. 其勝如擧秋毫, 如見日月, 所在敵不敢前, 所去敵不敢追. 雖在衆圍, 有何懼哉. 是故圍師必闕, 歸師勿追者此也. 夫驚弩之鳥同樹而集, 瀨下之水因復俱流, 况軍心不謀而同, 衆力不謀而幷者乎. 一人挑勇, 千人爭死, 此賞功如高山, 愛士如時雨也. 太公曰, 香餌之下, 必有死魚, 重賞之下, 必有勇士. 昔右軍小却, 唐太宗之急戰, 伐州被圍, 張齊賢之列熾, 皆兵精而深於虛實之情也.

○ 손님이 또 물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어떻게 해야 피곤한 것입니까?" 라고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자가 이르기를 '먼저 도착하여 싸우기를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고, 늦게 도착하여 싸우기를 재촉하는 자는 피곤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싸움이란 앞서면 고달프고 늦으면 수고로우며 쉬면 게으르지만 쉬지 않으면 또한 넘어지니 이는 지혜로운 장수가 마땅히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저 장수가 명을 받으면 절월(節鉞)을[248] 잡고 용기있게 결단하기를 물 흐르는 것 같이 하고 용감함이 무리를 뛰어넘으니 지키면 은밀하게 하여 세 번이나 놀라게 해도 움직이지 않으며 나아가면 죽을 땅에 있는 듯하여 해와 달이 차고 비는 것처럼 의심하지

248) 절월(節鉞) : 부절(符節)과 부월(斧鉞)로 제왕이 장수에게 병권(兵權)의 상징으로 주던 물건이다.

말고 사시(四時)의 상생(相生)함이 천지와 같이 순환하여 마르지 않음이 강과 바다와 같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편안하니 곧 한세충(韓世忠)의[249] 바둑이나 장수규(張守珪)의[250] 술을 비치해 두는 것과 같으며, 적을 헤아려 계책을 결정하고 쫓으면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메우듯하여 악비(岳飛)의[251] 수륜(水輪)과 등애(鄧艾)의[252] 물고기 꾸러미이며, 험한 곳으로 가서 위험해지면 기공(奇功)을 이루니 이는 싸우기를 재촉하기를 잘하는 자입니다."라고 하였다.

○ 客又問曰, 何爲逸, 何爲勞乎. 叔父曰, 孫子云, 先處待戰者逸, 後處趨戰者勞. 凡戰, 先則疲, 後則勞, 息則惰, 不息亦弊, 此智將之所宜先察也. 夫將受命, 戎節果斷如流, 勇敢超群, 守則臥, 三驚而不動, 進則臨死地, 而無疑如日月之盈虛, 四時之相生循環如天地, 不渴若江海, 知彼知己逸, 則如韓世忠之奕棋, 張守珪之置酒, 料賊決策, 追則崩山塡海, 岳飛之水輪, 鄧艾之魚貫, 行險臨危, 以成奇功, 此善於趨戰者也.

○ 손님이 말하기를 "편한 것이 송나라 양공(襄公)의 홍수(泓水)와 같고 피곤한 것은 조맹덕(曹孟德)의 적벽(赤壁)과 같으니 아울러 패하여 죽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키면서 감히 공격하지 않는 것은 실(實)을 다스리는 것이며, 나아가면서 감히 막지 못하는 것은 그 허(虛)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기를 잘하는 자는 적이 공격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싸우기를 잘하는 자는 적이 지키는 바를 알지 못하니 그 허실(虛實)을 알면 가령 천 리에 있는 성을 무찌르고 허실(虛實)을 알지 못하면 이전의 실패를 고칠 수 없습니다. 물의 흐름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을 향합니다. 손자가 말하기를 '그 날카로운 기세를 피하고 그 무딘 기세를 치니 이것이 낌새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편안함으로써 피곤한 것을 기다리고 배부름으로써 배고프기를 기다리는 자는 힘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장수 된 자가 상세히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客曰, 逸如宋襄公之泓水, 勞如曹孟德之赤壁, 并致敗沒何者. 叔父曰, 守而不敢攻者, 治與實也, 進而不敢禦者, 衝其虛也. 善於逸者, 賊不知所攻, 善於戰者, 賊不知所守, 知其虛實, 可千里而屠城, 不知虛實, 不能救前車之急. 水之勢避高趁, 下兵之形避實擊虛.

249) 한세충(韓世忠) : 중국 남송 초기의 무장으로 금나라와의 전쟁으로 공을 세우고 권세를 얻었지만 진회(秦檜)의 책략에 의해 병권을 빼앗기고 실의에 빠져 사망하였다.
250) 장수규(張守珪) : 중국 당나라 중기의 장군으로 자는 원보(元寶)이다. 과주자사(瓜州刺史)로 있을 때 오랑캐가 갑자기 쳐들어오자 성 위에 술자리를 차려 놓고 장수들을 모아 풍악을 울리니, 적들이 방비가 굳건한 것으로 의심하여 물러갔다.
251) 악비(岳飛) : 중국 남송의 무장. 금군(金軍)을 무찌르고 공을 세웠으나, 재상인 진회(秦檜)의 중상모략으로 옥사하였음.
252) 등애(鄧艾) : 중국 삼국시대에 활약한 인물로 전투 기술과 전략적 지혜가 뛰어났다고 한다.

孫子曰, 避其銳氣, 擊其惰氣者, 知機者也. 以逸待勞, 以飽待 飢者, 治力者也. 其爲將者, 可不詳察者乎.

○ 손님이 또 물어 말하기를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자가 이르기를 '군쟁(軍爭)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전쟁은 나라의 큰 일이다. 노여움은 다시 기쁨이 될 수 있고 분노는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다시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예기』에서 말하기를 '고비(鼓鼙)를[253] 듣고 장수가 신하임을 생각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장수는 명을 받고 집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예(禮)이고, 갑옷과 투구를 입고 위험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절(節)이고, 영웅을 구하는데 힘쓰고 상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신(信)이며, 사졸(士卒)을 위하여 먼저 화살과 돌을 맞으러 가는 것이 의(義)입니다. 병사들 보기를 아들같이 하고 백성들 보기를 아이같이 하며 더불어 편안하고 더불어 위태롭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군의 장수는 고르고 인접한 군대의 장수와 같지 않으니 싸우면 이기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북채와 북을 잡고 모든 군대가 오래도록 추격하도록 하여 비록 태산이 험하여 그것에 빠지고 장강의 변경이 깔볼지라도 기운을 모아 오로지 힘쓰면 눈이 없어도 보이고 귀가 없어도 들립니다. 오직 깃발과 징과 북은 앞에서 지휘하니 지조(鷙鳥)의 빠르기와 장사(長蛇)의 형세와 같아서 앞에는 견고한 성이 없고 공격하는데 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승리하는 자는 망하니 여정(呂政)의[254] 통일은 지키는 것으로 돌아갔고, 항우가 세운 서초(西楚)는 어찌 오래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라 무제(武帝)도 분수(汾水)의 가을에 있었을 때 서제(噬臍)하지[255] 않았으니, 어찌 망한 진나라의 뒤를 잇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 客又問曰, 戰必勝者, 致之何也. 叔父曰, 孫子云, 莫難於軍爭, 兵者國之大事, 怒可復喜, 慍可復悅, 亡國不可復存. 是故禮曰, 聽鼓鼙思將帥之臣. 夫將受命, 而不辭家者, 禮也, 介胄而不言危者, 節也, 務攬英雄, 賞罰分明者, 信也, 爲士卒, 先赴矢石者, 義也. 視士如子, 視民如兒, 與之安, 與之危. 三軍皆曰, 吾軍之將, 非隣軍之將, 戰無不勝也. 如秉枹鼓之, 諸軍長驅, 雖有泰山之險陷之, 有長江之塞凌之, 并氣專力, 目無有視, 耳無有聞. 惟旌旗金鼓, 指揮於前, 如鷙鳥之疾, 長蛇之勢, 前無堅城, 攻無强賊. 然數勝者亡, 呂政之統一環宇, 項羽之創立西楚, 其能久乎. 漢武亦不噬臍於汾水之秋, 則豈非亡秦之續也.

253) 고비(鼓鼙) : 기병(騎兵)이 말 위에서 치는 북을 가리킨다.
254) 여정(呂政) : 진나라 시황제를 가리킨다. 장양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승상 여불위(呂不韋)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있다.
255) 서제(噬臍) : 배꼽을 물음. 사람에게 쫓긴 사향노루가 자기 배꼽 향내 때문에 잡힌다고 여겨 자기 배꼽을 물어뜯으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이야기에서 온 말이다.

○ 손님이 또 물어 말하기를 "서로 더불어 적을 막을 때 허실(虛實)을 알지 못하면 장차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자가 이르기를 '병사들이 성을 내어 서로 끌어들이고 오래되면 화합하지 못하니 반드시 살피기를 삼가 살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급하게 간첩을 보내 그 계책을 보고 멀리서 일어나 척후를 돌게 하여 종적을 살피며 간혹 어지럽게 하거나 찌르고 혹은 그것을 유인하여 유리하게 합니다. 적이 만약 마음이 느긋하여 염려함이 없으면 깃발을 번거롭고 요란하게 하고 사람과 말이 거침없이 내달려 용기 있는 자는 먼저 오르고 약한 자는 쉽게 물러서니 정예병을 골라서 그들을 역습합니다. 만약 그 장수가 달아나는 것을 추격한다면 거짓으로 이롭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고 거짓으로 병사가 뒤섞여 칼을 마주대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여 무리는 달리지 않고 수레도 달리지 않고 달려도 대열을 넘지 않으니, 이것은 군대가 이미 다스려진 것입니다. 그들을 피해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적과 약속한 것과 같으니 믿을 수 없으며 이겨도 기뻐할 수 없고 작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조사(趙奢)가[256] 벽루(壁壘)를 둘러보는 것이나 항량(項梁)[257] 장군이 교만하여 끝내 게을러진 것과 같이 용(龍) 또한 유수(濰水)를 절반만 건넌 것입니다. 의군(疑軍)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이광(李廣)이[258] 안장을 푸는 것, 단도제(檀道濟)가[259] 모래를 올리는 것, 유곤(劉琨)의[260] 맑은 휘파람, 염범(廉范)의[261] 두 횃불과 같으니, 만약 신기한 계산과 특이한 계책이 아니면 어찌 허실(虛實) 사이에서 환하게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명이 거문고를 타자 중달(仲達)이[262] 강으로 물러나고 계화(鷄火)로 말미암아 요양(姚襄)이[263] 어지러우니, 그 가장 어려운 것이 허실(虛實)입니다. 손자가 말하기를 '새가 모이는 것이 허(虛)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밤에 부르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군대가 소란스러운 것은 장차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256) 조사(趙奢) : 중국 전국시대 조(趙)나라 말기에 활약한 명장으로 알려져 있다.
257) 항량(項梁) : 중국 진(秦)나라 말기의 반란군 지도자. 전국시대 말기 초(楚)나라의 대장군으로 진나라에 맞섰던 항연(項燕)의 아들이며, 항우(項羽)의 숙부이다. 회왕(懷王)을 옹립하여 초나라를 다시 세웠지만 정도(定陶)에서 진나라 군대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였다.
258) 이광(李廣) : 중국 한나라 때의 무장. 활을 잘 쏘고 병사를 아끼어 병사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흉노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사람들이 비장군(飛將軍)이라 불렀다. 흉노를 공격하던 도중 길을 잃었다는 죄목으로 문책을 받아 자살하였다.
259) 단도제(檀道濟) : 중국 남북조시대 초기의 명장으로 공을 많이 세웠으나 자신을 시기한 대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260) 유곤(劉昆) : 중국 서진(西晉) 시기에 대장군으로 활동한 인물로 호방함으로 이름을 떨치고, 문장으로도 인정받았다.
261) 염범(廉范) : 두릉(杜陵) 사람으로 부친의 영구를 배에 싣고 가다가 강물에 빠지게 되자 목숨 걸고 지켰으며, 촉군태수(蜀郡太守)가 되어 물을 준비해 두어 화재를 방비하면서 밤에도 일할 수 있게 하여 백성을 칭송을 받았다.
262) 중달(仲達) : 중국 위(魏) 나라의 정치가 사마의(司馬懿)를 말한다. 조조의 지략가로 활동을 시작하여 그의 후손인 조비, 조예, 조진, 조방을 보필했으며, 오장원에서 제갈량의 군대를 물리쳤다.
263) 요양(姚襄) : 중국 5호 16국 시대 후진(後秦)의 제1대 왕인 요장(姚萇)의 형으로 후진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어지러운 것입니다. 말을 죽여 고기를 먹는 것은 군사가 양식이 없는 것이고 취사도구를 걸어놓고 막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궁지에 몰린 군대입니다. 자주 상을 주는 것은 궁색한 것이고, 자주 벌을 주는 것은 곤고한 것이고, 나아가도 조용한 것은 그 험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멀어도 싸움을 거는 것은 사람이 나아가려 하는 것이고, 그 거주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유리함이고, 새가 일어나는 것은 매복한 것입니다. 짐승이 놀라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고 흙먼지가 높으면서 무기가 있는 것은 수레로 오는 것이고 낮으면서 넓은 것은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흩어져도 조리정연한 것은 나무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왕래케 하는 것은 군대를 경영하는 것이고, 말을 낮추며 더욱 준비하는 것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을 강하게 하며 나아가 쫓는 것은 물러나는 것이고, 약속이 없으면서 화의를 청하는 것은 꾀하는 것이고, 반쯤 나아갔다가 반쯤 물러나는 것은 유인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굶주린 것이고, 물에 빠지면서 먼저 마시는 것은 목마른 것이고, 이로운 것을 보고도 나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피로한 것입니다. 그것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 계책을 얻는 자이니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 客又問曰, 相與拒敵, 不知虛實, 將何之. 叔父曰, 孫子云, 兵怒相延, 久以不合, 必謹察之. 夫急行簡牒以觀其謀, 遠擧塘巡以察其跡, 或撓而衝之, 或誘而利之. 賊若蕩蕩無慮, 旗幟煩亂, 人馬縱橫, 勇者先登, 弱者易退, 則選銳逆擊之. 若其將追北, 佯爲不及見利, 佯爲不知交兵致刃, 徒不趍, 車不馳, 奔走不踰列, 是軍已治矣. 避之不疑, 若與敵約, 而不可信也, 勝而不可喜也, 小而不可忽也. 如趙奢周示壁壘, 項梁將驕卒惰, 龍且濰水半渡者也. 有疑軍而可擊者, 李廣之解鞍, 檀道濟揚沙, 劉琨之清嘯, 廉范之兩炬, 而若非神算異策, 豈可曉暢於虛實之間乎. 故孔明彈琴而仲達退江, 逌鷄火而姚襄亂, 其最難者, 虛實也. 孫子曰, 鳥集者, 虛也. 夜呼者, 恐也, 軍擾者, 將不動也, 旌旗動者, 亂也. 殺馬食肉者, 軍無糧也, 懸甑不返其舍者, 窮寇也. 數賞者, 窘也, 數罰者, 困也, 進而靜者, 恃其險也. 遠而挑戰者, 欲人之進也, 其所居易者, 利也, 鳥起者, 伏也. 獸駭者, 覆也, 塵高而銃者, 車來也, 卑而廣者, 徒來也. 散而條達者, 樵採也, 少而往來者, 營軍也, 辭卑而益備者, 進也. 辭强而進驅者, 退也, 無約而請和者, 謀也, 半進半退者, 誘也. 仗而立者, 飢也, 沒而先飮者, 渴也, 見利而不知進者, 勞也. 其先見之明至矣. 智將有將計, 取計者, 可不愼哉.

○ 손님이 또 물어 말하기를 "편안하여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으면 패함이 없겠습니까?"라고 하니, 숙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역』에서 말하기를 '겹겹이 문을 만들고 걸침목을 설치하여 사나운 손님을 막아낸다.'라고 하였고, 『예기』에서 말

하기를 '성곽과 해자를 만들어 든든히 지킨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장수가 명을 받고 오는 것이 늠름하고 두려워함이 매우 높고 대단하여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습니다. 비록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마치 겹겹이 포위된 것처럼 계책을 생각하는 것이 목이 마른 것처럼, 계획과 준비는 굶주린 것처럼 해야 합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周)나라는 융거(戎車)와 호분(虎賁)을 가지고 있고, 노(魯)나라는 구갑(丘甲)을 만들었고, 제(齊)나라는 절제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진(晋)나라는 앞서가는 4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한(漢)나라는 남·북군을 두었으며, 당(唐)나라는 뛰어난 무예를 가진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백 년 동안 정예하게 길렀지만 하루에 사용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나라 무제가 주병(州兵)을 버리니 도적의 무리들이 떼를 지어 일어났고,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의 군대를 사라지게 하니 사슴을 쫓는 반역자들이 봉기하였습니다. 이에 현명한 재상으로 나라를 돕게 하고 좋은 장수로 외세를 제어하며 편안하여도 반드시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움직이더라도 반드시 예를 갖추며 전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인을 존경하고 병사를 아끼는 것을 지키고 사람이 가진 기예를 사용하고 머무르게 하고 사람의 뛰어나고 현철한 것이 맺어지는 그것을 좋아하니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도 물어서 군대의 계책을 세우니 나아가도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물러나도 죄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직 백성은 이렇게 보호하면 설공(薛公)의 면주(免胄)와 이성(李晟)의[264] 수모(繡帽)를 기다리지 않으니 적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옛날 도간(陶侃)은[265] 벽돌을 옮기고 오개(吳价)의 땅이 그물인 것은 모두 편안하여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조(本朝)의 율곡(栗谷) 선생이 병사 10만을 양성할 계책으로 여러 번 경연 자리에서 말하였을 때 논의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10년이 되지 않아서 임진왜란의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이 처음 함락당하여 정발(鄭撥)은[266]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켰고, 동래가 이어서 함락당하여 송상현(宋象賢)이[267] 순국하였고, 병사(兵使) 이각(李珏)은[268] 군대를 버리고 도망쳤고, 관찰사 김수(金晬)가[269] 조치하였으나 난리를 피하지 못해 산중의 여러 고을이 와해되어 정세를

264) 이성(李晟) : 중국 당나라 때 인물로 성격이 굳세고 맹렬하였고, 기사(騎射)에 뛰어났으며, 왕조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사왕이제(四王二帝)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265) 도간(陶侃) : 중국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陶淵明)의 증조부로 동진(東晉)의 개국공신이고, 관직이 대사마에 이르렀다.
266) 정발(鄭撥) : 조선 선조 때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부산진 첨절제사로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267) 송상현(宋象賢) :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동래부사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왜군이 동래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끝까지 항전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당하자 순사(殉死)하였다.
268) 이각(李珏) :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울산 병영에서 부대를 이끌고 동래성을 지원하러 갔던 무관이었는데, 일본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주하였다.
269) 김수(金晬) : 조선시대 한성판윤, 호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경상우감사(慶尙右監司)로서 진주를 버리고 거창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면서도 각 고을에 격문을 돌려 백성들에게 적을 피하라고 통고하였는데, 도내가 텅 비어 왜적을 방어할 수 없었다.

살폈지만 유리함을 잃게 되었고, 상주의 전투에서 이일(李鎰)은[270] 패배하여 조령(鳥嶺)을 지키지 못했고, 탄금대의 전투에서 신총독(申摠督)이[271] 전사하였습니다. 7천여 명의 군사들은 모두 이랑에서 농사짓는 무리들이어서 싸우고 진을 치는 것을 익히지 않아서 갑자기 강한 적을 만나면 물로 들어가 빠져 죽어서 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적이 세 길로 오래 쫓아와서 수도는 지킬 수 없었지만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이[272] 성을 지켰고, 대신 이양원(李陽元)은[273] 물러나 임진(臨津)을 지켰고, 남병사(南兵使) 신할(申硈)은[274] 군대를 편성하여 난리에 달려나가 왕을 위해 전사하였습니다. 개경이 함락당하자 적의 세력이 더욱 커졌고 평양의 전투에서 관군은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져서 삼경(三京)이 모두 함락당하자 임금은 몽진(蒙塵)하였습니다.[275] 재상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 비로소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문성공(李文成公)은 진실로 성인(聖人)이고, 또한 늦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천자의 군대가 이겨서 평양을 회복하고 삼남(三南)의 의로운 군대가 잇달아 일어나며 이에 8년간에 이르러 비로소 소탕하고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리 준비할 수 없었던 피해입니다. 그리고 정묘(丁卯)의 난리로서 그것을 헤아려봅니다. 오랑캐의 기병(騎兵)이 압록강을 건너자 부윤(府尹) 이완(李莞)은[276]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켰으나 안주성은 함락당했고, 병사 남이흥(南以興),[277] 목사 김준(金浚)[278] 및 17개 고을의 수령들은 서로 잇달아 싸워서 전사하였고, 평양은 놀라 무너졌습니다. 관찰사 윤훤(尹暄)이[279] 성천으로 물러

---

270) 이일(李鎰) :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경상도순변사가 되어 북상하는 왜적을 상주에서 맞아 싸우다가 크게 패배하고 충주로 후퇴하였다. 충주에서 도순변사 신립(申砬)의 진영에 들어가 재차 왜적과 싸웠으나 패하고, 도망하였다.

271) 신총독(申摠督) : 조선 선조 때의 무장 신립(申砬)을 가리킨다.

272) 김명원(金命元) : 조선시대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수습하는 데 공을 세워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경림군(慶林君)에 봉해졌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순검사에 이어 팔도도원수가 되어 한강 및 임진강을 방어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적을 막지 못하고 적의 침공을 지연시켰다.

273) 이양원(李陽元) : 조선중기 대제학, 대사헌,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수도의 수비를 맡았으나 한강 방어의 실패로 양주(楊州)로 철수, 분군(分軍)의 부원수(副元帥) 신각(申恪)과 함경도병마절도사 이혼(李渾)의 군사와 합세해 해유령(蟹踰嶺)에 주둔,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뒤 영의정에 올랐다.

274) 신할(申硈) :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1589년(선조 22) 경상도좌병사 등을 역임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함경도병사가 되어 선조의 몽진을 호위함으로써 그 공을 인정받아 경기수어사겸남병사에 임명되었다.

275) 몽진(蒙塵) : '먼지를 뒤집어쓴다.'는 뜻으로,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것을 말한다.

276) 이완(李莞) :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휘하에서 종군하였고, 이괄(李适)의 난 때에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공을 세웠으며, 정묘호란 때에 의주 부윤으로 적군을 맞아 싸웠으나 패하자 병기고(兵器庫)에 불을 지르고 분사(焚死)하였다.

277) 남이흥(南以興) :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연안부사(延安府使)가 되었다. 정묘호란 때 평안병사로서 안주성(安州城)을 막다가 패하자 자결하였다.

278) 김준(金浚) :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인조반정(仁祖反正) 뒤에 여러 벼슬을 지내다가 정묘호란 때에 안주목사(安州牧使) 겸 방어사(防禦使)를 지냈고, 안주성이 함락되자 처자식과 함께 분신(焚身) 자결하였다.

279) 윤훤(尹暄)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부체찰사로서 적과 싸웠으나, 안

나 지켰고, 적병이 평산으로 나아가 주둔하자 임금께서 난을 피해 강도(江都)로 옮겨 가서 화의(和議)하여 열 가지 일을 약속하여 정하니 비로소 적들이 물러갔습니다. 또 병자년의 변란에서 적이 강을 넘은 것이 음력 섣달 12일과 16일에 있었는데, 앞선 기병이 이미 홍제원(弘濟院)에 도착하였고, 천 리에 있는 나라의 사람이 4일 만에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서도(西道)에서 군대의 일을 임시로 시작하였으니,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280] 안주병사 유림(柳琳),[281] 순찰사 홍명구(洪命耉)는[282] 모두 한 시대의 명장이었는데, 사졸들은 적을 보고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비록 관중(管仲)과 제갈공명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을 당하면 반드시 승산이 없으므로 지키는 것을 방책으로 정하니 족히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청석령(靑石嶺)의[283] 험함을 믿어도 방어하기에 부족하여 오랑캐 기병이 유린하고 나랏일은 정치가 잘못되어 형편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서북쪽의 병사들은 미원(美院)으로 물러나 자취를 감추고, 삼남(三南)의 군사들은 쌍령(雙嶺)에서[284] 패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온한 날들이 오래되어 백성이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전쟁터로 급하게 몰아가며 요행으로 외부의 침략을 방어함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옛날의 좋은 장수는 미리 헤아려 준비하지 않음이 없고 엄하게 기율(紀律)을 밝히며, 뛰어나고 예리한 기계(器械)로 사졸들에게 익히게 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지키면 반드시 견고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문념무희(文恬武嬉)하며[285] 임시로 둘러맞추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삼고 갑작스럽게 일을 만나도 매번 이와같이 하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경계를 삼음이 옳습니다. 어찌 알지 못하는 자가 깊이 한탄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주를 빼앗기고, 평양에서 철수하여 성천으로 후퇴하였다. 전세를 불리하게 한 죄로 의금부에 투옥되어 사형되었다.

280) 임경업(林慶業) : 조선 인조 때의 명장으로 이괄(李适)의 난에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 1등이 되었고, 병자호란 때 중국 명나라와 합세하여 청나라를 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자점의 모함으로 죽었다.

281) 유림(柳琳) : 조선 인조 때의 무신으로 병자호란 때 평안도 절도사로서 청군의 침입을 막고 남하하는 청군을 추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1641년 청나라의 요청으로 명나라를 칠 때는 원군을 이끌고 출병하였다.

282) 홍명구(洪命耉) : 조선후기 문신으로 1623년 인조반정 후에 등용되어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병자호란 때 자모산성(慈母山城)을 지키다가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근왕병(勤王兵) 2,000명을 거느리고 남하하다가 김화(金化)에 이르러 청군과 맞서 싸우는 중에 전사하였다.

283) 청석령(靑石嶺) : 요동의 봉황성에서 서북쪽으로 190여 리 되는 곳에 있는 고개로, 푸른 돌이 많아 청석령이라 칭한다.

284) 쌍령(雙嶺) : 현재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 있었던 지명이다. 병자호란 때 조선의 근왕병과 청군 사이에 대규모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285) 문념무희(文恬武嬉) : 문관들은 안일하게 지내고, 무관들은 희롱한다는 뜻으로, 안일에 빠져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 客又問曰, 安而不忘危, 可以無敗乎. 叔父曰, 易曰, 重門擊柝, 以待暴客, 禮曰, 爲城郭溝池, 以爲固. 夫將受命, 以來凜凜, 慄慄如臨萬仞, 如履薄氷. 雖談笑之間, 如在重圍, 思計如渴, 籌畫如飢, 無恃賊不來, 恃吾有待之. 故周有戎車虎賁, 魯作丘甲, 齊有節制之師, 晋有前行四萬, 漢置南北軍, 唐有英武兵, 百年養銳, 不過一日之用. 然晋武去州兵, 而群盜朋興, 秦皇銷天下兵, 而逐鹿反者蜂起. 是以賢相輔國, 良將制外, 安必思危, 動必有禮, 不忘戰. 守尊賢愛士, 人之有技用而留之, 人之彦聖結而好之, 詢于芻蕘, 謀於旅士, 進不求名, 退不避罪. 唯民是保, 則不待薛公之免胄, 李晟之繡帽, 賊不侵犯也. 昔陶侃運甓, 吳价地網, 皆安不忘危也. 本朝栗谷先生, 以養兵十萬之策, 屢陳筵席時, 議携貳居, 未十年, 壬辰之亂. 釜山初陷, 鄭撥死節, 東萊繼陷, 宋象賢殉國, 兵使李珏棄軍以走, 觀察使金睟措手, 不及避亂, 山中列邑瓦解, 望風失利, 尚州之戰, 李鎰敗北, 烏嶺失守, 琴臺一戰, 申摠督死之. 七千餘軍, 皆農畝白徒, 不習戰陣, 猝當强賊, 赴水溺死, 水爲不流. 賊長驅三路, 京師失守, 都元帥金命元守城, 大臣李陽元退守臨津, 南兵使申砧偏師, 赴亂死於王事. 松京繼陷, 賊勢益大, 平壤之戰, 官軍不戰自潰, 三京盡陷, 大駕蒙塵. 柳相西崖【厓】始乃歎服曰, 李文成眞聖人也, 亦悔之晚矣. 天兵克復平壤, 三南義旅接踵而起, 乃至八載, 始得掃平. 此不能豫備之害, 而以丁卯之亂論之, 胡騎渡鴨江, 府尹李莞死節, 安州城陷, 兵使南以興, 牧使金浚及十七邑守宰, 相繼戰沒, 平壤驚潰. 觀察使尹暄退守成川, 賊兵進屯平山, 大駕去邠, 江都和議乃定約以十事, 始得退賊. 且丙子之變, 賊之渡江, 在臘月十二日十六日, 先騎已到弘濟院, 千里國人, 四日抵京. 此時西道戎務, 臨時草刱, 義州府尹林景業, 安州兵使柳琳, 巡察使洪命耆, 皆一代名將. 士卒望賊潰散. 雖管葛當之, 必無勝算, 定方之戍, 無足可恃, 青石之險, 不足爲固, 虜騎蹂躪, 國事板蕩. 西北之兵退藏美院, 三南之師敗沒雙嶺. 此皆昇平日久, 民不知兵, 急驅於戰場, 僥倖於禦侮, 其可得乎. 古之良將, 無不預度準備, 嚴明紀律, 精利器械, 習鍊士卒, 以之戰必勝, 守必固也. 我國文恬武嬉, 以姑息爲長策, 猝然遇之, 每每如此, 以壬丙之亂, 可爲戒矣. 寧非識者之所深歎乎.

인천 별무사청(別武士廳)

주련(珠聯) 286)

젊었을 적에 뇌락(磊落)하여[287] 아직 바람과 구름의 웅장한 기운을 품고 있으니 중년에 이루지 못했어도 강호의 호탕한 기상은 조금 남아 있었네. 진(晉)나라 사람을 사모하였지만, 고아한 이야기로 거의 정사를 폐하였고 늙어서는 한족(漢族)의 관리가 되어 세상일에 조금은 마음을 썼으니[288] 골짜기에서 꾀꼬리가 막 날아와 나무를 옮기는 영광에 놀라고 바다제비가 새로 와 발을 걷는 뜻을 깊이 알았으리. 병주(并州)의 죽마(竹馬)[289]가 어찌 하수(河水)로 아홉 마을을 윤택하게 하리라[290] 생각했겠으며 회계(會稽)의 백록(白鹿)이 어찌 수레로 호위받기를 감히 바랬으랴? 마침 성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녹문(鹿門)의 고취가[291]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름길을 말미암지 않은 담대(澹臺)의 유풍을[292] 본받고자 한 것이거니와, 추기(樞機)를[293] 신중히 하면서도 일을 보면 문득 말하였으며 함정이 바로 앞에 보여도 몸을 비켜 피하지 않았으니, 마침 공자께서 가르치신 도에 머무르며 어찌 유사(游士)들의 비방하는 말이 없었겠는가마는 매번 늙은 농부를 볼 때마다 성군이 자애롭게 어루만져 주는 뜻을 갖추어 말하였노라. 비방과 칭찬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과실(過實)을 모두 경험하고 총애와 영화를 분

286) 주련(珠聯) : 기둥에 적은 글귀를 말한다.

287) 뇌락(磊落) : 마음이 활달하여 조그마한 일에는 구애하지 않는 모양을 말한다.

288) 진(晉)나라 사람을 …… 마음을 썼으니 : 진(晉)나라의 재상인 사안(謝安)은 회계(會稽)의 동산(東山)에 은거하다가 40세가 넘은 뒤에야 벼슬길에 나가 재상이 되고 비수(淝水)의 대전(大戰)에서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을 대파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였다. 그는 풍류를 즐겼으며 현학(玄學)에 뜻을 두어 청담(淸談)을 일삼았다(『진서(晉書)』「사안전(謝安傳)」). 이 일화를 통해 구완식이 풍류를 즐기고 나라를 구하였음을 비유한 것이다.

289) 병주(并州)의 죽마(竹馬) : 구완식이 돌아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라는 뜻이다. 후한(後漢) 때 곽급(郭伋)이 병주목(幷州牧)으로 부임하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마를 타고서 환영하였는데, 이러한 일화에서 차용한 뜻인 듯하다.

290) 어찌 하수(河水)가 …… 윤택하게 하리라 : 은택(恩澤)이 먼 곳의 사람에게까지 미친다는 뜻이다. 『후한서(後漢書)』「곽급열전(郭伋列傳)」에 곽급이 영천 태수(潁川太守)로 나갈 때 황제가 위로하면서 "어진 태수가 제성(帝城)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니, 하수가 구리를 윤택하게 하여 경사가 함께 복을 입기 바란다." 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291) 녹문(鹿門)의 고취 : 녹문(鹿門)은 오늘날 중국 호북성(湖北省) 양번시(襄樊市) 동남쪽에 위치한 산 이름으로 한(漢)나라 말기에 방덕공(龐德公)이 형주 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의 간곡한 초빙을 물리치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처자를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고 하는 곳이다. 은거지의 대명사로 쓰인다(『후한서(後漢書)』「일민열전(逸民列傳)」).

292) 담대(澹臺)의 유풍 : 담대는 담대멸명(澹臺滅明)이다. 공자가 무성(武城)의 수령인 자유(子游)에게 제대로 된 인재가 있느냐고 묻자, 자유가 담대멸명을 거론하면서 "길을 다닐 때는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언의 방에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行不由徑, 非公事, 未嘗至於偃之室也.〕." 라고 한 고사가 『논어(論語)』「옹야(雍也)」에 보인다.

293) 추기(樞機) : 추기는 언행 즉 말과 행동을 말한다. 이는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의 "언행은 군자의 핵심 기틀이다. 기틀의 발동이 영욕의 주인이다.〔言行 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에 근거한 말이다.

에 넘치게 받아 걸핏하면 허물을 초래하였도다. 뜬구름이 바다에 연하니[294] 율무〔薏苡〕 수레 소리를[295] 듣기 두렵고 밝은 달이 누각을 비추니 부용(芙蓉)의 칼날을 의심하여 보네. 저녁에 꽃 피워 아침에 찬란함을 깨달아 어제의 잘못을 깊이 깨우치고, 상강수(霜降水)가[296] 마른 뒤에야 거의 만년의 절조를 도모하려 하나이다. 간우(干羽)의 춤으로[297] 평성(平城)의 포위를[298] 풀 수 없으니, 척선(尺扇)의 바람으로 어찌 타오르는 가죽옷을 서늘하게 할 수 있겠는가. 성품이 곧고 깨끗하였건만 정사(政事)가 없었으니 어찌 백 리(里)의 기구(器)이리까. 유아(儒雅)했으나[299] 치략(治略)이 부족하였으니 천자를 보필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재주가 없었도다. 자식으로서는 오도(五都)에서 명성을 높였고 신하로서는 천 리를 밝게 비추었으니, 정직한 도는 소나무와 잣나무에 맹세하여 오래도록 푸르고 충직함과 용맹함의 지조는 금석(金石)에 기약하여 변하지 않았네. 주(周)나라는 험윤(玁狁)을 정벌하여 북벌하는 군대를 멀리 쫓아 냈고[300] 한(漢)나라는 흉노를 토벌하여 남목(南牧)의 근심을 끊어냈나니,[301] 무신은 고을을 담당하고 옥노(玉弩)를 당겨 단련할 줄 알았으며 이교(吏校)는 충성을 바치기를 원하고 쇠총을 끼고 더욱 힘썼도다. 믿음과 의리는 초목에 맹세하여 단단하게 하고 말과 행동은 천지에 질정하여 변치 않는 충성심이 백발까지 이어지나니, 방패 자루에 먹을 가니[302] 삼천(三川)에 물결 삼키는 소리가 진동하였고[303] 말의 등에 격문을 초안하니

294) 뜬구름이 바다에 연하니 : 두보의 시 「등연주성루(登兗州城樓)」에서 "뜬구름은 해대에 연하였고, 편평한 들은 청서로 접어드네."라고 한 것에 전거를 둔 표현이다.

295) 율무〔薏苡〕 수레 소리 : 남을 비방하고 참소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후한의 마원이 교지태수로 있다가 교지에서 돌아올 때 율무라는 약초를 가지고 왔는데 간신들이 이를 뇌물로 받아왔다고 모함했다는 고사가 있다(『후한서(後漢書)』, 「마원열전(馬援列傳)」).

296) 상강수(霜降水) : 9월에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비로 인해 불어난 강물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풍우명호변증설(風雨名號辨證說)」).

297) 간우(干羽)의 춤 : '간우(干羽)'는 방패를 쥐고 추는 간무(干舞)와 새의 깃을 쥐고 추는 우무(羽舞)를 합칭한 말이다.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 "순(舜) 임금이 일찍이 문덕을 크게 펴고 방패와 깃을 들고 두 섬돌 사이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런지 70일 만에 완악한 묘족이 감복하였다."라고 한 일을 말한다.

298) 평성(平城)의 포위 : 『한서(漢書)』「고제기(高帝記)」에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흉노의 묵특선우(冒頓單于)를 치기 위해 출정했다가 평성 부근의 백등산(白登山)에서 7일 동안이나 흉노의 30만 대군에게 포위를 당했다가 진평(陳平)의 계책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던 고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고사를 합쳐 이상적이고 요원한 방법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299) 유아(儒雅) : 풍치(風致)가 있고 아담(雅淡)함을 이른다.

300) 주(周)나라는 …… 멀리 쫓아냈고 : 주 선왕이 중산보(仲山甫), 윤길보(尹吉甫), 방숙(方叔), 소호(召虎) 등을 임명하여 북쪽의 유목민족인 험윤(玁狁)을 정벌하고 남의 형만(荊蠻), 회이(淮夷), 서융(徐戎) 등을 쳐 주나라를 중흥시킨 것을 말한다(『사기(史記)』「주본기(周本紀)」).

301) 한(漢)나라는 …… 끊어냈는데 : '남목(南牧)'은 북방 민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침입하는 것을 뜻한다. 가의(賈誼)의 『過秦論』에 "호인들이 감히 남쪽으로 내려와 말을 먹이지 못하였다〔胡人不敢南下而牧馬〕."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한 무제(漢武帝)가 흉노(匈奴)를 쳐서 물리치자 흉노가 감히 남으로 내려와 말을 먹이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

302) 방패 자루에 먹을 가니 :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즉위하기 전부터 순제(荀濟)는 무제와 오랜 친구였는데, 무제가 큰 뜻을 품은 것을 알고도 순제는 자기의 재주를 자랑하면서, 정변이 일어난다면 방패 손잡이에 먹을 갈아서 격문을 띄워 성토할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자치통감(資治通鑑)』「양기(梁紀)」).

303) 삼천(三川)에 물결 삼키는 소리가 진동하고 : 삼천은 서주(西周)의 경수(涇水), 위수(渭水), 낙수(洛水)로, 유왕(幽王) 3년에 지진으로 인해 삼천(三川)이 흔들리는 변고가 생기자, 백양보가 "음양(陰

삼엄하게 일만 장(丈) 의천검(倚天劍)을[304] 잡았네. 변방이 추운 듯하니 둑과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함께 듣고 강바람이 매우 심하여 우레처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며 올라탔네. 방패와 창을 잡고서 사직을 보위하였으니[305] 강직한 충성심에 거하고 변경을 안정시켜 공을 세워 이름이 세상에 떨쳐지니 당당한 진(陣)을 몸소 실천하였노라. 교장(敎場)에서 익히고 훈련하니 농사에 익숙했던 병사들을 융단(戎壇)에서 호령하니 북이 잔잔했던 바다에서 용솟음치네. 창을 가로 쥐고서 서쪽 변방으로 가 사막의 티끌을 쓸어내고 부월을 받고서 남쪽 바다로 가 장가(牂牁)의[306] 시석(矢石)을 덮어버렸네. 오랑캐와 대적함에 북채를 잡고 몸을 잊었으며 요사한 기운을 쓸어내니 선주(先籌)가 맑아졌노라. 갑옷을 내어주는 바탕에 강개하여 호걸은 천둥처럼 움직이고 배에 오르는 북소리에 감격하니 충심은 하늘이 알았네. 요순(堯舜)은 모든 오랑캐에게 관대를 하게 할 리가 없고 천지는 오랑캐와 중국의 구분을 참아냈네. 태백성이 달에 들어옴에 묘성에 오랑캐가 절멸하는 조짐이 드리우니[307] 높은 칼날이 구름을 쓸고 병사들은 오랑캐의 기운을 사로잡았도다. 진(陣)에 오른 3대(隊)는 항상 병기(兵機)에 대해 망령되게 논하였으나 허국(許國)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절충(折衝)에 대해 차마 잊지 못한 것이었네. 은혜와 위엄을 함께 행하였으니 또한 초목에 지극히 공정하였고 병농을 서로 도와 족히 호궤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네. 머리를 부딪쳐 깨어버리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으나 죽을 곳을 알지 못하여 일찍이 마음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니 오직 신감(神鑑)이 있을 뿐이었네. 위의(威儀)가 진작되어 불길이 기러기의 깃털을 넘었고 깃발과 북이 임하니 거센 바람이 가을 낙엽을 말아 일으키네. 갑옷 입은 무사들이 길을 나서니 표기(驃騎)의[308] 공을 쫓아 논하였고 용기(龍旂)를[309] 수여하니 분양(汾陽)의[310] 충성을 깊이 부러워하였네. 일신(一身)이 진신(縉紳)에 이르면 영예로운 벼슬

陽)이 제자리를 잃어 이런 변고가 생긴 것이며, 하(夏)나라가 망할 때도 이수(伊水)와 낙수(洛水)가 말랐다."라고 하였다(『국어(國語)』「주어상(周語上)」).

304) 의천검(倚天劍) : 의천검(倚天劍)은 매우 긴 장검을 의미하는데, 송옥(宋玉)의 대언부(大言賦)에 "네모난 땅으로 수레를 만들고 둥근 하늘로 덮개를 만들고 긴 검은빛이 번쩍이며 하늘 저편에 기대섰다.〔方地爲車 圓天爲蓋 長劍耿耿倚天外〕" 한데에서 유래한다.

305) 방패와 …… 보위하였으니 :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동자(童子)로 어린 나이에 나라를 지키고자 싸우다 전사하자 공자가 칭송하였다(『예기(禮記)』「단궁하(檀弓下)」). 여기에서는 국가를 보위한 사실을 찬탄하기 위해 해당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306) 장가(牂牁) : 현재 귀주성(貴州省) 황평현(黃平縣) 서남 부근으로 한무제(漢武帝) 6년 장가군(牂牁郡)을 설치하였다.

307) 태백성이 …… 드리우니 : 태백성은 샛별로, 병란을 상징한다. 묘성(昴星)은 28수(宿) 가운데 하나로, 호(胡)를 관장하는 별이며, 이 별이 떨어지면 오랑캐의 장수(將帥)가 죽는다고 한다. 이백(李白)의 시 「호무인(胡無人)」에 이르기를 "운룡진과 풍호진이 서로 돌아가는데, 태백성이 달로 들어가니 적을 꺾을 수 있을 것이리라." 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다.

308) 표기(驃騎) : 흉노를 정벌하여 큰 공을 세운 표기장군(驃騎將軍) 곽거병(霍去病)을 가리킨다. 그는 표요교위(嫖姚校尉)로 있으면서 기련산(祁連山) 주위에 있는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하여 여섯 차례나 출정하여 큰 공을 세워 표기장군이 되고 관군후(冠軍侯)에 봉해졌다(『한서(漢書)』「곽거병전(霍去病傳)」).

309) 용기(龍旂) : 용 그림의 깃발로 보통은 천자를 지칭하나, 여기서는 천자로부터 정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장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용기(龍旗) 혹은 용기(龍旂)라고도 한다.

310) 분양(汾陽) : 분양(汾陽)은 당(唐)나라 때의 명장인 분양왕(汾陽王) 곽자의(郭子儀)를 가리킨다. 그는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평정하고 병권을 쥐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매사를 법도에 맞게 처리하여, 많

길은 본래 정해져 있으니 이름을 역사에 날려 끝없는 성렬(盛烈)을 이루고자 하네. 시대를 구제할 수 있는 책략이 있고 온화하고 공손하게 임금을 보필하였으니한 시대를 바로잡아 구원할 만한 뛰어난 인재로서 말없이 순종하였네.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우뚝 솟은 절조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연의 공이로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니 감히 충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풍파를 두려워할 만하여 이내 멀리 떠나 깊숙이 숨어 있을 생각하였네. 황천후토(皇天后土)가[311] 일생의 충의의 마음을 알 것이고 명산대천(名山大川)은[312] 백년 된 시신의 땅을 돌아본다네.

○ 仁川別武士廳珠聯

少時磊落尙抱風雲之壯懷, 中歲蹉跎稍有江湖之豪氣. 永慕晋人幾以淸談廢事, 晩爲漢吏稍於世務經心. 谷鬻初出怳驚遷木之榮, 海燕新來深認捲簾之意. 并州竹馬豈料於河潤九里, 會稽白鹿敢期於車幡夾轂. 偶不入城非有鹿門之高趣, 未當由逕欲效澹臺之遺風. 樞機宜愼而見事輒言, 陷穽當前而橫身不避. 適居孔道寧無游士傷謗之談, 每見老農具言聖君慈撫之意. 毁譽交興兩嘗過實, 寵榮踰分動輒招尤. 浮雲連海恐聞薏苡之車, 明月照樓疑看芙蓉之釰. 夕秀朝華之喩深悟昨非, 霜降水涸之餘庶圖晩節. 干羽之舞不能解平城之圍, 尺扇之風何能凉炎火之裘. 介潔而無政事豈百里之器, 儒雅而乏治略非翼亮之才. 爲子則名高五都, 爲臣則光照千里. 正直之道誓松柏而長靑, 忠勇之操期金石而不變. 周征玁狁長驅北伐之師, 漢討匈奴用絕南牧之患. 虎臣鎭州控玉弩而可鍊, 吏校願忠摐金銃而益勵. 信義盟草木石髓金肺, 言行質天地丹心白髮. 盾鼻磨墨震三川吞浪之聲, 馬背草檄森萬丈倚天之釰. 邊地若寒共聽堰城之析, 江風甚惡鞭登電馳之馬. 執干戈衛社稷居存謇謇之忠, 安邊境立功名躬履堂堂之陣. 教場習鍊, 長驅慣農之兵, 戎壇號令, 鼓湧不波之海. 橫戟西塞掃沙漠之風塵, 授鉞南海被牂牁之矢石. 奮當犬敵援枹鼓而忘身, 坐掃妖氣因澄淸於先籌. 慷慨給鎧之資豪傑電動, 感激登舟之鼓忠赤天知. 堯舜無冠帶百蠻之理, 天地忍腥膻諸夏之區. 太白入月星垂滅狄之祥, 高鋒彗雲士信擒胡之氣. 乘陣三隊常妄論於兵機, 許國一心忍忘情於折衝. 恩威雙行亦至公於草木, 兵農相資足省費於犒饋. 欲碎首而酬恩未知死所, 嘗指心而自誓惟有神鑑. 威儀所振烈火之過鴻毛, 旗鼓所臨疾風之捲秋葉. 玄甲啓路追論驃騎之功, 龍旂贈行深羨汾陽之忠. 身到縉紳是榮塗之素定, 名標靑史欲盛烈於無窮. 有濟時之略輔之以溫恭, 挺命世之才守之以循嘿. 不可奪者嶢然之節, 莫之致者自然之功. 報效宜伸敢不渴忠而盡瘁, 風波可畏乃思遠去而深藏. 皇天后土知一生忠義之心, 名山大川還百年骨骸之地.

은 비방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다(『신당서(新唐書)』「곽자의열전(郭子儀列傳)」).

311) 황천후토(皇天后土) :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말한다.

312) 명산대천(名山大川) : 국가에서 신성시하며 제사를 지내던 유명한 산과 큰 강을 의미한다.

소 성 부 포 계 청(邵城府砲稧) 서(序)

(府) 내에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비가 있으니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리 하는 것' 일 뿐이다. 주역(周易)에 이르길, '문을 겹으로 만들고 딱따기를 쳐서 포악한 나그네를 대비하였으니 예괘(豫卦)에서 취한 것이다.'라고[313] 하였으며 한나라의 육생(陸生)의[314] 말에 진 승상(陳丞相)이[315] 또한 '선비들이 기꺼이 따르면 천하에 비록 변란이 있더라도 권력이 분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미리 하는 것'의 시의(時義)가 어찌 적절하지 않겠으며 이것이 지금 우리 소성부에 포계의 설치가 시작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방몽(逢蒙)은[316] 활을 잘 쏘았지만 조화롭지 못한 활은 다루지 못하였고 조보(造父)는[317] 수레를 잘 몰았지만 날뛰는 말을 채찍질하지 못하였고, 반수(般倕)는[318] 나무를 잘 깎았지만 날카롭지 못한 도끼를 쓰지 못하였고, 손오(孫吳)는[319] 좋은 장수였으나 노련하지 않은 병사들로는 싸우지 못하였다고 하니 이 때문에 때에 따라 적절하게 조처하는 방책으로써 본부에 사포계(射砲稧)를 설행하고 연습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본부는 서울과의 거리가 60리 정도로 가까운데 바다로 들어가는 길목에 처하였고 남쪽으로는 화성부(華城府)를 껴안고 서쪽으로는 강화도(江華島)에 이르며, 땅이 견아(犬牙)를[320] 제어하고 형세는 세 발 달린 솥의 발과 같이 솟아 있으니, 실로 도성의 서쪽 변방이다. 게다가 영·호남의 조곡(漕穀)과 먼 변방의 조공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말미암아 한강에 도달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부가 어찌 요충지이자 보호해야 하는 땅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태평한 시절이 오래되어 백성은 군사에 대해 알지 못하며 같은 법을 이어받아 아전은 무(武)를 쓰지 않고 고을은 1백 치(雉)의 성벽이 없으며 백성들은 활을 당기는 기예를 아는 길이 드물다. 쌓인 폐단이 잔폐함에 이르렀으며 오로지 고식적인 것만을 일삼고 있는데 그러한지가 오래되었다. 1866년〔丙寅〕에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였으나 강도(江都)를 지키지 못하여 경기 지역에 소요가 일어났다.[321] 당시에 본부는 방어하고 지키는 방

313) 문을 겹으로 …… 취한 것이다 : 『주역(周易)』「계사전하(繫辭傳下)」에 보이는 말이다. 예괘(豫卦)는 매사에 미리 대비하여 평안함과 화락함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괘(卦)이다.
314) 육생(陸生) : 육생(陸生)은 한 고조(漢高祖) 때의 명신 육가(陸賈)를 가르킨다.
315) 진 승상(陳丞相) : 한 고조(漢高祖)를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 모신(謀臣)이다(『사기(史記)』「진승상세가(陳丞相世家)」).
316) 방몽(逢蒙) : 하(夏)나라 사람으로 활을 잘 쏘았다고 한다. 예(羿)에게 활 쏘는 법을 배웠는데 천하에서 자기보다 나은 자는 오직 예라 생각하고 스승인 예를 쏘아 죽였다고 『맹자』「이루」에 이른다.
317) 조보(造父) : 주나라 목왕 때 사람으로 말을 잘 몰았다(『사기(史記)』「조세가(趙世家)」).
318) 반수(般倕) : 고대의 유명한 목수인 노반(魯般)과 공수(工倕)를 말한다.
319) 손오(孫吳) : 춘추 시대 제(齊)나라 손무(孫武)와 전국 시대 위(魏)나라 오기(吳起)의 병칭이다.
320) 땅의 법도는 견아(犬牙)이고 : 월경지를 의미한다. 고려와 조선전기에는 소속 군현과 떨어져있는 지역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지역을 월경지·견아 등으로 불렀다.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인천의 월경지였던 이포면(梨浦面)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법에 어두워 마을에서는 짐을 메었는데, 다행히도 왕의 군대가 출정한 덕분에 서양 오랑캐들이 멀리 도망쳤다. 그러나 연해의 방비는 없는 해가 없어서 온 경내가 쓸쓸하고 편안히 안주하는 즐거움이 없었다. 1870년(庚午)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조정의 명이 있어 본부의 결세(結稅) 가운데 취하여 1천 6백 민(緡)을[322] 나누어 내려주고, 또 둔답 1백 20여 석락(石落)을[323] 획급하여 밑천으로 쓰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며, 이민(吏民)과 용건한 자 300명을 엄선하여 별무사라 부르고 집의 마룻대와 처마를 세워 청사(廳舍)를 지어 입번(入番)하게 하여 기예를 익히도록 하였다. 내가 마침 이 나라를 지키매 방략을 써서 운현궁에 아뢰기를, "별무사 300인을 모두 농민입니다. 만약 입번하게 한다면 생업에 방해가 될 것이니, 포구(浦口) 7촌에서 장정 700명을 모집하여 포계(砲契)를 세우도록 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별무사의 입번하는 값을 옮겨와 각 동(洞)의 포계에 지급하여 재물을 모아두게 하여 이자를 불리게 하며 달마다 무예를 겨루게 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시상한다면 백성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마땅히 물이 아래로 내달리는 것과 같아서 권면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모두 정예(精銳)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포구의 마을에 살고 있어 집을 떠나지 않고 입번하는 것과 같아서 정벌(征伐)하는 일을 비우지 않고도 스스로 안도하여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식을 기를 것이며 무사하여 농사지을 것인즉, 곧 호미를 멘 농민들이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여 모집에 달려 나가면 모두 창을 든 군사가 될 것입니다. 공적으로는 기강지복(紀綱之僕)이며[324] 사적으로는 골육(骨肉)의 군사들이니, 이것이 바로 당(唐)나라 때의 부병(府兵)이자[325] 송(宋)나라의 상병(廂兵)과[326] 같은 것입니다. 이교(吏校)를 권면하는 방법으로는 직책을 바꾸어 차임하되, 구임(久任)의 예가 아닌 무예의 숙련도를 시험을 치루어 확인하고 인재를 선발한다면 진실로 상을 주지 않고 벌을 주더라도 저절로 숙달될 것이니, 편의에 마땅한 방법으로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운현궁에서도 이를 칭찬하시어 모두 아울러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해 4월 초6일, 서양 오랑캐의 큰 배 6척이 내양(內洋)으로 난입하여 본부와 서로 바라보는 곳에 닻을 내렸다. 내가 이에 안으로는 이교(吏校)를 모아 충의(忠義)로 격려하고 밖으로는 포병(砲兵)을 불러 적을 방어하는 명령으로 깨우치고 사졸(士卒)들을 나누어 보내 좇

321) 1866년에 …… 소요가 일어났다. : 1866년에 발생한 병인양요를 지칭한다.
322) 민(緡) : 당시 화폐 단위의 일종으로서 1냥(兩)·1관(貫)과 같으며, 1민(緡)은 100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23) 석락(石落) : 논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단위로서 한 섬의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를 의미한다.
324) 기강지복(紀綱之僕)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4년 "진백이 호위병 3천 명을 진나라에 보냈는데, 실로 모두가 노복들의 기강을 잡는 사람들이었다."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325) 부병(府兵) : 당나라에서 실시한 병농합일(兵農合一)의 군사 제도인 부병제(府兵制)를 말한다. 부병(府兵)들이 경사(京師)에 와서 숙위(宿衛)하므로 부위제라고도 한다. 당나라 때의 부병은 종신토록 복역하고, 정벌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각자 별기(別騎)와 군량을 마련해서 출정하며, 정기적으로 경사에서 숙위하거나 변경에서 수자리를 섰다(『신당서(新唐書)』 「병지(兵志)」).
326) 상병(廂兵) : 송나라 때 지방군의 일종이다.

아 나아가게 하였으니 이내 문학(文鶴)·제월(霽月)·십정(十井)·옹암(甕巖) 등 수륙(水陸)의 요해처에 주둔하게 하였다. 그리고 북을 치면 전진하고 징을 치면 정지하도록 하고 낮에는 깃발을 들고 밤에는 횃불을 피게 하여 혹시라도 어기지 말라고 하였다. 방수에 어두웠던 지난날과 비교하여 마을에서 짐을 꾸려 짊어진 것이 몇 배가 될 뿐만이 아니니, '미리 하는 것' 한 글자의 효과를 더욱 증험할 수 있었다. 하령하여 말하기를, "서양 오랑캐의 기기(器機)는 배와 대포뿐으로 배는 육지로 다닐 수 없고 대포는 산을 넘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미 오랑캐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모든 이졸(吏卒)로 하여금 구덩이를 파서 토갑(土甲)을 만들게 하고 우리 군대가 모두 토갑 안에 몸을 숨기어 적이 만약 육지에 내려온다면 그대들이 일어나서는 탄환을 쏘고 앉아서는 화약을 잴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반드시 격파하는 방도이다. 또한 포구에 지뢰포(地雷炮)를 많이 묻어두었으니 적이 육지에 내려올 때 도화선 한 발이면 적에게 비록 날개를 단 듯 한 병사가 있더라도 네 마리가 끄는 수레도 그 혀를 따라잡지 못하고 우레가 귀를 막을 수 없어 모두 가루가 될 것이다. 이에 연해의 여러 진(陣)은 별처럼 벌여져 있고 바둑알처럼 깔렸으며, 형상은 벌 떼와 개미 떼가 모여 있는 듯 굳세고, 형세는 맹렬하게 범처럼 할퀴는 위엄이 있어 깃발과 북으로 서로 호응하고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돌아보는 듯하니, 이러하고도 어찌 서양 오랑캐를 두려워하겠는가." 하였다. 운현궁에서는 병졸을 더하고 군량을 고르게 하고 무기를 주어 모두 상세히 주밀하게 하고 또 군무(軍務)를 오로지 나에게 맡기시며 "중외(中外)의 모든 군사는 장군이 제어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라." 하셨다. 이 때문에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군대를 두루 돌아보고 일곱 개의 포구를 항오(行伍)에 편입시켰으며, 굶주리고 배부른 것을 물으매 이목(李牧)은[327] 소를 잡아 번거로운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그 병을 걱정함에 오기(吳起)는[328] 종기를 빨았으니 어찌 감히 수고로움을 사양하겠는가. 이때 절기에 큰 더위가 들어 조정에서 전사들을 넉넉히 돌보아 주어 옷과 약을 하사하는 은명(恩命)이 있었고, 이어서 순영에서는 날마다 하리(下吏)를 보내 군정을 위문(軍情)하였으니 그 말씀과 뜻이 정성스러웠다. 내가 이로써 사졸들을 격려하고 충의를 크게 떨치게 하여 티끌만큼의 보답이라도 도모하니, 삼군(三軍)이 춤을 추고 뭇사람의 마음이 성을 이루어 거의 범할 수 없는 기세가 있었다.

327) 이목(李牧) : 중국 전국 시대 조(趙)나라의 장군이다. 북쪽 변방에서 흉노(匈奴)들과 대치하고 있을 적에 흉노가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싸우지 않은 채 피하기만 하면서, 날마다 군사들에게 소를 잡아 먹이고 상을 내려 주었는데, 군사들 가운데 백금을 상으로 받은 군사들이 5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자 군사들이 상을 받고서 한 번도 흉노와 싸우지 않았으므로 점점 흉노와 싸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차에 흉노의 선우(單于)가 쳐들어오자, 이목은 이들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워 일거에 흉노를 들이쳐서 대승을 거뒀다(『사기(史記)』「이목열전(李牧列傳)」). 해당 일기의 4월 11일 기사에 전투를 벌이지 않았음에도 구완식이 병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베풀었던 일을 비유하는 일화라고 판단된다.

328) 오기(吳起) : 위(衛)나라 장수로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내다가 한 병사의 종기가 나자 이것을 빨아 낫게 했다(『사기(史記)』「오기열전(吳起列傳)」).

서로 지킨 지 48일이 되자, 적도 또한 노릴 만한 틈이 없음을 짐작하고 시행할만한 계책이 없어 정문(鄭門)의 음식을[329] 낭비하지 않고도 이미 초막(楚幕)의 새를 보았다.[330] 며칠이 지나고 내가 마침내 군대를 정돈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군사를 아는 자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겁내지 않고 적이 퇴각하는 것 또한 기뻐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기예를 힘써 익히고 포계의 일을 더욱 정비해야 할 것이니, 이는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 도리이자 항상 위험을 생각하여 나라를 공고히 하는 뜻에 달린 것이다."라고 하여 사람들이 모두 '예예'하며 물러났다. 돌아보건대, 쓸모없는 자질의 미천한 무사가 이 고을을 맡고 있으면서 일을 그르칠까 두려워하였는데, 다행히 위에서 행하시어 조정의 큰 복에 힘입고 아전과 선비들이 힘을 다함에 도움 받아 강적(强賊)이 이미 멀리 멀어져 지역의 안전을 보전하였고 바야흐로 한밤중에 잠자리에 드신 것을 경하 드리니 다시 조정이 편안해졌다. 문득 포계의 설치를 생각하여 자못 오늘날에 크게 본받으려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로 인하여 서문을 쓰고 또한 조목을 써서 왼쪽에 나열한다.

1. 병사는 100년을 쓰지 않을 순 있지만, 하루라도 갖추지 않을 순 없다. 그러므로 삼가 옛날에 보(堡)와 둔전(屯田)을 설치한 뜻을 살펴보건대, 바닷가 7개의 동에게 전하여 동마다 각각 100명으로 포계를 만들어 관에서 총을 지급하고 매달 한 차례씩 각자 돈 50문(文)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기예를 시험하고 뛰어난 사람에게 돈을 합해 준다면 상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권장되고 벌하지 않아도 저절로 징계되어, 평소에 교양(敎養)하는 일이 있고 연습에 반드시 익숙해질 것이니, 충의로 권면하고 그 약조로 밝힌다. 일이 없으면 사방으로 흩어져 농사를 짓고 일이 있으면 북을 한번 쳐서 구름처럼 모여드니 꼭 산골짜기의 험준함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마을마다 보(堡)를 설치하여 변경을 지키는 역(役)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할만 하고 집집마다의 둔전은 위급할 때 반드시 믿을 만하도 할 것이다.
1. 계(稧)마다 충의가 있고 믿음직스러우며 착실한 사람을 엄격히 가려 뽑아 계장(稧長)으로 삼고, 담력과 꾀가 있고, 지혜와 용기가 있는 자 한 명을 부계장(副稧長)으로 하여 1초(哨)를 이끌도록 하는데 믿음을 보이기로 모여서 기약하고 일정한 계율로 약속하니 노소(老小)에 예가 있고 병사의 행동에 절도가 있으며, 지키고 망볼 때는 서로 돕고 질병이 있을 때는 서로 구제한다. 들판과 밭두둑 사이에 이르러서는 나무하고 김을 맬 때 농고(農鼓)와 초적(草笛)을 항상 행진하는 모양과 같

329) 정문(鄭門)의 음식 : 나라의 곡식을 의미하는 듯하다.
330) 초막의 새를 보았다 : 진중(陣中)에 군사들이 모두 도망쳐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뜻한다. 초막은 초나라의 군막이다. 춘추 시대 정(鄭)나라와 초(楚)나라가 싸웠는데, 제후들이 정나라를 구원하자 초나라의 군사들이 밤에 모두 도망쳤다. 정나라의 간첩이 와서 살펴본 뒤에 돌아가 고하기를 "초막에는 새만 있다.[楚幕有鳥]" 하자, 정나라의 군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장공 28년(莊公28年)).

게 하는데, 만약 위급한 경보가 있으면 초적을 한번 붊에 모든 사람이 호응하고 농고를 한번 두드림에 7개의 포구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니 자식과 동생이 부모와 형을 호위하고 손과 발이 머리와 눈을 보호하듯 한다. 밤 전투에서는 그 소리를 알고 낮 전투에서는 그 얼굴을 아니, 간과 쓸개까지 모두 의리로 충만하여 곧 한 몸인 것처럼 같이 하니 죽기를 맹세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이 한 집안과 다름이 없다.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보호하여 비록 매우 급작스러운 때에 있더라도 반드시 허술해질 염려가 없을 것이다.

1. 이 고을은 해문(海門)의 요충지이니, 북쪽으로는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데 다만 하룻길의 거리이며 남쪽으로는 양호(兩湖)와 겨우 한 돛대 바람으로 닿을 정도이다. 심도(沁都)가 그 앞에 있고 화성이 그 동쪽에 있으니 실로 국경을 수호할 수 있는 중요한 땅이다. 바다 위의 여러 봉우리에 멀리 염탐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설치하였으니, 아무 포구를 막론하고 포성이 한바탕 진동하면 각 동의 포병들은 호미를 내던지고 일어나고 밭 갈기를 그만두고 달려가며 깃발을 보면 나아가고 징 소리를 들으면 멈추니 뱀이 응하여 맹렬히 공격하는 것과 같아서 적이 먼저 사기가 꺾여서 공격하여 이기지 못 할 일이 없다. 또한 적이 믿는 바는 배와 화포이다. 배는 육지에서 다닐 수 없고 화포는 산을 넘을 수 없으니 우리 충의롭고 용감한 군사들로서 저 오합지졸의 적을 공격하는 것을 무슨 독 안의 자라를 잡고 바람 앞의 나뭇잎을 거두는 것이니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더구나 본 고을의 토병(土兵)은 바다 마을에서 나고 자라 이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익숙하고 갯펄을 잘 알고 있으니 다른 고을에서 불러 모아서 진지로 내달리는 군졸보다 공이 서로 몇 배나 될 것이다.
1. 무결전(武結錢)[331] 1천 6백 냥 내에 600냥은 매월 기예를 시험할 때의 상으로 줄 바탕으로 사용하고 1천 냥은 별무사 포계병을 모두 합하면 1천 명이 되니, 10개의 계를 나누어 설치하고 매년 각 계에 100냥을 떼어주어 이자를 불리게 하고 1년치의 탄환 비용과 대열(大閱)할 때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는 밑천을 모두 이자조 가운데 취하여 쓰게 한다. 그리고 3년에 한한 후에는 곧 각 계마다 식리한 동이 300냥을 넘지 않고 머물러 있을 것이니 그 나머지로 해마다 전토를 사서 계에서는 관에 알리고 관에서는 감영에 알려 영구히 정식으로 삼는다. 십수 년이 지나면 물자를 수송하는 역(役)과 무천(貿遷)하는 노고를 들이지 않더라도 군병과 식량이 저절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1. 매달 한 번 시방(試放)하고 봄과 가을에 한 번 대열한다. 대(隊)에는 대장(隊長)이 있고 기(旗)에는 기총(旗摠)이[332] 있으니 포계의 법으로 약속하고 군제로써 가르친

331) 무결전(武結錢) : 균역법 실시 이후 전결에 덧붙여 거두어들였던 결전(結錢)의 일환으로 무비를 갖추는 데에 사용하는 돈을 이르는 듯하다.
332) 기총(旗摠) : 기(旗)는 편대 단위의 일종이며, 총(摠)은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1기(旗)를 거느리는

다. 군사를 제어하는 묘리는 예리한 기기(器機)만 한 것이 없으니 용왕포(龍王砲)·동발공(銅發梹)·화전(火箭)·불랑기(佛浪機)·천·지화포(天地火砲) 등의 원거리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배를 부수고 진을 무너뜨릴 대비책으로 삼고, 목인(木人)[333]·활마포(活馬砲)·신화비아(神火飛鴉)·화우(火牛)·뇌포(雷砲)·화룡권지차(火龍捲地車)·지뢰포(地雷砲) 등의 화기는 진에 임하여 예봉을 꺾는 도구로 삼으며, 수노(手弩)·조총(鳥銃)·편전(片箭)·화금(火禽)·화수(火獸)·작행(雀杏)은 혹 큰 전투에서 맞서 싸울 때 사용하거나 혹 암지(暗地)에서 몰래 불을 붙일 때 사용하니 이는 모두 미리 준비하여 익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방법으로는 상으로 신임하고 벌로 밝히는 것만 함이 없다. 이에 먼저 약조를 엄격하게 세우고 충의와 신의가 두터우며 성심으로 향상(向上)하는 자, 과감하여 용기가 있어 기회에 먼저 오른 자, 의리를 보이고 몸을 분발하여 수레에 뛰어오르고 깃발을 빼앗는 자, 기예가 정밀하고 능숙하며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는 자, 용맹함을 공적으로 하고 두려움을 사적으로 하며 격려하고 선창하는 자, 법을 지켜 흔들리지 않으며 어려움에 닥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후한 상으로 권면한다. 북소리를 듣고도 나아가지 않고 징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는 자를 패군(悖軍)이라 하고, 기회가 있어도 나아가지 않고 군율을 어그러뜨리는 자를 만군(慢軍)이라 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고집스러워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횡군(橫軍)이라 하고, 기계를 분실하고 약환을 허비하는 자를 낭군(浪軍)이라고 하고, 남의 부녀자를 핍박하고 남의 재물을 훔치는 자를 간군(姦軍)이라 하고, 차례를 뛰어넘고 대오에서 벗어나며 금령에 길들지 않는 자를 난군(亂軍)이라 하고, 적이 이르는데도 알리지 않고 적이 적다는 말만 많이 하는 자를 오군(誤軍)이라 하여 이와 같은 자들은 모두 극률(極律)로 시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후한 상을 내리면 반드시 용맹한 장부가 있을 것이고, 극벌을 내리면 간사함과 거짓됨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매년 봄가을에 대열(大閱)한 후에 모든 병사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게 하여 계장(稧長)이 이 약조를 읽고 거듭 밝힘으로써 사람들을 깨우치고 평소에 일이 없을 때도 군제(軍制)를 잘 알게 한다면, 비록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창졸간에 반드시 위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1. 험준함에 의지하여 요충지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리적인 이점과 상응해야 하는데, 이 고을은 산과 계곡의 험준함과 성곽의 견고함이 없다. 그러나 평지에 의지하여 토갑(土甲)을 많이 파서 우리 군사가 몸을 숨기는 곳으로 삼았으니 저들의 포환으로는 우리를 맞출 수 없지만, 우리의 포환은 맞추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오히

장교를 의미한다.

333) 목인(木人) : 나무로 사람처럼 만든 인형을 의미한다.

려 성곽에 숨긴 군사보다 낫다. 이는 성이 없어도 성이 있는 것이며 험준하지 않아도 험준한 것이다. 그러므로 연해의 요해처 곳곳에서 참호를 파고 만약 위급한 경보가 있더라도 마치 이목(李牧)의[334] 견고한 보와 진탕(陳湯)의[335] 여러 돈대와 같이 하여 군사들의 마음에 의지할 데가 있다면 적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의심스럽더라도 저절로 꺾이게 될 것이다. 각 계의 포병으로 하여금 제때 보수하도록 하고, 또한 병인년 이래로 서양 선박이 와서 매번 내양(內洋)에 번번이 닻을 내리니 경보가 없을 때라도 포병으로 하여금 그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고 그 넓고 좁음을 측정해서 화기가 미치는 곳으로써 시험하여 그 선박을 끊을 수 있을 만한지 살피도록 한다. 그러면 비록 경황이 없는 때라고 하더라도 화공과 포격이 반드시 어두운 밤, 안개가 가득한 가운데 행해질 것이며 멀고 가까움, 넓고 좁음이 마음과 눈에 명료하여 모두 표준이 있을 것이다.

1. 각 계 가운데 식리하는 돈은 반드시 계원 가운데 신실하고 능력이 있는 자가 출납하고 대민(大民)과[336] 이교(吏校)들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노름하는 자가 있으면 7냥의 돈을 수속(收贖)하고[337] 계에 붙여 응당 써야 할 것에 보탠다. 각 계원으로 하여금 발견하는 대로 관에 고발하게 한다면, 이는 비단 계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실로 노름을 금하는 좋은 계책이 될 것이다. 하나. 자잘하고 사소한 여러 조목은 계원들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마련하게 한다.

○ 邵城府砲稧序

府之有武備, 一言蔽曰豫而已. 易曰, 重門擊柝, 以待暴客, 盖取諸豫, 漢陸生語陳丞相亦曰, 士豫附, 則天下雖有變, 權不分, 然則豫之時義, 豈不大矣乎哉. 今我邵城府砲稧之設, 所以豫也. 故曰逢蒙善射, 不能操不調之弓, 造父善御, 不能策不服之馬, 般倕善剞, 不能運不利之斤, 孫吳善將, 不能戰不習之兵. 是以因時制宜之方, 不得不設行射砲稧於本府而練習也歟. 按本府距京師二舍之近, 處咽喉濱海之門, 南拱華城, 西抵沁都, 地制犬牙, 形峙鼎足, 實爲都城之西藩. 重以嶺湖漕穀, 關河貢篚, 莫不由玆焉而達于漢. 則是府也, 豈非要衝保障之地乎. 然而昇平日久, 民不知兵, 承襲同規, 吏非用武, 邑無百雉之垣, 民鮮控弦之技, 積弊至殘, 專事姑息, 其來尚矣. 粤在丙寅, 洋夷入寇, 江都失守, 圻輔騷撓, 于時本府昧於防守, 閭里荷擔, 幸賴王師出征, 洋醜遠遁. 然沿海之警, 無歲不

334) 이목(李牧) : 전국 시대 조(趙)나라의 명장으로, 흉노족을 잘 방비하여 10년 동안 흉노족이 변방을 침입하지 못했으며, 또 진(秦)나라를 대파한 공으로 무안군(武安君)에 봉해졌다(『사기(史記)』 권81).

335) 진탕(陳湯) : 한 원제(漢元帝) 때의 서역 부교위(西域副校尉)로서 책모(策謀)가 많았고 기공(奇功)을 좋아하였는데, 흉노인 질지선우(郅支單于)를 베어 죽이고 그 공으로 관내후(關內侯)에 봉작되었다(『한서(漢書)』 권70).

336) 대민(大民) : 문벌이나 지체가 높은 시골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인천부 내의 사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37) 수속(收贖) : 동전을 받는 것으로 벌을 대신하는 것이다.

有，闔境蕭然，頓無安土之樂．逮于庚午，特有朝家之命，就本府結稅中，劃下一千六百緡，又劃給屯畓一百二十餘石落，以需資用，以業生活，而極選吏民勇健者三百員，號之以別武士，建棟宇作廳舍，使之入番習藝，而余適守是邦，書陳方略于雲宮曰，別武士三百員，舉皆農民也．若令入番，有妨生業，莫如募民丁壯七百員於浦口七村，設立砲稧，而移來別武士入番之料，派給於各洞砲稧，以爲留財殖利，課月較藝，資以施賞，則民之趁赴也．當如水走下，不待勸勉，不過幾月，而悉爲精銳矣．且并居浦村者也，不離室家，而便同入番，不曠征伐，而自是安堵，仰事其父母，俯育其妻子，無事而服田，則乃荷鉏之農民，有警而赴募，則盡擔銳之士，在公爲紀綱之僕，在私爲骨肉之兵，是卽唐朝之府兵，宋代之廂兵一般也．吏校勸勉之方，房任換差，不以久勤之例，試取武藝之精，則固不行賞施罰，而當自熟嫻矣．便宜之道，莫過於是．

雲宮稱善，并皆許施焉．是年四月初六日，洋夷六隻大船闖入內洋，下碇於本府相望之處．余於是內集吏校，激以忠義，外召砲兵，諭以禦敵號令，分撥士卒趁赴，乃出屯于文鶴，霽月，十井，甕巖等水陸要害處，而鼓進金止，晝旗夜火，毋或違越，較諸向時昧於防守，閭里荷擔，不啻倍蓰，而豫一字之效，尤可驗也．下令曰，洋夷器機，惟船隻與大砲也．船不可以行陸，砲不可以越山，吾已曉制之之術矣．俱令吏卒掘坑作土甲，吾軍皆藏身於土甲之內，約以賊若下陸，汝等起而放丸，坐而裁藥，是固必破之道也．又於浦口多埋地雷火砲，候賊下陸，若藥線一發，賊雖有插翅添翼之勇，便當駟不及舌，雷不掩耳，皆爲齏粉矣．於是沿海列陣，星羅棋布，形有蜂屯蟻聚之固，勢有鷙擊虎攫之威，旗鼓相應，首尾相顧，如此而何畏乎洋醜也哉．自雲宮，益其戎卒，調其粮餉，給其器械，靡不纖悉周至，且以戎務，專委於余曰，中外諸軍，將軍制之，隨機應變，便宜從事．是以夙夜靡懈，周視八陣，編行七浦，詢其飢飽，而李牧之擊牛，不愛煩費，憂其疾病，而吳起之吮疽，豈敢辭勞．是時節序大熱，朝家優恤戰士，有頒賜衣襲藥餌之恩命，繼以巡營課日，遣吏勞問軍情，辭意眷眷．余以是勸厲士卒，感發忠義，以圖涓埃之報，三軍蹈舞，衆心成城，殆有不可犯之氣勢焉.相守四旬有八日，賊亦揣其無釁可乘，無計可施，而不費鄭門之饋，已見楚幕之鳥．越數日，余遂振旅而還，諭於衆曰，知兵者，不以賊來爲恤，亦不以賊去爲喜，汝等勉習技藝，益修稧事，此是安不忘危之道，而係于苞桑之義也．衆皆唯唯而退．顧以樗櫟之質，鞅韝之微，待罪玆邑，唯恐僨事，幸賴上行朝家之洪福，兼藉吏士之出力，强寇已遠，境土保安，方賀丙枕之眠，復安於上，旋思砲稧之設，頗効於今，因爲之叙，又爲之目，列于左．

一．兵可百年不用，不可一日無備，故謹按古設堡屯田之意，傳海七洞，洞各百人，設爲砲稧，自官給銃，每月一次，各持錢五十文，齊會試藝，優中者合錢與之，則不賞而自勸，不罰而自懲，教養有素，鍊習必熟，勸以忠義，明其約條，無事則四散而農作，有事則一鼓而雲集，不必因山谿之險，而可謂村村設堡，不必勞征戍之役，而可謂家家屯田，緩急必有足恃事．

一. 每稧極擇忠義信實者一人, 爲之稧長, 膽略智勇者一人爲副, 領率一哨, 期會以示信, 約束以定式, 少長有禮, 坐作有節, 守望相助, 疾病相救. 至於原野田疇之間, 樵採耕耘之時, 農鼓草笛, 常如行陣之狀. 若有警急, 一呼而百人響應, 一鼓而七浦影從, 如子弟之衛父兄, 手足之捍頭目. 夜戰知其聲, 晝戰識其面, 忠肝義膽, 便同一體, 矢死捐生, 無異一家. 上以報國家, 下以保妻孥, 雖在倉卒之時, 必無疎虞之慮事.

一. 此邑爲海門要衝, 北拱京師, 只一日程, 南距兩湖, 僅一帆風. 沁都在其前, 華城在其東, 實爲關防重地. 海上諸峰, 多設候望之所, 無論某浦, 砲聲一震, 各洞砲兵, 投鋤而起, 掇耕而趨, 見旗則進, 聽金則止, 如蛇應而鷙擊, 賊先奪氣, 攻無不勝. 且賊之所恃, 船與砲也. 船不可以行陸, 砲不可以越山. 以我忠義勇敢之士, 攻彼烏合奪氣之賊, 何患乎瓮中捉鱉, 風前捲葉. 况本邑土兵, 生長海鄉, 慣習風土, 熟諳沮洳, 與他邑召募赴陣之卒, 功相倍蓰事.

一. 武結錢一千六百兩內, 六百兩, 以每朔試藝時賞資次應用, 而一千兩則別武士砲稧兵, 合爲一千名, 分設十稧, 每年各稧, 劃付一百兩, 使之殖利, 一年藥丸之費, 大閱犒饋之資, 皆以利條中取用. 而限三年後, 則每稧殖利之錢, 無過三百兩留置, 其餘則逐年買置田土, 自稧報官, 自官報營, 永爲定式. 差過十數年, 不費轉輸之役, 貿遷之勞, 而兵食自足事.

一. 每朔一試放, 春秋一大閱, 隊有隊長, 旗有旗摠. 約之以稧法, 教之以軍制. 而制軍之妙, 莫如利器機, 多造龍王砲, 銅發槓, 火箭, 佛浪機, 天地火砲等遠器, 爲破船陷陣之備, 木人, 活馬砲, 神火飛鴉, 火牛, 雷砲, 火龍捲地車, 地雷砲等火器, 爲臨陣摧鋒之具, 手弩, 鳥銃, 片箭, 火禽, 火獸, 雀杏, 或用於對敵鏖戰之際, 或用於暗地衝火之時, 此皆不可不預備而熟習事.

一. 御衆之術, 莫如信賞明罰, 玆先嚴立約條, 忠信敦厚, 誠心向上者, 果敢有勇, 期會先登者, 見義奮身, 超乘搴旗者, 技藝精熟, 勤幹有智者, 勇公恢私, 激勵能倡者, 守法不撓, 臨難不懼者, 勸之以重賞, 聞鼓不進, 聞金不止者, 此謂悖軍. 期會不進, 動乖師律者, 此謂慢軍. 多出怨言, 崛强難治者, 此謂橫軍. 遺失器械, 虛費藥丸者, 此謂浪軍. 逼人婦女, 窃人財貨者, 此謂姦軍. 越次離伍, 不馴禁令者, 此謂亂軍. 寇至不告, 寇少言多者, 此謂誤軍. 如是者, 并施以極律, 是以重賞之下, 必有勇夫, 極罰之下, 奸僞莫逃, 每歲春秋大閱之後, 使一軍跪坐肅靜, 稧長讀此約條, 申明警衆, 平居無事之時, 曉暢軍制, 則雖在臨難倉猝, 必無違越事.

一. 據險守要, 必相地利, 而此邑無山谿之阻, 城郭之固, 然而平地依恃, 多掘土甲, 以爲我軍躲身之所, 彼之砲丸, 不能中我, 我之砲丸, 發無不中, 猶勝於雉堞之藏兵, 此無城而有城, 非險而設險, 故沿海要害, 處處掘塹, 若有警急, 如李牧之堅堡, 陳湯之列墩, 軍心依據, 而不懼賊勢, 疑眩而自沮矣. 使各稧砲兵, 以時修補, 且自丙寅以來,

洋船之來輒下碇，每於內洋迨此，無警之時，亦使砲兵，量其遠近，測其廣狹，試以火器之所及 料其船筏之可斷，雖當倉卒之時，火攻砲擊，必行於黑夜，漲霧之中，而遠近廣狹瞭然於心目，皆有準的事.

一. 各稧中殖利之錢，必以稧員中信實能幹者，出納之，大民及吏校輩，勿許干涉焉. 如有雜技者，以七兩錢收贖，付之稧中，以補應用，而使各稧員，隨現發告官，則此非但有助於稧中，實爲禁雜技之良策事.

一. 細瑣諸條，使稧中便宜磨鍊事.

적이 물러난 후 운현궁에 올린 글

이 고을은 바다의 요충지이자 서울로 드나드는 통로이며, 남쪽으로는 연(燕)나라, 제(齊)나라 땅과 통하고 안으로는 미도(尾島)와[338] 접해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초경(初境)에서[339] 곧장 한강에 이르는 것이 2사(舍)[340] 거리의 땅에 불과하니, 팔꿈치나 겨드랑이와 같이 가까운 고을이라 이를만하고 가슴과 배와 같은 중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병사가 굳게 지키는 것이 동도(東都)의 이수(伊水)와 낙수(洛水)·관중(關中)의 경수(涇水)와 위수(渭水)보다도 낫습니다. 사졸들을 교련하고 무기와 화기를 정밀하고 예리하게 하는 것은 뜻밖의 사태에 대한 대비이니 한성과 서번(西藩)의 보장(保障)과 강화(江華) 하류의 성세(聲勢)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 고을의 300명의 무사와 600명의 포민은 모두 산과 강을 익히 알고 습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진실로 이는 강한 병사이고 무사인 즉 7두(斗)의 논을 파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모두 이곳이 진황지(陳荒地)가[341] 되어 종세(種稅)도 거두기 어려워졌고 포민들은 해마다 기예를 익히면서 한 달이 넘도록 수비하며 부지런히 힘쓴 것이 적지 않은데도 오히려 신역(身役)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장교들은 본디 응당 먹을 것이 없어 모두 물러가려 하니 군정(軍情)이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극심한 가뭄으로 늦게 모를 심어 풍년을 기대할 수 없고 백성들은 오래 굶어 살가죽이 들떠 부었으니 저들이 아침저녁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조정에서 특별히 크게 처분을 내려 대경장(大更張)하는 것이다. 무사와 포민, 장교들은 목숨을 아끼고 죽음을 애석해하는 은택을 입음으로써 총쏘는 방법을 익히고 충성을 바치는 바탕으로 삼을 것입니다. 지금 군심(軍心)을 이루고자 한다면 나라의 재물을 크게 낭비하지 않아도 죽고자 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어서 변방을 굳건하게 하는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고을의 병사는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근원이 있는 물을 조금만 더 배양하여 전달하여도 그 공이 갑절이나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역에는 옷과 음식, 동전과 포, 반찬과 약, 신발과 빗을 연속해서 내려주시어 온 고을의 군민(軍民)들이 감격하지 않음이 없어서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고 있으니, 그 마음

338) 미도(尾島) : 월미도(月尾島)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39) 초경(初境) : 땅의 경계가 시작하는 곳을 의미한다.
340) 사(舍) : 거리 단위의 일종으로 30리의 거리를 의미하며, 2사는 60리이다.
341) 진황지(陳荒地) : 버려두고 경작하지 않는 땅을 의미한다.

이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생계를 꾸리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물과 불 속으로 몰아 반드시 발길을 돌리지 않아도 삼화(三和)가 모두 거행되어 백성들의 마음이 견고해질 것이다. 이는 곧 전이(轉移)하는 사이에 수천의 정예병을 양성하는 것이어서 한성의 친병(親兵)과 다를 것이 없으니 강화와 기각(猗角)을 이루고 화성과 함께 입술과 치아가 되니 남쪽으로는 바다의 요사스러운 기운을 대비하고 서쪽으로는 영종(永宗)을 구호하여 바다의 외적을 에워싸고 제재할 뿐만 아니라 실로 세 방면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밀(機密)인 군무(軍務)는 말과 글로 일일이 할 수 없으니 장차 면대하여 여쭙고자 할 생각이었는데, 이 고을은 내변지(內邊地)여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파주(坡州)는 방어할 중요한 곳으로써 오직 구애됨이 없어야 하고 더구나 인천(仁川)은 반나절에 불과하지만 달려가 일을 아룀에도 자리를 오래 비워 두는 것에 의해서 해가 없어야 중요한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을 받은 이래로 산에 맹세하고 바다에 맹세하여 보답하겠다는 일념을 아침저녁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속사정을 갖추어 아뢰고 달려가 일을 아뢸 길을 특별히 허락을 내려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退賊後上雲宮書

此邑海門要衝, 京師門戶, 南通燕齊, 內接尾島. 入海初境, 直抵漢水, 不過二舍之地, 可謂肘腋近邑, 心腹重地. 其重兵固守, 愈勝於東都伊洛, 關中涇渭. 教鍊士卒, 精利器械, 其不虞之備, 京都西藩之保障, 沁京下流之聲勢, 果何如哉. 此邑三百武士六百砲民, 皆熟知山川, 備諳沮洳, 實是强兵而武士, 則七斗畓派給, 昨今兩年, 并是陳荒, 種稅亦難, 砲民則經年習藝, 跨朔防守, 勤勞不爲不多, 尚未免身役, 將校輩本無應食, 皆欲退去, 軍情萬不成樣中, 今年亢旱晩秧, 無望有秋, 民情頷顣, 渠輩之夙宵思望者, 朝廷特下大處分大更張, 武士砲民將校, 得蒙愛命惜死之澤, 以爲習銃効忠之地, 今者欲遂軍心, 不必大費國財, 可得死心, 有固邊之方. 何者, 本邑之兵, 如着根之木, 有源之水, 少加培達, 其功倍之, 況今番之役, 衣食錢布饌藥鞋梳, 連續賜下, 一邑軍民, 莫不感戴, 皆願爲國捐生, 其心已固, 加之資生之恩, 驅之水火, 必不旋踵, 三和并擧, 衆心成城. 此乃轉移間, 可養數千精兵, 則無異輦轂親兵, 猗角沁都, 脣齒華城, 南備海氛, 西救永宗, 不啻拱制海寇, 實爲藩屛三路. 然機密軍務, 不可筆舌枚擧, 將欲面稟爲計. 此邑爲內邊地, 不得擅離, 何以則爲好耶. 坡州以防禦之重, 惟得無碍, 況仁川不過半日, 馳進奏事, 無害於曠官, 有助於樞機, 而受命以來, 誓山盟海, 圖報一念, 夙宵靡懈, 故備陳裏曲, 馳進奏事之路, 另賜下諾, 伏望伏望.

소성 태수의 행적을 읊음

76구(句) 선비 이도열(李度烈)

우리 동방은 아름다운 운수를 거느렸나니 뭇 현인들이 응하여 태어났도다.
웅장한 양주산(楊州山) 공이 그 기운을 받으셨네.
바른 기운은 원래부터 순수하고 웅장한 자태는 언제나 총명하였도다.
하늘이 인(忍)한 심성을 쫓도록 하였으나 어려서부터 우환만 가득하였네.
헤진 갖옷 입은 소계자(蘇季子)요[342] 그릇 씻는 마장경(馬長卿)이니라.[343]
어버이 연로한데 어찌 봉양하랴, 몇 뙈기의 밭 몸소 경작하고. 당에 오르고 거듭 부엌에 들며,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였네.[344]
담담히 변변찮은 음식 봉양하는데, 삼생(三牲)을[345] 어떻게 감당하랴.
가정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안을 시험하고, 서서히 광주리에 돈을 채웠네.
호미를 내던지고 깊이 탄식하다, 옛 가문의 명성을 잇고자 다짐하였네.
바람 앞에 때때로 칼을 어루만지고, 등잔 아래에서 밤늦도록 병법을 읽었네.
병법은 예로부터 이어온 일, 그 승패를 마음속에서 평하였네.
광채가 문호를 흔드니, 과연 벼슬길에 이름을 올렸더이다. 작은 고을의 근심 나누려, 다섯 마리의 말[346] 서쪽으로 달려갔네.
먼 시골의 풍속 교화하기 어려우니 벼슬살이의 거친 물결에 쉬이 놀랐구나.
고향 산천 바라보며 돌아오는 길 묻고, 한바탕 웃어버리며 관직을 내려놓았네.
비록 지역을 다스림에 완전하지 못하였지만, 의려(倚閭)의[347] 정에 조금이나마 위로받

342) 소계자(蘇季子) : 소계자(蘇季子)는 전국 시대 때의 유세가(遊說家)인 소진(蘇秦)을 말한다. 소진이 진왕(秦王)에게 열 차례나 글을 올렸으나 설득시키지 못하여 흑초구(黑貂裘)가 헐고 백 근의 황금이 다 떨어져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사기(史記)』 권69).

343) 마장경(馬長卿) : 마장경(馬長卿)은 한나라 때의 문장가인 사마상여(司馬相如)를 말한다. 두보(杜甫)의 「취시가(醉時歌)에 "사마상여는 뛰어난 재주로 친히 그릇을 씻었고, 양자운은 글자를 알아서 끝내 천록각서 투신했네.〔相如逸才親滌器 子雲識字終投閣〕."라고 하였다.

344) 당에 오르고 … 효성을 다하였네 : 당(唐)나라 사람 동소남(董召南)이 부모를 봉양했던 일화에서 가져다 쓴 말로 보인다. 한유(韓愈)가 지은 「동생행(董生行)」에 "아! 동생이여. 아침이면 나가 밭 갈고, 밤이면 돌아와 옛사람의 책을 읽도다. 종일토록 쉬지 못하였으니, 혹은 산에서 나무하며, 혹은 물에서 고기 잡네. 부엌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당에 올라 안부를 물었네.〔嗟哉董生, 朝出耕, 夜歸讀古人書. 盡日不得息, 或山而樵, 或水而漁. 入廚具甘旨, 上堂問起居〕."라고 하였다.

345) 삼생(三牲) : 소, 양, 돼지의 세 짐승으로 만든 음식을 말하는데, 관리가 되어 부모를 좋은 음식으로 봉양하는 것을 뜻한다. 『孝經』 「紀孝行」에 "비록 날마다 삼생으로 봉양한다고 해도 오히려 효가 되지 않는다〔雖日用三牲之養, 猶不爲孝也〕."라고 하였다.

346) 다섯 마리의 말 : 오마(五馬)는 한(漢)나라 때 태수(太守)가 다섯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던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방 수령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았네.

행장(行藏)은[348] 운명에 맡기고, 뜻은 은거지를 돌보는 데 두었네. 과원(果園)은 이미 배치하였고, 뽕나무밭은 가로세로로 뻗어 있네.

이슬과 비 고루 내리니, 아름다운 초목들이 모두 자라났네. 그곳에서 한가로이 사나니, 세 칸 집 맑고 깨끗하네.

아침엔 꽃이 피고 저녁엔 달이 뜨니, 손님 붙잡고서 술잔을 가득 채우네. 나아가고 물러설 때마다 매번 나라를 걱정하니, 대궐이 꿈속에서도 떠오르네.

추운 겨울을 지남에도 소나무는 여전히 무성하고, 해를 향해 풀은 저절로 기울어지네. 뜻과 사업 어긋날까 두려운데, 세월은 흘러 1870년〔庚午〕에 이르렀네.

성스러운 조정이 어질고 좋은 자를 골라, 옛 소성(邵城)을 다스리게 하였네.

그야말로 높이 나는 기러기와 같으니, 높은 가지로 옮겨가는 꾀꼬리는 부럽지 않네.

고을 백성들 함께 축하하며, 기쁘게 우리 후(侯)를[349] 맞이하네.

온 고을에 따스한 봄기운 돌아오니, 이로부터 싹이 트고 꽃을 피우리라.[350]

은혜로운 정치로 궁핍한 이 진휼하고, 어진 덕으로 외로운 이 보살피네.

명을 받들어 서로 돕고, 때를 맞춰 벼와 조를 심는다네.

마을에 서리배들 보이지 않으니, 농사짓는 백성들 즐겁기만 하네. 예기치 못한 서양의 배들, 만 리 바다를 건너왔네.

증기선은 어찌 그리도 빠른가, 대포 소리 쾅쾅 울리네. 높은 이는 파도는 평지를 보는 듯하고, 그 날카로운 위력은 감히 맞설 수 없다네.

호도(虎島)는 비린내 나는 먼지가 어둡게 깔리고, 군사와 백성들은 서로 돌아보며 놀라네.

절개 높인 어 장군(魚將軍),[351] 충성이 하늘의 해를 뚫고 빛나네.

저들은 전술의 재주를 믿고, 우리에게 우호의 약속을 요구하네.

이 고을 관방을 담당하여, 적들의 계책은 반드시 싸우고자 하는 것이리.

세 면의 땅은 바다와 접하고, 2사의 길로 서울에 통하네.

태수가 군사를 계획하니, 밝힌 촛불은 새벽에 이르렀네.

---

347) 의려(倚閭) : 의려(倚閭)는 어머니가 집 떠난 자식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다. 전국 시대 제(齊)나라 왕손가(王孫賈)가 나이 15세에 민왕(閔王)을 섬겼는데, 그 모친이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면 내가 집 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렸고,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면 내가 마을 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렸다〔女朝出而晩來, 則吾倚門而望; 女暮出而不還, 倚閭而望〕."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전국책(戰國策)』 권6).

348) 행장(行藏) : 용행사장(用行舍藏)의 준말로, 자신의 도를 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여 조정에 나아가기도 하고 은퇴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 「술이」의 "써 주면 나의 도를 행하고 써 주지 않으면 숨는다〔用之則行 舍之則藏〕."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349) 우리 후(侯) : 당시 인천부사인 구연상을 의미한다.

350) 이로부터 … 피우리라 :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계춘의 달에는……굽은 것은 다 나오고, 곧게 펴진 것은 모두 죽죽 자란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51) 어 장군(魚將軍) : 어재연(魚在淵, 1823~1871)을 가리킨다.

아래로는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고, 위로는 종묘의 제사를 보호하고자 하네.[352]
간성(干城)의[353] 책임에 스스로 임하였으니, 몸을 일으켜 그 길을 떠나네.
군대를 주둔시킴에 지리(地利)를 생각하니, 긴 냇물에 흐르는 물이 맑구나.
땅과 물이 예언하는 바, 장인(丈人)이 군사의 책임을 지고 나아가네.
수비함에 먼저 보를 세우고, 매복하고 구덩이 파네.
총과 창은 이미 익숙하고, 활과 쇠뇌 또한 도지개에 있네.[354]
칼을 베개 삼고 잠을 자려하는데, 별과 달이 징을 비추네.
나라의 은혜 산처럼 무거우니, 군량 보내주심에 여유롭도다.
옷을 하사하시고 약을 하사하시니, 윤음을 받들며 감격의 눈물 흘리네.
여덟 개진을 몸소 순행하면서, 매일 이를 과업으로 삼으셨도다.
조금이라도 굶주리면 밥을 더 주게 하고, 조금이라도 취하면 술을 깨도록 하셨네.
혹여 더위로 상할까 염려하시어, 좌우로 차 솥을 두었도다.
무지몽매한 사졸들조차 죽음을 영예롭게 여기네.
손발이 머리와 눈을 지키는 듯, 자식처럼 부모와 형제를 보호하였네. 진영을 지키는 40일 동안 띠를 두르고 관대를 풀지 않았도다.
장기와 더위에 평소에도 괴로운데, 등한한 바람 불고 천둥마저 모질구나.
포구에는 배들이 빽빽이 모여들고, 산머리에서는 장정들이 나무를 베고 있도다.
저들의 우두머리는 문득 간담이 서늘해졌으니, 어찌 감히 대적할 방법이 있으리오.
다섯 척의 배가 한순간에 도망치니, 바다와 하늘에 드리운 검은 연기 걷혔네.
어찌 일단 한 발의 화살이라도 쓴 적 있었던가, 마치 등에 떼를 쫓는 것과 같도다.
조선과 서번(西蕃), 하국(夏國)이 안정을 이루고, 팔방의 강토가 함께 태평을 누리네.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켰으니, 누가 공의 넓은 도량을 알겠는가.
경군(京軍)과 향군(鄕軍)들에게 큰 잔치가 베풀어졌으니, 항아리에 든 술과 부엌에서 끓인 국이 준비되었네.
시골 노인들은 소쿠리에 밥을 지어 바치며, 각자 병과 항아리를 기울이네.
환호성이 마을의 거리마다 가득 차니, 조화로운 기운이 깃발에 감도네.
병사들 모두가 후의 덕 칭송하고, 길가에는 비석이 우뚝 서 있네, 나라를 다스림이

352) 위로는 … 보호하고자 하였네 : 원문은 "上欲護宗榜"이나 榜자와 원문과의 관계를 알 수 없어 祊자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353) 간성(干城) : 방패와 성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와 성이 되는 훌륭한 장수를 가리킨다. 『시경』「주남 토저(周南 兎罝)」에 "굳세고 굳센 무부여, 공후의 방패와 성이로다〔赳赳武夫, 公侯干城〕."라고 하였다.
354) 활과 쇠뇌 또한 도지개에 있네 : 도지개는 활과 쇠뇌를 교정(矯正)하는 기구이다. 활과 쇠뇌가 도지개에 있다는 말은 도지개질을 하여 무기를 정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인 듯하다. 소식(蘇軾)의 「질안절원래야좌(姪安節遠來夜坐)」에 "큰 활의 줄이 한 번 풀리니 무슨 수로 당길꼬. 제멋대로 움직여 도지개를 받지 않음을 알겠다〔大弧一弛何緣彀, 已覺翻翻不受檠〕." 하였다.

중흥주(中興主)요, 변경을 지켜냄이 이 시대의 영웅이라.
영웅호걸의 지략 환히 꿰었으니, 진실로 나라의 복이라 하겠구나.
조충국(趙充國)이 강노(羌虜)를 제압함이요,[355] 방숙(方叔)이 만형(蠻荊)을 방어함이로다.[356]
북두칠성에 기대어 서울의 번화함 바라보고, 장차 축하의 시 올리고자 하네. 바른 학문으로 사특함을 물리치니, 강송(講誦)하는 소리 학당에 울려 퍼지네.
세상의 가르침으로 윤리와 기강을 밝히고, 제사의 예법 받들어 자성(粢盛)을[357] 올리네.
부자(夫子)께서 하나의 태극(太極)이라 하셨으니 만고(萬古)에 이 도가 형통하리라.[358]

○ 邵城太守行 七十六句 士人 李度烈

我東屬休運, 群賢應期生. 磅礴楊州山, 維公稟其精. 正氣元純粹, 雄姿儘聰明. 天使忍心性, 少小憂患嬰. 獘貂蘇季子, 滌器馬長卿. 親老何以養, 數畝躬自耕. 上堂復入廚, 克盡晨昏誠. 淡然供菽水, 郎當用三牲. 經綸試於家, 靑蚨稍滿籯. 擲鉏喟然嘆, 思纘故家聲. 風前時拊劒, 燈下夜讀兵. 兵家千古事, 得失心上評. 光彩動門戶, 雲路果楊名. 斗邑分憂遠, 五馬向西征. 遐鄕俗難化, 窔海波易驚. 故山問歸路, 一笑解紱經. 縱未專域養, 差慰倚閭情. 行藏付諸命, 意在菟裘營. 果園已排置, 桑畝亦縱橫. 均沾雨露澤, 嘉卉摠生成. 於焉賊閒居, 瀟灑屋三楹. 花朝與月夕, 留客樽酒盈. 進退常憂國, 魏闕魂夢縈. 經寒松猶茂, 向日葵自傾. 志業恐蹉跎, 駸尋歲值庚. 聖朝簡賢良, 來鎭古邵城. 眞同漸逵鴻, 不羨遷喬鸞. 邑民共相賀, 欣欣我侯迎. 一境陽春回, 從此達句萌. 惠政賙窘乏, 仁風恤孤煢. 奉令相補助, 及時種稻秔. 閭閻不見吏, 樂哉耕鑿氓. 不意西洋舶, 來從萬里瀛. 火輪何迅駛, 火炮甚訇匉. 層浪視平地, 其鋒未可攖. 虎島腥塵暗, 軍民相顧瞠. 立節魚將軍, 忠貫天日晶. 恃渠能戰技, 要我修好盟. 此郡爲關防, 賊謀必欲爭. 三面地接海, 二舍路通京. 太守運戎籌, 明燭達五更. 下欲濟黎庶, 上欲護宗榜. 自任干城責, 奮身爰啓行. 屯兵按地利, 長川流水淸. 地水占羲卦, 丈人師之負. 備禦先設堡, 埋伏且掘坑. 銃鎗已習藝, 弓弩亦在檠. 枕戈因露宿, 星月照金鉦. 國恩如山重, 輸給軍粮贏. 賜衣又頒藥, 感泣丹綸擎. 八陣躬自巡, 每日爲課程. 小飢使加餐, 小醉使解醒. 慮有傷暑者, 左右置茶鐺. 蠢蠢諸士卒, 能以死爲榮. 手足捍頭目, 子弟衛父兄. 莅陣四十日, 束帶不解纓. 尋常瘴苦熱, 等閒

355) 조충국(趙充國)이 강노(羌虜)를 제압함이요 : 조충국(趙充國)은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의 명장으로 북방 민족을 격퇴하고 영평후(營平侯)에 봉해진 인물이다. 강족(羌族)이 쳐들어왔을 때 70세가 넘었던 조충국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한 선제가 어사대부 병길(丙吉)을 보내 누가 장수로 삼을 만한지 묻자, 조충국이 "노신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지원해서 나아가, 강족을 평정하는 큰 공을 세웠다(『한서(漢書)』「조충국전(趙充國傳)」).

356) 방숙(方叔)이 만형(蠻荊)을 방어함이로다 :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의 경사(卿士)이다. 만형(蠻荊)이 반란을 일으키자 정벌을 명받았는데, 군사들에게 쓴 나물을 뜯어 먹으며 행군하게 하는 계책으로 문왕과 무왕 때의 강토를 회복하였다(『시경(詩經)』「채기(采芑)」).

357) 자성(粢盛) : 제사에 올리는 정결한 곡식으로 보통 서직(黍稷)인 기장이나 쌀을 뜻한다.

358) 부자께서 … 형통하리라 : 주희(朱熹)의 이른바 '이일분수(理一分殊)' 사상을 가리키는데, 『朱子語類』에 "물건마다 하나의 태극을 지니고 있고, 사람마다 하나의 태극을 지니고 있다〔物物有一太極 人人有一太極〕."라고 하였다.

風雷獰. 蓄銳待至寇, 金鼓故不鳴. 密勿火攻策, 列郡將合并. 浦口聚船簇, 山頭伐木丁. 彼酋便喪膽, 無計敢抗衡. 五舶一時遁, 海天黑烟晴. 何曾費一箭, 有如逐群蝨. 鮮釋西蕃夏, 八域共太平. 不戰而屈彼, 誰識度量宏. 大饗京鄕軍, 甕醪與庖羹. 野老奉簞飧, 各自倒甁罌. 歡聲溢村巷, 氣繞旆旌. 兵皆頌侯德, 路傍碑崢嶸. 御邦中興主, 守圉當世英. 曉達龍虎略, 實爲國之禎. 充國制羌虜, 方叔禦蠻荊. 依斗望京華, 願將賀詩呈. 正學以闢邪, 講誦聲在黌. 世教明倫紀, 祀典奉粢盛, 夫子一太極, 萬古斯道亨.

소성 태수의 행적을 읊음

55 운(韻). 인천선비 조제면(趙濟冕)

신미년 오월에 이르러, 고을 사람들이 어진 태수 다투어 칭송하네.
태수의 정사는 맑은 물과 같고, 태수의 덕은 두터운 땅과 같으니라.
온 고을의 아홉 개 마을과 삼십 굽이, 아 너희 어린아이와 백발노인이여.
내가 너희를 위해 노래하노니, 너희를 어루만지고 너와 너의 부모 돌보리라.
이 고을은 옛 추홀(鄒忽) 왕업이 일어났던 곳, 물이 통하는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았네.
서쪽으로는 큰 바다 내려다보니, 만 리를 건너고, 동쪽으로는 내수와 접하여 하루 만에 닿을 수 있도다.
상인의 배는 짐을 가득 싣고서 등주(登州)와 내주(萊州)에 별처럼 빽빽이 모이고, 하늘의 뗏목은 변하(汴河)의 버드나무 아래로 곧게 드나드네.
다행히 바다를 둘러싸고 태평한 때를 만났으니, 사람들은 병란을 알지 못한 지 오래되었네.
백성들은 편안히 살며 물고기와 게 배불리 먹고, 사방은 평화로워 닭과 개소리만 들릴 뿐이네.
그러나 나무가 무성하면 싹이 돋아나듯, 한 무리의 개와 양이 떼를 이루어 추태를 부리네.
그들의 가르침은 임금과 부모를 배반하게 만들고, 그들의 습속은 부부 사이를 어지럽히네.
기이한 재주를 함부로 부려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특한 말과 편벽된 행실로 속이려 하네.
대동(大東)을 개척한 지 3천 년이니, 예악과 문물이 우리 백성 일깨웠도다.
유현(儒賢)은 스승의 도를 천명하여 높이고, 조종(祖宗)은 성스럽고 신령스러워 법을 아끼셨네, 저들을 막지 않으면 이곳의 흐름이 끊길 텐데, 천지를 단절시키고 세상을 흔든 것이 지난 1801년〔辛酉〕이라.
이단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숭상함이 상원갑(上元甲)이요,[359] 멀리 지금의 밝고 성스러운 임금에까지 이르렀도다.
추악한 자는 그 목을 베고, 물든 자는 그 머리를 베어 매달아 올려라. 그물에서 물고기 빠져나감을 모르고, 도리어 원망하는 무리들이 바다 건너 부추기네.

359) 상원갑자(上元甲子) : 술가(術家)에서 1백 80년으로 1주(周)를 삼고, 그 1주를 셋으로 나누어 상원갑자(上元甲子)·중원갑자(中元甲子)·하원갑자(下元甲子)로 만든 것 중의 하나로 60년을 의미한다. 이 시기로부터 60년 전은 신유년, 즉 신유박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화의 땅과 산에는 불길이 늘여있는데, 변고가 매우 급작스러웠으니 전에 없던 일이었네.
살아서 적과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으니, 온 나라 신민들이 심장을 갈라 피를 토해내네. 악하도다.
저 바다의 적장은 마치 탐욕스러운 이리 같아서, 우리더러 사람이 없다 하고 또 와서 짓밟으려 하네.
거센 바람과 물결 속에서도 다섯 척의 거대한 배는, 하늘을 날아가듯 빠르고 선체의 색은 짙고도 검었도다.
문학산에는 세 개의 돛이 나란히 서 있고, 자연도(紫燕島)에서는[360] 대포 소리가 천치를 울리네.
더구나 우리의 습속은 선동하길 좋아하니, 와전되어 잘못 전해짐이 열에 아홉이로구나.
한 조각의 외로운 성, 탄환같이 작은 땅에서, 그때 그대들은 살아날 수 있을지 헤아려 보라.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써 누가 이 난세를 진압할 수 있으랴, 조정에서 우리 후(侯)를 보내어 이를 맡기셨도다.
우리 후(侯)는 유양산(維楊山)[361] 아래 사람으로, 재주와 도량이 당당하며 씩씩하였도다.
용도호략(龍韜虎略)으로[362] 칼을 걸어둔 채 병서를 읽고, 강에서는 고기 잡고 산에서는 나무하여 당에 올라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였네.
북쪽 땅에서는 농사와 목축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고, 남쪽 산에서는 사냥하며 뜻을 저버리지 않았네.
대장부가 집을 떠나매 적을 물리칠 것을 맹세하고, 다섯 마리 말 서쪽을 향하니 인사두(印似斗)하도다.
산에 올라 아래를 바라보며 웃음 터뜨리니, 넓고 큰 뛰어난 계책으로 숲을 삼키는 듯하네.
적군들이 스스로 뱀처럼 뒤엉켜 골짜기로 몰려드니,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자루 속 물건을 꺼내듯 쉽게 취하였도다.
주인은 편안하고 손님은 수고롭게 하는 만전의 계책이니, 장인의 군대는 길할 뿐 근심거리가 없네.
관서의 뛰어난 군사들은 날카로움을 비축하고 영남의 조운선은 군량을 실어나르네.
중앙의 군대는 정예로 날쌔고 시골의 군대는 지리에 능숙하니, 지휘하여 좌우로 나누어 배치하였네.
삼기(三奇)에[363] 육정신(六丁神)[364] 오니 명을 듣고 구궁(九宮)에 팔문(八門)을 줄지어

360) 자연도(紫燕島) : 영종도의 이칭이다.
361) 유양산(維楊山) :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산의 이름으로 능성구씨가 모여 살았던 양주를 의미한다.
362) 용도호략(龍韜虎略) : 병법(兵法)을 뜻하는 말로, 주(周)나라 여상(呂尙)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병서(兵書)인 『육도(六韜)』의 편명 중에 「용도(龍韜)」와 「호도(虎韜)」가 있다.
363) 삼기(三奇) : 십간(十干) 가운데 을(乙)、병(丙)、정(丁)이 삼기(三奇)이고 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가 육의(六儀)인데, 이 삼기와 육의를 구궁(九宮) 팔괘의 궁과 중앙의 궁을 합한

거느리네.[365]

한 활 쏠 거리에서 40일을 대치하니, 후는 '가엾도다, 우리 백성 곤궁에 빠졌구나.'라 말하네.

병기는 흉한 도구이므로 장려할 수 없는데, 농사는 중요한 근본이니 뒤로 미룰 수 없네.

풍찬노숙(風餐露宿)하니[366] 어찌 병이 없겠는가, 잠들기 전 돌아다니며 침놓고 뜸 들이는 일 지켜보네.

모석일취(矛浙釰炊)하니[367] 어찌 굶주림이 없겠는가, 몸소 위문하며 소와 술을 보냈네.

3일에 한 번 휴식을 취하게 하고, 제때 밭을 갈고 농사짓도록 거듭 권면하였네.

옷을 하사하고 약을 나눠 주며, 임금의 은혜 베풀었으니 감격하여 이마를 조아리지도 못하네.

낮은 땅을 평평한 삽으로 일구어 능히 고통을 함께하고, 방패와 성도 참으로 변통하여 일 척의 썩음도 없네.

마침내 오랑캐가 머리를 감싸고 달아나게 하였으니, 바다 위 하늘에는 티끌 하나 없고 바닷물은 넘실넘실 푸르네.

팔도강산은 반석과 태산처럼 안정을 이루고, 해와 달은 만세토록 강산을 축복하리라.

어린아이들 줄지어있는 것이 밭고랑처럼 곱고, 그 즐거움은 다만 질동이 두드리는 데 있네.

산에는 도적이 없으니 제나라 신하를 두려워하고, 바다에는 비바람이 없는지라 월나라 노인을 염려하지 않네.

이때 부자의 묘 더욱 새롭게 하니, 푸른 마룻대와 붉은 기둥, 장식된 두공(枓栱 : 기둥 위의 방형의 나무)이 빛나네.

푸른 등잔 아래에서는 수시로 학문을 익히고,[368] 높은 나무에서는 날마다 날아오는 꾀꼬리와 벗을 하네.

것)에 나누어 배치하고 갑(甲)으로 거느려 다가올 길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병법에 많이 응용되어 사용되었다.

364) 육정(六丁) : 둔갑술(遁甲術)을 부릴 때 부른다는 신(神)의 이름으로 육갑(六甲) 중 정(丁)에 해당되는 신

365) 삼기(三奇)의 … 거느리네 : 둔갑술(遁甲術)을 가리키는 것으로 음양의 변화에 따라 몸을 숨기고 길흉을 택하는 용병술이다. 하도(河圖)·낙서(洛書)의 수(數) 배열원리 및 이를 이용한 『주역』 건착도(乾鑿度)의 구궁(九宮)의 법이 그 원형이며 기문둔갑(奇門遁甲)이라고도 한다. 즉, 천간(天干) 가운데 을(乙), 병(丙), 정(丁)이 삼기(三奇)이고, 생(生), 경(景), 개(開), 사(死), 휴(休), 두(杜), 상(傷), 경(驚)이 팔문(八門)인데, 삼기와 팔문을 합하여 기문이라고 한다. 구궁(九宮)이란 팔괘(八卦)의 궁(宮)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중앙궁(中央宮)을 합한 것이다.

366) 풍찬노숙(風餐露宿) :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잔다.'는 뜻으로,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겪음을 이르는 말이다.

367) 모석일취(矛浙釰炊) : 처한 상황이 위태로움을 비유한 말이다. 진(晉)나라 환현(桓玄), 은중감(殷仲堪), 고개지(顧愷之)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뜻하는 말을 서로 농담 삼아 주고받았는데, 그중에 환현이 "창의 끝으로 쌀을 일고, 칼의 끝으로 불을 땐다〔矛頭淅米劍頭炊〕."라고 말한 고사가 전한다(『세설신어(世說新語)』 「배조(排調)」).

368) 수시로 학문을 익히고 : 『예기』 「학기(學記)」에 "개미의 새끼는 수시로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익힌다〔蛾子時術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개미 새끼가 수시로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익혀서 마침내 큰 둑을 만들듯이, 학문을 갈고 닦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평화를 얻은 것은 누구의 공이던가, 덕이 있음을 표창하니 끈을 길게 드리우네.
백성을 다스리는 재주는 공황(龔黃)의[369] 관리됨과 같고, 번영한 시대의 후손은 신보(申甫)의 외숙과 같네.
넘치는 바람 거세어 사람 마음에 깊숙이 스미니, 큰 바위에 장차 과두(蝌蚪)로[370] 새기려 하네.
군대에는 좋은 장수 있고 고을에는 밝은 관리가 있어, 우리 후 시대에 맞추어 나옴이 참으로 우연이 아니었노라.
서울에서는 미리 화선각(畵仙閣)을 열었으니, 그 위에 후의 이름을 남기려 하네.
한 곡, 두 곡 노래를 이어 부르며, 좌촌(左村)의 선비가 팔차수〔八叉手〕의[371] 솜씨를 펼치도다.

○ 邵城太守行 五十五韻 仁川士人 趙濟冕

歲在辛未建午月, 州人爭頌賢太守. 太守之政如水清, 太守之德如地厚. 一府九坊三十曲,
嗟爾黃童及白叟. 我且爲爾歌囉囉, 撫爾恤爾爾父母. 州古鄒忽王地墟, 介在水路要險口.
西臨大海萬里涉, 東接內江一日走. 商舶滿載登萊星, 天槎直繫汴河柳. 幸際環海昇平日,
人不知兵百年久. 百姓安居厭魚蟹, 四境無事聞鷄狗. 木之極茂孽芽間, 一種犬羊群作醜.
其教則離叛君親, 其俗則瀆亂夫婦. 奇技淫巧以眩惑, 邪說詖行以誑誘. 開荒大東三千年,
禮樂文物我民牖. 儒賢闡明師道尊, 祖宗聖神心法愛. 彼如不塞此不流, 乾斷廓揮粵辛酉.
闢異崇正上元甲, 遠至明明今聖后. 有渠醜者斧其吭, 有浸染者梟其首. 闊網漏魚莫知戢,
反作怨徒越海嗾. 江都之火開山土, 變故蒼黃未前有. 生不與賊共戴天, 一國臣民心血剖.
頑彼海酋貪如狼, 謂我無人又來蹂. 逆風逆水五巨艦, 其疾如飛其色黝. 文鶴山齊三帆竪,
紫燕島震大砲吼. 況是我俗喜煽動, 以訛傳訛十八九. 一片孤城彈丸地, 是時爾等料生否.
文武全才疇可鎭, 朝廷以侯達於蔽. 侯是維楊山下人, 器宇軒軒而赳赳. 龍韜虎略掛劒讀,
水漁山樵上堂壽. 北地田牧計已就, 南山射獵志不負. 丈夫辭家當破賊, 五馬西來印似斗.
上山而望下山笑, 恢恢勝筭腦吞藪. 藤甲自送盤蛇谷, 一擧非難囊物取. 主佚客勞萬全策,
丈人之師吉無咎. 關西材士蓄其銳, 嶺南漕栗峙其糗. 京兵精猩土兵諳, 指揮分屬左之右.
三奇六丁來聽令, 九宮八門列成部. 一弓相距四十日, 侯曰哀我民窮蔀. 兵者凶器不可長,
農者大本不可後. 風餐露宿得無病, 日夕巡行視針灸. 矛浙釰炊得無飢, 親自勞問餉牛酒.
三日一番遞休息, 申勸及時耕水畝. 賜衣頒藥宣上恩, 感荷執不以額叩. 版鍤田卑能同苦,

369) 공황(龔黃) : 한나라 때 지방 장관으로 선정을 베풀어 치민(治民)이 으뜸으로 꼽혔던 발해 태수(渤海太守) 공수(龔遂)와 영천 태수(潁川太守) 황패(黃霸)를 아울러 일컬은 말이다.
370) 과두(蝌蚪) : 글자의 모양이 올챙이처럼 생겨 획의 머리 부분은 굵고 끝부분은 가는 글씨체를 말한다.
371) 팔차수〔八叉手〕 : 손을 여덟 번 깍지 낀다는 뜻으로, 당대(唐代)의 시인 온정균(溫庭筠)이 시를 짓는 데 매우 민첩하여 보통 손을 여덟 번 깍지 끼는 사이에 팔운(八韻)의 시를 이루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시문을 빨리 짓는 뛰어난 재주를 가리킨다(『북몽쇄언(北夢瑣言)』).

干城苟變無尺朽. 終令蠢蠻抱頭竄, 海天無塵清瀏瀏. 八域江山措磐泰, 萬歲日月祝岡阜.
有童如畦畦如娟, 其樂只且擊土缶. 山無盜賊畏齊臣, 海不風雨問越耇. 此時益新夫子廟,
翠棟丹楹彫畵枓. 靑燈時習述蛾子, 喬木日遷鬻鳥友. 得有今日伊誰力, 表章有德若若綏.
牧民之才龔黃吏, 華世之冑申甫舅. 藹然風顚入人深, 穹石行將寫蝌蚪. 在軍良將在府明,
我侯應時誠不偶. 京師預開畵仙閣, 上頭留待姓名某. 一曲二曲歌復歌, 左村居士八乂手.

소성 태수의 행적을 기림

사인(士人) 정숙동(鄭肅東)

그대여 보지 못하였는가, 이목(李牧)은 북쪽 변방의 좋은 장수로써 날마다 소를 잡아 사졸들을 먹이었네. 또 보지 못하였는가, 충국(充國)은 금성(金城)에서 방략(方略)을 도모하고,[372] 강노(羌虜)를 엄습하여 복종시키니 감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네. 우리 후(侯)는 참으로 옛사람의 풍채를 가졌으니 팔 척의 장신이요 재주는 곰과 호랑이의 형상이라. 10년을 유양촌(維楊村)에[373] 머물러 있으며 집에 계신 늙은 어버이 능히 섬기어 봉양하였네. 몸소 오곡(五穀)을 관리하여 천시(天時)를 살펴 알았고, 손수 백과(百果)를 손질하여 토의(土宜)를 자세히 하였네. 동백산 아래에서 즐거이 고기 잡고 나무하니, 석가(石家)가[374] 흰머리 됨에도 여전히 근심이 없도다. 평생의 재주와 포부 누가 엿볼 수 있겠는가마는 일체 공명(功名)을 잊은 듯하였네. 온 산에 단풍잎 물들었는데 등잔 아래에서 병서를 읽고, 칼을 노래하며 천고의 뜻과 기운 더해지네. 성조(聖朝)는 어질고 좋은 관리에 마음 쓰니, 옛 미추(彌鄒)의 땅을 지키게 보냈도다. 이때 서양의 무리가 일어날 것이라 하였는데, 창궐하여 온 세상에 비린 먼지를 일으켰다네. 그들의 풍속은 상업으로써 생업을 삼고, 그들의 가르침은 음사(淫邪)로써 사람들을 속이네. 그들의 무기는 5리, 10리를 넘기는 대포요, 그들이 거처하는 곳은 삼범선과 사범선이로다. 거스르는 물과 거스르는 바람도 방해하지 못하니, 천하를 두루 다니며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네. 중국의 커다람도 오히려 지탱되지 못하고, 거장(巨匠)들은 천주당(天主堂)을 설비하네. 오직 우리 동방만이 예악을 쥐고 있나니, 단군과 기자에게서 풍속과 문물이 시작되었네. 열성들께서 잇따라 해와 달처럼 밝게 비추고, 현명한 이들이 연달아 나와 태산과 북두칠성처럼 우러러보게 되었네. 관혼(冠婚)의 폐백으로 윤리와 기강을 밝히고, 제연(祭宴)의 조두(俎豆)로 예의와 겸양을 숭상하였네. 그러나 한 줄기의 사악한 기운이 그 사이를 침범하니, 베어버려 마땅한 오랑캐들은 소멸시키고 천둥처럼 씨를 말려야 하리라. 다만 그물에서 빠져나간 불량한 무리들이 있어, 몰

372) 충국(充國)은 …… 도모하고 : 한 무제(漢武帝) 때 영평후(營平侯)에 봉해진 조충국(趙充國)을 가리킨다. 나이 70에 흉노를 물리치러 전장에 나아가 금성(金城) 일대에서 둔전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던 일화가 있다(『한서(漢書)』, 「조충국전(趙充國傳)」).

373) 유양촌(維楊村) :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마을로서 능성구씨가 세거하던 곳을 의미한다.

374) 석가(石家) : 만석군(萬石君)의 집안을 말한다. 한(漢) 나라 석분(石奮)과 그의 네 아들이 모두 2천석(石)의 관직에 이르렀으므로 경제(景帝)가 석분에게 내린 호(號)인데, "만석군의 질행(質行)은 제(齊)·노(魯)의 제유(諸儒)들도 모두 미칠 수 없다고 여겼다."는 기록이 전한다(『사기(史記)』 「만석장숙열전(萬石張叔列傳)」).

래 바다의 도적들로 통하니 방자하고도 방자하도다. 곤륜(崑崙)에서[375]서 바로 서쪽 몇 만 리를 지나, 4월 남풍에 오량(五兩)이[376] 가볍구나. 검은 연기 한 번 피어오르니 하늘을 나는 듯 빠르고, 철로 된 외벽과 불수레는 높은 물결을 타고 달리네. 자연진(紫燕鎭)의[377] 북쪽, 호도(虎島)는 서쪽에 닻을 내린 것은 서울로 향하려는 뜻이구나. 코는 크고 눈은 우묵하며 머리카락은 고불고불하여 누런빛이 도니, 의복도 다르고 그 배를 부리는 것도 다른 모양이도다. 바다에 가까이 거주하는 백성들이 모두 눈을 부릅뜨고 보니, 요동치는 것이 때마침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같네. 인천의 태수는 훌륭한 관원이라, 토병(土兵)을 훈련시키고 방비를 빈틈없이 하였네. 편리한 곳을 골라 제물포(濟物浦)에 진을 펼치고, 험지에 기대어 문학장(文鶴嶂)에 보를 설치하였도다. 병사들은 모두 용기 내어 훗날을 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공(公)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며 선창하였네. 사흘마다 집에 돌아가도록 하며, 우리 백성 농사철 방해할까 염려하였도다. 근심스러운 밤에는 돌아다니며 친히 군사들을 위로하고, 밥과 술안주 고르게 나누어주었네. 너그럽고 화평하게 어루만지니 사람이 저절로 얻어지고, 충성과 절의로 권면하니 사람들이 스스로 힘썼도다. 그대에게 부모가 있어도 감히 사사롭게 말할쏘냐. 공 역시 나라를 위해 혼정신성(昏定晨省)[378] 못 하였네. 40일 동안 띠를 풀지 않고서 몸소 사나운 바람과 독한 장기〔毒瘴〕를 견뎌내셨네. 일에 따라 도모하여 진압에 부지런히 힘쓰고, 사람들과 마주할 때는 항상 기개가 꿋꿋하셨네. 군대 앞에서는 풀과 나무조차 움직이며 긴장감이 흐르고, 막사 아래에서는 바람과 구름이 폐부에 스며들 듯하네. 관민이 서로 아끼기를 가족처럼 하고, 주린 자나 배부른 자나 함께 어려움을 나누었도다. 돈과 단약(丹藥) 및 의복에 미쳐서는, 성상의 은혜와 덕을 전하매 진심으로 베푸셨네. 예리함을 모으고 신중함을 지키어 쉬이 쏘지 않았고, 칼은 용무늬 칼집에, 활은 호랑이 가죽 활집에 잠들어 있었네. 사기를 격양하여 외로움과 다투게 하였고, 군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모두 솜옷을 껴입은 것처럼[379] 하였네. 사특함을 물리치매 정학(正學)을 밝히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병을 치료함에 모름지기 먼저 원기를 왕성하게 하네. 깃발이 쓰러질 정도로 적진 앞으로 돌진하여 세상에서 용맹하다 칭찬하니[380] 병가(兵家)에서도 큰 역량 헤아리지 못하겠네. 일에 임하

375) 곤륜(崑崙) : 중국의 서북쪽에 있는 영산(靈山)이다. 전설에서는 서방의 낙토(樂土)로 묘사하는데, 아름다운 옥이 생산되고 예천(醴泉)과 요지(瑤池)가 있으며 서왕모(西王母)가 살고 있다고 전한다.
376) 오량(五兩) : 초(楚) 지방의 방언으로, 닭털을 장대 끝에 매어 풍향을 알아보는 기구를 말한다.
377) 자연진(紫燕鎭) : 자연도(紫燕島)로 지금의 인천 영종도를 가리킨다.
378) 혼정신성(昏定晨省) : 자식이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효성을 다해 섬기는 것으로,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살피고 아침에는 안부를 여쭙는 것을 말한다.
379) 솜옷을 껴입은 것처럼 : 초(楚)나라가 소(蕭)를 칠 적에 군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자 초왕(楚王)이 친히 순찰하며 위로해 주니, 군사들 모두가 마치 솜옷을 껴입은 것처럼 느끼면서 사기를 충천했다는 말이 『춘추좌씨전』 선공 12년에 나온다.
380) 깃발이 … 용맹하다 칭찬하니 : 『춘추좌씨전』 선공 12년에 "도전하는 자는 깃발이 쓰러질 정도로 빨리 달려 적진 앞까지 육박했다가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 두려워하면서도 계책 내어 성공하였으니, 부자(夫子)께서 계행(戒行)을 행하신 까닭이로다. 이처럼 작은 고을이 긴 성벽처럼 방어하니, 서양 오랑캐는 망연자실하며 간담서늘해졌도다. 바다가 편안해지고 하늘이 맑아지니 도적들이 스스로 도망치고, 하나의 화살도 낭비하지 않았으니 개선(凱旋)의 노래 부르네. 기쁜 기색 등등하여 군사들을 해산시키고, 그들에게 국과 술 보내었노라. 오랫동안 수고하였으니 돌아감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마는, 휘하에서 물러나며 허전한 마음 드네. 예로부터 어찌 장수의 재목에 한도가 있으랴만, 군사를 얻어 사력을 다하는 것이 곧 제일이로다. 먼 고을의 병사들도 모두 비석을 세우고, 진심으로 감복하니 백성들은 더욱 그러하네. 씩씩한 풍채는 저절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을의 아녀자도 모두 서로 우러러보네. 이 시를 지어 조정에 축하를 드리니, 공과 같다면 나라의 안위를 맡길 수 있으리라. 언제쯤 장안(長安)에 들어가 노래하고 춤추며, 백 척 금단(金壇) 위에서 옥 장막을 펼칠 것인가.

○ 邵城太守行 士人 鄭肅東

君不見李牧爲北邊良將, 日日擊牛士卒餉. 又不見充國金城方略圖, 羌虜襲伏不敢抗. 我侯眞有古人風, 八尺身材熊虎狀. 十年屛居維楊村, 堂有老親克孝養. 躬執五穀天時察, 手栽百果土宜相. 桐栢山下漁樵樂, 石家白首尙無恙. 平生蘊抱誰能窺, 一切功名若相忘. 滿山黃葉讀兵燈, 釰歌千古志氣尙. 聖朝心簡賢良吏, 彌鄒故邦來保障. 是時云有西洋徒, 猖往四海腥塵漲. 其俗商販以爲生, 其敎淫邪以爲誑. 其械五里十里砲, 其居三帆四帆舫. 逆水逆風行無礙, 周流天下惟利放. 中國之大猶不支, 天主堂設備巨匠. 惟我東方秉禮樂, 聲名文物檀箕埒. 列聖繼作日月明, 群賢輩出山斗仰. 冠昏贄幣明倫紀, 祭宴俎豆尙禮讓. 一種邪氣干其間, 芟夷掃滅雷斧牡. 猶有漏網不逞徒, 潛通海寇懷快懷快. 崑崙直西幾萬里, 四月南風輕五兩. 黑烟一出疾如飛, 鐵郛火輪駕層浪. 紫燕鎭北虎島西, 下碇意欲京都向. 仰鼻深目卷髮黃, 服殊其制船異樣. 近海居民盡睢盱, 盯搖搖正似風葉颺. 仁川太守好官員, 敎鍊土兵謹禦防. 占便列陣濟物浦, 據險設堡文鶴嶂. 士皆賈勇恥後期, 公不憚勞喜先倡. 三日遞番歸視家, 爲念我民農時妨. 騷夜巡視親勞軍, 均分飯糇與酒醬. 撫以寬和人自得, 勉以忠義人自强. 爾有父母敢言私, 公亦爲國定省曠. 一朔有旬不解帶, 躬冒獰風與毒瘴. 隨事戒籌固密勿, 對人氣節常倜儻. 兵前草木動精彩, 幕下風雲輸肺臟. 官民相愛如家人, 飢飽同之疾苦訪. 靑錢丹藥及表裏, 宣上恩德中心貺. 蓄銳持重故不發, 劒插龍鞘弓虎韔. 激揚士氣爭持孤, 慰悅軍心皆挾纊. 闢邪莫如正學明, 攻病先須元氣旺. 靡旌摩壘世稱勇, 不識兵家大力量. 臨事而懼好謀成, 夫子所以戒行行. 以若斗邑作長城, 洋醜惘然心膽喪. 海晏天晴寇自退, 不費一箭凱歌唱. 喜氣騰騰因解兵, 送汝庖羹與甕釀. 久勞而歸豈不樂, 麾下辭退還怊悵. 古來何限將帥才, 得人死力乃爲上. 遠縣之兵咸竪碑, 誠心感服土民況. 風采赳赳自動人, 閭巷婦孺皆相望. 作詩願爲朝廷賀, 如公可以安危仗. 何日歌舞入長安, 百尺金壇開玉帳.

소성 태수의 행적을 기림

배율(排律) 사인 송일선(宋一善)

서쪽으로 돌아보고 대궐에서 바다고을 변방을 근심하시어, 맑은 조정에서 특별히 우리 어진 후(侯)를 뽑아 보내셨네.

어진 정사는 한나라 대의 이천 석 관리와 같고, 백성들의 재물은 당나라 태종의 오십 년 치세라.

신묘한 계책은 한 쌍의 오리가 날아가듯 이루어지니, 백성들의 기대는 다섯 마리 말이 오기 전부터 모였네.

소주(蘇州)의 공손(公孫)씨의 비단처럼 완연히 만드니, 매각(梅閣)에서는 복(宓)씨의 거문고 소리 한가로이 울리네.[381]

은혜로 교화시켜 보리 이삭의 노래가 되고, 인자하게 다스리니 오히려 부들 채찍조차 쓰지 않는다네.

마을 문에는 납세를 재촉하는 문서가 드물고, 온 고을에서는 모두가 나무 심는 두렁을 안다네.

인천은 십 리 거리를 두고 호도(虎島)와 이웃하는데, 올해 뜻밖에도 서양의 배들이 나타났네.

요충지인 이 고을은 모름지기 엄히 경계해야 하니, 태수는 밤새도록 편히 잠들지 못하였네.

급하게 병사들을 불러 모아 화약을 나눠주고, 위풍당당하게 진영으로 나니 추련(秋蓮)[382]이 번쩍이네.

온 백성이 방비의 계책을 바라니, 붉은 글로 임금의 은혜로운 마음이 비와 이슬처럼 내리네.

소쿠리밥과 백주(白酒)를 다투어 받들고, 임금께서 특별히 의복과 돈까지 하사하셨네.

기회에 따라 변화에 응하며 여덟 보루를 돌아다니고, 이일대로(以逸待勞)하며[383] 만전

---

381) 매각(梅閣)에서는 … 울리네 : 공자(孔子)의 제자인 복자천(宓子賤), 즉 복부제(宓不齊)가 선보의 수령이 되어 다스릴 적에 "거문고를 타기만 할 뿐 당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데도 선보가 잘 다스려졌다〔彈鳴琴, 身不下堂而單父治〕."라는 고사가 전한다(『여씨춘추(呂氏春秋)』「찰현(察賢)」).

382) 추련(秋蓮) : 추련(秋蓮)은 연밥이 가을에 영글기 때문에 연꽃을 이렇게 이르는데, 여기서는 번쩍이는 검광(劍光)을 빗대는 말로 쓰였다. 이백(李白)의 「호무인행(胡無人行)」에 "유성 같은 백우전(白羽箭)이 허리춤에 꽂혀 있고, 연꽃 같은 검광(劍光)이 칼집에서 나오네."라고 하였다.

383) 이일대로(以逸待勞) : 『손자(孫子)』「군쟁(軍爭)」에 "가까운 곳에서 온 군대로 멀리서 행군해 오는 적을 기다리고, 편안한 군대로 수고로운 적을 기다리며, 배부른 군대로 굶주린 적을 기다리니, 이

을 기하였네.

계속해서 양식을 하포구(蝦浦口)로[384] 양식을 나르고, 이어서 문학산 정상의 보루를 수리하였네. 아전들은 전장에 달려 나가 대포를 시험하고, 군사들은 신음하며 스스로 약을 달이네.

'화(火)'자가 선명하니 공근(公瑾)을[385] 생각하고, 나무통을[386] 손질하매 병선(兵仙)[387]을 본받았네.

40일을 서로 떨어져 푸른 장막에서 엿보니, 하룻밤에 멀리 도망쳐 검은 연기를 걷어 들였네.

범과 용 같은 지략으로 가슴이 바다처럼 트였으니, 남녀 모두 기뻐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네.

지난번 멀리서 온 사졸들은 돌아갈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떠날 때가 되니 도리어 섭섭하고 아쉽기만 하네.

동방에 모여 성주(聖主)를 만나니, 과거로 연원을 거슬러 오르면 공자께서 계시는구나.

서까래 빛나도록 사당을 중수하니, 유생들이 많고 많아 강연에 모여드네.

우리나라가 작은 도적을 방비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어진 공께서 어째서 이리 늦게 인천에 이르셨는가.

병을 앓고 난 뒤 태평성대의 노래 지으려 하매, 산속 집에서 날이 개어 창 열어 보니 벼루 밭을[388] 마주하네.

집은 유양(維楊)의 묘적산(妙積山)과[389] 가까운데, 산의 구름이 맑으니 주인처럼 한가롭구나. 초야에서 때를 기다리매 용의 도략이 있지만, 어머니를 봉양하니 흰머리가 희끗희끗하네.

가슴 속에 다섯 수레[390] 담고 있으니 진실로 박학한데, 몸소 열 마지기의 땅을 경작하며 어려움을 두루 겪었네.

것이 병력을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384) 하포구(蝦浦口) :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숭릉천 하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385) 공근(公瑾) : 오(吳)나라 장수 주유(周瑜, 175~210)로, 공근은 그의 자이다. 그는 손권(孫權)을 보좌하면서 여러 차례 위(魏)나라의 군대를 물리쳐 명성을 떨쳤는데, 특히 208년에 남하(南下)하는 조조(曹操)의 군대에 투항하자는 여론을 반박하고 적벽(赤壁)에서 화공(火攻)을 펼쳐 큰 승리를 거둔 일이 유명하다.

386) 나무통 : 원문의 목앵(木罌)은 목앵부(木罌缶)의 준말로, 나무통들을 얽어매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서 도하(渡河)하게 한 뗏목과 같은 기구를 말한다.

387) 병선(兵仙) : 한(漢)나라 장수 한신(韓信, 기원전 230~기원전 196)로, 병선은 그의 호이다.

388) 벼루 밭 : 벼루 밭, 즉 연전(硯田)은 가난한 선비가 문필을 생업으로 삼아 가계를 꾸리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389) 유양(維楊)의 묘적산(妙積山) : 유양(維楊)과 묘적산(妙積山) 모두 경기도 양주에 있는 지명으로 능성구씨가 세거하는 곳을 의미한다.

390) 다섯 수레 : 다섯 수레에 쌓을 정도로 많은 서책을 말한다. 『장자(莊子)』 「천하(天下)」에 "혜시의 학문은 다방면이어서 그 서책이 다섯 수레에 쌓을 정도이다〔惠施多方, 其書五車〕."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수많은 서책이나 박식함을 뜻한다.

고루한 선비들 괴이하다 탄식하며 일찍이 붓을 던져버렸으니, 대대로 빛나는 훈신의 칭호는 장수의 절개에 의지하였도다.
잠시 도주(陶朱)의[391] 계책을 배우니 재물이 넉넉하고, 뽕나무와 과일나무 두루 심어 초가집을 둘렀네.
그런데 무슨 까닭에 서쪽 고을에서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이로부터 동쪽 고개에서 문 닫고 지내는고.
푸른 삿갓 쓰고 편안히 자적하며 채소밭 돌아보고, 가을 등불 아래 적적히 병서를 읽는다네.
영웅이란 시기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날 수 있으니, 문명은 때마침 1874년〔甲戌〕의 시작을 맞이하였네.

○ 邵城太守行 排律　士人 宋一善

西顧宸憂海郡邊, 淸朝特選我侯賢. 循良漢代二千石, 民物唐宗五十年. 神術雙鳧飛化處, 輿情五馬到來前. 蘇州宛製公孫錦, 梅閣閑鳴宓子絃. 惠化於焉歌麥穗, 慈仁猶不用蒲鞭. 村門罕見催租帖, 郡境皆知種樹阡. 十里相望隣虎島, 今年不意又洋船. 要衝是邑須嚴戒, 太守終宵不暇眠. 急急召兵分火藥, 桓桓莅陣附秋蓮. 蒼生望係關防策, 丹綍恩心雨露天. 競奉簞飧兼白酒, 特頒衣袴與靑錢. 隨機應變巡八壘, 以逸待勞思萬全. 陸續運粮蝦浦口, 因仍修堡鶴山顚. 吏堪赴戰砲嘗試, 軍有吟疴藥自煎. 火字分明想公瑾, 木罌料理効兵仙. 四旬相距窺靑帳, 一夜遠逃收黑烟. 虎略龍韜胸海濶, 男欣女悅口碑傳. 頃來遠卒懷歸者, 及到臨行却悵然. 際會東方遭聖主, 淵源千古溯文宣. 攘題奕奕重修廟, 章甫于于會講筵. 我國無難防小寇, 明公何晩到仁川. 病餘擬撰河淸頌, 山屋晴開對硯田. 宅近維楊妙積山, 山雲淡似主人閑. 待時草野龍韜在, 祝壽萱堂白髮斑. 胸貯五車眞博學, 躬耕十畝備嘗艱. 迂儒休怪曾投筆, 赫世勳名將節攀. 暫學陶朱計有餘, 遍栽桑果繞茅廬. 緣何西邑投簪返, 從此東城閉戶居. 靑笠婆娑巡菜圃, 秋燈牢落讀兵書. 英雄出處隨時可, 適値文明上甲初.

391) 도주(陶朱) : 경영하여 치산(治産)하는 것을 말한다. 도주는 춘추시대 월(越)나라 범려(范蠡)의 별칭으로, 월왕(越王) 구천(句踐)을 도와 오왕(吳王) 부차(夫差)를 죽여서 회계(會稽)의 치욕을 씻었다. 월나라를 떠나 제(齊)나라로 가서 성명을 치이자피(鴟夷子皮)로 바꾸고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었다. 제왕(齊王)이 그를 승상으로 삼자, 범려는 승상인(丞相印)을 돌려주고 재물을 다 흩어 친지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어진 일을 하고서, 도(陶)로 가서 다시 재산을 모아 억만장자가 되니 사람들은 그를 '도주공'으로 불렀다고 한다(『사기(史記)』「월왕구천세가(越王句踐世家)」).

인천가. 사인 이우항(李遇恒)

미추(彌鄒)의 옛 왕성, 나라를 열고서 신라와 고려를 거쳤도다. (○ 인천부의 남산은 곧 문학산이다. 옛 미추는 왕이 도읍으로 삼았던 곳으로 신라와 고려전에 있었다.) 좁고 낮은 땅은 말할 것 있으랴, 누린 세월 이미 얼마 되지 않네. (○ 추왕이 지역의 형세가 비좁은 것을 스스로 한탄하였기 때문에 언급하였다.) 옛 궁궐을 사람들이 가리키며, 허물어진 성곽의 돌들은 우뚝 솟아 있네. (○ 산에 옛 성의 유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도 완연하여 언급하였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변천함은 마치 척사(擲梭)와 도[392] 같네. ○ 하늘이 도와 우리 동방을 열며 열조(烈祖)의 아름다움을 송축하네.[393] ○ 한양을 도읍으로 삼으니, 지리와 인화를 아우르네. ○ 팔도의 도리가 고르게 되니, 한데 모여 산과 강으로 돌아가는구나. 1864년〔甲戌〕에 성인이 달려 나가니, 임금님 뵙고서 찬가를 부르네. 임금님께서는 진실로 중흥주(中興主)이시어, 왕도에 치우침이 없네. 위대하도다. 요순의 이름이여. 높도다. 단군과 기자의 뛰어남이여. 정학으로 원기를 붙들고, 이단은 병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듯이 하네. ('나(儺)'는 시골 사람이 귀신을 쫓는 것이다.) 뜰에는 어진 대부들 가득하고, 가죽옷에 다섯 곳을 꿰맸으니 아름답도다. (시경에 "흰 실로 다섯 곳을 꿰맸다.[素絲五紽.]" 하였으니 어진 대부를 기리는 것이다.) 날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을 돕고 문법의 번거롭고 까다로움을 제거하네. ○ 악부(樂府)에 태평가 드리우니,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네. ○ 풀이 무성했던 숲에는 논둑이 열리고 뽕나무와 삼은 비탈 언덕에 자라나네. ○ 삼천리의 강토여, 바다에는 물결조차 일지 않는구나. ○ 그러나 서양에는 사나운 무리가 있어, 왕의 교화가 그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네. ○ 지극히 악한 부류이니 유묘(有苗)와 같은데,[394] 그 거리는 차사(車沙)를 넘어서네. (유묘와 차사는 모두 나라 이름이다.) ○ 방자하게 다님에 천하에 퍼지니, 창궐하는 세력을 누를 길 없네. ○ 중국이 크다고 하나, 받아들이는 일은 어찌할 수가 없도다. (서양 오랑캐가 중국을 침범하였으니 천주당을 설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른바 천주교라고 하니, 법을 업신여기고 윤리도 규범도 없네. ○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속이며, 우매한 자들이 뒤쫓고 바르지 못한 것을 부추기네. ○ 우리 서쪽 변방을 침입하여 소요시키고, 배를 그들의 보금자리로 삼았네. (1866년〔丙寅〕이후로 해마다 강도와 인천, 부평을 오고 가니 그 해를 입었다.) 그들의

392) 척사(擲梭) : 척사는 베를 짤 때 북을 이쪽저쪽으로 던지는 것을 이른 말로 빠름을 뜻한다.
393) 아름다움을 송축하네 : 원문의 의나(猗那)는 『시경(詩經)』 「나(那)」에 "아, 많구나. 우리의 작은북 큰북을 설치하네. 화락하게 북을 두드려서 우리 열조를 즐겁게 하네."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394) 지극히 …… 유묘(有苗)와 같은데 : 순임금 재위시절 유묘(有苗)가 그의 명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임금을 시켜 그를 정벌하였으나 묘민(苗民)이 30일 간 복종하지 않았던 고사를 이른다(『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謀)」).

속도는 불 수레가 나는 듯하고, 바다를 타고 오는 모습은 큰 악어와도 같도다. ◇ 대포 소리가 우레와 같이 하늘에 울리는데도, 흉악하고 고집 센 자들은 엎드리려 하지 않네. ◇ 연해 고을 편안히 살지 못하고, 등짐 지고서 다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네. ◇ 화친과 전쟁의 이익과 해로움 사이에서, 조정의 계책은 모두 머뭇거릴 뿐이구나.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여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라는 12자를 새긴 석각(石刻)이 종로에 있다.[395] '암아(媕婀)'는 우물쭈물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우리 임금님 크게 분노하사, 결단을 내리시고 태아(太阿)를 휘두르셨네. (『시경』에 이르길 '노하셨다.[斯怒.]' 하였다.[396] 태아(太阿)는 칼의 이름이다.) 서울에서 급히 병사들을 징발하니, 성문에 천아(天鵝)[397] 소리가 울리네. (천아(天鵝)의 형상은 뭇 사람들을 경계시켜 도적에 대비하려는 까닭이다.) 재주 있는 관원은 호랑이를 제압할 줄 알고, 날랜 병졸들은 나귀로 다투어 뛰어드네. (이릉(李陵)이[398] 말하기를, "기재와 검객들이 힘을 쓰면 호랑이를 잡고 활을 쏘면 명중한다." 하였는데 당나귀와 노새로 뛰어올라 잡고 찌르니 도리어 망하였다.) 진무영(鎭撫營)은 엄히 경계하고, 영문에서는 밤마다 징을 울리네. 작은 영종성은, 마치 제비집처럼 매우 위태로워 보이네. 지혜와 용기가 모두 베풀어지지 않으니, 서로 돌아보며 그저 입만 벌리고 있을 뿐이로다. ◇ 하늘은 유양의 땅을 만드셨고, 신령은 보호하며 꾸짖으셨네. ◇ 높은 산은 빼어난 아름다움을 다투고, 깊은 물은 또한 소용돌이를 이루네. ◇ 땅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모이니 인물이 걸출하고, 대대로 빛나는 명문가를 이루었네. (후(侯)께서 높은 벼슬을 한 세족으로서 양주 땅에 내려왔으므로 말하였다.) 몸을 단속하기를 충과 효 바탕으로 하고, 가업이 전해져 시례(詩禮)를[399] 줄줄 읊네. ◇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이미 어기지 않았고, 어진 선비는 백발이 성성하네. (『서경』에 이르기를, "씩씩하여 용맹한 사내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어기지 않았으나, 백발이 성성한 선비는 등골의 힘이 이미 다하였네."라고 하였다.[400]) 가슴 속 포부 경륜(經綸)하여 크거니와, 커다란 뱃속은 또한 쇠하였네. 하늘

---

395) '서양 오랑캐가 …… 종로에 있다. : 1871년 4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뒤 대원군이 쇄국의 결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설치한 척화비를 의미한다.

396) 『시경』에 … 하셨다. : 『시경』「황의(皇矣)」에, "밀나라 사람들이 불공하여 감히 대방에 항거하여 완나라를 침공하러 공 땅에 이르거늘 왕께서 혁연히 노하셨다."라고 하였다.

397) 천아(天鵝) : 나팔을 긴소리로 한 번 부는 것을 말한다. 위급한 일이 있거나 병졸들을 집결시킬 때 사용한다.

398) 이릉(李陵) : 한무제(漢武帝) 때의 장수로서 흉노(匈奴)와 싸워 패전하자 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흉노 땅에 머물었던 인물을 의미한다.

399) 시례(詩禮) : 시례지훈(詩禮之訓),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의미한다.

400) 『서경』에 … 하였다. : 『서경(書經)』「진서(秦誓)」에 "백발이 허연 어진 선비로 여력이 이미 쇠한 자는 내 부디 소유하고, 씩씩한 용부(勇夫)로 활쏘기와 말타기를 어기지 않는 자는 내 부디 등용하지 않고자 하노라. 그러니 재잘재잘 말을 잘하여 군자로 하여금 말을 바꾸게 하는 자를 내 어느 겨를에 많이 소유하겠는가.〔番番良士 旅力既愆 我尙有之 仡仡勇夫 射御不違 我尙不欲 惟截截善諞言 俾君子易辭 我皇多有之〕" 하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의 장수가 신체를 수고롭게 하니, 더욱 깎고 다듬는 까닭인 바이네. (하늘의 장수가 내려와 커다란 임무를 맡았는데 이에 사람이 그 신체를 수고롭게 하였으니 『시경』에 이르기를, "깎고 다듬는다."라는 것이다.[401]) ◇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돌아와서 책을 읽으며, 나무하며 노래를 흥겹게 부르네. 초군의 노래 다시 섞이고 섞이네. (동소남(董邵南)은[402] 아침에 나가 밭을 갈고, 밤에는 돌아와 옛사람의 책을 읽었다.) ◇ 장성하여 관리가 되었으니, 서읍(西邑)에서[403] 묵은 병을 제거하였네. (『가어』에 "공자가 장성함에 이르러 승전(乘田)의 관리가 되었다."고 하였다.[404] 후가 처음에 양덕현감이 되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다.) 기생을 내보내어 양잠을 부지런히 하고, 개미가 흙 나르는 일 익히듯 가르치고 경계하였네.[405] (기생을 놓아 양잠과 길쌈 일을 하게 하고 선비들의 학업을 권면하여 서읍(西邑)이 힘을 입었다.) 한 사발 물과 부추 뿌리 생각하고 두 그루 소나무 사이에서 다만 매일 읊조리네. (물처럼 청렴하고 부추와 같이 강한 자를 억눌렀으며,[406] 최사(崔斯)가 매일 두 소나무 사이에서 읊는 것과 같았다.[407]) 큰돈 한 개씩 가려 받으니, 백성들이 길을 막고 돌아가는 수레를 잡았네. 얻고 잃음을 필경 어찌 논하겠는가, 세상길에는 희마(戱魔)가 많다네. ◇ 돌아와 보니 밭과 동산은 황폐해지고, 홰나무와 버드나무의 그림자만 흔들리네. ◇ 당위에 올라 어머니께 절하니,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나 머리털이 학처럼 희어지셨네. ◇ 문을 들어서니 어린아이가 맞이하고, 기쁜 얼굴로 뜰의 나뭇가지를 바라보네.[408] (이는 「귀거래사(歸去來辭)」

---

401) 『시경』에 … 것이다. : 『시경(詩經)』 「위풍기오(衛風淇奧)」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시는 위 무공(衛武公)을 기리는 것인데 무공은 95세의 나이에도 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일깨우는 좋은 말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저 기수 물굽이를 바라다보니, 푸른 대나무가 의의하도다. 아름답게 문채 나는 우리 님이여, 깎고 다듬고 또 쪼고 간 듯하도다〔瞻彼淇奧, 綠竹猗猗. 有匪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라고 하였다.

402) 동소남(董邵南) : 당(唐)나라 안풍(安豊) 사람으로 일찍이 진사(進士)가 되었으나 뜻을 얻지 못하자 은둔하여 살면서 주경 야독(晝耕夜讀)하며 어머니를 효성(孝誠)으로 모셨다고 한다.

403) 서읍(西邑) : 평양을 지칭한다. 평양은 당대 기자가 자리를 잡고 교화를 펼쳤던 공간으로서 양잠과 학업이 융성하던 곳을 의미한다. 때문에 당시 구연상이 인천에 와 교화를 펼쳤던 사실을 빗대기 위해 서읍(西邑)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404) 승전(乘田) : 승전(乘田)은 목축을 주관하는 관리인데, 공자가 가난해서 이런 천한 벼슬에 몸을 담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맹자(孟子)』 「만장하(萬章下)」에 나온다.

405) 개미가 … 경계하였네. :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개미의 새끼는 수시로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익힌다〔蛾子時術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개미 새끼가 수시로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익혀서 마침내 큰 둑을 만들듯이, 학문을 갈고 닦는 것을 의미한다.

406) 물처럼 … 억눌렀으며 : 후한 방삼(龐參)이 안제(安帝) 때에 한양 태수(漢陽太守)로 부임하여 은사(隱士)인 임당(任棠)의 집을 방문하자, 임당이 말을 하지 않고 다만 부추〔薤〕 한 뿌리와 물〔水〕 한 사발을 문 앞에 놓고서 아이를 안고 방문 앞에 엎드려 있었다. 방삼이 임담의 은미한 뜻을 생각하고 말하기를, "물은 나를 청렴하게 하려는 것이고, 부추는 나에게 힘 있는 자를 억누르게 하려는 것이고, 방문 앞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은 나에게 문을 열어 약한 백성을 구휼하라는 것이다〔水者欲吾淸也, 薤者欲吾擊强宗也, 抱兒當戶, 欲吾開門恤孤也〕."라고 하였다. 방삼이 깨달은 바를 실천하여 한양이 크게 다스려졌다. (『후한서(後漢書)』 「방참열전(龐參列傳)」.)

407) 최사(崔斯)가 … 읊는 것과 같았다. : 당(唐)나라 때 문인 한유(韓愈)가 쓴 「남전현승청벽기(藍田縣丞廳壁記)」에 "두 그루 소나무를 마주 심어 날마다 그 사이에서 시를 읊는다.〔對樹二松, 日哦其間.〕"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408) 원문과의 관계를 알 수 없어 '초(樵)'자를 '치(稚)'자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에 "어린 자식 문 앞에서 맞이하네."와 "뜰의 나뭇가지 바라보며 흐뭇해하네"라고 한 것이다.) 홀연히 관복을 풀고, 청렴한 마음으로 푸른 삿갓을 짜네. ◇ 정원에는 소후(邵侯)의 오이 심고, 마당에서는 빈풍(豳風)[409]의 벼를 거둬들이네. (소평(邵平)은 본디 동문에 오이를 심었다고 하고,[410] 「빈풍」에는 10월에 온갖 곡식을 거둬들인다고 하였다.[411]) ◇ 산 열매는 상수리 밤과 섞여 있고,[412] 아름다운 식물은 사라나무〔杪欏〕 심었네. ◇ 뽕나무 일천 그루가 있어, 해마다 비단을 취하니 광주리가 가득하네. ◇ 산림에도 경제(經濟)가 있으니, 곧은 현인의 마음이 영원토록 넉넉하네. (『시경』에 이르기를 "고반(考槃)이 시냇가에 있으니, 현인의 마음이 넉넉하다."라 하였다.) ◇ 단 음식으로 부모의 뜻과 몸 받들어 봉양하고, 술과 고기는 필라(饆饠)와[413] 겸하였네. ◇ 여러 형제 조카 성장하였으니, 조정에서 돌아오매 옥가(玉珂)가[414] 울리네. ◇ 가난한 자를 모두 구휼하고, 동복(憧僕)들을 정성껏 돌보네. ◇ 자족하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는구나. ◇ 타고난바 반드시 쓰임이 있으니, 성상의 간택은 마음을 기울이심에 달려있네. ◇ 인천(仁川) 백 리의 땅에, 다섯 마리 말이 달려오는구나. ◇ 적을 맞서야 하는 요충지이니, 고을의 형세가 어지럽게 흔들리네. ◇ 뭍으로는 병자년의 오랑캐를[415] 견디어냈고, 바다로는 임진년의 왜놈들을[416] 다스렸네. ◇ 이미 국가의 중임을 받들었으니, 어찌 앉아서 느긋할 수 있으랴. ◇ 백성들의 폐막은 세세한 것도 남기지 않고, 무비(武備)를 우선 거행함에 모 난 곳 없게 하네. ◇ 계병(稧兵)을 설치하여 화포 쏘는 기술을 연습시키고, 촌 아낙네에게는 활 쏘는 방법을 가르치네. (본 고을의 아홉 면에 각기 대포를 설치하고 포계병 100명에게 옷을 입혀 무기를 사용하는 연습시키고 변란에 대비하였다. 여자용 궁노로 부녀자도 가르쳤기 때문에 언급하였다.) ○ 금성(金城)에 달려가 도모하니 지방 장관에 부임하여 장가(牂柯)를 넘었다지. (조충국(趙充國)은 성에 달려가 방략을 올리고 지방 장관에 부임하여 장가를 통과하였다.[417]) 군량이 이미 준비되었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있네.[418]

---

409) 빈풍(豳風) : 『시경』「빈풍 칠월」에 "정월에 농기구를 손질하고 2월에 밭갈이를 나가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때에 농번기에 맞게 벼를 수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410) 정원에는 소후(邵侯)의 오이 심고 : 소평(邵平)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소평은 동릉후(東陵侯)였는데, 진나라가 망하자 포의(布衣)가 되어 장안성(長安城) 동쪽에서 오이를 가꾸며 생활했다(『사기(史記)』 권54 「소평열전(邵平列傳)」).

411) 「빈풍」에는 … 하였다. : 『시경』「빈풍칠월(豳風 七月)」 가운데에 "구월에는 채마밭에다 타작마당을 닦고, 시월에는 온갖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말이 나온다.

412) 산 열매는 상수리 밤과 섞여 있고 : 두보(杜甫)의 「북정(北征)」에 "산열매 자잘한 것이 많은데, 도처에 생겨서 상수리 밤과 섞였네. 혹은 붉기가 단사와 같고, 혹은 검기가 옻칠과 같아라〔山果多瑣細 羅生雜橡栗 或紅如丹砂 或黑如點漆〕." 하였다.

413) 필라(饆饠) : 고기나 야채, 대추 등을 소로 넣어 작은 떡을 만들고, 이 작은 떡들을 편편한 밀가루 반죽에 다시 싸서 크게 떡을 만든 음식. 필라(畢羅)라고 쓰기도 한다.

414) 옥가(玉珂) : 옥으로 장식한 말의 굴레를 말한다.

415) 병자년의 오랑캐 : 1636년(인조 14) 발생한 병자호란을 의미한다.

416) 임진년의 왜놈들 : 1592년(선조 25) 발생한 임진왜란을 의미한다.

417) 조충국(趙充國)은 … 통과하였다. : 조충국은 한 무제(漢武帝) 때부터 흉노(匈奴)를 무찔러 명성을

4월 바다에 요사스러운 기운 넘치더니, 적이 나타나 밤중에 나팔을 부네. (4월 초6일에 와서 정박하였으니, 본 고을의 한강 나루 앞바다였다.) 아침저녁으로 바닷가를 경계하고, 격문은 눈발처럼 휘날리네. (당나라 시에 "격문이 빗발쳐 아침저녁으로 들렸다."라고 하였다.) 고을을 두르고 있는 일곱 개의 포구에서, 여덟 개 진의 형세는 긴 뱀과 같네. (본 고을에는 바다를 둘러 일곱 개의 포구가 있으니, 첫째는 제물(濟物)이요, 둘째는 고잔(高棧)이요, 셋째는 남촌(南村)이요, 넷째는 도장(道長)이요, 다섯째는 신현(新峴)이요, 여섯째는 한진(漢津)이요, 일곱째는 주안(朱堧)이다. 지세가 평탄하여 방어하기가 극히 어려운데, 한성과 가까워 실로 몸의 팔꿈치와 겨드랑이·목구멍과 같이 중요하다. 또 강화의 하류에 있어 화성과는 순치의 형세에 있으니 온 나라의 관방이 된다. 북쪽에는 성현(星峴)이 있어 서울과 통한다. 1000여 개를 채우기 전에 왔는데, 수가 얼마나 되는 지 알 수 없는 훈련되지 않는 군사에 막혀 홍건적이 배를 타고 들어왔다.한 곳에 진을 합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적의 재주는 오직 대포에 의지하는 것인즉, 요충지에 진을 흩뜨리고 앞뒤로 와서 공격하는 것이 이내 만전(萬全)의 계책이기 때문에 고잔과 제물에는 정예군을 매복시키고, 무사들을 친히 이끌어 장천현의 삼로로 통하는 갈림길에 진을 쳐 좌우에서 책응하였다. 부를 나가면 이내 군기(軍器)와 곡식이 있는 중요한 바의 땅이므로 백 명의 무사로 하여금 진을 치고 방어하도록 하였으며 성현은 서울로 가는 큰길과 접하므로 포계군(砲稧軍) 백 명으로 하여금 매복하여 경계하도록 하였다. 각처의 요해처에서 높은 곳에서 적의 형편을 살펴보는 등의 절도가 마치 바둑이나 별처럼 벌려 있고 꼬리와 머리가 상응하는 형세는 마치 길다란 뱀과 같으니, 이 적과 싸워서 지키는 방도는 이것을 버리고는 다른 좋은 대책이 없다고 말하였다.) 보를 설치하고서 먼저 험지를 차지하고, (문학산에 돌로 진을 치고 화포를 묻어 두어 적을 격파할 계책으로 삼았다.) 흙을 파며 다시 언덕을 꾸몄네. (공이 군중(軍中)에 명령을 내리길 각 포구의 요충지 및 길의 양쪽 좌우에 흙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일만 개의 갑옷 넣어 두도록 하였다. 적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대포와 총을 모두 피하였다.) 비록 굶주려도 굶주림을 말하지 않고, (공은 사졸들을 잘 먹이고, 93일에 한 차례 번을 바꾸어 주었으므로 그 어버이를 뵙게 하였다. 쌀과 찬거리를 주기도 하고 혹 돈을 주기도 하였는데 음식을 미루어 돈으로 주었으니 그들 부모에게 공궤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번번이 소 4~5마리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었다. 사졸들이 식사를 한 뒤에 비로소 젓가락을 대어 편안히 음식을 먹었으니, 군사들을 먼저하고 자신을 뒤로 두어 모든 군사들

떨쳤으며, 선제(宣帝) 때 북방 민족을 격퇴하고 영평후(營平侯)에 봉해졌다. 논책(論策)에 능하여 그가 올린 글 모두가 경세(經世)의 글로 일컬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둔전책(屯田策)은 선제(宣帝) 신작(神爵) 원년(기원전 61)에 건의한 것이다.

418) 원문과 '禾+累'자의 관계를 알 수 없어 '積'자로 바로잡아 해석하였다.

이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였다.) 군사들을 우선하여 솥을 채워놓았네. 비록 고되더라도 고됨을 말하지 않고, 천막에 푸른 넝쿨 보태주었네. (공은 매일 밤 투구를 벗지도 않고 다섯 개 진을 돌며 날마다 군심을 어루만졌으니 그 노고를 단단히 타이르고 경계하며 이를 묻고 충의로써 권장하였다. 비가 오면 장막(將幕)에 띠 덮은 것을 말아 잠복해 있는 군사들한테 덮어주었으며 간사한 거짓을 살피고 주림과 배부름을 물어보았다. 사졸들은 공의 갑옷이 비에 젖어도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경군과 산포수(山砲手)는, 장독 습기 속에서 쉽게 병에 걸리네. 몸소 약이 되는 음식을 권하고, 손발 지성스레 어루만지네. (사졸들이 병에 걸리면 공이 약을 달여서 직접 가서 복용케 하였고, 그 배를 문지르고 그 손발을 어루만져 주었다.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몸소 취한을[419] 살피고 친히 죽 먹는 것을 살펴서 회복하도록 하였다. 민가의 온돌이 있는 곳을 가려 정해 처하도록 하고 날마다 세 번씩 문병하니 모든 군사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성상의 은혜로 사졸들 불쌍히 여기시니, 상을 내리심에 소와 말이 싣고 오네. (선전관(宣傳官)과 별군직(別軍職)을 위문하시고, 세 차례 베푸시어 호궤전, 약환, 찬수 및 의복을 아울러 하사하셨다. 계속해서 이르러 오니 공이 받들고 앞에 두어 은덕을 선포하고 일일이 사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임금님의 훈유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며 또 격려하시니, 빗줄기가 억수같이 마음에 스며드네. (공이 천은(天恩)을 널리 알렸으니 날마다 음식을 미루어 우리에게 하사하고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혔다. 한 고조(漢高祖)는 다만 한신(韓信)이 유일하였으나[420] 지금은 쌀과 찬거리를 하사함에 은혜가 부모와 처자식에게까지 미치고 표리의 은전은 전쟁터의 사졸들에게까지 널리 내려졌다. 우리들의 은혜가 회음(淮陰)보다[421] 뛰어났으니 아직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눈물 흘리고 사졸들이 모두 한번 싸우기를 원하였다.) ○ 나 역시 당(堂)에 어버이 있으니, 생각이 그대들의 늙은 어버이에 미치노라. (서양 선박이 처음 도착했을 때 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충과 효는 반드시 둘 다 중히 여겨야 하느니라.'라고 하며 글을 올려 어버이와 작별하고 사졸들에게 굳은 뜻을 보였다. 사졸들의 부모와 처자식들이 와서 보는 자가 있어서 위로하고 음식을 하사하여 근심이 없음을 보이니 군심(軍心)이 크게 기뻐하였다.) ○ 밭을 갈고 또 봉양할 사람이 없으니, 그대들에게 형제는 있는지 묻노라. (그때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적의 기

419) 취한(取汗) : 병을 다스리기 위해 몸에 땀을 내는 일을 의미한다.

420) 한 고조(漢高祖)는 다만 한신(韓信)이 유일하였으나 : 『사기(史記)』「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한신(韓信)이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과의 인연을 추억하면서 "한왕(漢王)은 나에게 상장군의 인(印)을 수여했고, 수만의 군대를 주었으며, 옷을 벗어서 입혀 주고, 먹을 것을 덜어서 먹여 주었으며, 말을 하면 들어주고, 계획을 세우면 써 주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漢王授我上將軍印, 予我數萬眾, 解衣衣我, 推食食我, 言聽計用, 故吾得以至於此〕."라고 하였다.

421) 회음(淮陰) : 회음(淮陰)은 한(漢)나라 장수인 한신(韓信)을 의미한다. 그는 조(趙)나라와 싸울 때 강물을 뒤에 두고 배수진을 쳐서 이겼는데, 여기서는 구연상이 미국군을 상대로 분전하였음을 지칭하는 듯하다.

세가 무성하여 경계를 엄히 하는 절도를 세우고 적을 방어함에 단속하였다. 그러나 농정(農政)이 한번 망하면 그 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이 사졸들을 불러다가 형제가 없는 자들에게는 모두 휴가를 주어 돌아가 농사짓도록 하였다.) ○ 적을 손안에서 가지고 놀았으니, 정확한 계산으로 먼저 그들을 엿보았네. (적이 내양하여 닻을 내리고 정박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공이 언덕에 올라가 바다와 뭍의 형편을 바라보고서는 산을 내려오며 기쁜 기색을 보이며 장좌(將佐)에게[422] 말하길, "마땅히 적들을 격파할 계책이 있을 것이니 위로는 국가의 큰 복이 있고 아래로는 제군들에게 의지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 저들은 물에서 유리함을 알고 있었기에, 화공〔八人〕을[423] 비밀리에 오류 없이 준비하였네. (장차 적을 격파하고자 방략을 세우고서 운현궁에 글을 올렸다.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고 배를 많이 모아 화포, 화약, 송향목, 금죽, 장군분통, 마색, 철사, 자초, 초황 따위를 모두 준비하고 잠수군과 총병, 일사, 노사, 사수를 모두 정비하였다. 적들의 배가 섬에 가까이 오자, 모두 포를 묻고 물 위와 물 아래 그리고 좌우에서 협공하였다. 불을 붙인 배와 불화살로 일제히 적을 공격하니, 안팎으로 불길이 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길에 휩싸였으니, 화포를 일제히 쏘아 순식간에 적들을 불태웠다. 적들이 당황하여 어두운 밤에 진퇴양난에 빠져 공격을 당하므로 반드시 장차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철사줄이 해안가를 가로막고 우리들은 기다란 뱀처럼 머리와 끝이 함께 응하니 저들은 마치 울타리에 걸린 것처럼 나아가고 물러남에 불길에 휩싸였다. 또한 월미도에 미리 화포를 묻어놓고 적의 침입로 가까운 곳에서 만 개의 포를 모두 발사하니 적들의 배가 불에 타버려 살아남은 것이 없었다. 연해의 요충지에는 정예병을 매복시켜 적들이 뭍에 내릴 때를 대비하였으니, 깊게 모의하고 숨긴 계책은 비록 가까이 신임하는 장좌라 하더라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 병기(兵機 : 전쟁의 기략(機略))에 진실로 부지런히 하니, 적들의 형세는 이미 어그러졌도다. (군사(軍事)가 모두 신중하고 치밀하였다. 그리하여 교리(校吏)에게 널리 묻고 사졸들에게 널리 물으니 군심이 크게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 일을 아뢰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공은 과연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판결에 막힘이 없고 부응하는 것이 매우 빠르니, 한 번 사람들의 계책을 듣고는 그 좋은 바를 뽑아 썼으니 사람들이 모두 충성을 바치기를 원하였다.) ○ 병기에 진실로 믿을 바가 있으며, 용감하고 건실함은 낙타와도 같도다. ○ 서쪽 오랑캐가 놀라 간담이 찢어지니, 마치 새가 덫에 걸려 숨어 도망가듯 하네. ○ 바다를 두른 먼지가 걷히고 비가 개니, 물에 비친 하늘은 푸른 유리 같구나. 사특한 부류는 끝내 활개를 치지 못하고, 바른 기운은 결코 베어지지 않았도다. (사학(邪學)의 괴수(魁首)인 이승훈(李承勳)의 손자 이연구(李蓮龜)와 이균학

422) 장좌(將佐) : 장군과 보좌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맡은 자를 말한다.
423) 화공〔八人〕 : 원문의 '팔인(八人)'은 '화(火)' 자의 파자(破字)로써 불을 가리킨다.

(李均鶴) 형제가 몰래 적의 배와 통하였는데 공이 순찰할 적에 잡았다.[424] 점포 머리에서 크게 열무(閱武)하고서 선참후계(先斬後啓)하니[425] 적의 간악한 짓이 비로소 끊어졌다.) ○ 태평함은 이 누구의 공이던가, 갑옷을 던지고 너울너울 춤을 추네. ○ 백성들이 다투어 고기와 술 호궤하니, 사졸들의 얼굴엔 반쯤 취기가 올랐네. ○ 바닷가가 비로소 안정되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고기잡이와 소금 만드는 일을 즐기네. 많은 사람이 후(侯)의 덕을 칭송하여, 언덕에 비석 세워 다듬고자 하네. ○ 불행히도 어장군(魚將軍)은, 말하고자 해도 원망하고 한탄하는 소리만 먼저 나는구나. ○ 고금(古今)에 한 쌍의 넋, 아름다움 짝하여 수양〔睢陽〕을 지나네.[426] ○ 채찍을 쥐고서도 따르지 못하였으니, 기운이 꺾이고 낙담하게 하도다. ○ 부자(夫子)의 묘가 중수되어, 제수 물품을 진설(陳設)하며 다시 전헌(奠獻)하네.[427] 성세(聖世)에 인재를 양성하여 교화하니, 무성한 가운데 다북쑥이로다.[428] 부허(浮虛)하여[429] 장로(莊老)를 배척하고, 적멸(寂滅)하여 석가(釋迦)를 씻어내네. 예악이 눈부시게 갖추어져 있으매, 문물이여, 아 감탄스럽도다. 태수는 친히 적을 물리칠 적에, 하나의 화살도 쓰지 않으셨네. 이문(里門)은[430] 밤에도 닫히지 않고, 부녀자들은 웃으며 담소 나누네. 내 생애 우연히 소성(邵城)에 들렀으니 백차(白醝) 가득 기울이세.

○ 仁川歌 士人 李遇恒

彌鄒古王城, 開國邁麗羅. (○ 仁川府南山, 則文鶴山也. 古彌鄒王所都, 在新羅高麗之前.) 湫隘何足道, 歷年已無多. (○ 鄒王自恨地勢之湫隘, 故及之.) 古宮人指點, 殘郭石嵯峨. (○ 山有古城遺址, 至今宛然故及.) 伊來幾千年, 沿革如擲梭. ○ 天祐啓我東, 烈祖頌猗那. ○ 鼎定于漢陽, 地利兼人和. ○ 八域均道理, 一統歸山河. ○ 甲子聖人趁, 朝覲與謳歌. ○ 君誠中興主, 王道無偏頗. ○ 大哉勛華名, 遠矣檀箕過. ○ 正學扶元氣, 異端驅病儺. (儺鄉人以之逐鬼.) 滿庭賢大夫, 羔裘美五紽.(詩云, 素絲五紽, 美賢大夫.)

---

424) 사학(邪學)의 괴수(魁首) …… 잡았다. :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이가환·정약종 등과 함께 체포되어 대역죄로 사사된 인물로서 한국 교회 최초로 세례를 받은 천주교인이다. 그의 손자인 이연구와 이균학 형제가 당시 미국의 함선에 들어가 길을 안내하려고 한 것을 구완식이 적발하여 효수하였다(『고종실록』 권8, 고종 8년 5월 17일 병오).

425) 선참후계(先斬後啓) : 법을 어긴 사람을 우선 처형하고 난 뒤에 임금에게 아뢰는 일이다.

426) 고금(古今)에 … 수양〔睢陽〕을 지나네. :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등이 강회(江淮)의 보장(保障)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양성(睢陽城)에서 서로 협력하여 몇 개월 동안이나 안녹산의 군대를 막다가 성이 함락되자 장렬하게 순절한 고사가 전하는데 이를 가리키는 듯하다(『구당서(舊唐書)』「충의열전하 장순(忠義列傳下 張巡)」).

427) 전헌(奠獻) : 제수(祭需)를 올려 제사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428) 무성한 가운데 다북쑥〔泚莪〕이구나. : 『시경』「소아 청청자아(小雅 菁菁者莪)」에 "무성하고 무성한 다북쑥이여, 저 언덕 가운데 있도다. 군자를 만나고 나니, 나에게 백붕을 준 듯하여라〔菁菁者莪, 在彼中陵, 旣見君子, 錫我百朋〕."하였는데, 모서(毛序)에서 "「청청자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즐거워한 시이다." 하였다.

429) 부허(浮虛) : 깊지 않고 조심성이 없는 가벼운 말을 의미한다.

430) 이문(里門) : 동네 어귀에 세운 문(門)을 말한다.

日贊經邦謨，文法除煩苛．○ 樂府昇平曲，民不知干戈．○ 草萊開阡陌，桑麻長阪陁．○ 鰈域三千里，海晏不揚波．○ 西洋有狂徒，王化未及他．○ 至頑類有苗，其遠過車沙．(有苗車沙，皆國名.)○ 肆行遍天下，猖獗勢莫捼．○ 以若中國大，受之無奈何．(洋夷侵犯中國，至有設天主堂之擧.)所謂天主教，蔑法無倫科．○ 惑世而誣民，愚迷競喎唆．○ 侵擾我西垂，舟楫以爲窩．(自丙寅以後，頻年來往于江都及仁川富平，受其害.)其疾火輪飛，駕海大如黿．◇ 大砲響震天，兇頑幾僂儸．◇ 沿海不靖居，荷擔更煽訛．◇ 利害和與戰，廟謨盡媣婘．(石刻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十二字于鐘街．媣婘，不决之辭.)我王赫斯怒，乾斷揮太阿．(詩曰，斯怒．太阿，釰名.)京師徵兵急，城闕動天鵝.(天鵝像，所以警衆備盜.)材官能扼虎，銳卒競躍騾．(李陵曰，奇才釰客，力扼虎，射命中，超躍驢騾，捕刺反亡.)戒嚴鎭撫營，轅門夜嗚鑼．彈丸永宗城，殆哉如燕窠．智勇摠莫施，相顧但口呿．◇ 天作維楊地，神靈護而訶．◇ 山高競秀美，水深亦盤渦．◇ 地靈鐘人傑，累世赫簪韠．(侯以簪纓世族，以降于楊州地，故言.)檢身忠孝質，傳家詩禮詑．◇ 射御旣不違，良士之番番.(書曰，仡仡勇夫，射御不違，番番良士，膂力旣愆.)蘊抱經綸大，大腹亦番番．天將勞筋骨，所以益切磋．(天將降大任，於是人勞其筋骨，詩曰，如切如磋.)◇ 晝耕夜歸讀，樵歌復囉囉．(董邵南朝出耕，夜歸讀古人書.)◇ 及長試爲吏，西邑去宿疴．(家語，孔子及長，試爲乘田之吏，侯初爲陽德監故及.)放妓勤養蠶，訓蒙誡述蛾．(放妓蠶績，勸士學業，西邑賴之.)盂水與薤本，二松但日哦．(淸如水，擊强薤，如於崔斯之日哦二松間)選受一大錢，遮路攀歸軻．得喪竟何論，世路多戲魔．◇ 歸視田園荒，槐柳影婆娑．◇ 上堂拜阿母，無恙鶴髮皤．◇ 入門樵子候，怡顔眄庭柯．(是歸去來辭，樵子候門，眄庭柯而怡顔.)飄然解朱紱，淡泊織靑簑．◇ 園種邵侯瓜，場納豳風禾．(邵本種瓜靑門，豳十月納禾稼.)◇ 山果雜橡栗，嘉卉植杪櫂．◇ 有桑一千株，歲取絹盈籮．◇ 山林有經濟，永矢硯人邁．(詩曰，考盤在澗，硯人之邁.)◇ 甘旨養志體，酒肉兼餔饘．◇ 成立群弟姪，朝回嗚玉珂．◇ 貧乏儘周恤，憧僕勤撫摩．◇ 不改囂囂樂，歲月易蹉跎．◇ 天生必有用，聖簡在傾俄．◇ 仁川百里地，五馬來透迤．◇ 受敵此要衝，邑勢吁挪搓．◇ 陸奈丙子胡，海易壬辰倭．◇ 旣受國重任，如何坐縷覶．◇ 民瘼無遺細，武備先擧釶．◇ 砲技設稧兵，弩機教村娥．(本邑九面，各設砲袍砲稧兵百名，演習武技，以備不虞．以女弩教以婦女，故及.)○ 馳圖至金城，建節過牀柯．(趙充國馳至城閣，上方略，持節通牀柯.)軍儲旣豫備，倉穀有峙(禾+累)【積】．四月漲海氛，有寇夜吹螺．(四月初六日來泊，于本邑漢津前洋.)日夕海門警，羽檄雪片拖．(唐詩，羽檄交馳日夕聞.)環邑七浦口，八陣勢長蛇．(本邑環海有七浦，一曰濟物，二曰高棧，三曰南村，四曰道長，五曰新峴，六曰漢津，七曰朱堡．地勢平易，防守極難，而以京城抵近，實有肘掖咽喉之重．且在沁都下流，與華城有脣齒之勢，爲一國之關防也．北有星峴，一路通京師．以不滿千釋來，白徒禦不知數，乘船紅賊，而若合陣一處，非計之良．且賊之長技，惟恃大砲，則散陣要衝，前後來

攻，乃萬全之策，故高棧濟物，埋伏精銳，親率武士，結陣於長川峴三路通衢，左右策應．出府乃軍器粮餉所重地，故使百名武士，結陣防守，星峴接京大路，故使砲稧軍百名，埋伏把守．各處要害，瞭望等節，如碁布星列，尾首相應，勢如長蛇，與此賊戰守之道，舍是而無他良策云爾.）設堡先據險，（石陣於文鶴山，埋火爲破賊計.）堀土更緣坡．（公下令軍中，各浦要衝及沿道左右，掘土爲坑，伏兵其中，藏置萬甲．賊不知，賊之大砲銃凡皆避.）雖飢不言飢，（公善餉士卒，九十三日一次換番，故覲其親，賜米饌，或給錢推食賜之，使之供其父母．頻頻推牛四五隻饗之．士卒食後始下箸，居居飮食，先軍後己，一軍無不悅服矣.）先爲軍埋鍋．雖勞不言勞，千幕補靑蘿．（公日夜不解冑，日巡五陣，撫軍心，飭詢其勞苦，勸以忠義．雨則將幕盖茅捲，覆伏兵，察奸僞，問飢飽．士卒公之衣甲沾雨，少無難色.）京軍及山砲，瘴濕易疾瘥．躬親勸藥餌，手足勤摩挲．（士卒有病，公煮藥躬往服之，撫其腹，摩其手足．兵有染疾，躬檢取汗，親察粥飮，使之調治．擇定民家溫突以處之，日三問病，一軍感泣.）聖恩哀戍卒，賞賜牛馬馱．（勞問宣傳官別軍職，三次來宣，兼賜犒饋錢，藥丸饌需及衣服，陸續來到，公擎受置前宣布恩德，一一派給士卒.）宣諭且激勸，浹洽雨滂沱．（公宣諭天恩，日推食賜我，解衣衣我．漢高只有一韓信，而今則米饌之賜，恩及父母妻孥，表裏之典，廣賜戰陣士卒．我等恩踰於淮陰，尙未殲賊，遂泣下，士卒皆願一戰.）○ 我亦堂有親，念及爾翁婆．（洋船初到，公歎曰，忠孝不可不兩全，上書辭親，以示士卒鐵石之志，有士卒父母妻子來見者，招撫賜食，示其無憂，軍心大悅矣.）○ 無人耕且養，問爾有弟哥．（時當農節，賊勢其盛，戒嚴之節，禦賊之團束，然農政一癈，其害甚大，故公招致士卒之無兄弟者，皆賜暇歸農.）○ 玩賊於股掌，定算有先睨．（賊入內洋，留碇已久．公登岸望，見水陸形便，下山有喜色，語將佐曰，當有破賊之策矣，上有國家洪福，下賴諸君之力耳.）○ 知彼利於水，八人秘無譌．（將欲破賊，設方略，上書雲宮．伐木成筏，多聚舟楫，火砲·火藥·松香木·錦竹·將軍奮桶·麻索·鐵絲·紫草·硝黃之屬，莫不準備．潛水軍及銃兵·釰士·弩士·射手，無不畢擧．賊船近島，皆埋砲，水上水下及左右挾攻，火船·火箭，一齊觸賊，表裏火應，首尾受熖，火砲齊發，一時焚賊．賊蒼黃夜黑，進退受兵，必將退下歸路．已鐵索沿海遮絶，我如長蛇，頭末幷應，彼如觸藩，進退火着．且於月尾島，預藏火砲，賊路咫尺，萬砲幷發，賊船焚碎無類．沿海要衝，埋伏精兵，以備下陸，深謀祕策，雖親信將佐，不知云耳.）○ 兵機固密勿，賊勢己跌蹉．（軍事莫不愼密，然博詢校吏，廣問士卒，軍心大悅，莫不盡心奏事，公果斷如流，符應甚速，一聞衆謀，擇其所長，人皆願忠矣.）○ 兵機固所恃，勇健如橐駝．○ 西醜驚破膽，如鳥潛逃囮．○ 海曲塵雨霽，水天碧璨玻．○ 邪類竟莫逞，正氣從不亹．（邪學魁首承勳之孫李蓮龜·均鶴兄弟，陰通賊船，公巡警時捉得，大閱武於肆頭，先斬後啓，賊奸始絕.）○ 太平是誰功，投甲舞傞傞．○ 民競牛酒犒，士卒顔半酡．○ 瀕海始奠居，安業樂漁鼛．萬口頌侯德，竪碑崖欲磨．○ 不幸魚將軍，欲言先荷荷．○ 古今一雙魂，美匹睢陽過．○ 未能執鞭隨，使人氣欲矬．○

重修夫子廟，陳俎復奠獻．聖世作人化，菁菁中沚莪．浮虛斥莊老，寂滅汰釋迦．禮樂燦然備，文物猗歟歎．太守新退賊，不費一箭箸．里門夜不閉，婦女笑語瑳．吾生適遊邵，放欹傾白醝．

인천 태수의 비명과 서문

사인 조제면(趙濟冕)

삼가 간절히 보답하는 계책을 다하니 고을 수령의[431] 공을 칭송하는 비를 우뚝 세워 만세토록 잊지 않게 하였다. 진실로 범의 발에 여곽(藜藿)을 의지하였으니[432] 귀두(龜頭)의[433] 풀과 이끼처럼 영원히 전하오리다. 옛날에 이 절도(李節度)가[434] 계서(洎西)를 평정하였으니, 비문을 지어 일을 기록하였고, 양 도독(羊都督)이 한수 상류를 진압하였으니 돌에 새겨 공적을 남겼다. 백성들의 바람으로 무기와 갑옷을 깔고 지내면서 변방을 지키고 왕의 원수에 대적하였으니 이정(彝鼎)에[435] 새기고 태상(太常)[436]에 기록하였다. 대체로 그 일대의 땅을 편안히 하였고 깊은 인택에 감동할 만하니 만년토록 돌에 새기어 성덕의 훌륭함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 소성(邵城)은 마침 바닷길의 요충지에 당하여 여러 차례 서양 오랑캐의 침해를 받았왔다. 마주 보이는 자연도(紫燕島)는 이 땅은 반드시 다투어야 할 땅으로서 한 번 적호(赤虎)를[437] 지난 뒤로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강화의 재앙과[438] 덕산(德山)의 변고는[439] 앞선 뚜렷한 선례가 되었는데도, 일본의 항복과 청나라 사람들의 화의 이후, 뭇 사람들을 그릇된 말이 서로 동요하도록 하였다. 견양(犬羊)과 같은 짐승처럼 무도(無道)하니, 누구인들 뼛속까지 아파하며 마음을 썩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마는 벌과 전갈의 독을 알기 어려우니 손을 쓰고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이 관애(關隘)

---

431) 고을 수령 : 원문의 '백 리(百里)'는 옛날 한 현(縣)의 관할지가 100리였기 때문에 군현(郡縣)을 가리키고, '분우(分憂)'는 근심을 나눈다는 뜻으로 지방의 수령을 말한다.

432) 여곽(藜藿)은 범의 발에 의지하니 : 『한서(漢書)』「개관요전(蓋寬饒傳)」에 "신이 듣건대, 산에 맹수가 있으면 명아주와 콩잎을 따지 못하고 나라에 충신이 있으면 간사한 자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山有猛獸, 藜藿爲之不采, 國有忠臣, 奸邪爲之不起〕."라고 하였는데, 이는 맹호가 명아주와 콩잎을 잘 지키는 것에 비유하여 강직한 선비가 나라를 잘 지킴을 의미한다.

433) 귀두(龜頭) :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이다.

434) 이 절도(李節度) : 조선 전기의 무신인 이계동(李季仝 : 1450~1506)을 지칭하는 듯하다. 그는 1482년(성종 13)에 함경도 절도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여진을 성심으로 대하여 이계동이 재임하였을 때 함경도 지역이 안정되었다고 한다.

435) 이정(彝鼎) : 이정(彝鼎)은 종묘(宗廟)에서 술을 따라 두는 제기(祭器)로서, 옛날에 공로가 있는 신하의 이름을 이 제기에 새겨서 오래도록 전하게 하였다.

436) 태상(太常) : 시호와 훈공을 정하는 곳을 의미한다.

437) 적호(赤虎) : 1866년 병인박해를 명분으로 프랑스가 조선을 침공하였던 병인양요(丙寅洋擾)를 의미한다.

438) 강화의 재앙 : 1866년 병인박해를 명분으로 프랑스가 조선을 침공하였던 병인양요(丙寅洋擾)를 의미한다.

439) 덕산(德山)의 변고 : 1868년 4월 독일인 오페르트가 충청도 덕산에 위치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아버지인 남연군(南延君)의 무덤을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을 지칭한다.

의[440] 중요한 땅은 정사를 함에 모름지기 문무에 전력을 다해야 하였다. 태수(太守) 구공(具公)은 풍채가 위풍당당하고 집안이 대대로 벼슬을 하였으니 빛나고 빛나도다. 그러나 하늘이 그에게 수고로움을 맡기셨으니, 기골이 우뚝하고도 산중에서 밭을 갈며 수고하였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방패가 되었고, 등불 아래에서 병서를 읽으며 공부하였다. 백 가지 행실의 근원은 날마다 효도하는 데 있었으니 물고기를 잡고 땔나무를 하며 맛 좋은 음식으로 부모를 공양하였고, 일곱 가지 계책을 써서 집안의 재산을 쌓아 산업(産業)을 이루었다. 무관의 반열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일찌감치 이름을 알렸으나 막부의 등급이 한 차례 차이 나는 것은 실로 잘못이 아니었다. 그러나 비초(裨貂)의 반열에 발탁되어 이 문학산의 구석진 곳을 지키게 되었다. 부임한 후로는 명분을 바르게 하고 자기를 낮추어 선비를 대우하고 고을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묻고 곡식을 내어 백성들을 진휼하였다. 이듬해 여름, 이른바 오랑캐의 배가 또 제물포를 엿보고 5척의 배를 늘여놓았으니 그 뜻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자취가 수상하였고 세 개의 돛을 치켜드니 형상이 흉악하고 색이 음침하고 어두웠다. 하륙(下陸)하려는 듯하니, 마을이 소란스러워졌고, 내륙을 침략하겠다는 소문이 퍼지니 서울에서도 이에 죄다 두려워하였다.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하여 그날에 출진하고 팔문(八門)의 기법과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방법을 갖추어 조정에 청하여 허락을 얻었다. 6개 고을의 양가집과 서울과 지방에서 불러 모아 천여 명의 병사들이 달려왔으며, 아침과 저녁으로 지급할 군량을 조획하여 30석 남짓을 얻었다. 약과 옷을 하사하시어 은덕을 베풀어 아래로 내려주었고, 그들의 배고픔을 살피고 병을 돌보며 함께 고락(苦樂)을 나누고 경분(經分)을 갖추셨다. 군에 있는 장정들의 농사철을 잊을 수 없어 마치 자제가 부모를 보호하는 듯하니 뭇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었다. 범로(范老)의 명성을 귀하게 여겨 가슴 속에 수만의 병사를 품었고[441] 주랑(周郎)의 계책은[442] 비밀스러워 여덟 명만이 이를 알고 있었다. 마침내 저 적들로 하여금 아무 계책도 펼 수 없게 하였고 싸우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하였다. 40일 동안 대치하며 우리나라에 계책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천만리나 멀리 달아나더니, 이로부터 작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군사들을 돌려보내니 멀리 떠나는 자는 기뻐하고 남아 있는 자도 안심하며, 천지가 태평해지고 산에는 도적이 없고 마을에는 경계가 사라졌도다. 이에 이미 이단의 길을 끊고 우리 도의 근원을 더욱 밝히게 되었도다. 동우와 단청을 새롭게 하고 부자의 묘를 중수하여 예악과 문물이 더하고 많은 선비들이 학문에 힘쓰도록 면려하였다.

---

440) 관애(關隘) : 요해처(要害處)를 의미한다.

441) 범노(范老)의 … 병사를 품었고 : 『명신전(名臣傳)』에 송(宋)나라 범중엄(范仲淹)이 토벌에 나섰을 때, 원호(元昊)의 반란군들이 "뱃속에 수만의 갑병이 들어 있다."고 하면서 무서워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442) 주랑(周郎)의 계책 : 주랑(周郎)은 오(吳)나라 주유(周郎)를 의미한다. 당시 조조와 주유가 적벽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주유의 계략으로 크게 승리하였다.

입으로 전하는 말에 이르길, “삼천리를 두른 축복이 성군의 덕으로 찾아왔으니 억만 년의 무궁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도다.” 하였으니, 이에 장차 고을민이 돌에 새긴 글은 옛날 당나라 사람들이 금속에 새긴 뜻을 빌려온 것이다. 이는 누구의 힘인가, 고을 안에서 장성을 쌓아 백성들이 걱정을 잊게 하였으니 경계에 비석을 남겼도다. 남양(南陽)의 은혜로운 교화는 소신신(召信臣)과 두시(杜詩)를 다시 보는 듯하고,[443] 북방의 위엄 있는 명성은 모두 일정을 수행함에 이광(李廣)을 알지 못하여도 퍼져갔도다.[444] 이는 곧 백성을 사랑하고 선정(善政)을 행한 것이며, 모두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것이다. 부월(斧鉞)의 위령(威靈)을 잡으심이 왜 그리도 늦으셨나, 죽백(竹帛)의 공훈이 드리우니 끝없이 전해질 것이다. 낭산(狼山)의 근명(勤銘: 비문)을 우러러보며 천추만대(千秋萬代)에 전해져 기린각(麒麟閣)에 남길 그림을 기다리니 마땅히 1등 공신으로 그려지리라. 근명에 이르나니, “서울과 2사(舍)의 거리에 큰 바다 서쪽으로 비꼈으니 이 고을 소성이라 불리네. 백성들은 온화하고 정사는 맑으며, 부역은 균등하고 송사는 공평하니, 태수의 정사는 밝고도 밝도다. 고래와도 같은 대포 소리가 매우 크니, 5척 배에 서양 병사들이구나. 흉흉한 소문에 벌벌 떨며 놀라는데 적의 날카로운 칼끝은 얽힘이 없으니 백성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네. 이에 둔영에 나아가 허리띠 느슨히 매고 가벼운 옷 입었으니, 당대의 영웅이라 할만하다. 북과 첩정(疊鉦) 울리매 군량이 넉넉하고 병사들은 정예로우니 우리의 기운이 넘쳐흐르네. 번을 나누어 번갈아 서도록 하고 때에 맞추어 농사를 권장하고 농민을 구휼하였도다. 물건을 하사하시니 두 손으로 받들고 노고를 물으며 함께 행하였네. 은혜를 베풀고 정을 통하매, 의리가 격발되어 마음이 기울어지네. 병사들이 전쟁에 즐거이 임하니 부모 형제를 지키는 듯하네. 추악한 무리가 비록 강하기는 하지만 감히 상대가 되지 못하네. 혼란한 싹이 저절로 끊어지니 바닷가의 하늘이 맑게 개었도다. 문 앞에서 웃음소리로 맞이하며, 온 고을이 환희의 소리로 가득하구나. 육경(六經)의 폐백과 오전(五典)의 음악을 갖추니 부자의 가르침이 크게 이루어졌네. 옛 책은 더욱 새롭게 하여 학업의 과정으로 만들었네. 달이 지고 날이 가며 선비들은 모두 명성을 쌓아 나갔도다.[445] 집에 있을 때는 효성을 지극히 하고 일에 옮겨서는 충정을 다하네. 오직 나라의 기둥이 되어 한 조각돌이 우뚝하도다. 공명이 길이 남아 만세토록 영광이 전해지리라.” 나중에 공의 개인 자

443) 남양(南陽)의 … 다시 보는 듯하고 : 소신신은 서한(西漢) 때, 두시는 동한(東漢) 때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당시 백성들은 이들을 칭송하여 “전에는 소부(召父)가 있었는데 뒤에는 두모(杜母)가 있었다.” 하였다(『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444) 북방의 위엄 있는 명성은 … 퍼져갔도다 : 『사기(史記)』「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에 따르면 이광은 한(漢) 나라 때 명장으로, 자신의 사촌 동생인 이채(李蔡)와 함께 흉노(匈奴)를 토벌할 때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이채는 이광보다 명성이 뒤떨어졌는데도 승상까지 올랐고, 이광의 부하였던 군관과 병졸도 제후에 봉해진 사람이 있었으나 이광은 유독 봉읍을 얻지 못하였다.

445) 명성을 쌓아 나갔도다 : 원문의 천앵(遷鶯)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훌쩍 날아오르는 꾀꼬리라는 뜻으로, 『시경』「벌목(伐木)」에 꾀꼬리가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 위로 옮겨 간다.”라는 말이 나온다.

택에 도착하셨다. 공께서 22세가 되던 때에 승중(承重)하자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여 슬피 곡하며, 여러 번 물을 마시는 것을 끊었다. 비록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매일 여막〔廬宇〕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면서, 상복을 벗지 않으셨다. 매번 눈물을 흘리시며, 집안 사람들에게 이르시길, "이 목숨의 죄는 천지에 퍼져있다. 10세 때는 부모님을 잃는 슬픔[風樹之痛]을[446] 맞이하였으나 미천한 몸으로 돌아가신 조부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날이 있게 되었다. 할아버님과 함께 음식을 맛보고, 진귀한 것을 함께 즐기던 것을 어찌 다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다시금 실성한 듯 통곡하시니 사람들이 감동하여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 삼년상을 마치고, 군장리(群場里)의[447] 정사(精舍)로 퇴거하여 꽃과 나무를 많이 심고, 오이밭을 넓게 가꾸었으며, 가문의 일원 및 오랜 지인과 더불어 바둑을 두고 투호를 하였다. 1811년〔辛未〕에 서쪽 오랑캐가 창궐하자 충의를 위하여 격렬히 떨치고 일어나 오랜 지인과 가문 일원들에게 통문을 보내 지혜롭고 용맹한 30여 인을 널리 구하여 얻은 뒤에 스스로 종군하게 하였다. 패강을 지나 적을 격파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이내 향당으로 돌아와 가정에 신실하게 하였고, 차분하게 마치 기오(寄傲)한[448] 듯 하였다. 공께서 금장리에 머문 지[449] 30여 년이 지났다. 공의 계부(季父)이신[450] 학단공(鶴湍公)께서는 성품이 맑고 품행이 우아하여서 진관(陳瓘)의 구휼을 행하시고, 사밀(謝密)의[451] 인재를 기약하셨으니, 숙부와 조카가 서로 의지하여 가문을 빛내었으나 불행히도 일찍이 돌아가셨다. 숙부께서 돌아가시자 공께서는 부모의 상을 당한 것과 같이 여겨 상장에 예를 다하였다. 당질 남매의 나이는 매우 어렸는데, 공께서는 평상시에 자주 오셔서 돌보시고 효우(孝友)와 학문을 도탑게 할 것을 권하셨으니 이들에 대한 공의 사랑이 지극하였다. 만약 당질 남매가 병에 걸렸다면 뜨거운 차를 직접 끓이시고, 낮에는 그 앞에 앉아계시고 밤에는 침상에서 품어주셨다. 만약 당질 남매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납하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치셨다. 당질 남매가 성장하자 무예를 권하셨는데, 1805년〔乙丑〕 정시에 합격하여[452] 원문(園門)에 이르니 마을 사람들 중에 감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453] 공께서 이미 백발이 되셨다. 조모의 기력이 안정되자 공은 밝은 얼굴로 아침저

446) 풍수지통(風樹之痛) : 부모가 죽어 봉양하지 못하여 슬퍼한다는 뜻이다. 『한시외전』에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也"라고 하였는데, 후세에 이를 인용해 부모를 오래 봉양하지 못한 슬픔에 비유한 데서 연유한다.
447) 군장리(群場里) : 양주의 군장리를 지칭한다.
448) 기오(寄傲) : 세속을 떠나 초연한 자유인의 경지를 마음껏 펼친다는 말이다.
449) 금서(琴書) : 거문고와 서책을 즐기며 보내는 흥취를 말한다. 여기서는 군장리에 이거한 삶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450) 계부(季父) : 부친의 막내 동생
451) 사밀(謝密) : 류송(劉宋) 대의 문신 사홍미(謝弘微)를 지칭한다.
452) 반화계대(攀花桂帶) : 꽃을 잡고 계대를 매었다는 뜻으로써, 과거에 합격하여 복장을 갖추었다는 말이다.
453) 당질 남매 성장하자 …… 감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 이 일화에서 지칭하는 인물은 구석붕(具錫朋, 1778~?)으로 여겨진다. 구석붕은 1805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녁 문안 인사를 드렸고, 식사를 하실 때에는 모시고 앉아 떨어지지 않았으며, 대소사를 아뢰지 않은 적이 없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말씀 드렸다. 만약 조모께서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약을 달이고 음식을 마련하여 직접 드렸다. 1833년〔순조 33년, 癸巳〕 3월에 이르러서는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공께서는 이미 융로(隆老)가[454] 되었음에도 땅을 치고, 머리를 부딪히며 울부짖으셨다.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슬피 우시는 것을 마치 어릴 때와 같게 하셨으니 슬픔으로 인하여 공의 몸이 지나치게 상하였다. 또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형의 상을 주관하셨다. 타고난 자질이 후덕함에 다른 사람이 공의 행실을 군자의 행동이라고 칭하였다. 공께서는 자신 이후의 일을 형에게 믿고 의지하였으나 마침내 형님마저 돌아가시는 데에 이르니 탄식하며 말씀하시길 "우리 집안은 충직하고 온순하며 화목해서 세상에 잔인한 일이 없었는데, 하늘이 너무 가혹하구나"라고 하며 비통함에 소리 치시고, 식음을 전폐하셨다. 종당이 모두 안타까워하며 말하길, "공자(孔子)께서 안연(顔淵)이 요절한 것과 유사한 일을[455] 여러 번 보셨음에도 어찌 이와 같이 지나치게 몸을 상하게 하셨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공께서는 조모의 장례를 미처 끝내기도 전에 능히 마음껏 슬퍼하지 못했으며, 다음 해에 또 당숙의 상을 당했다. 큰 누이의 장례에 미쳐서는 형수의 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매부의 장례를 만났으니, 참화가 연달아 일어나고, 재난이 끊이지 않고 나오니 공께서는 항상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셨다. 1840년〔헌종 6년, 庚子〕 6월에 이르러서 더위로 인한 체증(滯症)이 시작되고, 병환이 점차 위급해져 갔다. 하루는 나와 여러 사람들에게 이르시길, "내가 돌아보건대 우리는 의지할 만한 가까운 친척도 없고, 집안에 여력이 있는 후진(后振)들도 없다. 너희들은 모두 어리니 집안의 제사를 장차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시며, 실성한 듯 통곡하시니 우리들은 감히 우러러 바라볼 수 없었다. 같은 해 12월 초3일 결국 공께서 세상을 떠나시니 아! 애통하다. 선공께서는 오직 절약하고, 절제하시며 유업을 열심히 하셨다. 비단옷을 입지 않으셨고, 식사를 하실 때 많은 반찬을 드시지 않았다. 직접 척박한 땅을 경작하시면서 신구를 갖추고, 손수 뽕나무를 심으신 것은 사시(四時)를 대비한 것이다. 삭망일을 만나서는 제실의 먼지를 털고 분향하며 예를 갖추었다. 매 기신일을 맞이하여서는 상을 당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더욱 슬퍼하였으며, 제기를 삶을 때에는 직접 자세히 살폈다. 친족을 대할 때는 사랑하는 도리를 지극히 다하였고, 손님과 벗을 맞이할 때는 서로 공경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순효하고 인자함이 지극하였다. 나이가 들었을 때 참화를 거듭 당하고, 집안이 빈약해졌으니 천도(天道)의 무상함

454) 융로(隆老) : 7~80세 이상이 된 노인을 뜻한다.

455) 공자(孔子)께서 …… 유사한 일 : 공자의 수제자인 안연은 32세의 나이에 요절하였다. 이에 공자는 안연의 학문과 덕행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에 그가 갑자기 요절함을 애석하게 여겼다. 여기서는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아! 슬프다. 너는 일찍이 고아가 되어 자질이 부족하고, 선군의 행적을 진실로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고 들은 바를 간략하게 적어 너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 仁川太守碑銘幷引 士人 趙濟冕

伏以懇懇盡圖報之策, 百里分憂, 屹屹立頌功之碑, 萬世不忘. 實賴藜藿虎足, 永傳芬苔龜頭. 昔李節度之平洎西, 撰碑紀事, 羊都督之鎭漢上, 勒石銘功. 爲民之望, 衹金革而守邊圉, 敵王所愾, 銘彝鼎而紀太常. 盖其一境土安, 深仁澤有足感, 所以萬年石壽, 盛德善不可諼. 惟我邵城, 適當海路之要衝, 數被洋賊之侵暴. 相望紫鷰之島, 地是必爭, 一自赤虎之年, 人皆爲懼. 江都之禍·德山之變, 前鑑孔昭, 日本之降, 淸人之和, 群訛胥動. 犬羊之性無道, 孰不痛骨而腐心, 蜂蠆之毒難知, 恐莫措手而容足. 故玆關隘之重地, 政須文武之全力. 太守具公, 桓桓身材, 赫赫世胄. 天將任勞, 節骨耕田山中, 國有難爲保障, 讀兵燈下, 百行源日孝, 漁樵而供旨甘, 七策用之, 家積著而致產業. 靺韋之班屢歷, 早知名焉, 幕府之級一差, 實非罪也. 迺者擢於裨貂之列, 鎭此文鶴之隅. 下車而正名分, 折節待士, 巡部而問疾苦, 發粟賑民. 粵明年夏, 所謂羊奠之船, 又窺濟物之浦. 擺列五舶, 情叵測而跡殊常, 揚起三帆, 狀凶怪而色幽暗. 意若下陸, 閭井以而騷擾, 聲言內侵, 京師爲之該懼. 函設備禦之具, 卽其日而出陳, 八門奇法, 兼該撫綏之方, 請於朝而得許. 六郡良家, 京鄕之招募赴來千餘兵都合, 朝夕之餉運, 措劃三十石有奇. 頒之藥賜之衣, 宣恩德而下布, 其飢視其疾, 同甘苦而備經分. 丁壯之在軍, 農時不可諼, 若子弟之衛父, 衆心得其歡. 范老之威名珍重, 胸藏萬甲, 周郎之謀畫秘密, 掌書八人. 遂令彼賊, 無計可施, 不戰自退. 四十日相距, 深知我國之有謀, 千萬里遠逃, 自此些兒之無影. 師旅解送, 遠者悅延者懷, 乾坤昇平, 山無盜里無警. 於是旣絕異端之路, 益明吾道之源. 棟宇丹靑, 更新夫子之廟, 禮樂文物, 加勉多士之功. 有口傳言, 三千里環封之慶, 聖躬歸福, 億萬歲無疆之休, 玆將州民刻石之文, 唐寓古人被金之意. 伊誰之力, 作長城於郡中, 俾也可忘, 留片石於境上. 南陽惠化, 復見召信臣·杜詩, 北邊威聲, 咸日程不識李廣. 是乃愛民善政, 莫非爲國盡忠. 仗斧鉞之威靈, 來何暮也, 垂竹帛之勳烈, 傳無窮焉. 仰瞻狼山之勤銘, 千秋萬代, 留待麟閣之圖, 畫一等元功. 謹銘曰, 二舍距京, 大海西橫, 郡曰邵城. 人和政淸, 役均訟平, 太守明明. 如鯤如鯨, 大砲匌訇, 五艘洋兵. 訛言震驚, 鋒銳莫攖, 民無聊生. 迺出屯營, 帶緩裘輕, 當世之英. 鳴鼓疊鉦, 粮足兵精, 我氣盈盈. 分番互更, 及時勸耕, 存恤土氓. 賜物雙擎, 勞問兼行. 宣恩通情, 義激心傾. 樂赴戰爭, 如衛父兄. 醜類雖勍, 莫敢抗衡. 自絕亂萌, 海晏天晴. 笑語門迎, 一境歡聲. 藝篚典笙, 夫子大成. 益新舊黌, 制爲課程. 月邁日征, 士皆遷鬻. 在家孝誠, 移事忠貞. 惟國之楨, 片石崢嶸. 留傳功名, 萬世之榮. 後洞私第, 公時年二十有二, 以承重哀慕哭絶, 屢癈水飮, 雖隆寒盛暑, 每侍廬宇

不解衰麻，每泣謂家人曰，頑喘罪貫天地，十歲遭風樹之痛，微身賴王考愛恤之恩，保有今日，而王公割甘，陳公花石，更何得也．輒失聲痛哭，人莫不感泣，三喪畢退居于群場里精舍，多植花樹，廣治瓜圃，與宗黨知舊，圍碁投壺．當辛未西賊猖獗，忠奮激發，發文通諭於知舊宗黨，募得智勇三十餘人，自願從征，過浿江聞賊破，仍還處鄉黨，恂恂如家庭，申申如寄傲，琴書已來，三十有年矣．公季父鶴湍公，淸高雅操行，陳瓘之撫恤，期謝密之佳器，叔侄相依，一門光曜矣．不幸早卒，公如遭親喪，喪葬備禮，堂侄男妹，年在襁褓，公率來撫養勸孝友篤文學，恩愛切至，若有疾病，茶湯親煮，晝則坐之以前，夜則懷之以寢，若有過失，輒撻之不容，及成長勸投筆，登乙丑庭試攀花桂帶，歸到園門，時人莫不感歎焉，公旣白首矣．祖母氣力方安寧，公和顔進前，朝夕省問，食飮之際，侍坐不離，大小事無不奏稟，自外歸侍所見聞，一一趁告，若有患候，則煮藥設饌，身親爲之，至癸巳三月，母夫人奄棄榮養，公已隆老，而攀號叩地，哭泣不輟居喪，如少壯時，哀毁過傷．且未葬禮，又見兄主喪，天賦厚德，人稱有君子之行，公賴以身后爲依矣．卒當是境，吁天長歎曰，吾家忠厚敦睦，世無殘忍，天胡酷也．悲痛語塞，全廢蔬食，宗黨皆悶然曰，仲尼見戚顔淵早夭，是數焉，何過傷如此．公以祖母葬禮未行，不能任情，其年翌又當堂叔喪，及長妹喪，兄嫂喪，次妹夫喪，慘禍連疊，惡慨繼出，公常垂淚吁嘆．至庚子六月，以暑滯爲始，病患漸漸危極，一日謂不肖等曰，顧無近親之可托，家無餘力之后振，爾等皆幼，家祀將何之，公失聲痛哭，不肖等不敢仰視，至十二月初三日下世，嗚呼痛矣．先公惟以儉約節制，勤守儒業，衣無綿帛，食無兼饌，躬耕薄田，以爲新舊之備，手植果桑，預儲四時之資，輒遭朔望，靜掃室堂，焚香備禮，每遇忌祀，惟舊盆愴，滌器烹飪，身親詳察，待宗族盡愛厚之誼，接賓友備相敬之誠，純孝寬仁至矣，而老來屢見慘禍，家又貧弱，天道無常，若是也．噫噫痛矣，以汝早孤餘質，先君行迹，實未詳知，故略敍聞見書以示汝．

소성(邵城) 사민(士民)등 조정에서
오랑캐를 멀리 물리친 것을
축하하는 전문(箋文) 사인(士人) 신(申)

성조(聖祖)가 처음으로 삼한(三韓)을 아울러 합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각(紫閣)이 천년 동안 반석(盤石)과 태산(泰山)의 형세를 형성하여 세상이 걱정이 없고 평안한 시대를 이루었으며, 여러 임금의 시대마다 침략하는 걱정을 보지 못하였고 백성들은 3개 변방에 전쟁의 기미(幾微)를 몰라 하늘이 비운(否運)을 벗어나게 하였다. 공손히 생각건대 왜인이 남쪽을 침범하였으나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중흥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야맹(野蝱)의 침략에도 걱정하지 않았으며, 한고조(漢高祖)의 초창기에 홍적(洪賊)이 서쪽에서 침략해 오고, 초효(楚梟)가[456] 또 배반하였으나, 이것이 어찌 마음 상하겠는가. 엎드려 보건대 백두산은 수많은 군사와 말을 몰고오는 형상이고, 그림과 같은 바다의 도서(島嶼)는 소 한 마리가 옆으로 누운 모양이었다. 토지와 백성은 왼쪽 바다에 있어 아직도 단군(檀君)과 기자(箕子)의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 남아있고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은 중화(中華)에 비교되어 그 법식은 주공(周公)와 공자(孔子)의 옛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강도(江都)는 인후(咽喉)의 출납(出納)과 같아 대양만리(大洋萬里)의 수송하는 것과 조운(漕運)을 내포(內包)하고 있고, 더욱이 인천은 복부(腹部)와 심장같은 요충지로서 낙수(洛水)에서[457] 60리 거리인 경기도이다. 조야(朝野)에는 오랫동안 연화(煙火)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변경에는 일찍이 수비하는 엄중한 명령이 있지 않았다. 근래에는 연해(沿海)에서 부월(斧鉞)을[458] 든 무신(武臣)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참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침략을 경계한 것이며, 지난번 심도(沁都)에는 적에게 유리한 일이 있어 편안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까 두려웠다. 조정에는 무신(武臣)들이 많아 모두 성상(聖上)이 바야흐로 능력있는 사람에게 관직 맡기기를 바라던 날이었으며, 훌륭한 인재를 기용하더라도 태수(太守)가 계략을 베풀고 업신여겨 욕되게 함을 방어하는 것을 본 시기였다. 과연 견양(犬羊)은 어디서 온 선박을 따라 바람난 마우(馬牛)도 미치지 못한 해안에 정박(停泊)한 것일까. 비록 사군(使君)이 몸을 잊고 순국(殉國)하였으나 사람들은 그가 나라를 지킬 인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서양의 추인(醜人)처럼 재능은 간직하고 있으나 나라에 이바지하지 않으려고 하니 누

456) 초효(楚梟) : 초(楚)나라 항우(項羽)를 말함.
457) 낙수(洛水) : 낙양(洛陽), 즉 한양(漢陽)을 말함.
458) 부월(斧鉞) : 예전에 살생권의 상징으로 주는 작은 도끼와 큰 도끼를 이르던 말이다.

가 흉악하고 예리한 기세라고 하지 않겠는가. 적의 형세가 급한데 일을 처리하는 것이 늦으면 반드시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제압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억제하는 계책을 사용할 것이며, 군부(軍府)가 정돈되고 호령이 엄하면 배부른 사람이 굶주린 사람을 대하고 편안한 사람이 수고로운 사람을 대하는 술책에 밝아지게 될 것이다. 지조(鷙鳥)가[459] 십실(十室)의 작은 땅을 침략하였으나 진무사(鎭撫使)가 군사를 연습한 나머지 토졸(土卒)이 정졸(精卒)이 되었고, 오합지졸(烏合之卒)인 한 고을의 백정(白丁)들이 수비하고 방어한 후에 소성(邵城)이 장성(長城)이 되었으니 어찌하겠는가. 씩씩하고 관엄(寬嚴)한 모습은 사람들이 수족(手足) 부리기를 자기의 제지(制止)에 따른 것과 같이하였고, 잘 정돈되어 기이하고 정직한 법은 적을 맞이할 때 복배(腹背)에 병기(兵器)를 받아들인 기밀(機密)이 있었다. 백리(百里)의 땅에 밤낮으로 나라 걱정을 나누어 하였고, 일군(一軍)이 탕화(湯火)에 나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었다. 까마귀가 남쪽 군막(軍幕)에 내려와 초(楚)나라 군사가 도주한 것을 알았고, 호랑이가 서문(西門)을 점거하고 있어 조(趙)나라 사람이 제사드리는 것을 보았다. 병가(兵家)의 승리는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니 다행히 기러기가 높이 날던 때 살아 돌아왔고, 적추(賊酋)의 마음은 오직 이익만 요구하고 우리의 웅호지지(虎雄之地)를 억압하고 있으나 어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장정들이 사력(死力)을 다할 수 있도록 할까 하여, 이로부터 임금님이 사람을 알아보아 감복하였다. 아침에는 경계를 엄중히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는 순행(巡行)하여 허리띠를 풀지 않은 지 48일이었으며, 괴로움과 즐거움을 나누고 입고 먹는 같이 함에 모두 감복하여 3천 군사가 한마음이 되었다. 옷과 약을 하사(下賜)하여 일일이 그 취지를 알리는 것이 정중하므로 사람들은 모두 임금의 은혜를 후하게 여겼고, 소를 잡아 군사를 먹이고 얼굴마다 맞대어 간곡히 경계의 말씀을 하였으니 이것은 화합을 잘한 것이다. 비록 문학산(文鶴山)의 개선가(凱旋歌)는 있었지만 단봉산(丹鳳山)의 첩보(捷報)가 없는 것이 애석하였다. 지금 시랑이와 양(羊)이 마주 대하고 있는데, 감히 부모에 대한 효성(孝誠)을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승냥이와 수달피만도 못하다고 말하지만 먼저 구마(狗馬)의 노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부(大夫)들은 역사(役事)에 매달려 높은 산에 올라서 80세 어머니를 생각하지 못하고, 장군은 명령을 받아 오직 오랑캐를 물리치는데 힘쓰다가 3개월 동안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드리지 못하였다. 조정에서 적을 물리친 것을 축하해 주고, 마땅히 변방에서 방어하는 사람에게 포상해야 할 것이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란 학문에 힘써 3대(三代)가 해내(海內)에 상대할 적수가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랐고, 사도(四都)와 팔도(八道)의 충신과 양신(良臣)을 천양(闡揚)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이 천하에 공격할 수 없는 견고한 성곽이 되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臣) 등은 모

459) 지조(鷙鳥) : 적도(賊徒)를 말함.

두 우두한 자질을 타고났지만, 다행히 홍운(鴻運)을 만났었다. 하나라도 두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게 다른 기량도 없어 비록 찬양(贊襄)하는 정성이 없지만, 백년동안 작은 충성을 다하여 거의 격려하고 돕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 邵城士民等 賀朝庭斥夷遠遁 箋 士人 申

粤聖祖姑奠幷韓之基, 紫閣鎭千年盤泰之勢, 世値昇平, 在列朝不見侵戎之患, 蒼生昧三邊兵革之機, 天回否運. 恭惟, 倭寇南犯在周宣中興之時, 而野蠻猶侵不足憂者, 洪賊西來於漢高草刱之時, 而楚梟且叛, 是何傷哉. 伏見白頭麓萬馬驅來之形, 畵出滄海島, 一牛橫臥之狀. 土地人民僻在左海, 尙存檀箕之遺風, 禮樂文物擬於中華, 式尊周孔之古制. 然江都似咽喉之出納, 呑大洋萬里之輸漕, 況仁川作腹心之衝要, 距淸洛二舍之畿甸. 第朝野久不聞烟火之警, 故邊境早未有備守之嚴. 近日沿海授命杖鉞之臣, 實爲不虞之戒, 往者沁都適願邀利之賊, 恐有無厭之心. 朝廷足武臣, 擧仰聖上授方任能之日, 賢材猶器用, 第觀太守宣略禦侮之時. 果然犬羊從何來之船, 泊於馬牛不相及之岸. 縱使君忘身而徇國, 人莫知干城之材, 西洋醜懷寶而迷邦, 孰不曰兇銳之氣. 賊勢急處事緩, 必也柔制剛弱制强之謀, 軍府整號令嚴, 明於飽待飢侯待勞之術. 慮彼鷙擊十室之黑子, 然鎭撫鍊習之餘, 土卒盡爲精卒, 奈此烏合一邑之白丁, 當守直防禦之後, 邵城仍作長城. 赳赳寬嚴之儀, 使人若手足隨己之制, 井井奇正之法, 迎敵有腹背受兵之機. 肆百里分宵肝之憂, 盖一軍樂湯火之赴. 烏下南幕也, 知楚師之逃, 虎據西門, 乃見趙人之祭. 兵家之勝未戰爲貴, 幸爾生還鴈高之時, 賊酋之情惟利是求, 奈我坐鎭虎雄之地. 安能得下之死力, 由是服上之知人. 朝戒嚴夜撫循, 不解帶者, 四十八日, 分甘苦同衣食自咸服, 而三千一心. 賜衣頒藥而一一宣旨丁寧, 人皆如挾纊, 擊牛饗士, 而面面回語申飭, 此可謂調羹. 縱有文鶴旋凱之歌, 惜無丹鳳飛捷之報. 方當狼羊之相對, 敢言烏鳥之私, 自謂豺獺之不如, 先思狗馬之效. 大夫行役, 而不遑陟帖言念八耋之老慈, 將軍受命而惟務芟夷, 已廣三朔之定省. 仰賀朝家之攘賊, 宜褒邊禦之得人. 務正學於萬歲千秋, 冀參代爲海內無敵之强國, 顯忠良於四都八道, 使衆心成天下不攻之堅城. 伏念臣等, 俱以駑姿, 幸際鴻運. 一箇斷無他技, 縱乏贊襄之忱, 百年粗效微忠, 庶殫勵翼之悃.

또, 자회(字會)로 태수(太守)를 칭송함

명예를 앞세우면 실장(實相)이 없고, 실상을 뒤로하면 명예가 있다. 사람들은 모두 명예가 실상보다 지나치지만 태수는 새로운 명성이 있다. 밝은 조정에서 혹 시험하지만 양덕(陽德)은 다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신하를 아는 것은 주상(主上)같은 사람이 없으므로 조야(朝野)가 성상(聖上)의 총명(聰明)함에 감복하였다. 치안(治安)에는 문관(文官)과 음관(蔭官)을[460] 기용하고, 치란(治亂)에는 간성(干城)의 장수를 기용하였다. 인주(仁州)는 변방을 안고 있어, 그 공행(公行)을 갖추고 있다. 편안히 앉아서 적을 제압하므로 적이 감히 병영(兵營)을 엿보지 못하였다. 홍모국인(紅毛國人)들은 오직 화포만 쏘고 백인(白刃)은 토병(土兵)들을 휘저었다. 달빛은 어두운데 기러기는 높이 날고 태평양 바다 소식은 조용하였다. 척후(斥候)들은 크게 놀라 조수(潮水)가 물러간 후 살기 위해 도주하였다. 그들이 스스로 갔다고 말하지 마라. 탐욕스러운 시랑이가 불리하자 놀란 것이다. 태수는 왜 늦게 왔을까. 포로로 잡혀온 노복(奴僕)들이 감히 저항하였다. 공(公)을 태산과 북두성처럼 우러러보았고, 공에게 의지하기를 간판(幹版)과 정판(楨版)같이 하였다. 공이 아니면 사람들이 모두 의지하지 않았으며, 시대가 요란하였으나 백성들은 요란하지 않았다. 공이 오자 문학산이 중후(重厚)하더니 공이 떠나자 문학산이 가벼이 여겨졌다. 문학산은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천추(千秋)동안 대해(大海)에 임하였다. 승리한 오(吳)와 초(楚)의 나그네들은 높고 낮은 푸른 산을 가리켰다. 임금과 제후(諸侯)를 칭송하니 만인(萬人)의 구비(口碑)가 이루어졌다.

○ 又 以字會頌太守曰

先名必無實, 後實終有名. 人皆名過實, 太守有新聲. 明廷或曾試, 陽德但治平. 知臣莫如主, 朝野服聖明. 治安用文蔭, 治亂用干城. 仁州作邊御, 所以其公行. 安坐能制勝, 賊不敢窺營. 紅毛有火砲, 白刃冒土兵. 月黑鴈飛高, 洋海消息清. 伺候大警畏, 潮退夜逃生. 勿謂渠自去, 貪狼不利驚. 太守來何暮, 奴虜敢抗衡. 仰公如山斗, 倚公如幹楨. 微公人盡非, 時擾不擾氓. 公來文鶴重, 公去文鶴輕. 文鶴立不動, 千秋臨大瀛. 乘利吳楚客, 指點碧崢嶸. 賀上兼頌候, 萬人口碑成.

460) 음관(蔭官) : 고려와 조선시대 공신 및 고위 관원의 자제로서 벼슬이 제수되는 것을 말한다.

소성태수행(邵城太守行) 배율(排律)

시절이 양월(陽月)이 되어 숙기(淑氣)가 서리었는데,
지금 지령(地靈)은 뛰어나게 특출한 사람을 내었네.
백년동안 덕을 심어 문호(門戶)를 높이었고,
온 나라가 칭송하여 성명(姓名)을 크게 떨치었네.
화수회(花樹會)의 춘단(春壇)에는 곤수(閫帥)가[461] 많았고,
관향(貫鄕)은 구적(舊籍)에서 능성(綾城)이 유명하였네.
오호(五湖)의 물이 맑은 가을에 칼을 갈았고,
방장산(方丈山) 푸르른 밤에 병서(兵書)를 읽었네.
뜻이 커서 일찍 경국책(經國策)을 간직하였고,
가정이 가난하여 항시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하였네.
경서(經書)와 무경(武經)을 강론하여 정일(精一)한 공부를 이루고,
상마(桑麻)를 심어 별업(別業)을 이루었네.
안개는 남산(南山)에 간직하여 표범 무늬 이루었고,
바람은 북해(北海)에 높이 불어 붕정(鵬程)이 넓었네.
자신의 현달(顯達)이 남아(男兒)로서 통쾌한 일이라,
세상에 나가 총명한 성주(聖主)를 만났었네.
축하하는 자리에 서로 환영하여 옛 친구 모여들고,
길문(吉門)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들어 선영(先塋)에 절을 올리었네.
맑은 조정에 선발되어 먼 고을을 다스렸고,
인자한 성품으로 서민에게 임하였네.
좌내사(左內史) 아관(兒寬)은 최하고과(最下考課)를 당하였고,
고향으로 돌아온 원량(元亮)은 아버지 마을을 기쁘게 하였네.
임원(林園)에 가을 들어 서리 속에 과일 거두고,
들 언덕에 봄 찾아와 빗속에 벼를 심었네.
시사(詩社)를 결성한 시붕(詩朋)은 술친구도 되었고,
이웃 마을에는 어제(漁弟)와 초형(樵兄)이 있었네.
두어 칸 초가는 산을 의지하고 있었고,
한 발 자란 해바라기꽃은 해를 향해 기울었네.

461) 곤수(閫帥): 병사(兵使)나 수사(水使)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바닷가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은 복도 많았고,
조정에서는 관원에게 명하여 충정심(忠貞心)을 갖도록 하였네.
서양의 적들은 창궐(猖獗)할 생각을 갖고,
아득히 만리길 영주(瀛洲)에서 자취를 나타냈네.
대개 홍몽시대(鴻濛時代)부터 서로 멀리 떨어져 통하지 못하였는데,
중간에 이적(夷狄)들이 가장 사나워졌었네.
병인년 8월에 먼저 빌미를 잡았고,
신미년인 금년에는 또 방자한 행동을 하였네.
풍수(風水)를 거슬러 순식간에 날아다녔고,
피비린내 나는 연기와 안개 속에서 종횡(縱橫)으로 나뉘어 있었네.
삼범선(三帆船) 커다란 배의 모략을 헤아리기 어려웠고,
한 경내(境內)의 여민(黎民)들은 간담이 모두 놀랐었네.
관리에게 엄하게 경계하여 분의(義奮)을 같이 하였지만,
섬 주민들은 흩어져 생존을 도모하려 하였네.
이때 명부(明府)에서 용도(龍韜)를 운용(運用)하고,
그날 융단(戎壇)에 타고(鼉鼓)를[462] 울리었네.
장수(將帥)의 책략은 병사들 사이에 이목(李牧)[463]과 같았고,
신공(神功)은 천상(天上)의 검영(黔嬴)[464]이 있었네.
옷과 약을 하사하여 임금의 은혜가 많았고,
창을 쥔 병사의 기예는 정교하였네.
적을 방어할 때 어찌 월(越)나라 갑옷을 울렸겠는가,
병사를 보호하고자 먼저 오랑캐의 길을 막았네.
백의종군하여 많은 주획(籌畫)을 내었고,
칼 하나 찬 원융(元戎)은 간판(幹版)과 정판(楨版) 같았네.
따뜻하기 양춘(陽春)과 같아 사랑이 흡족하였고,
정중(鄭重)하기 산악과 같아 기상이 높았었네.
한쪽으로 서호(西湖)의 물이 흘러오고,
둥글게 동심(同心)으로 들어와 장사(壯士)들이 맹서하였네.
40여일간 몸소 안무(按撫)하여,
수천 명이 모두 모이었네.

462) 타고(鼉鼓) : 악어가죽 북이다.
463) 이목(李牧) : 중국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재상이자 대표적인 명장으로 손꼽힌다. 벼슬이 상국(相國)에 이르렀으며 무안군(武安君)의 칭호를 받았다. 북쪽의 흉노(匈奴)와 서쪽의 진(秦) 나라 등을 상대로 많은 전공을 거두었다.
464) 검영(黔嬴) : 천상조화(天上造化)의 신명(神名).

성(城)을 순행하며 뜻을 격려하여 군사들을 위로하였고,
화공(火攻)의 깊은 계책으로 나무를 베었네.
문물(文物)과 의관(衣冠)을 어찌 침범하겠는가,
요분(妖氛)과 장려(瘴癘)가 활짝 사라졌네.
노상(路上)의 비석 글자는 밝고 밝으며,
바람 앞에 손뼉치며 개선가를 불렀었네.
기쁨은 인주(仁州)의 백성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고,
하물며 지금은 태평성대이다.
높은 산에는 봉화가 천리 거리에 전해지고,
높이 솟은 조운선은 깊은 바다에 떠 있었네.
그 치적이 어찌 소부(召父)와 두모(杜母)에게만 미치겠는가,[465]
전공(戰功)도 오직 한신(韓信)과[466] 팽월(彭越)에게만[467] 세지 않았네.
문득 와옥(蝸屋)에서 편안히 생애를 보내니,
이것이 웅헌(熊軒)의 큰 사업(事業)이었네.
백도(百堵)가 모두 편안하여 그 덕을 칭송하기를 생각하므로,
매각(梅閣)을 바라보며 시 한 수를 드리네.

○ 邵城太守行 排律

天作維陽淑氣縈, 地靈今果出人美. 百年種德高門戶, 一國稱譽大姓名. 花樹春壇多梱帥, 貫鄕舊籍著綾城. 五湖水白秋磨釰, 萬丈山靑夜讀兵. 志大早懷經國策, 家貧常竭事親試. 講來文武精工遂, 種得桑麻別業成. 霧隱南山成豹彩, 風高北海闊鵬程. 立身顯達男兒快, 出世遭逢聖主明. 賀席相歡來舊客, 吉門有慶拜先塋. 淸朝揀選治遐郡, 素性慈仁莅庶氓. 內史兒寬當殿課, 歸來元亮悅親情, 林園秋入霜收果, 野壟春生雨種秔. 結社詩朋兼酒伴, 隔隣漁弟與樵兄. 數間茅屋依山在, 一丈葵花向日傾. 海郡居民多福力, 朝家命吏秉忠貞. 生心猖獗西洋賊, 接迹迷茫萬里瀛. 盖自鴻濛相阻隔, 中於夷賊最凶獰. 丙寅八月先爲祟, 辛未今年又肆行. 逆水逆風飛瞬息, 腥烟腥霧漲縱橫. 三帆大舶謀難側, 一境群黎膽盡驚. 官吏戎嚴同奮義, 島民離散欲圖生. 是時明府龍韜運, 卽日戎坍鼉鼓鳴. 將略兵間如李牧,

465) 소부(召父)와……미치겠는가 : 지방 고을 백성들이 수령의 선정을 칭송하여 수령을 부모에 비유한 말이다. 전한(前漢) 때 소신신(召信臣)이 일찍이 남양태수(南陽太守)가 되어 많은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이민(吏民)들이 소부(召父)라 호칭했는데, 후한(後漢) 때 두시(杜詩)가 또 남양태수가 되어 선정을 베풀자, 남양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전에는 소부(召父)가 있었는데, 뒤에는 두모(杜母)가 있도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466) 한신(韓信) : 한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소하, 장량과 함께 한초삼걸(漢初三杰)이라 불린다. 유방(劉邦)의 진영에서 대장군으로 활동했고, 후에 제나라의 가왕(假王)이 되었다.

467) 팽월(彭越) : 중국 전한 시대의 인물로 한 고조를 도와 전한 왕조를 세우는데 기여한 개국공신이다. 자는 중(仲)이다.

神功天上有黔嬴. 賜衣頒藥君恩重, 荷戟持戈士藝精. 禦敵寧敎鳴越甲, 擁兵先使塞夷庚. 白衣從事多籌劃, 一釰元戎作幹楨. 暖若陽春仁浹洽, 重如山岳氣崢嶸. 流來一面西湖水, 圓入同心壯士盟. 四十日餘躬按撫, 數千人盡意充盈. 徇城志勵勞軍戍, 攻火謀深伐木丁. 文物衣冠焉敢犯, 妖氛瘴癘廓然晴. 煌煌路上題碑字, 拍拍風前唱凱聲. 喜是仁州民自得, 況今聖代運升平. 通傳烽火山千里, 簇上漕船海一泓. 治績奚徒追召杜, 戎功不獨數韓彭. 便令蝸屋生涯穩, 實是熊軒事業宏. 百堵俱安思頌德, 仰瞻梅閣一詩呈.

사질(舍侄)에게[468] 보낸 서신(書信)

아! 우리 가정의 참담한 재앙과 불행으로 외롭고 허약함이여! 슬프다! 우리 선조(先祖)로부터 대대로 충의와 공렬(功烈)을 지켜 마땅히 끝없이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나는 죄악이 많아 9세에 할머니의 상(喪)과 승중(承重)의 재최〔齊衰〕를[469] 당하였고, 3상(三喪)을 마친 후에는 또 부모님의 상을 당하여 장규(張奎)의 자고(刺股)하는 효성을 본받지 못하고 서빈(徐份)의[470] 소향(燒香)하는 기도를 이행하지 못하여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울고 집을 나가도 반드시 눈물을 흘렸다. 안으로는 기공(期功)의 친족도 없고 밖으로도 엄한 스승의 교훈이 없어 혈혈일신(孑孑一身)이 장벽(墻壁)처럼 의지할 곳도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부앙(俯仰)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으며, 기경(記經)의 문예(文藝)가 다른데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 농사와 나무하는 일을 맡아, 교묘히 독서하는 날이 없었다. 선조(先祖)의 사업이 점차 실추되고 의기(意氣)가 더욱 게으르고 느릴 때 훈도(訓導)하고 박학(博學)하는 상씨(商氏)가 있었으며, 다시 장씨(張氏) 어머니를 얻어 창문 사이로 손님의 관혼(冠婚)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날 술픈 눈물이 옷깃을 적시었고, 누룽지를 먹을 때는 조그마한 성의도 베풀지 못하였으니, 아! 선형주(先兄主)께서 세상을 떠나시던 날 네가 태어난 지 겨우 8개월이었다. 이어서 형수의 상을 당하였으니, 하늘은 어찌 이런 일을 참아 할 수 있을까. 너를 안고 통곡하였으나 구천(九天)은 알리가 없었다. 세월은 쉽게 흘러 어느덧 오늘에 이르도록 나는 어찌 잠시라도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으며, 너를 떠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그 직업을 따라 서울에 머물고 있으니 사사로운 정리(情理)로 볼 때 가슴 아프고 민망한 일이다. 오직 주야로 바라보는 것은 너 뿐이니 반드시 조심하고 말을 적게 하고 침착하여 언제나 독서를 게을리하면 안될 것이며, 말은 반드시 충직하고 믿음있게 하고, 행실은 공순하고 삼가고 조심하여 조용히 있을 때는 마음을 화평하게 갖고 아름다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행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남의 과실을 보면 오직 따라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지극하고 지극한 것이라 할 것이다.

---

468) 사질(舍侄)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조카를 이르는 말이다.

469) 재최〔齊衰〕 : 조선 시대 상복 제도(喪服制度)에 따른 오복(五服)의 하나. 조금 굵은 생베로 짓고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이다. 부모상(父母喪)에는 3년, 조부모상에는 1년, 증조부모상에는 다섯 달, 고조부모상에는 석 달을 입고, 처상(妻喪)에는 1년을 입는다.

470) 서빈(徐份) :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아버지 서릉(徐陵)이 병을 심하게 앓자 사흘 밤낮동안 『효경(孝經)』을 낭독하여 기적처럼 아버지의 병을 낫게 했다고 한다.

○ 寄舍侄書

噫，吾家之慘禍也，孤弱也，嗟吁矣．惟自先祖世守忠貞，宜保無疆之休，而余罪惡深重，九歲遭祖母喪，承重齊衰三喪纔畢，又遭風樹之痛，不效長奎，刺股之孝，未行徐份燒香之禱，入必泣出必泣，內無朞功之親外，無嚴師之訓，孑孑一身，墻壁靡依，橋梓俯仰，何可得也．記經異藝，復何得也．自任農樵之間，巧無讀書之日，先業漸墜，氣意益懈，時有商氏，訓導博學，復得張母，牕間聽客冠婚之日，悲淚沾衣，焦飯之際，微誠莫施，噫先兄主下世之日，汝生纔八朔繼遭兄嫂喪，天胡忍也．抱汝痛號，九天莫知，日月易去，遽到今日，使我豈暫離親側，暫離汝也．身罹職名，久留京闈，情私痛悶，而惟晝宵恩望者，汝必小心靜默，常讀書不倦，言必忠信，行必恭謹，燕居申申如也，夭夭如也．見人善行，惟恐不及，見人過失，愈恐行之，則余之所望於汝者，至矣至矣．

군 장 기 (群 場 記)

양주(楊州)의 남쪽에 군장리(群場里)가 있는데, 두어 줄기 청산이 두르고 흐르는 물은 여러 번 굽이를 이루고 있다. 마을은 깊고 빼어났으며, 깊은 골짜기는 길고 깨끗하였다. 가느다란 가지를 늘어뜨린 버드나무와 붉게 핀 꽃들은 춤을 추며 서로 비추고 옛 회(檜)나무와 누워있는 소나무는 어렴풋이 높이 드리워있으며, 바위 사이의 삼경(三逕)에는 푸른 대나무가 비껴있고 연못 위에는 두어 개의 집이 담장과 울을 접하고 있다. 나는 작년 봄에 선조(先祖)의 묘소 밑에 작은 누각 두어 칸을 지어놓고 선조를 추모하는 것을 기뻐하고 친척과 담소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었다. 만일 그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면 조용히 남쪽 언덕에 올라가서 바라보았다면 장강(長江)은 옆으로 흐르고 미호(渼湖)의 도서(島嶼)에는 물의 형세가 급하여 북을 치고 말을 채찍질하여 만기(萬騎)가 양쪽 진영 사이를 달리는 것 같았을 것이며, 작은 배는 바람을 타고 만경(萬頃)의 바다를 능가하여 파도는 넓고 노(櫓)는 속히 저어 높이 날은 새의 나래를 접하듯 한번 구름과 하늘 사이에 먼 풍경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 위에는 남한산성이 있어 구름 속 산봉우리들이 서로 빼어나 있고 옛 성곽은 어렴풋이 보였으며, 그 서쪽에는 삼각산(三角山)이 있어 높고 높은 여러 산봉우리가 푸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북쪽에는 천마산(天磨山)이[471] 있어 옛길이 험하고 석벽(石壁)은 가팔랐으며, 그 동쪽에는 묘적산(妙磧山)이[472] 있는데 그 산에는 소나무가 많아 사시사철 울창하였다. 이에 낚싯대를 놓아두고 서서히 읍취정(挹翠亭) 아래를 걸었고, 송료(松醪)는 낭자하고 친구들은 모여들어 강개(慷慨)한 마음을 드러내고 해학(諧謔)도 지치지 않아 나도 모르게 옷을 걷어 헤치고 일어나니 달빛은 밝고 별들은 빛나고 그 즐거움은 항시 화락(和樂)하여 매일 이와같이 지내었다. 이와같이 말한다면 난정(蘭亭)과 재택(梓澤)이 어찌 부럽겠는가.

○ 群場記

楊州之南, 有群場里, 靑山數疊, 流水屢曲, 村深而秀幽, 谷長而淨淸, 細柳紅葩, 婆娑相暎, 古檜偃松(糸+稟)(糸+助), 高拂巖間, 三經翠竹倒斜, 池上數廬墻籬相接, 余於昨年春建小樓數間, 於先墓之下, 喜追慕於松楸, 悅親戚之談笑, 若其日暖風靜, 登南岸而望之, 則長江橫流渼湖之嶼, 水奔勢急, 若催鼓策馬, 萬騎趍於兩陣之間, 小艇借風凌萬頃之上

471) 천마산(天磨山)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과 오남읍, 화도읍 경계에 있는 산 천마산(天摩山)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472) 묘적산(妙磧山)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화도읍·와부읍에 걸쳐 있는 산 묘적산(妙寂山)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波闊，櫓射如高鳥接翅，一望渺於雲霄之際，其上有南山城，雲岑競秀，古郭依然，其西有三角山，三峯巍巍，衆巒聳翠，其北有天磨殘徑，崎嶇石壁嶒崚，其東有妙磧，滿山松柯，四時鬱鬱，於是放釣，踉蹡於挹翠之，下松醪浪藉，良朋雲集，慷慨揚揚，詼諧亹亹，不覺披衣，而起月色皎皓，星斗交輝，其樂常陶陶，每日如是，以此論之，蘭亭梓澤，豈足爲羨.

족제(族弟) 만식(晩植) 연명(然明)에게 줌

우리 선조 공도공(恭悼公)은 임금님의 외척(外戚)으로 높은 직위에 올라 관직이 한 시기에 높았지만 공검(恭儉)하고 절약하였으며, 선비에게 몸을 낮추는데 열중하였다. 학문과 행실이 온 조정에서 존중받았고, 이어서 양한재공(養閑齋公)의 충절과 동은공(東隱公)의 문장과 경수공(耕叟公)의 박식(博識)과 선친 온산공(溫山公)의 화목과 정헌공(靜軒公)의 여망(輿望)을 자손들은 마땅히 선조의 모책(謀策)과 유업(遺業)을 계승하여 온 가문이 번창하고 예의(禮儀)와 학문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자손들이 제각기 한 벽지(僻地)에 있으므로 동족과 서쪽이 아득한데 어찌 서글픔을 간직하여 마을이 슬프지 않겠는가. 그대가 멀리 강호를 건너와서 이 산재(山齋)를 방문하여 손을 잡고 회포를 폈었네. 그리고 선대의 정의를 추억하고 옛날 기쁘게 지냈던 일을 느끼었네. 친척들이 단란하게 모여 있는데 얼마 후 해는 서쪽 누각에 지고 달은 동쪽 숲속에서 떴었네. 이날 저녁은 즉 숙정옹주(淑靜翁主)의 휘일(諱日)이었네. 전(奠)과 강신(降神)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향사(享祀)하는 예절을 갖추고 여러 손자들은 아랫자리에서 참배하였고, 만식(晩植)과 연명(然明)은 머리를 굽히며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먼 고을에 타향살이하며 외톨 장정(壯丁)으로 외롭고 괴롭게 농사에 종사하므로 대종(大宗)이 많은 것도 모르고 있었으나, 옛 산천을 바라보면 운수(雲水)가 길을 막고 있어 다만 주위를 맴돌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도 이 예절(禮節)에 참여하니 사정(私情)이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라고 하자, 나는 "그대들이 이 예절에 빠진 것은 형세상 그러한 것이다. 또 고향이 멀고 부모님 곁을 떠나기도 어려우니 비록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늦은 봄에 향사(享祀)할 때와 양월(陽月)에 세제(歲祭)를 지내는 날 서로 재개(齋戒)하여 낮은 자리에서 분향하는 것도 어찌 자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비록 바닷길이 멀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만식이 자리를 물러났다가 다시 나에게 말하기를 "장차 전원(田園)이 묵어가고 문헌이 사용되지 않아 가전(家傳)에 어둡고 선조의 자취를 계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므로, 나는 맏형이 맨 처음 낳은 아들 연명에게 집안에 보관하던 문서를 꺼내도록 하여 선조 문정공(文貞公) 이하 10세의 행장(行狀)과 신도비명(神道碑銘), 묘지(墓誌) 등의 글과 책 여러 권을 보여주었다. 이에 만식은 한번 읽고 한번 읊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

물을 흘리고, 먼저 책 하나를 필사(筆寫)하므로 나는 그의 뜻을 칭찬하고 축하드리며 거칠고 너저분한 글과 서툰 말로 그 사실을 이와같이 기록하였다.

○ 贈族人晩植然明

惟我先祖恭悼公, 貴顯戚里, 位隆一時, 而恭儉節約, 勤於下士, 學文偉行, 重於一朝, 繼以養閑齋公忠節, 東隱公文章, 耕叟公博識, 先親溫山公之敦睦, 靜軒公之雅望, 子孫宜乎. 承先謀繼遺業, 一門昌繁, 禮學彬彬, 而子侄各在一隅, 東西茫茫, 豈不懷悵, 而心悲乎. 惟君遠陟, 江湖來訪, 山齋握手, 敍懷追先誼, 而感舊喜親戚之團會已而, 日落西樓月生東林, 是夕卽淑靜翁主諱日也. 設奠酹之席, 備享祀之禮, 衆孫參拜於下席, 晩植然明, 俯首以謂余曰, 鄙等流落遠鄕, 零丁孤苦, 耕田耘耔, 不識大宗之盛, 儀瞻望舊山雲水遮路, 但徘徊而怖懼, 今幸參禮, 喜慰私情余曰, 君等曠禮, 勢乃其然, 關山且遠, 離側亦難, 雖昔日之所, 不能也. 暮春享祀之時, 陽月歲祭之日, 相會齋戒, 焚香於末席, 亦豈非人子之道也. 海路雖邈, 必留重會之期也. 晩植退而又謂余曰, 田園將蕪, 文獻不治, 家傳罔昧, 先蹟無續云, 故余乃使長侄然相, 啓家藏出, 先祖文貞公下十世行狀, 及神道碑銘墓誌等, 書數答以示之, 晩植乃一讀一詠, 不覺感淚, 先下寫出一本, 故余深賀其意, 以荒文拙言, 記其事如右.

선부군(先府君) 효행서(孝行書)를 사질(舍姪)에게 보여줌

선부군의 호는 계산(溪山)이고, 학문으로 당세에 존중을 받았으며, 기도(氣度)가 근공(謹恭)하고 용모와 행동이 단정하고 아담하여 선비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 참판공이 일찍 공을 사랑한 것은 남과 비교할 수 없었다. 공의 나이 10세 때 통덕랑(通德郞)의[473] 상을 당하여 수시로 영연(靈筵)에 호곡(號哭)하다가 여러 번 기절하므로 곁의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조모 이부인(李夫人)이 온곡산(溫谷山)에서 시묘살이를 하며 기회만 있으면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하려고 하므로 공이 잠시도 옆을 떠나지 않고 소금에 절인 생선과 채소를 내놓으며 울면서 드시기를 권하였고, 만일 드시지 않으시면 아침까지 모시고 서서 밥을 먹지 않으므로 조모님은 그 효성에 감동하여 공에게 위로를 받고 의존하였으며, 공은 아버지의 교육에도 어기지 않고 수시로 독서하여 배우는 힘이 날로 발전하였고, 20세가 되어서는 이모부 이절도사(李節度使)가 벼슬하기를 권하였으나 공은 입장을 굳게 지키면서 말하기를 "벼슬을 하는 것은 양보(羊保)가 바둑을 두고 왕진(王進)의 발이 빨리 달린 것과 같아 오직 벼슬을 도둑질하는 것에 능한 일입니다. 정이천(程伊川)의[474] 성명(聖明)과 범충선(范忠宣)의[475] 정직으로도 부주(涪州)와 영주(永州)의 유배(流配)가 있었고, 또 유자후(柳子厚)는[476] 원조(猿鳥)와 이웃하고 육선공(陸宣公)은[477] 약물(藥物)을 기록하고 살았으니, 그 험한 일을 끼고 위태롭게 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자갈땅을 경작하고 땔나무를 쌓아둔 뜨락을 청소하며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백년동안 마음내키는 대로 돌아다닐 것이고, 다른 형제도 없으므로 아버지의 곁을 떠날 수 없으므로 영원히 벼슬길을 끊고 독서하기를 기약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참판공이 나이를 많이 먹은 즈음에 중풍병으로 항시 편안한 날이 적었지만 공(公)이 모시고 서서 종일 옷과 띠를 풀지 않고 늘 『삼국지(三國誌)』와 『수호전(水滸傳)』 등의 소설을 그 음과 뜻을

473) 통덕랑(通德郞) : 조선시대 정5품의 문관 품계이다.
474) 정이천(程伊川) : 중국, 북송시대의 철학자 및 도학자인 정이(程伊)의 성과 호 이천(伊川)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475) 범충선(范忠宣) : 중국 북송 때의 재상으로 이름은 순인(純仁)이고, 시호는 충선(忠宣)이다. 인종 때의 명신 범중엄(范仲淹)의 둘째 아들로 효성이 지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476) 유자후(柳子厚) : 중국 당나라 때 문관, 시인, 수필가이자 사상가이다. 이름은 유종원(柳宗元), 자는 자후(子厚)이다.
477) 육선공(陸宣公) : 중국 당나라 때의 학자이자 명신인 육지(陸贄)이다. 선(宣)은 그의 시호이다.

설명해 주어서 참판공이 기뻐하며 소일거리로 보내었으며, 병환이 위중하여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침으로 치료하는 일을 주야로 게을리하지 않고 효성을 다하여 봉양하였는데, 계해년 가을 7월 후동(後洞)의 사저(私邸)에서 돌아가셨다. 공께서 22세가 되던 때에 승중(承重)하자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여 슬피 곡하며, 여러 번 물을 마시는 것을 끊었다. 비록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매일 여막〔廬宇〕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면서, 상복을 벗지 않으셨다. 매번 눈물을 흘리시며, 집안 사람들에게 이르시길, “이 목숨의 죄는 천지에 퍼져있다. 10세 때는 부모님을 잃는 슬픔〔風樹之痛〕을 맞이하였으나 미천한 몸으로 돌아가신 조부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날이 있게 되었다. 할아버님과 함께 음식을 맛보고, 진귀한 것을 함께 즐기던 것을 어찌 다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다시금 실성한 듯 통곡하시니 사람들이 감동하여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 삼년상을 마치고, 군장리(群場里)의 정사(精舍)로 퇴거하여 꽃과 나무를 많이 심고, 오이밭을 넓게 가꾸었으며, 가문의 일원 및 오랜 지인과 더불어 바둑을 두고 투호를 하였다. 1811년〔辛未〕에 서쪽 오랑캐가 창궐하자 충의를 위하여 격렬히 떨치고 일어나 오랜 지인과 가문 일원들에게 통문을 보내 지혜롭고 용맹한 30여 인을 널리 구하여 얻은 뒤에 스스로 종군하게 하였다. 패강을 지나 적을 격파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이내 향당으로 돌아와 가정에 신실하게 하였고, 차분하게 마치 기오(寄傲)한 듯 하였다. 공께서 금장리에 머문 지 30여 년이 지났다. 공의 계부(季父)이신 학단공(鶴湍公)께서는 성품이 맑고 품행이 우아하여서 진관(陳瓘)의 구휼을 행하시고, 사밀(謝密)의 인재를 기약하셨으니, 숙부와 조카가 서로 의지하여 가문을 빛내었으나 불행히도 일찍이 돌아가셨다. 숙부께서 돌아가시자 공께서는 부모의 상을 당한 것과 같이 여겨 상장에 예를 다하였다. 당질 남매의 나이는 매우 어렸는데, 공께서는 평상시에 자주 오셔서 돌보시고 효우(孝友)와 학문을 도탑게 할 것을 권하셨으니 이들에 대한 공의 사랑이 지극하였다. 만약 당질 남매가 병에 걸렸다면 뜨거운 차를 직접 끓이시고, 낮에는 그 앞에 앉아계시고 밤에는 침상에서 품어주셨다. 만약 당질 남매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납하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치셨다. 당질 남매 성장하자 무예를 권하셨는데, 1805년〔乙丑〕 정시에 합격하여 원문(園門)에 이르니 마을 사람들 중에 감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공께서 이미 백발이 되셨다. 조모의 기력이 안정되자 공은 밝은 얼굴로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렸고, 식사를 하실 때에는 모시고 앉아 떨어지지 않았으며, 대소사를 아뢰지 않은 적이 없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말씀 드렸다. 만약 조모께서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약을 달이고 음식을 마련하여 직접 드렸다. 1833년〔순조 33년, 癸巳〕 3월에 이르러서는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공께서는 이미 융로(隆老)가 되었음에도 땅을 치고, 머리를 부딪히며 울부짖으셨다.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슬피 우시는 것을 마치 어릴 때와 같게 하셨으니 슬픔으로 인하여 공의 몸이 지나치게 상하였다. 또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형의 상을 주관하셨다. 타고난 자질이 후덕함에 다른 사람이 공의 행실을 군자의 행동이라고 칭하였다. 공께서는 자신 이후의 일을 형에게 믿고 의지하였으나 마침내 형님마저 돌아가시는 데에 이르니 탄식하며 말씀하시길 "우리 집안은 충직하고 온순하며 화목해서 세상에 잔인한 일이 없었는데, 하늘이 너무 가혹하구나"라고 하며 비통함에 소리 치시고, 식음을 전폐하셨다. 종당이 모두 안타까워하며 말하길, "공자(孔子)께서 안연(顔淵)이 요절한 것과 유사한 일을 여러 번 보셨음에도 어찌 이와 같이 지나치게 몸을 상하게 하셨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공께서는 조모의 장례를 미처 끝내기도 전에 능히 마음껏 슬퍼하지 못했으며, 다음 해에 또 당숙의 상을 당했다. 큰 누이의 장례에 미쳐서는 형수의 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매부의 장례를 만났으니 참화가 연달아 일어나고, 재난이 끊이지 않고 나오니 공께서는 항상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셨다. 1840년〔헌종 6년, 庚子〕 6월에 이르러서 더위로 인한 체증(滯症)이 시작되고, 병환이 점차 위급해져 갔다. 하루는 나와 여러 사람들에게 이르시길, "내가 돌아보건대 우리는 의지할 만한 가까운 친척도 없고, 집안에 여력이 있는 후진(后振)들도 없다. 너희들은 모두 어리니 집안의 제사를 장차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시며, 실성한 듯 통곡하시니 우리들은 감히 우러러 바라볼 수 없었다. 같은 해 12월 초3일 결국 공께서 세상을 떠나시니 아! 애통하다. 선공께서는 오직 절약하고, 절제하시며 유업을 열심히 하셨다. 비단옷을 입지 않으셨고, 식사를 하실 때 많은 반찬을 드시지 않았다. 직접 척박한 땅을 경작하시면서 신구를 갖추고, 손수 뽕나무를 심으신 것은 사시(四時)를 대비한 것이다. 삭망일을 만나서는 제실의 먼지를 털고 분향하며 예를 갖추었다. 매 기신일을 맞이하여서는 상을 당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더욱 슬퍼하였으며, 제기를 삶을 때에는 직접 자세히 살폈다. 친족을 대할 때는 사랑하는 도리를 지극히 다하였고, 손님과 벗을 맞이할 때는 서로 공경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순효하고 인자함이 지극하였다. 나이가 들었을 때 참화를 거듭 당하고, 집안이 빈약해졌으니 천도(天道)의 무상함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아! 슬프다. 너는 일찍이 고아가 되어 자질이 부족하고, 선군의 행적을 진실로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고 들은 바를 간략하게 적어 너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 先府君孝行書示舍侄

先府君號溪山, 以文學爲世所重, 氣度謹恭, 容止端雅, 有儒所宿望, 參判公嘗愛之無比, 公纔十歲, 遭通德郎喪, 隨哭靈筵, 屢至號絶, 傍人莫不哀憐, 祖母李夫人, 侍墓溫谷山, 歙乘間下從, 公須臾不離, 魚鮓蔬菜, 涕泣勸進, 若不下著, 乃侍立達朝不食, 祖母感於誠

孝，賴以慰依，公不違親敎，從容讀書，學力日就及冠，娣母夫李節度，勸以解韋，公自守，日解辟披草，若羊保之奕碁，王進之疾足，惟能竊位．程伊川聖明，范忠宣直有，涪州永州之竄．又如柳子厚之隣猿鳥，陸宣公之抄藥物，其挾險行危何如，耕磽确掃柴，庭供親滋味，逍遙百年也，以無他弟兄，不能離側，永絶仕宦，讀書爲期．參判公衰境以風患，寧日恒小，公侍立終日，不解衣帶，常以三國誌水滸傳等小說，誦以音意．參判公喜爲逍遣，患候沈重，夜不成寐，食不下咽，甘旨之供，刀圭之役，晝宵不倦，盡孝篤養，及至癸亥秋七月，當變于後洞私第．公時年二十有二，以承重哀慕哭絶，屢癈水飮，雖隆寒盛暑，每侍廬宇不解衰麻，每泣謂家人曰，頑喘罪貫天地，十歲遭風樹之痛，微身賴王考愛恤之恩，保有今日，而王公割甘，陳公花石，更何得也．輒失聲痛哭，人莫不感泣，三喪畢退居于群場里精舍，多植花樹，廣治瓜圃，與宗黨知舊，圍碁投壺．當辛未西賊猖獗，忠奮激發，發文通諭於知舊宗黨，募得智勇三十餘人，自願從征，過浿江聞賊破，仍還處鄉黨，恂恂如家庭，申申如寄傲，琴書已來，三十有年矣．公季父鶴湍公，淸高雅操行，陳瓘之撫恤，期謝密之佳器，叔侄相依，一門光曜矣．不幸早卒，公如遭親喪，喪葬備禮，堂侄男妹，年在襁褓，公率來撫養勸孝友篤文學，恩愛切至，若有疾病，茶湯親煮，晝則坐之以前，夜則懷之以寢，若有過失，輒撻之不容，及成長勸投筆，登乙丑庭試攀花桂帶，歸到園門，時人莫不感歎焉，公旣白首矣．祖母氣力方安寧，公和顔進前，朝夕省問，食飮之際，侍坐不離，大小事無不奏稟，自外歸侍所見聞，一一趁告，若有患候，則煮藥設饌，身親爲之，至癸巳三月，母夫人奄棄榮養，公已隆老，而攀號叩地，哭泣不輟居喪，如少壯時，哀毁過傷．且未葬禮，又見兄主喪，天賦厚德，人稱有君子之行，公賴以身后爲依矣．卒當是境，吁天長歎曰，吾家忠厚敦睦，世無殘忍，天胡酷也．悲痛語塞，全癈蔬食，宗黨皆悶然曰，仲尼見戚顔淵早夭，是數焉，何過傷如此．公以祖母葬禮未行，不能任情，其年翌又當堂叔喪，及長妹喪，兄嫂喪，次妹夫喪，慘禍連疊，惡慨繼出，公常垂淚吁嘆．至庚子六月，以暑滯爲始，病患漸漸危極，一日謂不肖等曰，顧無近親之可托，家無餘力之后振，爾等皆幼，家祀將何之，公失聲痛哭，不肖等不敢仰視，至十二月初三日下世，嗚呼痛矣．先公惟以儉約節制，勤守儒業，衣無綿帛，食無兼饌，躬耕薄田，以爲新舊之備，手植果桑，預儲四時之資，輒遭朔望，靜掃室堂，焚香備禮，每遇忌祀，惟舊盆愴，滌器烹飪，身親詳察，待宗族盡愛厚之誼，接賓友備相敬之誠，純孝寬仁至矣，而老來屢見慘禍，家又貧弱，天道無常，若是也．噫噫痛矣，以汝早孤餘質，先君行迹，實未詳知，故略敍聞見書以示汝．

의금부의 도첩에 기록하다

증조부이신 참판공께서는[478] 1753년〔癸酉, 영조 29년〕간에 선전관(宣傳官)으로서[479] 어가(御駕)를 시종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때 도적이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대가(大駕)가 흥화문(興化門)에 나아가니 문무재신들이 모두 융복(戎服) 차림으로 입시하였고, 여러 군문의 대장들이 군례(軍禮)로서 알현하였다. 원수(元帥)는 적장의 수급(首級)을 바쳤다. 공께서는 명을 받들어 왕래함에 있어서 통찰력과 민첩함이 있고 숙달이 되었던 것이 여러 관료들 사이에서 특출났다. 군의 원수를 맞닥뜨리자 창황하여, 실수가 있자 공께서는 땅에 엎드려 잘못을 고하셨다. 임금께서는 이를 크게 기특하게 여기며 "훈련대장의 중임을 맡았는데, 너는 칼과 도끼의 위세를 두려워 하지 않고, 능히 원융의 잘못을 고하였으니 진실로 한 시대의 영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라고 하시며 의금부도사 겸 형방의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무신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때부터 국왕의 은혜가 점점 깊어져 선전관과 대복을 겸하고, 승별부의 군직에 임명되었다. 관청에 들어갈 때는 전전긍긍하며 조심하였고 나올 때에는 공무를 받들고 부지런히 힘쓰자 임금의 은혜가 더욱 특별하였다. 공께서는 10도호 겸 절도사에 제수되셨다. 공께서 관사에 계실 때에는 서책이 책상에 가득하고, 아문은 엄숙하였다. 군율로 몸을 단속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온유하게 들으셨으며 행실을 절제하고 돈독하게 하였다. 어리(御吏)들은 믿음이 있고 이민(吏民)들은 은혜를 쫓지 않은 자가 없었다. 공의 성품은 본래 맑고 밝기 때문에 간호(奸豪)의 상황을 알지 못하니 반드시 하나의 죄가 될 것이다. 부 아래의 시골에는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고아와 과부를 부양하고, 효제(孝悌)를 더욱 장려하였다. 군대의 위엄을 바로잡고 무비를 갖추며, 장수 및 병사와 더불어 말을 타고 달리니 공의 무예가 날로 늘었다. 체임되어 돌아갈 때 다만 거문고를 안고 들어오니 백성들이 모두 거리에 나와 고삐를 잡고, 동전을 주조하여 공을 기렸으니 공의 치적이 당대의 제일이었다. 여러 차례 칭찬을 받고, 뭇 사람들의 신망을 받으셨다. 한가히 거처하실 때는 밤이 깊어져도 독서를 하시며 시를 읊으셨고, 당대의 문사들과 고금(古今)의 논의를 토론하였다. 거주하는 곳에는 꽃을 많이 심으시고, 바람부는 아침과 달이 뜨는 저녁에는 원통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세월을 보내었다. 정 상공 존겸(存謙)이[480] 증조부님을 일컫기를 "문장과

478) 구명원을 가리킨다. 구명원(具明遠)은 1753년 4월 21일 선전관에 임명되었다가 1755년 5월 영조의 칭찬을 받고 승륙한 뒤에 별형방도사(別刑房都事)에 임명되었다. 그 뒤로 덕원부사·거창부사 등에 제수되어 관직활동을 이어갔다.

479) 선전관(宣傳官) :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과 군무의 처리 등을 주관하였던 무반 경관직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본다는 점에 근거하여 '서반의 승지'라고 불렸으며, 중요시되던 관직 중 하나였다.

재예(才藝)에 유자의 기풍이 있다."라고 하였다. 윤 상공 시동(耆東)이[481] 증조부님을 조정에 천거하며 말하길 "당대의 기재가 있는 자이다"고 하였다. 김 공 인순(麟淳)은[482] 공의 묘비명에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니 오랑캐가 침략해오자 영청공께서는 출중한 재주를 지녔음에도 당시에 이내 나라에 이내 안정된 뜻을 펼치지 못하였고, 오직 청백하고 문명한 것만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하였다. 공께서 세상을 떠나심에 부음이 현에 알려지자 군교와 백성들로부터 분주하게 뛰지 않는 자가 없었고, 곡을 하는 것이 부모의 상을 만난 것과 같이 하였다. 호서절도사(湖西節度使)에게 하루는 휘하의 이교(吏校)가 물러날 것을 고함에 이를 묻자 "오늘 사또의 망곡례(望哭禮)가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잠시 뒤 남안(南岸)에 백성들의 곡성이 들리고, 밤까지 끊이지 않았다. 아! 공의 높은 공과 은혜가 없었다면 백성들의 감동이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불초한 손자 완식이 의금부의 그림을 살피고, 감동하여 눈물이 흐르는 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를 기록하였다.

○ 題金吾圖帖

曾考參判公, 昔在癸酉間, 以宣傳官侍御, 有承傳之命. 此時盜賊朋興, 大駕進於興化門, 文武諸宰, 皆戎服入侍, 諸營門大將, 以軍禮見謁, 元帥以賊首獻馘, 公往來傳命, 綜敏鍊達, 特出諸僚矣. 適元戎愴惶有失, 公輒伏地奏過, 上大奇曰, 訓將重任, 汝不畏鈇鉞之威, 能却元戎之失, 眞一時英才, 余甚嘉之, 除義禁府都事兼刑房之任, 武臣初有也. 自此恩眷隆深, 兼宣傳官大僕乘別付軍職, 入則趍走兢兢, 出則奉公孜孜, 上益寵異也. 公除十都護兼節度使, 公之居官, 書卷滿案, 衙門肅然, 律身淸嚴, 聽民以柔, 制行敦篤, 御吏以信, 吏民莫不趍走感恩. 公性本淨明, 奸豪之情無聞, 以知必一一成罪, 府下鄕閭, 莫不戰慄, 養孤獨益勸孝悌, 整軍威修武備, 與將士馳射騁馬, 武藝日就, 及其遞歸, 但抱琴以來, 百姓遮道拒轡, 鑄銅頌功治績爲時第一, 屢承天褒重帶宿望, 燕居夜深讀書, 吟詩詠月, 與世文士博論古今, 所居多植花蘭, 風朝月夕, 慷慨逍遙, 鄭相公存謙稱之曰, 文章才藝, 有儒子之風, 尹相公耆東, 薦于朝曰, 當時奇才, 金公麟淳 題公墓碑曰, 憂國牧民, 似祭征虜寇, 潁川公以出類之才, 時乃昇平志不盡施, 惟淸白文名顯于時, 公之歸世, 訃書行縣, 自軍校民, 莫不奔走, 巷哭如喪考妣. 湖西節度一日麾下吏校, 告退問之曰, 今日

480) 정 상공 존겸 : 정존겸. 정존겸(1722~1794)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대수(大受), 호는 양암(陽菴)·양재(陽齋)·원촌(源村)이며, 이재(李載)의 문인이다. 영조 26년(1750) 사마양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영조 말년에는 홍인한을 탄핵하는 등 세손을 보호하였으며, 정조 즉위년(1776) 우의정에 제수되는 등 정조의 신임을 받았다.

481) 윤 상공 시동 : 윤시동. 윤시동(1729~1797)의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백상(伯常), 호는 방한(方閒)으로, 영조 30년(1754)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후에 대사헌, 이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하였으나 여러 차례 당론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아 유배되었다.

482) 김 공 인순 : 김인순(1764~1811)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인서(仁瑞)이다. 김원행의 차남 김이직(金履直)의 아들로 입계하였으며, 남평현감 등에 제수되었다.

具使道喪望哭也. 俄而南岸人白哭聲, 至夕尙不絶, 嗚呼, 公無隆功盛恩, 民庶之感能如是乎. 不肖孫完植考金吾圖, 感先不覺, 洗淚記之.

구용부터 집안 대부인 원석에 전달하는 편지를 받들어 쓴 발문

안자(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고 하셨다.[483] 이것은 바로 인의를 쌓고 덕업을 행하며, 시비가 안에서 쓰이고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혹 말을 교묘하고 듣기 좋게 하며, 많이 들어 알고 잘 기억하는 자를 성인께서 오직 비루하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물며 본받지 않고 배움이 없으며 익히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넓힐 수 있겠는가. 근래에 세상이 쇠퇴하고 풍속이 미약해지고 독서하는 소리가 시골에서 거듭 끊어지고 있으니 학교의 가르침이 거의 사림(士林)에게서 끊어졌다. 진시황이 시경과 서경을 불태웠을 때부터 한나라 혜제 때에 비로소 책을 끼고 다니는 것을 금하던 법률을 폐지했을 때에 이르러[484] 초나라와 한나라의 사이에 군웅이 봉기하여 오로지 말을 타고, 칼을 치니 성인의 도와 어찌 차이가 없겠는가. 사마천·동중서 등 제공(諸公)은 성전(聖傳)을[485] 독실하게 배우고 동산의 풀[뭔가 곡식 등등]을 엿보지 않으며 경전에 통달하였다. 명제(明帝)에 미쳐서는 경서를 집고 토론을 하였으며, 관대를 갖춘 선비와 벼슬아치들이 교문을 둘러싸고 보았고,[486] 우림의 병사들도 역시 장구를 통달하였다.[487] 그러나 환제와 영제는 함부로 음탕한 짓을 하였고, 동탁과 조조와 같은 무리는 병세에 의지하여 황제의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며 전투를 좋아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사장으로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자들이 바람처럼 응하였다. 진나라와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 환란이 극에 달하였다. 천운은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으니,[488] 이 때에 하남의 정씨 양 선생과 신안의 주부자 여러

483)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 공자(孔子)가 안연(顔淵)에게 말한 네 가지 경계로서 이른바 사물잠(四勿箴)이라고 한다(『논어』, 「안연」).
484) 진시황이 …… 이르러 : 『고문진보후집』 권2, 「여맹간상서서(與孟簡尙書書)」에 수록된 구절이다.
485) 성전(聖傳) : 성인(聖人)의 구수(口授)나 전승(傳承).
486) 『후한서』, 「유림열전」에 “향사례를 마치고 천자가 바르게 앉아서 직접 강독을 하면 유자들이 경을 가지고 앞에서 토론을 벌였는데, 관대를 갖춘 선비와 벼슬아치로서 교문을 둘러서 보고 듣는 이들이 억만을 헤아릴 정도로 많았다〔饗射禮畢 帝正坐自講 諸儒執經 問難於前 冠帶縉紳之人 圜橋門而觀聽者 蓋億萬計〕.”는 구절에서 차용한 말로 보인다. 즉, 고대 태학에서 강하던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했던 것을 의미한다.
487) 『후한서』, 「유림전서」의 “기문부터 우림의 군사들은 모두 효경의 장구를 암송하게 하였다〔自期門羽林之士 悉令通孝經章句〕.”의 구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이 선왕의 도를 잇고, 맹자를 계승하여 성교를 다시 밝히었으니 이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오늘날에 전해졌다. 배우는 자는 마땅히 절제하고 법도를 지키며, 겸손하며 돈후하고 공경하여 구용(九容)의[489] 뜻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부자의 가르침을 암송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수신의 요체를 먼저 힘쓰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평하게 하는 근본을[490] 좇아 나아가고,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즉, 욕되게 하는 뜻이 없는 것에 혹 가까워질 것이다.

○ 書奉九容于族大父元錫繼以爲跋

顔子曰, 非禮勿言,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動, 此乃蘊之爲仁義, 行之爲德業, 是非用諸內, 而形於外者也. 彼巧言佞辭, 博聞强記者, 聖人 惟曰, 陋矣. 況不師而無敎不學, 而能廣者乎. 近日世降俗微, 讀書之聲, 屢絶於閭巷, 庠序之敎, 幾稀於士林, 自秦始皇焚詩書, 至漢惠帝, 始除挾書之律, 當楚漢之際, 群雄蜂起, 專事騎馬擊釰, 聖道庶乎, 無類矣. 司馬遷董仲舒諸公, 篤學聖傳, 不窺園蔬, 貫穿經籍, 及明帝, 集經問難, 冠帶縉紳環橋門, 羽林之士, 亦通章句, 然而桓靈荒淫, 卓操之屬, 倚兵勢擅威柄介胄, 而執戰者雲集, 詞章以要名者風應, 至晋唐之際 壞亂極矣. 天運無往不復, 於是河程氏兩先生, 新安朱夫子, 諸公承先王之道, 繼孟氏之傳, 聖敎復明, 於是始有傳於今日矣. 惟學者, 宜節制謹度, 謙恭敦敬, 無違九容之意, 愈誦夫子之學, 先務修身之要, 追及治國平天下之本, 進進不惰, 則其於無忝之意, 似或近之.

488) 천운은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으니 : 세상의 화복이 돌고 도는 것을 말한다. 『주역』「태괘구삼」의 "평탄한 것은 반드시 기울어질 때가 있고, 가는 것은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다〔無平不陂 無往不復〕."는 구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489) 구용(九容) : 군자의 아홉 가지 몸가짐을 의미한다. 구용은 모두 족용중(足容重)、수용공(手容恭)、목용단(目容端)、구용지(口容止)、성용정(聲容靜)、두용직(頭容直)、기용숙(氣容肅)、입용덕(立容德)、색용장(色容莊)이다.

490) 수신의 …… 근본 : 대학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따온 듯하다.

개천공(价川公)[491] 행장

종8대조의 휘는 현준(賢後)이고, 자는 공보(公輔)이다. 구씨는 능성에서 나왔는데, 비조(鼻祖)의 휘는 존유(存裕)로 고려의 삼중대광(三重大匡)[492]·검교(檢校)[493]·상장군(上將軍)이셨다.[494] 휘는 예(藝)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고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에 봉해졌다. 휘 의(禕)는 보문각(寶文閣)[495] 대제학을 지냈고, 문정(文貞)을 시호로 받았다. 휘 성로(成老)는 태조대왕을 보좌하고, 강원도 도원수에 임명되었다. 휘 치홍(致洪)은 도총관(都捻管)과 지중추(知中樞)에 임명되었으며 호양(胡襄)을 시호로 받았다. 휘 수영(壽永)은 정국공신〔靖國勳蔭〕으로써[496] 호조판서를 역임했고, 능천군(綾川君)에 봉해졌다. 휘 한(澣)께서는 숙정옹주(淑靜翁主)와[497] 혼인하여 능창위(綾昌尉)에 봉해졌는데, 이분이 바로 공의 증조부이시다. 조부의 성함은 사근(思謹)으로 돈녕부 봉사를 역임하셨다. 부친의 휘는 화(嚄)로 선조대의 임진왜란 이후, 무재로서 선발되어 선전관에 발탁되었다. 광해군대 폐모정청을 보고 벼슬을 사직한 뒤에 돌아오셨다. 호는 양한재(養閒齋)이며 인조대 누차 징소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으셨다. 공〔개천공, 구현준〕께서는 만력 을미년〔선조 27년, 1594년〕 10월 2일에 태어나셨으며, 성품이 강직하고 굳세고 지략이 매우 많으셨다. 신장은 8척이며, 완력[膂力]이 삼석지궁〔三石之弓〕을 당길 정도로 뛰어났으니, 타인들이 그 용맹함에 탄복하였다. 나이가 약관에 이르러 무과에 합격한 뒤, 사복승(司僕丞)에 처음 제수되었다. 광해군대에 정사가 어지럽자 당시 상황을 개탄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인도(人道)가 사라지고 삼강(三綱)이 끊겼다."라고 하셨다. 벼슬을 내어놓고 평구강사(平邱江舍)에 가신 뒤에 작은 배를 타고 낚시를 하여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능성의 여러 공께서 모의하여 공을 윗사람으로 모신 뒤에 비밀리에 고하셨으나 공께서는 사양하고 응하지 않으셨다. 서쪽의 소요에 미쳐서는 인조께서 평소에 공을 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용천부사

491) 개천공(价川公) : 구현준(具賢俊, 1595~1636)을 지칭한다. 그는 1636년 8월 7일 개천군수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구연상이 개천공이라고 부르고 있다.
492) 삼중대광(三重大匡) : 고려 관품의 하나이다. 고려전기에는 1품의 관품이었으나 1308년 문산계가 개편되면서 정1품으로 변경되었다.
493) 검교(檢校) : 고려시대 문반 5품 및 무반 4품 이상 관직에 설치된 산직(散職)이다.
494) 상장군(上將軍) : 고려대 중앙군의 최고 지휘관이다. 2군 6위에 각 1인씩 소속되어 있었고, 무반의 최고 품계인 정3품의 관품이다.
495) 옥문각(宝文閣) : 고려 예종 때 설립된 당으로 청연전의 남쪽에 있었다. 보문각의 관원은 학사 1인, 직학사 1인, 직각 1인, 교감 4인이었다. 1275년 보문서로 개칭되었다가 후에 동문원(同文院)에 병합되었다. 1314년 다시 보문각으로 환원되었고, 이 때 대제학, 제학, 직제학이 관원으로 있었다.
496) 정국훈예(靖國勳蔭) :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정국공신을 의미한다.
497) 숙정옹주(淑靜翁主) : 숙정옹주(1525~?)는 중종과 숙원 김씨 사이의 소생이다.

에 공을 제수하셨다. 공께서는 천장(天將) 모문룡(毛文龍)[498]을 거슬러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셨으니 주야로 병서를 읽으심에 문득 말씀하실 때는 변방의 일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소탕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 당시 만주에서 감히 참람된 호칭을 꾀하여 조정에서는 이를 배척하니 노사(虜使)가 달아나고, 조야에서 두려워함에 마치 장차 병란을 입은 것과 같이 하였다. 상께서는 이내 군대를 정비하여 서쪽을 방비케 하셨는데, 홍공 명구(命耉)를 순찰사(巡察使)로 삼고, 공 역시 선발되어 개천군수(价川郡守)에 제수되셨다. 관아에 이르러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군무에 힘쓰셨다. 군교를 불러 모아 긴요한 것을 널리 자문을 구하였으며, 군략을 다수 비축하기를 급급하게 하는 것을 마치 적이 국경에 닥친 것과 같이 하였다. 혹자가 공께 묻기를 "지금 서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장군께서는 이를 모면하고자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다. 공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길 "남아가 장수가 되어서 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여 위로는 천은(天恩)에 보답할 뿐이다"고 하셨으니 다른 이들이 공을 더욱 중히 여겼다. 1636년〔丙子〕12월 오랑캐들이 몰래 압록강을 건넌 사실이 한양에 바로 전해졌다. 공께서는 변고를 들으시고 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순찰사와 자산(慈山)에서 만났다. 유림(柳琳)은 병사를 거느리고 험지를 점거하고 오랑캐들의 귀로를 끊고자 하였다. 공께서 와서 깨우치게 말하시길 "지금 오랑캐가 천리 길을 달려와 그 기세가 매우 예리합니다. 또한 근왕병은 아직 모이지 않았고, 경성의 세가 약하니 성패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의 위기가 이와 같이 심각하니 장군께서는 갑옷을 벗고 칼을 매지 않고 국난을 향해 급히 달려가니 어찌 죽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림이 비록 이를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심히 증오하여 군대를 나누어 진격하여 이천(伊川) 옥등역(玉燈驛)에 이르러 오랑캐 100여 명을 베고, 그들의 수레와 군마를 빼앗으며 사졸들에게 음식과 술을 하사하셨다. 전투를 벌이다 김화(金化)에 이르러 홍공께서는 들에 진을 치시고, 여러 군대들이 모두 이에 소속되었다. 얼마 뒤에 오랑캐 1만여 기(騎)가 (진의) 앞을 공격하고, 또 종령(從嶺)의 뒤에서 말을 몰고 왔다. 홍공은 군대에 일제히 화하(火碬)를 발사할 것을 명하였고, 격전이 벌어졌다. 공께서 허공과 함께 내외에서 협공하자 적의 기세가 조금 수그러졌다. 갑자기 동남풍이 크게 불자 지붕이 젖혀지고, 나무가 부러지며 화살이 모두 흩어졌다. 이에 오랑캐가 전투를 지휘하는 것이 더욱 급박해졌고, 또한 무장한 기병이 좌우로 가로지르자 여러 군사가 모두 흩어졌다. 중군(中軍) 이일원(李一元)이 발마(撥馬)를 타고 먼저 도망가자 공께서는 큰 소리로 성토하시길, "너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서도, 죽음을 기다리지 않느냐?"라고 하며 검

498) 모문룡(毛文龍) : 모문룡[毛文龍, 1579~1629]은 명나라 장군으로 1623년 후금군에 쫓겨 평안도 철산의 가도에 군대를 주둔하였다. 한편 모문룡의 가도 주둔은 정묘호란의 발발 원인이 되었으며, 그 또한 가도에 주둔하면서 조선에 많은 물자를 요구하는 등 폐단을 일으켰다. 1629년 6월 원숭환에 의해 직무태만과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참수 당하였다.

을 뽑아 크게 소리치면서 오랑캐 진영 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 들어가 20여인의 목을 베고, 공 또한 대여섯 군데의 상처를 입었다. 홍공께 "오랑캐 군대의 기세가 점점 성해지고, 우리 군대는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다. 유림군의 군권을 빼앗아 이곳에서 결사항전 하겠습니다."라고 고하였다. 홍공께서 답하시길 "지금 유림의 군대를 멈춰 세우고, 한 번 패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우리를 위하여 쓰겠는가. 오늘 나와 장군이 함께 죽을 뿐이다."고 하였다. 마침내 홍공께서는 의자 위에 올라 오랑캐를 쏘고, 공께서는 의자 아래에서 또한 오랑캐를 쏘니 오랑캐들이 모두 활로 응전하였다. 화살을 모두 소진하자 공께서는 칼을 들고 앞으로 달려 나가 또 10여 기를 베고 힘이 다하여 돌아가셨으니 이 때 공의 나이는 43세였다. 아! 공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남들보다 뛰어나시니 어릴 때부터 무예를 익히고, 무관이 되셨다. 재주는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시고, 용기가 삼군(三軍)에 으뜸이다. 혼조의 어지러운 정사를 만나서는 벼슬을 버리고 산으로 돌아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지혜가 한(韓)의 어진 신하에 방랑과 같았다. 낚싯대를 서쪽 호수의 파도에 드리워서 부모님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구하고자 했으니 그 효심이 도사행(陶士行)[499]이 물고기를 잡아 부모께 바친 것과 같았다. 군대가 요새 밖에 고립되자 반드시 적을 없앨 것을 맹세하기를 조사아(祖士雅)와 같이 하였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죽음을 맹세하며, 국가에 보답하고자 하기를 장회양(張睢陽)과 같이 하였다. 아! 공으로 하여금 일찍이 군문[戎閫]에 진을 치고, 군대를 경영하여 정예병을 이끌고 요해처를 점거하게 하였다면 오랑캐들이 어찌 빠르게 말을 몰아 올 수 있었겠는가? 공께서 충의를 떨쳐 그를 1려(一旅)의 군대를 이끄는 편장(褊將)으로 삼아 만 여명의 오랑캐를 죽이니 정예병을 꺾을 수 있었으니 그 공이 크다. 창졸간에 모래 폭풍이 하늘을 가리니 삼군이 넋을 잃었고, 탄환과 화살이 과녁에 맞지 않으니 하늘의 뜻이 이와 같았다. 반드시 패할 줄을 알고 있다면 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영광이 되고, 사는 것을 견딘다면 치욕이 되니 봄바람과 밝은 해가 어찌 여기에 능사가 되겠는가. 충성스러운 마음과 의로운 용기는 평소 축적해온 바이고, 행동하는 것에 의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때를 맞아 충의를 떨쳐 후세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용맹한가! 공업이 나라의 역사에 특별하게 드러났는데, 이 때 유림부터 권세가 있는 재상과 간극이 있었다. 『존주록』과[500] 『김화전망비문』에는 두어 줄 순절했다고 적혀있을 뿐이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7대조 동은공(東隱公)께서는 공의 조카이신데, 개천의 임소에 있으면서 공을 따라 달려가 금화에 이르러서 역전하시다 3발의 화살을 맞고 계곡 사이에서 말에 떨어져 돌아가셨다. 이내

499) 도사행(陶士行) : 진나라 명제 때의 도간(陶侃, 257~332)을 지칭한다. 그는 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으로 왕돈(王敦)의 반란과 소준(蘇峻)의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를 인정받아 장사군공(長沙郡公)에 봉해졌다.

500) 『존주록(尊周錄)』 : 숙종 42년(1716) 이수이(李壽頤)가 조선 내 존주대의(尊周大義)와 관련된 제반 사실을 간추려 편찬한 책으로 총 9권 5책의 분량이다.

가정(家丁)과[501] 더불어 공의 주검을 시체가 쌓여있는 가운데에서 찾아 양주 온곡산(溫谷山)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 공은 충렬로써 공조참판에 추증되었다. 해풍김씨 현령의 따님과 혼인하여 딸 한 명을 두었는데, 이방헌(李邦憲)과 혼인하였다. 밀양박씨의 영애를 후처로 맞이하였다. 아! 공께서는 일찍이 아들이 없으셔서 후사가 없기에 방손(傍孫)에게 함께 제사를 지내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또한 절박하고 애통하다. 완식(完植)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어찌 감히 공에 대해 말을 할 수 있겠으며, 세월이 오래 되어 공의 일이 진실로 침미(沈微)하여 드러나지 않을까 두렵다. 이 때문에 이를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니 공에 대해 말을 해 줄 수 있는 군자를 기다린다.

○ 价川公行狀

從八代祖, 諱賢後, 字公輔, 具氏系出, 綾城鼻祖, 諱存裕, 高麗三重大匡檢校上將軍, 諱藝, 官門下侍中, 沔城府院君 諱禕寶文閣大提學, 諡文貞, 諱成老, 佐大祖大王, 爲江原道都元帥, 諱致洪 官都摠管知中樞, 諡胡襄, 諱壽永, 靖國勳蔭 戶曹判書, 綾川君 諱澣尙淑靜翁主, 封綾昌尉, 卽公之曾祖也. 祖諱思謹, 敦寧府奉事, 考諱宖 當宣廟倭亂之後, 擇有文武才者, 擢公爲宣傳官. 見昏朝廢母之議, 遂謝仕以歸, 號養閒齋, 仁廟以屢徵不就, 公生於萬曆乙未十月二日. 剛毅多大略, 身長八尺, 膂力過開三石弓, 人服其雄勇, 年甫弱冠中武科, 初拜司僕丞, 時光海政亂, 慨然涕泣曰, 人道滅三綱絶矣. 解官赴平邱江舍, 扁舟釣魚, 以供親爲樂, 綾城諸公, 謀翊戴密告之, 公謝不應, 及西憂方撓, 仁祖素重公拜爲龍川府使, 忤天將毛文龍罷歸田里, 日夜讀兵書, 輒語及邊事, 有敵愾廓掃之志. 時滿州日盛議僭號, 朝廷斥之, 虜使遁去, 朝野恐懼, 若將旦暮被兵者, 上乃以重兵守西, 以洪公命耆爲巡察使, 公亦應選, 拜价川郡守及到官, 銳意戎務, 召募軍校, 廣詢機要, 多蓄軍粮, 汲汲然如賊之臨境. 或謂公曰, 方今西方有事, 將軍不以此時圖免乎. 公笑曰, 男兒爲將, 裹尸馬革, 上答天恩而已, 人以此益重之, 丙子十二月, 虜暗渡鴨江, 直赴漢師, 公聞變, 領一千軍, 會巡使于慈山柳琳, 欲擁兵據險絶, 其歸路, 公往諭之曰, 今虜千里長驅, 其鋒甚銳, 且勤兵未集, 京城勢弱, 成敗未知, 今國危如髮, 將軍不捲甲束刃, 急赴國難, 惡得免鈇鉞之誅乎. 琳雖謝之深惡之, 乃分軍俱進, 至伊川玉燈驛, 擊斬虜數百級, 奪其車馬, 饗士卒, 轉戰至金化, 洪公陣于野, 諸軍皆屬焉. 俄而虜萬餘騎犯前, 又從嶺後馳來, 洪公令軍, 一齊發火, 碓鏖戰一場, 公又與許公輅, 內外夾擊, 賊勢稍却, 忽東南風大作, 拔屋折木, 矢丸皆散. 於是虜督戰益急, 又以鐵騎橫截, 左右諸軍皆散, 中軍李一元撥馬先逃, 公揚聲叱曰, 汝受國厚恩, 顧不能死耶. 遂挺劒大呼, 馳入虜陣, 斬二十餘級, 身亦被五六創, 公曰, 虜兵漸熾, 我軍盡散急, 柳琳軍奪其權, 決一死戰, 洪公曰, 今琳按兵不救一敗, 如安爲我用乎. 今日吾與將軍, 共得死所矣. 遂坐椅上射虜, 公於椅下, 又射

501) 가정(家丁) : 집에서 부리는 남자 일꾼을 뜻한다.

虜，虜皆應絃，以倒矢盡，以釰直前，又斬十餘騎，力竭以死，時年四十有三．嗚呼，公天資卓犖，超拔群彙，早踐弓馬之場，遂參靺韋之例，才雄萬夫，勇冠三軍，値主昏政亂之日，棄官還山，不以自累，則智如韓良，臣之放浪，垂下釣西上湖滄波，養親爲樂，則孝如陶士行之，饋以魚鮓，孤軍塞外，誓必廓淸，如祖士雅，身當一隅，矢死報國，如張睢陽．嗚呼，使公早鎭戎閫，經理軍國，領精兵據要害，虜安能投鞭飮馬乎．公忠義奮發，以褊將一旅之師，躡强虜數，萬衆猶能挫，其輕銳奇功可立，而猝遇暴風塵沙，漲天三軍喪魄，丸不中命，矢不貫革，此天實爲之，知其必敗，則乃視死爲榮，忍生爲辱，春風白日之能事，於是焉畢矣．其忠肝義膽，雖平日之素所蓄積，而行之不疑爲當日立慤之首，垂後世不朽之名，何其壯也．功業宜特著於國乘，而時與柳琳及權宰，有隙尊周錄，金化戰亡，碑文只有數行殉節而已，豈不痛惜也．七代祖東隱公，卽公兄子也．適在价川任所，隨公赴難，至金化遇魯，逆戰連中三矢，墜馬於溪磵，死而復甦，乃與家丁尋公屍於積屍之中，還葬于楊州，溫谷山午坐之原，公以忠烈，贈工曹參判，配海豊金氏縣令瑩女，有一女，適李邦憲，繼配密陽朴氏，時英女．嗚呼 公早無子 因無嗣，有傳敎傍孫，挾祀之令，尤切愴痛，完植猥以不肖， 豈敢有言於公， 而窃恐愈久而愈遠， 公之事實因沈微無著， 故謹記梗槪，以俟後之，立言君子．

영종첨사에게 답하는 글

일찍이 귀하께 가서 인사드리지 못하여 마음이 불편하였는데, 먼저 베푸신 은혜로운 편지를 받들어 읽고, 감사함을 삼가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귀하의 체후를 살펴보니, 지금 만사형통하시다니 위안이 됩니다. 또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 제가 틈나는 대로 찾아뵙고, 직접 위로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하예(下隷)[502]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비록 이것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큰 파문을 일으켰으니 진실로 흠결의 일입니다. 처음에 지시대로 잡아 보내지 못한 것은, 입장을 바꾸어 용서하시고 그 뜻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시 잘못한 하예를 엄히 징벌한 것은 귀하의 장교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첩정(牒呈)에 상세히 진술한 것은 관문(關文)에 사람들이 당하지 않은 경우를 당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하루라도 관리들 및 백성들과 대면하겠습니까? 여러 차례 사직을 청하는 단자를 올려, 물러나기를 결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영에서 거듭 해임을 허락하지 않았고, 함께 협력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 본래의 뜻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성념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두 고을은 수륙으로 서로 표리를 이루는 곳에 있고, 신뢰는 언덕과 산보다 무겁고 의리는 강과 바다보다 깊으며, 국사에 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 사사로운 옛 일로 인해 화합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상여(相如)가[503] 염파의 수레를 피하고, 염파(廉頗)가[504] 가시나무 매를 졌으며,[505] 양창(楊瑒)이 명령을 거역한 것을 사마천(司馬遷)이 잘했다고 칭찬하였으니, 옛 사람들도 왕사(王事)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오로지 체례(體禮)로써 절교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두 고을의 하예(下隷)들이 혐오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겨 먹는 것을 능사로 삼았으니, 관리의 체모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각자의 하예(下隷)를 엄히 단속하여 이러한 폐해가 영원히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삼가 올립니다. 예를 다 갖추지 못하였습니다만, 삼가 살펴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502) 하예(下隷) : 관아 등에 딸려 심부름 등의 일을 하던 하인을 가리킨다.

503) 상여(相如) : 인상여(藺相如)로, 전국시대에 염파와 같이 조(趙)나라의 혜문왕(惠文王)을 섬겼는데, 외교에 능숙하며 염파와 같이 교우로 유명하다.

504) 염파(廉頗) :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명장이며, 인상여와 교우가 두터워 생사를 같이하였다.

505) 부형(負荊) : 가시나무 매를 등에 진다는 뜻. 전국시대 조나라의 인상여가 재상에 임명되었을 때, 장군 염파가 승복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인상여를 만나기만 하면 모욕을 가하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국가의 일을 우선하고 사감(私憾)은 뒤로 돌린다는 인상여의 말에 감복하여, 윗옷 한쪽을 벗고 가시나무 매를 등에 지고는 빈객(賓客)의 주선으로 인상여를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하며 문경지교를 맺었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 答永宗僉使書

曾未趍拜軒屛，下懷詹切，卽伏承先施惠書，伏感無比．謹審制梱體候，此時萬安伏慰．且祝無任下誠，下生間作覲行，親節粗寧，私幸何達．第下隷闘閧，雖是纖芥，激成風波，誠一欠事．初不能依教捉送，易地恕燭，庶諒其意，而其時嚴懲鄙隷，貴校所目覩也．牒移詳陳者，而關文遭人之所未遭也．豈敢一日對吏民乎．屢呈辭單，期於斥退矣．上營兩鮮而未許，下教隨切於共濟．侍生之初意，亦不外此也。豈不感激於盛念耶．大抵兩邑處在水陸，相爲表裡，信重於丘阜，義深於江海，一心於國事，何暇以私舊失和尤．相如避車，廉頗負荊，楊瑒拒命，司馬稱善，古人亦以王事爲先，專不以體禮，斥絶也，明矣．兩邑下隷，醞釀嫌怨，以各勝爲能事，不顧官長體貌者，誠不慨然乎．從今以往，各自嚴束官隷之永無此敝．

伏望伏望，餘不備，伏惟下鑑，上謝候禮．

무릇 장수된 자는 몸가짐을 예로써 하고, 윗사람 섬김을 충성으로 하며, 정도를 가지고 융통할 줄 알고, 강하면서 삼갈 줄 알며, 인자하면서 단호할 줄 알고, 과감하면서 자세히 살필 줄 안다. 작은 죄는 숨기고, 큰 잘못은 단호히 처리한다. 명령을 어기는 자는 그 친족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며, 공이 있는 자는 그 원수라도 기억하지 않는다. 늙은이를 돕고, 젊은이를 어루만지며, 고아를 위로하고, 상처 입은 이를 불쌍히 여기며, 두려워하는 이를 안심시킨다. 강한 자는 억누르고, 횡포한 자는 죽이며, 포악한 자는 꺾고, 지혜로운 자는 가까이하며, 용감한 자는 사용하니, 이것이 장수의 도이다. 혹여 간언을 거부하면 영웅은 떠나고, 좋은 책략을 따르지 않으면 책사들은 숨게 된다. 선악이 뒤섞이면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혼재하고, 상벌이 어지러우면 기강이 해이해진다. 기쁨이 많으면 위엄이 없어지고, 분노가 많으면 인심을 잃으며, 말이 많으면 기밀이 누설되고, 좋음이 많으면[좋다고만 하면] 지혜가 가려진다. 너그러우면 무리가 해이해지고, 포악하면 무리가 원망하며, 전횡하면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아랫사람의 공이 없으며, 참소를 받아들이면 바른 사람이 근심하고, 사사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간사한 사람이 진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여색을 멀리하는 것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의심을 피하고 의혹을 멀리하는 것은 공을 세우기 위함이며, 선한 말을 듣고 참소를 배척하는 것은 먼 곳에서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함이고, 먼저 계획하고 나중에 행동하는 것은 창졸 간의 급한 일에 대처하기 위함이며, 먼저 믿고 나중에 말하는 것은 아랫사람을 복종시키기 위함이고, 확실히 형벌하고 반드시 상을 주는 것은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며, 현재를 밝히고 과거를 거울삼는 것은 무리를 돌보기 위함이고,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정함을 따르는 것은 나라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오직 이 한 부대(旅)의 장수는, 파면을 마음대로 할 권한과, 술을 마시게 할 권한이[507] 없으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도 임의로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군사들에게 한 마음으로 맹세하게 하여 팔이 손가락을 사용하듯,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하게 해야 한다. 율을 엄히 하고, 법을 바르게 하며, 끊어져도 분열하지 않게 하고, 물러나도 흩어지지 않게 한다. 임기응변은 신같이 하고, 명령은 서리같이 엄하고, 진격은 바람처럼 빠르며, 퇴각은 산을 옮기듯 침착하게 해야 한다. 전투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와 방비가 없는 곳을 공격하고, 방어에서는

506) 내삼청(內三廳) : 조선후기의 금군(禁軍) 중 하나로 국왕 호위와 궁궐 수비를 담당하였던 군문이다.
507) 투료음하(投醪飮河) : 한 병의 술을 강물에 던져 군사들로 하여금 받아 마시게 한다는 뜻으로, 사졸(士卒)과 더불어 고락(苦樂)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숙히 기운을 모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한다. 이것이 공수에 여유가 있는 자라 할 수 있다. 병사는 조용함을 중시하고 많음을 추구하지 않는다. 만약 북이 울리고 징이 멈춰도 진퇴를 알지 못하고, 깃발이 올라가고 깃발이 내려가도 일어남과 앉음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어지러운 군대라 한다.[508] 어찌하여 '어모절충(禦侮折衝)'에[509] 미칠 수 있겠는가? 비록 숙위에 익숙한 금군이라도 항상 단속하는 것 만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 기록하여 스스로 경계한다.

○ 內三廳記

夫爲將者, 持身以禮, 事上以忠, 正以能変, 剛以能恤, 仁以能斷, 勇以能詳. 匿其小罪, 决其大過. 犯令者, 不赦其親, 有功者, 不記其讐. 老者扶之, 少者撫之, 孤者吊之, 傷者哀之, 懼者寧之, 强者抑之, 横者殺之, 暴者挫之, 智者昵之, 勇者使之. 是謂將之道也. 夫或拒諫則英雄去, 良策不從則謀者蔵, 善惡尋則賢愚混, 賞罰乱則綱紀弛. 多喜則不威, 多怒則人心难, 多言則機洩, 多好則智蔽. 寬則衆懈, 暴則衆死, 專權則不有咎, 自善則下無功, 納讒則正人难, 納私則奸人進. 是故, 賤貨揮色所以自潔, 避嫌遠疑所以建功, 聽善斥讒所以來遠, 先度後作所以應卒, 先信後言所以伏下, 信刑必賞所以正人, 明今鑑古所以照衆, 去私徇公所以存國也. 惟此一旅之將, 無去汰專制之權, 投醪飮河之權, 出陟藏否不能擅行. 然誓士一心, 如臂使指, 如影從形. 嚴律正法, 絶而不难, 却而不散, 機應如神, 令號如霜, 進如風驅, 退如山移. 戰則出其不意, 攻其無備. 守則肅靜, 貯氣固其必爭. 此謂攻守有餘者也. 兵務於靜, 不務於多, 若鼓鳴金止, 不知進退, 旗擧旂低, 不辨起伏, 此謂悖軍. 奚及於禦侮折衝之爲裁. 雖鍊宿禁兵, 莫如常加團束. 故記之壁上以自警焉.

508) 고(鼓)·금(金)·기(旗·旂) : 조선후기에 도입된 『紀效新書』와 『練兵實紀』에 따르면, 북(鼓)과 징(金)은 각각 진(進)과 퇴(退)의 행동을 지시하는 소리 신호이며, 기(旗·旂)는 나아갈 방향과 좌(坐)와 작(作)의 행동을 지시하는 시각 신호이다.

509) 어모절충(禦侮折衝) : 어모(禦侮)는 외부로부터 당한 모욕을 막아낸다는 뜻이고 절충(折衝)은 적의 충(衝 : 戰車의 일종)을 후퇴시킨다는 뜻으로써,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상대나 적의 침입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대원군께 축성(築城)의 방략을 아뢰는 글

본 고을은 해문(海門)의 인후(咽喉)로서 서울에 가깝지만 산골짜기의 험준함과 성곽의 견고함이 없으며, 선박의 침입을 먼저 받았으나 실로 중진(重鎭)의 위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을의 남쪽 산에 있는 옛 성은 옛적 1592년〔壬辰〕에 고을 수령 김민선(金敏善)이 앞장서서 토병을 창의하여 이끌고 왜구를 격파한 곳으로, 옛 성의 형지(形址)가 완연합니다. 산세가 높고 험준하며, 일곱 포구를 제어할 수 있고 여덟 섬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해문(海門)에서 바라보면 확실히 범할 수 없는 형세가 있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평탄한 땅에 이러한 천연의 험준함이 있음은 족히 국가의 보배가 될 만한데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버려두는 것은 실로 뜻있는 자가 애석해할 일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우선 북산을 점거한 까닭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평야가 적어서 험준한 곳을 점거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천하가 두려워하여 감히 넘보지 못하였습니다. 당나라가 강성하였다 하더라도, 당나라군은 오히려 안시성과 압록강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외에 전후 시기에도 적은 병력으로 대승을 거두었으니, 권율(權慄)〔權元帥〕의[510] 행주(幸州), 김시민(金時敏)의 진주(晉州), 이정암(李廷馣)의 연안(延安), 이복남(李福男)의 웅치(熊峙), 유림(柳琳)의 백전(栢田), 정충신(鄭忠信)의 안현(鞍峴), 김준룡(金俊龍)의 광교산(光敎山), 신각(申恪)의 해현(蟹峴) 같은 경우, 험준한 곳을 점거하고 성에 의지하여 뛰어난 공로를 세웠으니, 이는 모두 전례의 분명한 바입니다. 지금 이 성을 쌓아 군량을 비축하고 병사를 훈련하여, 이로써 도성 서쪽 변의 방어막으로 만들고, 또한 진무영 강화해협 하류의 군사력을 도우면 대체로 전투와 방어의 장기적인 방책이 될 것입니다. 외람됨을 무릅쓰고, 농한기에 한 고을의 사민이 힘을 모아 성을 수축하고자 합니다.

○ 上雲宮築城方略書

本邑爲海門咽喉, 京師肘腋, 無山谿之險, 城郭之固, 先受海舶之出沒, 實無重鎭之威勢. 然邑之南山古城修築事, 曾有所伏達. 而此城昔在壬辰, 邑倅金敏善, 倡率土兵, 奮義破

510) 원수(元帥) : 전쟁 등 유사시 병권(兵權)을 위임받아 군사를 지휘 총괄하던 장수(將帥)이다. 권율은 임진왜란 당시 도원수(都元帥)에 임명되어 전쟁 중반부터 종전까지 조선군을 총지휘하며 왜군의 침략을 저지하였다. 1593년(선조 26) 행주 전투에서 3,800여 명의 조선군과 민인을 동원하여, 3만 여 명의 왜군을 궤멸시킨 전과를 거둔 바 있다.

倭之地，形址宛然．山勢高峻，控制七浦，俯瞰八島．自海門望之，儼然有不可犯之勢．濱海平夷之地，有此天設之險，足爲國家之寶，等閑棄之，實爲有志者所惜．古人所以先據北山者，此也．我國多山少野，利在據險，故天下畏之，莫敢覬覦．以若隨唐之強，尙有安市鴨江之敗．前後孤軍大捷，如權元帥之幸州，金時敏之晉州，李廷馣[馣]之延安，李福男之熊峙，柳琳之栢田，鄭忠信之鞍峴，金俊龍之光教山，申恪之蟹峴，莫不據險依城，以成奇功，此皆前鑑之孔昭者也．今築此城，積粮鍊兵，以爲都城西隅之屛蔽，亦助沁營下流聲勢，庶爲戰守之長策也．不避猥越，玆敢敷陳農隙，一邑士民，并力修築事．

대원군께 설진(設鎭)의 방략을 아뢰는 글

본 고을은 연해의 여러 봉우리들에 요망(瞭望)할 곳을 널리 설치하고, 항상 엄중히 경계하는 방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양(內洋) 일곱 포구에 한정될 뿐, 외양(外洋)의 일에 대해서는 막연히 알 수 없어, 진실로 답답합니다. 덕적진(德積鎭)은 원래 본 고을에 속한 섬으로, 팔미도(八尾島) 외곽에 위치해 남북을 제어하고 안팎을 함께 관리하니 실로 해문(海門)의 인후(咽喉)이자 본 고을의 날개입니다. 다만, 그 진장(鎭將)의 성기(聲氣)가 생소(生疎)하여, 위급한 경보와 첩보의 시기에 쉽게 지체되고 소홀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본 고을의 장교 중 충성스럽고 신중하며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근면히 일해 온 자를 가려 뽑아, 본 고을에서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 조정에 보고하여 덕적진의 지휘관으로 삼는다면, 그는 본 고을의 마음 졸이는 정성으로 임무를 행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장교가 범범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본 고을의 장교들이 비록 충의롭고 과감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가난하고 급료가 박하여 스스로 분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발하여 임명하는 은전이 베풀어진다면, 큰 상 아래 반드시 비범한 공적이 있을 것이며, 이는 한 군중의 심지와 담력을 고취시킬 수 있어 외양(外洋)의 귀와 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물포(濟物浦)는 곧 내양(內洋)의 요충으로, 옛날에 만호진(萬戶鎭)이[511] 있었으나 언제 폐지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반드시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덕적진(德積鎭)의 1,000냥을 제물포(濟物浦)로 옮겨, 이로써 안팎이 서로 돕게 하면, 만전의 계책이 될 듯합니다.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삼가 기다리겠습니다.

○ 上雲宮設鎭方略書

本邑沿海諸峰, 廣設瞭望之所, 常愼戒嚴之方. 此不過內洋七浦, 至於外洋事, 漠然不知, 誠爲沓沓. 德積鎭, 自是本邑屬島, 在於八尾之外, 控引南北, 管攝內外, 實爲海門咽喉,

511) 만호(萬戶) : 종4품의 무관(武官) 벼슬. 조선은 진관체제(鎭管體制)에 따라, 각도의 수군·병마진을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 체제로 편성하였다. 주진은 수군·병마절도사가, 거진은 수군·병마첨절제사, 제진은 수군·병마동첨절제사, 수군·병마만호가 지휘하였다. 이때, 만호는 육군의 병마만호(兵馬萬戶), 수군의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있었으며, 제물포 만호진은 수군만호진을 의미한다.

本邑羽翼. 但其鎭長聲氣生疎, 急警牒報之際, 易有愆滯忽畧之歎. 今揀本邑將校中, 忠謹解事, 勤勞積久者, 自邑報營, 自營報于銓曹, 以爲該鎭之長, 則其爲本邑憧憧之誠, 不似京校泛泛之掾. 且本邑將校輩, 雖有忠義果敢之人, 貧局薄料, 不能自振. 若蒙甄拔擇用之典, 則重賞之下, 必有非常之功, 足以激一軍之心膽, 可以作外洋之耳目. 又此濟物浦, 卽內洋要阨, 古有萬戶之鎭, 未知何時革罷, 而此亦不可不復舊. 德積鎭況中一千兩, 移付於濟物, 以爲內外交須, 則似爲萬全之策. 伏俟, 處分.

대원군께 양세(兩稅)의 정퇴(停退)를[512] 아뢰는 글

지금 이 전세대동을[513] 혁파하여 공물주인이[514] 조정으로부터 나오게 하였는데, 백성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을 각 마을에 효유하니 몹시 좋아하며 즐거워 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상정전(常定錢)〔詳定錢〕은[515] 지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본색미(本色米)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수납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고을은 흉년을 들어 천 명의 토병(土兵) 중 태반이 진휼 대상의 가호이며, 집은 텅 빈 것과 같고[516] 곡식은 비축된 것이 없어 모두가 짐을 지고 서 있는 형편이니, 장차 어지러이 흩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셔서, 특별히 시의에 합당한 조치로써, 옛 상평(常平)의 제도에 따라 미곡의 시가를 절충하여 곡가가 조금 쌀 때 돈으로 부세를 거두어들이고, 가을 추수기에 미곡이 흔해질 때를 기다려 또다시 시가로 쌀을 매매하게 해준다면, 조적(糶糴)의[517] 이로움을 잃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운송의 비용도 들지 않게 되니, 백성들이 안정을 되찾고, 은택을 노래하며 칭송할 것입니다.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삼가 기다리겠습니다.

○ 上雲宮兩稅停退書

今此田稅大同之革罷, 主人寔出朝家, 字恤之盛念, 曉諭防曲, 莫不蹈舞歡忭. 常定錢則方此收納, 至於本色米, 非不刻期督捧. 本邑運值歉荒, 一千土兵太半賑戶, 室如懸罄, 粟無貯甁, 擧皆荷擔而立, 將有離散之慮. 伏望, 恩上加恩, 惠中添惠, 特軫時措之宜, 依古常平之制, 折裏時價, 而稍歇之代錢收捧, 待秋熟穀賤, 又以時價貿米, 則旣不失糶糴之利, 亦不用轉運之費, 而民得奠安, 歌頌惠澤.伏俟, 處分.

---

512) 정퇴(停退) : 부세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513) 전세대동(田稅大同) : 전세(田稅) 대동미(大同米)를 뜻한다.
514) 주인(主人) : 공물주안(貢物主人)을 뜻한다.
515) 상정전(常定錢, 詳定錢) : 상정법(詳定法)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돈이다. 상정법은 대동법(大同法)의 일종으로 전지(田地) 1결(結)에 대해 쌀 12두(斗)를 징수하였는데, 이후 별수미(別收米) 3두를 더하여 15두를 징수하였다.
516) 실여현경(室如懸磬) : 집안이 경쇠만 덩그렇게 매달아 놓은 것처럼 아무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517) 조적(糶糴) : 고려 및 조선시대에 상평창(常平倉) 등의 국가 기관에서 쌀을 비축하고 배포하는 행위. 주로 물가의 조절이나 빈한한 농민의 진휼을 위해 행해졌다.

남양 홍여천의 옥사(獄事)에 대한 전교를 받들어 조사 보고한 장계

무릇 옥사를 판결하는 법은, 만약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하면 죽을 자의 억울함을 초래하기 쉽고, 만약 엄한 법률에 적용하면 살아 있는 자가 부당하게 얽힐까 염려됩니다. 이 옥사는 벌써 두 차례 검토를 거친 후에 결론이 이미 내려진 지 6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오래된 옥사는[518] 음모가 생기는데, 더구나 사건의 주요 당사자가 사망하고 친족이 흩어져 조사에 응할 기약이 없으니, 면밀한 조사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며, 비록 의견을 갖추어 그 위증을 구별해 내려 해도, 그 형세 역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저 홍여천은 본래 성격이 사납고 독하며, 토호(土豪)로서 무력을 행사하여 한 마을 사람들이 이리와 승냥이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고, 여럿이 입을 모아 뱀과 전갈이라 지목하지 않는 자가 없다. 어떤 관청의 문에 걸린 괘서는 누구에게 의심을 둔 것이겠습니까? 집집마다 부녀자들의 거처에서 비롯된 추문은 어디에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가 술에[519] 취해 성정(性情)을 잃고 갑자기 이유 없는 의심과 분노를 일으켜, 불같은 노여움이 험악하게 솟아 이 변덕스러운 해괴망측한 행동을 만들고, 결국 젊고 건강한 여인이 그날 밤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 참으로 참혹하다. 처음에는 갑자기 증오하여 난타하고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다가, 나중에 박우승을 붙잡고 간청하니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안(文案)을 교열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세밀하게 조사해 보니, 의심할 만한 형적은 수없이 많았으나 용서할 만한 단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의 검안(檢案)을[520] 두루 살펴보니, 일찍이 중상(重傷)의 흔적은 없었고, 간혹 검붉고 단단한 상처가 있었지만 역시 즉사하는 부위는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밤나무 몽둥이로 때린 자리는 어깨뼈 부분이었는데, 초검의 검안에는 '검붉다'라고 하였고, 복검의 검안에는 '부패했다'고 하였으니, 모두 중상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목격자,[521] 오로지 성화(聖化)와 영임(永任)만이 이 옥사의 중요한 증거였는데, 성화의 공초(供招)에 따르면, 홍여천이 몽둥이로

518) 노옥(老獄) : 오래된 옥사(獄事). 어떤 사건을 판결 내리지 못해 지체되는 것을 뜻한다.
519) 광약(狂藥) :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 즉 술을 가리킨다.
520) 검안(檢案) : 시체를 검시(檢屍)한 기록이다.
521) 간증(看證) : 범죄 행위를 눈으로 직접 보아 증거하거나, 또는 그 증인을 뜻한다.

홍씨의 여인을 때렸다고 하였으나, 처음에 그 자리에서 보지 않았는데, 지금 어찌 감히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당초에는 공초를 만류하였다고 하니, 모두 중간에서 꾸며낸 글로[522]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유도하거나 혹은 엄한 형벌로 협박하며 수차례 심문하였으나 공초의 진술은 한결 같았습니다. 영임의 공초에 따르면, 밤에 깊이 잠들어 구타를 당하거나 독약을 마시게 한 형태의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가, 혹은 밤나무 몽둥이로 세 번 어깨를 맞아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고, 혹은 간장을 몇 그릇 마시고 계단 앞에 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운(大運)의 위협이 두려워, 몽둥이로 때려 죽음에 이르렀다고 고한 것입니다. 잡아 온 대영(大永)의 간청한 말에 따르면, 일찍이 몽둥이로 구타한 적이 없다고 고하였습니다. 천한 계집종의 몰각한 공초에는 앞뒤가 없었고, 관아의 엄중함에 놀라 혼이 나가 있어 좋은 말로 꾀어보기도 하고 엄격한 형정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한 번의 심문에서조차 여러 차례 말이 바뀌어 목격자의 공초는 역시 신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검장(檢狀)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정황을 살펴보니, 홍씨 부인은 남편의 오랜 병환에 시달려 이미 가정의 즐거움이 없었고, 가세가 어려워 생활해 나갈 길도 전혀 없었습니다. 도움 받은 음식으로는 항상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 그녀는 오히려 삼키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니, 오래도록 살고자 하는 미련이 없었는데, 특별히 죽을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음란하고 양심이 없다는 등의 비난과 모욕이 골육지친(骨肉至親)의[523] 입에서 뜻밖에 나왔으니, 편벽된 성향의 여인이 이러한 명예의 훼손을 겪고, 분노와 수치로 죽고 싶어졌을 것이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평소에 배고픔을 견디던 마음이, 마지막까지 추잡하게 헐뜯고 욕보였으니, 한밤중 아무도 없을 때 항아리에 있는 간장을 흠뻑 마시고, 어찌 쓰러져 영면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법률에 복로치사(服鹵致死)[524] 조항이 있는데, 소금과 간장은 모두 염독이 있습니다. 이 옥사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 복로치사조에 해당합니다. 시장(屍帳)에[525] 두 눈이 감기고 입에서 흰 거품이 흘렀다고 합니다. 두 눈이 감긴 것은 법문의 '간수를 먹고 죽은 조항'〔服毒條〕에 부합하며, '구타로 인해 죽은 조항'〔被打條〕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흰 거품이 흐른 것은 분명히 염독이 흘러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당시 자변지법(煮汁之法)을[526]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두들겨 맞은 형적은 이미 의심 가는 부분이 많고, 간장을 마신 형적은 또한 근거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이 옥사는 실로 오로지 구타로 귀결짓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에 홍여천(洪汝天)의 간음이 없었다면 어찌 현장에서 소란이 벌어졌겠습니까? 만약 그날의 싸

522) 두찬지문(杜撰之文) : 전거나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문자를 쓰거나 오류가 많은 글을 뜻한다.
523) 골육지친(骨肉至親) : 가까운 친척이나 혈육을 뜻한다.
524) 복로치사(服鹵致死) : 간수를 마시고 죽음을 뜻한다.
525) 시장(屍帳) : 시체(屍體)를 검안(檢案)한 증명서를 가리킨다.
526) 자변지법(煮汁之法) : 입에서 나온 액체를 끓여 소금이 염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움이 없었다면 어찌 홍씨의 부인이 죽음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러하나 저러하나, 홍여천의 죄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임의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홍여천의 경우, 도로 포박하여 구금해야 합니다. 영임의 경우, 당초 살인 사건이 밤중의 어두침침한 곳에서 일어났고, 부녀자들의 거처에서 비롯된 애매한 이야기로 홍여천이 구타한 것과 홍성화가 개입해 만류한 것이 모두 입증되었으니,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조사한 관리가 어떻게 명확히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이가 어려 잘 알지 못하니 사실관계를 깊이 따지기 어렵고, 진술을 번복하여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러하나 저러하나, 일반적인 목격 증언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문 즉시 풀어주거나, 계속 엄중히 수감하여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홍성화의 경우, 시종일관 변명을 해대며 조사에 복종하지 않으니, 매우 통탄할 노릇입니다. 농사일이 한창인 시기에, 죄인을 구속해 두는 것 역시 곤란합니다. 박내승(朴乃承), 박쾌득(朴快得)의 경우, 싸움이 일어나 구타가 시작된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홍씨 부인〔召史〕과[527] 수숙(嫂叔)과 친질(親侄)의 관계로 사적인 감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둘 다 임시로 풀어주고,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인천부사가 임소에서, 관련 상황을 치보(馳報)합니다.

○ 南陽洪汝天獄事 奉承傳敎査報狀

奉敎査南陽洪汝天獄事狀. 夫斷獄之法, 若近傅生, 則易致死者之含冤, 若涉深文, 則或慮生者之橫罹. 而此獄事段, 旣經再檢之後, 斷案已成, 事在六年之前. 老獄生奸, 且況若主身死屍, 親流離應問無幾盤覈極難, 雖欲別具意見得其眞贓, 其勢亦難. 噫, 彼汝天本以天性之悍毒, 兼其土豪之武難, 一鄕莫不畏如豺狼, 衆口莫不指以蛇蝎. 誰某某官門掛書, 致疑於何人乎. 自家家閨門醜說, 發明於何處乎. 方其狂藥, 伐性忽起, 無端之猜怒, 業火斗起作, 此無常之駭擧, 竟使壯年無病之女, 乃有當夜致命之擧者. 吁, 亦慘矣. 始也, 猝快得而亂打, 不分是非, 末乃執朴友承而懇乞, 亦涉殊常. 較閱文案, 細探根因, 有百可疑之迹, 無一可原之端是乎矣. 遍考初覆檢案, 曾無重傷之痕, 或稱紫黯堅硬, 亦非速死之部. 所謂栗杖之打, 乃是肩胛, 而初檢則曰紫黯, 覆檢則曰腐爛, 俱非重傷之證是乎遣. 且當是之看證, 只有聖化永任, 爲此獄之緊證, 而聖化之招, 則汝天之使棒洪女之被打, 初未當參見. 今何敢立證乎. 甚至當初挽止之招, 並歸中間杜撰之文. 或溫言而開誘, 或嚴刑而鉤鉅, 屢回盤問, 所供如一是白遣. 永壬[任]之招, 則或曰夜睡每深, 曾未見被打飮醬之形, 或曰栗木了杖三打, 其肩而致斃, 或曰醬汁數椀, 吐在陛前, 畏大運恐喝之威, 則告以杖打致斃. 拘大永懇請之言, 則告以未曾杖打云云是如乎. 賤婢沒覺供辭無

527) 소사(召史) : 양민(良民)의 아내나 과부를 이르는 말이다.

倫，官庭嚴畏驚魂未收，甚至誘以好言，怵以威刑，一場盤問，屢次變辭，看證之招亦不取信矣．細閃【閱】檢狀，想其情迹，惟彼洪女夫病沈痼，旣無室家之樂，家勢艱窘，絶無生活之道．嗟來之食，常不能以糊口．呼爾之與尙不忍其下咽，則久把無生之心，特無可死之堦際．此鶉奔無良之謫，麕聚瀆倫之譏，忽出於骨肉至親之口，則以若偏性之婦，受此汚衊之名，忿亦欲死，羞亦欲死，自決一死，亦或一理．況以平日饑乏之腸，閱盡終晷，醜詆之辱，迨當半夜無人，痛飮瓮間之鹹醬，則亦豈不昏倒而永絶乎．律有服鹵致死條，則鹵與醬俱是鹹毒也．此獄背檠固當傍照，則服鹵條是如乎．屍帳中 兩眼合口流白汁云云．兩眼之合咨於法文服鹵條，而不合於被打條是白遣．白汁之流明是鹽毒之流出，而惜乎當時未試煮汁之法也．被打之迹旣多可疑，飮醬之形亦有可據，則此獄實因似不當專歸於被打．而若無汝天之奸淫， 豈有當塲之惹鬧？ 若無當日之鬪鬨， 豈有洪女之致死乎？ 以此以彼，汝天之罪，難以原恕是如乎，檢案至重，不敢擅裁．洪汝天段，還爲俱格牢囚是白遣．永壬[任]段，當初殺變，出於半夜，幽暗之地涉乎，閨門黑黕之說，而汝天之杖打，聖化之入挽，皆渠立證，則尋常之外人，孰不信聽驟．看之檢官，何以卞明乎．幼稚沒覺，雖難事理之深責，吞吐供辭，以致獄情之疑眩．以此以彼，斷不可以尋常看證之例．盤問卽放乙仍于，仍爲嚴囚以待處分爲乎旀．洪聖化段，終始抵賴，殊極可痛．農務方午，滯囚亦難．朴乃承，朴快得段，起鬨始打不見不聞瓮除良，與洪召史爲嫂叔親侄之間，似無挾私之心．故並令姑放，以待處分爲乎旀．

仁川府使自此還官，緣由馳報爲臥乎事．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성현(聖賢)과 철인(哲人)도 어려워하는 일이며,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재상(宰相)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삼가 제 미천한 관직과 하찮은 말로써, 어찌 감히 사람을 보는 안목을 함부로 칭하며, 어찌 감히 천거하는 글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차스러운 제 마음은 늘 작은 것에도 보답하고자 하는 생각에 하나의 일, 하나의 물건이라도 진실로 국가에 이로울 수 있는 것이라면,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감히 견해를 진달하오니, 삼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고을에 처음 왔을 때, 지역 내에 한 선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선비는 책을 읽고 몸가짐을 닦음이 마치 무성(武城)의 담대(澹臺)와[528] 예장(豫章)의 서치(徐稚)와[529] 같다고 하여, 한번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향교를 중수할 일로 인하여, 그를 초빙하였는데, 과연 속유(俗儒)가[530] 아니었으며, 이른바 문학과 지조를 갖춘 자였습니다. 일의 이치에 밝고, 응대하는 말이나 글에 능숙하며, 마음가짐이 정직하여 흔들림이 없고, 사물을 조치함이 너그러워 마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하였습니다. 중대한 책임을 맡긴다 하더라도, 반드시 깊이 골몰하여 일을 잘 처리할 것이고, 다급한 때를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중히 살펴 방략을 세울 것입니다. 제 어리석은 견해로는, 이 같은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본디 반면지분(半面之分)도[531] 없는데, 어찌 추호의 사사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하여 이 사람이 우리 조정에 쓰일 수 있다면, 그의 재능과 학문은 충분히 볼만 할 것이며,

528) 무성지담대(武城之澹臺) : 공명정대한 사람을 뜻한다. 공자의 제자인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읍재(邑宰)가 되었는데, 공자가 자유에게 인물을 얻었는지를 물으니, 자유가 '담대멸명(澹臺滅明)'이라는 자가 있다고 대답하며 그는 지름길로 다니지 않으며, 공적인 일이 아니면 본인의 집에 이른 적이 없다고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529) 예장지서치(豫章之徐稚) : 박학다식한 인재를 뜻한다. 서치(徐稚)는 예장(豫章)의 남창(南昌) 사람으로, 금문경학, 천문학, 역산학 등에 정통하였다. '인걸(人杰)'의 본보기로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530) 속유(俗儒) : 식견이나 행실이 변변하지 못한 선비를 가리킨다.

531) 반면지분(半面之分) : 얼굴만 약간 알 정도의 교분을 뜻한다.

이때에 저 또한 함께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선비의 성은 정(鄭), 이름은 숙동(肅東)이며, 나이 59세로 한창 늙은 것이 비록 애석하긴 하지만, 정력은 오히려 감당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인(故人) 정언(正言) 정언인(鄭彦仁)의 손자이며, 고인(故人) 참판 정지호(鄭之虎)의 6세손입니다. 대대로 간사한 의론을 배척하는 뜻을 지켜왔고, 학문과 행실로써 한 고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 上書薦士人于雲宮 薦士人鄭肅東雲宮書

知人聖哲之難事, 薦人宰相之能事, 伏以小人之官微言賤, 何敢妄稱藻鑑, 何敢與論剡章. 然而區區私心, 常抱涓埃之報, 一事一物, 苟可以利國家者, 不避猥越, 輒敢敷陳, 伏願採納焉. 小人始至此邑, 聞境內有一士人, 讀書飭躬, 如武城之澹臺, 豫章之徐稚, 思欲一見而不可得. 近因鄕校重修事, 羅以致之, 果非俗儒, 所稱文學操守者也. 明於事理, 閑於辭令, 秉心正直而不可奪, 處物寬裕而如有容. 雖任重大之責, 必沈深有局量, 雖當急遽之時, 必詳審有方略. 以小人愚見, 如斯人不可易得. 小人之於斯人也, 素無半面之分, 豈有一毫之私. 然而使斯人得需用於聖朝, 其才其學有足可觀, 則小人之於此時, 亦與有榮焉. 士人姓鄭名肅東, 年五十九, 老大雖可惜, 精力尙可堪. 故正言彦仁之孫, 故參判之虎之六世孫也. 世守斥邪議, 以學行聞於一鄕云.

1872년 [壬申] 4월 초 8일

대규모 군사 훈련시 군중에 내린 전령

잘 알고 있도록 하라. 아아! 너희 무사(武士), 포병(砲兵)들에게 명하노라. 감히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모두 나의 말을 들으라. 충성을 다하여 국가의 은혜를 갚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고, 고향을 생각하며 편안히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다. 너의 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라, 우리나라에서 농사지어 먹고, 우리나라에서 장사 지내고 묻혔다. 500년의 고루 퍼진 은혜가 위로는 부모로부터, 3,000리의 넓은 은혜가[532] 아래로는 처자식에게 미쳤다. 오호! 작년 40일 동안 해상 방어를 하였는데, 상께서 너희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외치는 것을 염려하시어, 더운지 비가 오는지를 물으셨고, 군량과 옷감이 끊이지 않게 하셨다. 하사한 식량은 너희 부모를 봉양하고자 함이었고, 하사한 돈은 너의 처자식을 먹이기 위함이었으며, 나눠준 약은 너희가 원인 없이 생긴 병에[533] 걸렸을까 걱정한 것이고, 지급한 옷은 너희가 더위에 상할까 우려한 것이다. 적을 물리칠 묘책은 이미 조정에서 정하였으나, 병사들이 화를 일으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되었다. 지방관에게 은밀히 신칙하여 연해를 견고히 지키게 하니, 군사들은 감격하고 분발하여 적이 이미 멀리 달아났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예로부터 명철한 임금은 아래 백성들을 걱정하고 돌봤지만, 우리 임금과 같은 분은 없었다. 백성들은 복이 있어 이 같은 성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흉년이 들어도 너희는 안도할 수 있다. 이는 누구의 은혜이겠는가? 총융미(摠戎米)를 영구히 면제하고, 환곡미(還穀米)를 상정(詳定)하여 굶주린 민호에 진휼을 베풀고, 부세(賦稅)의 납입 기한을 미루었다. 너희가 감사히 여겨 기뻐하는 바는,[534] 하늘의 큰 덕이오, 바다의 깊은 은혜이니, 너희는 어떻게 보답하고자 하는가? 평시에는 사방으로 흩어져 농사를 짓고, 유사시에는 한 번의 북소리에 일제히 운집하여, 충성스러운 마음과 의로운 담력으로, 민심이 견고한 성을 이루고, 죽음을 맹세하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기꺼이 전장에[535] 나아가니, 전

532) 우로지택(雨露之澤) : 이슬과 비의 덕택이라는 뜻으로, 왕의 넓고 큰 은혜를 이르는 말이다.
533) 무망지질(無妄之疾) : '망령됨이 없이 생긴 병' 즉, 원인 없이 생긴 병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534) 감대도무(感戴蹈舞) : 입은 혜택에 대해 감사히 여겨 떠받들고 좋아서 발을 구르고 춤을 춘다는 뜻이다.
535) 탕화(湯火) : 끓는 물과 뜨거운 불. 즉 전장(戰場)을 뜻한다.

투가 벌어지는 곳에 투입되어도 천하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관직 또한 나라의 은혜가 망극한 것이니, 이 땅에서 명을 받아 산과 바다에 맹세하고 은전을 생각하여 너희들은 모두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이에 널리 알리니, 너희들은 유념하여 거행하고, 결코 위반하지 말지어다.

○ 壬申四月初八日大操時傳令軍中

爲知悉事. 咨爾武士砲兵, 毋敢喧譁, 咸聽余太守言. 報國盡忠, 人之秉彝, 懷土安業, 人之常情. 越爾祖先, 至于爾身, 生育我國, 耕食我國, 葬埋我國. 五百年浹洽之恩, 自上父母, 三千里雨露之澤, 下及妻孥. 嗚呼. 昨年四十日, 海上防守, 自上念爾之呼飢呼渴, 咨暑咨雨, 粮餉衣資未常乏絶. 賜之粮爲爾父母之養, 下之錢爲爾妻孥之饋, 頒之藥慮爾有無妄之疾, 給之衣慮爾有傷暑之憂. 破賊奇謀, 已定於廟堂, 連兵結禍, 恐害於士民. 密飭守臣, 堅守沿海, 士皆感奮, 賊已遠遁. 爾愚何知. 自古明王哲辟, 憂恤其下, 未有如吾王矣. 蒼生有福, 逢此聖主, 矧玆荐歉, 爾能安堵. 伊誰之惠. 摠米之永蠲, 還米之詳定, 飢戶之設賑, 王稅之停退. 爾所感戴蹈舞, 天犬之德, 海深之恩, 爾欲何報. 無事則四散而農作, 有事則一鼓而雲集, 忠肝義膽, 衆心成城, 矢死捐生, 樂赴湯火, 投之所戰, 天下莫當. 官亦國恩罔極, 受命此土, 誓山盟海, 思典爾等共報國恩. 玆以布諭, 爾等惕念擧行, 毋或違越向事.

문학산(文鶴山)과 해악사(海嶽祠) 제문(祭文)

삼가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하늘이 문학산(文鶴山)을[536] 만들어 이 나라를[537] 지키니
그 공덕을 널리 베푸시어 유악(維嶽) 신께서 강림하시네
만물의 생령에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시어
밭두렁에 은택을 베풀고자 구름을 내어 비를 뿌리시네
신의 영험함은 백성이 우러러보는 바이니
이에 해악사(海嶽祠)에[538] 김공(金公)을 제사 지내네
훈공을 세운 늙은 원로 신하는 왕의 보배로서 용과 뱀이 시대에 맞닥뜨린 것처럼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고 관직에 얽매이지 않았네
옛 터에 완연히 서 있는 한 조각의 외로운 성에
향화(香火)가 이어지니 백성의 마음을 알 수 있네.
무릇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고하니
지금 조정의 명을 받들어 큰 공사를 시작하여
해우(廨宇)와 창사(倉舍)를 날을 택해 터전 세우네.
그곳에 우거진 풀을 뽑고 돌을 캐내니
왕령(王靈)이 다다르는 곳을 신께서 보살펴주시길 바라네.
백성들이 흔쾌히 달려와 공역이 날마다 이루어져
읍의 기초가 영원히 자리 잡아 후에 어려움이 없으니
오랜 세월 굳건히 서서 해문(海門)의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이라네.
신께 정성스레 바치는 고기가 기름지고 술이 향기로우니,
간절히 고하고 삼가 아뢰오니, 흠향하시길 바라나이다.

536) 학산(鶴山) : 문학산(文鶴山)을 뜻한다.
537) 해방(海邦) : 황해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이르는 말이다.
538) 해악(海嶽) : 해악사(海嶽祠)를 뜻한다.

○ 文鶴山與海嶽祠祭文

伏惟

天作鶴山 鎭此海邦

普施其功 維嶽神降

於萬生靈 有求必應

布澤壠畝 雲出雨興

神之靈矣 民所仰止

惟玆海嶽 金公是祀

勳勞王室 運値龍蛇

視民如子 非官伊家

遺址宛在 一片孤城

香火有歸 可見民情

凡有大小 必告以事

今承朝令 大役經始

廨宇倉舍 揀日肇基

剔其榛莽 伐石于玆

王靈所暨 神其眷佑

民夫歡趨 工役日就

邑基永奠 無有後艱

屹立千秋 海門重關

祗薦于神 牲肥醴馨

虔告謹告 庶歆維靈

인천부 동헌(東軒)의 상량문(上樑文)[539]

삼가 생각하옵건대
인민이 여기에 있으며 토지가 여기에 있나이다. 서울에서 70리 거리의 중진(重鎭)으로, 수세(收稅)와 국방(國防)을 잘 다스려, 국가의 500년 평화를 함께 지켜왔나이다.
인천은 경기와 호서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정사가 저절로 어질어졌으며
아름답도다. 산과 강이 견고한 방어가 되며 덕이 냇물에 흐르네.
비루한 왕의 궁전 유허에
『사기(史記)』의 조령(詔令)이 매번 펼쳐지니
뱃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네.
나이 든 이들이 다시 보기를 바라나이다.
비록 서쪽 고을이 쇠락하고
오래전부터 동쪽 관청이 무너졌으며
담장 끝에는 새와 쥐의 흔적이 있고 비바람에 한탄하며
담장 문에는 좀벌레가 생겨 이리저리 겨우 구색을 갖추고 있네.[540]
고을의 힘은 미치지 못하고 수리하는 것이 늦어지니
백성들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쓸모없는 감정만 쌓이네.
오직 우리 구완식 인천부사께서
우리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곳을 지키러 오셨으니,
다스린 3년 동안 송정(訟庭)에서[541] 매와 채찍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백리의 변문(邊門)을[542] 자처하여 걸어 잠그셨네.
돈과 곡식, 군사의 일을 적절히 처치하여, 삼정(三政)을 바로잡으시고
환과고독(鰥寡孤獨)에[543] 대한 네 가지의 궁한 처지를 먼저 해결하셨네.

---

539) 상량문(上樑文) : 목조 건물 건축 과정에서 최상부 부재인 종도리(마룻도리)를 올리는 상량제(上樑祭) 때 사용하는 축문(祝文)이다.
540) 동도서말(東塗西抹) : 동쪽에서 바르고 서쪽에서 지운다는 뜻으로, 이리저리 간신히 꾸며 대어 맞춤을 이르는 말이다.
541) 송정(訟庭) : 송사(訟事)를 처리하던 곳을 가리킨다.
542) 변문(邊門) : 변경(邊境)의 문호(門戶)를 뜻한다.

무예의 문을 열고 여러 현자를 초빙하였으며
교궁(校宮)을[544] 중수하여 옛 성인들을 우러러 추모하였네.
주력(周曆)으로[545] 임년(壬年)의 술월(戌月)을 점치고
귀묵(龜墨)으로[546] 계좌(癸坐)의 정향(丁向) 언덕에 장사 지냈네.
문학산(文鶴山)의 여러 산등성이와 봉우리는 지세가 험준하고[547]
자연(紫燕)의 팔미도(八尾島)는 바다가 사납고, 파도가 높네.[548]
가을에 수확이 이루어지는 들판과 정원은 바퀴가 멈춘 것을 알리니
나무와 돌이 날로 쌓이니, 신령의 운행을 진실로 알만하네.
시작의 기초를 다진 것이니
이내 훌륭한 업적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네
절제 있고 법도에 맞는 재용으로 함부로 남용하지 않으니
은혜가 때에 맞춰 민중에게 닿아 역에 응함에[549] 지치지 않게 하였네.
정자와 농막이 서로 맞닿아 있으니 신의 지혜가 도왔음을 알게 하고
복도와 교차된 창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금과 옥으로 조각된 듯 아름답네.
지붕 끝은 높고 새의 날개처럼 펼쳐져 있으며
물고기의 비늘처럼 맞물려 있네.
왕우칭(王禹稱)이 말한 여섯 가지 좋은 점은 죽루(竹樓)의 도움이고
소자첨(蘇子瞻)이 두 손님을 맞이한 우정(雨亭)도 마침내 완성되었네.
시작하여 계획하고 머무르고 거주하니 실로 현명한 태수의 덕을 칭송할 수 있다네.
모년 모월 모일 어느 사람이 세웠다고 목공으로 하여금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네.
그것은 오직 아름다움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쉼을 위한 곳이 되었네.
잠시 짧은 노래를 부르며,
기둥을 세우는 일을 도왔네.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놀리니
산읍에는 서서히 구름이 모여들고
논에는 물을 대고 주교사(舟橋司)에서는[550] 제언을 축조하니

543) 환과고독(鰥寡孤獨) :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으로,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처지나 그 처지에 놓인 사람을 뜻한다.
544) 교궁(校宮) : 각 고을에 있는 문묘(文廟)를 가리킨다.
545) 주력(周曆) : 주(周)나라의 역법(曆法)을 가리킨다.
546) 귀묵(龜墨) : 거북의 등에 먹줄을 긋고 불에 구워 길흉을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먹줄을 따라 거북 등이 갈라지면 길조(吉兆)로 여겼다.
547) 용반호거(龍盤虎踞) : 용이 서려 있는 듯하고, 범이 웅크리고 앉은 듯하다. 즉 지세가 험준함을 뜻한다.
548) 악해경도(鰐海鯨濤) : 사나운 바다와 큰 파도.
549) 응역(應役) : 군역(軍役)이나 부역(賦役) 등의 역(役)에 응하는 것을 뜻한다.
550) 주교사(舟橋司) : 조선시대 임금이 거동할 때에 한강(漢江)에 부교(浮橋)를 놓는 일, 제언(堤堰) 수축,

가을이 깊어지면 벼 이삭이 붉게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네.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놀리니
문학산은 높이 솟아 있고 푸른 안개가 흐르네.
배의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첫 출항을 알리고
호수의 물은 푸르고 쪽빛 같네.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놀리니
광대한 물결 속에서 향기가 나는 듯하고
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말을 타듯 하며
무사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네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놀리니
멀리 서울을 바라보며 그곳의 중심을 지키고 있네
꽃이 떨어지고 봄날이 느리게 흘러가며
관청에는 일이 없으니 붓놀림이 여유롭네
어영차 들보를 위로 놀리니
아름다운 곳에서 푸른 산을 볼 수 있네
빛나는 과거 급제자들이 임금의 글을 받들고
보배로운 먹이 흘러 빛을 발하네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놀리니
온 땅이 연기와 꽃으로 뒤덮여 들판의 말들을 혼미하게 하네
모든 이가 칭송하여 송덕비를 세우니
덕행이 퍼져 나가지만 그 형적은 모방하기 어렵네.
기둥을 세운 후에 삼가 바라는 것은
바다가 평온하고
읍의 터전히 영원히 안정되며
성벽과 성곽이 한가하여 노래가 울리길 바라는 것이네.
관청의 문서가 많지 않아 시간이 넉넉하고
농사와 누에치기를 할 때 해마다 풍작을 이루기를 바라네.
민심이 고르게 되기를 바라며, 정사가 맑아져 민간의 소송이 줄어들기를 바라네.

양호(兩湖)의 조운(漕運) 등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 仁川東軒上樑文

伏以

人民有焉土地有焉距京師七十里重鎭

繭絲抑爲保障抑爲偕國家五百年休治

介於畿湖之間政自仁治

美哉山河之固德於川流

鄙王之宮殿有墟

漢史之詔令每布

舟人到今指點

矢老願俟須更

雖然西邑之凋殘

夕矣東閣之頹圮

壁尾竄鳥鼠之跡幾歎上雨傍風

牖戶暗蠹魚之産未兌東都【塗】西抹

斗邑之紓力靡逮尙遲修葺之卬

輿民之齊鬱殊深徒切興癈之感

惟我具公

承命我王

來守是邦

爲政三年訟庭之鞭朴不用

分憂百里邊門之鎖鑰自任

錢穀甲兵事事便宜矯捄三政

鰥寡孤獨人人自樂先施四窮

必武門閭招禮群賢

重修校宮仰慕先聖

周曆占壬年維戊之月

龜墨窆癸坐丁向之原

壓臨文鶴千冈峯龍盤虎踞

坐鎭紫燕八尾島鰐海鯨濤

塲圃秋登正當役車之告訖

木石日就固知神斧之運卬

所以經始營始之巾

乃見輪焉臭焉之美
歛有節用有度財無濫於取予
惠以臨使以時民忘勞於應役
疊榭廬楹相對起疑是思助神謀
複道交窓作合歡宛然金鐫玉刻
簷牙高喙縹緲鳥翼
尾縫相連參差魯鱗
王禹稱之六宜竹樓所助
蘇子瞻之二客雨亭適成
爰始爰謀爰處爰居實賴賢太守善頌
某年某月某日某建特使都料匠書名
非獨美於觀瞻
以爲所於休息
聊爲短唱
助擧修樑
兒郎偉拋樑東
蘇來山邑瑞雲中
水田灌溉舟橋堰
佇見秋深穲稏紅
兒郎偉拋樑南
文鶴山高滴翠嵐
船鼓鼕鼕初解纜
而湖杕水碧如藍
兒郎偉拋樑西
茫茫巨浸香端倪
葉舟已慣如騎馬
武士千羣任指携
兒郎偉拋樑北
遙望京華室拱極
花落訟庭春日遲
衙門無事晏來墨
兒郎偉拋樑上
捲麗是處見靑嶂

煌煌金榜拜宸章
寶墨淋漓光欲放
兒郎偉拋樑下
滿地烟花迷野馬
萬口飜成頌德碑
化行無跡難模寫
伏願上樑之後
海波不揚
邑基永奠
壁壘衷帶極淸閑於歌虛
衙門簿書每多暇嘯傲於
勸農桑其時下奪歲比豊登
察霧蔀盡情無遺政淸訟簡

치제(致祭)시[551] 통문(通文)[552]

삼가 우리 종친 여러분께
같은 근원에서 꽤 많은 분파로 나뉘었으나
백세 동안 하나의 집안으로 모두 함께 하였고
후손들은 소원해지는 탄식이 있으나,
선조들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십니다.
누가 선조를 현양하는 정성이 없겠습니까?
매번 추모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생각건대, 우리 선조 공도공(恭悼公)은[553]
오랜 집안 왕족의 자손이시며[554]
왕실의 외척입니다.[555]
임금을 섬김에 충을 다함과 공덕의 업적이 일찍이 역사서에 드러났으며,
몸가짐을 검소한 언행으로써 하여 집안의 기록에 후손들이 우러러보며
대대로 자손이 있어, 족보에 능성(綾城)을 옛 관향으로 이어오니
어느 공의 전기를 특필하여 비갈을 고양(高陽)의 선영에 세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번 봄 평양에 행행(幸行)[556] 시에
산 아래에서 국왕의 수레가 머뭇거리자
길에 있는 말과 양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습니다.
임금의 깊은 생각과 정성스러운 뜻으로 특별히 수령을 찾으셨고
예우가 융숭하고 교목(喬木之世)가[557] 뚜렷하니
이에
임금의 추은(推恩)하는 은전에서

---

551) 치제(致祭) : 윗사람이 제물(祭物)과 제문(祭文)을 내리어 죽은 아랫사람을 제사(祭祀)하는 일을 가리킨다.
552) 통문(通文) : 서원·향교·문중·계 등 각종 결사(結社)나 단체, 혹은 그 구성원 중 일부가 회원을 비롯한 개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공동의 사안을 통지, 통고하는 문서이다.
553) 공도공(恭悼公) : 구한(具瀚, 1524~1558). 조선중기의 문신(文臣)으로, 본관(本貫)은 능성, 자(字)는 태초(太初), 시호(諡號)는 공도(恭悼)이다. 1534년(중종 29) 중종의 딸 숙정옹주(淑靜翁主)와 혼인하여 능창위(綾昌尉)에 봉해졌다.
554) 화주(華胄) : 왕족이나 귀족의 자손을 뜻한다.
555) 초친(椒親) : 외척(外戚)을 뜻한다.
556) 행행(幸行) : 국왕이 궁궐 외부로 거둥하는 행차로, 일종의 국가 의례이다.
557) 교목지세(喬木之世) : 교목(喬木)은 가지가 무성하게 뻗고 곧게 자란 나무로써, 교목지세는 훌륭한 자손들이 대대로 번창한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치제(致祭)를 내려주셨으니
예관을 보내 한 시대의 은의(恩義)를 높이 찬양하며
여러 집사들이 분주히 우리 고을의 위엄을 엄숙히 지켰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저희는
성대한 시기에
후손으로서
불초하며 형편없고
비록 미천하고 어리석으나
감히 현조의 큰 유업을 이어받아
성은이 두루 미침을 알고 있습니다.
신중히
길일을 택하여
즉시 현장에서 봉행하겠습니다.
평생 배운 바를 거칠게나마 알고서, 선조의 은덕을 기리며
후손들이 부족함을 탓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달래고자 합니다.
멀리서나 가까이서 듣고 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이 없지 않으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치제의 길일을 납월(臘月)[558] 초순으로 선정하여 들어가는 재력은 비록 조금씩 거두어도 천금을 밑돌지 않기 때문에, 각 파 종중의 호수가 많고 적음을 비교하여, 그 집안 여력의 형편에 따라 분정한 것을 기록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해주 종중 500냥, 인천 아중(衙中) 300냥, 영평 종중 100냥, 광주 종중 50냥, 가평 종중 30냥, 홍천 종중 20냥
삼가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선조를 우러러 추모하며
임금의 뜻을 받들어
은총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효성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천금의 재력으로 어찌 어렵겠습니까?
재물이 걷히는 대로 수송하여, 각 파의 문장(門長)과[559] 종친들은 일제히 고양산 아래의 선영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밝히니,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558) 납월(臘月) : 음력 섣달의 별칭이다.
559) 문장(門長) : 문중에서 항렬과 나이가 가장 위인 사람을 가리킨다.

○ 致祭時通文

伏惟我同宗僉君子

同源分流幾多

百世一室擧皆

後屬疎遠之歎

先祖均視之慈

孰無顯揚之誠

每切追慕之感

惟我先祖恭悼公

古家華胄

王室椒親

事君盡忠德業夙著於史冊

都身以儉言行仰瞻於家乘

以永世有子有孫譜牒系陵【綾】城舊貫

乃特書某公某全碑碣豎高陽遺阡

玆蓋伏遇今春西京幸行時

山下之鴦輿躕躇

路存之羊馬指點

聖念恳至特訪守土之臣

禮遇隆重克軫喬木之世

於是

自上推恩之典

特下致祭之仪

遣禮官尊崇一代之恩義曠絶

諸執事奔走吾邑之威仪森嚴

伏念某等

幸際盛時

忝居後裔

以不尙無狀

雖至陋且愚

敢曰賢祖之丕承

固知聖恩之覃及

謹當

吉日推擇

卽地奉行

平生講磨粗知命無宿之義

後孫零替徒切傷哉貧之歎

遠近見聞不無他人之議

遑延時日實爲我輩之羞

乃玆致祭吉日以臘月初旬擇定 而所入財力 雖畧畧成儀不下千金 故各派宗中較其一戶數之多少 隨其家力之有無的定列錄如左

海州宗中五百兩 仁川衙中三百兩 永平宗中一百兩 廣州宗中五十兩 加平宗中三十兩 洪川宗中二十兩

伏願僉君子

抑慕祖先

對揚聖意

感戴恩寵庶寸伸方分之孝思

殫竭心誠亦何難一千之財力

財物隨斂輸送各泓門長與諸宗 一齊來會于高陽山下之地千萬

故玆諭示 尙宜諒悉

상사(上使) 김판서(金判書)를 연경(燕京)에 전별하는 고시(古詩) 62韻(운)

예감(睿鑑: 임금의 밝은 감식(鑑識)이 또렷이 밝아 간택하시니, 황화(皇華)[560]로서 봄을 맞아 만 리 연경(燕京)에 닿노라.

사신으로서 지금 왕명을 받들었으니, 옥 부절[玉節][561] 손에 받들고 홀로 임무를 맞이하는구나.

조정에 가득한 백료(百僚)들이 함께 나와 송별하고, 영은문(迎恩門)[562] 밖에서 술자리를 베푸네.

옛집의 교목은 뿌리가 깊이 박혀 있듯, 오직 공의 높은 가문은 조선의 으뜸이라.

일가가 시례(詩禮)에 깊어 본보기가 되었고, 대대로 관직을 지내니 초선(貂蟬)[563]을 반짝이네.

병풍이 되고 기둥이 되어 충정을 지키고, 오백 년 동안 나라의 환난과 번영을 함께 해왔도다.

하늘이 계시하여 갑자년에 중흥의 운수를 만나니, 재주와 덕이 온전하여 좋은 보필 보내주셨네.

운몽(雲夢)[564]의 늪을 품은 듯 가슴은 바다처럼 넓고,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뜻과 마음이 굳건하네.

밝은 군주와 훌륭한 신하[565]가 만나는 때에 기운이 서로 맞으니, 용이 밭에 있으매

560) 황화(皇華) : 황화는 황화사(皇華使)의 준말로 『시경』「소아 황황자화(小雅 皇皇者華)」에서 유래하였다. 임금의 명을 받들고 사방으로 나가서 아름다움을 선양하는 사신이라는 뜻이다.

561) 옥 부절[玉節] : 왕이 사신에게 주는 신표이다.

562) 영은문(迎恩門) :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모화관(慕華館) 앞에 세웠던 문으로, 지금의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에 독립문이 있는 곳의 바로 앞에 있었다.

563) 초선(貂蟬) : 초선관(貂蟬冠)으로, 고관들이 쓰는 담비 꼬리와 매미 날개로 장식한 관모(冠帽)를 이른다.

564) 운몽(雲夢) :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상림부(上林賦)」에 "초나라에는 칠택이 있고 그중에 하나인 운몽택은 사방이 9백 리인데, 운몽택 같은 것 여덟아홉 개를 삼켜도 가슴속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楚有七澤, 其一曰雲夢, 方九百里, 呑若雲夢者八九, 其於胸中曾不蒂芥.]" 라고 한 데서 온 말로, 포부가 매우 큼을 뜻한다.

565) 밝은 군주와 훌륭한 신하 : 원문의 '명량(明良)'은 명군(明君)과 양신(良臣)을 뜻하는 것으로, 『서경』「虞書 益稷」에서 고요(皐陶)가 제순(帝舜)에게 간언하기를 "원수가 현명하면 고굉이 어질어서 모든 일이 편안할 것입니다〔元首明哉, 股肱良哉, 庶事康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대인(大人)을 만나 봄이 이롭네.[566]

동량(棟樑 : 마룻대와 들보)의 재목으로써 고굉(股肱 : 다리와 팔)[567]을 맡고, 큰 은혜를 거듭 이어받아 품계와 관직이 승진하였네.

맑은 조정이 편안히 다스려야 할 책임을 중시하여, 고려의 옛 도읍에서 채찍을 휘두르네.

덕교(德敎)가 흘러 행하여 치우(置郵: 파발말)보다 빠르고[568], 백성들이 모두 돌아오매 성군의 선정이 펼쳐지네.[569]

벌레 같은 서양 오랑캐들이 우리 경계를 침범하니, 솔개처럼 날아들어 강과 바다를 적셨도다.

평온한 시대에 나고 자라 초가집에서 살던 백성들, 하루아침에 도망치니 길마다 가득하네.

무사들은 날카로움을 모아 비바람에 대비하고, 공의 지략을 의지해 먼저 기미를 살폈도다.

충의로 격려하니 의로움은 장차 칼날을 밟으려 하고, 기예를 훈련하여 능숙하게 활을 다루도다.

영막(營幕)의 밤이 고요하고 군령이 엄숙하니, 중천에 밝은 달이 해처럼 걸렸네.[570]

한 지역을 진압하였으니 마치 태산과 같아,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엄이 빛나네.

서쪽의 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 간담이 서늘하니, 승리를 바랄 수 없어 스스로 배를 몰아 물러갔도다.

농부들은 또한 농사일을 즐거워하고, 상인들은 제 가게에서 안심하여 일하네.

숭악산(崧嶽山) 아래 온화한 기운 가득하니, 만인의 입으로 비석을 이루어 서로 전하네.

인재를 선발하매 협대(夾帒)에[571] 넣으니, 조정으로 돌아가는 날에 서전(西銓 : 병조)을 맡게 되리라.

휘하의 부하들은 자못 파목(頗牧)과[572] 같이 용맹하고, 장막 속에선 손오(孫吳)의[573]

---

566)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 보는 것이 이롭네 : 현신(賢臣)과 성군(聖君)이 만나봄을 말한 것이다. 『주역』「건괘구이(乾卦 九二)」에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 보는 것이 이롭다〔見龍在田, 利見大人〕." 하였다.

567) 고굉(股肱) : '다리와 팔같이 중요한 신하'라는 뜻으로,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이르는 말이다.

568) 덕교(德敎)가 … 빠르니 : 『맹자』「공손축상(公孫丑上)」에 "덕이 유행되는 것이 역마로 명을 전달하는 것보다 빠르다〔德之流行, 速於置郵而傳命〕."라고 한 공자(孔子)의 말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569) 성군의 선정이 펼쳐지네 : 원문의 도견(陶甄)은 도공(陶工)이 녹로(轆轤)를 돌려서 각종 질그릇을 잘 만들어 내는 것처럼, 성군(聖君)이 선정을 펼쳐 천하를 잘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570) 영막(營幕)의 밤은 … 걸렸네 : 당나라 두보(杜甫)의 시 「후출새오수(後出塞五首)」 가운데 둘째 수에 "중천에 밝은 달이 걸린 때, 군령이 엄하니 밤이 고요하도다〔中天懸明月, 令嚴夜寂寥〕."라고 한 말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571) 협대(夾袋) : 협대(夾袋)는 물건을 넣어 두는 작은 전대인데, 송(宋)나라의 시사점(施師點)이 촉(蜀) 지방으로 부임하여 인재를 수소문한 다음 손수 그 이름을 써서 협대 속에 넣어 두었다가 제수할 때에 반드시 이들을 등용하였다(『송사(宋史)』「시사점열전(施師點列傳)」).

572) 파목(頗牧) : 파목(頗牧)은 조(趙)나라의 명장이었던 염파(廉頗)와 이목(李牧)을 가리킨다.

573) 손오(孫吳) : 춘추 시대 손무(孫武)와 전국 시대 오기(吳起)의 병칭으로 모두 저명한 병법가인데, 손무는 『병법(兵法)』 13편을 지었고, 오기는 『오자(吳子)』 48편을 지었다.

병법을 논하네.

앉아서도 바다 고을의 요악스러운 기운을 소멸시키니, 장인(丈人)이 정하고 길하여 군사를 다스리도다.

임금께서 세 번 명을 내려[574] 절월을 하사하시니, 몸소 장성(長城)을 지어 북쪽 변방을 살피시네.

북문의 열쇠를 공이 스스로 맡으셨으니,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쓰도다.

백성들은 감당(甘棠)의 노래를[575] 읊으니, 마치 소공(召公)의 교화가 널리 퍼진 듯하네.

해마다 곡식이 자라지 않고 하늘이 재앙을 내려, 이 땅의 백성들은 심한 가뭄을 겪게 되었네.

집안이 텅 비고 모과나무와 유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며, 남쪽과 동쪽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도다.

아침에 저녁 일을 헤아리지 못하여 굶주림에 걱정하니, 쌀값은 뛰어올라 한 섬에 수천이 되네.

공은 웅헌(熊軒)[576]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염려하고, 수척하여 누렇게 뜬 얼굴을[577] 보고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창고를 열고, 다시 어진 정사를 베풀어 조세를 감면하도다.

좌우의 백성들을 구렁에서 구제하여, 한 끼 죽과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네.

떠돌던 거지와 국경을 넘나들던 육진(六鎭)의 백성들도,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578] 순식간에 돌아왔도다.

온 마을이 모두 안정되니 이는 누구의 덕인가, 모두가 공의 덕이 샘처럼 깊음을 알리라.

호랑이가 모두 북쪽으로 건너가 해로움이 사라졌으니, 옛날 유곤(劉昆)의[579] 공덕이 어찌 홀로 아름답겠는가.

---

574) 임금께서 세 번 명을 내려 : 장수의 공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리는 임금의 은명(恩命)을 말한다. 『주역(周易)』「사괘구이(師卦九二)」의 효사에 "군진(軍陣)에서 중도를 행함에 길하고 허물이 없는지라, 임금에 세 차례나 은명(恩命)을 내리도다〔在師中吉 無咎 王三錫命〕."라고 하였다.

575) 감당(甘棠)의 노래 : 감당은 『시경』「소남(召南)」의 편명으로, 소공(召公)이 선정을 베푼 것을 기념하는 노래이다.

576) 웅헌(熊軒) : 수레 앞의 횡목(橫木)이 웅크린 곰처럼 되어 있는 고관의 수레로, 한(漢) 나라 때 공후(公侯)가 사용하였는데, 뒤에는 지방 장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게 되었다.

577) 수척하고 누렇게 뜬 얼굴 : 원문의 함함(顑頷)은 배를 곯아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야윈 모양을 말하며, 채색(菜色)은 굶주린 사람의 얼굴에 누르스름한 빛깔을 띤 것을 말한다.

578)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 : 원문의 풍행초언(風行草偃)은 『논어(論語)』「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말로, 공자(孔子)가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된다〔君子之德風也 小人之德草也 草尙之風 必偃〕."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즉, 백성이 위정자(爲政者)의 덕화에 쉽게 감화된다는 뜻이다.

579) 유곤(劉昆) : 후한(後漢) 때 유곤(劉昆)이 홍농 태수(弘農太守)로 있을 적에 어진 정사를 베풀자 범들이 모두 새끼를 등에 업고 황하를 건너가서 범으로 인한 우환이 없어지게 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후한서(後漢書)』「유곤열전(劉昆列傳)」).

이미 비단을 재단하고도[580] 다시 곤직을 기울 생각하니,[581] 해 아래 멀리 한산(漢山)의 정상을 바라보네.

촉군(蜀郡)의 선비는 오고(五袴)의 노래를 부르고[582], 회계(會稽)의 노인들은 마땅히 백 전을 바치리라.[583]

돌아가는 길이 마치 큰 물줄기를 따르는 듯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개미가 흠모하는 것과 다르겠는가.[584]

녹봉에서 남은 재물로 주머니를 채우지 못하니, 거문고 소리는 청량한데 학이 훨훨 날아가네.

조야에서 모두 태산북두처럼 그 이름 우러르고, 띠를 늘어뜨린 신하들은 홀을 바로잡고 대열을 이루네.[585]

기다리며 불을 밝힌 집이 모두 몇 곳이던가, 제상(齊相)이 베푼 것은 다만 돼지 어깨살뿐이었네.[586]

오직 우리 동방이 진심으로 대국을 섬기며, 해마다 공물을 바치며 예를 어기지 않았도다.

사신이여, 사신이여, 그 직임은 무겁나니, 마음을 품고 멀리 나아가 임금의 뜻을 전하리라.

---

580) 비단을 재단하고도 : 원문의 제금(製錦)은 비단으로 옷을 만든다는 뜻으로, 어진 자가 고을 수령으로 나가 정사를 펴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31년 조에, 정(鄭)나라 사람 자피(子皮)가 나이 적은 윤하(尹何)를 시켜 읍(邑)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그대에게 아름다운 비단이 있으면 그것으로 초보자에게 옷을 만들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큰 벼슬과 큰 고을은 백성의 몸을 감싸 주는 것인데 초보자에게 다스리게 한단 말인가. 이는 비중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비단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子有美錦 不使人學製焉 大官大邑 身之所庇也 而使學者製焉 其爲美錦 不亦多乎〕."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581) 다시 곤직을 기울 생각하니 : 『시경』 「대아증민(大雅烝民)」에 "곤직이 이지러진 곳 있으면, 중산보가 이를 기웠네〔袞職有闕, 惟仲山甫補之〕."라고 하였다. 곤직을 기운다는 것은 곧 임금을 잘 보좌하는 것을 말한다.

582) 촉군(蜀郡)의 … 부르고 : 후한(後漢)의 염범(廉范)이 촉군 태수(蜀郡太守)가 되어 선정을 베풀자 백성이 노래하기를, "염숙도여, 어찌 그리 늦게 왔는가. 불을 금하지 않으니 백성이 편안히 일하여 평생 속옷도 없었는데 이젠 바지가 다섯 벌이네〔廉叔度, 來何暮, 不禁火, 民安作, 平生無襦今五袴〕."라고 하였다(『후한서(後漢書)』 「염범열전(廉范列傳)」).

583) 회계(會稽)의 … 바치리라 : 후한(後漢)의 유총(劉寵)이 회계 태수(會稽太守)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돌아갈 때 산음현(山陰縣)의 노인 대여섯 명이 각각 100전(錢)씩을 유총에게 노자로 주었다. 그러자 유총은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한 사람당 1전씩만 받았다(『후한서(後漢書)』 「순이열전(循吏列傳)」).

584) 백성들의 … 다르겠는가 : 어진 이를 흠모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개미가 누린내를 좋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저절로 어진 이를 향해 간다는 뜻이다. 『장자』 「서무귀(徐無鬼)」에 "양고기가 개미를 사모하도록 하지 않았는데도 개미가 양고기를 사모하는 것은 양고기에서 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羊肉不慕蟻, 蟻慕羊肉, 羊肉羶也〕."라고 하였다.

585) 대열을 이루네 : 원문의 원반(鵷班)은 원추새가 질서 정연하게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조정의 백관들이 대열을 이루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586) 기다리며 … 어깨살뿐이었네 : 『예기』에 "안평중은 선조를 제사할 때 돼지다리가 제기를 다 채우지 않았고, 옷을 빨고 관을 씻어 조현하였다〔晏平仲祀其先人, 豚肩不揜豆, 濯衣濯冠以朝〕."라고 하였다. 안평중(晏平仲)은 제(齊)나라의 명상(名相)으로 청렴하고 검소하여 식탁에 두 가지 고기가 없고 처첩이 비단옷을 입지 않으며 여우 갖옷 한 벌로 30년을 입었는데, 가난한 종족(宗族) 70여 호가 그의 도움으로 생활하였다 한다.

○ 餞上使金判書於燕京 古詩六十二韻

睿鑑昭昭簡惟矣, 皇華春接萬里燕.
上行人今承王命, 手奉玉節對可專.
滿廷百僚同出餞, 迎恩門外設樽筵.
故家喬木根抵厚, 惟公華閥冠朝鮮.
一門詩禮博模楷, 累世爵位赫貂蟬.
之屛之翰篤忠貞, 與同休戚五百年.
天啓甲子中興運, 賚以良弼才德全.
吞雲夢藪胸海寬, 如松栢心志操堅.
明良際會聲氣應, 利見大人龍在田.
棟樑其材股肱任, 荐承洪恩品秩遷.
淸朝特重保釐責, 麗王故都揮征鞭.
德敎流行速置郵, 于于庶民歸陶甄.
蠢彼洋夷侵我界, 鴟張丞突江海沁.
生長昇平蓽屋氓, 一朝奔竄道路塡.
武士蓄銳備陰雨, 賴公智略察幾先.
激勵忠義將踏刃, 訓鍊技藝能控弦.
營幕夜靜軍令嚴, 中天明月日輪懸.
鎭壓一境如泰山, 不可以犯威赫然.
西賊聞之驚破膽, 未能凱覦自退船.
耕農人亦樂其業, 商賈人亦安其廛.
崧嶽山下和氣遍, 萬口成碑喧相傳.
揀選人才疏夾帑, 還朝之日掌西銓.
麾下褊裨頗牧勇, 帳中籌策孫吳篇.
坐使海郡氛祲消, 丈人貞吉運戎權.
王三錫命節鉞煌, 身作長城按北邊.
北門鎖鑰公自任, 念玆在玆日乾乾.
居民解唱甘棠謠, 較若召公風化宣.
年穀不登天降灾, 是土之人被旱偏.
室如懸磬杼柚空, 南東其畝草芊芊.
朝不謀夕艱食憂, 米價騰踊斛數千.
公在熊軒念赤子, 顧頷菜色眞可憐.
先布惠澤倉廩發, 更施仁政租稅蠲.

左右民使免溝壑, 能得一粥而一饘.
流丐越境六鎭氓, 風行草偃薄言旋.
百堵皆安伊誰賜, 儘知公德如淵泉.
虎皆北渡其害去, 古劉昆豈專美焉.
已製錦又思補袞, 日下遙望漢山巔.
蜀郡士曾歌五袴, 會稽老應齎百錢.
歸駕有如洪遵渚, 輿情何異蟻慕羶.
祿捧餘資不盈橐, 琴自冷冷鶴翩翩.
朝野擧仰山斗名, 垂紳正笏鵷班聯.
待而擧火凡幾家, 齊相所供惟豚肩.
惟我東方事大誠, 每年輸幣禮不愆.
使乎使乎職任重, 齎心遠擎國王箋.

임금의 탄신(誕辰)에 내각(內閣)에 올리는 하전(賀箋) 587)

직위, 복록, 천수를 얻음이, 군사(君師)로서의 만물의 조화와 육성을 돕고, 산마루, 언덕, 강물처럼 우뚝하고 영원하니 성절(聖節)에 경사스러운 징조가 드러났습니다. 천수를 누리시기를 기리며 축하드리오니, 경사스러움이 끝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종통(宗統)이 종묘의 제사로 계승되고, 덕(德)이 하늘과 땅이 짝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옥력(玉曆)을588) 따라 구황(九皇)의589) 궤도를 좇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행하였으니, 복사꽃이 상제(上帝)의 복에 응하여 해마다 오늘을 누린다고 하겠습니다. 노래하며 춤을 출 때를 맞아 오래도록 장구한 복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발자취가 빛나는 영화로움에 놓여 있으니, 조정의 반열에서 술잔을 올리오며, 배알하는 정성을 다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깊으니, 감히 궁전으로 나아가 작은 예를 다하여 경하의 마음을 표합니다.

○ 大殿誕辰 內閣賀箋

得位得祿得壽, 贊化育於君師, 如岡如阜如川, 符禎祥於聖節. 頌祝千已, 端慶無疆. 恭惟, 統承宗祊, 德配天地. 玉曆躡九皇之軌, 萬歲千秋, 瑤桃應上帝之休, 每年今日. 肆當謳歌蹈舞之際, 益仰悠久靈長之祺. 伏惟, 跡厠奎華, 奉彩觴於筍列, 擧功虎拜之忱, 恩重圻臬, 擎琅函於楓宸, 粗效燕賀之禮.

587) 하전(賀箋) : 명절, 국왕의 탄일, 경사 등을 맞아 신하들이 하례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전문(箋文). 정월 초하루〔正朝〕와 동지(冬至), 국왕의 탄신일(誕辰日), 국왕의 즉위, 가례(嘉禮), 책례(冊禮), 상존호(上尊號), 진연(進宴) 등의 경사가 있을 때 하전을 올렸다.
588) 옥력(玉曆) : 천자가 제후에게 내려준 책력(冊曆)을 가리킨다.
589) 구황(九皇) : '삼황오제(三皇五帝)' 이전 9대(九代)의 황제를 가리킨다.

동짓날에 임금에게 올리는 하전(賀箋)

해와 달이 떠오르듯이, 태평성대의 시기를 비추고, 다시금 하늘과 땅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을[590] 맞이하는 새로운 변화에 응하니, 2계(二階)에는 상서로운 빛이 들고, 모든 곳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도(道)가 합치하여 두루 다스려졌으며,[591] 천하에[592] 장대한 계책을 이어, 조선에 터를 잡고 억만 년 동안 견고한 기초를 세웠으며, 공을 세워 천하를 다스리는 위업을 이루었습니다. 임금의 거처를 경희궁으로 옮기고, 영조(英祖)의 오십 년 다스림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길한 절기에 이르러 더욱 하늘의 복을 기대하며 우러러 기원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하로서 조정에 바치는 저의 작은 마음이 여러 방면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봉래산(蓬萊山)[593] 구름이 다가오면 수도를 우러러보고, 갈대 피리소리 바람에 실려오면 동지에 임금의 만수무강 축원을[594] 올립니다.

○ 冬至大殿賀箋

臨若日月, 照啓泰亨之昌期, 復見天地心, 膺履長之新化. 二階瑞色, 萬寓欣情. 恭惟, 道合彌綸, 接鴻圖於寰宇, 奠左海, 億萬年丕基, 功贊位育, 移鳳蹕於慶熙, 纘英廟五十載至治. 玆當令節之建子, 益仰天休之用申. 伏念臣魏闕寸心, 周幾方面. 蓬萊雲近, 仰嵩呼於春明, 葭管風噓, 獻華祝於冬至.

590) 이장(履長) : 24절기 중 하나로, 대설(大雪)과 소한(小寒) 사이에 들며 태양이 동지점(冬至點)을 통과하는 때인 12월 22일이나 23일 경을 가리킨다. 북반구에서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음기가 극성한 가운데 양기가 새로 생겨나는 때이므로, 1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591) 미륜(彌綸) : 두루 빠짐없이 고르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통섭(統攝)이나 총괄(總括)과도 뜻이 통한다.
592) 환우(寰宇) : 천자가 다스리는 땅의 전체. 세계(世界). 천하(天下). 환내(寰內)와도 뜻이 통한다.
593) 봉래산(蓬萊山) :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가상적 영산(靈山)인 삼신산(三神山) 중 하나이다. 동쪽 바다의 가운데에 있으며, 신선이 살고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전해진다.
594) 화축(華祝) : 화봉인(華封人)의 삼축(三祝)을 줄인 말로,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원함을 뜻한다.

순영(巡營)의 경계에 도착하여 올린 예장(禮狀)[595]

조정에서 임금의 은혜를 받아 지방의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관아에 여러 번 오셔서 그 교화를 널리 펼치시니, 백성들이 눈을 비비며 주목합니다. 빛이 스며들어 별을 돋보이게 하듯, 그 빛은 경월(卿月)에서[596] 비롯됩니다. 삼가 생각건대, 순찰사 합하께서는 오래된 가문에서 청렴하고 소박한 가풍을 지켜오셨고, 조정에서 명망을 떨치셨습니다. 학문과 지식의 서고를 관장하시며, 학문이 두텁고 뛰어난 인재로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또한 한 지역을 맑게 다스릴 책임을 맡으셨으니, 새로 부임하신 관찰사의 훌륭한 정치를 기대합니다. 때마침 삼보(三輔)의[597] 풍속을 살피는 시기에, 각 주(州)에서 공적을 세우고 신망을 얻게 된 기쁨을 맞이합니다. 부사(府使)를 맡은 저로서는 직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임을 느끼며, 재주가 부족하여 관직에 임명된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관리를 다스리는 데에 서투름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이 어려운 해에 저주(滁州)의 풍요로운 즐거움을 꿈꿀 뿐입니다.

○ 巡營到界禮狀

楓階膺往欽之恩, 方面重寄, 棠舍數來宣之化, 拭目群情. 照入補星, 出自卿月. 伏惟, 巡相閤下, 古家淸素, 熙朝聲望. 掌二酉圖書之藏, 藹蔚侯學士合聞, 任一路澄淸之責, 想望新刺史鳳積. 肆當三輔察俗之辰, 擧功諸州得重之喜. 伏念府使, 職忝俛仰, 才蔑求蒭. 踈於吏治自慚陽城之拙政, 値玆儉歲徒切滁州之樂豊.

595) 예장(禮狀) : 사례(謝禮)의 뜻으로 보내는 편지(便紙, 片紙)를 뜻한다.
596) 경월(卿月) : 경사(卿士), 판서, 집정자(執政者)를 가리킨다. 또한 경사는 오직 1년 중 월(月)에 대하여 살펴야 하므로, 경월은 경상(卿相)의 소임을 뜻하기도 한다.
597) 삼보(三輔) : 중국 한대(漢代)의 관할 지역인 삼보(京兆尹, 左馮翊, 右扶風)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중요한 행정 구역을 의미한다.

진무영의 경계에 도착하여 올린 예장 (禮狀)

진양(晋陽)의 보장(保障)을 맡아, 경월(卿月)의[598] 큰 빛에서 나와 길보(吉甫)의[599] 문무를 겸비하여 강화도 일대(沁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방어선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모든 요새가 안정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진무사 합하께서는 내외의 다양한 직무를 두루 경험하시며, 명성을 쌓아 오셨습니다. 남쪽 지역에서는 양태전(羊太傳)의 풍류와 여유를 즐기고, 북문에서는 구평장(寇平章)의 안정된 수비로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섬을 순시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오영(五營)의 공적을 평가하며 얻는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장(營將)인 저로서는 능력이 부족하여 겸손할 따름이며, 성실히 고을의 정사에 힘쓰고자 합니다. 길가에서 맞이할 때 정식 예를 갖추지 못해 송구스럽고, 여러 번 올려다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서신으로 표현합니다.

○ 沁營到界禮狀

任晋陽之保障, 出自卿月重光, 同吉甫之文武. 坐鎭沁水一方. 關防賴安, 壁壘皆變. 伏惟鎭撫閤下, 歷試內外, 素著聲譽. 南州風流羊太傳之裘帶有暇, 北門欽博寇平章之鎖鑰無憂. 玆當一島按節之辰, 擧功五營得重之喜. 伏念營將, 材慚鞅韋, 誠切芻牧. 路左候迎莫效執橐鞬之禮, 累上瞻仰粗伸奉書牘之忱.

598) 경월(卿月) : 경사(卿士), 판서, 집정자(執政者)를 가리킨다. 또한 경사는 오직 1년 중 월(月)에 대하여 살펴야 하므로, 경월은 경상(卿相)의 소임을 뜻하기도 한다.
599) 길보(吉甫) :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 북벌을 담당한 장군 윤길보를 가리킨다.

설날 아침에 순영(巡營)에 올린 예장(禮狀)

초반(椒盤)에 묵은 해를 보내고, 삼양(三陽)의 태평함을 기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임무를 맡아 백록(百祿)의 큰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음력 정월이 되니, 하늘로부터의 큰 복이 내렸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순찰사 합하께서는 인풍(仁鳳)과 같은 덕을 지니셨고, 복성(福星)이 비추는 곳마다 그 빛이 드러납니다. 삼보(三輔) 지역을 돌며 순시에 나서는 고귀한 정사를 수행하시고, 정사를 다스리며 청렴함을 유지하셨습니다. 매번 빈민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때가 되어 복숭아나무 가지가 바뀌는 절기에 이르렀습니다. 변변치 않게도 백주(栢酒)를 바치며, 간신히 그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부사(府使)로서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며, 마음은 힘들고 정사는 절실합니다. 몸은 바쁜 와중에 일에 얽매여 지내면서도, 아직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편지를 손에 들고 간신히 기원을 드리는 마음을 전합니다.

○ 巡營正朝禮狀

椒盤餞舊履三陽之泰回, 棠舍迁新膺百祿之鼎至. 建寅之月, 休申自天. 伏惟巡相閤下, 仁鳳奉揚, 福星所照. 重三輔旬宣之貴政切攬轡之澄淸, 經一省經濟之謨每念窮蔀之調恤. 迨當桃枝換符之序, 庸效栢酒獻籌之仪. 伏念府使, 歲荒民飢, 心勞政切. 身縻樽牒未遂起居之規, 手擎書函粗伸頌禱之悃.

설날 아침 진무영에 올린 예장(禮狀)

한 섬에 방비가 튼튼한 요새를[600] 정하고, 요새를 일신하여, 곡수(穀燧)가 바뀐지 3년째로,[601] 천지가 회태(回泰)하니[602] 고례(古禮)를 법식으로 삼아 준행하고, 새해를 경건하게 맞이하여 경하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진무사 합하께서는 방비를 엄격히 하고 문무를 두루 갖추셨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아 오신(五申)의 금도(軥韜)를 총괄하고, 금궤를 비밀리에 숨겨 이유(二酉)의 승사(乘史)를 보호하였습니다. 지금 별자리가 정월을 맞아 하늘의 복록이 더해졌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근래의 어려운 국면이 쉽게 풀리지 않아 매우 유감입니다. 강화 수로로 통하는 길이 막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더욱 죄송스럽습니다. 봄이 되어 인천부로 다시금 돌아왔으나,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 鎭撫營正朝禮狀

金湯奠於一島壁壘改觀, 穀燧換於三元 天地回泰. 式遵古禮, 敬賀新年. 伏惟鎭撫閤下, 地嚴關防, 才兼文武. 玉節重任摠五申之軥韜, 金櫃秘藏護二酉之乘史. 玆當星杓之寅建, 益膺天祿之申休. 伏念, 樊局難蘇, 兼啣尤愧. 路通沁水未遂趍拜之誠, 春回邵城徒切瞻仰之悃.

600) 금탕(金湯) : 금성탕지(金城湯池). 즉 '쇠로 만든 성(城)과, 그 둘레에 파 놓은 뜨거운 물로 가득 찬 못'이라는 뜻으로, 방어(防禦) 시설이 잘되어 있는 성(城)을 이르는 말이다.
601) 곡수(穀燧) : 곡(穀)은 곡식을 이르고 수(燧)는 불씨를 취하는 나무로 모두 1년을 의미하는 바, 곧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이라는 뜻이다.
602) 회태(回泰) : 천지의 기운이 막힌 비괘(否卦)에서 태괘(泰卦)로 돌아온다는 말이다.

동지(冬至)에 순영(巡營)에 올린 예장(禮狀)

옥절(玉節)은 종통을 이어, 삼보(三輔)에 인풍(仁風)을 일으키며, 황종(黃鍾)의 음률은 새해의 상서로운 광명을 맞이합니다. 묘사에서는 갈대를 불어 만물을 이롭게 하고, 풀들이 무성해지도록 교화를 널리 베풉니다. 삼가 생각건대, 순찰사 합하께서는 팔좌(八座)의 자리에 앉아 천리의 경계를 굳건히 지키시며, 조정으로부터 이미 존경을 받아온 분입니다. 명덕(令德)을 서서히 펼치고, 맑게 다스림이 이미 고삐를 잡은 데 드러났으며, 오래된 병폐들이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동지(冬至)와 하지(夏至)가 맞는 시기에, 백복(百福)의 경사를 기원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부사(府使)인 저는 나이가 많고 능력이 부족하여, 백리(百里) 땅의 농업을 관리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칭송드리는 마음만 간절할 따름입니다.

○ 巡營冬至禮狀

玉節承統颺仁風於三輔, 黃鍾計律迓祥暉於一陽. 序廟吹葭, 化洽偃草. 伏惟巡營閤下, 居八座位, 奠千里畿. 聲望夙仰於立朝令德漸布, 澄淸已著於攬轡宿瘼咸蘇. 玆當二至之辰, 益膺百福之慶. 伏念府使, 蒲柳齡暮, 篘牧才踈. 百里桑麻曷副撫字之責, 一省棠蔆徒切欽頌之忱.

동지(冬至)에 진무영에 올린 예장(禮狀)

바다가 평온하고, 맑은 시대에 방어의 임무를 맡아, 북쪽 지역에 이르러 좋은 시기에 복을 맞이하고 기쁨과 번영을 누리며 천둥과 함께 즐거움을 얻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진무사 합하께서는 문무를 겸비하시고, 명망이 높아, 강화도에 머무시며, 군사 권한을 행사하시고, 오영(五營)의 호위 부대는 엄숙하며, 해문(海門)의 요충지를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천리의 바다도 고요합니다. 이제 양기(陽氣)가 회복되는 시기에, 더욱 길고 행복한 축복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부사(府使)인 저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고을의 정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큰 겨울 추위가 심한 가운데, 찾아뵙는 예를 다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작은 봄의 따뜻함이 돌아올 때에 서신으로 안부를 전하는 예를 올립니다.

○ 鎭撫營冬至禮狀

波晏庶溟淸時膺保障之任, 日至北陸令辰迓福履之綏. 慶隨陽生, 歡與雷動. 伏惟鎭撫營閤下, 才兼文武, 望隆居留. 沁都按鞫鈐之權五營之虎旅是肅, 海門任鎖鑰之壯千里之鯨波不驚. 玆當陽復之辰, 益迓履長之慶. 伏念府使, 材慚靺韋, 誠切篛牧. 大冬寒劇違橐鍵趍拜之儀, 小春陽回效書牘起居之禮.

영(營)에 보고함

대원군 합하께서는 재정을 이루는 공이 있어, 나라의 모든 일을 안정시키셨고, 모든 일에 세세한 것까지 밝히지 않으신 것이 없어,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실행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크고 위대한 공적을 쌓아 나라에 기여하셨고, 깊은 은혜와 은택을 널리 베풀어 백성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모든 혈기(血氣)가 있는 부류들은 어느 누가 이를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병인년 이후, 사악한 세력들이 번성했으나,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자를 처벌하여 위엄을 보이셨고, 이로 인해 도(道)는 더욱 빛났습니다. 서양 오랑캐들이 창궐하여 바다에 출몰하자, 병사들을 보내 그들을 막아내어 흉악한 무리들이 멀리 도망쳤습니다. 이 공은 대우(大禹)가[603] 홍수를 막고 맹수를 몰아낸 것에 버금가며, 그 의리는 공자가 화사(華士)를[604] 주벌하고 춘추시대의 질서를 세운 것보다도 더 큽니다. 모든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업을 통해 번영할 때, 오직 우리나라만은 겨울의 소나무처럼 굳건히 독립하여 동쪽 땅의 3천 리를 지키며 윤리와 도덕을 세웠습니다. 왕의 법도가 크게 떨쳐 마치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흰 태양을 보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찌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본 고을은 해문(海門) 위치하여 누차 혼란을 겪었으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대원군 합하의 공덕 덕분입니다. 땅이 바다와 접해 있어 여러 번 흉년을 만나 죽음에 이를 뻔하였으나,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대원군 합하의 혜택 덕분입니다. 기근을 보고하니 곡식을 옮겨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군정에 폐단이 생기면 바로잡아 보완하셨습니다. 양세(兩稅)의 가을 징납분을 연기하여, 세금을 되돌려주는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만고에 없던 큰 덕행입니다. 온 고을의 크고 작은 백성들이 은혜를 깊이 느껴, 절벽에 새겨 덕을 찬양하고 비석을 세워 공적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를 의논하고 있는 시점에 가평(加平)의 민인 엄세영(嚴世榮)의 통문이 마침 도착했는데, 이는 작은 백성의 사사로운 통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먼저 이청(吏廳)에서부터 지사(知事)를 보냈고, 읍리(邑吏)가 가평의 주인(主人)에게 가서 사실을 상세히 탐문하였습니다. 정기 모임을 열어 함께 모여 백성들의 마

603) 대우(大禹) : 고대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이다. 성은 사(姒), 이름은 문명(文命), 자는 고밀(高密)이다. 역사서에서는 그를 대우(大禹), 제우(帝禹)라고 칭한다.

604) 화사(華士) : 사람 이름인 동시에, 허위(虛僞)를 일삼는 선비를 말한다. 태공망(太公望)이 공을 세워 제(齊)나라에 봉해졌는데, 광율(狂矞)과 화사(華士) 두 사람이 신하되기를 거부하자, 태공이 이들을 죽였다. 주공이 그 이유를 묻자 태공이 답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어진 현사(賢士)라고 하나 군주에게 등용되기를 꺼리고, 행실이 어질다고 하나 세상에 쓰이려 하지 않기에 죽였다고 하였다.

음이 기쁨에 넘쳐 서로 앞다투어 이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중대한 관계로, 삼가 처분을 기다려 거행하겠습니다.

○ 報營

大院位閤下, 輔相財成之功, 貞百度康, 庶事靡細不燭, 靡大不擧, 弘功偉烈, 有造於邦國, 深恩沛澤, 博施於民人. 凡有血氣之類, 夫熟不浹骨感戴也. 粤自丙寅以後, 邪流滋蔓, 誰惑愚迷, 則誅之似威, 斯道益闡. 洋夷猖獗, 海舶出沒, 則臨之以兵, 凶醜遠遁. 功於不下於大禹, 抑洪水驅猛獸, 義則大於夫子之誅華士, 作春楸擧天下. 萬國靡國不洋作堂焉, 通商焉. 惟我國, 若火冬之松, 挺然獨立, 環東土三千里, 扶植倫彝, 王網大振, 如披靑天覩白日. 令日我國之民, 豈不樂且幸也. 本邑逼在海門, 屢經騷撓, 危而復安, 莫非大院位閤下功德也. 地接斥鹵, 連値歉荒, 死而復穌, 亦莫非大院位閤下惠澤也. 告之以飢, 移粟而飯之. 軍政有弊, 釐正而補之. 兩稅之待秋, 停退錢還之本. 錢收捧亘萬古, 所未有之盛德. 擧一邑大小民人, 感恩刻骨, 磨崖頌德, 立石紀功. 方在收議之際, 加平民嚴世榮之通文適到, 而係是小民之私通. 故昨年冬, 先自吏廳起送知事, 邑吏於加平主人處詳探事實. 的知期會, 同力齎擧, 民情歡趨, 踴躍爭先, 而事係重大, 伏俟處分, 擧行伏計.

군무(軍務)에 관해 영(營)에 보고하는 문서

군사(軍事)는 농업에 의지하므로, 농한기에 무예를 강습하는 것은, 이는 삼대(三代)의 유전된 전통으로,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다스리고, 국가가 위태롭기 전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병인년 이후, 서양 오랑캐들이 자주 침략하여 그 흉악함을 드러냈으나, 평화로운 시대가 오래되면서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여러 군현(郡縣)은 모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는 모두 준비가 부족하여 그들이 틈을 탄 것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계하는 계획을 세우고, 국경을 견고히 지킬 계책을 염두에 두어, 각 지역에서 활과 대포를 준비하여 충성심과 의리를 격려하고 무예를 연습하게 했습니다. 이는 진정 국가의 만세에 걸친 장구한 걱정입니다. 십만 군사를 양성하고 한 달만에 성과를 거둔다면, 서쪽의 적들이 이를 듣고 반드시 겁에 질려 감히 기세를 부릴 수 없을 것입니다. 활과 대포를 가르치는 일은, 그 책임자가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고, 관리들이 충의와 지략이 있는 자를 각 지역에서 선발하여 임무를 맡기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선비들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관직에 오르는 것은 상급자가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므로, 좋은 미끼 밑에는 반드시 죽은 물고기가 있고, 큰 상 아래에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이 활과 대포를 준비하는 것은 외적을 방어하고 국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비록 당나라의 부병(府兵)과 송나라의 상병(廂兵)이라도 이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술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은 오로지 계장(稧長)의 인재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하면, 한 군대가 그에게 의지하고, 한 읍이 그에게 의지하며, 국가가 그에게 의지하여 걱정이 없고, 백성들이 그에게 의지하여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찌 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인재를 얻는 방법은 격려에 있으며, 격려의 방법은 관직과 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각 계장(稧長)은 그 재능과 전략에 따라 그의 근면성을 살피고, 군영에서의 상황을 보고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야 합니다. 한 명이 백 명을 격려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 깊은 산 속에서 뜻 있는 자들이 연이어 일어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들이 긴급 상황에서 반드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활쏘기는 성인의 가르침 중 하나이며, 병법 중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 사용 방법은 다양하며, 기술도 여러 가지입니다. 철제 화살, 나무 화살, 기마 활쏘기, 버드나무 잎 화살 등 각기 그 묘미를 나누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활과 쇠

뇌로, 한 번에 열 개의 화살을 발사하여 수백 걸음 밖의 적을 쏠 수 있습니다. 활은 단목(檀木)과 상목(桑木)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늘어짐이나 긴장에 따른 피로가 없습니다. 이 활쏘기 기술은 노약자나 여성도 숙련되지 못할 걱정이 없습니다. 마릉(馬陵)의 전투와 목문(木門)에서의 승리도 모두 이 쇠뇌 덕분이며,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포(砲)와 쇠뇌가 함께 사용됩니다. 적이 비록 날개가 달려 용감하더라도 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며, 급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활쏘기 훈련에 관에서 두세 개의 쇠뇌를 지급하여 그 모양을 본따 제작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활쏘기를 익히도록 한다면, 한 달을 기약하지 않아도 모두 숙련될 것입니다. 비록 적을 맞닥뜨려 화살이 다하고 활이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이 쇠뇌는 다시 당기거나 부러질 걱정이 없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나 쑥대에 촌철(寸鐵)을 화살촉으로 사용하면 적을 죽일 수 있으니, 이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각 훈련장에서 교련을 더욱 강화하도록 명하십시오.

○ 因軍務報營狀

寓兵於農, 農隙講武, 三代之遺傳, 而制治於未亂, 保邦於未危者也. 自丙寅以來, 洋夷屢侵, 斯其凶毒, 而昇平日久, 民不知兵, 沿海諸郡, 擧皆驛騷, 皆由陰雨未備, 使彼乘釁故也. 特軫詰戒之謨典, 念固圉之策, 各設射砲稧, 使之激勵忠義, 鍊習技藝, 此實爲國家萬世, 長遠之慮也. 十萬養兵, 期月奏切, 西賊聞之, 必破其膽, 安敢凱覦乎. 茅射砲之敎鍊在乎. 稧長之得人, 守宰揀選, 每面忠義智略, 爲一面所素信服者, 各一人委任責成, 而夫榮名者, 士之所以爲命也, 爵賞者, 上之所以奬勵也, 故香餌之下, 必有死魚重賞之, 下必有義士. 今此射砲稧之設, 禦侮邊門, 捍衛國家, 雖唐朝府兵, 宋代廂兵, 無以過之. 然而軍心之齊一, 技藝之精熟, 專在於稧長之得人, 其人夫, 則一軍賴之, 一軍賴之, 一邑賴之, 國家賴而無憂, 人民賴而安堵, 反不重歟. 得人之道, 在於激勸, 激勸之道, 在於爵賞. 今夫各稧長, 隨其才略, 察其勤幹, 自巡營狀聞調用, 以一勵百衆心鼓動, 巖穴有志之士, 將接踵而起, 爲國家出死力, 其於緩急, 必有可恃, 而夫射者, 聖門之一藝, 兵家之長技, 其用不一技, 亦多術, 有鐵箭片箭, 騎射柳葉箭, 各劃其妙, 而其.最緊者, 有弓弩一發十矢射賊於數百步之外, 弓制卽檀木桑木, 更無弛張之勞, 射法則老弱婦女, 亦無巧拙之患, 馬陵之役, 木門之捷, 皆此弩而臨陣制勝砲弩, 幷擧賊, 雖有插翅添翼之勇, 便當駟不及舌雷不掩耳. 今於射稧, 自官出給弩機一二座, 使之依樣製造 人人習射, 則不期月擧皆鍊熟, 雖臨敵倉猝, 矢盡弓折之際, 此弩本無反張缺折之患, 柳枝蓬蒿, 以寸鐵爲鏃, 則可以殺賊, 此乃兵器之最要者也, 使各稧令加敎鍊事.

인천부의 방어(防禦)에 관해 삼가 올립니다.

장수로서의 계략이 손무(孫武)·오기(吳起)의[605] 병법과 공수(龔遂)·황패(黃霸)의[606] 선정을 겸비하였다는 포계(褒啓)에[607] 대한 임금의 비답이 만 길의 빛을 발합니다. 백성들이 죽을 각오로 북쪽 보루를 지키고, 병사들은 칼날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서양 세력을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관아 건물을 수리하는 데 민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때마침 곡식을 실은 선박을 만나 흉황을 구제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명아주 잎과 콩잎으로[608] 생계를 잇게 하여, 학산(鶴山)의 진(鎭) 한곳으로 동쪽 고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임금께서 신하를 알아보시어, 인천의 부사로 보내신 것이 몇 해가 지났습니다. 북을 우레와 같이 울려 멀리 있는 적을 놀래키고, 돛에 바람을 가득 받아 굶주린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공훈(功勳)은 이미 중원의 나라들에 알려졌고, 덕정(德政)은 다른 지역의 백성들에게까지 더해졌습니다. 방어에는 신묘한 계책이 있었고, 구휼에는 뛰어난 방책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널리 퍼졌고, 위엄은 바닷가까지 떨쳤습니다. 우리 고을은 노란 오이를 바쳐 조정에 공헌하였고, 다시 임금의 비답이 만 배로 빛납니다. 학산(鶴山)의 노래는 청주군(淸州郡)의 영예가 되었고, 용이 변화한 기계는 바다를 지키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장수들은 손자와 오기의 병법을 익혀 모두 적을 정벌하였으며, 정치는 흉년을 다스리고 고을을 평온하게 하였습니다. 벼슬은 점점 높아져 명성을 쌓았으며, 그 이름이 조정에 가득하고 사방에 떨쳤습니다. 소성(邵城)의 한 면은 긴 성벽을 이루었고, 진해문(鎭海門)은 높이 솟은 방어 요새가 되었습니다. 관리와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고, 정치는 화합을 이루어 조정과 백성들 사이에서 명성이 드높았습니다. 맹세로 보답을 도모하며 참으로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고, 칭찬과 은총은 성군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옛 관례에 따라 도호사(都護使)를 겸임하게 되었으며, 이제부터 권한이 더해져 책임을 다해 직무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

605) 손오(孫吳) : 중국 춘추 시대 병법의 대가인 손무(孫武)의 『손자병법(孫子兵法)』과 오기(吳起)의 『오자병법(吳子兵法)』의 합칭이다.
606) 공황(龔黃) : 중국 한나라 때 지방 장관으로 선정을 베풀어 치민(治民)이 으뜸으로 꼽혔던 발해태수(渤海太守) 공수(龔遂)와 영천태수(潁川太守) 황패(黃霸)를 아울러 일컬은 말이다.
607) 포계(褒啓) : 각 도의 관찰사나 어사가 고을 수령의 선정(善政)을 임금에게 아뢰던 일을 가리킨다.
608) 여곽(藜藿) : 명아주 잎과 콩잎이라는 뜻으로, 아주 변변치 못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謹呈邵城防禦

將略孫吳兼龔黃，褒啓恩批萬丈光．民有死心守北壘，兵無血刃走西洋．不煩鈴索修公府，適會粮船救歲荒．可使登坍藜藿衛，鶴山一鎭東曲方．明明聖主有候臣，出宰仁川度幾春一．鼓雷鳴驚遠敵雙，帆風飽活飢民．功勳已聞中原國，德政猶加外邑人．防禦神機賙恤策，恩宣威振海之濱．惟吾府引菰黃，復有恩批萬倍光．鶴山歌曲淸州郡，龍變化機鎭海洋．將習孫吳兵咸賊，政兼遂覇歲治荒．垂垂簪紱登坍業，名滿一朝振四方．邵城一面作長城，鎭海門高防禦營．課最吏民如失望，政和朝野已聞名．矢言圖報眞良佐，褒寵優恩荷聖明．因舊例兼都護使，從今權重梱任行．

경 기 감 영 의 포 계 (褒 啓) 609)

인천의 구○○(具○○)은 평소에 손무(孫武)와 오기(吳起)의 병법서를 익혔고, 공수(龔遂)와 황패(黃霸)의 재능을 함께 갖추었습니다. 연해의 일곱 포구에 신설된 병력을 배치하여, 천 명의 병사로 비상시에 대비하였으며, 경성의 두 곳에 새로운 장성을 쌓아, 중요한 수로를 엄중히 방어했습니다. 지난해의 구휼 정책으로 인해 백성들은 모두 안심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관아의 일에 몸소 나서서 직접 일을 처리하였으며, 위대한 행적과 우수한 업적이 있어 한두 가지로만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군사 준비에 있어 많은 이들이 그의 떠남을 아쉬워하니, 그의 임기를 한 과(瓜)를 더 연장하여,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비답에 이르기를, "이 인물의 재능과 전략을 내가 모두 알고 있기에 충분히 국방의 중책을 맡길 수 있다. 특히 방어사(防禦使)의[610] 이력을 허락하며, 한 과(瓜) 더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기를 연장하노라."

○ 畿營褒啓

仁川具○○, 素習孫吳之書, 兼抱龔黃之材, 沿海七浦新設, 千兵豫備陰雨之綢繆, 京師二舍, 新作長城, 嚴防水道之要衝. 昨年賑政, 民皆安堵. 今春廨役, 身自操板, 偉行優跡, 非一二可奬. 今當箇備衆惜其去, 限一瓜仍任, 以副民望事. 批曰, 此人材略, 予所摠知, 足可當干城之任, 特許防禦履歷, 限一瓜仍任事.

609) 포계(褒啓) : 각 도의 감사(監司)나 어사(御史)가 고을 수령(守令)의 선정(善政)을 임금에게 아뢰던 일이다.
610) 방어사(防禦使) : 군사 요충을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한 종2품의 무관 벼슬을 가리킨다.

향교절목의 서(序), 인천향교 절목의 서(序)

무릇 교(校)는 옛 사람들에 의해 설립된 것입니다. 헤아리건대 삼대(三代)[611] 이래로, 상(庠)과 서(序)는[612] 호칭이 다르지만, 그 뜻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상(庠), 서(序), 학(學), 교(校)를 설립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삼가 효도와 공경의 뜻을 알게 하며, 사람에게 도리가 있음을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성인(聖人)의 근심은 어찌 이보다 깊을 수 있겠는가? 아! 우리 조선은 단군과 기자의 교화를 입고 공자의 도(道)를 숭모하여 예의(禮義)를 높이고 민심을 일으켰습니다. 나라에는 성균관이 있고 고을에는 향교가 있으니, 학문은 날로 깊어지고 제사는 점차 번성하였으며 인간의 도리가 갖추어졌습니다. 선비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3천 리에 걸쳐 변화를 일으켜, 성인의 땅으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도(道)는 변하고[613] 세상도 변하니,[614] 어찌 일종의 간사한 말이 서쪽 오랑캐〔西戎〕로부터[615] 창궐하기 시작하여 중국에 닿았고 점차 세계로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온 세상에 미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유혹은 우매한 자들을 현혹시켰으며, 하늘의 상도〔天常〕를[616] 멸한 그 죄는 양주와 묵적, 노자와 불교보다도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그 해악은 홍수와 맹수보다 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수백 년 동안 거대한 괴수를 제거하고 그들의 소굴을 깨부수어 겨우 씨가 남지 않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물에서 빠져나온 무리들이 다시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 서로 선동하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아! 순환의 이치는 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으며, 하늘이 1864년〔甲子〕에[617] 계시를 내려, 밝은 성군이 극치에 이르러 어두운 거리를 열어 환하게 비추셨으니, 마치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오른 듯합니다. 이는 곧 대원군 합하께서 하늘이 부여한 자질로 스스로 국왕을 보좌하는 공로를 맡아 크고 작은 일들 중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살펴온 덕분이니, 모든 일이 올바르고

611) 삼대(三代) : 고대 중국의 하(夏)·은(殷)·주(周)의 세 왕조를 가리킨다.
612) 상서(庠序) : 학교(學校)를 달리 이르는 말. 향교(鄕校)를 주( )나라에서는 상(庠), 은(殷)나라에서는 서(序)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613) 소장(消長) : 쇠(衰)하여 사라짐과 성(盛)하여 자라남을 뜻한다.
614) 융쇄(隆殺) : 융성하거나 사그라듦을 뜻한다.
615) 서융(西戎) : 서융(西戎)은 서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지금의 화서, 관중의 산시성 서부, 간쑤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이민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616) 천상(天常) : 하늘이 정한 상도(常道). 인륜(人倫) 오상(五常)의 길을 뜻한다.
617) 갑자년(甲子年) : 고종 원년, 대원군의 섭정을 의미한다.

만사가 평안합니다. 사악함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거리에 비석을 세워 만세에 경계가 되게 하였고, 올바름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태묘를 중수하고 선성(先聖)을 존경하며 예를 다하니, 우리의 도(道)가 더욱 널리 밝혀지고, 선비들의 기풍이 다시 일어났으며, 태평성대의 운명이 오늘날에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구완식 부사께서 서반(西班) 3품의 품계로, 이 나라를 지키러 오셨으니, 이는 조정에서 특별히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수레에서 내리시던 날, 곧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으니, 무엇으로 감히 그 뜻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선비를 기르고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일을 고제(古制)에 따라 처리하고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871년〔辛未〕 여름에 서양의 선박이 바다를 침범하였으니, 이는 곧 고을의 서쪽 경계였습니다. 그 기세가 매우 드세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부사께서는 병사가 천 명도 되지 않고, 양식이 하루를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충성과 의리를 북돋우고, 방략을 내려주며, 밤낮으로 어루만지고 다독이며 피곤함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48일이 지나자 적은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이내 도망쳤으며, 한 지역이 의지하여 평온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리석은 백성들도 적을 섬멸한 것이 충의(忠義)이며, 사악함을 몰아낸 것이 의로운 일임을 알게 되었으니, 부사의 공로가 아니면 누가 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 고을에 향교가 있는 것은 나라에 성균관이 있는 것과 같으니, 이는 곧 선성(先聖)의 제사를 올리는 곳이자, 한 고을에서 가장 선한 풍속을 이끄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향교가 황폐히 무너지고, 오래 묵어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부사께서 몹시 분히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성묘(聖廟)를 아직 중수하지 못한 것은 실로 유림의 수치이다. 이를 관리하는 수령으로서 어찌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는가? 다른 길로 벗어나는 것을 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감동받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나는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몇몇 유생들과 함께 향교를 새롭게 수리할 것을 도모하였고, 1871년〔辛未〕 가을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872년〔壬申〕 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성묘(聖廟)의 모습이 빛나고 찬란해지니, 이를 본 사람들이 경사스러워하며 하루종일 기뻐하였다. 부사께서 이내 말씀하시기를, "향교에는 교임(校任)이 있으니, 이는 곧 재(齋)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성묘(聖廟)를 지키는 것은 향교의 가장 큰 책무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교임(校任)을 맡은 자들이 초하루와 보름에 향을 사르는 것 외에는 전혀 재실(齋室)에 거하지 않아, 결국 어수선한 사람들이 사당의 부엌에서 놀며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져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점이 참으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으며, 놀라움과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향교에는 장의(掌儀) 2원(員)과 색장(色掌) 2원(員)이 있는데, 이는 예전부터의 제도이다. 장의는 특히 엄선하여, 고을에서 나이가 많고 덕행이 뛰어나며, 명망이 있는 사람들 중 관에

서 직접 임명하여 직책을 부여하였다. 이는 곧 나라에서 명령한 뜻에 따른 것이다. 이들로 하여금 향교의 일을 총괄하게 한 것이다. 이에 색장 2원(員)은 새로 정하고, 유사(有司) 2원(員)도 모두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이는 젊고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 차례로 재실에 거처하게 하고, 봄과 여름에는 시를 낭송하며 가을과 겨울에는 책을 읽게 하면, 성묘(聖廟)를 지키고 인재를 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고을 전체가 선성(先聖)의 도를 따른 것을 숭모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다행히 성군이 다스리는 시대를 만나 치우친 은혜를 입었고, 우리 부사께서 사람들을 교화하시어 학문을 갈고 닦게 하여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였습니다. 아!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맡고 있으나, 송택(宋宅)에서 영원히 장의(掌儀)의 직책을 맡게 된 것은 너무 과분한 혜택을 입은 듯합니다. 마침 오늘의 성대한 일이 일어났고, 비록 문장에 능하지 않지만, 그것을 묵묵히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간략하게 그 개요를 기록해 두고자 합니다. 아! 삼대(三代)의 다스림과 효제(孝悌)의 의리(義理)를 대원군 합하께서 위에서 행하시고, 우리 구완식 부사께서는 그것을 아래에서 펼치시니 단군과 기자의 가르침과 공자의 도(道)가 거의 재현되어 이상적인 통치의 시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선에서 태어난 자들이 어찌 불행하겠습니까?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1873년〔癸酉〕 중춘(仲春)[618] 상한(上澣)에,[619] 완산(完山)의 이우항(李遇恒)이 기록함

○ 校中節目序 仁川鄕校節目序

夫校者, 古之人所以設也. 盖自三代以來, 庠序殊號, 而其義則一. 故孟子曰, 設爲庠序學校以敎之, 申之以孝悌之義, 人之有道也. 聖人之憂, 不亦深乎. 嗚呼, 我東承檀箕之化, 慕夫子之道, 尙禮義而民興, 國有學邑有校, 宮墻之美, 俎豆之盛, 彝倫之惟敍矣. 士之所關環東海三千里一變, 至於聖人之域. 嗚呼, 道有消長, 世有隆殺, 夫何一種邪【邪】說, 自西戎而倡始通中國, 漸以至於天下. 靡國不洋誕惑愚迷, 滅其天常罪浮於楊墨老佛, 害甚於洪水猛獸. 伊來數百年, 殲厥巨魁, 打破窩窟, 始無遺育, 而猶有漏網之徒, 種下種生, 互相煽訛【訛】大亂, 眞矣. 嗚呼, 循環之理, 無往不復, 天啓甲子, 聖明於極一闢昏衢, 如日中天時, 則若大院位閤下, 而天維之資, 自任輔相之功, 靡大不擧靡細不燭, 百度惟貞, 庶事康哉. 斥邪則竪碑鍾街垂戒萬年, 扶正則重修太学, 尊禮先聖, 吾道益闡士氣復振, 一治之運, 復覩於今日. 嗚呼, 我侯具公, 以西班三品秩, 來守是邦, 卽朝家格外特命也. 下車之日, 乃誥于衆曰, 予不能事事, 其何以對揚, 凡所以養士治民, 悉遵古制, 而益勉焉. 在辛未夏, 有洋舶犯海, 卽郡之西界也. 勢甚鴟張, 人皆危懼, 侯於是兵不滿千,

618) 중춘(仲春) : 봄이 한창일 때를 말한다.
619) 상한(上澣) : 한 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를 말한다.

粟無支日，乃激以忠義，授以方略，日夜撫循，勞以不憚，于今四旬有八日，賊知不敢犯，乃遁去，一境賴而安堵．雖愚夫愚婦，皆知殲賊之爲忠，斥邪之爲義，微侯之功，其孰能之．嗚呼，邑之有校，猶國之有學，先聖俎豆之所，一鄉首善之地，而年久頹圮臒剝落．侯乃慨然歎曰，聖廟之未遑重修，實爲士林之恥，而爲其守宰者，亦何敢辭其責乎．其在衛闢異之道，無而觀瞻而興起，吾以是懼．於是與一二章甫，謀新之，以辛未秋始，粤明年壬申春工訖，廟貌煥然，觀者賀之樂之日，侯乃言曰，校有校任，卽爲守齋而設守齋，所以衛聖廟也．今則不然，爲校任者，朔望焚香之外，一不居齋，至使閒雜之人，遊戲於廟庖，恬不爲怪，予實恥之，不勝驚惕，校有掌儀二員，色掌二員，乃舊制．而掌儀則極擇，一鄉之年高德卲，地望表著之人，官以塡爲字，此乃朝家命義也．使之摠理校事，色掌二員新定，有司二員并準選，年少才孚之人，使之輪流居齋，春夏誦詩，秋冬讀書，則可衛聖廟，而育人才矣．夫如是則吾道益闡，士氣復振，大院位閤下，扶正斥邪之盛意，庶幾萬一，豈不美哉．於是一鄉之慕，先聖之于孚者，莫不攢手相賀曰，吾儕幸逢聖世偏蒙，我侯作人之化，切磋琢磨之工，自此有造矣．嗚呼，不怜與同任，宋宅永忝居掌儀之任，適値今日盛擧，雖素不嫻於文辭，亦不可以泯默，略擧其概而記之．嗚呼，三代之治，孝悌之義，大院閤下行之於上，我侯具公宣之於下，檀箕之化，夫子之道，庶復見至治之世矣．今日生於我東者，豈不幸哉．其不樂哉，凡我一鄉僉君子曷之哉．歲癸酉仲春上澣，完山李遇恒撰．

1. 봄·가을 대향(大享) 때, 들어오는 물품은 미리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늘리거나 줄인다.
1. 대향(大享) 때, 헌관(憲官) 7원(員)은 관에서 제공한다.
1. 대축(大祝), 집례(執禮) 2원(員), 제사에 참여하는 여러 유생 8원(員)은 서재(西齋)의[620] 유생 16명 중에 정하며, 음식은 재중(齋中)에서[621] 마련한다.
1. 방외유생(方外儒生)의[622] 식사 차림은 재(齋)에 들어온 날 저녁부터 재(齋)에서 나가는 날까지의 삭수(朔數)를 계산하여 재중(齋中)에서 마련한다.
1. 중일(中日)의[623] 아침과 저녁은 규례에 따라 식당에서 제공한다.
1. 기한에 앞서 10일 전에 건과·육포를 만들 때, 술과 쌀은 2말〔斗〕로 한다.
1. 대향(大享) 때, 밥은 각 상(床)마다 1되〔升〕씩,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의 술과 쌀은 12말〔斗〕를 넘지 않는다.
1. 열두 달의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의 삭망전 분향(焚香) 시에는 동재(東齋)에서 1원(員), 서재(西齋)에서 3원(員)을 정한다.
1. 매달 삭망전 분향(焚香) 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의 4원(員)이 아침 저녁으로 규례에 따라 음식을 제공하되, 각 상마다 밥 7홉〔合〕, 반찬값 3푼〔分〕, 분향 때 술값 1전(錢) 외에는 남용을 금지한다.
1. 장의(掌儀),[624] 유사(有司),[625] 색장(色掌)은[626] 모두 6원(員)이며, 재중(齋中)에서 엄선하여 3망(望)을 갖추고, 관에서 결정하여 이름을 써넣는다.
1. 유사(有司)와 색장(色掌)은 재(齋)에 거처하며, 4월부터 6월까지 글짓기 모임을 하고[627]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독서 모임을 한다. 식사는 각 상마다 밥 7홉, 반찬값 3푼으로 하고, 겨울 3삭(朔)의 촛불 값으로 4푼씩을 마련한다.
1. 유사(有司)와 색장(色掌) 4원(員)이 재(齋)에 거처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

620) 서재(西齋) :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이나 향교(鄕校)의 명륜당(明倫堂) 서쪽에 있던 건물로, 유생(儒生)이 거처하고 공부하는 곳이다.
621) 재중(齋中) :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이나 향교(鄕校)의 상·하재(上·下齋 : 상재는 동재와 서재의 맨 아래쪽에 위치, 하재는 동재와 서재의 맨 위쪽에 위치)에서 기숙하며 수업하는 유생 혹은 그 재에 있는 것을 말한다.
622) 방외유생(方外儒生) : 거재유생(居齋儒生)과는 달리, 거재(居齋)하지 않는 성균관이나 향교의 유생을 뜻한다.
623) 중일(中日) : 한 달을 초·중·종으로 나눌 때, 자(子)·오(午)·묘(卯)·유(酉)일에 해당하는 날을 가리킨다.
624) 장의(掌儀) :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예식(禮式)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직무이다.
625) 유사(有司) : 조선시대에 각 기관에서 사무(事務)를 맡아보던 직무이다.
626) 색장(色掌) : 조선시대에 성균관(成均館), 향교(鄕校), 사학(四學) 따위에 거처하던 역원(役員)을 가리킨다.
627) 개접(開接) : 글을 짓고 읽는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가리킨다.

(齋)를 비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공부에 힘쓰지 않으면, 재중(齋中)에서 벌을 내려 재(齋)에서 쫓아낸다. 만약 한가한 잡인들이 왕래하여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북을 울려 벌을 내린다.

1. 만약 재(齋)의 식량을 가지고 공부하러 온[628] 자가 있으면, 모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1. 향교의 7결(結) 복결(復結)은[629] 봄·가을 대향(大享) 시 사용된 물품 마련과 관계된 매우 중요하고 각별한 것이다. 그러나 창고지기들이 부정을 저질러 예매(預賣)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유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절차가 부실하고 대충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생각하면 놀랍고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는 향교의 재임(齋任)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엄격히 금지하여, 예매(預賣)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한다. 만약 이러한 뜻을 모아 절목(節目)을 마련한 이후에도 다시 과거와 같은 폐단이 발생한다면, 해당 창고지기는 관청에 보고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며, 본래의 결복(結卜)을 예매인에게 되돌려 징수할 것이며, 당시의 재임(齋任) 역시 재중(齋中)에서 벌을 내려 쫓아낼 것이다.
1. 매년 향교의 돈과 곡식의 지출과 수입에 대한 총계는 사용분〔用下〕과 잔여분〔餘在〕으로 구분하여, 매년 봄·가을 대향(大享) 이후에, 재임(齋任)들이 소상하게 일일이 기록하여 성책한 뒤, 관청에 보고한다.
1. 거재(居齋) 유생 4원(員)의 6삭(朔) 식량은 100말 8되, 반찬값은 43냥 2전으로 한다.
1. 보직전(保直錢)[630] 40냥은 봄·가을 대향(大享) 때에 병방(兵房)에게[631] 20냥씩 규례에 따라 납입한다.
1. 돗자리 값 7냥은 가을 대향(大享) 때 도서원(都書員)에게[632] 규례에 따라 납입한다.
1. 향교의 재원 중 쓰고 남은 것으로는, 많고 적건 간에 전답을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1. 매년 향교 전답의 가을 수확 시기에는 서재(西齋) 중에서 비교적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수확을 감독하고 점검하게 한 후, 수확한 곡식의 수량을 정리하여 장부를 만들어 관청에 보고한다.
1. 주안포구(朱岸浦口)의[633] 주인(主人)에게 매년 4냥을 납입한다.
1. 원도(猿島)의[634] 수입은 매월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의 분향(焚香) 시, 수복(守僕)

628) 부급(負笈) : '책 상자(箱子)를 진다.'는 뜻으로, 타향(他鄕)으로 공부하러 감을 이르는 말이다.
629) 복결(復結) : 세금(稅金)을 매기지 않는 땅을 가리킨다.
630) 보직(保直) : 조선시대에 각 관아나 유향소(留鄕所)에 딸린 하례의 하나이다. 군적(軍籍)에 편입되어 보포(保布)를 바치고 군역(軍役)에 복무하지 않았다.
631) 병방(兵房) : 조선시대에 병전(兵典) 관련 일을 맡아보던 지방 관아의 육방(六房) 중 하나이다.
632) 도서원(都書員) : 서원 중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633) 주안(朱岸) : 주안이라는 이름은 붉은 빛을 띤 만월산의 서쪽 아래를 붉은 언덕, 주안(朱岸)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주안면은 현재의 남동구 간석동, 남동구 구월동, 부평구 십정동 및 주안동 석바위 일대를 관할하는 지역이었다. 주안포구는 그 일대에 있었던 포구를 뜻한다.
634) 원도(猿島) : 1872년의 『지방지도』에 따르면, 인천부 서쪽에 위치한 섬으로써, 섬 안에 서해 여러 섬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봄과 가을에 악해독(岳海瀆) 신에게 제사 올릴 때 수령이 친히 제사를 지냈다.

에게 향과 숯 값을 제외하고 지급한다.[635]

○ 節目

一. 春秋大享時, 所入不可預料, 隨時增減事.

一. 大享時, 憲官七員官供事.

一. 大祝執禮二員, 諸生八員, 西齋十六人爲定, 而自齋中供饋事.

一. 方外儒生食床, 自入齋日夕至破齋日, 朔數多少, 自齋中供饋事.

一. 中日朝夕, 依例食堂事.

一. 前期十日作脯時, 酒米二斗爲定事.

一. 大享時飯米, 每床一升式, 東西齋酒米, 無過十二斗事.

一. 十二朔朔望焚香時, 東齋一員, 西齋三人的定事.

一. 每朔望焚香時, 東西齋四員, 朝夕供饋依例擧行, 而每床飯米七合饌價三分, 焚香時酒價一錢外, 勿爲濫用事.

一. 掌儀有司色掌幷六員, 自齋中極準選備三望, 自官塡爲字事.

一. 有司色掌居齋, 自四月至六月開接做字, 自十月至十二月開接讀書, 供饋凡節, 每床飯米七合, 饌價三分, 冬三朔燭價四分式磨鍊事.

一. 有司色掌四員, 居齋時, 有故外不許空齋, 若浪度時日, 不着力於工夫, 自齋中施罰黜齋. 如有閒雜人往來害工者, 並鳴鼓施罰事.

一. 若有齋粮負笈者, 並許入事.

一. 校復七結所重自別係是春秋大享時經用者, 而還來庫直輩作奸至於預賣, 其於供士之節未免苟簡, 言念至此不勝驚駭, 自今爲始, 自校中諸齋任, 摠察痛禁, 無預賣之境, 而若是立議成節目之後, 復有如前之弊, 則該庫直告官嚴治, 本結卜還徵於預賣人, 而當該齋任, 亦自校中施罰黜齋事.

一. 每年校中錢穀出入, 都數用下及餘在條, 每於春秋大享後, 諸齋任昭詳成冊, 一一懸錄, 報官成貼事.

一. 居齋生四員, 六朔飯米一百斗八升, 饌價四十三兩二錢事.

一. 保直錢四十兩, 春秋大享時, 兵房二十兩式, 例納事.

一. 席子價七兩, 秋享時都書員例納事.

一. 校中物財用下餘在條, 不許多少買置田畓事.

一. 每年校畓秋收時, 擇西齋中稍饒勤實之人, 使之始終看檢後, 所捧穀數修成冊, 報官成貼事.

一. 朱岸浦口主人, 例納四兩事.

一. 猿島所入條, 每朔望焚香時, 守僕香炭錢除下事.

635) 수복(守僕) : 조선시대에 묘(廟)·사(社)·능(陵)·원(園)·서원(書院) 등의 청소를 맡아보던 구실아치이다.

향교에서 선비들에게 제공한[636] 반찬거리

말린 조기 일곱 속(束), 말린 민어 한 미(尾), 청어젓 열 급(級), 새우젓 세 두(斗), 젓국 세 두(斗), 이상의 다섯 종류는 신현포(新峴浦)의 천호(千戶)가[637] 전례에 따라 바쳤습니다.

○ 校中供士饌需

乾石魚七束, 乾民魚一尾, 蘇魚醢十級, 白蝦醢三斗, 醢汁三斗, 右此五種, 新峴浦千戶例納事.

636) 공사청(供士廳) : 향교(鄕校)의 선비들이 식사하는 청사(廳舍)이다.

637) 천호(千戶) :『일성록』 정조 10년(1786) 1월 22일 기사에 따르면, '천호어부(千戶漁夫)'의 용례가 확인된다. 포구에 거주하며, 해산물을 바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천호(千戶)는 어부와 관련된 명칭으로 생각된다.

천금으로 폐단을 보완하라는 전령

널리 알려 거행할 것. 관원이 이 고을에 부임한 지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풍속은 여전히 생업에 의존하고 있으니, 어찌 자세히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양요가 빈번히 일어났고, 해마다 기근을 겪었으며, 각종 공적 세납이 항상 지연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9개 면의 민인들의 정황을 들자면, 한 해를 날 밑천이 없어, 그들의 가난과 고생의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됩니다. 지금 풍년을 만나 안락한 때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물 부족, 가뭄, 질병 등의 재난에 처할 경우,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부족할 것입니다. 현재 예비 자금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으며, 지난해 겨울에 비축된 잔여 자금이 있지만 그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기부한 곡식을 포함하여 총 1,000냥의 자금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가구 수에 따라 나누어 예비 자금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록 현재는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나, 몇 년 후에는 이 자금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나치게 간과하지 말고 실제 효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자와 수익을 관리하는 방안은 각자의 지역과 주민에 따라 적절하게 논의하여, 상인들과 협의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문제를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千金補弊傳令

爲知悉擧行事, 官莅玆邑于今四載, 俗尙生業, 豈不洞悉, 頻經洋擾, 荐遭年荒, 各項公納, 常有愆期之患, 九面民情擧無終歲之資, 念其艱苦之狀, 有此虞慮之心. 今逢豊登安樂之時, 尙未免於咨吁, 倘値水旱疾疫之灾, 亦安得以奠接人, 不可以無遠圖事, 不可以無預立, 但乏區劃之方, 每切矜悶, 尤加時昨冬免復中, 有剩餘錢, 而數爻無多. 故自官捐廩, 合爲一千兩成數, 各面各洞, 較其戶數多少, 分排出送作留財, 庶爲預備之一助是在果, 今雖零星, 似不足爲速效差, 過數年, 豈無功於積累, 勿以泛看, 期有實效是矣. 其息利措處之方, 各自洞中大小民人, 齊會爛商, 隨所便宜, 殖利補弊, 永久遵守向事.

2,000냥으로 군수용 토지를 매입하라는 전령

이번 관아 공역(工役) 후 남은 돈 2,000냥을 장부로 작성하여 대원군에게 보고하니, 군수 보충에 사용하라는 하교를 받았으므로, 이에 10개의 계(稧)에 나누어 주고, 매년 100냥씩 지급하는 돈과 함께 이자를 불리는 데 사용하거니와, 절목에 각 계(稧)의 본전은 300냥을 넘지 않고, 이자는 수익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뜻으로 이미 정식으로 삼았다. 계(稧)를 설립한 지 이미 3년이 되었으니, 각 계(稧)에 지급된 돈과 본전 이자를 합하여 마땅히 400여 냥이 되고, 이제 또 공역 후 남은 돈 2,000냥, 정식에 따라 300냥 본전 외의 남은 금액은 밭과 논을 막론하고 매년 차례로 사서 두어 계(契)의 보충에 사용하는 자본으로 삼되, 이는 계장(稧長)이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공공 자산이므로 함께 성실하게 그 자산을 관리하고, 또한 반드시 그 문서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하며, 혹시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 실효가 있도록 해야할 일이다.

○ 二千金軍需買土傳令

今番廨役後, 剩餘錢二千兩修成冊, 報于大院位, 承軍需補用之敎. 玆以劃付於十稧中, 與每年一百兩例付之錢, 同爲息利是在果, 節目中每稧本錢, 無過三百兩是遣, 利條則隨息買土之意, 已爲定式矣. 設稧已爲三歲, 則每稧付錢並本利, 當爲四百餘兩. 今又有役餘錢, 添付二千兩, 依定式三百兩作本之外餘數, 則無論田與畓, 每年鱗次買置, 以爲契中補用之資是矣. 此非獨稧長有司所主管, 卽是一百人公共之物, 則相與勤幹其物財, 亦必昭詳其文書, 無或一分之晻昧 一分之糊塗, 俾有實效宜當向事.

인천부동헌(東軒)[638] 중수기(重修記)[639]

인천은 전대 왕조의 소성(邵城)으로,[640] 백제 온조가 남한에 도읍하였을 때 추미홀(鄒彌忽)이라 칭하였다. 조선은 팔도의 해안 요충지에 종친(宗親)을 배치하고 지키게 하였다. 땅이 100리에 미치지 못하나, 섬은 팔미도(八尾島)가 있고, 산은 문학산(文鶴山)이라 일컫는 산이 있다. 서쪽으로 강화도를 끼고, 남쪽으로 화성(華城)과 접하니, 이는 마치 오(吳)나라의 회유(湏濡), 초(楚)나라의 방한(方漢)과 비유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전쟁이 없어 인천이 평화로운 땅으로 놓여 있었으나, 이양선이 출몰하고부터 변경의 보장으로 승격되어, 사람을 골라 제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870년〔庚午〕 10월, 구완식 부사가 부신(符信)을[641] 받고 인천부에 도착하였다. 마침내 1866년〔丙寅〕의 화란를 겪고, 여러 해 동안 군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며, 가옥들은 텅 비게 되었고 백성들은 도산하였으며, 모든 관아의 건물은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고, 토목 공사는 버금가는 일에 속하였다. 맨 처음의 정사(政事)는 정성을 보이며, 약간의 녹봉을 덜어내어 진휼을 시행하고, 백성을 돌보기를 마치 부상자를 친히 어루만지는 듯이 하였다. 고을의 사대부를 모아 향음주례를 행하여 효제(孝悌)를 장려하고, 다음으로 백성들이 즐겁다 하고 선비들이 적시(適時)라 하는 때를 기다려, 고을민을 징발하여 고을에 있는 황무지 1사(舍)의[642] 땅에 둑을 쌓고 물을 준비하여 벼를 심어 그해 100여 곡을 수확하였으니, 백제(白堤)와[643] 정거(鄭渠)[644] 또한 이와 같은 종류의 일이었다. 또한 문학산의 높고 험준함으로 헤아리자면 보장처가 될만하니, 보(堡)를 축조하여 은거하면, 무기를 숨겨 둘 만하고, 멀리서 적을 살필 만하였다. 이에 고을의 병력 1,000여 명을 뽑고, 고을민에게 포계를 만들 것을 권장하며, 포격을 시험하여 많이 맞춘 자에게 상을 내리고, 우등자는 감·병영에 보고하여 품계를 지급하니, 백성이 모두 즐거이 여겨, 다투어 계에 입적하지 않음이 없어, 그 수가 넉넉히 10,000여 명에 달하였다. 1871년〔辛未〕 4월, 이양선이 갑자기 인천 앞바다에 나타나 10리 거리쯤에 정박하자, 구완식 부사가 격동

638) 동헌(東軒) : 고을의 수령이나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 등 지방관이 업무를 보던 건물이다.
639) 중수(重修) : 건물 등이 낡고 헌 것을 다시 손대어 고치는 일을 뜻한다. 개수(改修)라고도 한다.
640) 소성(邵城) : 소성(邵城)이라는 명칭은 신라 경덕왕 대에 처음 사용되었다.
641) 부신(符信) : 조선시대에 병조 등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신표(信標)인데, 수령 등 지방관이 부임지로 나아갈 때 지급되었으며, 군사 동원의 표신 용도로 사용되었다.
642) 사(舍) : 30리(里)를 뜻한다.
643) 백제(白堤) : 백거이(白居易)와 소식(蘇軾)은 각각 당나라와 송나라 때의 유명한 문인들로 항주를 맡아 다스린 바 있다. 양자 모두 서호에 제방을 쌓아, 그 제방이 백제(白堤)와 소제(蘇堤)라고 일컬어진다.
644) 정거(鄭渠) : 도랑을 뜻함. 전국 시대 한(韓)나라의 수공(水工) 정국(鄭國)이 진(秦)나라를 위하여 경수(涇水)를 파서 중산(中山)에서 서쪽으로 호구(瓠口)까지 도랑을 내어 농지에 물을 댄 것에서 유래하였다.

하여 군사를 출진시켰다. 안일(安溢)은[645] 인천부의 군병과 포계의 병력, 그리고 중앙·지방군, 소모군(召募軍) 등 3,000여 군병을 이끌고 여덟 곳에 매복하여 주야로 서로 지키고, 수십 리에 걸쳐 연달아 있는 포구에는 언덕에 기대어 참호를 만들어, 아군으로 하여금 참호에 몸을 숨기고 포를 발사하게 하니 맞추지 못함이 없었다. 심지어 적의 포는 비록 대완구의[646] 위력을 가졌으나, 모두 참호 외곽에 떨어져 아군의 피해는 없었다. 또 강기슭과 산골짜기 곳곳에 구덩이를 파서 은신처를 만들었다. 깊은 숲에는 병력을 매복시키고, 높은 지대에는 가짜 군사들을[647] 배치해두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연기와 불빛이 끊이지 않게 하여 수많은 병력이 있는 것처럼 하였다. 예측 불가한 전술로 서양인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멀리서 보고 두려움에 움츠러든 것도 이 때문이었다. 장사꾼의 미곡선을 불러들여 충의(忠義)를 북돋아 출진한 장졸(將卒)의 부모와 처자식을 먹이는 한편, 요망한 적도 이연귀(李蓮龜)를 잡아들여 난적의 싹을 잘라내고 바다를 건너는 배로 하여금 양이의 흉악한 음모를 꾀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이는 하늘이 한 것인가? 사람이 한 것인가? 이를 조정에 보고하여 천하에 알리게 되었다. 장수가 몸소 판삽(板揷)을[648] 부여잡고, 동고동락하는 것은 사졸(士卒)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까닭이었다. 고기를 나누고 쌀을 분배할 때 반드시 먼저 군사들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지휘관이 은의(恩義)를 베풀기 위해서였다. 혹여 병사가 질병에 걸리면 직접 치료하는 약을 처방하여, 정성을 다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천성이 착한 자들은 모두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였으니, 비록 이익을 탐하는 부류들이라 하더라도 어찌 감화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간첩들도[649] 어찌 그 진심을 엿보지 않았겠는가? 서양의 우두머리가 한 달간 진퇴를 거듭하며 매일 같이 포성을 울렸고 인근 지역은 텅 비었다고 할 지경이었지만 유독 인천의 백성들은 예전같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군사들 사이에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까 걱정하여, '학산송(鶴山松)'이라는 노래 한 곡을[650] 지었다. 이 노래는 천둥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개를 담고 있으며, 이를 관의 노복들에게 불러 익히게 하여 군 전체에 퍼지게 하였다. 그 결과 관(官)의 뜻과 민(民)의 뜻이 말없이도 스스로 신뢰가 형성되었다. 농

645) 안일(安溢) : 인천부사 구완식 휘하의 장교로 추정된다.
646) 대완구(大碗口) : 단석(둥근 돌)이나 비격진천뢰(둥근 쇠공 모양의 폭발물)를 발사하는 조선시대의 유통식 화기. 주로 공성용 병기로 사용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해상전에서 선박을 침몰시킬 용도로 사용되었다. '완구'라는 명칭은 발사체를 올려놓은 포구의 모양이 사발과 흡사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크기에 따라 대완구·중완구·소완구·소소완구로 분류된다.
647) 의병(疑兵) : 적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가짜 군사를 뜻한다.
648) 판삽(版揷) : 도랑을 파거나 담장이나 성 등을 쌓는데 사용하던 틀이나 가래 등의 도구이다. 판(版)은 흙을 쌓을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양쪽에 대던 틀이고, 삽(揷, 鍤)은 긴자루 끝에 날을 세우고 양편에 줄을 매어 한 사람은 자루를 잡고 양쪽의 두 사람이 줄을 잡아 당겨 흙을 퍼내는데 사용하던 가래 등의 도구이다.
649) 세작(細作) : 간첩. 비밀 수단을 써서 적의 정보를 탐지하여 자기 편에 알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650) 일결(一闋) : 국악에서, 한 곡의 음악이 끝남을 이르는 말. 국악에서, 남창이면 스물네 곡조, 여창이면 열다섯 곡조가 한 바탕이 되어 있는 곡을 가리킨다.

사일이 중단된 상황을 염려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번갈아 전장에 주둔하게 하며, 포성이 들리면 모두 전장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였다. 실제로 농민과 군사들은 산과 들을 가득 메웠으며, 다투어 전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결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전장에 나가도록 격려하였다. 어찌 인천부 백성들의 어짊이 아니겠는가? 어찌 구완식 부사의 어짊이 아니겠는가? 별도로 돛이 달린 포선(砲船)을 몇 척 건조하고, 뗏목 수백 개를 준비하여 염황(焰黃) 등을 실었다. 만약 포선(砲船)에서 적선으로 불꽃탄 한 발을 발사하면, 그것이 적선으로 날아가 붙어 화염이 스스로 일어나 연달아 적선을 태울 계획이었다. 다행히 이양선이 퇴각하여 그 묘책을 시험할 기회는 없었지만, 훗날 화공의 뛰어난 전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사로서 3년간 정치가 통하고 인화(人和)를 이루었다. 또한 백성들이 모두 관아의 수리가 부득이함을 깨달아, 어진 부사의 재임기를 놓칠까 두려워 1872년〔壬申〕 정월 중순에 고을의 선비와 백성들이 함께 논의하고 뜻을 모아 기꺼이 힘을 보탰다. 그 결과 1만 3천여 민(緡)을 모아 우선 향교를 수리하였으며, 이후 관아의 여러 시설 수백 여칸을 차례로 수리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 백여 일의 시간이 지나, 모든 사람들이 그 공사가 완료됨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집안일처럼 여겼다. 그래서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고, 감독하지 않아도 부지런히 일하였다. 그런데도 부사는 단 한 순간도 책상에 앉아 한가히 지내지 않고, 도끼와 망치를 든 자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분주히 뛰어다녔다. 장차 1873년〔癸酉〕 4월에 임기를 채우고 교체되어 돌아가려 하자, 경기감사가 이미 백성들이 도로를 막고 그를 보내지 않으려는 뜻을 알고 다음과 같이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일찍이 손무(孫武)·오기(吳起)의[651] 병법에 능통하고 공수(龔遂)·황패(黃霸)의[652] 선정을 겸비하였습니다. 녹봉을 덜어 진휼을 베풀었고, 계책을 세워 적을 막았으니, 포상의 은전이 없어서는 안됩니다."이에 임금이 비답을 내리기를, "이 사람의 재능과 책략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 나라를 지키는 간성(干城)으로서[653] 족히 적합하다. 이에 한 과(瓜)를 더 연장하고, 아울러 방어사(防禦使)의 이력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아! 이러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이러한 은전이 있어야 한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문무를 겸비한 장군 길보(吉甫)여, 그야말로 만국의 모범이 되리로다"라고 하였는데, 마치 구완식 부사가 이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인천은 나라의 수도를 방어하는 중요한 관문이며, 그 방어의 임무는 장재(將才)를 갖춘 자가 아니면 맡을 수 없다. 훗날 구완식 부사를 이어 이곳에 부임하는 자

651) 손오(孫吳) : 중국 춘추 시대 병법의 대가인 손무(孫武)의 『손자병법(孫子兵法)』과 오기(吳起)의 『오자병법(吳子兵法)』의 합칭이다.
652) 공황(龔黃) : 중국 한나라 때 지방 장관으로 선정을 베풀어 치민(治民)이 으뜸으로 꼽혔던 발해태수(渤海太守) 공수(龔遂)와 영천태수(潁川太守) 황패(黃霸)를 아울러 일컬은 말이다.
653) 간성(干城) : '방패(防牌, 旁牌)와 성(城)'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군사나 인물을 이르는 말이다.

는, 반드시 구완식 부사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억만년 동안 무궁한 안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야말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 仁川東軒重修記

仁川勝國之邵城, 而百濟溫祚都南漢時称鄒彌忽國, 爲其八路海嗌 而置宗親而守之也. 地不滿百里, 而島有八尾山曰文鶴, 西控沁都, 南接華城, 譬之於吳之湏濡, 楚之方漢也. 我國以隱武置之散地, 自洋舶出沒陞爲邊保, 不可不擇人而授之也. 庚午十月, 具侯完○受符而至, 纔經丙寅之燹, 連年庚癸之呼, 室如懸磬, 民懷樂土, 凡百公廨, 無一完處. 然菜孛時急憂, 土木屬二件事也. 一初之政, 示以悃愊, 捐若于廩施賑, 視民如傷, 親自撫摩, 率鄕士大夫, 行鄕飮酒禮, 勸孝悌次詩書, 民曰樂士曰時, 邑有荒坰一舍地, 發丁築堰, 儲水種稻, 當年得百餘斛, 白堤鄭渠亦此等類耳. 以鶴山之高, 而險擬可保障, 築堡隱居, 可以蔵器, 可以候望. 抄州兵之千額, 勸村邑民作砲稧, 試炮中多者施賞, 優等者報營給科, 民皆樂之 莫不争入於稧錄, 洽爲萬指也. 辛未四月, 洋船忽泊於十里許, 具侯激勵士卒出陣. 安溢率本兵稧丁及京鄕召募三千餘軍, 埋伏八所, 晝夜相守, 連浦數十里, 依岸作土匣, 使我軍隱身放砲, 發無不中. 至於賊砲, 雖大椀口之力, 凡皆落於坎外 而我兵無損矣. 且於江岸山隈, 在在鑿坎爲窟, 深爲伏兵, 高爲疑兵, 晨夕之間, 不絶烟火, 以耀千萬兵, 不測之機, 括此洋人, 所以望而畏縮也. 招致商客米船, 勉加忠義, 以饋出陣將卒之父母妻子, 捉得妖賊蓮龜, 自絶亂萌, 乃使駕海洋賊凶謀斷阻, 是其天耶人耶, 朝廷至於奏聞天朝也. 身操板插, 同其甘苦者, 士卒所以忘其死地也. 宰肉分米, 必先於軍親者, 長帥所以施其恩義也. 或有疾病, 則躬自醫藥, 示以吮疽之意, 故凡有秉彝之性者, 莫不盡心於我, 則雖冒利之類, 安得不感化也. 細作之輩, 亦豈不實心譏詗乎. 洋酋經月進退, 砲聲日聞, 隣境可謂空虛, 而獨仁川之民, 安堵如故, 然猶恐軍心之或二也. 作鶴山松一闋, 以暴雷不動, 風不鼚之意, 而使官童歌之, 傳於一軍, 故官意民情不言而自孚也. 悶其方農之廢務, 使之輪日遞戍, 令以聞砲來會矣. 果然農民士卒, 滿山遍野, 爭赴戰場, 無一軍不至者, 母勸其子, 妻勸其夫, 無乃仁川之人仁也, 具侯之人仁也. 別造風砲船幾隻, 及木筏數百部, 載以焰黃等屬, 若發一砲砲船, 飛往着于敵船火自起而連燒, 適幸洋船退遁, 未及試其奇, 而他日可爲火攻之妙術也. 居三年, 政通人和. 民皆知公廨之不可不修, 而恐失賢侯之時, 以壬申定中之月, 鄕邑士民, 詢謀僉同, 樂爲出力者, 一萬三千餘緡, 而先修校宮, 至于公衙諸宋數百餘間, 凡首尾百餘日, 而告落人人, 視以自家役, 故不令而行, 不督而勤, 然府使亦未曾一時, 據几閑坐, 而與執斧持鉅者, 晨夕奔走也. 將以癸酉四月滿瓜遞歸, 道臣已知民情之遮道, 啓以早讀孫吳之書, 兼抱龔黃之才, 捐廩施賑, 設機防敵, 不可無褒賞之典. 批曰, 此人才略, 業已稔知, 足當干城, 仍留一瓜, 并許防禦履歷. 嗟乎, 有是人也, 宜有是恩也. 詩云, 文武吉甫萬邦爲憲, 若具侯者近之矣. 今以後始知, 仁川爲國都之關防, 而關防之任, 非將才不可也. 後之繼具侯而來者, 以具侯爲柯, 則國家萬億年無彊之休, 其在斯矣. 此所以不可不記也.

향사례(鄕射禮) 통문

다음은 통유(通諭)하는[654] 일입니다. 향사(鄕射)의[655] 예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는 삼대(三代) 이래로 향(庠)·서(序)·학(學)·교(校)를 설립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른 도리로 이끌어 풍속을 교화하며 예의와 의리를 두텁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례(周禮)』「대사도(大司徒)」 편에 따르면, "향학(鄕學)의 삼물(三物)[656] 즉 세 종류의 교법(敎法)을 가지고 만민을 교화한다. 일반 백성 중에서 뛰어난 자는사마(司馬)에[657] 올려 천부(天府)에[658] 등용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예로부터 선왕(先王)들이 백성을 교화하고 예의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도(司徒)의[659] 관직은 이 때문에 설치한 것이다. 무릇 사(射)는 육예(六藝)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덕(德)을 관찰할 수 있다. 군자(君子)는 활솜씨를 겨루되 나아가고 물러나는 데 일정한 법도를 지키며, 오르고 내리는 데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공자가 확포(矍圃)에서[660] 활쏘기를 했을 때, 구경하는 사람들로 담을 이루었다고 하니, 향사(鄕射)의 의식은 이로써 알 수 있다." 아! 우리 조선은 임금 대대로 성학(聖學)을 존숭하고, 유교(儒敎)를 숭상하여, 나라에는 국학(國學)이 있고 고을에는 향교(鄕校)가 마련되어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이 빛나고 극히 잘 갖추어졌으며, 지난 500년 동안 인재를 양성하고 선비를 기르는 방도가 지금까지 성하게 이어져 왔다. 오직 우리 인천부 한 고을은 비록 바닷가 모퉁이에 외져 있지만 본디 문학(文學)이 뛰어난 선비가 많았다. 그런데 어째서 근래, 선비의 기풍이 쇠퇴하고, 학문적 풍조가 침체되어, 무지한 습속이 만연하여 예의와 의리를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과연 우리 고을의 유림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었다. 이제 우리 구완식 부사가 이 고을을 다스리기 위해 부임하시어, 3년 동안 머물며 선비를 양성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오직 옛 제도

654) 통유(通諭) : 여러 사람에게 두루 고하여 알림을 뜻한다. 통문(通文)은 통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655) 향사(鄕射) : 조선시대 향촌에서 활쏘기 시합을 하며 예법을 익히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의식. 보통 주향(酒饗)을 겸하였다. 중국 고대 주(周) 나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조선왕조는 이를 공식적인 의식으로 정하여 시행하였다.
656) 삼물(三物) : 백성을 가르치는 세 가지 일. 곧 육덕(六德), 육행(六行), 육예(六藝)를 이른다. 육덕은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 육행은 효(孝)·우(友)·목(睦)·연(婣)·임(任)·휼(恤), 육예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이다.
657) 사마(司馬) :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던 과거(科擧).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었다.
658) 천부(天府) : 중국 주( )나라 때, 천자(天子)의 조상 제사에 쓰는 귀중한 보배를 맡아보던 벼슬을 가리킨다.
659) 사도(司徒) : 『주례』에 등장하는 대사도(大司徒). 즉 고대 중국 주( )나라 때의 벼슬로, 나라의 토지를 관장하고 백성의 교화를 맡아보았다. 대사공(大司空), 대사마(大司馬)와 더불어 삼공(三公)의 하나였다.
660) 확포(矍圃) : 확상포(矍相圃)의 준말이다. '확상'이란 중국 산동성 곡부현(曲阜縣) 궐리(闕里)의 서쪽에 있는 지명이며, '포'란 채소를 심는 곳을 뜻하는데, 공자가 확상의 포에서 활쏘기를 했다고 전해져 확포는 활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를 따랐다. 오랫동안 퇴락한 향교의 낡고 허물어진 곳을 고치기 위해 재원을 모아 수리하고, 덕망과 명망이 두드러진 사람을 엄선하여 그곳에 거처하며 종일 공부하게[661] 하였다. 봄과 여름에는 시가(詩歌)를 낭송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책을 읽게 하였으며, 선비를 먹이고 기르는 방법과 계획된 재정을 확보하여 음식이나 물품의 공급이 넉넉하였다. 이로써 선비들은 새로운 성취를 기대해 볼 수 있었으며, 학문은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향사(鄕射)의 예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이 고을은 본디 홍장(鴻匠)과[662] 같은 이름난 유학자가 많았으니, 활쏘기가 예(禮)의 일부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는 단지 (文)과 무(武)가 서로 다른 용도로 여겨진 것에 불과하다. 오로지 문장을 짓거나[663] 글을 쓰는 것에만[664] 몰두할 뿐, 활쏘기를 병행하는 방법을 취하지 못하니, 활을 잡고 표적을 쏘는 것은 유학자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옛 예법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유학의 풍조는 점차 쇠퇴해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된다면 풍속을 교화할 수 없고, 예의를 돈독히 할 수도 없다. 『주례(周禮)』에서 이야기하는 빈흥(賓興)의[665]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마침 내가 향교의 교임(校任) 직분을 맡게 되었으니, 이를 묵묵히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이에 통문을 발송하니, 삼가 원하건대[666] 여러분들께서는 7월 21일에 향교에 모두 모여 옛 의식이나 법식을 상세히 살펴보고, 예제(禮制)를 논의하여 향사례를 다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서투르고 부족한[667] 후학들로 하여금, 삼대(三代)의 제도와 확포(矍圃)의 예의를 몸소 알 수 있을 것이니, 이는 유림의 큰 기쁨이요, 고을 전체의 행운일 것입니다.

○ 鄕射禮通文

右通諭事, 鄕射之禮, 於古尙矣. 盖自三代以來, 設爲庠序學校以敎人, 敎人方道, 以化風俗, 敦禮義爲上, 而周禮大司徒, 以鄕三物賓興之, 凡民之俊秀, 升諸司馬登于天府, 此是昔先王敎民敦化, 司徒之職, 所由設也. 夫射者, 六藝之一, 可以觀德. 君子之爭, 進退有儀, 升降有數. 孔子射於矍圃, 觀者如堵, 鄕射之儀, 於是乎可見. 嗚呼, 我東自列聖以來, 尊聖學崇儒敎, 國有學, 邑有校, 禮樂文物燦然極備, 迄今五百年, 作人之化, 養士之方, 於玆盛矣. 惟我仁川一邑, 雖僻在海隅, 而素多文學之士. 夫何挽近以來, 士氣頹廢, 文風

661) 과공(課工) : 일과(日課)로 하는 공부를 뜻한다.
662) 홍장(鴻匠) :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663) 사장(詞章) : 시가(詩歌)와 문장(文章)을 아울러 이르는 말. 혹은 문장(文章)을 꾸미는 말을 뜻한다.
664) 한묵(翰墨) : 문한(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665) 빈흥(賓興) : 선비를 높이 대접하고 천거하는 일로써, 인재를 발굴해 양성하는 일을 의미한다.
666) 복원(伏願) : 주로 편지에서 '엎드려 원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상대방을 높여 공손히 원한다는 뜻을 전할 때 사용한다.
667) 무무(貿貿) :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行動)이 서투르고 무식(無識)함을 뜻한다.

不振，蚩蚩之俗，不知禮義之方，向實爲一邑士林之所羞．今我侯具公來守是邦，三載于此，凡所以養士治民一遵古制．校宮之年久頹圮處，鳩財修葺，準選雅望表著之人，居在課工，春夏誦詩，秋冬讀書，其所饋養之方，亦有措劃之財，供給有餘．士類有作成之望，文學有復興之期．乃喟然曰，鄕射之廢久矣．此邑素多鴻匠巨儒，非不知射之爲禮．而尙有溯於是者，此不過文武異用．但以詞章翰墨從事，不如竝用之術，挾弓射堠，非儒者事，古禮不復儒風，漸頹如此而止，則風俗無以化矣 禮儀無以敦矣．周禮賓興意安在哉．適忝居校任，不聽泯默，玆以發文，伏願僉君子，以七月二十一日，齊會于校宮，詳攷古典，討論禮制，復設鄕射之禮．使貿貿後學，得見三代之制，矍圃之儀，則士林幸甚，一邑幸甚．

또 〔又〕

삼가 생각건대, 향사(鄕射)는 고대의 예(禮)입니다. 얼핏 들으니, 과거 성세(盛世)의 시기에 고을의 여러 유생들은, 늘 글을 읽고 시험 공부를 마친 여가에 날짜를 택하여 만나기를 약속해 활쏘기를 통해 덕(德)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개 뽕나무로 만든 활과 쑥대로 만든 화살을 사방(四方)으로 쏘아 남자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예(禮)·악(樂)·서(書)·수(數) 등 육예(六藝)를 몸으로 통달하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며 오르고 내리며, 화살을 명중시키고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은 곧 군자의 경쟁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자가 어찌 확포〔矍相之圃〕에서 활을 쏘며 사람들이 담처럼 둘러싸고 구경하게 했겠으며, 주빈(周賓)의[668] 제도에서 어찌 네 개의 화살을 쏜 성적〔四鋘之樹〕으로 현명함의 순서를 매겼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세상이 쇠퇴하며 향사례의 시행이 폐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한편으로는 민초들의 놀이로 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한 백성들의 편협한 활쏘기로 전락하였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따뜻한 봄이 은혜를 펼치고, 흐린 날 비를 대비하듯 준비를 이루었으며, 건물이 새로워지고, 못 기러기들이 모여드는 동시에, 들판이 개척되고 산꿩이 와서 길들여졌습니다. 모든 일들이 단번에 옛 제도를 회복하니, 향촌의 풍속이 진작되고 선비의 기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감히 신명(申明)하지 않으면, 옛 규례를 우러러 본받는 것은 덕의(德意)의 만분의 일이나마, 혹 후학들이 좁은 시야를 가진 유생이 되어 옛 규례를 모르고, 단지 '사(射)' 한 글자를 무예의 기술로만 치부하여 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경전(經傳)에 이르기를, "활쏘기는 단지 과녁의 가죽을 맞추는 데 있지 않다."고 하였으니, 어찌 무예 기술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각자 자기의 과녁을 쏘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유학자가 행동하는 바를 갖추는 데 있어 힘써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마천이 추(鄒)와 역(嶧)에서 향사례를 행한 것, 육방옹(陸放翁)이 활쏘기 연습을 한 것은 강단(講壇)에서 귀감이 된 바 있습니다. 논할 것도 없이 조정의 제도와 명령에 따라 문과(文科)의 이름난 선비들도 활과 화살을 지니고 매월 훈련원의 활쏘기 시험에 나아갔으며, 이는 궁궐에서도 성법(成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학문에 힘써 조만간 과거에 급제하려 한다

668) 주빈(周賓) : 고대 중국 주(周)나라의 빈흥법(賓興法). 즉 주나라에서 사인(士人)을 채용하던 법으로 지방학교의 생도 중 수재를 향음주(鄕飮酒)의 예로써 어질고 유능한 자를 가려 뽑아 그를 정중히 대우하여 국학(國學)으로 올려보내는 제도를 일컫는다.

면, 삭시사(朔試射)를[669]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활쏘기 시험의 방식은 이미 조정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어찌 고을에서 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윗사람이 행하고 아랫사람이 본받는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번 향사(鄕射)는 문신들이 매월 활쏘기 시험을 치르던 하나의 법식인데, 대저 누가 이를 "불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향사례를 다시 복설하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알리고자 하니, 이는 단지 재말(齋末)[670] 등의 얕은 소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삼가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니, 이번 달 21일에 향교에 모두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여, 이를 영구적인 법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로써 나라의 승평(昇平)을 좇고, 고례(古禮)를 익히는 바탕으로 삼으면 참으로 크나큰 행운이 될 것입니다.

○ 又

竊惟鄕射古禮也. 仄聞往昔盛時, 邑之諸章甫, 每於鉛槧佔畢之暇, 揀日約會, 射以觀德. 盖以桑弧蓬矢, 以射四方男子事也. 禮樂書數身通六藝, 聖人敎也. 揖讓升降, 箭中仕心, 君子爭也. 不然則孔聖豈射於矍相之圃, 而觀如堵乎. 周賓奚取於四鋘之樹, 而序以賢乎. 惜乎. 世降敎施鄕射之廢闕惟久矣. 一轉而爲旁草之戲遊, 再轉而爲材氓之偏射, 可勝歎哉. 今何幸, 陽春之布惠, 陰雨之備, 豫棟宇新, 而澤鴻安集, 田野闢而山雉來馴. 凡百庶務一切復舊, 俾鄕風振, 而士氣作. 吾儕冒敢不申明, 古規仰體, 德意之萬一, 而或恐後學局見之儒, 茫昧古事, 只以射之一字, 歸之武業洽洽, 有不肯底意, 此誠知一未二也. 傳云射不主皮, 則豈可曰, 武技之專尙乎. 禮云各射已鵠, 則此豈備儒行之當勉乎. 司馬遷之鄕射鄒嶧, 陸放翁之習射, 講壇尙矣. 毋論雖以朝家制令言之, 文科名士, 操弓挾矢, 每朔赴試射于訓院, 華館著爲成憲. 今我僉君子, 篤志做工早晩登科, 則朔試射, 其可得免乎. 大抵試射之法, 旣已用之朝廷, 而獨不得用之鄕黨, 則烏在其上行下效之義也. 然則今玆鄕射, 這是文臣朔射之一例也. 夫孰曰, 不可乎哉. 玆敢以鄕射禮, 重設之意, 摭實通籲, 此非出於齋末等膚淺之見而已. 伏願僉君子, 持可三思惠然肯諾, 以今月二十一日, 齊會校宮爛議決定, 著成永式, 俾爲樂昇平, 習古禮之地, 千萬幸甚.

669) 삭시사(朔試射) : 조선시대에 매달 초하룻날에 열었던 궁술(弓術) 시합. 주로 당하(堂下)의 문관과 일반 무관이 궁술을 겨루었으며 이따금 당상(堂上)의 문관을 위한 시합도 열었다.
670) 재말(齋末) : 향교의 말직(末職)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부사의 증질(增秩)을 671) 축하하는 672) 시(詩) 한 수(首)

소성은 한쪽 면이 장성(長城)을 이루고, 진해문(鎭海門)의 높은 방어 시설은 진영(陣營)을 지켰네.
행정과 백성을 지도함이 뛰어나 마치 실망할 틈이 없고, 정사가 조정과 민간에까지 알려져 이름을 떨쳤네.
충심으로 보답을 도모하니 참으로 훌륭한 보좌관이요, 칭찬받아 직책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은혜를 입으니 성군의 밝음 덕분이라.
옛 관례를 따라 도호사(都護使)를 겸직하며, 지금부터는 권한이 무거워 책임이 더욱 막중하리라.

○ 邵城太守因舊增秩朝賀一首
邵城一面作長城, 鎭海門高防禦營.
課最吏民如失望, 政和朝野已聞名.
矢言圖報眞良佐, 褒罷優因荷聖明.
因舊例兼都護使, 從今權重梱任行.

671) 증질(增秩) : 봉록(俸祿)을 더 하여 늘리는 것을 뜻하며, 증봉(增俸)이라고도 한다.
672) 조하(朝賀) : 동지(冬至), 정조(正朝), 즉위(卽位), 탄일(誕日) 따위의 경축일(慶祝日)에 신하(臣下)들이 조정(朝廷)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賀禮)하던 일. 또는 그런 의식(儀式)을 가리킨다.

인천부 치소의 신수기(新修記)

경기에는 36개의 고을이 있고, 그중 서쪽으로 60리(二舍)[673] 가량 떨어진 곳에 인천(仁川)이 있으니, 백제 비류왕이 도읍했던 미추홀(味鄒忽)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은 폐허에 가까워, 다스리기 어렵다는 여러 고을 중에 손꼽히는 고을입니다. 바다의 목구멍으로 중요한 요충이지만, 이 외곽지역은 대량(大梁)의[674] 서하(西河)나 건업(建業)의[675] 서릉(西陵)과 같습니다. 그 땅은 척박하고 메마르며 넓게 펼쳐져 있으나 이름난 산천(山川)의 험준함이나 요새가 없고, 염분이 많은 땅에 접해 있으나 어업과 소금 생산으로 얻는 이익조차 미미합니다. 백성들이 서로 돕지 못하여, 황폐한 마을이 열 가구조차 모였다 흩어지며, 마치 기러기와 들오리가 왔다 가는 것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 땅을 평화롭게 돌보고 보장처로 삼고자 한다면, 오직 천 리(里)에 걸쳐 있는 해안의 포구 지역을 관리하고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적합한 인물을 얻는다면, 마치 서릉(西陵)과 서하(西河)를 다스렸던 오(吳)나라의 육씨(陸氏)와 같은 자라야 비로소 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직책은 그 성과에 책임을 두며, 이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오래도록 평화를 누리며 강역을 견고히 하였고, 산과 계곡으로 조야(朝野)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북소리나 봉화의 경고가 없었던 것이 이미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자들은 대체로 문약한 서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晉)나라의 정치는 백성을 구제하지 못했고, 고을의 병폐가 없어지는 날은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상(聖上)께서 1864년(甲子)에 대원군 합하의 보좌를 받아, 안으로는 관직 제도를, 밖으로는 크고 작은 고을들을 새롭게 정비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인천을 내복(內服)으로 삼고, 국경 수비를 개선할 무신(武臣) 중에서 병법에 능하고,[676] 행정 업무에도 밝은 자로써, 구완식(具完植)을 선택하여 이곳의 간성(干城)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재주는 훌륭하고 기량은 넓으며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동시에 만 명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추었고, 백리 길을 달리는 준마의[677] 추진력처럼 빠르니, 어찌 능력을 펼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고을은 행정 체계 등이 잘 정비되었고, 관리들은 열심히 일하였으며, 백성들을 품어 자식같이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군적(軍籍)을[678]

673) 사(舍) : 군병이 하루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써 1사(舍)는 30리(里)를 의미한다.
674) 대량(大梁) : 춘추전국시대에 위(魏)나라의 수도를 일컫는다.
675) 건업(建業) : 춘추전국시대에 오(吳)나라의 수도를 일컫는다.
676) 도략(韜略) :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방법. 또는 중국의 오래된 병서(兵書)로써 『육도(六韜)』와 『삼략(三略)』을 일컫는다.
677) 기족(驥足) : 발이 빠른 훌륭한 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자세히 밝혀 노약자와 어린이가 허록(虛錄)된 것을 바로잡고, 군적에 입적(入籍)된 자를 대상으로 활쏘기와 총쏘기 기술을 가르쳐, 노(魯)나라 군사의 유약함과 제(齊)나라 군사의 겁약함을 단번에 변화시켜 진(秦)나라와 초(楚)나라 군사의 용맹함과 굳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871년〔辛未〕에는 서양 세력들이 들끓었는데, 그들은 배를 띄워 군사를 강화도로 상륙시켰습니다. 강화도는 인천과 이와 입술처럼 의지하는 관계에 있었기에, 인천부의 상황은 급박해졌습니다. 연해에 군사들이 주둔하여 수비하였는데, 지척 거리에서 서로 바라보니 짐을 지고 일하던 백성들, 무기를 돌보지 않던 군병들이 들고 일어나, 모두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직 인천의 모든 지역이 평화롭고 편안하니, 마치 태산(泰山)과 장성(長城)처럼 견고한 형세였습니다. 부사가 군사를 대기하게 하고, 먼저 용감한 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전략을 전달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안심하고 기다리니 모두 기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적이 이미 물러간 후, 경기감사 김재현(金在顯)이 구완식은 손무(孫武)·오기(吳起)의 병법에 능통하고 공수(龔遂)·황패(黃霸)의 선정을 겸비하였다고 조정에 보고하였습니다. 은혜로운 포상이 매우 융숭하여, 특별히 방어사의 이력을 허락하고, 동시에 본래의 고을 업무를 계속 맡아 더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양(晉陽)에서의 공적은 하내(河內)의 구순(寇恂)에게[679] 맡긴 것과는, 대개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뜻은 점점 더 결집되었고, 정사가 한가로운 해에는 백성들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이에 어르신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 읍치를 고쳐 세우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빈곤과 결핍된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였는데, 이 상황이 지금에 와서 더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면서 민중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으며, 점점 더 쇠퇴하고 폐허가 되어 가며 모든 계획은 하나로 집중되었습니다. 그저 노력을 기울이기를 두려워하였고,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실패해 버렸습니다. 결국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교부터 창고, 감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설을 새로 짓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부사는 직접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식량과 복식을 지원하였으며, 초석을 닦고 기둥을 세우는 일에 몸소 나섰습니다. 마치 신이 재화를 옮기고 귀신이 돕는 듯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비용이 수만에 이르렀지만 절반 이상을 절감하였고, 일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해인 1873년〔癸酉〕 여름에 공사가 완료되어, 장대한 건물의 구조를 갖추었고, 견고히 지어진 건물은 주변의 경기 여러 고을 가운데에서도 단연 가장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비록 작은 관리의 실수가 있었으나, 이러한 어려움조차 국토를 지키는 버팀목이자 대들보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678) 군적(軍籍) : 군병을 징발하기 위해 해당자의 신상을 기록한 장적(帳籍)을 가리킨다.
679) 하내지구(河內之寇) : 한나라 하내(河內)의 태수(太守) 구순(寇恂)을 가리킨다. 고을에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유명하다.

는 온 나라 백성에게 이익을 주며, 뛰어난 공적이 되어 비석에 기록되어야 할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공적은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으며, 글로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완식 부사가 스스로 다스린 결과이며, 다른 이가 대신할 수 없던 업적입니다. 지금 이 고을에서 이러한 일을 시행하면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완식 부사로부터 신뢰를 받았기에, 이 일을 소중히 여겨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로 후대에 전해야 할 것이며, 빠뜨릴 수 없는 업적입니다. 이 요점을 간추려 기록하고, 인천 백성들의 축하와 찬사에 답하며, 조정이 훌륭한 인재를 얻은 행운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는 부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며, 부사 또한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仁川縣治新修記

環畿邑三十有六, 西之二舍餘, 一曰仁仁【川】, 古百濟沸流所都味鄒忽, 是也. 以秖殘居至近, 其難治爲列邑最, 吭于胡海要衝爲上, 遊藩蔽, 亦大梁之西河, 建業之西陵. 地瘠确漫, 衍四無名山川險塞, 且濱瀉鹵, 而薄漁鹽之利. 民罔胥匡, 荒蔀十室聚散, 若雁來鳧去. 是欲輯寧, 而保障之用, 鞏我千里大湊基, 惟在典守之. 得其人, 如吳陸之於西陵, 西河, 迺可擧. 其職, 責其成, 有以藉緩急之恃. 國家積累承平, 固疆城, 不以山谿朝野. 驩虞無桴鼓烟火之警, 粤已數百年. 斯管是土, 率皆書生之繇. 晉政莫用乂瘼, 隨以痼邑之將無也, 久矣. 聖上甲子元大院閤下, 克左右協贊, 內自百隸庶常, 外暨小大州縣, 靡不更張. 遂以仁爲內服, 邊守易置武臣中, 鍊韜略嫺於吏事者, 具侯完植膺是選侯干城. 材偉幹弘量傑, 然爲万夫防, 牛力之用, 驥足之展於百里, 何有下車. 未朞, 郡中大治, 吏廳奴使, 民懷子保. 尤申明詰戎籍刷耄倪, 技講射丸, 魯弱齊怯, 一變爲秦楚勁悍. 歲辛未, 洋酋大充斥, 載舟師薄于沁島, 沁於仁其倚脣齒, 其迫呼吸. 沿海複屯, 閱月相望, 荷擔之氓, 棄曳之兵擧, 皆若不朝夕, 惟仁四境晏然, 有泰山長城之勢者, 候寔爲士卒, 先倡勇敢授方略, 盛爲備以逸待, 咸得其懽心然也. 賊旣退, 按使金公以習孫吳兼龔黃, 狀聞于朝, 恩褒甚隆, 特進防禦, 偕仍舊按本郡事益勉. 晉陽之勳, 許借河內之寇, 盖異數也. 衆志愈熙, 政暇年且康. 迺悉召父老椽吏, 議改建郡治是役也. 擧嬴貲絀宜, 棘伊紓匪直今, 然況新經繹騷民, 益凋廢而僉謀克一, 惟恐出力之, 未及經始之, 未果卽撤舊拓新, 自校宮以至倉廒圜靡務一切肇造丁之, 呼邪侯自勞饋角之服, 箱候或挽繼, 巨礎脩樑歟焉. 若神輸鬼運費, 以万計者, 減止雖半巧, 以歲計者. 訖且未幾, 翌年癸酉夏, 落以告成, 結搆之壯, 綢繆之固, 足以冠環畿列邑. 惜哉, 不齊之治, 雖小利器之遇盤錯, 豈止斯已大, 而爲維國之楨, 支厦之棟用, 庇海宇生靈, 載踏豊碑, 紀績太常, 其將口不容, 而書不勝侯本, 自牧不代. 今於斗邑, 施措曰, 無所事記, 而余於侯受知旣, 雅蹟其事, 甚詳是宜可傳, 而不可逸遂, 摭述要略, 答仁民相慶之頌賀, 朝廷得人之幸, 非私於侯, 侯亦無以辭也.

인천부 정당(政堂)의 수리를 마친〔落成〕680) 뒤의 기록

우리 고을은 옛 미추홀(彌鄒忽), 곧 비류씨(沸流氏)의 땅이었습니다. 서쪽으로 넓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으며, 고을 남쪽으로는 수궁(數弓)681) 거리에 문학산(文鶴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높이는 약 수백 장(丈)에 이르고 사면이 험준하여 절벽을 이루며, 정상에는 옛 성터가 완연히 남아 있습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따르면, 이 성의 역사는 삼한(三韓)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지역은 험준하고 척박하여, 백성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성(城)의 '에분(恚忿)'이라는682) 명칭은 지금까지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인천부는 왕도(王都)에서 겨우 70리 떨어져 있고 강화 진무영과도 가까운 천험의 요새이며,683) 북쪽은 수성(隋城)의 웅장한 관청이 진을 치고 있고, 남쪽은 둑을 쌓아 논을 만들어 벼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벼는 향기롭고 기름지며,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은 눈처럼 흽니다. 일상적으로 손님을 대접할 때 내는 회는 은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이며, 과일로는 구불구불하게 자란 감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곳은 여전히 강회(江淮) 지역의 풍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도와 가까운 까닭에 벼슬에서 물러난 사대부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백성들 또한 예의와 겸양을 아는 풍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을은 한적하고 외진 곳이라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정치는 깨끗하고 간단하며, 관리들은 충성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은 다스리기 쉬운 고을로 이름이 나 있어 항상 평판이 좋았습니다. 나이 든 관리들이 조용히 머물며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양 오랑캐들이 침범하면서 이 고을이 국방상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수도의 겨드랑이와도 같은 위치에 있으며, 바닷길의 요충지로서 내지와 국경을 아우르는 관직에 어울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7년째 되는 1870년〔庚午〕 겨울, 나라에서는 구완식을 부사로 임명하여 이 땅을 수호하게 하셨습니다. 부사는 대대로 충성스럽고 올곧은 집안에서 태어나, 몸소 무략(武略)에 능통하였습니다. 양주(楊州)의 봉두산(鳳頭山) 아래에서 살며, 부모님께서 연로하심에

680) 낙성(落成) : 새로 집을 짓고 지내는 낙성고사(落成告祀)의 '낙성'으로써, 완공을 뜻한다.
681) 수궁(數弓) : 일궁(一弓)은 활을 쏘아서 화살이 날아간 거리이고, 수궁(數弓)은 그 거리의 두 배 되는 거리를 말한다.
682) 에분(恚忿) : 분노와 원한을 뜻한다.
683) 천참(天塹) : 강하(江河) 따위로 이루어진 천연의 요새지(要塞地)를 가리킨다.

관직에 뜻을 끊고, 손수 오곡을 경작하고 과실나무를 심으며 지냈습니다. 집에서는 닭과 개로 맛있는 음식을 공급하고, 뽕나무와 삼으로 가벼운 옷을 마련하며, 여유 있는 시간에는 고인의 병법서를 읽고 당대의 명망 높은 인물들과 교류하며, 마치 세상과 더불어 잊혀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명이 내려오던 날, 나라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가문의 끊어진 덕망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고 임지로 나아갔습니다. 관직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듬해 1871년〔辛未〕 여름, 서양의 선박 5척이 제물포 앞바다에 닻을 내렸는데, 이는 고을에서 불과 열 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부사는 몸소 군사를 이끌고 계획을 세워, 입구에 진을 치고 산 정상에 보루를 설치하였습니다. 많은 참호를 파서 아군이 방어할 장소를 마련하고, 몰래 화공을 준비하였습니다. 적의 배를 불태울 계책을 마련하며, 풍우(風雨)와 열대의 염장(炎瘴)[684] 속에서도 부사는 스스로 굶주림과 배부름, 단맛과 쓴맛을 군사들과 함께하며 몸소 겪었습니다. 덕의(德意)를 널리 펼치니, 마치 초나라 군영에서 솜옷을 나누어주던 것처럼 군사들의 충성심과 분발심을 북돋았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진나라 군대의 뛰어난 전력과 같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무려 48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바다의 위협은 소강되었고, 고을은 안정되었습니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부사를 기리며 '소성태수 행(邵城太守行)'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부사가 처음 부임했을 때, 고을이 작고 대비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 포계(砲稧)를 창설하고 몇 달 동안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당·송 시대처럼 병사를 기르는 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하·은·주 시대의 병사를 숨겨두는 이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은 군제(軍制)에 능통하였고, 그 상세한 방법은 「포계절목(砲稧節目)」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해는 대흉년으로 백성들이 먹고살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부사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조정에 품처하고, 순영(巡營)에 보고함으로써 한 해의 세금을 정퇴시키고 한 지역의 굶주린 집들을 구휼하였습니다. 그해 가을,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을의 향교를 수리하여, 선비들이 경전을 낭송하는 소리가 가득하였으며, 병서를 읽는 것을 권장하고 군사 진법을 익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도랑을 파고 나무를 심는 등 모든 일들은 백성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사의 정당(政堂)이 좁고 불편하다고 하였으나, 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당은 앉아서 정치하는 곳이니, 정치가 중요하지, 정당의 상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이 불편하다고 해서 정치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아름다운 당이 있다고 해서 정치가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의 선악은 당의 아름다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수백 년 전, 선한 정치를 행한 분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정당에서 정치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굳이 바꿔야 하겠습니까? 이 정당은 내가 좋은 정치를 하면 그만이라,

684) 염장(炎瘴) : 더운 지방의 개펄에서 나는 독한 기운을 가리킨다.

백성들에게 고생을 시킬 이유가 없으니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내가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내가 백성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할 곳에서 내가 그들을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관리들과 백성들이 부사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성상의 통치 아래, 모든 일을 새롭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왕의 근정전(勤政殿)부터 중서성(中書省), 삼군부(三軍府), 육조백사(六曹百司)까지 모든 관청이 새로 건축되고 있으며, 오직 부사의 정당만이 여전히 고쳐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을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배려를 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제발 정당을 고쳐 지으십시오." 부사는 이에 응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선택된 날짜에 기존 당 뒤편에 기초를 세우고, 대지의 높은 곳에 넓고 아름다운 당을 지었습니다. 규격에 맞게 아름답고 세밀하게 건축하였으며, 관사와 문루, 창고 등을 새롭게 하여 고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감독하며, 자금을 세밀히 계산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빠르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이듬해 1873년〔癸酉〕 봄 3월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고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정당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께서 이 일을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사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정당을 완공한 뒤에 기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 기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주(滁州)의 풍락정(豊樂亭), 미주(眉州)의 원경루(遠景樓), 광주(廣州)의 죽루(竹樓)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시대의 명소였고, 세월을 초월한 고전적인 문학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기록은 그 시대의 인물과 그들의 업적이 함께 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은 그 자체로 불멸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상들 중에서 대장장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은 해안의 마을에 가서, 백발의 민중들을 다스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은 마치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추가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그리 맛있지 않지만, 문왕과 증자의 입에 들어가면 여덟 가지 진귀한 음식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생님을 대하는 마음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겸손한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사의 임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부사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부사의 정당과 부사의 정치를 떠올리며, 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사는 깃발을 세우고, 중요한 날에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며, 이 마을의 고통과 어려움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 있을 때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기록한다.

○ 新修仁川政堂落成後■

吾州古彌鄒忽沸流氏之地, 西臨大海, 邑之南數弓有山曰文鶴, 高可數百丈, 四面陡絶, 上有城址宛然, 據輿地勝覽, 年代在三韓時. 時於此地, 崎嶇瀉鹵, 人民不堪居, 城之恚忿名有以今也. 不然, 王都纔七十里近沁營, 天塹也, 而鎭其北隋城雄府也, 而控其南築堰種稻, 稻香而腴, 煮海爲鹽鹽白於雪, 尋常見客鱠必銀鱗之魚, 果必虬卵之柿, 依然有江淮間風味, 距京近, 故士大夫落仕者, 多居之民, 以是知禮讓焉. 邑閒而僻賓旅, 無迎送之煩, 政淸而簡, 吏校有忠謹之習, 以此號稱易治常爲有聲望, 老蔭官閑養之所, 近因洋夷侵犯, 玆邑爲關方重地信乎. 京師肘腋海門咽喉, 陞內邊秩擬通政資, 上之卽祚七年庚午冬, 命具公來守玆土, 公世篤忠貞身通武略, 家居楊州之鳳頭山下, 以親老絶意仕宦, 躬耕五穀, 手栽百果, 鷄狗足以供甘旨, 桑麻足以奉輕煖行, 有餘力讀古人兵書, 結當世聞人, 若將與時相忘, 及命下之日, 感國恩之知, 遇念世德之絶, 述幡然莅任, 視官如家, 越明年辛未夏, 西舶五隻, 下碇于濟物內洋, 距邑十里, 公躬率土兵措劃, 方略列陣于浦口, 設堡于山頂, 多掘土甲我軍, 有保守之所, 默運火攻, 彼船有燒滅之機, 風雨炎瘴, 其身飢飽甘苦, 與同于士, 宣布德意, 不啻楚營之挾纊激勵忠憤, 擧皆秦師之超乘. 如是者, 凡四十八日, 海氛自晴, 邑以妥貼, 鄕人作邵城太守行以美之, 公之初下車也, 以邑小無備爲憂, 刱設砲稧時月敎鍊, 無漢唐宋, 養兵之費, 有夏殷周藏兵之利於此知, 公嫺於軍制, 其法詳見砲稧節目中, 是歲大歉, 民不聊生, 公爲之殫誠竭力, 稟于廟堂, 報于巡營, 一歲之租稅停退之, 一境之饑戶賑貸之. 暨壬申秋大熟, 民以賴安於是修葺鄕學, 多士有絃誦之聲, 勸課軍書, 諸校習行陣之法, 通溝渠種樹木, 凡一切便於民, 而利於邑, 靡所不擧, 人或以公堂之弊隘爲言, 公曰, 不然堂者, 所以坐而爲政者也. 政果先堂, 雖弊何損政, 不善堂, 雖美何益政之, 善不善, 不在於堂之美, 不美明矣. 吾之前幾百年, 賢於善之政者, 幾大夫, 皆於此堂, 吾何必改爲, 此吾無善政, 而勞吾民之美, 吾之堂, 吾不忍爲也. 一日吏民, 咸告又庭曰, 方今聖上御極, 百廢俱興, 上自吾王勤政之殿下, 至中書省, 三軍府, 六曹百司, 三百六十州, 官舍莫不改建, 獨我公堂之不修, 實爲一邑羞, 不但一邑羞, 恐非奉承朝家, 維新之命也. 矧玆邑事, 無警歲功占豊捨今不爲, 更卜何時木石之運工役之費, 咸願效力, 公乃不得已, 徑始之營, 度之選日定礎于舊堂之後, 占地高而敞繚, 而抱規模踈而密美, 而完館舍及門樓翼廊倉庫, 次第一新, 自始役, 躬自監董, 量財計功, 所以費省, 而成速也. 翌年癸酉春三月, 告訖遂與邑中章甫, 擧酒於堂上, 顧謂肅東曰, 堂旣成矣. 不可無敍事, 願先生記肅東作, 而辭曰, 堂而落之落而記之, 多有前人之述, 如滁州之豊樂亭, 美【眉】州之遠景樓, 廣州之竹樓者, 不可勝計, 是皆一代之名碩, 千古之文章, 有其人斯有其記, 有其記斯, 有其堂堂之不朽, 顧不在人與文耶. 當今卿宰中, 大手鉅鋸匠何限, 而乃反屬之海曲, 韋布白頭之民, 何哉. 公憮然良久曰, 人之相悅, 如嗜飮食昌歜, 羊棗在他人口, 不足爲美味, 在文王曾子, 則勝於八珍, 今吾之於先生, 其亦猶昌歜羊棗

乎. 遂不敢以陋拙辭援筆, 而質諸公曰, 公之瓜期已滿矣. 公去之後, 村民之因事入府者, 見公之堂思公之政, 必如公在之是, 公亦達建旛, 按閫杖鉞登坍之日, 不忘此邑之艱虞, 倘如在此堂時否於是乎, 謹記.

인천부 관사(館舍)의 신건기(新建記)

성상이 즉위하신 지 7년 되는 해인 1870년〔庚午〕 겨울, 구완식이 통정의 관직으로써, 명령을 받아 이 지역을 다스리러 왔다. 처음 도착했을 때, 고을의 모습은 매우 황량하고 관청 건물은 허물어져 있었다. 이른바 공청(公堂)이 바람과 비를 막지 못할 정도였다. 어떤 이들이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정당(政堂)은 앉아서 정치를 행하는 장소이다. 정치가 선하면, 비록 정당이 허술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정치가 악하면, 비록 정당이 아름다워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정치의 선악은 정당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나보다 나은 정치를 했던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정당에서 일을 했다. 내가 어찌 굳이 고치겠는가? 게다가 내가 선한 정치를 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며 내 정당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이듬해 1871년〔辛未〕 여름, 서쪽에서 온 배 5척이 제물포 앞바다에 정박했는데, 고을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병사들과 백성들을 독려하여, 비바람과 더위, 열병 속에서 해안을 방어하였다. 이렇게 48일 동안 지키자, 적들이 물러갔다. 그러나 그해는 여전히 심한 기근이 있었으므로, 나는 세금 징수를 정퇴하고 진휼을 베풀었다. 다행히 조정에서 특별히 배려를 베풀어 주어 백성들은 이를 의지해 안정을 찾았다. 1872년〔壬申〕 가을, 마침내 풍년이 들어 고을에 더 이상 위기가 없었다. 어느 날 관리들과 백성들이 모두 관청 뜰에 모여 말하였다. "올해는 바로 우리 성조(聖朝)께서 나라를 세우신 원년입니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 친히 정사를 돌보시고, 중서성(中書省), 삼군부(三軍府), 육조(六曹), 모든 관청과 360주(州)의 관사들이 모두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정당(政堂)만 고쳐지지 않았으니, 이는 한 고을의 부끄러움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새 질서를 받드는 명령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목재와 돌을 옮기고, 공사를 위한 비용을 대는 일까지, 모두 힘을 바치고 싶습니다."나는 마침내 이를 피할 수 없게 되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날짜를 정하고 설계도를 마련하여, 옛 공청 뒤에 기초를 놓았다. 터는 높은 곳을 골랐고, 주위에 빈 관사와 문루(門樓), 좌우의 행랑과 창고를 포괄하여 하나의 새로운 건축으로 삼았다. 백성들이 기꺼이 나서서 참여하였고, 관리들이 직접 감독했으므로 비용을 절감하며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공사가 끝난 후, 손님과 관원들과 함께 공청 위에서 술을 올리고 이를 돌아보며 즐거워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감탄하며 말하였다. "이 고을은 오래전 삼한(三韓) 시대에 이미 미추홀(彌鄒忽), 즉 비류씨(沸流氏)의 땅이었다. 서쪽으로 큰 바다와 접하며, 고을 남쪽으로 몇 발짝 가면 문학산(文鶴山)이 있는데,

그 위에 성터가 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 따르면, 이곳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곳으로, 삼한 시대에 이 지역은 외지고 황량하며, 백성이 드물었다고 한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에분(恚忿)'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왕도(王都)에서 겨우 70리 거리, 강화 진무영과 지척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천참(天塹)인 진영(鎭營)이 있고, 남쪽으로는 수로를 만들어 논을 갈아 곡식을 재배한다. 그 벼의 향기와 기름진 상태는 비길 데가 없고,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은 눈처럼 희다. 흔히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생선은 은빛 비늘의 물고기이며, 과일은 굵은 단감이다. 이곳은 강회(江淮) 지방과 같은 풍미를 지니고 있다. 수도가 가까운 탓에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들이 자주 와서 살고, 주민들은 예절과 겸양을 잘 알고 있다. 고을은 한적하고 외진 곳에 있어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는 번거로움이 없다. 정치는 깨끗하고 간단하며, 관리들은 충성과 신중함을 습관으로 삼는다. 이로 인해 이 고을은 다스리기 쉽고 항상 명성이 높았다. 이제 해안 방비의 중책을 맡은 곳으로, 수도의 가까운 곳에서 국방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다. 서열 높은 관리들 중에서 신중히 선발하여 보내니 이는 그 임무를 중히 여기고, 명령을 특별히 존귀하게 생각한 것이다. 지금 이 정당은 기둥과 대들보가 견고하고, 기와가 이와 같이 빽빽하게 얹혀 있다. 예전에 황폐하고 쓸쓸했던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러나 이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 정당에 걸맞지 않다면, 어찌 이 정당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정당이 과거의 선량한 정치를 펼쳤던 대부(大夫)들에 비해 손상되지 않았다면, 어찌 그 정당이 예전보다 못하다고 하겠는가? 나는 지금 벼슬 임기가 다 되었다. 내가 떠난 후, 백성들이 일로 관청에 와서 이 공청을 보고는 '이것은 백성을 고생시키며 꾸민 것'이라고 말할까 두렵다. 나는 이를 두려워한다."

○ 仁川館舍新建記

上之卽祚七年庚午冬, 完植以通政, 今命來治玆土始至, 邑樣蕭條, 廨宇荒涼, 所謂公堂不蔽風雨, 人或言修改, 余曰不然, 夫堂者, 坐而爲政之所也. 政苟善堂, 雖蔽何損, 政不善堂雖美, 何益政之, 善不善, 不在於堂之美不美明矣. 吾之前幾百年, 賢於吾之政者, 幾大夫, 皆於此堂, 吾何必改爲, 且吾無善政, 而勞吾民之美, 吾之堂, 吾不忍爲也. 越明年辛未夏, 西舶五隻, 肆然下碇於濟物內洋, 距邑十里, 獎卒土兵, 風雨炎瘴, 防守海上, 凡四十八日寇退, 而歲仍大饑, 停租設賑, 特蒙朝家軫念, 民以賴安. 至壬申秋, 歲乃熟邑無警, 一日吏民, 咸告于庭曰, 今年乃我聖朝建國之元也. 上自吾王勤政之殿下, 而中書省三軍府六曹百司, 暨三百六十州官舍, 靡不復初獨, 我公堂之不修, 實爲一邑羞, 不但爲一邑羞, 恐非奉承, 朝家維新之命也. 木石之運, 工役之費, 咸願效力, 余乃不得已, 徑始之營, 度之選日, 碇礎于舊堂之後, 占地高而弊繚, 而抱賓館及門樓, 翼廊倉庫, 次第一

新，民旣樂赴，官自監董，所以費省而成連也．功旣訖與賓僚，擧酒於堂上，顧而樂之已而．嘆曰，此州古彌鄒忽，沸流氏之地，西臨大海，邑之南數弓有山曰文鶴，上有城址，完然據輿地勝覽，年代在三韓之時，時於此地，僻陋瀉鹵，人民鮮少，城之恚忿，名有以今也．不然，王都纔七十里近沁營，天塹也，而鎭其北隋城雄府也，而控其南築堰種稻，稻香而腴，煮海爲鹽白於雪，尋常見客膾必銀鱗之魚，果必虬卵之柿，依然有江淮間風味，距京近故士大夫解官者多，居之民以知禮讓焉．邑閒而僻賓旅，無迎送之煩，政淸而簡，吏校有忠謹之習，以此號稱易治常爲有聲望， 老蔭官閒養之所，近因洋夷侵犯，遂爲關方重地信乎．京師肘腋海門咽喉，揀諸西班陞諸內邊，盖愼其任也，寵其命也．今又楹桶翬飛甍瓦鱗葺，視曩日蕭條荒涼之時，固何如也．然而坐此堂而爲之政者，政不能稱堂，能不愧於此，堂又不愧於在昔賢大夫之善政，不以堂之敝而有損耶．吾今瓜期已滿矣，又不知吾去之後，民之因事入府者，能無瞻此堂而蹙頞曰，是勞民而美之云乎哉，余以是懼．

인 천 부 사 포 계 절 목(仁 川 府 射 砲 稧 節 目)

하나. 봉몽(逢蒙)은 활을 잘 쏘았으나 고르지 못한 활은 잡지 않았고, 조보(造父)는[685] 말을 잘 몰았으나 복종하지 않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지 않았으며, 반수(般倕)는[686] 나무 깎기를 잘 하였으나 예리하지 못한 도끼를 휘두르지 않았고 손빈(孫臏)과[687] 오기(吳起)는[688] 장수(將帥) 노릇을 잘 하였으나 연습하지 못한 병사들과 싸우지 못하였으므로 병사들은 백 년동안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루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부(本府)는 즉 보장(保障)하는 요충지였지만 오랫동안 승평시대(昇平時代)를 거치면서 백성들이 병사를 모르고 있으므로 포상(苞桑)의 경계와 음우(陰雨)의 대비를 조금이라도 늦추면 안될 것이다. 특히 일곱 곳의 포구에 사포계(射砲稧)를 설치하여 거주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철에도 병사로 근무하고 농한기에는 무예를 강구(講究)하게 하고 금전(金錢)을 주어 이자를 늘려서 무예를 겨루어 시상(施賞)하도록 하였다. 지금부터는 권면(勸勉)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자 연습하면 몇 년이 되지 않아 모두 반드시 정예(精銳)하게 될 것이며, 가정을 떠나지 않아도 입번(入番)과 같아 병사가 주둔하는 수자리는 비어있지 않을 것이니 이로부터 편안하게 지내고 아무 탈이 없게 할 것이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호미를 메는 농민이며, 경계(警戒)가 있을 때 응모한 사람들은 모두 무예를 연습한 병사들이므로 마땅히 당나라 시대의 부병(府兵)과 송나라 시대의 상병(廂兵)과 그 공(功)이 하나가 되게 할 것.

하나. 총(銃)은 관청에서 지급하고 활과 화살은 계중(稧中)에서 사들여 사용한다. 그리고 매월 두 차례 각 동(洞)에서는 100명이 각기 전문(錢文) 50냥을 가지고 모여 무예를 시험하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전문(錢文) 50민(緡)을 지급하여 위로는 부모님의 의복과 창고에 저장한 쌀을 제공하고, 아래로는 자녀의 혼가(婚嫁)를 위해 송아지를 매입하도록 한다면 농지를 경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개 한 해가 다하도록 농사에 열중하였지만 그 소득을 계산하면 10냥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50냥이나 되는 재산이므로 팔을 걷어붙이고 앞을 다투어 반드시 합격하기를 전력하는 것은 참으로 그 형세이다. 상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권장하고, 벌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징계하였으며, 훈련이 근본이 있어 무예가 더욱 정

685) 조보(造父) : 말의 관상을 잘 보는 동시에 말을 잘 모는 사람을 가리킨다.
686) 반수(般倕) : 반(般)은 공수반(公輸般)을, 수(倕)는 공공(共工)을 의미함. 이들은 중국 고대의 전설적 기술자임.
687) 손빈(孫臏) :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무장이다.
688) 오기(吳起) : 중국 전국시대 명장, 병법가, 정치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일(精一)하여 마을의 아이들도 활시위를 당기고 포를 쏠줄 알아 결국 기구업(箕裘業)이[689] 되었으니, 마을마다 보루를 설치하고 집집마다 병사(兵士)를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

하나. 관청에서 1개월에 한 번 시험사격을 치러 우수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상으로 15냥을 주고, 그다음은 모두 등수에 따라 상을 주며, 10개월 동안 계획을 마련하여 읍(邑)에서 병영(兵營)으로 보고하고, 병영에서는 장계(狀啓)로 보고하여 과거시험에 급제하도록 하고, 과거에 급제한 후에도 우수하게 합격하면 대장(隊長)으로 승진하며, 대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우수하게 합격하면 기총(旗摠)으로 삼고, 기총이 된 후에도 우수하게 합격하면 초관(哨官)으로 승진하고, 초관으로 승진한 후에 우수하게 합격하면 수집사(首執事)로 승진하고, 수집사가 된 후에 우수하게 합격하면 중군(中軍)으로 승진하고, 중군이 된 후에 우수하게 합격하면 병영(兵營)에 보고하고, 병영에서 장계로 보고하면 특별히 한 사람을 변장(邊將)으로 제수(除授)하고, 100명에게는 상을 주어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여 충의(忠義)를 권장하고 새로운 조약(條約)을 밝히며 평시에는 사방으로 흩어져 농사짓는 일을 하다가 일이 있을 때는 합력하여 운집(雲集)하고, 험한 산이나 계곡을 가리지 않고 많은 무리의 마음이 성(城)을 이루어 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무찌르게 할 것.

하나. 계장(稧長)은 모든 면에서 구별하여 선택하되 충의와 지략을 제일로 하고 면에서 평소에 믿고 따를 만한 자 각 1인에게 책임을 맡기는데, 대저 영예로운 명성은 선비들이 목숨으로 여기며, 작위와 상은 임금이 장려하고 권장하는 것으로 군대의 사기를 한결같이 하고 무예의 재주가 숙련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장이 인재를 얻는데 달려 있으므로, 그 재략(才略)과 근간(根幹)을 살펴 관청에서 병영(兵營)으로 보고하면, 병영에서는 장계(狀啓)로 보고하여 특별히 선발하여 등용하면 한 사람으로 100명을 권장하여 무리의 마음을 움직이면 암혈(巖穴)에 뜻이 있는 선비들도 뒤를 따라 일어나 국가를 위해 힘을 낼 것이니, 그 완급(緩急)에 있어서 반드시 믿을 만한 점이 있을 것이므로, 인재를 얻는 방법은 먼저 그 행사(行事)와 처의(處義), 지략(智略), 초군(迢群), 용감(勇敢), 절륜(絶倫)을 살피고, 효우(孝友)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드러나고 신의(信義)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라면 태수(太守)는 이익을 주어 그의 청렴성을 보고 위태롭게 하여 안정시키는 것을 엿보아 재략과 근간이 있으면 포상하고 기용할 것.

하나. 모든 계(稧)의 계장(稧長)은 1초(一哨)를 거느리고 정해진 방식을 약속하여 정기

689) 기구업(箕裘業) : 선대(先代)의 업(業)을 완전히 이어받음을 뜻한다.

모임에서 신호를 보여주며, 젊은이와 어른의 예절이 있고, 앉음과 일어남에 절도가 있으며, 망을 보는데 서로 돕고, 질병에 서로 구제하며, 언덕과 밭 사이에서 나무하고 밭갈이를 할 때에도 농악 북을 치고 피리를 불어 항상 행진(行陣)하는 모양을 하고, 만약 갑작스런 경보가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외치면 100명이 호응(呼應)하고 북을 한번 치면 칠포(七浦)에서 그림자처럼 따르기를 자제(子弟)들이 부형(父兄)을 옹호하고 수족(手足)이 두목(頭目)을 방어하는 것과 같이하면, 밤에 전쟁할 때 그 소리를 알고 낮에 전쟁할 때도 그 얼굴을 알아보며 충간(忠肝)과 의담(義膽)으로 한 몸과 같고 죽음을 맹세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에 한마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위로는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아내와 자식 보호하기를 모름지기 갑작스런 때라도 반드시 소홀히 하지 말 것.

하나. 이 고을은 바다의 요충지로 북으로는 서울과 반나절 거리이고, 남쪽으로는 양호(兩湖)에 하나의 범선(帆船)이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심도(沁都)는 좌측에 있고, 화성(華城)은 우측에 있으므로 심복(心腹)과 같이 중요한 곳이며, 부액(肘腋)과 같이 가까운 고을이다. 멀리까지 척후(斥候)하고 요망(瞭望)을 근실하게 하여 어느 포구를 막론하고 대포소리가 한번 진동하면 각 동리의 민병(民兵)들은 호미를 던지고 일어나며 밭갈이하는 것을 그만두고 달려가 깃발을 보면 전진하고 징소리를 들으면 중지하여, 형세가 뱀처럼 호응하고 사나운 독수리처럼 공격하면 적도들이 먼저 기세를 잃게 되어 공격해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었다. 그리고 적도들이 믿는 것은 배와 대포이다. 그러나 배는 육지를 다니지 못하고 대포는 산을 넘어가지 못하므로 우리의 충의(忠義)와 용감한 병사들이 저 기세를 잃은 오합지졸의 적도들을 공격하면 어찌 옹기 중에서 자라를 잡고 바람 앞에서 잎을 뒤집는 것과 다르겠는가. 더구나 본읍의 토병들은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자라나 풍토(風土)를 익숙히 익히고 험한 곳과 평탄한 곳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모집하여 진중(陣中)으로 달려간 병사들과 그 공로의 차이는 배가 될 뿐만 아니다. 대저 모집한 산읍(山邑)의 포병(砲兵)들은 급박해도 겨우 길을 나섰고, 적도들이 내지(內地)로 들어오면 느리게 몸은 비록 진중으로 가고 있었으나 마음은 고향에 가 있었으니, 기예(技藝)가 비록 정교하였으나 도리어 진실한 마음으로 전쟁하고 수비하는 토병(土兵)만 못하였음.

하나. 본 고을의 결총(結摠)은 1,600결(結)이며, 가봉(加捧)은 매 결에 1냥씩, 합계 1,600냥 내에 600냥은 매년 10월 무예 시험을 볼 때 상금으로 사용하고 1,000냥은 각 계중(稧中)에 떼어 내주어 식리(殖利)하도록 한다. 그리고 1년간 약환(藥丸) 비용과 대대적인 열병식(閱兵式) 때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는 비용은 모두 이자 부분에서 취해서 사용하고, 3년 후에는 매년 계중에서 식리

전(殖利錢)이 300냥을 넘지 않도록 하여, 그 나머지를 남겨두어 매년 경작지를 매입해 두고, 십여 년이 지나면 전수(轉輸)하는 노력과 시장에서 사들이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병사의 군량을 넉넉하게 할 것.

하나. 매월 한 번씩 시방(試放)하고, 봄과 가을에 대대적인 열병식을 거행하되 각 대(隊)에는 대장(隊長)을 두고, 기(旗)에는 기총(旗摠)을 두어 계법(稧法)으로 약속하고, 군제(軍制)를 가르친다. 그리고 군사를 제압하는데 예리한 기계(器械)같은 것이 없으므로 용왕포(龍王砲), 동발공(銅發槓), 화전(火箭), 불랑기(佛浪機), 천지화포(天地火砲) 등 멀리 갈 수 있는 기종(器種)을 많이 제조하여 파선(破船), 함진(陷陣)에 대비하고, 목인(木人), 활마포(活馬砲), 신화(神火), 비아화(飛鴉火), 우뢰포화(牛雷砲火), 용권(龍捲), 지차(地車), 지뢰포(地雷砲) 등 화기(火器)는 임진(臨陣)에서 예봉(銳鋒)을 파괴하는 도구이며, 조총화(鳥銃火), 금화(禽火), 수작설(獸雀舌)은 혹 대적(對敵)하여 오전(鏖戰)할 때 사용하고, 혹은 어두운 곳에서 불을 지를 때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활을 쏘는 것은 성문(聖門)의 한 기예이며 병가(兵家)의 장기(長技)이므로, 그 사용이 한결같지 않다. 기예(技藝)도 또한 술책이 많아 철전(鐵箭), 편전(片箭), 기사(騎射), 유엽전(柳葉箭)이 있어 각기 그 묘술(妙術)을 다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노(手弩)는 한 번에 화살 10발을 장착하여 적을 수십 보 밖에서 쏠 수 있다. 그리고 궁제(弓制)는 즉 단목(檀木)과 상목(桑木)이므로 다시 이장(弛張)하는 수고로움이 없고 사법(射法)도 노약(老弱)과 부녀(婦女)들 또한 교졸(巧拙)의 걱정이 없으며, 마릉(馬陵)의 전쟁과 목문(木門)의 승첩(勝捷)에도 모두 이 수노를 사용하였다.

본 고을은 비록 작으나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의 통계는 1만 명이 넘는다. 8도(八道)를 추론하면 율곡(栗谷)의 10만 양병책(養兵策)을 시행하기가 어찌 어려움이 있겠는가. 한 고을의 규모를 한 도(道)가 시행하고, 한 도의 규모를 팔도가 생각하면 비록 미리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한번 명령이 내려지면 동서남북으로 삼천리에 별과 바둑돌이 벌여있듯 군영이 나열하고 나라에는 군병을 불러 모으는 일이 없고, 가정에는 저축하는 식량이 있었으므로 한 고을의 지혜와 씩씩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그 재능을 다 하였다. 이것은 다만 나랏일을 위할 뿐 아니라 그 부모와 처자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였으니, 어찌 가까운 혈족 사이에 맹렬하게 싸움을 벌이는 병사들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위험한 지경에 직면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포노(砲弩)는 모든 적의 무리들이 비록 날개 돋친 호랑이처럼 용맹이 있다 하더라도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모두 산산이 부숴버리고 죽일 수 있었다. 지금 사계(射稧)는 관청에서 쇠뇌틀 한 두 개를 주어 그 모양대로 제조하고 사람마다 발사 연습을 한다면 1개월도 되지 않아서 모

두 숙련될 것이니 비록 창졸간에 적과 마주치고 화살이 다하거나 활이 부러지더라도 이 쇠뇌틀은 본래 뒤집어지거나 부러지는 걱정이 없으므로 버들가지와 쑥대같은 것에다가 작은 쇠로 만든 화살촉을 달더라도 적을 죽일 수 있으니 각 계(稧)로 하여금 별도로 더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

하나. 많은 무리를 거느리는 기술은 상과 벌을 공정하게 하는 것같이 좋은 것이 없으므로 먼저 약조를 엄저하게 정하여 충성과 신의가 두텁고 성실한 마음이 향상된 사람과 과감한 용맹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먼저 성 위에 오르는 사람과 의로운 일을 보고 세차고 꿋꿋하게 몸을 일으켜 수레에 뛰어오르거나 깃대를 든 사람, 기예(技藝)가 숙련되었거나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공적인 일에 용감하고 사사로운 일에 겁내거나 남을 격려하고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서 주장하는 사람, 법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거나 어려운 일에 직면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을 후하게 주어 권장해야 한다.

북소리를 듣고 전진하지 않거나 걸핏하면 군법을 어기는 것을 만군(慢軍)이라 이르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거나 고집이 세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을 횡군(橫軍)이라 이르며, 무기를 잃어버리고 탄약과 탄환을 허비하는 것을 낭군(浪軍)이라 이르고, 남의 부녀를 겁박(劫迫)하거나 남의 재산을 훔쳐서 가지는 것을 간군(姦軍)이라 하며, 차례를 넘거나 대오(隊伍)를 이탈하여 금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난군(亂軍)이라 이르고, 침범하는 외적이 와도 보고하지 않고 쳐들어오는 적의 수효가 적은데도 많다고 말하는 것을 오군(誤軍)이라고 이르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극율(極律)로 시행한다. 이러므로 후한 상을 내리면 반드시 용감한 장부가 생기고 엄중한 벌을 내리면 간사한 거짓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에 대대적인 열병식을 거행하여 모든 군대가 꿇고 정숙하게 앉아 있으면 계장(稧長)은 이 약조를 읽어 그 취지를 거듭 밝히고 무리들을 경계시켜야 한다. 그리고 평일에 일이 없을 때는 군제(軍制)를 깨우쳐 준다면 비록 어렵고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어기는 일이 없을 것.

하나. 위험한 지역을 점거하고 요충지를 수비하려면 반드시 지리적 이점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 고을은 험악한 산과 계곡 및 견고한 성곽이 없으므로 평지에 땅을 파서 우리 군사들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저들의 포환이 우리를 맞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포환은 쏠 때마다 명중하지 않는 것이 없어 오히려 치첩(雉堞)에 병사를 숨긴 것보다 좋을 것이다. 이것은 성이 없어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며 험준하지 않아도 험준한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바다에 잇당하 있는 지역의 요충지는 곳곳마다 참호(塹壕)를 파두어 만일 시급한 계엄(戒嚴)이 있을 때를 대비한다면 이목(李牧)의 견고한 보루(堡壘)와 진양(陳陽)이

나열한 돈대(墩臺)와 같이 군병들이 의존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적의 형세는 현란하여 스스로 길이 막힐 것이니 각 계의 민병(民兵)으로 하여금 수시로 보충하여 고치도록 하고, 또 병인년 이후 서양 선박이 와서 갑자기 정박함이 매번 이와같이 내양(內洋)에 이르니, 계엄(戒嚴)이 없을 때 그 멀고 가까움과 넓고 좁음을 헤아리고 화기(火器)가 미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그 선박을 단절시킬 것을 생각해 둔다면 비록 창졸간에 화공(火攻)의 대포소리가 한밤중 안개속에서 떨어지더라도 멀고 가까움과 넓고 좁음을 한눈에 환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니 모두 표적으로 삼을 것.

하나. 무릇 수령과 재상(宰相)이 백성을 돕는 일은 오직 경작하여 먹이고 길쌈하여 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리고 힘써 칠사(七事)를 이행하고 깊이 삼정(三政)을 살펴 진작(振作)하고 보조하여 일정한 생업이 있도록 한다면 반드시 입을 것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본 고을은 바다가 가까워 땅이 소금성분이 많으므로 가뭄과 장마의 재난을 만나면 공연히 경작하는 힘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본 고을의 동쪽 들에 제언(堤堰)을 축조하고 물을 저장하여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한다면 기름진 들이 될 것이니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매년 제언을 보수하고 축조해 나간다면 그 농사짓는 일에 반드시 오래도록 힘입을 것이다. 이 땅에 알맞은 작물은 감나무, 뽕나무가 경작지에 해롭지 않을 것이니 비록 송곳 하나 세울 수 있는 땅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밭에 심을 수 있으므로 온 고을에 두루 심어 둔다면 수십만 그루가 될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상수리나무와 밤나무도 흉년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마땅히 산골짜기에 많이 심어 생산을 늘리는 자원이 되게 하고, 또 돈 3천 꿰미 돈을 각 포구의 염호(鹽戶)에 나누어 주어 매년 봄과 가을에 그 이자를 받아들이고 민병(民兵)의 군전(軍錢)을 제외한다면 이로부터 혹 농사에 안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색(酒色)과 잡기(雜技)를 금지하여 끊게 한 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으므로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뚜렷한 공적이 날로 성취할 것이니, 각 계장은 진실하게 가르치고 경계시켜 법을 범하지 말게 할 것.

하나. 본 고을의 남산은 옛 산성이다. 옛날 임진년에 본 고을의 수령 김민선(金敏善)은 토병(土兵)을 인솔하고 꿋꿋하게 떨쳐 일어나 의로운 기상을 내어 왜병(倭兵)을 격파하였다. 그곳은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고 산의 형세가 높고 험하여 7개의 포구(浦口)를 공제(控制)하고 8개의 섬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해문(海門)에서 바라보면 엄연히 침범할 수 없는 형세를 가진 바닷가의 평지이다. 이와같이 자연으로 이루어진 험준한 곳이므로 국가의 보물임에도 무관심하

게 버려두고 있으니 참으로 뜻이 있는 사람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옛사람들이 먼저 북산(北山)을 점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어 그 유리한 점은 험한 곳을 점거하는데 있기 때문에 천하가 다 두려워하고 감히 엿볼 수도 없을 것이다. 수나라나 당나라와 같이 강한 나라도 압록강과 안시성(安市城)의 패배가 있었고, 앞뒤에 걸쳐 고군(孤軍)이 대첩(大捷)한 것은 권율(權慄)[690] 공의 행주성(幸州城)과 김시민(金時敏)[691] 공의 진주성(晉州城), 이정암(李廷馣)[692] 공의 연안(延安)과 이복남(李福男)[693] 공의 웅치(熊峙)와 유림(柳琳)[694] 공의 백전(栢田)과 정충신(鄭忠信)[695] 공의 안현(鞍峴)과 김준룡(金俊龍)[696] 공의 광교산(光敎山)과 신각(申恪) 공의 해현(蟹峴)에서 험지(險地)를 점거하고 산성을 의지하여 기공(奇功)을 이루었다. 이것은 모두 이전 시기의 귀감(龜鑑)으로 매우 명백한 일이다. 지금 이 산성을 축조한 후 군량을 모아 저축하고 병사를 훈련하여 도성의 서우(西隅)를 방어한다면 또한 심영(沁營) 하류의 성세(聲勢)에 도움이 될 것이니, 혹 전쟁하고 수비하는 좋은 대책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농한기에 한 고을의 군사와 백성들은 모두 힘을 합하여 수축할 것.

하나. 무릇 이 사포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답하는 대책과 방법을 꾀하였기에 충의(忠義)를 권장하고 약속을 정하였다.

임금님을 존경하고 윗사람과 친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가지고 있는 품성이며, 토지를 가지고 농업에 편안히 종사하는 것은 백성들의 상정(常情)이다. 너의 조상으로부터 너의 몸에 이르기까지 500년 동안 길러서 양성한 은혜는 뼈에 새겨 명심해야 할 것이며, 삼천리에 적신 우로(雨露)의 혜택은 살에 스며들고 뼈에 젖어 있다. 아! 우리 청구(靑邱)는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이므로 비록 여항(閭巷)의

690) 권율(權慄) : 조선 선조대의 명장으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군대를 총지휘하였으며, 행주대첩(幸州大捷) 등에서 크게 이겼다.

691) 김시민(金時敏) :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왜적을 격파하여 영남우도 병마절도사로 특진하고, 진주성에서 분전하다가 전사하였다.

692) 이정암(李廷馣)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황해도 의병을 모아 활약하였고, 황해도 초토사가 되어 연안에서 포위된 왜군 3,000여 명을 격파하였다. 선무공신 2등으로 월천부원군에 추봉되었고,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693) 이복남(李福男) : 조선 선조 때의 무신으로 전라방어사와 나주목사 따위를 역임하였다.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정유재란 때 남원성에서 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694) 유림(柳琳) : 조선 인조 때의 무신으로 병자호란 때 평안도 절도사로서 청군의 침입을 막고 남하하는 청군을 추격하여 크게 무찌르고, 1641년에 청나라의 요청으로 명나라를 칠 때는 원군을 이끌고 출병하였다.

695) 정충신(鄭忠信) : 조선시대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광주목사 권율의 휘하에서 종군하였다. 이괄(李适)의 난 때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활약하여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해졌다. 정묘호란 때는 부원수를 지냈다.

696) 김준룡(金俊龍) :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병자호란 때 군사를 이끌고 적에게 포위당한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면서 수원의 광교산(光敎山)에서 공경(孔耿)이 이끄는 청나라 군대 수만이 공격해오자 청 태조의 부마 백양고라(白羊高羅) 등 많은 적병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부인과 아이들이라도 모두 오륜(五倫)과 삼강(三綱)이 날로 사용하고 항상 이행하는 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근년 이후로 사학(邪學)이 점점 왕성해지고 서양 오랑캐가 여러 차례 침입하였으나 다행히 조정에서 대처하기를 타당하게 하여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정학(正學)을 숭봉(崇奉)하였으므로 함부로 날뛰던 적도들은 놀라서 멀리 도주하고 흉악하고 사악한 무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죽였다. 만고(萬古)의 윤리강상이 펼쳐지고 온 나라의 문물(文物)이 다시 밝아졌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맑고 환하게 밝은 대낮을 보게 하므로 다시 그 사이를 조금이라도 가리지 못하였다. 백성들이 오늘 해동(海東)에서 태어 것은 어찌 다행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어찌 즐겁지 않다고 하겠는가. 그리고 바다를 방어할 때 특히 성상(聖上)께서 미곡을 하사하셔서 너희 부모를 봉양하게 하고 금전을 하사하여 너의 처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들의 질병을 염려하여 약을 나누어 주시고 더위에 몸이 상할 것을 염려하여 옷을 지급하였다. 지난번 거듭 흉년이 들었을 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계획이 없어 산골짜기에 메워지는 것을 면하기 어려웠는데 총미(摠米), 상정(詳定), 환곡(還穀) 등을 영원히 면제하고 굶주린 백성에게 진휼을 설치하고 왕세(王稅)도 중지하고 기한을 미루게 하였다. 이것은 모두 일반의 여론이 함께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대덕(大德)은 하늘과 같은데 무엇으로 갚으려고 할까. 충간(忠肝)과 의담(義膽)으로 끓는 물에 나가고 불을 밟는다면 지키는 것도 견고하고 전쟁을 해도 승리할 것이다. 의리가 밝고 똑똑함으로 마땅히 서로 격려하고 관원도 역시 국은(國恩)이 헤아릴 수 없어 이 땅에 와서 지키고 있다. 산과 바다에 맹세코 너희들과 함께 그 큰 은혜를 보답하고자 이에 타일러 가르치니 너희들은 마땅히 두렵게 생각하여 봄과 가을로 대규모 사열식(査閱式)을 한 후에 각 계장(稧長)은 이 약속을 읽고 절목(節目)을 펼쳐 모든 군사에게 효유(曉諭)할 것.

하나. 자잘하고 사소한 여러 조항은 계중(稧中)에서 마련하도록 할 것.

○ 仁川府射砲稧節目

一. 夫逢蒙善射, 不能操不調之弓, 造父善御, 不能策不服之馬. 般倕善斲, 不能運, 不利之斤, 孫吳善將, 不能戰, 不習之兵, 故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不鍊. 本府卽保障要衝之地, 升平日久, 民不知兵, 苞桑之戒, 陰雨之備, 不容少緩. 故特設射砲稧於七浦, 使居民寓兵于農, 農隙講武, 給錢殖利, 較藝施賞. 從今以往, 不待勸勉, 各自鍊習, 不過幾年, 必皆精銳矣. 不離室家而便同入番, 不曠屯戍, 而自是安堵無事, 而服田則乃荷鉏之農民, 有警而赴募, 則盡習藝之戰士, 當與唐朝之府兵, 宋代之廂兵, 一般其功事.

一. 銃則自官給之, 弓矢自稧買用, 而每月二次, 洞各百人, 各持錢五十文, 齊會試藝, 優中者, 合錢五十緡與之, 則仰可奉父母衣廩, 俯可營子女婚嫁, 以之買犢, 則足爲耕農之資, 盖其終年作農, 孜孜矻矻計, 其所得不過十許金. 今此半百金之財, 莫不奮臂, 爭先專心必中者, 固其勢也. 不賞而自勸, 不罰而自懲, 鍊有素而藝益精, 閭里孩童, 皆知控弦放砲, 便成箕裘, 可謂村村設堡, 家家藏兵事.

一. 自官一月一試放, 取其優中賞之, 以十五金, 其次亦皆隨等以賞, 通十朔計畫, 自邑報營, 自營狀聞, 使之登科, 登科之後, 優中則陞隊長, 隊長之後, 優中則旗摠, 旗摠而優中, 則陞哨官, 哨官而優中, 則陞首執事, 首執事而優中, 則陞中軍, 中軍而優中, 則報營狀聞, 特除邊將. 一人受賞, 百人共勵, 勸之以忠義, 明之約條, 平時則四散而農作, 有事則合力而雲集, 不待山谿之險, 而衆心成城, 可以禦侮折衝事.

一. 稧長每面揀選, 忠義智略爲一, 面素所信服者, 各一人委任責成, 而夫榮名者, 士之所以爲命, 爵賞者, 上之所以奬勵, 軍心之齊一, 武技之精熟, 專係稧長之得人, 察其才畧, 視其勤幹, 自官報營, 自營狀聞, 特爲調用, 以一勸百, 鼓動衆心, 則岩穴有志之士, 將接踵而起, 爲國家出死力, 其於緩急, 必有可恃, 而得人之道, 先察其行事, 處義智略, 迢群勇敢絕倫, 孝友素著於家, 信義表顯於人者, 則太守利之而見其廉, 危之而探其安, 才略勤幹, 足可奬用事.

一. 每稧稧長, 領率一哨, 約束以定式, 期會以示信, 少長有禮, 坐作有節, 守望相助, 疾病相救, 至於原野田疇之間, 樵採耕耘之時, 農鼓草笛, 常如行陣之狀, 若有警急, 一呼而百人響應, 一鼓而七浦影從, 如子弟之衛父兄, 手足之捍頭目, 夜戰知其聲, 晝戰識其面, 忠肝義膽, 便同一體, 矢死捐生, 無不一心, 上以報國家, 下以保妻孥, 雖在倉猝之時, 必無疎虞之慮事.

一. 此邑爲海門要衝, 北距京師半日程, 南控兩湖一帆風, 沁都在左, 華城在右, 心腹重地, 肘腋近邑也. 遠斥侯謹瞭望, 無論某浦砲聲一震, 各洞民兵, 投鉏而起, 輟耕而趁, 見旗則進, 聽金則止, 勢如蛇應而鷙擊, 賊先喪氣, 攻無不勝. 且賊之所恃, 船與砲也. 船不可以行陸, 砲不可以越山, 以我忠義勇敢之士, 攻彼烏合奪氣之賊, 何異乎. 瓮中捉鱉, 風前捲葉, 况本邑土兵, 生斯長斯, 慣習風土, 熟諳險夷, 與召募赴陣之卒, 功相倍蓰. 大抵召募山邑砲兵, 急則兵纔登途, 賊入內地, 緩則身雖赴陣, 心在故鄉, 技藝雖精, 反不如土兵之實心戰守事.

一. 本邑結摠一千六百結, 加捧每結一兩式, 合一千六百兩內, 六百兩, 每年十朔試藝時, 賞資應用, 而一千兩, 則各稧劃付, 使之殖利, 一年藥丸之費, 大閱犒饋之資, 皆以利條中取用, 而限三年後, 則每稧殖利之錢, 無過三百兩, 留置其餘, 則逐年買置田土, 差過十數年, 不費轉輸之力, 貿遷之勞, 而兵食自足事.

一. 每朔一試放, 春秋一大閱, 隊有隊長, 旗有旗摠, 約之以稧法, 教之以軍制, 而制軍

之妙，莫如利器機，多造龍王砲 銅發槓 火箭 佛浪機 天地火砲等，遠器爲破船陷陣之備，木人 活馬砲 神火 飛鴉火 牛雷砲火 龍捲 地車 地雷砲等火器，爲臨陣摧鋒之具，鳥銃火 禽火 獸雀舌，或用於對敵鏖戰之際，或用於暗地衝火之時，且夫射者，聖門之一藝，兵家之長技，其用不一．技亦多術，有鐵箭 片箭 騎射 柳葉箭，各盡其妙，而最要者，有手弩一發十矢，射賊於數百步之外，弓制卽檀木，更無弛張之勞，射法則老弱婦女，亦無巧拙之患，馬陵之役，木門之捷，皆此弩也．本邑雖斗小，統計男女老弱，則不下萬人，推論八道，則栗谷十萬養兵之策，何難施行乎．一邑之規，一道施之，一道之規，八道慕焉．脫有不虞，一令之下，列營於東西南北三千里，如星羅碁布，國無召募之擧，家有自儲之糧，一邑之智勇，各盡其才，不但爲國事，保其父母妻子，豈非骨肉血爭之兵乎．臨制勝砲弩并擧，賊雖有插翅添翼之勇，便當措手不及，盡爲齏粉矣．今於射稧，自官出給弩機一二座，使之依樣製造人人習射，則不期月擧皆鍊熟，雖臨敵倉猝，矢盡弓折之際，此弩本無反張，缺折之患，柳技蓬蒿以寸鐵爲鏃，則可以殺賊，使各稧另加教鍊事．

一．御衆之術，莫如信賞明罰，玆先嚴立約條，忠信敦厚，誠心向上者，果敢有勇，期會先登者，見義奮身，超乘搴旗者，技藝精熟，勤幹有智者，勇公怯私，激勵能倡者，守法不撓，臨難不懼者，勸之以重賞．聞鼓不進，聞金不止者，此謂悖軍．期會不進，動乖師律者，此謂慢軍．多出怨言，屈强難治者，此謂横軍．遺失器械，虛費藥丸者，此謂浪軍．逼人婦女，竊人財貨者，此謂姦軍．越次離伍，不馴禁令者，此謂亂軍．寇至不告，寇少言多者，此謂誤軍．如是者並施以極律．是以重賞之下，必有勇夫，極罰之下，莫逃奸僞．每歲春秋大閱之後，使一軍跪坐肅靜，稧長讀此約條，申明警衆．平居無事之時，曉暢軍制，則雖在臨難急遽之時，必無違越事．

一．據險守要，必相地利，而此邑無山谿之險，城郭之固．然而平地依恃，多掘土甲，以爲我軍躲身之所．彼之砲丸．不能中我，我之砲丸，發無不中．猶勝於雉堞之藏兵，此無城而有城，非險而設險．沿海要害，處處掘塹，若有警急，如李牧之堅堡，陳陽之列墩，軍心依據，而不懼賊勢，疑眩而自沮矣．使各稧民兵，以時修補．且自丙寅以來，洋船之來輒下碇，每於內洋迨，此無警之時，量其遠近測其廣狹，試以火器之所及料其船筏之可斷，雖當倉猝，火攻砲擊，必行於黑夜漲霧之中，而遠近廣狹，瞭然於心目，皆有準的事．

一．凡守宰之牧民，作耕而食之，織而衣之，力行七事，深察之政，振作輔翼，使有恒產，則必無凍餒．本邑濱海斥鹵，頻被旱澇之灾，徒費耕耘之力．故特爲築堰於邑之東坪，儲水灌溉，便成沃野，齊心合力，每年修築，則其於農功必也．永賴此土，所宜柿木桑木無害於田土，雖無立錐之地，亦可栽種于他人田畝之畔．一邑遍植，則不知爲幾千萬株，至若橡栗，可以救荒，亦宜多種於山谷，以爲殖產之資，而三千緡

錢，分給各浦鹽戶，每年春秋，收其利條，永除民兵之軍錢．自玆以往，庶可安業，而且功禁酒色雜技，然後可以作農，可以種樹，克勤無怠，功業日就矣．各稧長，丁寧教戒，俾勿犯科事．

一．邑之南山古城，昔在壬辰，邑倅金敏善倡率土兵，奮義破倭之地也．形址宛然，而山勢高峻，控制七浦俯瞰八島．自海門望之儼然，有不可犯之勢，濱海平夷之地，有此天設之險，足爲國家之寶，等閒棄之，實爲有志者所惜．古人所以先據北山者，此也．我國多山少野，利在據險．故天下畏之，莫敢覬覦，以若隋唐之强，尙有鴨江安市之敗，前後孤軍大捷，如權公慄之幸州，金公時 敏之晋州，李公廷馣【馣】之延安，李公福男之熊峙，柳公琳之栢田，鄭公忠信之鞍峴，金公俊龍之光教山，申公恪之蟹峴，莫不據險依城，以成奇功，此皆前鑑之孔昭者也．今築此城，積粮鍊兵，以爲都城西隅之屛蔽亦助，沁營下流之聲勢，庶爲戰守之長策，宜於農隙，一邑士民，並力修築事．

一．凡此修稧者，要當一心圖報，故勸忠義而定約束，曰尊君親上，人之秉彝，懷土安業，民之常情．粤自爾祖迄于爾身，五百年涵育之思，刻骨銘心，三千里雨露之澤，淪肌浹髓，猗我青邱，禮義之邦，雖閭巷婦孺，皆知五倫三綱，爲日用常行之道．近年以來，邪學漸熾，洋夷屢侵，幸賴朝家，處置得宜，闢異端，崇正學，闖肆之賊，慴伏遠遁，凶邪之徒，殄滅無遺，萬古之倫綱以敍，一國之文物復煥，使斯民，見青天覩白日，無復纖翳於其間，民生之生於今日，海東者，豈不幸哉，豈不樂哉．且於海上防守時，特蒙聖恩，賜之粮爲爾父母之養，頒之錢，爲爾妻孥之饋，慮嬰疾而分藥，念傷暑而給衣，頃在荐歉之時，無計安堵，難免塡壑，而永蠲摠米，詳定還穀，設賑飢戶，停退王稅，此皆輿情之所共感泣者也．大德如天，欲以何報，忠肝義膽赴湯蹈火，以守則固，以戰則勝，義理昭森，宜相激勵，官亦國恩罔極．來守此士，盟山誓海，思與爾等，共報洪恩，玆以布諭，爾宜惕念，春秋大閱後，各稧長讀此約束，申以節目，曉諭一軍事．

一．細瑣諸條，使稧中便宜磨鍊事．

병자년에 거의(擧義)한 동은공(東隱公)의 통문(通文)

아! 하늘이 우리 국가를 편안하게 하지 않으려고 견양(犬羊)을 풀어 놓아 그들이 괴롭히고 못살게 한 지 200년이 되었고, 종사(宗社)는 하루아침에 쓸쓸한 옛터가 되어 십만억(十萬億) 살아있는 백성들이 모두 짓밟혀서 결딴나고 말았다. 이를 말하자면 기가 막히는데, 어느 여가에 통곡하겠는가. 우리 동국(東國)은 옛날부터 삼한(三韓)으로 불리고 풍속은 예의를 숭상하였으며, 선비들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혀 비록 수나라와 당나라의 백만 군사라도 그 국경을 엿볼 수 없었다. 그리고 보잘 것 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리는 이 북호(北胡)들은 병사가 수만 명에 불과하고, 그 지혜도 간사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열흘 또는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도성을 점거하였으므로 여러 군현은 명황(明皇)의 탄식을 자아내고 중관(重關)은 백안(伯顔)[697]의 쓴웃음을 일으켜 하늘에 이르는 끝없는 모욕을 불러오고 백세(百世)에 지을 수 없는 수치를 끼쳤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심장이 잘려나가는 것 같다. 지금 기국(杞國)의[698]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지만 아직 한(漢)나라의 화덕(火德)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 조종(祖宗)의 남겨 놓은 은덕이 사람들에게 남아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의(忠義)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시급히 오랑캐 물리치기를 걱정한 선비와 나라의 존립을 도모하고 죽음을 잊은 신하들은 모두 일어나서 도적을 토벌해야 할 것이다. 나의 직무는 승장(乘障)이 아니라 조사아(祖士雅)의 노(櫓)를 치지 못하였고, 뜻은 하늘을 날으려고 하였지만 오랫동안 온태진(溫太眞)의 눈물을 뿌렸다. 지금 온 나라 사민(士民)들은 충분(忠憤)이 격발하여 의거(義擧)를 도모하고 있으나 소속이 없다. 소자(小子)가 비록 나라의 형편이 어지러운 중에 있으나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잊지 않고 있으므로 서로 도척(盜跖)의[699] 문하생을 거느리고 군사의 직무에 소속되었다. 소자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충담(忠膽)으로 분연(奮然)히 일어나 한 두 동지들과 하늘에 맹서하여 조금 군용(軍容)을

697) 백안(伯顔) : 명나라의 개국명장 등유(鄧愈)를 가리키는데, 본래 성명은 등우덕(鄧友德)이고, 백안은 자(字)이다. 그는 16세에 병사를 이끌고 원나라에 대항하였고 1355년 1만여 명을 이끌고 주원장(朱元璋)에게 투항하여 관군총관(管軍總管)이 되었다. 이때 주원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등유라고 불렀다.

698) 기국(杞國) : 중국 주(周)나라 시대의 제후국의 하나로 우왕(禹王)의 자손이 통치하였는데,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기현(杞縣)이다. 어느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져 몸 붙일 곳이 없을까 걱정한 것에서 쓸데없는 근심을 기우(杞憂)라고 하는데, 『열자(列子)』「천서편(天瑞篇)」에 실려있다.

699) 도척(盜跖) :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으로 대부(大夫) 유하혜(柳下惠)의 동생이다. 무리 9천 명을 모아 천하를 횡행하고 다니면서 제후(諸侯)를 공격하고 약탈해 도척으로 불렸다고 한다.

펼치고 회복(恢復)을 기대하여 죽음만 있을 뿐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편 생각하니 병화(兵火)가 한창인 때 마을에는 사는 사람이 없고, 창고에는 저축한 곡물이 없으며, 병사들은 늘어나지 않고 군량은 넉넉하지 못하여 비록 그 사리의 맞고 틀림은 있으나 강약은 대등하지 않아 흉악한 도적을 제거하고 수치를 씻을 기회를 세월로 헤아릴 수 없다. 무릇 의로운 일을 보고 따르지 않으려면 군자는 함께 죽어서 순국하는 것 같이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니 신자(臣子)의 직분은 우리 모든 군자들은 왕실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죽는 날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사람이 미약하다고 믿지 않거나 일이 거창하여 이루기 어렵다고 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용감한 사람은 싸우고 지혜 있는 사람은 모책(謀策)을 내어 멀고 가까운 곳에 유시문(諭示文)을 전하고 격려하고 모여 한결같이 국가의 원수를 섬멸하는데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서울을 안정시키고 지존(至尊)을 맞이하여 받든다면 남자로 태어난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국가에서 휴양(休養)하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삶을 도모하거나 전쟁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하여 임수(林藪)만 믿다가 갑자기 적군을 만나 몸을 보호할 계책이 없다면 죽지 않는 것이 욕이 될 것이며, 죽는 것도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에 의기(義氣)로 적을 토벌하면 살아서는 열사(烈士)가 되고 죽어서는 충혼(忠魂)이 되니 그 시비(是非)와 영광과 치욕을 어찌 함께 논할 수 있겠는가. 아! 임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난리가 난 후에 충신을 알고 신민(臣民)으로 말하면 세상에 난리가 난 후에 임금의 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혹 부형이 살해를 당하고 처자가 포로가 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떠돌아다니며 아침과 저녁을 보존할 수 없다면 그 전날에 편안히 살면서 가업(家業)을 지켜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자녀를 길렀던 즐거움과 비교할 때 어떠한가. 오늘의 화(禍)를 일으키는 것은 신민이 불량하여 적을 거느리는 죄이며 전날에 즐거웠던 것은 성주(聖主)가 애를 써서 길러 양육하고 어루만지듯 돌보는 은혜이다. 참으로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왔으며, 그 화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생각하면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마음을 어찌 꺾을 수 있겠는가. 아! 난여(鑾輿)가[700] 파천(播遷)하여[701] 멀리 외로운 성첩(城堞)을 보호하고 모든 관리들은 흩어져 시위(侍衛)가 허약하고 부족하므로 그 위태로움은 회계(會稽)에서 서식(棲息)하는 것보다 심하고 그 욕됨은 파촉(巴蜀)으로 행차하는 것보다 지나치니 이것이 어찌 신하가 죽는 것을 아까워하는 날이고 군병과 백성이 몸을 아끼는 때이겠는가. 더구나 호걸(豪傑)의 재능은 항시 상란(喪亂)의 날에 발휘하고 훈업(勳業)을 이루는 것은 재난과 실패를 당하였을 때 많았으므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 난리를 이용하여 공훈을 세우

700) 난여(鑾輿) : 임금이 거둥할 때 타고 다니던 가마로 옥개(屋蓋)에 붉은 칠을 하고 황금으로 장식하였으며, 둥근기둥 네 개로 작은 집을 지어 올려놓고 사방에 붉은 난간(欄干)을 달았다.
701) 파천(播遷) : 임금이 도성(都城)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란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고 관직이 경상(卿相)에 이르는 일을 어찌 제한하여 정할 수 있겠는가. 안자(顔子)가 말하기를 "순(舜) 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였으니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이와같이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어찌 고인(古人)만 못하다고 말한 것일까. 오직 그 입지(立志)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제군(諸君)들은 모두 국토의 곡식을 먹고 있으니 누구나 우리 왕의 신하가 아니겠는가. 비록 처음에 국가를 보호하지 못하였지만 아직도 그 공을 후일에 도모하기 위해 뜻을 세워 흔들리지 않고 거듭 국보(國步)를 회복하여 성주(聖主)가 "내게 그 충정(忠貞)한 신하가 있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들은 말에 명나라 10만 병사가 아침과 저녁사이에 도착하고, 또한 승려의 무리가 서로 모여 용맹을 떨치며 전쟁에 나선다고 한다. 무릇 천병(天兵)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며 승도는 교화(敎化) 밖에 있는 백성인데, 아직도 천자(天子)의 명을 받들어 만리 길에 환란을 걱정하고 삼매수(三昧手)를 동원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어려운 일에 달려온다고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신하들은 선왕의 교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때를 당하여 이런 일을 보고 참아 수수방관하고 서서 진(秦)나라가 월(越)나라 보듯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목석(木石)으로 자처(自處)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니 안팎의 힘을 합하여 기각지세(掎角之勢)[702]를 이루는 것은 이때가 그런 때이며, 부형의 원수를 갚고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이때가 그런 때이며, 모토(茅土)를 봉(封)하는 일은 자손에게 물려줄 영광인데 이때가 그런 때이니, 오직 우리 군자들은 각기 노력하라. 혹 아버지가 늙으시고 자신이 단신(單身)이라 차마 멀리 떠나지 못하거나 질병이 있어 무기를 들지 못하거나 혹은 전마(戰馬) 혹은 양식과 갖가지 물품으로 마땅히 감당하지 않더라도 각 색부(嗇夫)가 도와 대공(大功)을 이룬다면 몸에 무기를 띠고 전쟁터로 향한 사람을 내가 어찌 선후(先後)로 정하겠는가.

병조판서가 추천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은 본래 장수의 자질이 있고 지혜와 모략이 남들보다 탁월하므로 운현궁이 특별히 두루 살펴보라 하여 천거(薦擧)하였습니다. 임천(林泉)에서 연해(沿海)에 이르기까지 시험을 치르면서 이 자리에 부임한 지 4년이 되었으므로,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이 간절합니다. 신미양요(辛未洋擾) 때 죽음을 맹서하고 먼저 배에 오르자 적추(賊酋)는 두려워 감히 하륙(下陸)을 꺼려하였고, 남모르게 화구(火具)를 설치하자 흉악한 무리들은 기미를 알아차리고 닻을 거두고 멀리 도주하였습니다. 그 사졸들은 모두 전투에 나가길 원하고 있으니 그 충의와 용기와 지략이 옛 훌륭한 장수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백칸이나 되는 관아 건물을 보수하는 수천 명의 군병들을 훈련할 때 말없이 훌륭한 계책을 시행하여 성기(聲氣)를 소모하지 않았고 심지어 3년 동안 큰 흉년이 들자 백성들에게 진휼하였으므로 그

---

702) 기각지세(掎角之勢) : 앞뒤에서 적(敵)을 몰아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도(道)에서 1등을 하여 비록 우부(愚夫)와 우부(愚婦)라도 모두 그 덕을 칭송하였으며, 허다한 신명(神明)의 정치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경기도관찰사의 포계(褒啓)에[703] 그 실적을 모두 나열하여 그 받은 비지(批旨)에는 "이 사람의 재주와 계략은 이미 간성(干城)의 책임을 맡을 만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방어사(防禦使)의 이력(履歷)을 허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령의 우수한 행실과 우수한 공적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자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시 하명하던 날 먼저 탑전(榻前)에서 아뢰옵고, 또 운현궁에도 보고하여 끝까지 애호(愛護)하고 기어코 포상하고 칭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감히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니므로 우러러 간청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현인(賢人)을 기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말을 널리 들으시고 남모르게 군사제도를 살피신다면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해문(海門)은 중요한 곳이고 서울의 요충지이므로 많은 병사들이 수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공허할 우려가 있을 것이니, 기어이 병영의 뜻을 따라 특별히 주선해 주시기를 천만번 바랍니다.

○ 丙子擧義 東隱公通文

嗚呼, 天不靖, 我國家縱犬羊狺噬, 二百年宗社, 一朝丘墟, 千萬億生靈, 盡爲魚肉, 言之氣塞, 何暇痛哭. 惟我東國, 古稱三韓, 俗尙禮義, 士習弓馬, 雖隋唐百萬之師, 莫能窺其藩籬也, 而蠢玆北胡兵, 不過數萬, 智不踰狙驨, 不盈旬月, 入據都城列郡, 則起明皇之嘆, 重關則興伯顔之哂, 致極天无涯之辱, 貽百代不刊之羞. 言念及此, 心焉如割, 方憂杞天之將崩, 而尙冀漢火之重, 燃者, 祖宗之遺澤在人, 人心之忠義, 不泯急病, 攘夷之士, 圖國忘死之臣, 幷起而討賊也. 職非乘障未擊, 祖士雅之楫志, 切拚天久洒溫, 太眞之淚. 今者一國士民, 忠奮激發, 將圖義擧, 而未有所屬, 謂小子, 雖在板蕩之中, 不忘君臣之義, 相率跖門, 以軍務見屬, 小子雖不才, 忠膽自奮, 乃與一二同志, 指天申誓, 粗展軍容, 方期克復, 有死無已, 第念兵火之際, 巷无居人, 庫无儲粟, 師徒不敷, 糇粮不裕, 雖曲直有在, 而强弱不敵, 除兇雪恥之期, 未可遽以日月計也. 夫見義不從, 君子莫與死而殉國, 臣子職分, 惟我諸君子, 念王室之在艱, 知死亡之有日, 莫謂人微不信, 事巨難成, 而勇者以戰, 智者以謀, 傳踰遠邇, 將率來會, 乃一心力殄殲, 國讐肅淸, 京洛奉延至尊, 則斯不負生爲男子之道也, 國家休養之見也. 此之不爲, 而竄匿偸生, 以錢伐爲必死, 以林藪爲可恃, 卒遇賊兵, 爲身無計, 則不死爲辱, 死亦無名, 此與仗義討賊, 生爲烈士, 死爲忠魂, 其是非榮辱, 豈可同日道哉. 嗚呼, 以人君言之, 則世亂然後, 識忠貞之臣, 自臣民言之, 則世亂然後, 知君父之德何者. 今我國之人, 或父兄見殺, 妻子被虜, 破家流離, 莫保朝

703) 포계(褒啓) : 각 도의 관찰사가 어사가 고을 수령의 바른 정치를 칭찬하여 장려하고자 임금에게 아뢰는 일을 이르던 말.

夕，其視前日安居守業，仰事俯育之樂，何如也．致今日之禍者，是臣民不良，禦敵之罪也．享前日之樂者，是聖主勞心，涵育撫養之恩也．苟思其樂之所，自禍之所由，則以死報國之心，其可自抑乎．嗚呼，鑾輿播越，遠保孤堞，百官鳥散，侍衛單弱，危甚會稽之棲，辱逾巴蜀之幸，此豈臣子惜死之日，軍民愛身之秋乎．況豪傑之才，常效於喪亂之日，勳業之成，多仍乎．禍敗之時，故古今天下，乘亂樹勳，致位卿相者，何限．顔子曰，舜何人也，我何人也，有爲者，亦若是今之人，何謂不如古之人乎，惟在其立志之何如耳．諸君子，咸食國土之毛，就非吾王之臣，雖不能衛國於初，其尙亦圖功於後，樹志不搖，重恢國步，使聖主亦將曰，我其有忠貞之臣，不亦可乎．又聞大明十萬兵，朝夕且至，僧徒相聚，賈勇轉鬪，夫天兵異國之人也，僧徒化外之民也．尙能承天子命，萬里恤患，運三昧手，冒死赴難，況爲我國臣子，服先王敎訓者．當此時，而見此事，其忍袖手傍立，以秦越相視乎．苟非木石，自居者，必不爾也．合內外之力，成犄角之勢者，此其時也．復父兄之讐，報國家之恩者，此其時也．建茅土之業，遺子孫之榮者，此其時也．惟我諸君子，其各勉旃，其或親老身單，不忍遠違者，有疾者，病不任，武事者，或戰馬，或粮料，莫宜各嗇，助成大功，則與身衹金革，向賊爭首者，吾何先後焉．

兵判薦曰，此人素有將材，智謀過人，故自雲峴特垂燭諒擧之，林泉之下，試于沿海之衝而荏茲四載，誠功圖報，辛未洋擾，矢死先登，賊酋畏憚，不敢下陸，陰設火俱，凶徒知機，擧錠遠遁，其士卒之咸願出戰，忠義勇略，不讓於故昔，良將且夫，氣百間公廨修補，數千名軍兵鍊習，默運良策，不費聲氣，甚至於三載大慊賑窮恤民，爲一道第一，雖愚夫愚婦，咸誦其德，許多神明之治，有不可枚擧，而向於畿伯褒啓，備陳實蹟，仍蒙批旨有曰，此人才略，已爲稔知足，當干城之任，許用防禦履歷爲敎，然則此倅優行優蹟，想不待此言，而詳細據諒矣．幸於復命之日，先爲稟達于榻前，且須稟告于雲宮，到底愛護期得褒揚之美，如何如何．此非敢循私仰懇，實是爲國用賢之方也．若博採人言暗察，軍制則可燭，此言之不誣，而本邑海門重地，京師咽喉也．不能重兵固守，必有空踈之虞，期於設置兵營之意，另力周旋，千仰萬企．

1873년 [癸酉] 9월 27일 정사(政事)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적간(摘奸)하러 갔던 중사(中使)와 군직(軍職) 선전관(宣傳官)의 서계(書啓)를 보니 군영(軍營)의 많은 부대에서 군마(軍馬)를 성심껏 조련하고 군사 대오(隊伍)의 규율도 있으며 벽루(壁壘)도 다시 채색(彩色)하였다고 한다. 전후(前後)의 수령들이 성의를 다하여 부지런히 수고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가히 볼 수 있다. 전 진무사(前鎭撫使) 정기원(鄭岐源),[704] 진무사 김선필(金善弼)의[705] 아들이나 조카들 중에서 그 이름을 물어보고 임기가 거의 찬 참봉(參奉)의 자리를 내어 조용(調用)함으로써 뜻을 보여주도록 하라. 각 읍에 진(鎭)을 설치하여 병마를 조련하는 것은 비록 직분 밖의 일이기는 하지만 듣기에 또한 가상(嘉尙)한 일이니, 영종첨사(永宗僉使) 이유증(李儒增)과 전 첨사(前僉使) 이병숙(李秉淑), 통진(通津) 전 부사(前府使) 홍우신(洪祐愼), 인천부사 구완식(具完植), 부평부사(富平府使) 이정하(李貞夏)에게 각각 대궐에서 내려 보내는 사슴가죽 1령(令)씩을 사급(賜給)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진무사 이하에게는 방금 뜻을 보였으니 군병들도 돌보아주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300냥을 내려 무부(武部)에서 나누어 보내서 군병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도록 분부하라."하였다.

○ 癸酉 九月 二十七日 政

傳曰, 卽聞摘奸中使及軍職宣傳官書啓, 則營之多隊, 軍馬誠心操鍊, 軍伍有律, 壁壘增彩, 前後守令之殫竭勤勞, 期【斯】可見, 前鎭撫使鄭岐源, 鎭撫使金善弼, 子姪中問名, 瓜近參奉, 作窠調用, 以爲示意. 至於各邑鎭之設置, 兵馬操習, 雖是外內事, 聞亦嘉尙, 永宗僉使李儒增, 前僉使李秉淑, 通津前府使洪祐愼, 仁川府使具(完植), 富平府使李貞夏, 各內下鹿皮一令賜給. 傳曰, 鎭撫使以下, 纔爲示意矣. 軍兵亦不可無顧念, 特下帑錢三百兩, 自武府分送, 以爲犒饋軍分付.

---

704) 정기원(鄭岐源) :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봉수(鳳叟). 1849년(철종 즉위년)부터 전라좌도수군절도사·충청도병마절도사·삼도수군통어사, 어영대장, 훈련대장을 역임하였다. 1871년 강화도에 진무사(鎭撫使)로 부임하였는데, 강화 손돌목에 침입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한 미군함대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통상제의를 거절하였다. 미군이 광성진(廣城津)에 쳐들어오자, 중군 어재연(魚在淵)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독려, 수비하게 하였다. 신미양요 이후 총융사(摠戎使)를 거쳐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를 지냈다. 시호는 장숙(莊肅)이다.

705) 김선필(金善弼) :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필(仲弼). 1829년(순조 29)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도·충청도의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중용되어 경기중군(京畿中軍)을 거쳐,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수로(江華水路)의 중요한 근거지인 광성진을 방어하다 전사한 진무중군(鎭撫中軍) 어재연(魚在淵)의 후임으로 진무사(鎭撫使)가 되어 중군(中軍)을 지휘하였다. 이후 삼군부(三軍府)의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를 거쳐 대호군(大護軍)에 이르렀고, 1882년 강화부유수를 역임하였다.

각 포구에 수군의 전선(戰船)을 두자는 논의(論議)

무릇 용병(用兵)하는 방법은 첫째, 때를 알고, 둘째 지형을 살피며, 셋째 인재를 얻고, 넷째 적을 잘 헤아려야 하며, 다섯째 편의(便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다만 세월(歲月), 일진(日辰), 길흉(吉凶), 왕쇠(旺衰)의 기미(幾微) 뿐만 아니라 먼저와 나중, 급함과 급하지 않음의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른바 지형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다만 산천(山川), 성지(城池), 험애(險隘), 조색처(阻塞處) 뿐만 아니라 멀고 가까움과 요긴하고 요긴하지 않음의 형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른바 인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모두 기력(氣力), 용감(勇敢), 기예(技藝), 정숙(精熟)한 선비 뿐이겠는가. 그들로 하여금 제각기 그 재주를 다하고 제각기 그 방법을 받도록 한다면 거의 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적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 어찌 특히 사졸의 많고 적음, 기계(器械)의 날카로움과 무딘 것 뿐이겠는가. 반드시 먼저 그 정황을 헤아려보고 뒤에 그 자취를 살핀다면 거의 적에게 잃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편의에 이르러서는 훌륭한 의원이 병을 관찰하는 것과 같아서 비록 여러 가지 증세와 괴이한 증상이 아침저녁으로 변하더라도 그 병에 맞는 신방(神方)의 약제를 먼저 투약(投藥)하여 병을 예방하는 것이고, 더욱이 병대(兵隊)라는 것은 궤휼(詭譎)한 방법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하며 상도(常道)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 참으로 편의하게 하지 않으면 앞의 4가지 조목도 장차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명부(明府)가 이 고을에 부임한 지 지금 4년이 되었는데, 처음 부임하였을 때 포계(砲稧)를 창설하여 수시 교련하므로 선왕들이 병대(兵隊)를 소유하는 이익이 있고, 후세에 병사를 두는 낭비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이 병사를 모집하는 것은 많은 의혹을 자아냈는데, 몇 달이 되지 않아 양요(洋擾)가 발생하므로 몸소 재장(災瘴)을 무릅쓰고 해상에서 막아서 지켰으며, 네 곳에 진영을 설치하여 뱀이 호응하고 사나운 짐승이 덮치는 형세가 있었고, 많은 토갑(土甲)을 발굴하여 벌이 옹호하고 개미가 응원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 이서(吏胥)와 군교(軍校) 중에는 충실한 사람도 있고, 용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근간(勤幹)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담략(膽略)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제각기 그 책임을 감당하였으며, 또한 대포를 쏘아도 놀라지 않았고, 다

만 군진(軍陣)을 엄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하며 기다린 지 48일만에 서양 오랑캐들은 도주하였다. 아! 참으로 시기의 타당성과 지형을 살피고 인재를 얻고 적의 정적(情迹)을 헤아려서 그 사이의 편의에 따라 임기응변할 줄 알지 못하였다면 어찌 이렇게 할 줄 알았겠는가.

포계는 이미 절목에 상세한 것이 있어 연습을 정숙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거듭 더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육지에서 전쟁에 대비하는 일에 불과하고 수군의 절제(節制)에 있어서는 연습하지 못한 것이 있는 듯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북방의 병사들은 강이나 바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남방의 병사들은 산이나 들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연습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각 포구의 어촌에도 포계에 의하여 모두 수군을 두었다. 그렇다면 본래 물살의 사나움과 느림, 깊고 낮음을 알고 수로의 위험함과 순조로움, 멀고 가까움을 숙지해야 한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없으므로 당연히 잠수법(潛水法)으로 그 기예의 능력을 시험하여 물속깊이 들어가 오래 있는 사람에게 상을 후하게 준다면 남해(南海)에서 표주박을 띄워놓고 전복을 채취하는데 4~50장(丈) 되는 곳에 들어가 하루나 이틀 밤을 지내는 사람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이니, 그 급함과 급하지 않음의 채용을 어찌 먼 지방에서 모집하여 쉽게 기회를 잃고 쉽게 소요를 일으키겠는가. 그 군병의 수효를 정하는 방법은 반드시 무명이나 베를 낭비하지 않고 관청에서 만들어 지급하고 선척(船隻)도 평소 일이 없을 때는 고기를 잡도록 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만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단단히 준비하고 명령을 기다리게 하며 선박을 제조하는 제도는 반드시 작게 하고 크게 하지 않아 100개의 포곡(包穀)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1척을 제작할 때 지금 사정으로는 300냥이 드는데 불과하므로 매 포구마다 그 군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 십 수척, 혹은 7~8척을 나누어 배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관선(官船)이므로 갑자기 응용하기도 쉽고 또 제승(制勝)하는 방도도 수시로 알맞게 헤아려 혹 작은 것으로 큰 적과 맞서 싸우고, 혹은 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섬멸하고, 혹은 약한 병대로 강한 적병을 꺾고, 혹은 허술한 대비로 견실한 적을 격파하여 만 번 변화해도 끝이 없을 것이다.

지금 논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저들의 화륜(火輪)을 흉내내려고 한다면 한갓 드는 비용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들어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며, 도리어 적도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니, 어찌 이와같이 연습한 병사와 경쾌한 선박이 항로의 노위(蘆葦) 사이에 출몰하고 도서(島嶼)와 구름과 안개 사이에 숨었다 나타났다 하며 틈을 엿보거나 혹은 흩어지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여 포계의 병사들과 서로 순치(脣齒)가 된다면 수륙(水陸)은 거의 걱정이 없을 것이다. 비록 혹 적의 대포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하나의 작은 선척에 불과할 것이니 어찌 큰 손해를 당하겠

는가. 우리나라 전함(戰艦)은 거북선만한 것이 없으니, 이미 이를 이용해 왜구를 격파하였으나, 또 어찌 서양 선박을 격파할지 알겠는가. 이미 옛날에 사용되었는데, 또 어찌 오늘날 사용될지 알 수 있겠는가. 이미 남해와 먼 바다에서 이익을 보았으니 또 어찌 서해와 가까운 바다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비록 이충무공(李忠武公)이 이 시대를 당하여 이곳에서 살고, 이 병대(兵隊)를 이용하여 이 적도를 방어하더라도 반드시 옛날의 틀에 박히지 않고 귀선(龜船)의 제작도 당연히 편리하게 하여 방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엎드려 상부(相府)는 살펴주시고, 무부(武夫)가 병사(兵事)를 논한다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各浦置水軍戰船議

夫用兵之道, 一曰識時, 二曰察地, 三曰得人, 四曰量敵, 五曰便宜, 所謂識時者, 非但爲歲月日辰, 吉凶旺衰之機也. 要識先後, 緩急之務也. 所謂察地者, 非但爲山川城池險隘阻塞之處也. 要察遠近, 緊歇之勢也. 所謂得人者, 豈皆氣力勇敢技藝精熟之士乎. 使之各盡其才, 各授其方, 則庶無可棄之人矣. 所謂量者, 敵豈特士卒衆寡, 器械利鈍之事乎, 必也. 先揣其情, 後詗其跡, 則庶無可失之敵矣. 至於便宜者, 如良醫之看病, 雖雜症怪候, 朝變夕改, 神方當劑, 先投預防, 況兵者, 詭道臨機制變, 不可守常, 苟非便宜, 上項四條, 亦將無所措處矣. 伏唯明府莅玆邑, 于今四載矣. 下車之初, 刱設砲稧時, 月敎鍊有先王藏兵之利, 無後世養兵之費, 然而無事蒐兵人多惑焉, 未幾月, 而有洋夷之擾, 乃躬冒炎瘴, 防守海上四處, 設陣有蛇應鷙擊之勢, 多掘土甲有蜂擁蟻援之狀, 吏校之有忠實者, 有勇力者, 有勤幹者, 有膽略者, 莫不樂赴, 各勝其任, 易不驚放一砲, 第嚴陣而待如是者, 凡四十八日, 夷自遁去. 嗚呼, 苟非識時之, 當急察地之所, 緊得人之才, 能量敵之情跡 而便宜, 其間隨機應兵, 則安能知此乎. 砲稧已有節目之該詳, 鍊習之精熟, 不必加疊, 然而此不過陸地守戰之備, 至於水軍節制, 恐有所未習何者, 北方之兵, 不可用之於江海之上, 南方之兵, 不可用之於山野之間, 以其所習之不同也. 今於各浦漁村, 亦依砲稧, 咸置水軍, 則素慣水性之悍緩, 淺深熟諳, 水路之險夷遠近者, 無如此輩, 當以潛水之法, 試藝較能深入, 而耐久者, 輒施重賞, 則南海上乘飄採鰒, 能沒四五十丈, 經宿一二日者, 匪久將見, 比比出於此矣. 其爲緩急之用, 何至召募於遠方, 易失機會, 易致騷擾哉. 其定額之方, 則亦不必料布之費, 自官造給船隻, 平居無事之時, 則使之漁採資生, 則若値有事之時, 則使之裝束待令而至, 若造船之制, 必以小而不以大, 可容載百餘包穀, 則一隻之造, 以今物情不過費三百金, 每浦口隨其軍額之多小, 或十數隻分置, 則此皆官船也. 倉卒易於應用, 且夫制勝之道, 隨時量宜, 或以小敵大, 或以寡殲衆, 或以弱摧强, 或以虛揚實, 萬變無窮. 今之議者, 不能曉此, 乃欲學步效嚬於彼之火輪, 則徒費無算, 意至無用, 反受賊徒嗤嘲, 豈若此慣習之兵, 輕快之船, 出沒於港汊, 蘆葦之中隱, 現於島嶼雲

霧之間，觀釁伺隙，或散或合，與砲稧之兵，相爲脣齒，則水陸庶可無虞．雖或被賊砲所傷，不過一小隻而止，何至大損哉．我國戰艦莫如龜船，旣已破倭，又安知能破洋，旣已用之於古，又安之用之於今，旣已利於南海外洋之上，又安知利於西海內洋之中，然則雖使李忠武，當此時居此地，用此兵禦此賊，似不必泥，古爲龜船之制，亦當有便利方略之如何爾．伏願相府垂察焉，勿以武夫論兵爲輕云爾．

친 한 사 람 이 강 계 (江 界) 로 부 터
와 서 읍 폐 (邑 弊) 에 관 하 여
자 세 하 게 말 하 므 로 기 록 함

강계지방은 천이나 되지만 4개 군이 폐지되고 관북(關北) 후주(厚州) 경계로부터 본부(本府)의 상토진(上土鎭)에 이르기까지 500여 리가 된다. 그리고 그 일대에는 압록강의 경계가 피아(彼我)를 갈라놓아 좌중우(左中右) 3새(塞)를 설치하고, 또 방수(防守)도 설치하여 채호(採胡)의 침범을 방어하였다. 매년 4월에는 변방에 들어가 방어하고 8월에는 방어를 철회하였으며, 총수(銃手) 1,000여 명은 정해진 군병의 수효이니, 즉 이것은 전례(前例)이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이후 채호가 오지 않아 방수도 조금 해이되었고, 입방군(入防軍)도 많아야 700명에 불과하였으며, 적게는 혹 500명에 이르렀다. 그 감액(減額)한 비용의 전곡(錢穀)은 모두 관청으로 돌아갔다. 더구나 수년 전에 채호가 갑자기 침범한 것이 3~4천명이었는데, 적은 수효로 많은 적을 대적하기 어려워 한번도 방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고을의 크게 바로 잡을 것은 공삼(貢蔘), 공은(貢銀), 방수(防守)인데, 방수는 그 첫번째이다. 연강(沿江) 500여리에 방수를 설치하였으니 비록 넓고 멀다고 하더라도 채호가 넘어오는 곳은 두 세 곳에 불과하였다. 입방총수(入防銃手)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택하여 만일 그 군병의 수효에 준하여 입방장(入防將)이 또한 그 적합한 사람을 얻어 그 요해처 여러 곳에서 적의 형편을 살피고 바라보는 것과 방수를 엄하게 한다면 거의 넘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채호가 침범할 때도 또한 변방의 간세한 무리들을 데려와 남모르게 상의하여 그 허실(虛實)을 탐문하고, 그 넘어올 만한 곳과 넘어올 시기를 지시한 후 하룻밤 사이에 여러 사람을 모아 국경을 넘어오기를 사람이 없는 곳을 들어오듯 하므로 반드시 먼저 변방의 금령을 엄하게 하고 서로 내통하는 사람을 수색하여 법을 시행한 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으며, 그 간세한 사람의 승낙을 끊은 후에 방수를 엄하게 하였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그들은 그들의 국경에 와서 방수를 하였는데, 이른바 봄과 가을로 변방의 폐단을 시찰한 것이며, 다만 고을의 형세가 어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계의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워 폐지한 4군의 백성들이 조금씩 흩어져 결국은 백성들이 살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초 방수를 설치할 때 둔전(屯田)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즉 한(漢)나라 장군 조충국(趙充國)[706]의 양규(良規)와 미법(美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후로 방군(防軍)들은 한번도 경작한 일이 없고 도리어 농민을 몰아내고 사슴을 사냥하며 관가(官家)의 책응(責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둔전은 거주민이 경작하여 관청에서 수세(收稅)하였는데, 그 세금이 너무 과중하여 백성들은 많이 징수한 것을 고통스럽게 여겨 모두 폐기하고 진황지(陳荒地)를 경작하였으나 그 조세(租稅)는 예전과 같았다. 4개 군이 공허한 것은 즉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 이 고을은 다른 상납(上納)이 없고 다만 내국(內局)에 납부하는 강삼(江蔘) 6근(斤)과 각사(各司)에서 납부하는 삼대전(蔘代錢) 9,000여냥과 탕칙은(帑勅銀) 900냥 뿐이었다. 그리고 민간에게도 다른 요역(徭役)은 없고 다만 정전(丁錢)이란 명색(名色)으로 매 1석(石)씩 해마다 100전(錢)을 납입하되 봄가을로 나누어 바쳤다. 정전을 처음 시작한 이래 근 30년이 되었는데 당초 시작할 때 그 경용(經用) 1년간의 총계를 합하였고, 그 정전을 납입한 수량은 백성 중 15세 이상에서 69세 이하가 모두 1냥씩 상납하여 모두 220여냥이 되었는데, 경용의 총계와 비교해도 오히려 남았었다. 그후 정민(丁民)이 점차 늘어나 바친 것을 합하면 400여냥이나 많았다. 1냥은 정전으로 한 푼의 돈도 감해주지 않았고 경용을 바친 것 이외에 남은 금전은 그 명색을 인거(引據)하여 각 창고에서부터 관청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중간에 사라진 수량은 여기에서 보이지 않았다. 수년 전에 순영(巡營)으로부터 본읍(本邑)의 정전이 15세 이하 60세 이상 탈급(頉給)한 관문(關文)이[707] 있었는데, 그때 그 정안(丁案)을 참고하여 초출(抄出)한 노약자는 응탈(應頉)이 2,000여명이나 되었다. 이로부터 방보(防報)는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강계 백성의 뼈를 가는 원한이었다. 모든 군정(軍丁)은 60세 노인은 제외하고 황구(黃口)를 탈급하는 것은 법전(法典)인데, 70세 노인에게 금전을 징수하면 어찌 원한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 공삼(貢蔘)하는 절차는 각 면에서 착실한 사람을 선택하여 명칭을 무교(貿校)라고 하고, 한 사람마다 건삼(乾蔘) 3전중(錢重)을 분정(分定)하여 먼저 본가(本價)를 1전에 10냥을 주면 이른바 무교배(貿校輩)들이 혹 채취하기도 하고, 혹은 매입하기도 하여 상납하므로 특별히 폐단은 없으나 다만 삼을 거둘 때 점퇴(點退)[708]하고 남칭(濫稱)하는 폐단이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하나. 공은(貢銀)은 본부(本府) 평남진(平南鎭)에 은광(銀礦)이 있는데, 옛날 많이 채취할 때는 삼을 사서 바칠 생각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광산이 비어있는 것과 같아 은을 구할 길이 없으므로 지경 내의 부유한 백성에게 겨우 구하여 상납하고 있

706) 조충국(趙充國) : 중국 서한(西漢) 시기의 무장(武將)으로 용맹하고 지략이 있었으며 흉노(匈奴)와 저강(氐羌)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다. 서기전 61년에 선제는 그의 계책을 이용하여 강인(羌人)의 반란을 평정하고, 둔전(屯田)을 만들었다.

707) 관문(關文) : 조선시대 동등한 관서 상호간이나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로 보내는 문서.

708) 점퇴(點退) : 받은 물건을 조사하여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

다. 그 가격은 매우 높아 매양(每兩)의 가격이 5냥에 이르므로 관아로부터 본가(本價)를 내어주되 2냥 5전에 불과하고, 또 은광을 말한다면 전혀 채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가(時價)가 너무 높으면 본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남모르게 채취하여 출하하지 않는 것이고, 또 관아에서 사용하는 것도 선뜻 내어주기를 고통스러워하였다. 만일 관아로부터 사용하는 것을 후일 가격으로 사용한다면 공납(貢納)[709]에 있어서도 반드시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며, 광산에서 채취하는 것도 이전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이 고을의 호구수는 비록 많으나 환호(還戶)는 매우 적다. 매 호에 준 환곡은 그 수효가 매우 많으나 백성들은 모두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창감배(倉監輩)들이 언제나 뇌물을 받고 발호(拔戶)하므로 사람마다 이런 일을 당하고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창감배들이 매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외창(外倉)도 30여 곳이 되지만 창감(倉監)들이 혹 향인(鄕人)이거나 혹은 교위(校尉)였는데, 각기 옛날 근무자로서 다시 임명되었다. 예전에 근무한 사람 중 임명에 해당한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매도(賣渡)하는 경우가 10분의 8~9분이 되어 곧바로 전례(前例)가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금전이 많아 장사를 잘한 사람은 이익이 나온 곳이 아니라도 값을 먼저 주고 매득하였다가 환곡을 받아들일 때 규정외의 이익을 수취하고 환곡을 나누어 줄 때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가령 이 자리에 임명될 사람이 비록 이 자리에 맞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자리에 근무하였다면 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었다. 만일 그 부자와 형제가 대신 감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일절 금지하고, 환곡을 나누어 줄 때도 그 정안(丁案)을 참고하여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니, 매호(每戶)에서 받는 것이 1석(石)에 불과하였다.

하나. 환곡을 거둘 때, 정전(丁錢)을 봉납(捧納)할 때, 봄과 가을에 장정(壯丁)을 계수할 때는 교리(校吏)를 보내 감독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별견(別遣)이라고 하는데, 한 해가 마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이어서 면내(面內)를 횡행(橫行)하며 정채(情債), 주식(酒食), 마세(馬貰)라고 칭하며 가는 곳마다 금품을 억지로 달라고 하므로, 백성들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커다란 폐단이 되었다. 각 면에서 본읍(本邑)과의 거리는 멀게는 4~500리, 가까워도 2~300리이므로 임금의 교화(敎化)가 미치지 못하고, 또한 관아의 명령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4개 군을 폐지하여 8도(八道)의 무뢰배(無賴輩)들이[710] 모두 모여들고 있으니 가히 도망

709) 공납(貢納) : 조선시대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바치던 세금제도이다.
710) 무뢰배(無賴輩) : 근거지나 일정한 직업 없이 돌아다니며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의 은신처라고 할 것이다. 풍헌(風憲)과[711] 약정(約正)은[712] 한 면의 장(長)이므로 소송을 조사하여 판결 처리하고 금지한 책벌(責罰)을 시행하여 관장(官長)의 정사를 시행한다. 한번 이 직임을 거치면 한 면(面)의 호족(豪族)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임명할 때 뇌물이 횡행하고 청탁이 줄을 이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임명되기를 도모한다. 이와같이 하므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민생을 침해하여 자신은 살찌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는 무리인 것이다. 일찍 좌수(座首)와 중군(中軍)을 거친 사람으로 사리(事理)를 알고 진실한 사람을 관아에 불러 들이기 전에 각 면의 풍헌과 약정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고 하면 또한 알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므로, 각 면의 몇 곳에 봉천록(捧薦錄)을 비치하고 있다가 다시 임명할 때 매번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면 거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무리들도 반드시 사사로이 잘못 추천하는 폐단이 있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발견되고, 또 정성으로 구하면 그들도 또한 느끼고 믿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만일 풍헌과 약정이 그런 사람을 얻는다면 각종 관납(官納)에 어찌 별견(別遣)을 사용하겠는가. 풍헌과 약정 중 한 사람으로 족할 것이다.

하나. 매번 피물(皮物)을 사냥하여 잡을 때는 관아에서 또 별견(別遣)을 그 생산하는 면으로 보내서 매입하여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것이 곧 전례가 되었다. 이런 시기를 당하면 마을은 요란하고 백성들은 싫어하여 문득 뱀과 호랑이와 같이 여긴다. 가령 관아에서 초피(貂皮) 100장을 복정(卜定)하면, 이른바 별교(別校)가 그 수를 3배로 하거나 혹은 아주 낮은 값으로 억지로 사들이고, 심지어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강제로 빼앗거나 매질을 낭자하게 하여 악형을 가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코 어진 사람이 하면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을에 있는 상인이 2~3천 명은 될 것이니 규모는 따질 것 없이 관아의 물품 본전(本錢)을 먼저 지급하되, 각 상인마다 정해진 액수대로 분배하여, 그들이 사서 상납하도록 한다면 일이 매우 편리하고 백성들의 원망도 사라지겠으나 돈을 받는 관리는 좋아하지 않고 있다.

하나. 읍촌(邑村)을 막론하고 음주(飮酒)와 잡기(雜技)가 풍속을 이루고, 살인하는 변고가 빈번하게 있다. 이 지역 풍기(風氣)는 사람마다 모두 어리석고 괴팍하며 사나워 오로지 각승(角勝)을 좋아하고 조금도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므로, 만일 엄하게 단속하지 않거나 형벌을 다스리지 않으면 금제(禁制)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 읍의 권한은 모두 좌수(座首)와 중군(中軍)에게 있으므로, 만일 그런 사람을 얻

711) 풍헌(風憲) : 조선시대 면(面)이나 이(里)의 한 직임,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712) 약정(約正) : 조선시대 권농관, 풍헌을 보좌하는 직임으로, 약정이라는 칭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으면 누워서 다스려지고, 만일 그런 사람이 아니면 변방에서 불상사가 발생하고 백성들은 피해를 입는데, 그런 일이 하나만이 아닐 것이다.

하나. 전 좌수 김흥경(金慶興)은 온 고을 사람들이 기교(器校)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소문난 사람은 없다. 이 고을 풍속은 온통 아랫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윗사람에게 이익을 주어 아첨하고 칭찬을 바라며 강한 얼굴로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명령만 따르고 있으므로 관장(官長)이 비록 불의를 행해도 사람들이 모두 따르므로 꺼려하는 바가 없다.

○ 親信人自江界來者詳言邑瘼記之留覽

江界地方, 可爲千里, 而廢四郡之地, 自關北厚州界, 至本府上土鎭, 爲五百餘里, 而一帶鴨綠江界分波, 我設左中右三寨, 設置防守, 以防採胡之犯越者也. 每年四月入防, 八月撤防, 銃手之千名定額, 卽是前例. 挽近十餘年來, 而採胡之不來, 防守稍弛, 入防之軍, 多不過七百小或至五百, 而其減額之所費錢穀都歸官, 況幾年前採胡之忽地犯越, 爲三四千名之多, 衆寡難敵, 一未防越, 而此邑大政, 貢蔘也, 貢銀也, 防守也, 而防守 卽其一也. 沿江五百餘里, 設防雖曰闊遠, 採胡所越之處, 不過數三處, 入防銃手, 擇其善放者若準額入防, 防將又得其人, 其要害數處, 瞭望嚴防, 則庶可防越, 而且採胡犯越之時, 亦自我境奸細之類, 潛與商量, 探其虛實, 指示其可越之處, 可越之時, 然後一夜之間, 聚衆越境, 如入無人之地, 必須先令嚴來邊禁. 且搜得相通之人, 施律警衆, 絶其奸細之諾, 然後可以嚴防, 而自十餘年前, 彼人亦爲來防於彼境, 所謂春秋察邊之行, 弊上添弊, 非但邑勢之末, 如抑亦江民之難之, 廢四郡之居民, 稍稍離散, 畢竟至於無民, 乃已之境, 而當初設防之時, 設置屯田, 卽漢將趙充國之良規美法, 而挽近而來, 謂之防軍, 無一耕耘, 反使驅農民, 而獵鹿以供官家之責應, 則所謂屯田居民耕作, 自官收稅, 其稅太重, 民苦厚斂, 擧皆廢棄, 便作陳荒, 而稅則如故, 四郡之空虛, 卽此故也.

一. 此邑無他上納, 只有內局所納, 江蔘六斤, 各司所納蔘代錢, 九千餘兩, 幷勅銀九百兩, 而民間無他繇役, 只有丁錢名色, 每一石年納, 一兩錢春秋分捧, 而丁錢之刱始, 近三十年, 當初設始之時, 合其經用一年之摠計, 其丁錢所納之數, 自民十五歲以上, 六十九歲以下, 皆納一兩, 則摠爲二百二十餘兩, 而較諸經用之摠, 猶有如剩, 而其後丁民漸增, 所捧合爲四萬餘兩之多, 而一兩丁錢, 無分錢之減捧, 經用之外, 所剩之錢, 授其名色, 付之各庫, 歸之官況, 則其所中間乾沒之數, 不見是圖, 年前自巡營, 本邑丁錢, 自十五歲以下六十歲以上, 有頉給之關文, 而其時考其丁案抄出, 老弱則應頉, 爲二千餘名, 而自邑防報, 竟未施行, 此是江民, 切骨之寃也. 凡諸軍丁六十老除, 黃口頉給, 乃是法典, 七十徵錢, 豈不寃哉.

一. 貢蔘之節, 各面擇其稍實之民, 名以貿校, 每名乾蔘, 三斧重分定, 先授本價, 每一

錢十兩，則所謂貿校輩，或採或貿以納，別無弊段，而但捧蔘之時，點退濫稱之弊，難保其必無也.

一. 貢銀，本府平南鎭有銀礦，而昔年多採之時，無慮貿納矣. 挽近以來，便同空礦，貿得無路，故卜定於境內富民，董董充納，則其價太高，每兩價至五兩，而自官出給之本價，不過二兩五錢，此以銀礦言之，非金然不採也，以時價太高，本價太影之，故潛採不出，此苦於官用之責應，若自官用後，時價用則至貢納，必無苟艱之慮，店操亦有復舊之境矣.

一. 此邑戶數雖多，至於還戶極少，每戶所授之還穀數甚夥，然民皆疾瘼，其故何在，倉監輩每每捧賂拔戶，人人如此，年年如此，皆出於創監賣買之故而然也. 外倉爲三十餘處，而倉監或鄕或校，各以舊勤轉差者也. 舊勤當差之人，先賣於他人者，十居八九，便成前例，以此之故，多錢善賈之輩，看非利竇，先價買得捧糶之時，科外之斂，分糶之時，弄奸之弊，不一其端. 假令當此差之人，雖不合於此任免，是勤任則亦不可奪，而與他如其父子兄弟之代監可矣. 至賣他人一絶禁斷，而其分糶考其丁案，皆爲里分，則每戶所受，不過一石矣.

一. 捧糶時，丁錢捧納時，春秋計丁時，送校檢納，謂之別遣，終歲首尾相屬，橫行面內，稱以情債也，酒食也，馬貰也，到處討索，民實難支之，一大痼瘼也. 各面之距邑，遠爲四五百里，近亦二三百里，非但王化之所不及，亦是官令之所未到，而況廢四郡，八路無賴之輩咸聚，可謂逋逃藪也. 風憲約正爲一面之長，聽理決訟，禁止責罰便行，官長之政，一經此任，則便作一面之豪，故當其歲末，改差之時，貨賂橫行，請囑踏至，百般圖差，以是之故，所差之人，皆非可合，都是侵漁民生，肥己害物之類也. 曾經座首中軍，解事眞實之人，招入官前，各面風約可堪之人，誰某必有其人，亦無不知之理，每面幾許，各其捧薦錄而置之，改差之時，每以薦中人差出，則庶有實效，而此輩亦必有挾私誤薦之弊，然久則自然現發，此誠心求之，則渠亦有感孚之心矣. 風約如得其人，則各樣官納，何用別遣. 一風約足矣.

一. 每當皮物獵捉之時，自官又送別遣於所産面，貿取以來，卽是前例，而當此時，閭里之騷擾，民人之疾瘼，便同蛇虎. 假令自官貂皮百張卜定，所謂別校三倍其數，或以賤價抑買，甚至無價勒奪，鞭朴浪藉，施以惡刑，決非仁人之所可爲也. 不此之爲有可爲之道，邑中商賈，可爲數三千人，無論某樣，官物本錢，先期出給，每人定數分排，使之貿納，則事甚便好，民怨亦絶，而受錢之官，不肯爲也.

一. 無論邑村，酗酒雜技，成風習俗，殺越之變，比比有之. 此土風氣，人皆愚蠢而頑悖，專以角勝爲主，一毫不負於人，若不嚴束而刑罰，則難以禁制也.

一. 邑權都出於座首中軍，如得其人，則臥而治之，若非其人，則邊事之生梗，民生之受害，不一其端.

一. 前座首金慶興, 可謂一邑之人器校, 則別無聞人. 此邑風俗, 全以損下益上, 爲獻諂要譽, 而一無强顔直言之人, 惟令是從, 故官長雖行不義, 人皆從之, 無所忌憚也.

의전(義田) 설치의 대략

우리 구씨(具氏)의 집안에는 청백(淸白)함이 전해오고 대대로 충정(忠貞)이 독실하였고, 예학(禮學)은 멀리 추로(鄒魯)를 따르며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은 오랫동안 조야(朝野)에 드러났다. 백담(栢潭), 팔곡(八谷), 수옹(睡翁), 경수(耕叟)의 제공(諸公) 때에는 아름다운 시례(詩禮)의 집안이었고, 병암(屛巖), 폄재(砭齋), 초당(草堂), 양한재(養閒齋)의 제공(諸公) 때에는 높고 높은 직신(直臣)의 집안이었으며, 충렬(忠烈), 능원(綾原), 능성(綾城), 충무(忠武)의 제공(諸公) 때에는 씩씩한 훈신(勳臣)의 집안이었고, 능창(綾昌), 능안(綾安), 능산(綾山), 능성(綾城)의 제공 때에는 혁혁(赫赫)한 척신(戚臣)의 집안이었으며, 도해정(蹈海亭), 동은(東隱), 문엄(門掩), 오산(梧山)의 제공 때에는 탄탄(坦坦)한 은일(隱逸)의 집안이었고, 낙주(洛洲), 팔송(八松), 죽창(竹窓), 노호(露湖)의 제공 때에는 열렬(烈烈)한 명신(名臣)의 집안이었으며, 개천공(价川公), 증병판공(贈兵判公), 충장(忠壯)·청계(淸溪)의 제공 때에는 늠름(凜凜)한 순신(殉臣) 열사(烈士)의 집안이었다. 등씨(鄧氏)가 서한(西漢)에서 융성(隆盛)하고 사씨(謝家)가 동진(東晉)에서 전성시대를 누린 것은 다만 고작대관(高爵大官)으로 대대로 부귀를 누렸지만, 우리 집안은 두 집안의 아름다운 덕성을 겸하고 오직 시례(詩禮)와 충훈(忠勳)은 더 지나쳤으니 어찌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하지 않겠는가. 아! 선조(先祖)의 위덕(偉德)과 홍렬(弘烈)은 청사(靑史)에 기록되어 빛나고 백세(百世)에 전하여 밝게 드러났다. 후손들은 선조의 규모를 이어받아 유업(遺業)을 계승할 일이며, 어찌 특히 범씨가(范氏家)의 모연(慕硯)과 위모(魏摹)의 헌홀(獻笏)이라야 하겠는가. 장공(張公)은 구세(九世)를 동거(同居)하고 범공(范公)이 삼오(三吳)에 학교를 설립한 것은 바로 종족(宗族)과 돈독(敦篤)하고 근본을 중시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백세(百世)의 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찌 옛사람들만 그 미덕을 앞 시대의 전유물로 삼고 다시는 지금의 사람이 후대의 좋은 일을 창조할 수 없다고 하겠는가. 기어이 500석(石)의 벼를 수확할 수 있는 장토(庄土)를 마련하여 종중(宗中)에 두려고 하는데 문장(門長)은 모두 살펴보고 신실한 유사(有司) 몇 사람을 선발하여 그 일을 관장하게 하고, 100석은 각파(各派)의 여러 곳에 있는 선조의 묘소에 제향조(祭享條)로 봉상(封上)하고, 또 학당(學堂)을 설립하여 100석을 부쳐 학과(學科)를 만들고 별도로 종당(宗黨)에서 지구(知舊)의 자제 가운데 재주가 민첩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사람 20명을 선발하고, 엄한 스승을 택하여 상서(庠序)의 학문과 충효의 근본을 지도하게 하고, 다시 약관(弱冠) 이상으로 튼튼하고 씩씩하며 대담하고 지략이 있는 사람 20명을 선택하여 활쏘기를 연습하고 병서(兵書)를 읽도록 하며, 또

무당(武堂)을 설립하여 100석을 식량으로 지급하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병서를 읽은 사람과 활쏘기 연습하는 사람을 한 강당에 모아 종종걸음으로 나가서 읍(揖)하고 예의와 공경을 익혀 성인(聖人)의 학문을 강론할 것이며, 무인(武人)이 예의를 익히고 문인(文人)이 활쏘는 것을 알도록 하여 제각기 몸을 수양하고 학문이 성취되게 하며, 그 나머지 200석은 종중에서 가난하여 혼인에 관한 일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과 봄에 경작할 때 작물의 종자가 없는 사람에게 일일이 도와주고 문인과 무인 이외에 직임이 있는 사람들도 또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 종중에 재산을 납부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효제(孝悌)와 돈목(敦睦)하는 도리를 권장하고 공검(恭儉)하고 수신(修身) 제가(齊家)의 책무에 힘쓰도록 하여 반드시 활 쏘는 일과 병서 읽는 일을 열심히 하고, 경작하고 길쌈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대대로 법으로 준수한다면 우리 종족(宗族)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먼저 문장(門長)들과 확실히 논의하였다.

○ 設置義田略

惟我具氏, 家傳淸白, 世篤忠貞禮學, 遠追於鄒魯德行, 久著於朝野. 栢潭·八谷·睡翁·耕叟諸公時, 則彬彬詩禮家也. 屛巖·砭齋·草堂·養閑齋諸公時, 則巍巍直臣家也. 忠烈·綾原·綾城·忠武諸公時, 則桓桓勳臣家也. 綾昌·綾安·綾山·綾城諸公時, 則赫赫戚臣家也. 蹈海亭·東隱·門掩·梧山諸公時, 則垣垣隱逸家也. 洛洲·八松·竹窓·露湖諸公時, 則烈烈名臣家也. 价川公·贈兵判公·忠壯·淸溪諸公時, 則凜凜殉烈家也. 而鄧氏之隆顯, 西漢謝家之全盛, 東晉但高爵大官, 世亨富貴, 吾家一兼兩家之美, 惟詩禮忠勳過之, 豈不盛且大歟. 噫, 先祖偉德弘烈在靑史 而光下彰傳百世 而明上耀後孫之, 承先謨繼遺業, 何特范家之慕硯, 魏摹之獻笏, 而張公九世同居, 范公三吳設學, 出於敦宗重本, 爲百世儀式, 何獨古人專美於前, 更無今人, 勑善於後歟. 期欲判置, 五百石收稻, 庄土付置宗中, 門長摠察, 極選信實有司幾人掌事, 而一百石, 則各派各處, 先墓祭享條封上, 又設學堂, 劃付一百石爲學寮, 另選宗黨知舊子弟, 有才敏可成就者二十人, 擇嚴師導之, 以庠序之學, 忠孝之本, 復擇弱冠以上, 壯健膽略者二十人, 使之習射讀兵, 亦設武堂, 劃付一百石爲糧資, 每月朔望, 讀者射者, 相會於一堂, 趨揖禮敬, 講論聖學, 乃使武以慣禮, 文以知射, 各能修身進就, 其餘二百石付之宗中, 貧無能婚喪之人, 春無資耕種之家, 一一助給, 文武外任人, 亦隨力納財於宗中, 濟救貧乏, 勸以孝悌敦睦之道, 勉以恭儉, 修齊之策, 射讀必勸, 耕織不惰, 以爲永世遵式, 則庶乎吾宗之一助, 故先與門長丈確論爾.

암행어사 강문형(姜文馨)이 포상을 아뢰는 글

전 부사(前府使) 구(具)는 700명으로 포계(砲稧)를 설립하여 실시하고 묵묵히 농군(農軍)으로 숨기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양요(洋擾) 때에는 50일간 방어하여 군사의 마음이 성(城)을 이루도록 지지를 얻었고,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에게 진휼(賑恤)하기를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 은덕(恩德)을 베풀었으며, 송사를 판결하여 처리함에 반드시 공정하게 하여 촉탁(囑託)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교궁(校宮)에 잠시 머물면서 학문을 권하여 여러 선비들이 점필(佔畢)할 장소가 있었고, 방임(房任)은 기예(技藝)를 겨루어 임명하였으며, 여러 아전들이 진도(陣圖)를 연습하여 익히도록 하였는데, 체직(遞職)하여 돌아간 후에 성예(聲譽)가 더욱 많았습니다.

○ 暗行御史姜文馨 褒啓

前府使具, 砲稧七百名設施, 默寓藏農之制, 洋擾五十日防禦, 深得成城之心, 執灾賑飢必以誠, 而恩德更鋪, 聽訟折獄, 必以公而干囑不入, 校宮之居接, 勸學多士有佔畢之所, 房任之較藝得差, 諸吏習行陣之圖, 遞歸之後, 聲譽猶多是白齊.

당시 사람들이 초식(草食)하는 고질적인 폐단을 해석하는 전문(箋文)

맛이 짜고 시고 달고 맵지 않은데, 관회(管灰)를 만들면 공연히 폐부(肺腑)를 어지럽게 하고 기(氣)가 구역질하고 불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것 같은데, 불에 익힌 음식을 먹으면 정신을 도인(導引)하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걱정을 잊는 것은 소나 말이 풀을 씹는 것과 다르고, 쓸개를 부수는 일이 없으면 편작(扁鵲)의[713] 약이 아니다. 어린 비복(婢僕)이 시종(侍從)하니 가히 붉지만 달콤한 간장이 아니며, 빈붕(賓朋)과 요우(僚友)의 응대를 누가 약에다 고기를 겸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풀의 종자는 서남(西南)으로부터 나는 것을 생각하니, 대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수화(水火)같이 하였네. 굶주림은 고사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 오직 염황(炎皇)의 사람을 치료하는 처방이 누락되고 풍년에도 배부르지 않고 흉년에 더욱 탐을 내니 어찌 요제(堯帝)는 지녕초(指佞草)라고 불렀을까. 남전산(藍田山)에 심으니 그 색깔이 자주빛이 나서 상락사선(商雒四仙)은 자지가(紫芝歌)를 불렀고, 국화꽃을 먹으니 냄새가 향기로워 초택(楚澤)의 삼려대부(三閭大夫)는 혜지가(蕙芷歌)를 읊었네. 비록 백훼(百卉) 중에서 제일미(第一味)라고 하지만 과연 천년 후에 이런 이름이 없을까. 거미줄에 섞여 부서지고 석통(石筒)을 메꾸고 있어 황관(黃冠)을 쓴 야부(野夫)의 재미가 있고, 가늘게 지네의 발을 잘라 은전(銀箋)에 넣어두니 주문(朱門)의 선달(先達) 풍치가 자유스럽다. 적각(赤脚)을 드러내고 독휘(犢褌)를 걷으니 비가 오는 가운데 청사(靑簑) 속에 연기나고 얼굴 붉게 술 취하니 시작(兕酌)을 멈추고 월하(月下)의 은촉(銀燭) 앞에 음식을 잘 씹어 맛본다. 이것을 이른바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는 것이니 누군들 예(禮)가 중요하고 음식을 가볍게 여긴다고 않겠는가. 삼령(葒苓)같은 것을 끓일 때 그 뿌리는 거의 장수(長壽)하는 효과가 있고, 해바라기같이 번창하지 않아도 그 잎은 오히려 해를 향한 모습이 있었다. 세상이 모두 이익이 있는 줄 알고 기름진 땅에 많이 심고 사람들은 반드시 굶주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고치기 어려운 버릇의 기풍(氣風)이 이루어졌다. 아! 병든 백성들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

713) 편작(扁鵲) : 중국 주나라 때의 명의(名醫)로 광범위한 종류의 병을 침·약초 등으로 치료하였고, 맥박에 의한 진단에 탁월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며, 습속을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소매 속에 죽물(竹物)이 나오지만 송곳같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 근신(謹愼)한 행실이 있으며, 허리춤에 갑(匣)을 찼지만 인수(印綬)같이 절반이나 드러났으니 어찌 함장(函丈)을 모시는 자리에서일까. 가사 향기를 마시고 기한(飢寒)을 일작(一勺)으로 면(免)하고 맛을 탐하여 백무(百畝)로 오랜 수명을 누리도록 하였다. 가히 요광(瑤光)의 풀에 해당하고 모두 영지(靈芝)의 밭이 되었다.

○ 解時人食草痼弊 箋

味不醎酸甘辛而作管灰徒眩亂肺腑, 氣若嘔噓呼吸而食烟火非導引精神. 有時忘憂異馬牛吃, 無曰破膽非扁鵲劑. 在童幼婢僕之侍從可謂紅不甘醬, 於賓朋僚友之應對誰道藥能兼魚. 念玆草種自西南, 盖世人用如水火. 捨似飢食不飽獨漏炎皇醫人之方, 豊無飫凶益貪豈若堯帝指佞之號. 種藍田而色紫歌商確四仙之芝, 啜菊英而臭香吟草澤三閭之蕙. 雖云百卉中第一味, 果然千載下無此名. 雜碎蛛絲而塡石筒黃冠野夫之滋味攸在, 細截蜈足而納銀箋朱門先達之風致自如. 露赤脚褰獨禪雨中生烟靑簑裡, 駝朱顔停兕酌月下玩味銀燭前. 是所謂眷小失大, 孰不曰禮重食輕. 乃若蓧苓之煎根庶見延年益壽之效, 非如葵藿之繁葉尙存傾日向上之姿. 世皆知爲利甚焉多種膏腴之地, 人必曰無是餒也遂成痼癖之風. 噫, 病民之莫醫良有是耳, 習俗之難變乃至此乎. 袖出竹而未見若錐安在謹愼之行, 腰佩匣而半露如印奈侍函丈之筵. 借使吸香而勉飢寒一勺, 如敎耽味而能壽考百畝. 可當瑤光之草, 盡爲靈芝之疇.

동전을 사용하는 고질적인 폐단

시장에 두(斗), 형(衡), 척(尺)이 없을 때 한낮에 교역(交易)하지만 어수룩하고, 세상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가진 후에도 천하가 이익 다투기를 골몰한다. 세력은 있다고 말하지만 사용할 기구는 없다. 진(秦)나라 시대에 반량(半兩)은 한(漢)나라 때 4수(銖)이다. 밖은 둥글고 안은 모가 나서 막대한 천지(天地)의 형체를 나타내고, 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임금의 지중(至重)한 명령을 갖기도 하였다. 가만히 나라에서 돈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니 대개 백성들에게 돈을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 청쇄(靑瑣)와 자달(紫闥)을 열었으나 장엄(莊嚴)한 혼시(閽寺)에는 문지기가 없고, 백옥(白玉)을 사고 황금으로 바꾸어 시정(市井)의 이두(利竇)를 열어주었다. 오직 공방(孔方)을 시키면 무엇을 이루지 못할까마는 중고(中古)에 돈의 폐단이 많았다. 교묘히 형가(兄家)와 같이 항시 친하여 때때로 놓아둔 적이 없었지만 쇠락하는 말기에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정치가 나왔었다. 중정관(中正官)을 두었으나 화뢰(貨賂)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공포(孔褒)의 논의가 절대 압도(壓倒)하였고, 사주령(私鑄令)을 제거하여 연철(鉛鐵)을 공교롭게 섞으니 고생(賈生)의 상소(上疏)가 타당하였다. 한(漢)나라에서 유엽전(榆葉錢)을 주조하여 갑자기 물가가 앙등하고 쌀 1석(石)의 가격이 1만냥이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상평통보(常平通寶)와 바꾸지 않았고, 위(魏)나라에서 아안전(鵝眼錢)을 사용하여 상인들이 숨겨두고 팔지 않아 돈이 손에 가득히 천냥이었으니, 이것은 여러 나라에 있지 않은 문자(文字)였다. 기자조선(箕子朝鮮)[714]에서는 개간(改刊)하여 그 뜻이 중(重)하거나 경(輕)하지도 않은 것을 취하여 이름을 전기(田器)라고 하고 오곡(五穀)을 호미질하여 항시 야부(野夫)와 농부의 허리춤에 있었고, 청제(淸帝)의 강희(康熙)[715] 연간에 반포하지 않은 것은 그 도리를 무편무당(無偏無黨)에 두어 이름을 화천(貨泉)이라고 하고, 천금(千金)을 생산하여 평등하게 부상(富商)과 대상(大商)의 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개 조가(朝家)에서 궁궐을 수축하는 일에 사용하였고, 묘당(廟堂)에서 조폐령(造幣令)을 논의하였다. 촉한(蜀漢)은 유파(劉巴)의 모책(謀策)을 받아들여 고갈된 경용(經用)을 걱정하지 않았고, 황명(皇明)은 천계통보(天

714) 기자조선(箕子朝鮮) : 단군조선에 이어 서기전 1100년 경에 건국한 초기국가로 서기전 195년 위만(衛滿)에게 멸망할 때까지 900여 년 동안 존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5) 강희(康熙): 중국 청나라의 4대 황제인 성조의 연호로 1662년부터 1722년까지 사용하였다.

啓通寶)를 주조하여 다시 탕장(帑藏)이 비어있지 않았다. 많은 금액을 얻은 것은 없으니 어찌 누거만(累巨萬)의 경비 뿐이겠는가. 그 방도(方道)가 아닌 것으로는 어려우니 한 사람이 백 명을 당하도록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 세태(世態)가 대부분 빈약한 사람은 더욱 곤궁해지고 저자의 물건 가격은 배나 또는 두 배가 높지만 강호(豪强)들이 침릉(侵凌)하였다. 이로부터 숨기는 사람이 많아 추조(秋曹)에서는 경포(鯨布)의 보고가 그치지 않고, 이에 작은 이익도 나누는 일이 심하여 해시(亥市)에서 간교한 사거래(私去來)를 금지하기 어려웠다. 주사(酒肆)에서 이름을 숨긴 갈부(褐夫)는 백계(百計)로 분전(分錢)을 얻어 날마다 가슴을 적시었고, 모옥(茅屋)에서 행실을 돌아본 가난한 선비는 만 번 생각해도 척동(尺銅)을 판출(辦出)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밤을 지새웠다. 성총(聖聰)을 되돌려 온 백성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고, 온 국경(國境)에 모두 양전(兩錢)의 명령을 제거하였다. 동방(東方)에 철모(蛈母)가 있어 논할 것도 없이 건륭(乾隆)과[716] 가경(嘉慶)[717] 연간에 많은 수출을 하였고, 고국(古國)에는 유엽(楡葉)이 떨어졌으나 썩지 않아 그 사이 관영(寬永)[718]과 개원(開元)[719] 연간에 혼용되었다. 공도(工都)에 따라 나누고자 하는 소심(素心)은 대개 억만(億萬)으로 헤아리고, 하민(下民)과 화합하여 견디기 어려운 정황은 1~2푼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미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꾸었지만 어찌 천강(千鎰)이나 많아도 한 촌(寸)도 차지 않아 금(金)과 동(銅)이 진흙보다 천할 줄 알았으며, 괴이한 것은 비교하는 것을 뒤에 하고 물건은 먼저 챙겨 백실(百室)에 가득해도 풍요롭게 여기지 않고 일승(一升)의 미속(米粟)이 옥(玉)같이 더욱 높게 치솟았다. 과연 인심은 헤아리기 어려워 한번 변한 풍속은 바꾸기 어렵고, 대개 물가가 높이 올라 세 번이나 돈을 바꾸어도 더욱 심하였다. 이것을 사용하기 물같다고 말한 것이며, 누군들 냇물을 막는 것보다 심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다시 대전(大錢)을 주조하였으나 옛 동전을 사용하는 것보다 못하였고, 오랑캐의 물건을 많이 내어놓았으나 또 새로 주조하여 유행시킨 것만도 못하였다. 스스로 말하기를 당당히 나라가 세워지는 초기에 동전을 사용할 때는 백성들이 화기(和氣)로웠다고 하였으니, 어찌 다시 영원히 우리 동방의 통보(通寶)로 풍속이 더욱 피폐(疲弊)하겠는가. 아! 병든 백성을 치료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이런 일에서 나온 것이니 습속을 변화하기 어려움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는가. 말기(末技)를 일삼는 것은 놀고 먹는 백성들이 밭농사를 짓다가 또 의료(宜僚)의[720] 탄환(彈丸)과 여포(呂布)의[721] 화살을 연습

716) 건륭(乾隆) : 중국 청나라 고종 때의 연호로 1735년부터 1795년까지 사용하였다.
717) 가경(嘉慶) : 중국 청나라 인종 때의 연호로 1796년부터 1820년까지 사용하였다.
718) 관영(寬永) : 일본의 연호 중 하나로 1624년부터 1643년까지 사용되었다.
719) 개원(開元) : 중 당(唐)나라 현종(玄宗)의 두 번째 연호이다. 713년 12월~741년까지 28년 1개월 동안 사용되었다.
720) 의료(宜僚) :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장왕(莊王) 때 활동한 인물이고, 농환(弄丸)에 능했다.
721) 여포(呂布) : 중국 후한 말기의 무장으로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나 병주자사(幷州刺史) 정원(丁原)의 수하에 있다가 그를 죽인 후 동탁(董卓)에게 귀순하였는데, 왕윤(王允)과 모의하여 동탁마저 죽

하였고 항심(恒心)을 갖고 굶주림을 즐기는 선비들은 몸을 수양하고 행실을 격려하지만 겸하여 동생(董生)의[722] 경전(耕田)과 예관(倪寬)의[723] 호미질을 하는 것도 알았었다. 여러 서민(庶民)이 굶주림과 추위를 겪지 않고 궁포(弓砲) 쏘기를 잘한다면 동방(東邦)에는 적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며, 여러 선비들이 가난하여 굶주리고 있지만 충효를 내세운다면 서양은 두려운 오랑캐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금전(金錢)의 크고 작음과 가볍고 무거움은 이해(利害)가 되지 않는 것이니 의리를 생각해야 하고, 물건의 많고 적음과 귀하고 천함도 시세(時勢)에 따라 서로 사고팔아야 하는 것이다. 도유우불(都兪吁咈)의[724] 기풍(氣風)이 어찌 요순(堯舜)의 시대같지 않은 것일까. 희호환우(熙皞驩虞)의[725] 풍속이 거의 문무(文武)의 정치에 미칠 것이다.

○ 用錢痼弊

市無斗衡尺之時, 日中交易而貿貿, 世有分毫釐 而後, 天下爭利而營營. 有勢力言, 無用器也. 秦世半兩, 漢時四銖. 外以圓內以方象天地莫大之形體, 生可殺死可活, 秉人主至重之命令. 窃念邦國之用錢, 盖欲民人之通寶. 闢靑瑣排紫闥無嚴閽寺之抱關, 沽白玉易黃金稍開市井之利竇. 惟其孔方之所使, 抑何爲而不成肆中古爲錢之弊多矣. 乃若兄家常親亦無時而可捨, 而季世病民之政出焉. 置中正官而貨賄公行, 孔褒之論絶倒, 除私鑄令而鉛鐵巧雜, 賈生之疏便宜. 漢鑄榆葉而物價忽騰, 石米直万, 然我國不易之常平, 魏用鵝眼而賈藏不市掬盈錢千, 寔諸邦所無之文字. 箕子之朝鮮改刊義取不重不輕名云田器, 而鋤五穀常常在野夫農人之腰, 淸帝之康熙未頒道在無偏無黨號曰貨泉, 而産千金平平用富商大賈之手. 迨朝家營修宮之事, 方廟堂議造幣之令. 蜀漢納劉巴之謀, 無憂經用之竭, 皇明鑄天啓之寶, 不復帑藏之空. 不如多得錢, 奚啻累鋸萬之費, 難以非其道, 遂教一當百之行. 世態萬千貧弱愈困, 市價倍屣【篋】豪强侵陵. 由是而隱屛者多, 秋曹不止黯市之報, 於斯焉析毫爲甚, 亥市難禁奸枉之私. 酒肆藏名之褐夫, 百計得分葉而澆胸連日, 茅屋顧行之寒士, 万無辦尺銅而束手經霄. 回聖聰細察萬民之情, 擧國境悉除兩錢之令. 東方之蚌存而勿論, 多輸乾隆嘉慶, 古國之榆落而不朽, 間雜寬永開元. 遵工都欲班之素心, 盖以億萬計, 諧下民難堪之情事, 任用一二分. 旣以小易大彼惡知多千鐌, 而不滿視寸金分銅賤於泥, 怪底後比前物益踊盈百室, 而未爲豊升米粟貴如玉. 果然人心之叵測, 一變俗而難移, 大抵物情之高騰, 三易

였고, 후에 조조에게 붙잡혀 죽었다.

722) 동생(董生) : 중국 한나라 초기의 도가 사상이 유행할 때 유교의 터전을 군건히 한 대표적인 유학자 동중서(董仲舒)를 말함.

723) 예관(倪寬) : 중국 전한시대 천승(千乘) 사람. 집안이 가난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작인, 품팔이 등을 하면서도 경전을 가지고 다녔으며, 벼슬은 정위(廷尉), 중대부(中大夫), 좌내사(左內史), 어사대부(御史大夫) 등을 역임했다.

724) 도유우불(都兪吁咈) : 요(堯) 임금이 신하와 정사를 의논할 때 사용한 찬성과 반대의 감탄사로, 임금과 신하가 하나가 되어 토론한다는 뜻.

725) 희호환우(熙皞驩虞) : 백성의 생활이 편안하여 매우 즐겁고 평안함.

錢而尤甚. 是可謂用之如水, 孰不曰甚於防川. 更造大錢, 反不如舊銅之用, 多出胡物, 又未若新鑄之行. 自謂用堂堂, 國初之銅民必和矣, 夫何復永永, 吾東之寶俗漸敝焉. 噫, 病民之莫醫良由是耳, 習俗之難變乃至此乎. 事末技遊食之民緣畝治疇, 而且習遼丸布射, 有恒心樂飢之士修身勵行, 而兼知董耕兒鋤. 衆庶不飢寒而善於方砲, 則東邦爲無敵之國, 諸儒無貧餒而進於忠孝, 則西洋非可畏之夷. 然則錢之小大重輕, 不爲利害而思義, 物之多寡貴賤, 亦從時世而相售. 都兪吁咈之風, 何不若堯舜之世, 熙皞驩虞之俗, 庶可及文武之治.

향교의 여러 어른께 올리는 단자

나라의 원훈(元勳)은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으므로 휴척(休戚)을 같이 합니다. 나라의 정치는 걱정을 먼저하고 즐거움을 뒤에 해야 백성들이 이를 힘입어 편안하게 될 것이니, 상(商)나라의 이윤(伊尹), 부열(傅說)과 주(周)나라의 주공(周公), 소공(召公)이 이에 해당한 분입니다. 이윤과 부열은 초야(草野)의 신하이지만 아형(阿衡)과 상공(相公)의 위치에 있으면서 언제나 경계(警戒)하고 교회(敎誨)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훈(伊訓)과 열명(說命)의 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공과 소공은 종친(宗親)의 신하로 총재(冢宰)와 후백(侯伯)의 직책에 있으면서 오로지 정치를 하고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 일은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의 시(詩)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나라는 성왕(聖王) 6~7명이 태어나 600여 년의 복을 누렸고, 주나라는 30여 세(世)를 전하여 800년을 누리었는데, 참으로 이윤과 부열이 보필(輔弼)한 공훈이며, 주공과 소공이 이치를 밝히는 힘이었으며, 고택(膏澤)은 사해(四海)에 미치고 영명(令名)은 천재(千載)에 전하였으니, 이른바 나라의 원훈이 주석(柱石)으로 있는 것은 백성들이 의지하는 반석(磐石)과 태산(泰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공은 자신이 천자(天子)의 숙부(叔父)였고, 직책이 총재의 중임(重任)에 있으면서 자기 혼자 천하에 큰 공훈을 남겼으므로 토지를 하사하여 동방에서 제후(諸侯)가 되게 하였고, 예악(禮樂)을 하사하여 왕의 제도를 사용하게 하였으니, 원성(元聖)의 대훈(大勳)과 위덕(威德)은 이윤과 부열에게 비하여 후세에 미칠 바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대로(大老)인 대원위(大院位)는 지존(至尊)의 아버지로서 높게 태상(太上)의 위치에 있으면서 일에 임하여 구차하지 않고 기회를 결정하기는 물이 흐르듯이 하였으니, 이것은 주공이 승상(丞相)의 일을 대신하여 행하던 때입니다. 원년(元年) 갑자(甲子)에 바야흐로 많은 일들이 시급하였는데, 이해는 병인년으로 온갖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복성성조(復聖聖祖)가 처음 잡은 빈터를 생각하고 선대의 왕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공이 낙읍(洛邑)을 운영하고 있던 때입니다. 지혜로 서정(庶政)을 결정하고 모든 벼슬아치들이 직무를 단속하여 통솔하고, 백성들이 은혜를 간직하여 사방에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으며 말하지 않아도 믿고 명령하지 않아도 이행되어 목재와 돌을 모두 운반해 오고 공장(工匠)도 모두 천거(薦擧)되었습니다. 황천(皇天)은 다시 명령하고 일반 백성의 자

제들은 달려와 모든 담장을 조성하고 구중궁궐(九重宮闕)을 옛날처럼 지었습니다. 만일 의심스러운 모책(謀策)이 아니면 용기를 내어 결정하고 신지(神智)를 발휘하더라도 어찌 수백 년 동안의 쌓인 폐단을 2~3년 만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승상 소하(蕭何)[726]가 미앙궁(未央宮)[727]을 지은 것과 달라 웅장하고 위엄스럽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에 유파(劉巴)의 대전(大錢)을 꾀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한양(漢陽)이 모두 새로 지어져 일반 서민이 다시 옛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공이 잔치를 베풀던 때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육조(六曹)의 백각(百閣) 제사(諸司)와 밖으로 사도(四都)와 팔도(八道)에 이르기까지 관가의 건물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였고, 각처의 능원(陵園)과 침묘(寢廟)는 빛나고 여러 고을의 향교와 서원의 마룻대와 지붕은 질서가 가지런하여 모두 그 옛날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친족을 친근히 하는 것은 선원(璿源)을 참고하여 대군(大君)과 왕자(王子)의 자손을 발탁하여 현저하게 영화롭게 하고 현인(賢人)을 어질게 여기는 것은 선정록(先正錄)의 충신과 열사(烈士)의 후예들을 생각하여 남달리 총애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주공보다 어려웠습니다. 음탕한 사람을 방축(放逐)하고 사특한 사람을 종식(終熄)시키며 근본의 빼버리고 근원을 막으므로 서양학(西洋學)이 동토(東土)에 유행하는 일이 없었고 갑옷을 손보아 고치고 병사를 훈련하며 험한 곳을 점거하고 요해처(要害處)를 수비하여 적들이 감히 서하(西河)를 엿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주공이 비렴(飛廉)과 이적(夷狄)을 몰아내는 때입니다. 이때 진선생(陳先生)의 교화가 주상(主上)의 귀를 열어주었는데, 이것은 주공이 빈시(邠詩)를 읊조리고 암송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엄이 무력(武力)을 억제하니 호강(豪强)들이 도망가고 민적(民賊)을 조사하므로 적한(賊汗)이 두려워 움추러들었으며, 명분을 바로하고 기강을 세웠으며, 위와 아래의 문란한 폐단을 개혁하고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여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걱정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화를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주공이 예(禮)를 제정하는 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워 물어보고 인재를 취하여 착하고 어진 행실로 몸을 낮추어 접견하고 선비에게 낮추어 현인(賢人)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주공이 토포(吐哺)하는 때입니다. 주공은 직위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남의 말을 받아들여 정치하고, 주공은 공훈이 있더라도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았으며, 주공이 보좌(補佐)를 행하여 왕실이 더욱 융성하고 10년 동안 정치하여 국가가 태평하고 성왕(成王), 강왕(康王)의 인풍(仁風) 선속(善俗)과 문제(文帝), 경제(景帝)의 부속(腐粟) 후전(朽錢)도 이보다 더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도적을 예방하여 기계(機械)를 모두 비축하였으므로 진(秦)과 초(楚)의 튼튼한 갑옷과 연(燕)과 한(韓)의 강하고 단단한 활도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안책(濟安

726) 소하(蕭何) :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의 오랜 친구였으며, 유방이 기병할 때부터 줄곧 그를 도와 한나라를 세운 다섯 공신 가운데 으뜸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727) 미앙궁(未央宮) : 중국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장안의 용수산에 조성한 궁성 이름이다.

策)을 사용하였으나 나중에는 부강술(富强術)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주공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원위 합하(閤下)의 뚜렷한 사업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다만 척사양이(斥邪攘夷)는 온 나라를 바로잡았을 뿐 아니라 천하가 바르게 돌아갔으며 이단(異端)의 유행이 홍수보다 심하였으므로 "맹자의 공이 우(禹) 임금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 음탕한 사람을 방축하고 사특한 사람을 없애버린 정대(正大)한 기강은 또 맹자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개 동방인들은 주공의 어려움을 보려고 하였으므로, 그 시에 이르기를 "공은 겸손하고 크고 아름다워 덕음(德音)에 결점이 없도다."라고 하고,[728] 또 이르기를 "이 때문에 곤의(袞衣) 입으신 분이 계시더니 우리 공(公)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라고[729]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공은 우리 고을에서 살고 있으니, 이것은 주공이 동방에 사는 때입니다. 우리 동주인(東州人)들은 우리 공의 어려움을 보려고 하고 또 동산인(東山人)까지 더하고 있으니 바로 사마공(司馬公)의 화사(畵師)인 부사(富肆)가 진서산(眞西山)의 생사당기(生祠堂記)에 협조(協助)하는 것과 맞는 일이므로 반드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며, 큰 덕이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복록(福祿)을 얻는다. 오직 우리 공(公)께서는 상을 받지 못할 공(功)이 있었으나 봉록(俸祿)이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무슨 명칭을 붙일 수 없었으며, 장차 경현서원(景賢書院)에 배향하려고 하나 여러 유생들의 공의(公議)가 협조하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선정(先正)에게 배향하려고 하지만 우리 공의 평소의 지조를 알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여 그 훈로(勳勞)를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내고 그 명망과 덕행을 칭송할 수 있을까요. 군자가 사람을 교화하는 것은 가정마다 방문하거나 사람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함부로 천양(闡揚)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 나라의 공사(公事)인데 식견이 얕고 좁은 내가 외람되이 현명한 사적(事蹟)을 나열하여 감히 여러분 앞에 드리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나의 책임이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론을 모아 관청에 호소하여 제사(題辭)를[730] 얻어내고 각 면에서 자금을 모아 한 외진 곳에서 향사(享祀)하려고 특별히 말고 깨끗한 곳에 생사당(生祠堂)을 건립하여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동방의 대로(大老)인 대원위를 알도록 영정(影幀)을 모신 묘우(廟宇)에 원훈(元勳)을 표창하고 덕을 빛내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화기로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른바 은혜와 덕택이 온 세상에 유통하고 좋은 명성이 천년에 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높은 분을 존경하고 귀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교화를 알게 한다면 동방은 그 삼대(三

728) 『시경』의 「빈풍편(豳風篇)」 낭발(狼跋)에 "公孫碩膚, 德音不瑕" 내용이 보인다.
729) 『시경』의 「빈풍편(豳風篇)」 구역(九罭)에 "是以有袞衣兮, 無以我公歸兮" 내용이 보인다.
730) 제사(題辭) : 조선시대 관부에 올린 민원서의 여백에 쓰는 관부의 판결문, 또는 처결문으로 뎨김 [題音] 이라고도 한다.

代)의 정치에 가까울 것이니, 어찌 우리 고을의 훌륭한 일과 생도(生徒)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오직 여러 집사(執事)들은 가결(可決)만 있고 부결(否決)이 없으며, 다른 의견이나 논의는 없고 같은 의견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학문이 없고 보고 들은 것이 적고 얕은 사람의 말이라고 현실과 거리가 멀다거나 크게 과장한 말이라고 생각하여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니 일제히 서로 논의하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사(有司)를 선택하고 막중한 원훈(元勳)의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표하여 드러내고 높이 현창(顯彰)하여 그 문장(文章)이 빛나고 그 덕이 높아진다면 어찌 사림(士林)이 훌륭하고 유풍(儒風)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을 몇 사람의 선비는 홍유(鴻儒)나 석사(碩士) 아닌 사람이 없지만 덕을 현창하고 현인(賢人)을 사모하는 일에는 오직 성균관 유생과 영남의 선비에게 뒤지는 것일까요. 참으로 여러분의 모책(謀策)을 듣고 특별히 큰 일을 도모하게 되었으니, 천만번 매우 다행이며 천만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 校中 僉尊座下 單子

國之有元勳, 民之所倚重也. 同休共戚, 國以之治, 先憂後樂, 民賴而安, 裔之伊傅周之周召是也, 伊傅草莽之臣也, 而在阿衡相公之位, 每倆戒納誨於載, 伊訓說命之書, 周召宗親之臣也, 而居冢宰侯伯之任, 專修政布德事, 見周南召南之詩, 商所以作聖六七享祚六百, 周所以傳世三十卜年八百, 誠伊傳輔弼之功, 而周召變理之力也. 膏澤流於四海 令名留乎千載, 所謂國之有元勳柱石, 民之所倚重盤泰者也. 然而周公身爲天子之叔父, 職在冢宰之重任, 獨有大勳勞於天下, 故錫之□□, 俾侯于東賜以禮樂, 用王之制, 元聖之嵬勳, 盛德非伊傳之可比, 後世之可及也. 況吾大老大院位, 親爲至尊之爺, 貴在太上之位, 臨事不苟, 決機如流, 此則周公攝行相事之時也. 元年甲子衆務方急, 是歲丙寅, 百廢俱興, 思復聖祖, 始卜之墟, 欲遂先王, 未果之志, 此則周公營洛之時也. 智決庶政百官總已, 以聽恩懷, 下民四方引領, 以望不言, 而信不令, 而行木石, 皆至工匠畢擧, 皇天申命, 庶民自來, 百堵皆興, 九重依舊, 如非疑謀勇, 決神智英發, 豈以屢百歲之積弊, 乃於數三年而告成乎. 旣異蕭相治, 央宮之制, 非欲壯威, 乃用劉巴鑄大錢之謀, 自是安民耳. 漢陽咸若新造, 齊民復覩舊儀, 此則用公燕落之時也. 至若內而六曹百閣諸司, 外而四都八道公廨日新如舊, 各處陵園寢廟奕奕, 諸縣校院棟宇翼翼, 咸復其故親親, 則歷考璿源, 擢大君王子嗣孫, 而顯榮之賢賢, 則追思先正錄忠臣烈士後裔, 而寵異之, 此則又難於周公也. 放淫息邪, 拔本塞源, 洋學無復行東土, 繕甲鍊卒, 據險守要, 賊寇不敢窺西河, 此則周公驅蜚廉兼夷狄之時也. 時陳先王之化, 以啓主上之聰, 此則周公諷誦邠詩之時也. 威制武斷豪强鼠竄, 考按民賊贓汗蝟, 縮正各立綱革, 上下紊亂之弊, 賙窮恤貧, 解民人飢寒之慍, 此則周公制禮之時也. 虛已以問取人爲先, 傾身引接, 下士得賢, 此則周公吐哺

之時也. 居周公之地位, 而勤約爲政, 有周公之勳勞, 而謙退不伐, 行周公之挾輔, 而王室益隆爲政十年, 而家國泰平成康之仁, 風善俗文景之腐粟朽錢, 無以加焉. 防盜數歲 而器械咸備, 秦楚之堅甲利兵, 燕韓之强弓勁弩, 不能當也. 始以濟安之策, 終爲富强之術, 此則又不在周公之下也. 然我大院位閣下, 赫然事業, 不得一一條貫, 而但斥邪攘夷, 不啻正一國, 而使天下歸正也. 異端之行, 甚於洪水, 故曰, 孟下之功, 不在禹下, 今此放淫息邪之正大綱紀, 又不在孟子之下也. 盖東人欲見, 欲見周公之難, 故其詩曰, 公孫碩膚德音不瑕, 又曰, 是以有衮衣兮, 無以我公歸兮, 今我公居吾鄉, 此則周公居東之時也. 吾東州之人, 欲見我公之難, 又有加於東山之人, 正宜司馬公畵師之富, 肆協眞西山生祠之記, 必不賞大德必得祿, 惟我公有不賞之功, 而處無祿之位, 民無能名將, 令配于景賢, 而疑不協, 諸生之公議, 欲從享於先正, 而恐未諳, 我公之素操矣. 抑何爲而顯其勳勞, 稱其名德乎哉. 君子之化, 人非家至, 而人說之也. 豈以一人之私妄, 自姿意闡揚乎, 乃一國之公也. 猥以賤陋之縱, 敢陳賢明言蹟, 拜獻于僉尊前, 冀以成事爲己任, 不成爲己責, 建策之議, 訴官得題, 鳩財各面, 龜食一隅, 別建生祠宇於淸澗之地, 使後世之人, 知其爲東邦大老大院位影幀, 廟宇以表元勳, 以章有德得, 瞻儀容獲承韶顔, 卽所謂膏澤, 流於四海, 令名留乎, 千載者也. 使民知尊尊貴貴之化, 則東邦其庶幾, 爲三代之治, 豈非吾鄉之盛, 而生徒之願也歟. 伏惟諸執事, 有可無否, 無異有同, 雖以蔑學淺見之言, 勿謂汙闊張大而不爲也. 一齊商確, 擇出有司可堪之人, 則建元勳莫重之祠, 表而著之, 尊而顯之煥乎, 其有文章嵬乎. 其有功德, 則豈非士林之郁郁, 而儒風之彬彬者乎, 以吾鄉, 幾人章甫, 非無弘儒碩士, 而至於彰德慕賢之事, 獨後於館儒嶺士也哉. 詢同僉謀, 另圖大事之地, 千萬千萬幸甚.

서간(書簡), 정석초(鄭石樵)에게 보낸 서신

옛사람들은 서로 생각나면 천 리 길도 수레를 몰고 가는데, 지금 서로의 거리가 하룻밤 양식을 찧어서 준비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소식이 서로 통하지 못한 지 이미 한 해가 지났습니다. 서로 간절한 생각이 옛사람보다 못하여 그런 것일까요. 좌하(座下)를 이별하고 놀라운 일을 만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보면 문득 사람들과 대화하신 것이 생각났었는데, 서신을 받아보고 마음의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 수시로 그립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대개 날마다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 혹 하루에 4~5차례나 꿈속에 나타나고 있으니 비록 옛사람이 서로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도 이와같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웃에 시사(詩社)를 결성하여 갈대가 나무에 의지하듯 사는 것이 평생소원이고 옛날의 약속인데, 아직도 단호하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못나서가 아니라 안주(安住)하고 있는 땅에서 거듭 옮겨가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영공(令公)의 처지와 포부가 결국 임하(林下)에서 각건(角巾)을 쓰고 살지 못한다면 그때의 생각이 끈이 끊긴 표주박이 되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또한 낭패를 당한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니 이 점을 생각하면 결정을 하지 못하여 간혹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 먹는 것을 잊기도 하므로 사랑하신 성의(盛意)를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영공(令公)의 출처를 말씀드린다면 옛날 현인(賢人)은 궁액(窮厄)으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견(主見)이 있어 이행(履行)할 만한지를 헤아려 이행하고, 중지할 것을 헤아려 중지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고명(高明)께서는 이미 익숙하게 강론(講論)하였을 것이므로 서신으로 말을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 書間【簡】鄭石樵書 書間【簡】

古人相思千里命駕, 今相距不過宿舂糧, 而相阻已歷寒暑, 抑相思之切, 不及古人而然耶. 自別座下遇物之可駭處, 輒思見事之難解處, 輒思對人談論, 無時不娓娓看書激昂, 無時不耿耿大率日, 無不思之日, 或一日四五次, 至發於夢寐, 雖古人相思之深想, 亦不能加, 此必欲結社於芳, 以爲蒹葭之倚, 玉樹平生之願也, 宿昔之約也. 尙未能決然行之者, 非專爲庸庸碌碌, 不能安土重遷, 第念令公處地, 抱負終不能, 林下角巾, 則伊時慮爲絶纓之瓢, 非但受人嗤笑, 亦自良貝不少. 以此思量不決, 或至失睡忘飯, 恐負績緡之盛意也. 且以令公出處言之, 在昔賢人, 不以窮厄, 動心必自有主見度, 其可行而行之, 可止而止, 伏惟高明已講之熟矣. 書不盡言.

정 석 초(鄭石樵)에 게 답 장

머리를 조아립니다. 한 해가 지나고 봄이 되었으나 뵈옵지 못하고 서신도 올리지 못하였으니 구차한 이 마음 수시로 그립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엎드려 서신을 받아보고 두세 번 읽어 보았습니다. 특히 사랑과 깊이 경계(警戒)하신 말씀 평생동안 처음 들었으므로, 마음과 가슴에새겼으니, 그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때로 생각나면 다시 서신을 하루에 몇 번씩 보고 있습니다. 즉시 감사의 말씀을 올리려고 해도 심부름하는 하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 아직까지 송구스러운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 두 손으로 받쳐 읽으니 종이에 가득히 정과 사랑이 넘쳐 그 감사함을 더욱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삼가 봄철 기후가 좋지 않은데 건강상태가 날마다 편안하시며 가족도 모두 편안하신지요. 현포(賢抱)는 공부 잘하고 있으며, 완건(完健)의 애장(哀狀)은 위로를 드리고 또 빌겠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장차 10여 개에 이르고 감나무도 심으실 것이니 좌하(座下)의 용기가 어찌 이와같이 씩씩하십니까. 그 뜻이 어찌 소나무와 대나무와 감나무에 있는지요. 지금의 병통은 나태한 마음이 습관처럼 술과 여색(女色)을 즐기지 않으면 반드시 잡기(雜技)에 물들어 결국 패가망신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고을 원님도 그 폐단을 구제(救濟)하지 못하고 부형(父兄)들도 넘치는 일을 금지하지 못하였으며, 오직 존좌(尊座)에게 나가서 아뢰지도 못하고 물러나 글을 읽고 있을 때는 충효를 권하여 온 고을이 변화하였고, 나무를 심는 데 노력하여 부지런하고 성실하므로 9명의 이웃 사람들이 본받았으며, 옛날 남전향약(藍田鄕約)이[731] 천고(千古)에 전하였고 심양(潯陽)의 은사(隱士)들이 천하에 그 덕을 칭송하였으며, 지금 군자들이 낚시질하고, 한 산골짜기의 만물들이 그 뜻을 방해하지 않았고, 한 구릉에 느긋하게 돌아다니고 노닐며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음도 그 즐거움을 바꾸지 못하였으며, 시례(詩禮)의 스승을 자임(自任)하여 강해(江海) 사이에 사학(邪學)을 배척하였으니, 이 죄인이 예전부터 바라고 의지한 마음 어찌 잠시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마을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 꽉 막힌 이 가슴이 열리었습니다. 경과(慶科)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앞서 서울에서 저희 집까지 오셔서 그동안 막혔던 회포 풀기를 천 번 바라고 만 번 기대합니다. 고애자(孤哀子)는 금년부터 술을 마신 증상으로 인하여 그 병의 근원을 의사에게 물어보니, 생각을 과도하게 하여 화기(火氣)가 병이

731) 남전향약(藍田鄕約) : 중국 북송 때 향촌을 교화, 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향촌자치규약인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鄕約)을 말한다.

되었다고 하므로, 계속 화기가 내려갈 약재(藥材)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현저한 효과가 없으니 고민되고, 고민됩니다.

○ 答鄭石樵

稽顙經歲, 至春未得拜穩尺書, 亦未一呈, 區區下懷, 無時不耿耿. 向伏承下疏, 伏誦再三, 特愛深戒, 平生初得, 銘肝刻腑, 感不能勝言. 有時懷想, 則更讀書牘, 一日幾度, 卽當上謝, 專隸之外, 更無他路, 尙切悚悵. 又伏承惠疏, 又擎讀, 滿幅情愛, 尤不任感佩, 萬萬謹審, 春候乖宜, 體候連護萬安, 閤節幷安, 賢抱善讀, 完健哀伏慰, 且祝之至, 而栽竹植松, 將至十數種柿, 必兼之座下, 勇邁此何壯耶. 意何在. 松竹柿木然乎. 爲今之病, 懈惰成習, 不入於酒色, 必染於雜技, 竟至亡身敗家, 不自覺知官長, 不能救其弊, 父兄無以禁其濫, 惟尊座進不能達, 退讀勸忠孝, 一鄕化之力, 植種勉勤幹, 三三隣效之, 古者藍田之約, 遍行於千古, 潯陽隱誦德於天下, 今君子以之漁釣, 一壑萬物, 不奸其志, 棲遲一丘富貴, 不易其樂, 自任於詩禮之師, 升邪於江海之間, 罪人宿昔之望, 依豈敢暫弛也. 何則築室同閈, 久承敎誨頓開茅塞也. 慶科在爾, 此前洛駕下臨鄙室, 以敍積阻之懷, 千望萬企. 孤哀子, 自始年因飮之症, 終不去根問於醫家, 思慮過度火發爲出示云, 連施降下之屬, 見無顯效, 苦悶苦悶.

『소성진중일지(邵城軍中日記)』

번역·해제 학술연구 용역


中듕國귁에달아
조서로ᄉᆞ뭇디아니ᄒᆞ

「소성진중일지」 번역 · 해제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발 행 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발 행 일 2024년 11월
연 구 기 관 (주) 만월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